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23. 4.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23.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수정사항

구분	당초					수정					Page
연구분야	2. 평가항목(지표/요소)별 평가등급					2. 평가항목(지표/요소)별 평가등급					32
	■ 연구 분야(배점 800점)					■ 연구 분야(배점 800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등급 (평균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등급 (평균점수)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연구1분과)				B (88.17)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연구1분과)				B (87.78)	
	1-1-1. 연구과정 관리	정성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87.50)	1-1-1. 연구과정 관리	정성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87.50)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86.40)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86.40)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85.50)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82.20)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85.70)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85.70)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87.80)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87.80)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B (89.80)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B (86.40)			
		정량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71.20)		정량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71.20)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88.84)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88.84)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99.02)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99.02)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정성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90.50)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정성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90.50)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86.20)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86.20)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87.30)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87.30)			

구분	당초					수정					Page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등급 (평균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등급 (평균점수)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연구2분과)				B (86.66)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연구2분과)				B (86.66)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정성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86.26)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정성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86.26)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정성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B (89.32)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정성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B (89.32)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09)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09)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정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03)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정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03)			
	1-2-2. 협동 연구보고서 우수성	정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33)	1-2-2. 협동 연구보고서 우수성	정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33)			
연구분야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현황]					195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D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D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D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D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A	

구분	당초				수정				P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C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C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해외사무소 평가결과)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해외사무소 평가결과)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CONTENTS

I

연구기관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근거	3
2. 평가 추진체계	4
3. 평가대상 기관	6
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7
5. 평가기준 및 등급 부여기준	12
6. 평가 방법	23
7. 평가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26

II

평가결과 종합

1. 연구기관별 평가등급	31
2. 평가항목(지표/요소)별 평가등급	32
3. 분과별 종합평	34
4.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및 우수보고서	44
5. 연구기관 평가결과 후속조치	47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1
2. 국토연구원	91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9
4. 산업연구원	193
5. 에너지경제연구원	235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67
7. 통일연구원	303
8. 한국개발연구원	337
9. 한국교육개발원	369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07
11. 한국교통연구원	439
12. 한국노동연구원	479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11
14. 한국법제연구원	551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87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23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57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695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31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67
21. 한국행정연구원	807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841
23. 한국환경연구원	877
24. 건축공간연구원	907
25.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941
26. 육아정책연구소	979



I

연구기관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근거
2. 평가 추진체계
3. 평가대상 기관
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5. 평가기준 및 등급 부여기준
6. 평가 방법
7. 평가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1. 평가 목적 및 근거

■ 평가 목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무수행의 결과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평가 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9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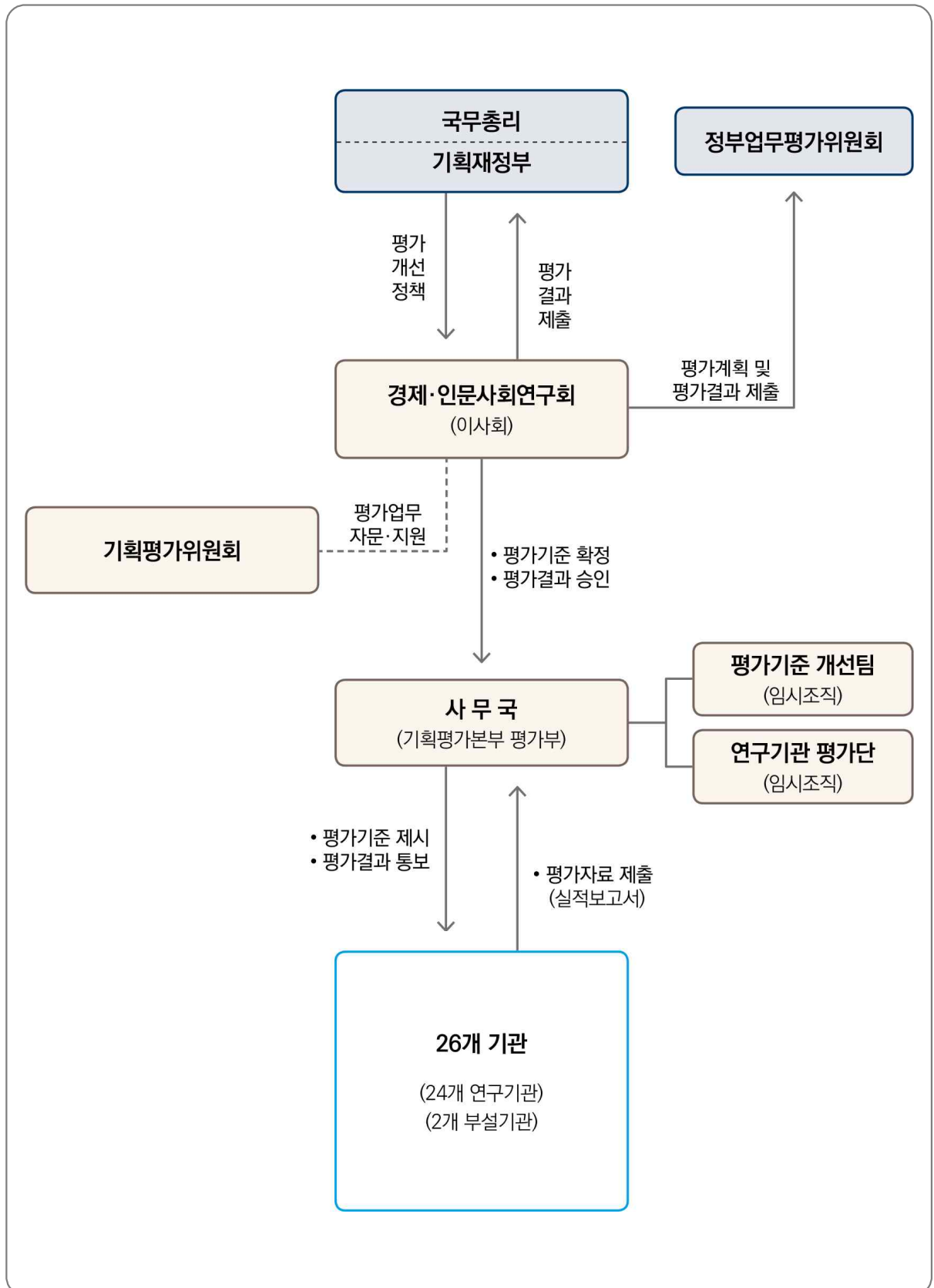
1. 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나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평가보고서

2. 평가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

- 국무총리(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
 - 평가정책 시달,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
- 기획재정부
 - 평가정책 시달,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차년도 예산심사,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연구회는 전년도 평가결과 및 차년도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
 -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승인,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평가위원회(기획총괄전문위원회)
 - 연구회의 평가업무에 관한 계획,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등의 자문·지원
- 평가기준 개선팀
 - 전년도 평가의 문제점, 국가시책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가기준 개발
- 연구기관 평가단
 -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평가 실시

〈 평가 추진체계도 〉



3. 평가대상 기관

평가대상 기관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국토연구원	11. 한국교통연구원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21. 한국행정연구원
4. 산업연구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 에너지경제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23. 한국환경연구원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7. 통일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5.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8. 한국개발연구원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 육아정책연구소
9. 한국교육개발원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2년도 ‘리더십’ 평가대상 기관장: 21개 연구기관장

(2022. 12. 31. 기준, 정관 기재순)

연구기관	원 장	임기	연구기관	원 장	임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미옥	21. 01. 19.~24. 01. 18.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19. 09. 20.~22. 09. 19.
국토연구원	강현수	21. 11. 01.~24. 10.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21. 05. 03.~24. 05. 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20. 06. 01.~23. 05. 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20. 09. 28.~23. 09. 24.
산업연구원	주 현	21. 06. 14.~24. 06. 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21. 05. 31.~24. 05. 30.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석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장수	20. 12. 29.~23. 12. 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20. 04. 30~23. 04. 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20. 12. 15.~23. 12. 14.
통일연구원	고유환	20. 04. 30.~23. 04. 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21. 12. 27.~24. 12. 26.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22. 12. 01.~25. 12. 01.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21. 08. 02.~24. 08. 01.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21. 05. 03.~24. 05. 0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21. 08. 02.~24. 08. 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22. 02. 28.~25. 02. 27.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22. 01. 28.~25. 01. 27.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21. 02. 01.~24. 01. 31.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21. 10. 05.~24. 10. 04.
한국노동연구원	공석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유종일	21. 09. 13.~24. 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19. 08. 08.~22. 08. 07.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21. 01. 19.~24. 0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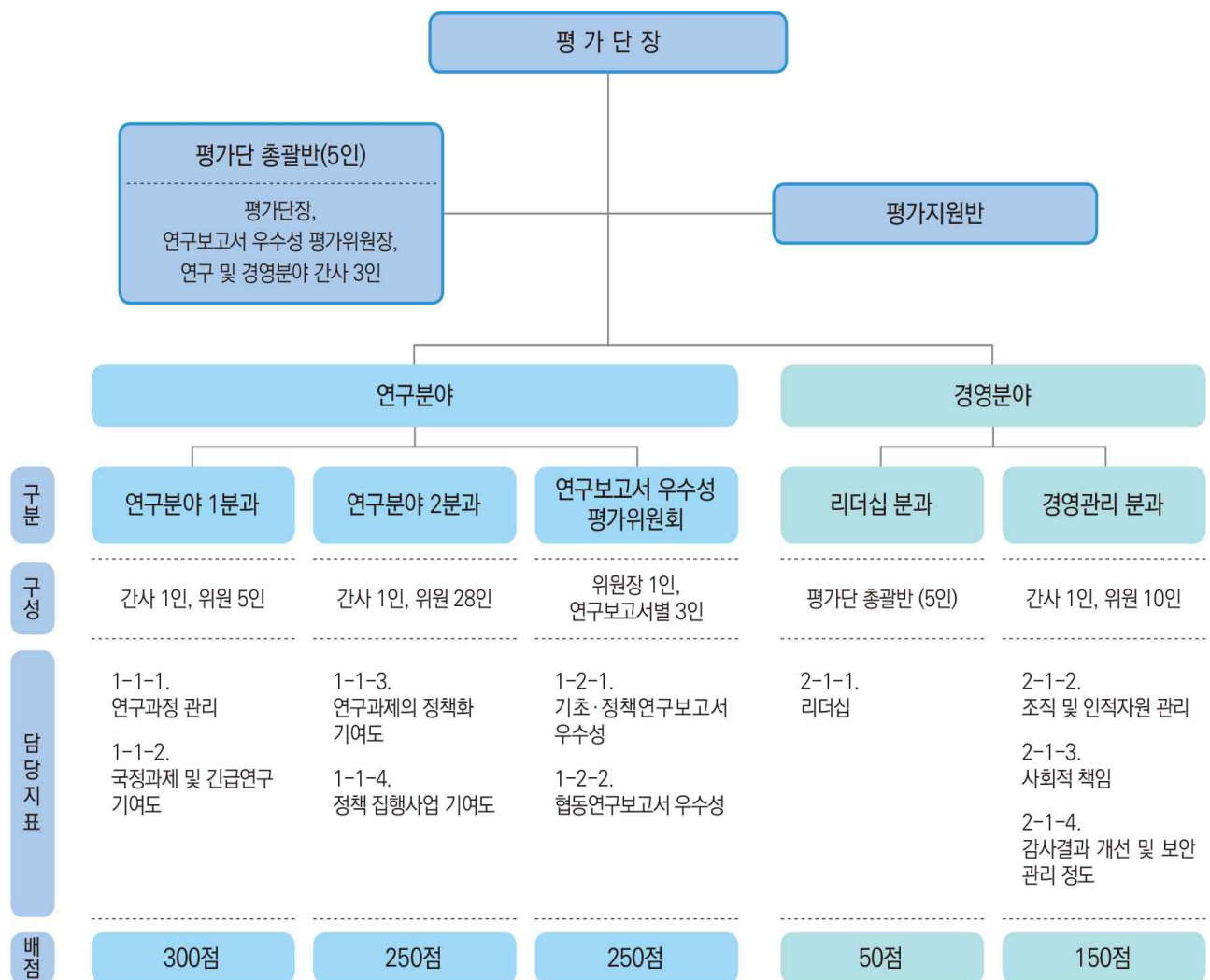
※ 2022. 12. 31. 기준으로 기관장 재임 1년 미만인 연구기관은 ‘2-1-1. 리더십’ 평가지표를 평가하지 않음.

※ ‘리더십’ 평가를 받지 않는 연구기관(에너지, KDI, 평가원, 노동, 환경)은 ‘리더십’ 평가(50점)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950점)를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평가단장, 평가단 총괄반,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 평가단, 평가지원반으로 구성



■ 평가단 운영

○ 평가단장

- 평가단장은 연구기관 평가를 총괄하며, 평가결과(안)를 확정하여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평가결과를 연구기관에게 설명

○ 평가단 총괄반

-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
 - ※ 평가단장 1인,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장 1인, 연구분야 분과간사 2인, 경영분야 분과간사 1인
- 평가단 총괄반은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대상 보고서 및 평가위원 선정, 국가정책 기여도(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평가대상 과제(사업) 및 배점 확정, 평가결과(안) 예비·종합 검토 및 작성 등을 수행

○ 연구분야 평가단

- 연구분야 평가단은 ‘연구분야 1분과’, ‘연구분야 2분과’ 및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로 구성
- ‘연구분야 1분과’는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1-1-1. 연구과정 관리’,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평가지표를 평가
- ‘연구분야 2분과’는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9인의 평가위원(해외사무소 3인 포함)으로 구성되며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평가지표를 평가
 - ※ 5개 분야(경제산업통상, 국토환경, 복지노동여성, 미래준비, 공공정책)별로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평가위원 4~7인, 연구기관별 공무원 평가위원 2인이 평가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평가대상보고서별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1-2-2.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지표를 평가
 - ※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전문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연구보고서별 3인의 평가위원이 평가(정책연구과제는 외부전문가 평가위원 2인과 공무원 평가위원 1인, 기초연구과제는 외부전문가 평가위원 3인으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위원 구성																						
연구분야 1분과	1-1-1. 연구과정 관리	6인(간사 1인 포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연구분야 2분과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외부전문가 평가위원 총 26인, 공무원 평가위원 총 50인																						
		<table><tr><th>분과명</th><th>경제산업통상</th><th>국토환경</th><th>복지노동여성</th><th>미래준비</th><th>공공정책</th></tr><tr><td>기관명</td><td>대외, 산업, KDI, 조세재정, 대학원</td><td>국토, 에너지, 교통, 농촌, 해양, 환경, 건축</td><td>노동, 보건, 여성, 청소년, 육아</td><td>과학, 정보, 교육, 평가원, 직능연</td><td>통일, 법제, 행정, 형사·법무</td></tr><tr><td rowspan="2">평가위원</td><td>외부 5인</td><td>외부 7인</td><td>외부 5인</td><td>외부 5인</td><td>외부 4인</td></tr><tr><td colspan="5">연구기관별 공무원 각 2인(대학원 제외)</td></tr></table>	분과명	경제산업통상	국토환경	복지노동여성	미래준비	공공정책	기관명	대외, 산업, KDI, 조세재정, 대학원	국토, 에너지, 교통, 농촌, 해양, 환경, 건축	노동, 보건, 여성, 청소년, 육아	과학, 정보, 교육, 평가원, 직능연	통일, 법제, 행정, 형사·법무	평가위원	외부 5인	외부 7인	외부 5인	외부 5인	외부 4인	연구기관별 공무원 각 2인(대학원 제외)			
	분과명	경제산업통상	국토환경	복지노동여성	미래준비	공공정책																		
	기관명	대외, 산업, KDI, 조세재정, 대학원	국토, 에너지, 교통, 농촌, 해양, 환경, 건축	노동, 보건, 여성, 청소년, 육아	과학, 정보, 교육, 평가원, 직능연	통일, 법제, 행정, 형사·법무																		
	평가위원	외부 5인	외부 7인	외부 5인	외부 5인	외부 4인																		
연구기관별 공무원 각 2인(대학원 제외)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평가위원을 전문영역별로 구분하여 조별 3인 배정 (위원장 1인 별도)																						
	1-2-2. 협동 연구보고서 우수성																							
	<table><tr><th>보고서</th><th>기초</th><th>정책·협동연구</th></tr><tr><td>평가위원</td><td>외부 3인</td><td>외부 2인, 공무원 1인</td></tr></table>	보고서	기초	정책·협동연구	평가위원	외부 3인	외부 2인, 공무원 1인																	
보고서	기초	정책·협동연구																						
평가위원	외부 3인	외부 2인, 공무원 1인																						

○ 경영 분야 평가단

- ‘리더십 분과’는 평가단 총괄반으로 구성되며, ‘2-1-1. 리더십’ 평가지표를 평가
- ‘경영관리 분과’는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1-3. 사회적 책임’ 및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평가지표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위원 구성
리더십 분과	2-1-1. 리더십	총괄반 위원 5인
경영관리 분과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1-3. 사회적 책임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2-1-5. 예산운용 및 결산	<p>11인(간사 1인 포함)</p> <p>평가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연구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p>

○ 평가지원반

- 평가지원반은 연구회 기획평가본부장 및 평가부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연구기관 평가를 실무적으로 운영 지원

〈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위원 현황 총괄표 〉

구분	평가 단장	연구 분야			경영 분야		계
		연구분야 1분과	연구분야 2분과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	리더십 분과	경영관리 분과	
합계	1	6	79	205	-	11	302
연구기관 평가단	1	6	29	1	(5)*	11	48
외부전문가	-	-	-	158	-	-	158
공무원	-	-	50	46	-	-	96

* 리더십 분과는 평가단장 포함 평가단 총괄반 5인으로 구성

※ 공무원 평가위원은 연구기관별로 평가대상 과제 및 사업과 관련된 정부부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선임

※ 연구분야 2분과 평가위원에 해외사무소 평가위원 3인 포함

〈 연구기관 평가단 현황 〉

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직위
평가단장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연구분야 1분과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센터장
		강현석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이재목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원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분야 2분과	경제산업통상분과	라미경	서원대 교양대학 교수
		이지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영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승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국토환경분과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종세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안우영	공주대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강혜정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직위
	복지노동여성분과	박기홍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송혜숙	경기과학기술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남미애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병덕	한동대 상담사회복지학부 교수
	미래준비분과	김은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백지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차성현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유종열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이경숙	건양대 교육성과관리센터 연구교수
	공공정책분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사회학과 교수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류병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
경영관리 분과	곽선화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송지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윤창근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윤혜정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	
	정진섭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최충익	강원대 행정심리학부 교수	
	해외사무소	남수중	공주대 경제통상학 교수
최연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영주		부산외대 외교학과 교수	

5. 평가기준 및 등급 부여기준

■ 연구기관 평가기준

1. 연구 분야(배점 80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1-1. 연구 과정 및 성과 관리 (550)	1-1-1. 연구과정 관리 (200)	정 성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20	136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30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30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20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30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6	
		정 량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4	64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0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30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100)	정 성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30	100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20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50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150~250)	정 성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안(아이디어) 제시 정도(20%)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과정과 실적(40%) - 대안의 정책화 실적 및 정책의 (예상)효과(40%) 	150 ~ 250	250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0~100)	정 성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사업계획·관리의 적정성(20%) - 사업집행의 효과성(40%), -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40%)	0~100	(100)
		정 량	①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 연구기관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반영(해외사무소별 10점) * 연구기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만 해당	0~20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250)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200)	정 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200	250
	1-2-2. 협동 연구보고서 우수성 (50)	정 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50	

2. 경영 분야(배점 20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2-1. 경영 관리 (200)	2-1-1. 리더십 (50)	정성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18	46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4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4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20	
		정량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4	4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35)	정성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7	25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8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3)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3)	
			- 업적평가시스템 개선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	(2)	
		정성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10	(4)
			- 대외활동 관리의 적정성	(3)	
			- '근무' 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	(3)	
		정량	- 휴가·유연근무제·안식년제 운영의 적정성 및 사용정도	(3)	10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10	
	2-1-3. 사회적 책임 (45)	정성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5	34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5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2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10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5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4	
			-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2)	
			- 보직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실적	(1)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3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정량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4	11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3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4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실적	(1)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40)	정성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1)	20
			-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1)	
			-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	(1)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20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5	
	2-1-5. 예산운용 및 결산 (30)	정량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13	
			- 일반보안	(4)	
			- 정보보안 관리수준	(5)	
			- 개인정보 보호수준	(4)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2	
		정량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12	30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3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15	

※ 가점(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배점 5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가점 (5)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5)	정성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5)	(5)

〈 연구기관별 연구분야 2분과 배점 현황 〉

연구기관	평가지표			계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해외사무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20	30		250
국토연구원	150	100		2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0	40	20	250
산업연구원	240	-	10	250
에너지경제연구원	250	-		25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50	-		250
통일연구원	250	-		250
한국개발연구원	180	70		250
한국교육개발원	170	80		25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0	70		250
한국교통연구원	170	80		250
한국노동연구원	250	-		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0	50	10	250
한국법제연구원	250	-		2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0	-		2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0	60		2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0	60		25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70	80		2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0	30		2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0	70	10	250
한국행정연구원	190	60		25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50	-		250
한국환경연구원	190	60		250
건축공간연구원	250	-		250
육아정책연구소	250	-		250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평가기준

1. 교육·연구 분야 (배점 80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1-1. 대학원생 및 학사관리 (90)	1-1-1. 대학원생 활동 및 학사관리의 적정성 (90)	정 성 / 정 량	① 학생선발 및 구성 - 공공부문 입학생 유치 - 국내 및 국제 학생 구성 - 학생선발 및 입학전형	35 (10) (15) (10)	90
			② 국제정책대학원생의 활동 - 대내활동 - 대외활동 - 국제활동	30 (10) (10) (10)	
			③ 학사운영 및 관리 - 중도탈락 학생 비율 - 중도탈락을 감소를 위한 노력 정도 -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 학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25 (2.5) (2.5) (10) (10)	
1-2. 교육과정 운영 (70)	1-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70)	정 성	①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성 - 교육과정 구성의 차별성 - 교육내용의 우수성	30 (15) (15)	70
			② 교육방법 혁신 - 교수학습법 혁신 -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성 대응 노력 및 실적	40 (30) (10)	
1-3. 교육 성과 (400)	1-3-1. 정책연구 역량 기여도 (60)	정 성	① 정책연구 실행 - 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 정책연구 실행 논문 지도	60 (30) (30)	60
	1-3-2. 정책실무 역량 기여도 (40)	정 성	① 정책기획 및 효과분석 실행 - 정책기획 및 효과분석 실행 교육과정	40 (40)	40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1-3-3. 국가발전 경험 공유 기여도 (130)	정 성 / 정 량	①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 - 외국인 학생 교육실적 및 성과(35점) -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 성과(60점) -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도(35점)	130 (35) (60) (35)	130
	1-3-4. 강의평가 및 취업 (150)	정 성 / 정 량	① 교육과정 강의평가 결과 - 정책학 석사과정 전체 강의평가 결과 - 개발정책학 석사과정 전체 강의평가 결과 - 공공관리학 석사과정 전체 강의평가 결과 ② 강의평가 결과 활용 - 강의평가 결과 활용·개선 노력 - 교육성과 조사결과 활용·개선 노력 ③ 학생취업 및 교육지원 노력 정도 - 학생취업 지원 노력 정도 - 학생교육 지원 실적 및 성과	90 (30) (30) (30) 40 (20) (20) 20 (10) (10)	150
	1-3-5. 고객만족도 (20)	정 량	① 정부 및 교육수요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	20
1-4. 교류·협력 및 확산 (240)	1-4-1. 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과 (90)	정 성 / 정 량	① 국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실적 - 학점교류 실적 - 공동연구 실적 - 인턴파견 실적 -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 ② 국내·외 학생간 네트워크 형성 정도 -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설문조사 -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 및 사례 ③ 해외동문 네트워크 형성 정도 - 네트워크 구축 정도 -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활용 정도 ④ 교육·연구 활동 성과확산 노력과 실적 - 교육·연구 활동의 홍보·확산체계 - 교육·연구 확산수단의 다양성과 실적 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 노력	20 (5) (5) (5) (5) 20 (10) (10) 20 (10) (10) 20 (10) (10) 10	90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1-4-2.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 기관과의 교류·협력 (50)	정 성 / 정 량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 참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 교육 참여 실적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 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 및 노력 ②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참여 -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참여 실적 -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참여 제도의 적정성	25 (15) (10)	50
	1-4-3. 연구실적 (100)	정 성 / 정 량	① 교원 연구실적의 우수성 -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및 연구실적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및 연구실적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의 질적 우수성	100 (25) (50) (25)	100

2. 경영 분야 (배점 200점)

: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동일

※ 가점(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배점 5점)

: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동일

■ 해외사무소 평가기준

1. 중국사무소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1-1. 연구· 사업 분야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 지원	① 한중, 중국,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Big Issue)에의 대응(정보 제공, 현안분석, 대책 제시 등)	15
		② 데이터 수집 · 분석자료 정기 배포 노력 및 실적	10
		③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정책 지원 노력 및 실적 (세미나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의 지속성 및 중요도, 개최 및 참여 실적, 주요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등)	20
	1-1-2. 성과확산 및 협력	① 성과확산 및 홍보 - 뉴스레터, 리뷰,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성과확산 및 홍보 - 신문, 방송 등 대언론 홍보 활동	15
		② 유관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 중국 기관, 대학 및 싱크탱크(Think Tank), 주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소통 - 중국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교류·소통	20
		③ 본원 연구·사업에의 지원 및 환류 - 본원 연구·사업에의 지원 실적과 성과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 및 환류	20
합 계			100

2. 한미경제연구소(KEI)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1-1. 사업 분야	1-1-1. 기관 고유 목적의 달성 및 사업의 개선 정도	- 사업이 기관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정책적 기여도)	5
		- 사업의 전년 대비 개선 정도	5
	1-1-2. 사업 실행의 우수성	- 사업의 기획 및 집행 평가	15
		- 주요 참여자 및 협력기관의 전문성 및 수준	15
	1-1-3. 성과확산 및 홍보의 적절성	- 성과확산 프로그램의 적절성	10
		- 출판물 배포 대상기관의 적절성	10
	1-1-4. 고객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별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20
	소 계		80
2-1. 경영 분야	2-1-1. 규정·지침 준수 및 환류	- 법률·정관의 규정 및 계약조건 준수 여부	3
		- 예산 집행의 적절성	3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 정도	5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4
		- KIEP와의 업무 협력 정도	5
	소 계		20
합 계			100

■ 평가척도 및 등급 부여기준

- 평가요소별로 아래 표의 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한 후 평가요소에 부여된 배점에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평가요소의 점수로 산정함.

등급	가중치	등급 부여기준
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매우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탁월하게 기여한 경우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가장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매우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A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상당 수준 기여한 경우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상당히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B	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통 수준보다는 다소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보통 수준 이상 기여한 경우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어진 여건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C	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일상적인 노력 외에 특별한 노력은 없었고 그 결과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보통 수준 기여한 경우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사용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주어진 여건이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D	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하고 그 결과 다소 미흡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기여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하고 다소 부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여건이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 연구기관 평가등급 부여 기준

- 연구기관 평가등급은 집계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부여(절대평가)

구분	S	A	B	C	D
평가등급 부여기준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6. 평가 방법

■ 지표별 평가방법

- 연구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전평가 및 실사평가를 진행하고,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5등급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를 실시
- 다음 평가지표(요소)는 별도의 평가(점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환산·적용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단에서 평가한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환산·적용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이 연구보고서별로 부여한 평점을 환산·적용
	1-2-2. 협동 연구보고서 우수성	
2-1. 경영관리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 주무부처 점검결과를 환산·적용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 국무조정실에서 확인한 2022년도 점검결과를 환산·적용
		○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 아래 세가지 결과를 환산·적용 ①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② 연구회의 정보보안 관리수준 점검 결과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 기획재정부 점검결과를 환산·적용
	2-1-5. 예산 운용 및 결산	○ 연구회 결산심사 결과를 환산·적용

○ 다음 평가지표(요소)는 별도의 평가등급 부여기준 및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등급 부여기준 및 평가척도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점수’를 다음 5등급으로 환산·평가																						
		S	A	B	C	D	90점 이상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5점 미만													
		S	A	B	C	D																		
90점 이상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5점 미만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다음 5등급으로 환산·평가																								
		<table><tr><th>S</th><th>A</th><th>B</th><th>C</th><th>D</th></tr><tr><td>95점 이상</td><td>90점 이상 ~ 95점 미만</td><td>85점 이상 ~ 90점 미만</td><td>80점 이상 ~ 85점 미만</td><td>80점 미만</td></tr></table>	S	A	B	C	D	95점 이상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80점 미만												
S	A	B	C	D																				
95점 이상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80점 미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 연구보고서 우수성 - ‘연구보고서 평가기준’별 다음 10단계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평가																						
	1-2-2. 협동 연구보고서 우수성																							
		<table><tr><th>구분</th><th colspan="2">매우우수</th><th colspan="2">우수</th><th colspan="2">보통</th><th colspan="2">미흡</th><th colspan="2">매우미흡</th></tr><tr><td>가중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d>0.5</td><td>0.4</td><td>0.3</td><td>0.2</td><td>0.1</td></tr></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가중치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가중치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연구기관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5등급으로 환산·평가																						
		S	A	B	C	D	95점 이상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80점 미만													
	S	A	B	C	D																			
	95점 이상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80점 미만																			
2-1-3. 사회적 책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정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평가기준 준수, 미준수의 2등급으로 평가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 구매실적 - 평가기준 준수, 미준수의 2등급으로 평가																						
		<table><tr><th>구분</th><th>평가기준 준수</th><th>평가기준 미준수</th></tr><tr><td>가중치</td><td>1.0</td><td>0.0</td></tr></table>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등급 부여기준 및 평가척도						
	2-1-5. 예산 운용 및 결산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평가기준 준수, 미준수의 2등급으로 평가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 예산 집행의 적정성 - 평가기준 준수, 일부준수, 미준수(가중치 0.0)의 6등급으로 평가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일부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4개준수	3개준수	2개준수	1개준수	0.0

7. 평가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구분	주요내용	일정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확정	-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확정(제327차 이사회) -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수정안 확정(제333차 이사회)	'22. 6. 23.(목) 11. 8.(화)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 추진 계획 수립	- 연구기관 평가 추진 계획 수립 -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 검토 - 이사회 보고·확정	11. 8.(화) 11. 8.(화), 11. 9.(수) 12. 1.(목)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위원 선임	- 평가위원 후보자 3배수 선정(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 - 평가위원 선임(이사장) - 이사회 보고·확정	11. 9.(수) 12. 1.(목)
연구기관 설명회	-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 추진 계획 설명 - 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및 평가편람 이해 등	11. 24.(목)
평가단 제1차 전체회의	-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 추진 계획 설명 - 평가편람 및 평가지표 이해 등	12. 15.(목)~16.(금)
총괄반 제1차 회의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대상 과제 선정 - 국가정책기여도 평가대상 및 배점 선정	12. 16.(금)
총괄반 제2차 회의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조분류 및 평가위원(외부전문가) 3배수 선정	12. 23.(금)
해외사무소 실적보고서 접수·발송	- 중국 해외사무소 실적보고서 접수 및 발송 - 미국 해외사무소 실적보고서 접수 및 발송 * 해외사무소 평가 대상 기관(대외, 산업, 농촌, 해양)	'23. 1. 9.(월) 1. 30.(월)
연구기관별 평가대상 실적 및 연구보고서 접수·발송	- 연구기관별 평가대상 실적 및 연구보고서 접수(연구기관→연구회) - 연구기관별 평가대상 실적 및 연구보고서 발송(연구회→평가위원)	1. 11.(수) 1. 13.(금)
사전평가	-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 사전평가 실시	1. 13.(금)~27.(금)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실시	1. 13.(금)~27.(금)
해외사무소 실사평가 (중국)	- 해외사무소 실사평가(중국)	1. 18.(수)~19.(목)
연구보고서 우수성 집체평가	- 연구보고서 우수성 집체평가	1. 30.(월)~31.(화)

구분	주요내용	일정
평가결과 검토회의(1차)	- 평가결과 검토회의(1차)	2. 3.(금)
실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분야 2분과(연구과제의 정책화기여도,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연구분야 1분과(연구과정 관리,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 경영관리 분과(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사회적 책임,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 해외사무소 실사평가(미국) - 리더십 분과(리더십) 	2. 6.(월)~8.(수) 2. 9.(목)~17.(금) 2. 9.(목)~17.(금) 2. 13.(월)~17.(금) 2. 20.(월)~24.(금)
평가결과 검토회의(2차)	- 평가결과 검토회의(2차)	3. 3.(금)
평가결과 초안 작성	-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초안 작성	~3. 9.(목)
총괄반 제3차 회의	- 연구기관 평가결과 초안 검토 및 확정	3. 10.(금)
평가결과 초안 연구기관 통보	- 평가결과 초안 연구기관 통보(연구회→연구기관)	3. 14.(화)
평가결과 초안에 대한 의견제시 실시	- 평가결과 초안에 대한 연구기관 의견제시 실시 (서면)	3. 14.(화)~20.(월)
평가결과 수정안 연구기관 통보	- 평가결과 수정안 연구기관 통보	3. 24.(금)
평가결과 수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실시	- 평가결과 수정안에 대한 연구기관 의견제시 실시 (대면)	3. 29.(수)~31.(금)
평가단 제2차 전체회의/ 평가결과 검토회의(3차)	- 연구기관 평가결과(안) 검토(연구기관 의견제시 반영 여부 결정)	4. 6.(목)~7.(금)
총괄반 제4차 회의	- 연구기관 평가결과(안) 확정	4. 7.(금)
평가결과(안) 검토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 검토 - 이사회 심의·의결(평가결과 확정) 	4. 18.(화), 4. 20.(목) 4. 27.(목)
평가결과 제출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4. 28.(금)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경상운영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	5월 중



II

평가결과 종합

1. 연구기관별 평가등급
2. 평가항목(지표/요소)별 평가등급
3. 분과별 종합평
4.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및 우수보고서
5. 연구기관 평가결과 후속조치

1. 연구기관별 평가등급

(동일 평가등급 내 정관 기재 순)

평가등급 (환산점수)	연구기관	비 고
S (95점 이상)	-	
A (90점 이상 ~95점 미만)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5개 기관 (19.2%)
B (85점 이상 ~90점 미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8개 기관 (69.2%)
C (80점 이상 ~85점 미만)	산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3개 기관 (11.6%)
D (80점 미만)	-	

2. 평가항목(지표/요소)별 평가등급

■ 연구 분야(배점 8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구분	평가요소	등급 (평균점수)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연구1분과)				B (87.78)
1-1-1. 연구과정 관리	정성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87.50)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86.40)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82.20)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85.70)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87.80)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B (86.40)	
	정량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71.20)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88.84)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99.02)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정성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90.50)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86.20)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87.30)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연구2분과)				B (86.66)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정성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86.26)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정성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B (89.32)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09)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정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03)	
1-2-2. 협동 연구보고서 우수성	정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88.33)	

■ 경영 분야(배점 200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등급 (평균점수)
2-1. 경영관리				B (87.58)
	2-1-1. 리더십	정성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88.00)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86.67)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85.19)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88.45)
		정량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73.95)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정성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89.72)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88.69)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88.43)
		정량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76.35)
	2-1-3. 사회적 책임	정성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92.13)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89.39)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89.93)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89.77)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90.66)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90.48)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87.31)
		정량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69.23)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19.23)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95.19)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정성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86.68)
		정량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91.43)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A (95.97)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78.65)
	2-1-5. 예산운용 및 결산	정량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93.85)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정량 지표 중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한 경우(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별도 산정기준에 따른 등급을 적용

3. 분과별 종합평

■ 연구분야 1분과

〈우수한 점〉

- 대부분 연구기관이 메가트렌드 분석을 수행하고,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연구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발굴로 연구기획의 우수성을 제고하였음.
- 대부분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체계가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의 도출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를 반영해 선정된 연구과제의 적정성이 우수함.
- 대부분 연구기관이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 협동연구 기관을 보다 균형 있게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대부분 연구기관이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 부합성, 연구사업 목표 부합성, 파급효과, 정책고객 의견 반영을 통해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내·외 환경 분석은 잘 분석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AI 분석 등 다각적인 방식과 신기술들을 실용적인 과제로 도출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협동 연구과제 기획이 일반 연구과제와 차별화된 방식이 나타나지 않으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과제가 부족함.
- 연구기관과 관련이 높은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단체를 넘어선 대국민 정책참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대국민소통위원회 비상근 조직으로 연구수요를 광범위하게 발굴 하여야 하며 양질의 연구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한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균형 잡힌 연구기획과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분야 2분과

〈우수한 점〉

- 각 기관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근 현안이 되고 있거나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를 연구주제로 발굴하는 등 시의적절한 활동을 통해 정책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연구과정상 주요 정부기관과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 의사소통 체계 마련 및 의견수렴·반영 노력이 존재하며, 그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적 관심제고 및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였음.
- 최신의 관련 분야 이론 반영, 창의적인 연구방법론의 적용,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국가 통계 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활용 등 근거 기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적절함.
- 이상의 노력을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이 풍부하고 현실적이며,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 기관의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및 환류과정 등이 대체로 적절하며, 그를 통한 사업 집행의 효과성이 도출되고 있음.
- 기존에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사업집행이 안정적이며 사업집행 및 관리 노력이 양호함.
- 정부기관 및 외부 실무 담당자들과의 소통, 관계부처와의 협조와 소통 노력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가 가동되고 있음.
- 양질의 기본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포상, 워크숍 등 제도 확산 및 품질관리 노력이 존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기관의 경우 제안된 정책대안과 정책화 실적 간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다소 괴리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한 활용성 개선이 필요함.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노력은 두루 존재하나,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인 수혜자를 구분한 보다 체계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소통노력이 특정부처에 집중되는 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이슈화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 정책효과의 영향력을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책대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 체계화 노력이 요구됨.
- 새로운 정책 이슈의 경우 정책 로드맵 제시와 아울러, 실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단계별 재정 소요 등의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도전적 성과목표치 설정 및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성과지표의 균형 잡힌 설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성과관리 노력이 요구됨.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발굴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업 개선 및 확대를 위한 혁신적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혜자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설정(identification)과 사업 확산 및 홍보 노력이 요구됨.

■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연구기관 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연구내용이 여러 정책 영역에 걸쳐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갖추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주제 발굴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양한 연구주제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단기 및 중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바가 돋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극복 방안,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정책 개발, 취약한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공동체 의식, 인구구조 변화 대처, 교육 및 노동시장 개혁 방안, 그리고 글로벌 질서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국가의 안보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진 바가 두드러짐.
- 대부분의 연구보고서는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기획되었으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보다 독창적이면서도 신뢰도가 전제가 된 연구방법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정책 기여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그러하듯이, 제한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가지고 훌륭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책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노력과 각 기관장의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극복된 것으로 판단됨.
- 다년 과제의 경우, 일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각 연도별 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최초 연구 목적이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 바가 인정됨. 또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직전 년도의 연구성과와 비교하여 어떤 단계적 발전과 차별성을 이뤘는지 보여주고자 노력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대부분의 협동연구보고서의 경우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했으며, 협동연구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보고서의 전반적인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미흡한 점 역시 다수 확인되었는데, 전체 연구기관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아쉬움은, 앞서 언급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과 연구결과 사이의 일관성 문제와 정책 대안의 구체성 부족 문제로 압축됨. 연구자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고, 정책 대안의 현실성 결여 문제 또한 확인되었음.
-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2022년도 연구보고서에 국한된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일종의 전통적인 문제점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다수 동료 전문가들이 언급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결과 도출,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고민 등과 같은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대안이 요구되는 사안이 있고,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사안이 있는바, 연구 내용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연구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 연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상 언급한 연구 설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 역시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연구 주제의 성격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연구에서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융합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하기도 했고, 또 일부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사례 연구의 활용 근거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도 있었음.
-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가 궁극적으로 학문발달에 기여함과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가정할 때, 보고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수요자에게 내용이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봄. 분명하고 명쾌한 설명, 각종 요약, 도표, 그림을 활용한 설명력의 제고 등에 향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리더십 분과

〈우수한 점〉

- 리더십이 우수한 기관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목표를 추가하여 경영목표를 기민하게 수정하고 나아가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 조직체계, 정책 연구수행 강화, 의견수렴 및 국민공감대 형성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새 정부 국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 정도가 우수함. 또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의 제시와 책임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리더십이 우수한 기관은 경영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성과가 국정과제와 정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목표별 추진전략과 성과목표, 실적과의 연계성이 체계적임. 또한 의제를 발굴하여 경영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리더십이 우수한 기관은 선도적 정책 개발 및 현안대응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지원 행정혁신 등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동을 통해 신정부의 정책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리더십이 우수한 기관은 내부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관련한 제도적 플랫폼이 존재함. 대외적 소통 측면에서도 정책상황 급변에 따른 적극적인 강연과 발표 그리고 기고 및 언론 인터뷰 등 기관장의 노력이 있었음. 또한 구성원과 소통을 위한 전략을 체계화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함. 또한 복합적 소통 플랫폼을 포함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소통을 위해 비제도적이며 개별화된 전략을 활용함. 적극적이고 활발한 언론 인터뷰와 기고 및 특강 활동을 전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리더십이 미흡한 기관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에의 능동적 대응 및 신규 과제의 도출 노력이 미흡하고, SWOT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관의 당면과제 외에 새로이 제기되는 과제에 대한 대응이 전략성, 선제성, 참신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편임.
- 리더십이 미흡한 기관은 SWOT분석을 통해 당면 현안을 도출하고 기존 경영목표와 새로운 경영목표를 비교하고 차별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성과목표와 실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또한 단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연계 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과제고 노력이 빈약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리더십이 미흡한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정체성과 매우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자 그룹, 산업계, 언론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상대로 한 대외활동 노력이 미흡함. 또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류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기관의 가치 정립 내용과 소통 활동의 직접적 연계체계 및 내용이 다소 미흡함.

■ 경영관리 분과

〈우수한 점〉

- 연구기관이 직면한 연구 및 경영 환경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각 기관이 강점과 약점이 반영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직운영의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함.
- 대외활동 사후신고 비율이 전년대비 향상되는 등 대부분 기관에서 대외활동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고 기관과 구성원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
- ‘일·가정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에서는 대다수의 기관들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들을 기관들의 내규에 반영, 적극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적도 전반적으로 우수함.
- 일시·간헐적 업무에 한정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자 ‘사전심사제’의 운영을 통한 제도적 노력은 정착단계에 있으며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임금피크제 임금조정액을 포함한 별도정원의 채용이 원활하며 퇴직대상자와 신규채용자간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 최근의 윤리경영관련 법 개정 내용과 정부 권고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음.
- 기관마다 편차가 컸던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감사실로 일원화하는 추세가 나타나 체계적인 윤리 및 인권경영이 가능해짐.
- 다양한 윤리 및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전 직원의 교육 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교육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교육 이수율이 향상되었음.
- 인권경영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직원 배치,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독립적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공개, 인권침해구제절차 마련 등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대부분 기관들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긍정적 노력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많은 기관들이 여성 직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거나 실제 선발에 있어서 내부적 고려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청년인턴의 활용에 있어서는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특히, 채용 실적은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예산의 활용,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턴의 활용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에 있어서도 기관들 모두 나름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임.
- 감사 전담부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업무 분장이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또한 감사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우수함.
- 비상임감사의 활성화 방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대면 정례보고를 실시하고, 기관장과의 면담을 실시한 점이 긍정적임.
- 자체감사시스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음. 대부분의 기관에서 엄밀한 자체감사를 통해 기관의 자정 역량이 강화된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를 도출 및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의 대외 환경 대응의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대외활동 사후신고비율 격차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유연근무제가 실제 업무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여전히 대부분 기관들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기관별로 일·가정양립 제도의 수립 및 운영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왔으므로, 매년 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및 사용하지 않는 제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기관의 제도 실행부서 입장이 아닌, 제도의 이용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홍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용자 뿐 아니라 이용자가 속한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함.
- 정부방침에 한정된 성과에서 나아가 자생적인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획-실행-실적-피드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 대상자가 기존업무를 수행하면서 퇴직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는 상황적 모순이 발생 하기도 하여 임금피크제도의 의의에 따른 제도운영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법과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규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기관의 대응노력이 미비함.
- 윤리 및 인권경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옴부즈만 등 전문성 및 사회적 대표성이 높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함.
-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 이수자의 직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임.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외부위원참여비율이 낮은 경우가 발생하였고, 지침상 중요 안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연말에 1회 개최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낮음.
- 일부 기관의 경우, 아직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조치나 실제 선발에 있어서 고려가 미흡하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추가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년인턴의 활용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년인턴의 환류시스템에 대해서는 추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을 모두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문에 여전히 미흡한 결과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장애인 특별채용 및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 채용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는 기관이 많이 확인되지만, 그 보다 실효성 있는 특단의 노력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충족해야 할 것임.
-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우선고용 규정에 맞추어 관련 채용노력의 체계화, 홍보 확대, 차별적 선발 등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일부 기관에서는 외부 감사결과에 있어 지속적 미이행 사항이나 유사 반복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감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다각화와 교육 수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상임감사와의 업무협약 및 정례보고 등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이나 조치사항을 실질적 업무 및 제도 개선과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및 우수보고서

■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평가지표	우수사례 기관
1-1-1. 연구과정 관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한국교통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2-1-1. 리더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3. 사회적 책임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우수 연구보고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과학	개도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전략: 주요국 분석과 협력방안	김지현 외
국토	한국형 주거한계가구 진단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이길제 외
대외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예상준 외
산업	대전환기 한국 산업발전을 위한 선도적 산업정책 연구	조재한 외
에너지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한 수소충전소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이상열·박진호
정보	지리공간적 측면을 고려한 5G 시대의 주파수 관리 정책방안 연구	박지현 외
통일	미중 전략적 갈등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와 우리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KDI	교육혁신과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한성민 외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황순주
교육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Ⅲ): 고등 및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이정우 외
평가원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에 따른 학교지식의 구상과 교육과정 재구조화(Ⅱ)	정영근 외
교통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장한별 외
노동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안전망	이병희 외
농촌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효과분석	홍연아 외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김상효 외
법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배건이 외
보건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오욱찬 외
여성	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증진 방안 연구	김동식 외
조세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김빛마로 외
직능원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2022)	이지연 외
청소년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양계민 외
해양	선박투자 가치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 연구	박성화 외
행정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전략: 데이터 분석·활용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조세현 외
형사·법무	무인점포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조성현 외
환경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여건 및 정책과제	조지혜 외
건축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임유경 외
육아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김은영 외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연구보고서 생산이 없으므로 제외

■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

연구기관	국가정책 기여 과제	과제책임자
과학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지원	조황희 외
국토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윤서연 외
대외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곽성일 외
산업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반도체·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조은교 외
에너지	NDC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심성희
정보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분석과 5G시대의 정책방향	김민철
통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대내외 정책 변화	홍 민
KDI	국가재정과 정책목표 (코로나19이후 조세·재정정책방향의 재검토)	김학수 외
교육	대학 간 공유 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조옥경 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수진 외
평가원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이주연 외
교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사회적 가치 추정 연구 -장애인콜택시를 중심으로-	박태윤 외
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연구	박찬임 외
농촌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박미성 외
법제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방안 연구	최환용 외
보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강희정 외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마련	조선주 외
조세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근로장려세제의 확장	전병목 외
직능원	자격제도 체제 진단 및 중장기 로드맵 연구	전승환 외
청소년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 외
해양	조건불리직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상우 외
행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소윤 외
형사·법무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조제성 외
환경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	심창섭 외
건축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	심경미 외
육아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김은설 외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정책과제 생산이 없으므로 제외

5. 연구기관 평가결과 후속조치

■ 우수 연구기관 포상

○ 3개 포상분야(최우수, 연구·경영우수, 혁신) 총 8개 기관 선정

(정관 기재순)

구 분	포상명		선정 기준	대 상
우수 연구기관	최우수기관		평가결과 상위 10% 기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분야별 우수기관	연구분야	연구분야 순위가 가장 높은 2개 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경영분야	경영분야 순위가 가장 높은 2개 기관	국토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혁신기관		평가결과 전년 대비 순위 상승이 가장 높은 2개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우수 연구자	우수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27인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		연구책임자 26인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과제

※ 분야별 우수기관은 최우수기관과 중복 시 차순위 선정

■ 2023년 기관장 보수 확정

- (기본연봉) 2022년도 기관장 기본연봉에 정부인건비 인상률(1.7%) 적용
- (성과연봉)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 평가등급별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전체 예산(942,017천원)을 고려하여 균등 가감 후 등급별 성과연봉액 확정

(단위: 천원)

구 분	S	A	B	C	D	
기준금액	50,000	42,500	35,000	27,500	-	합계
성과연봉 확정액(A)	-	43,442	35,942	28,442	-	
기관 수(B)	-	4개	19개	3개	-	
총 금액(A*B)	-	173,768	682,898	85,326	-	941,992

※ '22.12.31.기준 재임기간 1년 미만이거나 '23.1.1. 이후 취임하는 기관장은 'B'등급 적용
(에너지, KDI, 평가원, 노동, 환경)

■ 2023년 연구기관 경상비 인센티브 배정

- (대상)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이면서, 전체 평균점수(877.17점) 이상인 연구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 (기준) 평가등급별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전체 예산(882,002천원)을 고려하여 잔액은 배정 기관의 수로 균등 배분(7,454천원)
 - ※ 등급별 인센티브 기준금액으로 배분하고, 인센티브 총액 범위를 미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 차액만큼 각 기관 인센티브에 균등 가감

(단위: 천원)

등급	기준금액	배정금액 (A)	기관 수 (B)	총 금액 (A*B)	해당기관
S	150,000	-	-	-	-
A	100,000	107,454	5개	537,270	국토, 교통, 조세, 환경, 건축
B	50,000	57,454	6개	344,724	대외, 농촌, 법제, 보건, 해양, 형사·법무
합 계			11개	881,994	

■ 2024년 기관고유사업비 차등 반영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출연금 예산 요구 시 기관고유사업비에 차등 반영

■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별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그 개선실적을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
-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평가지표)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 | | |
|---------------|-------------------|
|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4. 한국법제연구원 |
| 2. 국토연구원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4. 산업연구원 |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5. 에너지경제연구원 |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7. 통일연구원 |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8. 한국개발연구원 | 21. 한국행정연구원 |
| 9. 한국교육개발원 |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3. 한국환경연구원 |
| 11. 한국교통연구원 | 24. 건축공간연구원 |
| 12. 한국노동연구원 | 25.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
|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6. 육아정책연구소 |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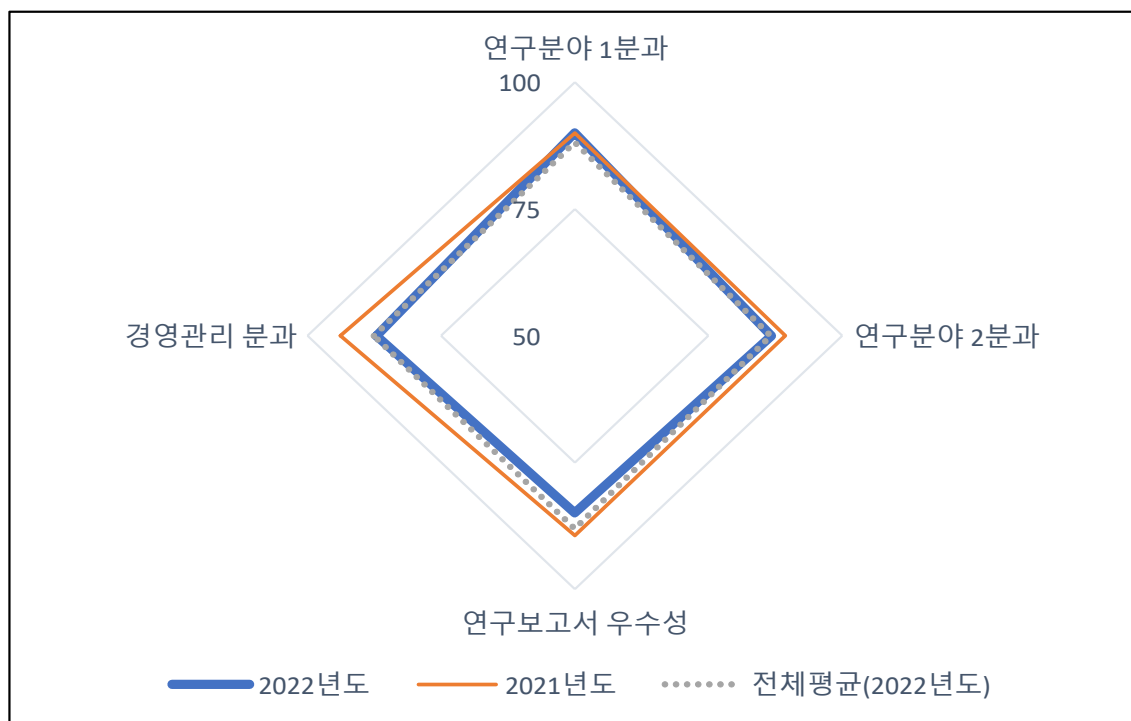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A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A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C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C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수요조사를 통해 주요 키워드, 연구과제 및 주제, 연구과제방향을 도출하였음.
- 연구과제 수행체계의 확대 개편, 연구 일정관리 단계의 월단위 세분화, 협동연구과제의 유형별 구분관리,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 정교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 대표사례인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발족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과제기획, 정책연구실무협의, 연구기획 TF 운영, 연구과제 평가단계에서 정책기여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시 TF 구성을 통해 긴급 현안 이슈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긴급 수시과제 수행성과가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기관 규모에 비해 정부현안과제 수행 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혁신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첨단기술의 출현 및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신정부 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며, 연구개발정책 기획과정에 직접 전문가로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제도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내실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도 조사 기간을 13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하였으며, 내부 연구진, 외부자문단, 검토위원 간의 교차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기간 내에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단계별 관리, 감독 및 성과지표 관리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경영 분야]

-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 등을 신설하여 연구 수요에 적극 대응함.
- 대외활동복무관리와 내부감사시스템이 기관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됨.
- 비정규직 보직부여를 통한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을 함.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은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인권교육 등 일부교육의 이수율이 낮으므로 이와 관련된 개선을 권고함.
- 여성 인력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업무 복귀 후에도 업무수행이나 역량강화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훈련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비상임감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우수하나, 감사교육의 참여율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수요조사를 통해 주요 키워드, 연구과제 및 주제, 연구과제 방향을 도출하였음.
- 연구과제 프로세스를 선도형, 대응형, 탐색형에서 정책수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과제와 단기형 정책현안과제로 기획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음.
- 연구원 내 소통플랫폼(STEPI Research Demoday)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도록 독려하였고,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Bridge Project를 추진하여 연구진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미래전략팀과 사업기획팀 통합으로 정책이슈 대응과 연구기획 및 과제발굴 업무 통합 효과를 거두어 연구기획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점이 우수함.
- 대내외 환경 분석을 위한 다양한 체계적 분석 시스템 구축을 활용함.
- 정책수요자를 국회, 언론, 산학연, 국민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음. 국민의견을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전문가 의견 수렴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수요조사 공문 발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188개처(2020)->414개처(2021)-> 417개처(2022))
- 전년도 평가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부처 중심 정책수요조사에서 탈피하여 국회,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 발굴 노력을 강화(언론 대상 5차례 연구수요 발굴 등) 하였음.
-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기획 TF,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한 하향식(top-down) 발굴, 전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상향식(bottom-up)발굴로 다층적 의견을 수렴함.
- 기술패권, 탄소중립, 지역과학기술혁신 등의 주제는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에 적절한 과제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분석된 키워드를 연구과제로 발굴하고, 그 외의 키워드도 데이터화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미래 연구로 연계해갈 것을 제안함.
-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의 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2년 8회에 걸쳐 개최된 '원내 교류회 TF'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연구경험과 최신 정책 이슈 학습, 기관경영 현안 공유라는 TF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해서 세미나, 포럼, 특강 등의 행사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유도할 것을 제안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일반연구과제는 전략회의-연구조정위원회-연구자문위원회-정책연구협의회를 거치고 외부의견도 서면검토 받아서 합리적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음.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13.7%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중점연구사업은 시의성, 타당성, 효과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였고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연구의 적정성 및 예산 등을 심의하는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쳤음.
-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전략회의(3회), 연구조정위원회(2회), 연구자문회의(10건), 정책연구(실무)협의회(24회, 17건)가 활발하게 개최되어 기본연구과제 22건, 일반연구과제 11건을 선정 하는 성과를 거둠.
- '기술 보호·기술 동맹 주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등 선정된 기본·일반 연구과제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국정과제 및 국가의제를 잘 반영하고 있음.
-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정책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부, 연구계, 학계 및 국민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1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국민제안의견 6건을 채택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임.
- 3개 중점연구사업에 대한 자원 배분이 타 과제 대비 연구비 1.6배 내외(26,000천원)로 추가 배분 되었으며 연구본부 및 단 소속 연구자를 중점연구사업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인력 및 자원 배분의 적정성이 인정됨.
- 연구현장 중심의 Bridge Project 추진으로 타연구기관, 연구부서와의 융합 및 협동연구를 지원함. 2022년도 7개 과제를 12개 기관과 협력하였으며 2023년에는 7개 과제 24개 이상의 기관과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등 다양한 기관과 교류 및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정과제를 기본·일반사업 계획에 100% 반영하였으며 2023년 기본연구과제 22건 중 13건이 정부부처가 제안한 과제로 직접 연구과제를 제안 받았으며 예산도 기본연구사업비의 6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과제연구에서 예산배분이 과제별로 이루어졌으나 인력배분이 과제별 최대 13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구체적 인력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대국민소통을 위한 비상근 조직을 신설하여 기획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산학연·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수요 개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화된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호함.
- 보다 창의적인 협동연구주제 선정이 필요함.
- 협동연구과제 발굴 단계에서 외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화된 틀이 부족함.
- 국정과제를 기본·일반사업 계획에 100% 반영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기관 고유의 장기 미래형 과제에 대한 관심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국정과제 중심의 사업계획 구성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현안은 아니더라도 미래 지향적 R&D 지향 필요).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과제 수행체계를 기존 4단계에서 일정관리 단계를 포함한 5단계로 확대 개편해서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함.
- 내부 연구자 및 연구부서 간 협력·협업을 강화하여 과제수 기준 평균 50%, 일반연구과제의 경우 77.8%의 높은 협업 실적 달성. 참여인력 기준 각각 평균 13.0%, 19.2%의 협업연구 수행 성과를 달성함.
- 수시연구과제의 전달력 강화를 위해 분량을 5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유형을 간편화함.
- 연구비 집행을 모니터링 방식을 신호등 체계로 개선해 연구비 집행을 체계화함으로써 최종 94.8%의 집행을 달성함.
- 신설한 일정관리 단계를 월단위로 세분화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함.
- 연구관리 시스템을 전면 온라인화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외부평가위원인 정부부처 관계자 1명을 권고가 아닌 필수참석자로 지정함으로써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협업 노력을 강화함.

- 협동연구과제 수행 실적을 21년 51개(49.5%)에서 22년 57개(64.8%)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강점인 다학제적 협동연구 환경 조성에 앞장섬.
-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모우대, 평가 가점 적용, 포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
- 협동연구 과제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협동연구과제 관리 효율성이 향상되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내외부 연구자·연구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화된 인센티브로 개인·부서 가점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한 유인 제공 동기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의 최종보고서 종료일이 11.30인데 2.28일 발간 예정으로 되어 있어 미발간 상태의 보고서가 너무 많은데 발간업무의 정시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수행체계의 각 단계별 의사결정 참여자 중 외부참여자(산업체, 국민, 시민단체 등)의 비중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바,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였으나 중간, 최종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 바, 상시적으로 협동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연구자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57개 협동연구기관 및 대상이 기관과 관련된 분야의 협동연구 파트너로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협동연구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와 연구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불명확해 보이는 바(예컨대 7-8개 기관이 참여하는 융복합연구의 경우 포럼과 정책발표회 개최가 성과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과연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협동연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으로 협동연구 과정에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 자체점검단 이원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내외부 연구자 구분 적용, 연구윤리 사전검토 제도 도입, 연구청렴 통합교육 실시 등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을 정교화함.
- 연구윤리점검이 연구 착수~사후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윤리를 연구청렴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내외부 전문가용으로 구체화하여 적용함.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을 활용해 부실학술활동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외부저자에 대한 연구 윤리 통제를 강화함.
- 최종보고서 평가 지표에 별도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 기준을 신설 적용함.
- 교육대상별·시점별 연구윤리 교육 체계를 강화함.
- 생명윤리 등과 같은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연구윤리 문화 정책을 위한 연구윤리 증장기 발전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목표 (3년)와 연계하여 연구청렴관련 증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함.
- 부실학회 참여 방지를 위하여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부실지(학회) 및 부실 학술행사를 검증하고 해외출장 및 논문 게재료 신청 시 안전등급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자체점검이 주로 평가관리 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바, 사전관리 차원에서 평가 관리 단계와 연동해 평가단계에서 연구윤리 점검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과제에 비해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해 보이는 바, 수시과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윤리 관리체계의 간소화 방향은 유지하되 연구윤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가 총괄조직인데 외부위원이 1명 뿐인 바, 최소 30% 이상 확대가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이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외부위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바, 연구윤리 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실질화하고 외부위원 충원을 통해 외부위원 구성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일반교육 및 연구청렴통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적극적인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윤리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수준을 강화해 교육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 홍보, 확산 체계 및 성과관리가 잘 되어 있음. 목표와 전략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연구성과 홍보 확산수단이,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실적도 풍부함. 특히 Viral Marketing (facebook) 실적은 136회에서 229회로 증가함.
- 대학생 ‘크리에이터’ 기자단,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대학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사개최 실적이 우수함.
- 다양한 협력주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홍보하였음. 언론홍보, 언론네트워크 활성화, 방송매체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이 우수하며,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개최 실적이 우수함.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발간물 배포 실적이 전년도 대비 크게 향상됨. 연구보고서 국외 배포(4개국 10부, 4세트), 블로그 게시 100건, 기자단 콘텐츠 수 57건 등에 이름. STI Policy Review 영문 간행물을 발행하여 연구성과를 해외에 소개함.
- 정부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정책수요자와의 대내외 소통협업 실적이 우수함.
-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외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한 교류,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외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개최실적이 2021년도 32건에서 2022년에는 44건으로 증가하는 등 우수함.
- 국외 기관과의 MOU 베이스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만, 페루 등 2개 국가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OECD와 연구인력 교류를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외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가 1명에 그침.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MOU 체결 등 국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연구인력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 의견제시 건수가 연구기관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네트워크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원천자료 관리 실적이 우수하고, 원문정보 공개 및 데이터 개방실적이 우수하여, 공공데이터관리 효율화 및 활성화 노력이 우수함.
- 국가정책연구포털시스템(NKIS) 등록을 충실히 하여, 기본연구, 수시연구, 일반연구, 연구개발 적립금 연구과제 등 51건의 등록비율이 100%를 달성함.
- 비공개 등록연구과제는 4건에 속하며, 이해관계자 및 정부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비공개 사유가 타당함.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확대를 위해 개방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연구 원천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음.
-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다운로드 실적이 1천만건을 초과하는 등 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학술지 게재는 연구원 1인당 0.9편으로 우수한 편이나, 연구원의 규모로 보았을 때, 국제학술지 게재비중이 다소 낮은 편이며, 국제학술지 게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과학기술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20대 국정과제 달성 지원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구 수행 전주기(기획-수행-평가)에 걸쳐 ‘정책기여도 관리 조직 및 프로세스’를 정립함.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수행된 과제는 총 106개로, 약 112억원의 예산과 참여인력 668명이 투입될 정도로 적극적임.
- 정부부처에서 수행한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과 관련하여, 15개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의 입법화, 정부 정책화, 사업화 등 지원 실적이 우수함.
- 2022년 완료된 총 106건의 과제 모두 국정과제와 높은 연계성을 가지며, 기관의 국가정책 기여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31개 국정과제 대응 건수가 우수함.
- 대표사례인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발족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대표사례는 국정과제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 그 취지면에서 부합하며,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한 점,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 기능을 설계한 점 등이 우수함.
- 대표사례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하여 주무 부처들과 자료제공, 정책자문, 세미나 개최, 언론홍보 활동을 지속하였고, 연구결과 국가 우주거버넌스 수립방향 제시와 함께 후속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둠.
- 대표사례의 연구 성과가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및 우주항공청 신설(안)에 반영될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대효과로는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및 우주항공청 신설을 주도하고, 현재 국가우주개발체계의 한계 식별 및 국내외 우주개발 동향을 반영한 우주항공청의 역할, 기능 정립에 기여하였으며, 국가인프라인 우주공간의 활용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국가 우주개발 의사결정 구조 개편안 제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 파급 효과 측면에서 특히 경제적 효과로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우주 산업에 지분을 확대해 국가 운영기반이 되는 ‘우주경제’로의 확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정책적 효과로는 새정부의 우주개발 전담조직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조정에 반영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부처 국정과제 참여 실적이 비교적 부족하고(28건), 연구 인력과 예산규모가 유사한 연구 기관에 비해 국정과제 수행 건수 등 실적이 다소 저조함.
- 국정과제 지원 주요 연구 성과가 현황 분석, 주무 부처 현황 보고, 공론화 촉진 등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책지원 내지 입법성과의 구체적 성과 내지 결과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편임.
- 대표사례의 추진 예산이 5천만원으로 너무 적으며, 대표사례를 통한 입법 지원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정 과제이면서 국정 과제 대응 건수(18건 수행/총 106건)가 가장 많은 74번 국정과제에도 더욱 높은 관심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새정부 관련 12개 연구 주제를 도출한 점과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기획체계, 제도 운영 및 제도, 조직 정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관리체계로서 국가정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획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점이 우수함(전략기획 기능 강화 및 국가정책기여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래전략팀’과 ‘사업 기획팀’ 통합을 추진함).
- 운영노력의 측면에서는 정책고객 수요 반영 연구주제 탐색-발굴-정책화 과정 정례화, 제도화 한 점이 우수함(정책연구수요조사, 연구회와의 협조, 협력, 정보분석 등을 통한 정책화 포인트 상시 도출 및 관리).
- 과제기획, 정책연구실무협의, 연구기획 TF 운영, 연구과제 평가단계에서 정책기여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관리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전략회의를 12회 개최하고 정책실무협의회, 연구기획 TF, 연구자문 위원회,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해 정부수요를 과제화하여 연구과제의 정책기여도를 제고함.
- 정책기여 노력을 통해 4개 법률 제·개정, 7개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함.
- 정책수요자 접촉 기회를 늘리고, 정책기여 성과확산을 추진함(정책연구(실무)협의회 안정적 운영 및 정책수요자 다각화 등).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시 각 단계마다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입법화(입법 기여), 사업화 실적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미래전략 TF, 긴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TF 구성을 통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급감에 따른 이공계 인력양성 문제 등 정부부처의 긴급 현안 이슈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
- 중소벤처기업부 R&D 혁신, 우주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건의 긴급과제에 대해 총 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총 9회에 걸친 관련 부처 자문 또는 위원 참여를 통해 정부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임.
- 반도체 분야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6개 현안과제에 대하여 긴급연구 6건, 정부현안과제 연구 14건, 기타 비연구과제 23건을 수행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계획 수립을 지원함.
- 3개월 단기 수시연구과제(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산업기술정책,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사업 기획연구) 수행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입법적 기여 실적이 있으며,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차 우주전파재난관리기본계획,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안) 수립에도 참여하여 정책화 기여를 함.
- 정부부처와 직접적인 과제협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한 부처 수요 접수를 통해 8개의 수시 연구과제를 발굴 수행하는 등 수시과제 수행실적이 우수함.
-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4.3%,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의 비율이 79.1%(전년 대비 27.6% 증가)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현안과제 수행 건수 제고를 위해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 등을 통한 자체 발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규모에 비해 정부현안 수시과제 수행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제안과제 13건 중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제안과제가 11건으로 그 비중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기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과학기술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경제인문사회를 통합하는 국가혁신체제의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 임무중심 혁신체제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금융, 조세, 통상, 외교, 산업,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융합적 혁신정책을 제안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혁신시스템의 패러다임 확산에 기여함.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의한 플랫폼 경제의 출현 등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적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반도체 및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초격차 전략을 제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중소 벤처기업 지원정책, 국가 우주개발 계획, 예비타당성제도의 Fast Track, 과학기술 ODA 사업 등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함.
- 연구 수행과정에서 포럼 및 간담회, 특강 및 세미나, 정책협의회 및 정책교류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관련 부처, 정치계, 산학연 전문가 및 대중과의 적극적 소통 및 논의를 추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함.
- 국내외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 대안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있으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 4.0전략,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의 수립과정에 전문가로 참여함으로써 과제의 실질적 정책화에 기여함.
-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센터를 기관 내 구축함으로써 국가싱크탱크로서 정책기획과 연구를 전담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아이디어의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들이 일부 있으며, 반대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백과사전적인 정책 나열로 인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점정책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과제가 있음.
- 일부 과제에서 과제와 정책화 실적 간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정책화 실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있음.
- 정책대안과 정책 수립 과정, 정책화 실적과의 연관성이 높은 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환류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함.

- 일부 과제에서는 정책대안의 구체성, 정책 수요자와의 지속적 소통에 비해 실제로 정책화한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론적 모형이나 정책 제안 수준이 아닌 이전과 차별화되는 정책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가성장동력 선정방안, 헬스 데이터 공공 플랫폼 및 예비타당성 제도의 Fast Track 등 일부 과제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 또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노력이 주로 정부 부처, 전문가, 기업, 정치계 등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시민단체와의 소통은 대체로 부족하며 일반 국민을 위한 홍보와 안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 일부 과제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가 부족하거나, 심층면접이 아닌 서면으로만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거나, 유관 부처와 기관의 의견수렴이 정책 기획 과정을 지나 과제 완료 시점에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음.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내실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도 조사 기간을 13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 재정사업평가센터 자체평가를 추진하여 사업계획 및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 연구진, 외부자문단, 검토위원 간의 교차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추세 분석 및 장비 검토는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기간 내에 수행하기 위해 단계별 관리, 감독 및 성과지표를 관리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각 단계별 과업 추진을 관리하는 모형을 제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표준화를 추진함.
- 세부사업별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조사 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등이 제고된 점이 있음.
- 기술비지정사업에 대한 맞춤형 조사지표 및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합리적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수행지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COVID-19로 인한 업무 차질로 인해 '22년 착수사업 4개 중 1개가 과기정통부 요청으로 목표 기간(7개월)을 초과함.
-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성과 지표로서 기간 단축 외에 조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표 추가 고안이 필요함.
- 기술사업화, 지역R&D, 임무중심R&D 등 기술비지정 R&D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그 특성이 다양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지표 마련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초·정책 연구보고서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 등의 관점에서 국가혁신전략 체계에 대한 대안 제시를 시도했다는 차원에서 연구의 시의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연간 연구 활동 전체에 걸쳐 국가혁신전략 체계라는 일관된 문제의식을 견지한 점을 높이 평가함. 동시에 전체 보고서가 조사와 분석이라는 강건한 논리구조를 잘 갖추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에 대한 주장이 단계적으로 잘 구성되었음.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 “개도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전략: 주요국 분석과 협력방안”의 경우 대외제도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요구의 수요 차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ODA접근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 또한 “정부 R&D 수행 이력 분석을 통한 대학 연구자 성장경로 모형 개발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장경로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연구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의 기획성과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잘 드러났다고 판단됨.
- 이외에도 연구보고서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존립 근거에 부합하는 연구가 효과적으로 이뤄졌음. 특히 국가성장동력 확보, 해외 사례 조사, 규제 개혁, 경제안보 등의 관점에서 정부의 연구 수요에 적극 부응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제체제 구축방향의 합의점 도출, 그리고 국가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향후 국가우주개발 정책의 활성화를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대내외적 연구 수요에 잘 부합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의미 있는 연구 수요 발굴 및 관련한 연구 결과는 연구 방법 차원에서도 잘 반영되었는데, 예를 들어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간 균형 있는 활용을 포함하여, 전문가 의견 제시 등과 같은 연구 방법의 적극적인 외연을 넓힌 점, 또한 역사 분석과 통계를 활용하여 개별 연구목적에 따른 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있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이 아쉽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음.

- 연구보고서 평가를 통해 발견된 몇 가지 미흡한 점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음. 첫째,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사이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R&D 수행 이력 분석을 통한 대학 연구자 성장경로 모형 개발 연구”의 경우 문제의식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을 대학연구자로 한정된 점은 연구진행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고자 함. 또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국가 성장동력 선정 방식의 전환” 연구에 있어서도 성장동력의 적극적인 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성장의 주체를 여전히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한정된 것 역시 기존의 연구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됨.
- 특히 성장동력 관련 정책은 신정부 출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하나 차별화된 명칭으로 설정 및 추진된 바 있어서 동 연구과제의 추진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방안 실현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법·제도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 않은 점은 한계점이 아닐 수 없음.
- 정책 추진 제안 관련하여 기반 구축 부족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고자 함. 특히 기후변화대응 분야, 인공지능 분야 등은 부처 간 경쟁, 관련 법제도의 부족, 민간영역과의 협업 발전 시나리오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보고서의 경우도 정책추진 환경 및 기반의 현실성이라는 차원에 좀 더 천착했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움.
- 마지막으로 6차년도에 접어든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의 경우 현재 연구 내용에서 일부 추상적인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 바,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 문제, 기술규제의 방식, 수단의 선택 등 기술규제 운영의 내용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연구가 이뤄진다면 연구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협동연구보고서의 경우, 대체로 연구주체가 시의적절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과 정책을 진단하고 최근 산업계 및 국내외 동향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동시에 충실히 수행한 점에서 연구의 완성도가 높음. 또한 보고서에 제시된 사례 산업 관련한 정책 구체성은 추후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임.
- 특히 3년차 진행된 “스마트 생산 열린 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의 주요 아이টে인 스마트 제조와 관련한 시의성 높은 기획의도가 돋보였고, 보고서가 밝힌 정책 방향성도 설득력이 높아 보임.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다년도 연구계획에 따라 단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도 적절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당초 연구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일부 포함되지 못하거나, 혹은 포함되더라도 상대적인 비중이 미약하여 활용 가치를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 “과학기술패권 경쟁” 연구에서 패권국가들의 정책 동향 분석이 여기에 해당함. 해당 연구의 경우, 문제의식의 특성상 해당 국가들의 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정책 제안의 현실성을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열린혁신랩” 연구의 경우 3년차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정책 방향의 구체성은 다소 미흡했음. 올해까지의 연구 성과들이 주로 탐색적 측면에 그쳐 정책방안 차원에서 심도 깊은 대안제시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경영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성과가 2021년 바이든정부 수립 후 미중 패권전쟁 강화,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정합성을 갖추.
-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 SWOT분석을 통해 중요한 이슈들을 대체로 잘 포괄하고 있는 무난한 연구계획을 수립함. 경영목표와 실천계획과의 연차별 추진비중 분석 등이 우수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보임.
- 경영목표별 추진전략과 성과목표, 실적과의 연계성이 체계적임. 특히 분야별로 연구영역에 대한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구체화된 추진전략이 수립되고 있음. 또한, 실천과제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장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러한 활동이 경영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전체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100% 이상으로, 경영목표1 달성도(181~233%), 경영목표2 (100~250%), 경영목표3 (100~200%) 등의 실적을 초과달성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1과 경영목표2는 달성도가 높은 편이나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많지 않음. 경영목표와 국정연계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 노력이 요구됨.
- 연구주제와 정책수요채널 기반 연구영역 기반 확대 노력이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국한되는 등 명실상부한 다층적, 다면적 수요채널 다양화 기획 노력은 미흡함.
- 분야별로 연구영역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구체화된 추진 전략이 수립되었으나 경영성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음.

- 경영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거나 측정이 용이한 정량지표 중심(협의회, 발간물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경영목표-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책포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의회, FUTURE HORIZON, STEPI INSIGHT 등 발간물은 기존에도 수행되는 사업임으로, 원장의 리더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계획에 중요도나 시급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원장의 리더십이나 비전과 경영목표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위원회를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모니터링하고 목표수준의 적정성과 지표의 적합도 등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 1-2, 더블 뉴노멀 시대 과학기술기반 인재, 기업, 지역 성장전략 연구의 경우 추진전략과 성장목표, 실적의 적정성이 낮은 편이므로 실적의 적정성과 평가기준의 적합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2의 연구체계를 위해 융합연구 네트워크 풀 & 글로벌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설 또는 정례화된 DB 구축 등이 필요함에도 현재는 세미나나 발간물이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실적의 적정성과 평가기준의 적합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성과목표는 실천과제에 부합하지 않음. 예를 들면, 재정부문에서 수탁과제 부담 완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연구실적의 목표와 상충되므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와 연계되도록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활동의 상호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인재육성을 위한 활동과 연구활동 간의 관계 등 다수의 실천과제에서의 실적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천계획과 실질적 경영활동을 통해 달성한 성과간 연계성이 드러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 부문의 노력 중 G 부문의 내용적 특징이 미흡하며 실적이 제한적으로 제시된 바, 지표별 구체적 실적의 제시를 통해 목표 달성도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2022년 한 해 동안 경영전략 및 목표 공유를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했음. 이러한 노력은 참여의식 확장 및 소통기획의 장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소 늦었지만, 노사협의회 신설도 의미 있는 성과였음.
- 조직 내 구성원과의 제도적 소통구조 활용 측면에서 직원 초청 만찬 및 원장실 오픈을 포함한 다양한 소통 노력이 돋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 구성원들과의 대체로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진행과정, 피드백,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등의 관점에서 다소 추상적인 분석이 발견됨.
- 특히, 소통 채널의 운영에서 구성원의 자발성과 능동성 제고가 필요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기관의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역동적인 활동이 있었음.
- 다양한 국내외 외부 활동을 통해 대체로 정책 연구기관에 정체성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대외 활동이 전개된 것으로 판단됨.
- 연구회가 개최하는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업무협약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향후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기관발전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다소 일반적인 활동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함.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기술주권·안보를 위한 국가연구체제 구축

〈우수한 점〉

- 국제사회의 기술패권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협의회 및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정책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
- 사업수행을 위한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카이스트 등과 연계성을 강화함.
- 기술외교전략의 선도성을 바탕으로 국가연구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기술안보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한 점은 우수함.

- 3대 경영목표 일부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관련된 7건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역시 적절하였음.
- 미·중 갈등 등 기술패권주의 대두에 따른 글로벌 통상 위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산업, 통상 정책 간 통합적 정책 접근 필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 기관장의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선정의 중요성이 타당할 뿐 아니라 국내외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 선정 및 수행 체계 수립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량을 잘 발휘하였으나 기관장이 투입한 역량이 다소 투명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기관장 중점사업 추진 성과지표로 서면자문 등을 제시하는 경우는 개선이 필요함.

(2) TNT(Think Network Tank)를 통한 연계·협력 확대

〈우수한 점〉

- 글로벌 리딩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융합적 역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일환으로서 글로벌 외연확대 노력과 적극적인 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존재함.
-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방법론으로서 본 사업의 선정이 적절함.
-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시기에 집중되기보다는 연중 꾸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국내외공관 네트워크 등 글로벌 외연 확대 노력이 8건에 달하는 등 관련 노력이 양호함.
- 국내 연구기관, 대학, 학회, 국회의원, 관련 단체 등 협력체계구축과 소통채널이 다양하여 외연확대 노력이 적절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다른 사업들의 수행노력 및 성과확산과 비교할 때, 본 사업의 고유한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TNT라는 사업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협력 등 협업체계 구축의 전반적 지향점 제시가 필요함.
- TNT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커다란 방향성과 네트워킹의 주제 설정 등을 통해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특히 협력 체계와 소통채널 확대 간의 연계성과 차별성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체계구분 노력이 요구됨.
- 추진전략-현안-중점추진사업 도출 과정상 유기적 연계성이 다소 미흡함.

- 협력체계 및 소통채널 확대의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활동내역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융합플랫폼으로서 구체적 성과가 제한적이며, 특히 국제 네트워크의 경우 실질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성과도출을 위한 체계화 노력이 추가로 요구됨.
- 협력대상으로 선택되어 있음에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내용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흡함. TNT 사업은 산/학/연/관의 협력증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러 대학과 적극적 협력 및 관련 연구활동지원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지원사업을 보다 널리 확대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됨.
- Inbound 네트워킹 요청에 부응하는 것보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 타겟 기관을 명확히 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outbound 네트워킹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3) ESG 경영 체계 구축·추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강화

〈우수한 점〉

- ESG라는 목표는 보편적이고 상위의 무형가치인데, 이러한 가치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차원에서 적절하게 수용하고 해석하고자 한 전반적 노력이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기관장이 리더십이 작용했음.
- ESG의 시대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책연구기관의 성격에 적절히 부합하는 정책연구 추진을 위한 체계적 ESG 경영체계구축 및 점검활동이 인정되며 ESG 추진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전직원 간 내부 학습 및 조정공유 노력이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ESG 경영을 시도하였고 기관의 ESG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조성 등 대체로 무난한 수준의 집행 노력 및 성과확산 노력이 수행되었음.
- ESG 각 내용을 연구와 행정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구체적 ESG 경영활동이 구성원의 참여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지속적 ESG 활동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ESG 사업성과지표 관련 제도화 안착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ESG 경영이 주류화(mainstreaming)되는 등 연구기관으로서 특정할만한 뚜렷한 ESG 관련 수행 노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과거와의 차별성이 약하여 일반적이고 초기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새롭게 추가된 ESG 관련 노력이 잘 보이지 않고, 기존에 해오고 있던 업무를 ESG라는 틀 하에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G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일반적 기관 운영 내용과 차별화할만한 내용이 미흡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실천사례 위주로 접근하였으나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낮은 편이며, 국제기구와 과학기술 ODA 등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ESG 추진도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으므로 시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대외 네트워크 노력과의 연계성 강화가 요구됨.
- ESG 성과 확산에 연구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구성과와 경영성과는 상호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2022년 기관이 직면한 환경 중 기관의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환경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조직을 운영함.
- 기술패권 경쟁, 미래혁신 연구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등을 운영함.
- 중소·벤처 기술혁신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가 신설되었으며, 특히 해당 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기관 선정 과정을 통해 신설된 연구부서로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역량 우수성을 방증함.
-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가 신설되었음에도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
- 에너지 절감 실천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하고, 햇빛 차단 필름 등 우수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하는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ESG 경영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함.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환경 개선 추진에 있어 퇴직자 명예연구위원의 연구 참여 폭을 확대하여 전문성 활용방안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임.
-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분야와 경영분야의 분리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기관의 조직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 및 활동이 우수함.
-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되,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상시체계 운영과 추진실적 점검·공유를 강화함.
- 상시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분야에서는 전략회의, 연구부서장회의, 연구단장 협의회, 다면적 연구성과 점검체계가, 경영분야에서는 원무회의, 연구단장 협의회, 전략기획경영본부장 부서장 회의가 다층적으로 운영됨.
- 다면적 연구성과 점검체계를 통해 연구성과의 품질과 정책연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함.
- 연구기획 단계에서 정책수요자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정책수요자의 의견과 판단을 최대한 수렴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R&D 재정사업평가센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등은 타 기관과의 협업 또는 기능 이관 등 대외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성과목표와 성과달성 여부, 그리고 효율화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기관이 추진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에 대한 타당성/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타당성/효과 분석을 통해 기관 개선을 위한 조직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는 등 사후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조직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및 기관의 활동과 노력과는 별개로 실제 조직성과 관리의 실적이 다소 미흡하며, 조직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성과의 구체적 내용과 관리 결과가 다소 모호함.
- 조직성과 목표 설정, 목표 달성률, 전년 대비 개선/미흡 분석 등을 통해 성과관리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에 따른 신규인력 수급 계획이 22년부터 26년까지 마련되어 있고, 22년 채용인원의 68.2%가 청년으로 고용되었음.
-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일반 취업포털을 통한 채용공보 홍보와 연구자용 취업정보 사이트 유료 광고로 우수인력 지원을 유도한 것은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적정함.
- 연구직 연수연가 이외 행정직과 전문기술직대상 교육연수(3개월)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국내외 학술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반영비율을 분리하여 평가비중을 독립적으로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상운영비의 지속적 삭감에 따라 교육훈련비가 감소하였다고 하나 1인당 절대금액도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유·무료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논문게재실적 중 해외 학술지(SCI, SSCI는 3배 가중)가 비등재(SCI, SSCI 이외, 2배 가중)에 KCI(1배)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바, 비등재 해외 학술지의 수준별 가중치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제 논문의 수준별 가중치와 국내 논문의 수준별 가중치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임직원 행동 강령, 직원 대외활동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및 교육 등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함.
- 대외활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서 온라인 교육과 반부패 청렴 Quiz 등 주기적 실시를 통해 2022년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발생 건수가 없음.
- 근무관리와 관련하여 내부감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였고, 21년 자체감사 2건과 22년 자체감사 2건을 실시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함.
- 유연근무제, 안식년제 관련한 제도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마트형 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함.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선발규모 3명을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연차휴가 관련 규정 및 운영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휴가의 소진율이 97%로 전년도 대비 향상됨.
- 재량근로시간제는 신분증 태그,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PC-OFF 시스템 등 출입관리시스템으로 직원 출퇴근을 적정하게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자체감사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운영기준에 따른 일일 보고자료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열람,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숙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 근무 관련한 자체감사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므로, 분기별 또는 상시 감사가 필요하며, 재발방지에 대해 선제적 노력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 재택근무형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부분을 도출하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재택 근무자의 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검토와 구축이 필요함.
- 연구연가를 통해 기관과 조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현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선진동향 학습을 위해 연구년 대상기관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동향 검토를 건의하며, 선진과학기술정책과 사례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연가제도의 대상국가 다양화가 꾸준히 유지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안식년 및 연구연가 수행직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며, 연구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해야하는 등에 대한 기한명시와 더불어 불이행 시에 대한 제재사항도 함께 적시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연수 후 성과확산을 위해 결과보고를 원내에 홍보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학술발표나 학술지 게재 의무화 여부 검토가 필요함. 개인의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조직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문지식의 확산 측면에서 포럼이나 세미나,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공유될 필요가 있음.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절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관 8년 연속 인증 받음.
-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직원이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시간 제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하고 육아시간 제도는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보건의료 휴가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이 요구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계별, 즉 임신을 앞둔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등 lifecycle 별로 정리하여 홍보하고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
- 육아휴직 시 인력 공백기가 없도록 대체인력 수급 계획 및 채용절차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안정계획 및 관련지침을 만들어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상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비정규직 채용을 위해서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2년 3회 개최)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비정규직의 보직부여와 AI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승진실적이 있음.
- 인사,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연구원 제반 규정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비정규직은 최소 범위 내 운영 중임.

- 임금 수준뿐 아니라 교육, 복지 등의 혜택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규정의 사례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실제의 파악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보직이 확정된 외부개방직 채용을 비정규직 승진실적으로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와 이를 기반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계획과 실적, 그 피드백이 이루어져 적절한 비정규직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소통이 개선되었으면 함.
-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차별 해소 상황이 아닌 향후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정년퇴직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명예연구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직무를 구성원들에게 노하우 공유 및 신입직원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 수행으로 정의하고 퇴직연수 훈련제도를 통한 정년퇴직예정자 교육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정년퇴직 시점 기준 2년 전부터 임금조정 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축적된 전문성을 기관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에게 지식 및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 5년간 대상자 25명에 대해 신규인원 12명을 채용할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실제로 2022년 7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운영하였으며,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1인에 대한 채용을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연수 훈련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연차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 명예연구위원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의 직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의 훈련도 단기간 또는 1회성이 아닌 계획에 따른 실적이 도출되어야 함.
- 구성원에게 연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입직원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이를 제도화하여 임금피크제를 통한 효과가 기관에 내재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임명된 명예연구위원들이 명확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포함),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 윤리경영 관련 규정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고,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2.6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2.11월), 특별채용에 대한 규정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됨(23년 1월).
- 기관장 경영목표 중 ESG 체제기반 지속가능 경영가능 추진을 위해 윤리경영체계를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반부패, 청렴 관련 등 예방을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22년 총 10건 교육 실시 결과, 교육 이수율이 개선되었고(’21년 78.5% → ’22년 84.3%, 전년대비 5.8% 증가), 반부패 청렴 교육이 관리자 96.6%와 100%를 달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클린 STEPI 센터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관련기관 신고센터와 연동하여 운영한 점이 인정됨.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통제수단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변호사 및 노무사 각 1인)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3회 운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규정마련, 교육실시, 그리고 채용외부위원 비율의 준수 채용의 모니터링을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불공정 거래(갑질 등) 근절을 위한 교육실시, 제도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기반 채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청렴한 채용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율도 우수한 편임.
- 채용 전형단계별로 외부심사위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경영의 실행, 공개, 절차 제공에 있어서,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외부 인권침해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사이트를 정비하여 접근성을 높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은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인권교육 등 일부교육의 이수율이 낮으므로 법정교육의 경우 100% 이수를 목표로 교육참여율을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관리자의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임직원행동강령에 금품수수금지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이 제시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나 23년 개정작업 중임을 심사과정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예정대로 개정될 것을 기대함.
- 대외활동지침에 징계양정이 없으므로 대외활동 위반 횟수와 위반금액 등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친인척채용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직종별, 분기별로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접근성 있게 게시할 것을 권고함.
- 정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부직원에 대한 실태점검과 외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대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채용지침에 특별채용 부분이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하나 심사과정에서 제한경쟁으로 전환하여 개정작업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예정대로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을 기대함. 다만 상위 인사 규정에는 언급이 없는 특별채용 혹은 제한경쟁을 하위 채용지침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 위계체계에 맞춰 정비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경영규정 상에도 외부위원 비율이 없음.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바람직하나 최고경영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의 인권경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청년인턴 채용실적 143% 달성(계획 7명 / 채용 17명)은 고무적이라고 판단됨.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적응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단기과제의 성과발표를 통한 우수인턴의 선정은 긍정적이며 실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 예산 집행률 92%로서, 100% 달성이 필요하며, 중도퇴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 우대조치가 서류전형단계 면제 정도의 다소 미약한 조치로 시행됨.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2년도 정규직 신규 채용자 인원 수 12명 중 여성이 4명(비율 33.3%)이고 채용 외부 심사위원 구성 시 여성 위원 필수 참여로 채용 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편견 개입을 방지하고 있음. 또한 경력단절 여성지원자에 대한 불이익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 조직 내 관리자 임명 직급 제한을 최소화하고 여성 직원에 대한 승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여성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21년 43.6%→'22년 46.2%)되고 있음. 이와 같은 여성 구성원의 기관 경영 참여 확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여성임원 실적(50.0%)은 공공부분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인 '22년도 임원 목표 비율(23%) 대비 27% 초과 달성함. 또한 여성관리자 실적(46.2%)의 경우는 '22년도 관리자 목표 비율(28%) 대비 18.2% 초과 달성함.
- 여성 인력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업무 복귀 후에도 업무수행이나 역량강화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훈련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여성보직자 자체 목표치를 수립하여,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내 여성 보직자 확대 방안을 마련('22년 32%→'26년 37%)하여 보직 임명 시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 성인지교육, 성희롱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이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임원, 관리자, 직원 모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실적 기준을 초과 달성함.
- 상술하면,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21년 78%→'22년 91%) 증가시켰고 부서장 참여율 100%를 달성하여, 구성원들의 교육 이수 정도는 대체로 양호함. 구성원의 양성평등 필요성 인지 능력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 활용의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 자체의 연도별 여성보직자 관리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여성보직자 신규 임명을 확대하여(전년대비 1명 증가), 연구직 20.7%와 행정직 40%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직 보직자의 비율을 행정직 비율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육아휴직 등으로 되어 있는 바,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관련 교육에 전직원 이수비율이 높으나 일부 전문교육 참여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다양화와 심화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함.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은 고충상담원 2명 중 1명만 교육 이수(50%)하였으며, 성인지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4대 폭력의 예방교육 이수율을 향상시켰으나, 100%와는 아직 괴리가 있어서 추가적 노력이 더 요구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2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대비 초과 달성(3.9% 달성)
- 장애인 특별채용 및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 채용 우대기준(5%)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채용 우대제도 홍보 등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확인됨.
-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실적으로 장애 유형과 에티켓, 직장 내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사례 등 전 직원 대상 인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 국가유공자 고용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주요 업무 수행 이외 채용 노하우 및 정보 수집한 점이 인정됨
- 관할보훈지청과 고용방안 논의 및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달성기관의 우수사례 검토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등 노력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2년 장애인 채용실적이 없어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꾸준히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노력과 별도채용 정도, 중증장애인생산품(구입총액 5.94%에서 1.14%로 삭감) 등은 다소 미흡한 수준임.

- 국가유공자 고용률 2.3%로 정부권장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전년 대비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기준을 충족할 필요 있음.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고용 규정 마련하여 특별채용과 가산점부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임.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채용심사위원회 사전 교육과 회의록 작성 시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개선한 점이 긍정적임.
- 감사전담 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자체감사 2인과 청렴교육 내부강사 1인을 배치하였고, 비상임감사도 적극 활동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공공기관 자체감사 자격, 감사실무자과정 및 회계분야별 과정 등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이 우수함.
- 국무조정실 및 감사원 등의 유관기관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전 직원에 공유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줄이는데 기여한 점은 우수함.
- 감사전담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개인 연차 평가는 2명의 별도 평가자로 분류하여 시행한 점이 긍정적임.
- 외부 자문위원 2인 및 옴부즈만을 통해 자체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함.
- 자체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감사분야 역량수준을 확인하는 자체진단 결과를 근거로 재무회계와 특정 사업 등으로 교육을 확대할 것을 건의함.
- 감사교육이 온라인 교육과 윤리통제 및 청렴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 콘텐츠 연결과 대면 교육 등을 시도해 볼 것을 기대함.
- 온-오프라인의 교육 병행 등 감사교육의 참여율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교육 후 인식개선과 현업 적응도 및 기여도(감사교육 성과)를 측정,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합감사와 특별감사의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여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 국토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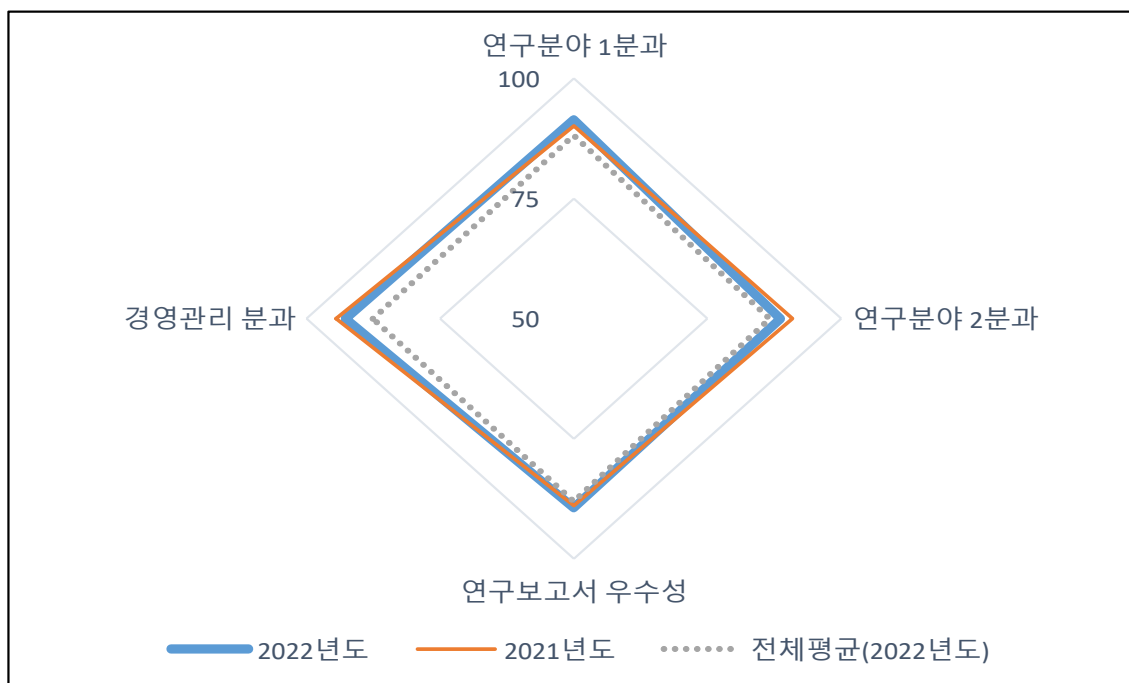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A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A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A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S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S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A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A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C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C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D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B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A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S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PESTEL 분석, 200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연구 수요조사, 국민연구제안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수요와 핵심 현안이슈를 선정하였음.
- 기본과제 공동책임제 신규 도입, 개방형 수시과제 책임 선정 제도, 기관 공의 정책영향력 평가 제도 시행, 연심회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연구윤리 자체검증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함.
- 연구수행단계의 우수성으로 정부 담당자 수시 소통, 중요과제 업적평가에 추가 반영, 정책방안 제시 4가지 유형(단일 정책 제시, 복수 대안 정책, 포괄적 정책 전략, 중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국가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이 체계적이고, 과제 수행 성과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우수함.

-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화 및 입법화를 위해서도 정부 부처와 국회, 전문가 등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 데 많은 실적을 거둠.
- 집행사업의 단계별 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자와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경영 분야]

- 7S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외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수자원정책연구단 신설, 그린인프라정책 연구센터 개편 등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함.
- 연차휴가 월별사용촉진제도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 등 기관의 복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비정규직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방지노력, 적합직무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을 모두 초과달성한 점은 고무적임.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충실하게 대응하였으며, 자체감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교육의 효과성 관리를 건의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PESTEL 분석, 200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연구 수요조사, 국민연구제안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수요와 핵심 현안이슈를 선정하였음.
- 찾아가는 국민연구제안 우체통 같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함.
- 6단계에 걸쳐 세분화된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목표와 핵심 현안 이슈를 설정하는 구체적 노력이 있음.
- 정부교체 시기 신속한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제안서 대면심의를 병행 시행하는 등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구기획의 과정과 절차가 있음.
- 정책연구협의회(2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운영(31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국토부, 행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공동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한 점이 우수함.
- 국회에서 개최한 국토 관련토론회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였음.
- 전년 대비 대국민 연구수요조사가 대폭 확대됨(28건에서 154건으로 5배 이상 확대).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 8대 핵심 현안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사업목표를 설정한 것이 우수함.
- 연구기획단계에서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공개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 그 결과 28개의 기본일반과제를 발굴하였음.
- 유관부처 업무계획 분석 등 국정과제와 부처 제안과제 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획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음.

-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국가·사회적 현안 이슈들을 빅데이터 분석, SNS 수요조사, 국민참여단 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점은 우수함.
- 연구기획의 각 단계마다 내외부 정책고객의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고 환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며, 이러한 의견이 과제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다양화가 필요함.
- 국토 관련 연구기관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획에서 정책수요자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기획단계부터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함.
- 연구기획 발굴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고객이 지나치게 정부 행위자에 편중(약 76%)되거나 정부 행위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참여 실적은 2회(0.9%)로 여전히 저조함.
- 연구기획 각 단계별로 국민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산재해 있어 중복·중첩의 우려가 있음.
- 지자체 대상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부족함. 대부분 수도권, 충청권 중심의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의 큰 맥락에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부족함.
- 해외도시의 현황을 청취하는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함.
- 연구기획의 각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어떻게 상호연계되어 최종적인 연구과제 선정으로 연결되는지, 예컨대 1단계의 PESTEL 분석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움.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과제 발굴 및 선전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65%에 가까운 정책고객 의견 반영률을 유지하는 등 연구과정의 대외 개방에 적극적임.
- '23년 기본연구사업 19건 중 기초과제는 5건(26.3%), '23년 기본연구사업 투입예산 비중은 총액 11.2억 중 3.2억(28.5%)으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음.
-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 부합성, 연구사업목표 부합성, 파급효과, 정책고객 의견 반영을 통해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됨.

- 근무성적평정규칙상 중점연구사업에 대한 예산(보통과제 예산의 198.6% 지원) 및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등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노력함.
- 중점과제는 협동연구 수행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협동연구과제 수를 줄이고(70%에서 63.2%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 예산은 증액해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 협동 및 융복합 연구 발굴 TF 운영으로 협동연구 기획·발굴 역량이 강화되었음.
- 원내 구성원 간 협업 분위기 조성 위해 전문연구모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 국정과제의 국정목표를 연구과제에 반영하였으며 기본과제 19건 중 정부부처(중앙행정기관) 제안과제는 10건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과제 통합 및 조정의 수행 주체와 통합 및 조정의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음.
- 과제발굴 시 정부, 국회, 국민 외에 산업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견이 연구선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가 1-2개 정도의 협력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협력기관을 좀 더 확대하여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의 창의적인 과제가 부족함.
- 정부정책과제 반영 시 중앙정부 의견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연구원의 성격상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과제 발굴할 필요 있음.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본과제 공동책임제 신규 도입으로 원내 협업 연구를 강화함.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과제 수는 30% 축소하고 과제당 예산은 30% 증액하는 등 과제수행체계의 전면 개편해 연구질을 향상함.
-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로 연구진 내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함.
- 외부심의위원의 연구심의 참여가 매우 활발한 편임(외부전문가 356명, 연구자문 1,547인).

- 연구과제 평가 및 심의의견 환류 체계가 매우 입체적이고 단계적이어서 연구의 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 높아 보임.
- 직급과 소속을 따지지 않는 개방형 수시과제 책임 선정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전문연구원급 이하 연구원의 연구분위기를 진작함.
- 기관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방안 제시를 유형화하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 원클릭 지식자산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를 증진함,
- 연심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해 재검토율이 24.2%에 달하는 등 연심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협동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협동연구 발굴 TF를 별도 운영하는 등 협동연구에 특화된 수행체계를 구축함.
- '22년 협동연구과제 수 122건(57.0%), 예산 145억원(56.7%), 투입인원 670명(56.5%)으로 그 중 국토연 주관 협동연구가 1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주도적 협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심회 등 연구과정 관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그로 인해 연구 수행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를 저하할 가능성도 있는 바 연심회 운영을 보다 유연화하여 연구진의 행정업무 부담 등 연구 외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최종보고서 평가 시 외부전문가 참여가 주로 학계·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계 참여가 매우 저조한데 산업계 전문가를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수시과제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 점은 수시연구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긍정적이지만 4개월로 규정된 기간이 다양한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최대 12개월까지도 연장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시연구의 다양성(전략·정부요청·일반) 등을 고려해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해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별도의 발간·출판 관련 독립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별도의 발간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본·일반과제 연구심의회 및 보고서 리뷰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을 보면 연구주제의 내용이 다소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플랫폼 구성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체계가 부족해 보이는 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된 지자체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외부 협력 네트워크에는 상대적으로 지자체나 그와 관련된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인 바, 기관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지자체, 유관 기관 및 조직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원 내외 합동 연구윤리 자체검증단(TF)를 구성·운영해 2년 연속 자체검증에서 클린 기관 목표 달성함.
- 연구윤리 자체검증단을 구성해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연심회 개최 시에 연구윤리 준수 정도를 매년 평가해서 점수에 반영하는 등 연구윤리 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2022년 총 2,806건의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부주의 점검 사례를 적발함.
- 연구윤리 부정행위 제보 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함.
- 연구윤리 자체검증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윤리 자체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함.
- 연구윤리 관련 법령과 상위 규정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윤리 관련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연구윤리 자체검증체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전담인력을 1인 배치하고 있는데 기관 규모나 연구윤리 관련 업무 부하량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바, 부서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토록 하거나 연구윤리위원회 등 별도의 총괄조직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자체점검 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데 내외부 자체 검증단 외에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보고서 수행이나 검독단계에서도 카피킬러 시스템 외 체계적인 윤리 검증이 교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층화할 필요 있음.
- 자체점검단의 검증위원 구성에서 내부 68명 외부 10명으로 72건 과제 규모에 비해 검증위원 규모가 적고 내외부 구성비의 편차가 심한데 외부위원 확대를 통해 구성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자체점검단을 내부2 외부2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72개 과제를 78명 검증위원으로 검증하려면 5차례에 걸친 분산 검토와 위원 중복 검토를 허용한다하더라도 외부위원의 업무부하량이 많아서 정밀한 윤리검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외부위원 확충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협동연구과제는 별도의 자체검정 대상이 아니고 연구책임자와 기획평가팀 수준에서 가볍게 다루어지는 느낌이 있어 외부위원의 검토 과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화해서 객관적인 윤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있음.
-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태에 대한 조사심의회나 계획 수립 등에 한정되어 있어 보고서의 내용만으로 볼 때 거의 퇴화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고 외부위원의 구성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자체검증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 연구자와 외부 연구자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연구자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내외부 구성원에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의 홍보, 확산체계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홍보확산 수단 다양화를 지적 받고 이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실적도 증가함.
-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지식자산 공유시스템, 연구성과 웹사이트, 연구성과 전시공간 운영이 특색이 있음. 인터랙티브 리포트, 국토TV & EBS 다큐(유튜브 채널 활용도가 높음), SNS 카드뉴스 인포그래픽등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실적이 우수함.
- 1차 연구, 2차 확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구성과를 재가공해서 확산한 실적이 우수함.
-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출판수단, 보도자료, 기고 및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출현 등 실적이 우수함.
- 어린이, 국민대상 성과확산 실적이 우수함.
- 세미나, 심포지엄,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 실적이 62,000건 내외에 이르는 등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및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이 우수하려, 정책수요자와의 대내외 소통 및 협업정도가 우수함.
-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정책연구기관’ 비전과 ‘글로벌 연구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라는 목표에 기반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 및 전략수립이 우수함.
- 전략개발을 위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수립함.
- MOU 체결 및 이에 기반한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지난 3년 평균 대비 실적이 우수함.

- 정책연구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부부처, 국회, 유관기관, 학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계획 수립 및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국토 분야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를 위한 국내외 중점 협력기관과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계은행 등 MOU 체결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국내외 전문가 대상 활발한 인력교류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해 건수 기준 전년대비 37.5% 실적이 확대되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홍보확산 및 환류체제를 담당하는 기구 및 부서간 협업체계 조직화가 필요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성과가 입법 또는 정부정책 지원 성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지원 실적이 우수함.
- 2022년 기준 4,434건(누적)을 등록하여, 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 중 최상위그룹(2위)를 차지함.
- 2022년 등록대상 중 2023.3.31까지 등록대상 자료(기본 28, 수시 14, 일반 12) 제외하고 모두 등록함.
- 연구과제 이외 정기간행물과 세미나자료, 브리프 및 워킹페이퍼도 NKIS에 등록하여 연구확산에 기여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발간 기획단행본 중 약 90%는 비매품으로 발간하였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전체 원문을 제공하여 민간지원 실적을 강화함.
- 「업무상 저작물 처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 및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누적 4,434건을 등록하여 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 중 2위를 차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공개 연구과제가 12건으로 다소 많음. 2016~22년에 수행한 연구에 대해 비공개 사유가 소멸 되는대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공개로 전환하는 절차를 갖출 것을 제안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토 분야 9대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영향력 평가를 통해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 있음.
- 국정과제 지원 실적에서 국정과제 지원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법/제도 제·개정 23건, 정책지원 116건, 민생지원 18건, 시범사업 추진 12건 등 총 169건의 성과를 도출한 점이 우수함.
- 2022년 전체 수행 과제가 204개(95.3%) 연구·사업에 예산 239억원(93.4%)을 투입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대표사례 수행을 통해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및 국토기본법 개정 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86. 국정 목표 4와 연계하여 추진한 실적이 우수함.
- 대표사례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 관계 법제도 마련,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및 시행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한편 전담연구 조직(탄소중립국토 도시연구센터 신설,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을 신설하여 추진함.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에 따라 국토·도시 부문, 건물 부문, 수송 부문별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및 관련 정책연구과제, R&D 과제 등을 발굴함.
- 대표사례의 주요 성과인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로 선정, 16개 후속 연구 수행, 국토교통부 탄소공간지도 구축사업 발굴, 정부 토론회 8회 및 위원회 3회 활동, 번역서 2건 및 기타 발간물 7건 발간, 언론 11건 보도 등 성과가 우수함.
- 정책화 실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 관계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파급 효과로 탄소 종합 플랫폼 구축, 탄소 감축 사업의 준비, 계획안 작성, 건설 및 준공, 사후 관리의 전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정책의 종합 플랫폼 기반을 마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도 평가에서 균형 발전과 관련한 장기적/거시적 시각에서의 국정과제 관련 연구 수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그와 관련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성과가 명확하지 않음.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기관 설립 목적, 고유 임무와의 부합성 정도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정 과제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관련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표사례 선정에 있어서 국토, 교통 문제에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정책 방안을 단일 정책 제시, 복수 대안 정책, 포괄적 정책 전략, 중장기 정책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함.
- 연구기획, 수행, 완료단계에서 연구수요조사, 전략과제의 선정, 정책영향력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정책화 및 기여도 제고를 위한 3단계 정책 기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구기획단계의 우수성으로 정부, 국회, 국민의 3대 정책수요자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국정·민생현안 지원연구 발굴을 강화함.
- 연구수행단계의 우수성으로 정부 담당자 수시 소통, 중요과제 업적평가에 추가 반영, 정책방안 제시 4가지 유형(단일 정책 제시, 복수 대안 정책, 포괄적 정책 전략, 중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연구완료단계의 우수성으로 정책영향력(Impact) 평가 및 수탁과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로 과제별 정책 기여를 관리하고, 국토정책 Brief 등 발간물, 언론 홍보, 뉴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함.
- 연구수행단계의 우수성으로 주요 입법화 및 정책화 실적에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간정보법, 도로법등 법/제도 제·개정 23건, (정책지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정책지원 116건 등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시 각 단계마다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참여도가 필요함.
- 연구기관의 여타 정책 기여 성과에 비해 입법화 실적 또는 성과는 다소 미흡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정부 정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긴급연구 대응역량을 확대하였고, 긴급 및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위한 조직(5개 센터)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여 정부 요청 긴급 수시과제 14건, 국가긴급 및 정부부처 현안과제 90건을 수행함.
- 수시연구과제 중 정부 현안과제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수시 연구과제 중 정부 긴급요청 과제 수행 비율을 21년 51.8%에서 '22년 60.9%로 상향함.

- '22년 긴급 및 정부현안인 주거안정, 균형발전, 디지털 교통혁신,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건설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둠.
- 국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정부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TF의 조직과 운영,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 비연구 과제 성과가 우수함.
- 긴급 현안연구 대응을 위한 각종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행정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과제 수행을 통한 정책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함.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시장 진단과 정책 과제, 국가도시정책방침 제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 등 수시과제 14건(60.9%), 예산 1.5억(61.2%)을 투입하여 정부 긴급지원요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7.3%,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6.6%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부처 국정과제 관련 수행건수 169건 중 정부 요청 긴급 수시과제 수행 실적(14건)이 비교적 저조하므로 상향할 것을 요청함.
-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취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부처 제안 과제 비율의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반지하 거주 가구 홍수 피해, 주택금융 환경변화, 디지털 트윈 국토,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등 주요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
- 열악한 주거환경, 주택담보대출, 지방 인구 소멸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
-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민간 등 정책 수요자와 정책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연구성과의 정책화 및 입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와 계기를 통해 정책수요자에게 정책 대안을 전달함.
- 디지털 트윈 국토, 국토모니터링,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등에 관한 입법화가 이뤄지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계획의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이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된 정책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공론화되고 있거나 다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단기와 중장기 정책대안에 관한 현행 제도와 자원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바탕을 둔 정책 제안이 필요함.
- 새로운 현안을 다루는 연구과제의 경우, 정책대안을 구체적 제도 및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재정적 요구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대안 중심의 연구를 위해 후속 연구를 편성해주기를 건의함.
-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 민간 기업 등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차, 디지털 트윈, 스마트그린산단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정부 정책화를 위해서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단계별 재정 소요 등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일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안의 모색을 통해 향후 사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집행사업의 내부 성과 관리체계와 더불어 국민, 유관 부처·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을 포괄한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도 적절히 이뤄지고 있고 정책네트워크도 창출하고 있음.
- 사업계획, 집행, 결과, 환류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사업 개선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세부 추진사업/단위 업무별 성과 목표 및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시기 및 방법 내용을 세밀화하고 있음.
- 집행사업 영역 중 정부 정책 지원사업에서는 새 정부 정책 방향 지원, 관련 법 개정, 정책지원 연구 추진, 정책 활용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등의 측면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함.
- SWOT 분석 등 체계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영역의 확장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분야 또는 집중 투입 분야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집행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 조사를 할 때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적인 환류 시스템은 모든 집행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환류 시스템은 일부 집행사업에서 활용되지 않음.
- 내·외부 환경분석이 분석 자체에 그치지 않고, 환경분석과 사업발굴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명확히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거복지정책 지원사업’도 다른 사업처럼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정·개선하고 사업 결과를 공유하는 환류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국토연구원의 경우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와 과제들 중에서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임. 특히 소멸위기 지방 도시, 탄소중립, 인공지능, 부동산시장, 빅데이터와 도시기능, 주거 양극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주제들을 적극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함. 세부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국토균형발전 등과 같은 일관된 문제의식 하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정책연구로 구현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거 연구들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또 진일보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 효율성 평가” 과제의 경우 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쳐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차별성을 보였고,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 과제의 경우 문제의식은 물론 연구 방법 등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연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최근 수년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이슈에 대해서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수 개발에 천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임.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연구결과가 정책 개발로 이어지는 정책연구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측면 역시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생각함.
- 근자에 들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에서 인공지능 기법을 통한 연구를 시도하는데, 연구 성과 차원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을 공히 유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국토연구원의 경우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과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잘 해결한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초기 기획에 따라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이 진행되었고, 관련하여 자료 및 통계활용의 수월성도 담보한 것으로 판단됨. 이 연구는 소지역단위 인구 분포 특성과 변화 패턴 등을 파악하고 참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줬음. 또한 향후 다른 주제로의 학술적 확장 역시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있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이 아쉽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음.

- 2022년에 진행된 국토연구원 연구과제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발견되는 미흡한 점은 대체로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부 연구 결과의 경우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는 설명으로 이뤄졌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임.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우수한 점”과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다수의 과제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일부 과제의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 또 다른 과제에서는 기존 정부기관에서 행해지던 청년창업가 육성정책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한국형 주거한계가구 진단”의 경우 사례연구 숫자가 적어서 일반화의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체로 국책 연구기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보이는데, 예산과 시간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질문의 정교한 설정, 새로운 연구방법의 설계, 분석결과와 정책발굴 사이의 다차원적 고민 등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마지막으로 연구의 완성도 자체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극 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육성방안 연구”의 경우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문헌연구의 비중이 높게 다뤄진 측면이 있는데, 연구자들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경우 연구 완성도 차원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니, 향후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두 개의 협동연구보고서인 “국가균형발전 3.0 패러다임”과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 모두 한국이 지향해야 할 선진국 위상 및 이와 연동된 국가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음. 연구 주제 자체에서 비롯되는 방대한 연구 규모를 운영가능한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많은 정책 효과를 생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두 과제 모두 비교적 현실성 높은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정책효과가 기대됨.
-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두 개 과제 모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역할을 잘 제시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ODA 사업 관련하여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6개국의 시범사업과 대상도시를 선정하는 제안은 ODA사업연구의 새로운 성과로 평가받을 만함은 물론 소위 ‘한국형’ 선진국 모델 제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만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경우,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지,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한 목표 정립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부분임. 결과적으로 제시된 제안들은 규범적이고 논리적이거나, 이러한 제안들이 제시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전략으로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함.
- 또한 아무리 우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로부터 가독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본 과제의 경우 동일한 용어가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서술이 상세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한 마디로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마지막 시점에서 다소 짧은 시간 안에 보고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됨.
- 마지막으로 ODA 과제의 경우 거시적인 정책 대안과 미시적인 정책 대안이 모두 언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연구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기초 자료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 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지원 행정혁신 등의 경영목표에 대해 신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시과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연구센터 확대 개편, 웹기반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조직개편체계를 구축함.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영향력 평가(IMPACT 평가)를 5년 동안 실시하여 정책화에 기여한 경우가점 부여하는 등 경영목표 달성과 국가기여도를 동시에 관리하는 노력이 돋보임.
- 연구기관 경영목표 설정에 있어서 ‘연구, 제도, 행사, 조직’ 등 연계수단을 활용하여 경영목표의 실천력이 높이고자 함. 특히 경영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계획의 규정 및 규칙 반영 등 제도화), 기반조성활동으로서 네트워크 구축 등 조직정비 노력이 돋보임.
- 1년차 전체경영목표 실천과제 181개중 66개 완료함. 연구성과의 정책화 전략 강화(50%),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42.9%), 공정한 평가체계 확보 및 우수인력 양성체계 구축(44.4%) 달성은 성과가 높은 편임.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22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기관장 임기 1년차 누적달성률 36.5%로 실적이 양호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실천계획별로 달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제시된 연계수단(연구/ 제도/ 행사/ 조직)이 계획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음(예: 1-1-2.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은 연구와 행사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달성도에 행사 실적은 없음). 실천계획별로 제시된 연계수단이 실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도록 논리적 연계가 요구됨.
- 경영목표 실천계획과 성과목표 및 실적간의 적합도를 점검할 필요 있음. 예를 들면, 목적지향적 연구조직 운영(추진전략 8-1)의 추진실적으로 중장기인력수급계획 수립, 희망근무부서 이전 배치 등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바, 기관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닌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한 실적을 제시할 필요 있으므로, 실천계획 전반에서 실적관리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학계, 지자체, 지역연구원 등 협력에 있어 보다 저변과 외연을 확대하여 국토도시분야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또한 청소년 국토교육지원 사업의 오프라인 지원대상과 범위가 세종시 등에 제한되어 있음.
- 22년도 경영목표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체계 재정비라는 특화된 목표를 위한 차별화된 지점이 무엇인지, 제도화 이후 실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구체적으로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이나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정량/정성)가 제시되지 않음. 실천계획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량적 또는 정성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기관장과 부서 관리자간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전체 구성원과의 소통도 원활해진 성과로 이어짐. 단계별 경영목표 이행현황 소통 체계도 확립됨.
- 구성원들과 의사소통과정뿐만 아니라 피드백 활동 역시 실질적으로 진행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반적으로 온오프라인 소통 및 환류체계 강화 노력이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연구역량 국제화, 해외 공동연구 추진 등은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내용과 상관관계가 모호함.
- 채널의 활성화 및 실질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널은 기관장 임기 중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원인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들과 대체로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진행과정, 피드백,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등의 관점에서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국가정책 달성을 위한 기관 주도의 적극적인 대외 협력 노력이 있었음. 특히 다양한 전문가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노력이 돋보임.
- 연구회와 공동과제 수행을 위한 주도적 과제를 제시했는데, 정보화사업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대외 활동 실적이 전개된 점을 잘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적 담론 창구인 언론을 통한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임.
- 연구회와 다양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연구회 소속 기관으로서 일상적인 파트너십의 유지로 보임. 대외적 활동이 특정 정책 수요 집단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성격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기대함.
- 주요 대외적 활동실적이 결국 의사소통의 증진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 관리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구성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라는 관점에서, 기관장 경영목표와 더 구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조성 연구

〈우수한 점〉

- 국정과제 및 경영목표에 부합하며 기후위기라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를 국토연구원 차원에서 적합한 문제의식으로 전환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잘 활용하여 다단계 의사결정을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함.
-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대한 적극적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도시연구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탄소중립도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기관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리더십이 행사되었고, 동시에 성과 확산 과정에서도 기관장의 노력이 반영됨.
- 공론화, 정책화를 지원하고 협업 및 융복합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다층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달성도를 연도별로 이정표 방식으로 제시함. 즉, '21년 중장기계획을 설계하고, '22년에는 실행전략을 도출한 이후, '23년 본격적으로 이행 및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함.
- 국가지역단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과 고위급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등의 노력을 수행함.
- 기후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조성을 위해 2022년 9건, 2023년 5건의 자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자체연구사업비, 연구개발적립금 약 11.2억을 지원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여러 국책연구기관이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어, 이들 사업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여지가 있음.
- '22년 목표에 제시된 법령 제·개정 관련 사항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지방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한 허브라인 이외에도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나 연구과제에 기관장의 의지나 기여도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함.

(2)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우수한 점〉

- 기관 내 연구직과 행정직의 협업사업 추진을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가동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 청소년 국토교육을 위해 기관내 지원사업단을 신설하고 기관 누리집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토교육콘텐츠 허브를 구축하여 연구원 역량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기여 측면이 강한 사업을 선정하여 기관장의 리더십이 적절하게 반영됨.
-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최초 단계부터 투입되었고, 초기 안정적인 론칭으로 인해 사업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큼.
-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과정이 전개되어 관련 단체들과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한 부분은 기관장의 리더십이 잘 발휘된 점으로 우수함.
- 사업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다채널을 통한 교육 콘텐츠 기획, 영상교육콘텐츠 및 조회수 등이 우수하며,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조직 전략과도 연계성이 존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평가의 하나로 국토교육 콘텐츠의 수요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미흡함.
- 청소년 교육을 위한 역할은 인정되나 실제로 청소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과 연결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내용 발굴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국토부 위탁사업으로 기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했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3) KRIHS 월드 캠퍼스 구축 및 시범운영

〈우수한 점〉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기획을 실시하고 조직체계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하며, 콘텐츠 마련을 위한 기관내 협업과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업 수행 노력이 높은 편임.
- 전문가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매우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가 발생했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인해 최초 의도한 성과가 충실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일종의 국토건설 및 개발에 대한 ODA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매우 시의성 높고 국토연구원은 물론 한국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잘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됨. 사업 선정 및 수행 체계 수립 과정에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함.
- 42개국 145명의 교육생(평균연령 38세, 석박사 78명) 인원이 존재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가동 및 활용, 하이브리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적이 양호함.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국환경연구원, 국토 도시정책 전문가, 국내외 온라인 교육플랫폼 기업 등과의 상시면담 및 협의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
- EBS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지식자산을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UN-Habitat, EAROPH, KOICA, MIT(개도국 교육중, 기획단계에서 도움)과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하고 강의를 재활용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나, 수강인원이 145명으로 제한적이므로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 학습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국토교육 콘텐츠와 호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국내 관련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노력이 요구됨.
- 명실상부 월드 캠퍼스답게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추진노력과 외연확장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획 노력이 필요함.
- 개도국 연수생 등 현재와 미래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7S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외 환경을 분석하고, 각 환경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대응이 요구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직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함.
-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본부 간 협업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수자원정책연구단’ 등 4개의 한시적 하부조직을 신설하였으며, 탄소중립 연구 역량 강화 및 정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기존 ‘그린인프라연구센터’를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로 개편함.
- 무기계약직 책임 과제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등 직종과 상관없이 조직구성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성과 향상을 도모함.
- 고충처리 실적과는 별개로 조사위원회 구성, 고충상담원 지정 등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맥킨지 7s Model은 내부요소를 조사하여 기관의 조직디자인을 분석하여 조직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외부환경 중 기회나 위협 요인을 발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전년도와 비교하여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가 현저하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및 경영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기관 차원에서 조직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체계가 미흡하며, 특히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또는 과제·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 연구과제 관리체계에서 중간 성과점검은 1회(중간연구심의회)로, 연구과제 및 사업의 추진 과정 중 성과와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므로 성과 제고를 위한 주기적-상시적 모니터링 등 관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중장기인력수급계획(22년~24년)에 기관의 인재상을 마련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임.
- 공개채용와 블라인드 체계 하에서 기관의 인재상에 맞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 교육훈련비 규모가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고, 1인당 교육훈련비가 전년 대비 180천원 증가하였음.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업무성과평가 계량화 비율이 70%이고, 비연구직의 업무성과평가 계량화 비율을 40%로 관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대해 연구직의 업무성과 평가시 과제 이외 마일리지를 부여함에 있어서 자체 학술지인 「국토연구」에 대한 비중이 KCI 등재지나 국외 전문학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임.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직원대외활동적용기준 등을 마련 및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함.
- 대외활동 사후신고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대외활동 사전신고 비율이 전년 대비 8.3% 향상됨.
- 근무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자체정기 감사를 통해 '21년 대외활동 지연신고한 3인에 대해 주의 조치 시행 완료함.
- 근무관리가 적절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대외활동 지연신고 및 사전신고 누락에 대한 주의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정하며 월별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함. 개인별 연차휴가 소진율이 100%이며, 연가저축제 도입을 통해 연차휴가 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함. 해당연도 휴가일수의 최대 50% 한도로 5년간 이월 저축함으로써 휴가 활용을 촉진함.

-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복무관리실시 및 직원대상 메신저 공지 및 PC-ON/OFF 통합 운영을 통해 주52시간 근로 준수를 강화함.
- 안식년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논문게재가 의무화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 신고비율이 21년 대비 소폭 하향했지만 특히 연구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간편 신고 시스템이나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사후 신고비율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근무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이후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문처리 및 통보에 의한 완료가 아닌 조치사항에 대해 구성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숙지시킬 수 있도록 공지 및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됨.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연근무제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식년제도 운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추진계획, 대상자 선발과정은 적시되어 있으나 시행실적에 따르는 대상자에 대한 세부내용이 누락됨. 대상자에 대한 연구주제, 훈련기관, 승인기간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기관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안식년 및 연구연가 수행직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권고함. 연구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해야하는 등에 대한 기한명시와 더불어 논문게재 불이행시에 대한 제재사항도 함께 규정마련이 될 필요가 있음.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명문화하였음.
-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기타 다양한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적이 우수함.
- 4단계 Lifecycle 별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에 대한 홍보활동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이 요구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
-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적이 고르게 있지만, 조직 규모에 비해 실적이 높지 않은 편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 좋겠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지침과 인사관리규정, 위촉직 보수표를 정립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심층 논의 필요 사무 직종에 대한 3단계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산 유지보수 인력 1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완료 1명 실적 있음.
- 비정규직을 위해 노사협의회 외 부서를 통한 안정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음.
- 무기계약직 연구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선정이 계속 증가하는 등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의 상시·지속성 인력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규정과 임금수준, 그리고 차별개선 내용을 포함한 향후 계획, 교육, 복리후생 등의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채용안정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과평가 규정이 동일한 것이 비정규직의 근무환경 저하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각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하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라 별도정원 6인을 계획하여 6인을 충원한 실적이 있음.
- 전년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절감재원과 추가소요재원에 따른 금액을 추계하여 별도정원 및 신규채용 계획이 예측가능함을 알 수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적합직무를 명시하여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책임과 연구참여의 근거가 명확치 않고, 각 업무가 부여된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운영, 감사실에서 신고사항 조사 관리, 연구부조리 신고와 통합 운영한 결과, 외부신고(영상공모전 수상작 저작권 침해, 드론영상 적법 여부 등 민원 제기)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수상 취소, 공모전 선정과정 제도 개선 조치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진행됨.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 '22년 5.19일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지침도 마련하는 등 윤리경영 규정현행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갑질과 관련된 징계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쉬우나, 재발방지를 위해 갑질신고사이트를 개선하고 갑질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함.

-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감봉)가 1건 있고 갑질 신고사건에 대해 갑질 취약계층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부조리신고센터내 갑질신고 상세안내 및 익명신고 기능 추가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마련됨.
- 집합교육 및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전직원 대상 교육을 장려하여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은 관리자 91.7%를 달성하였음.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통제수단으로 청렴옴부즈만지침을 만들어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3회 운영하여 자문을 얻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부조리 신고와 연구윤리 신고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린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실제 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 제도 운영, 채용담당자 교육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징구, 비대면 계약 원칙, 기일내 대금 지급, 청렴위반시 계약해제 등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외부업체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갑질근절대책에 포함하는 등 불공정방지를 위해 노력함.
-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원장을 참여시켜 의사결정력을 확보하였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인권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중 특히 사업지표부분에 대해 기관의 특성을 잘 살렸으며, 연구부서와의 협조로 연구착수 초기부터 인권경영지표에 맞춰 연구가 진행되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수함.
- 인권영향평가결과 143개 중 긍정답변이 140개에 이르는 결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고,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규정 관련하여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포함한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 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은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임직원 행동강령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정 마련이 요구됨. 예를 들어 명예퇴직 지급제한 대상자가 임원으로 임용되거나 자회사에 취업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보강하는 등 개별 규정과 지침을 다시 점검할 것을 권고함.
-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반부패, 청렴 관련 교육은 4번에 그치고 있으며 전직원 온라인 청렴반부패 교육은 전직원 대상 58.4%와 관리자 대상 39.4%,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참여율이 전직원 대상 55.7%와 관리자 대상 45.5%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함. 윤리경영과 관련한 교육 실적은 나타나지 않음.
- 인사규정상 특별전형 및 채용규칙에 특별채용 규정이 남아있으므로 최근의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규정개정이 필요함.
- 현재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시 혹은 필요시에만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인권피해구제 지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인권피해구제절차를 전 직원에게 정보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함.
- 인권침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외부신고사이트가 미흡하므로 개선하되, 기존의 클린신고 사이트 연계하여 기관의 특성을 살려 접근성 있게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 임원, 인권경영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 임원,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배정된 청년인턴이 채용계획 대비 200% 목표를 달성을 하였고(배정인원 8인 대비 신규채용 16인), 청년인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정하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우수 인턴에게는 3% 가점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 예산배정액 중 일부를 소진하지 못한 바, 시간외수당을 인건비로 변경하는 등 청년인턴 예산을 유연성 있게 사용할 것을 권고함.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경단녀 방지노력, 적합직무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2년 1인을 채용하였음.
- 여성직원 승진비율의 지속적인 증대('20년 17.4% → '22년 45.2%)가 이루어지는 등 여성관리자의 확대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2022년 연간신규채용자 중 여성인력비중이 61.7%에 달함. 즉, 성별 간 균형을 유지하며 양성평등한 채용 인사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됨.
-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여성 직원이 육아 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함.
-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상 동종산업 평균비율 15.2%를 고려하여 관리자 목표비율을 15.2% 설정하였으며, 실제로는 17.8%로 초과 달성한 점은 긍정적임.
- 보훈특별고용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1인을 채용('22.6.28)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에 적합한 직무(사무지원직 등)에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점은 고무적임.
-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직급별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교육이수 비율이 높으며, 양성평등과 관련된 필수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조직 구성원들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향상 도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여성보직자 관리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여성인력 활용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여성보직자 중 연구직 보직자의 비율과 비연구직 보직자 비율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의 경우, 동종업계 평균 및 기관의 다년간 업무추이 및 최근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도전적 목표 설정이 아쉬움.
-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폭력예방 교육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참여율을 100%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심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4.5%로서 정부권장기준인 연평균 의무고용률(3.6%)을 초과 달성하였음.
- 특히, 장애인 제한경쟁을 통해 4회 실시하여 청년인턴(장애인) 5인을 채용하고,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실적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한 점은 고무적임.
-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취업지원부에 장애인 채용공고 홍보를 의뢰(2회)하였으며, 직원 채용 시에도 직원 채용규칙 19조(특례) 및 위촉직 운용지침 제5조의 3(채용특례) 등 관련 법률 적용 특례조항을 구비함.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인원 수(17인)와 우선고용률(6.4%)이 정부권장기준(6%)을 충족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채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을 통해 관련 신규 채용 실적(1명)이 있음.
- 직원채용규칙 상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시 제한경쟁에 의한 채용근거 규정이 명시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참석률이 87%로 100%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기업제품 구입실적은 2021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에 있어서, 본원 특성에 맞는 차별적 노력도 권고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국정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지적사항에 대해 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월 비상임감사 정기보고를 이행하고 있으며, 제한경쟁 채용 사전 협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부동산 취급부서 등에서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한 점이 우수함.
- 감사 전문인력이 평균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임. 또한 감사실장이 우수감사직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표창 등이 인정되어 우수한 성과임.
- 근무일 준수, 자체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 등에 있어서 비상임감사의 활성화 방안을 준수하고 있어 긍정적임.
- 자체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관리해나가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직원 설명회 및 전파교육을 실시한 점 등이 우수함.
- 국내출장과 대외활동 중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개선 조치 노력이 인정되고, 외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주관부서와 확인부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한 것이 긍정적임.
- 자체 정기검사로 대외활동 지연신고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주의 처분과 환수조치를 완료한 점이 바람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직원 대상 교육의 참석율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감사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육일자는 확인이 되지만, 감사역량 성과목표와 달성여부 등 교육의 효과성을 관리하는 것은 다소 미흡함.

- 정기 자체감사의 대외활동 지연신고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교육이나 절차 개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함.
- 채용전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마련되었으나, 관련 부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기대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A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B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B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C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C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①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S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A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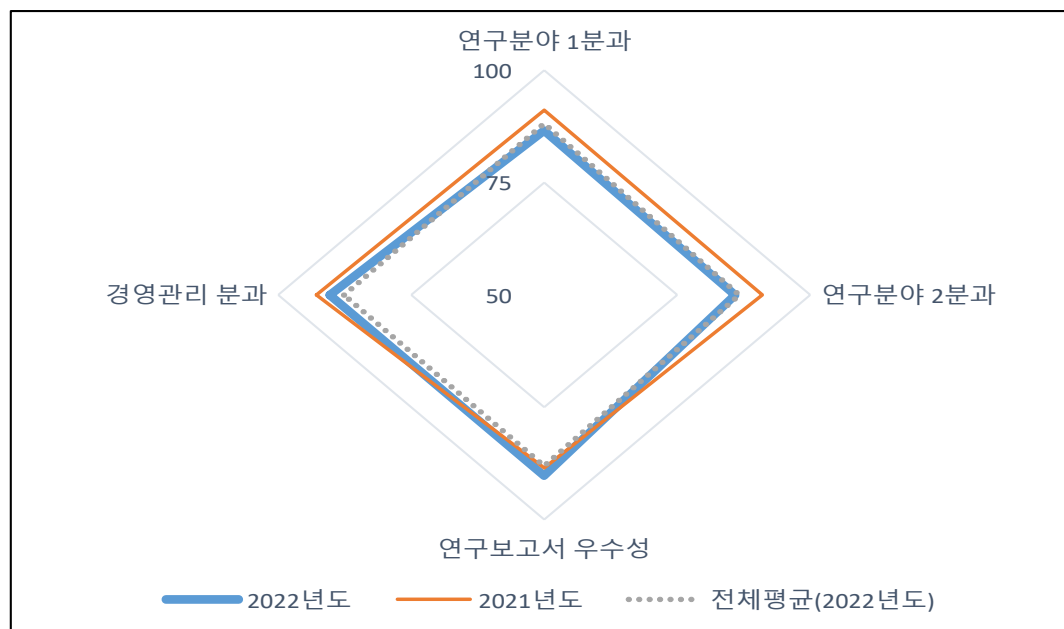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A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A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S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S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외부평가결과(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개인정보 보호수준(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경영정보공시 결과, 예산운용 및 결산)는 추후 확정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우크라이나 사태나 경제안보 관련한 연구기획을 통해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 선임-신진 연구원 간 협업 및 협동 노력을 강조하고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 강화하는 한편으로 연구윤리 자체검증 및 연구윤리교육 강화로 연구수행 및 연구윤리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함.
- 「정부부처-KIEP 양방향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현안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긴급 수시발간 자료 및 정부부처 제출자료의 우수성이 인정됨. 다만 차년도에는 입법 및 정책지원 성과, 연구과제 수행성과의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주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외경제통상 환경변화의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일부 법안 개정의 법제화로 연결 되는 성과를 이룸.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사업과 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진행하였으며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 관련 실적도 나타나는 등 정책 집행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경영 분야]

- 새정부 출범에 따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현안(외교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직제) 신설, ODA 연구 기관 지정, 실행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내부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관련한 제도적 플랫폼이 존재함을 확인함. 대외활동에서 경제안보 상황 급변에 따른 적극적인 강연과 발표, 그리고 기고 및 언론 인터뷰 등 기관장의 노력이 있었음.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배려자 채용 및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기관 내 고충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직원 신뢰와 수용성이 높음.
-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및 복리후생의 동등한 운영을 통해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함.
- 임금피크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보직수행, 연구책임, 연구심의, 연구참여, 채용심사 등 분야별 역할 규정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중장기 재원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연구인턴에 대해 현장경험지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프로그램)에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관련취업 및 수료식 등을 통해 청년인턴들의 몰입도 및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임.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세계경제전망, 동향세미나, 세계경제현안토론회 등을 통해 장단기적 대외경제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2023 세계경제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 연구기획이 환경 분석 및 고객 수요 파악, 사업계획 수립방향 설정, 사업목표 및 정책분야 선정, 사업계획 내외부 심의, 사업계획 심화 발전 및 확정 등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TF팀,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외경제 및 대내정책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원의 연구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5대 국정과제를 선정. 다양한 의견수렴 플랫폼을 통하여 연구영역, 경영목표, 기관여건을 고려하여 세계경제분야 5가지를 연구방향설정에 활용하는 등 연구목표, 방향,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과정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음. 인수위 보고자료를 선방영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TF를 경제안보전략실로 개편하는 등 KIEP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경영목표를 점검하여, 식량안보 및 경제안보, ODA, 러시아 및 북방지역 분야를 개선분야로 설정하여 실천계획에 반영하는 등 분석결과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짐.
-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부, 국회, 국민,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수요에 대응하였음.
- 수요조사 참여도 제고를 위해 메일발송, 공문발송, 홈페이지 공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제안을 게시판으로 받고 있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7회로 3건 증가하였음.

- 현안이슈는 시의성, 적시에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보고자료, 현안 대응과제, 수시연구과제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제,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 경제안보 동향 진행,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통해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 파악을 통해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노력을 하였음.
- 우크라이나 사태나 경제안보 관련한 연구기획을 통해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린 정책수요조사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해외 정책수요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계획 수립 단계에만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키워드 발굴이나 연구주제 제안 단계에서도 산업계의 정책수요 파악의 노력이 필요함.
- 국회와의 유관기관 협력은 정부기관과 비교해 현격하게 적는데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현안이슈 모니터링,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브레인스토밍, 부서별 회의, 연구기획 협의회를 통해 연구과제가 발굴되어 연구과제 발굴, 기획절차가 적절함.
- 연구과제 선정절차가 내부 과제선정위원회, 외부 과제선정위원회, 사업계획 검토회로 이루어져 합리적이고 적절히 이루어짐.
- 2회에 걸친 내부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총 3건의 과제가 심의결과 철회되고, 국정과제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중점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내실있게 이루어짐.
- 1회에 걸친 외부 과제선정위원회에서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분야별 심층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 검토회의에서 2023년 기본연구과제를 확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가 발굴 및 선정됨.
- 2023년 기본연구과제 25건 중, 13건에 정부의견, 4건에 국회, 6건에 국민, 7건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고, 특히 2022년 대비 국민제안 반영 3건이 증가하여 정책수요자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등을 바탕으로 적절히 발굴 선정됨.
-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23%로, 30%를 초과하지 않음.

-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원의 경영비전과 경영목표에 부합하며, 2023년 세계경제환경과 국정과제, KIEP의 2023년 사업목표를 반영하여 균형있게 선정됨.
- 현안의 중요성 및 파급력, 정책적 수요정도 등을 고려한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이 적절함. 중점연구사업을 기본연구로 한정하지 않고, 협동연구사업 등도 중점연구사업으로 선정하여 KIEP의 강점을 활용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우수함.
- 중점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별 평균 인력 및 예산배분이 비중점연구사업 대비 높게 이루어져 중점연구사업의 질적 제고에 기여함.
- 2023~2025 연차별 중기예산배정확도 적절이 이루어짐.
- 많은 수의 과제를 협동연구과제를 통해 수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협동연구과제를 연구주제에 따른 협동연구, KIEP기획 협동연구,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로 세분화하고 KIEP기획 협동연구 10건, 기본연구 15건을 협동연구로 수행하였음.
- 협동연구 25건에 대해서 협력기관을 100% 선정 완료하였음.
- 환경분석,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적정성 검토 및 최종검토의 단계를 거쳐 국정과제를 포함한 정부정책과제의 기획절차 및 사업계획의 반영정도가 우수함.
- 25개 사업의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와의 연관성이 우수함.
- 기본연구사업 중에서 정부부처(중앙행정기관)가 제안한 과제는 25건 중에 13건이며 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비에서 45.37%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키워드 발굴을 기관 홈페이지와 수요조사 방식으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외부 기관 홈페이지나 외교부 혹은 대외경제 관련 기관 민원사이트 등 다양한 루트를 추가할 필요 있음.
- 협동연구기관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협동연구선정에서 각 위원회의 다양화가 필요함.
- 협동 연구를 국내 정부 기관외에 해외 기관, 민간 산업 등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함.
- 25건의 협동연구 수행 성과 중 대부분 KIEP를 포함하여 유사한 2-3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음.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올인원 시스템을 통해 연구과제의 착수·수행·평가·출판·성과 확산의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함 (각 단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제공).

- 연구과제 수행의 전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강화를 통한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연구제안서 심의, 공동연구, 외부심의·자문, 보고서 평가 등).
- 계획·중간·결과 등 연구단계별 연구심의회 상시 개최로 과제 수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내부 인력 간의 협력·협업 노력으로 연구과제 중 56%가 부서간 공동연구로 수행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함.
- 수시연구과제에 정책수요자(공무원, 국민 등)가 연구과제 제안자로서 참여하고, 설문조사 및 세미나 현장참여, 웨비나 생중계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정책수요자가 착수, 중간, 최종보고 등 연구수행과정에 참여토록 노력함.
- 기본·일반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선임연구위원급을 원내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자문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기본·일반연구과제 점검 및 평가체계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총 154회 연구심의회 개최실적을 보여 우수함.
- 선임연구위원급과 신진연구진 간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의 전승을 통해 연구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협동연구과제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46%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기본연구 및 일반연구에서는 각기 67.1%, 84.5%를 차지하여 협동연구과제 수행 및 예산비율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제기준 플랫폼과 사업기준 플랫폼으로 2-track 플랫폼으로 연구특성에 맞게 운영하였음.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간담회, 비대면 자문, 세미나 참석 등으로 다양한 네트워킹을 활용하였으며, 수요조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연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착수단계에서 과제 제안 및 선정 과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연구자문위원회 내 외부위원의 전문성 활용의 측면에서).
- 발간일이 연구과제별로 천차만별로 다양한데 발간업무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획조정평가위원회에서 통제하고 있는 출판업무를 별도의 발간·출판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해 보임.
- 과제배분위원회를 통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적합한 선임연구위원급을 원내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신진 연구진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오히려 원내 도제식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권위주의적 연구 풍토를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선임+신진으로 구성하는 외에도 다양한 직급의 연구진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위해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임.

- 협동연구과제 비율이 46.3%로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수시연구와 기타연구의 협동연구 실적이 저조한 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플랫폼 참여기관이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는데 이를 산업계 등 기관의 다양한 외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협동연구 플랫폼을 구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4개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주제로 확대할 것은 제언함. 기본 연구보고서는 다양한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협동 연구는 아시아에 국한되는 편임.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전문성을 가진 자체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회의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9건의 연구윤리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6개년 연속으로 연구윤리 평가 최우수 등급 판정을 획득함.
- 출판 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검독위원 및 연구윤리 정밀검독위원으로 선정하여 보고서의 세부 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품질 강화 및 연구윤리 확보를 도모함.
- 부서장급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자체점검단을 통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총 13개 전문분야별 1,360명이 연구윤리 등에 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1회 참여 연구직 152명 중 149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높으며, '21년 연구윤리 평가 클린 기관으로 지정됨.
- 연구자특성, 관리자, 방법론, 사례별 출처표기 등으로 연구 윤리교육을 세분화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효용성을 극대화함.
-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국외출장 시 부실학회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국제학술회의 국외출장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함.
- 연구착수·진행·출판·환류 단계별로 다양한 연구윤리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체계화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보이며 출판 단계에서의 외부 정밀검독위원 1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부 정밀검독위원을 최소 2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교차검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연구수행체계 내에서 연구조정평가위원회의 총괄책임 하에 과제선정위원회, 과제배분위원회, 연구결과검독심의회, 출판위원회와 같은 세부회의체만 운영에 참여하는데 연구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직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구성비를 가능한 내외부 동수 구성 수준으로 강화해서 연구윤리 체계 관리 및 연구윤리조사 분야에서의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교육이 전 직원 대상으로 1회 실시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4회 교육은 대부분 2-5명의 분야별 담당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별도의 온라인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대신 윤리교육에 관한 온라인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최소 2회 이상 계획해서 실시하거나 온라인 상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에 대해서 사전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윤리 의심사례 혹은 연구 윤리를 어겼을 때 처벌기준도 보다 상세하게 마련해서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의 홍보 및 확산체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음.
- 2022년 연구원 관련 기사 총 6,028건 보도, 방송사와의 협업, 멀티미디어 홍보 적극 활용 등 홍보 및 확산 실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높은 실적을 보임.
- 홈페이지 및 메일링, 세미나 개최실적,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등 연구성과 확산수단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SNS채널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FACEBOOK,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구독자 수, 누적 방문자 수의 증가가 전년 대비 증가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대국민 대상 수요조사 채널을 확대 개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접근성을 제고하였음.
- 지난해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인쇄본)를 전국 중고등학교 배포함.
- 국내외 세미나 실적, 언론홍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유튜브 영상의 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 716,443의 연구성과물, 534,600의 영문발간자료를 통해 해외성과 확산 분야가 우수함. 총 172건의 이슈페이퍼를 발간 및 배포하는 등 연구성과 홍보 확산에 노력을 기울임.
- 정부 유관부처의 정책반영에 기여, 국회 의정활동에 기여,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하고, 또한 범주별로 보고서 정리가 잘 되어 있음.

- 정부 유관부처, 국회와 협력해서 TF를 운영하여 정부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5회, 대통령실 안전보고 10건, 정부회의 참석 410건 등 많은 실적을 냄.
-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대외전문가 인력풀 운영,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위탁연구 71건, 융복합연구 114건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 연구역량 국제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학제간 연구협력 강화, 학술지 국제화, 해외사무소(미국, 중국, 일본) 및 싱크탱크간 연대강화, 협동연구 인프라 고도화를 수립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함.
- MOU 체결운영, 인력교류, 국제공동연구, 국제행사 등에서 2022년도에는 수치로 보는 실적이 증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방문학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력교류를 적극 수행해 21년 2명이던 방문학자 초청 규모를 9명으로 확대. 이를 통해 방문학자 세미나 건수도 2건에서 12건으로 증가, 방문학자 프로그램 동영상 홍보 실적도 전년 0건에서 4건으로 증가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증가하였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해외로 연구성과 확산이 쌍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메일을 통한 의견수렴에서 한 발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소통창구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COVID-19 팬데믹이 종식됨에 따라, 2023년부터 간담회, 세미나 등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도 동시 운영을 하여 국내외 연구협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 시민단체, 국민수요자 등과의 소통이 활발하나 기관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개방 및 민간활용지원 실적이 우수함.
- 영상컨텐츠 제작을 활성화하여 정보이용자에 대한 전달력 및 활용도를 제고하였음.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최근 정보콘텐츠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다양한 영상컨텐츠를 제작하여 제작 건수가 총 80건에 이르고,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 제고 및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하였음.
- 통계DB 제공 연구자에 대한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하여 유인정책이 적절함.
- NKIS에 해당 과제 64건, 위탁연구보고서 등 55건 등록을 완료해 총 119건을 등록하는 등 등록을 충실하게 이행함.
- 학술지 국제화 노력이 우수함.
- 비공개 등록 연구과제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북한경제 관련, 통일부 요청 등으로 비공개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학술지 게재 권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도 사업목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방향 선도”로 설정하고,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5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5대 연구·사업 방향을 기획해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지원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연계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국정과제 참여와 협업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간 보다 확장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자 노력함.
-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국정과제 연구 및 정책자문 실적이 개선되었음.
- '22년도 국정과제 수행건수 164개, 투입인력 897명, 투입예산 약 156억 원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이 우수함.
- 중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수행, 정책자문 활동, 세미나 개최, 정부주최 공청회 및 간담회 참석 등 다방면에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주도 및 참여함.
-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수요자와 긴밀한 소통과정을 통해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대표사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의 경우 국정과제 99(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국제개발협력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함.
- 주요 성과로 ODA 관련 기존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분석하여 새정부 ODA 추진방향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 새정부의 ODA 관련 공약 및 유관 분야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ODA 기본방향 및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ODA 정책, 사업 방향 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함.
- KIEP 정책 제언(ODA 시행 기관 자체 평가 제도 개선 추진, 진단 등급 낮은 기관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 실무진 역량 강화를 위한 ODA 평가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공유 확대)이 안건으로 상정 및 채택됨.
- 우리나라 최초로 ODA 시행 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역량을 진단하고, 개별 정부기관에 진단 항목별 개선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각 기관의 실질적인 성과 관리 역량 개선에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의 대외경제 비전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국정과제 수행 연구 및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서 입법지원 과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비록 ODA 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국무조정실이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ODA 관련 정책대안 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한 성과 분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정책기여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에 대한 분석을 반영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참여하는 등 입법화 실적을 도출함.
- 정책기여도 제고 노력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라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고과평정 지침에 의거 투입업무량, 시간, 결과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구체화함.
- 현안대응과제 모음집 만족도 조사를 위해 여러 다양한 활동들(정책 지원 성과 우수 보고서 및 직원 포상,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적정성 검토 자문, 연구 성과별 확산 방법 논의 및 연구성과 연성화 과정에서 개선 사항 상시 논의, 연구 성과, 홍보, 확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문)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연차별 성과확산으로 고객과 연구수행·종료 단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성과확산 도구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정책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체계 구축함.
- 환류 시스템으로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의 정책기여정도 자체점검 결과 및 연구성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 공백, 보완, 개선 사항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차기 년도 연구과제 기획 시 반영하고 있음.
- 정책기여 자체점검 결과와 의견수렴을 반영한 연구과제들이 정책 수요가 높은지, 연구 영역 확대가 필요한 지등을 내, 외부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선정된 연구과제의 정책기여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자문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음.
- 연구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의견수렴을 반영한 연구과제의 정책기여 제고 방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연구기획협의회에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입법화/정책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은 펼쳐오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화나 정책화의 구체적인 성과물은 다소 미흡하므로 체계적인 입법화, 제도화 노력 또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안이슈 연구 및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확산 등을 통해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에 노력하고 있으나 채택된 정책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긴급 및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 TF를 경제안보전략실로 승격하였으며 (산하 개별 전담 TF 운영), 「정부부처-KIEP 양방향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4대 긴급현안에 대해 정책 제언 및 현안대응과제 발간(53건) 등을 통해 정부 현안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미중관계의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대외경제의 긴박한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개 주요 정부 현안과제를 수행함.
- 대외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연구수요가 많으므로 수시연구과제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건 증가한 19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 및 주요 국제경제 현안자료를 다루는 현안대응과제 총 66건을 수행함.
-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TF 운영, 정부 유관부처와의 소통 확대 및 강화, 긴급현안 관련 자료 정부 제공 및 발간, 각종 회의, 세미나, 자문회의 참석 등 비연구과제 수행 노력이 개선되었음.
- 미중갈등과 경제안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신통상정책,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위기에 대한 긴급 수시발간 자료 및 정부부처 제출자료 등의 성과가 우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4.8%,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9.3%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비율이 적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현안과제 수행 결과로서 입법지원이나 정책제안 성과가 비교적 저조함.
- 4개 긴급현안(미중갈등과 경제안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신통상정책,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위기) 관련 비연구과제 수행 성과는 우수한 편이지만, 연구과제의 수행 성과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등 19건의 수시과제 제안 및 수행 실적이 제시되고 있으나 과제수행 성과가 정책 내지 입법 자료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9.3%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 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관련 규정의 취지나 국책기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권고사항).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연구과제의 내용이 기관 설립의 목적과 부합하며 신통상 이슈(디지털, 환경),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부상, 개발협력과 ODA 등 대정부 지원을 강화한 결과로 KIEP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이 국가정책, 통상협정, 법률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보임.
- 정책수요를 적시에 파악하여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 관계자, 전문가 및 학회, 산업 및 기업 실무관계자 등 활발한 소통(간담회, 학술 세미나, 토론회,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도출된 정책대안은 정부에 제시하여 실질적인 법률제정이나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의 연구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 지원함.
-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주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22년 ODA 시행기관 역량 진단 및 컨설팅」등의 연구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 관련 다각적인 전략과 중장기 협력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IEP의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제안은 국가정책이나 법률제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일부 과제에서 정책수요자인 국회와 대국민 소통과정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정책 실현이나 법률 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로 연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연구 성과 확산이 전문적인 기관과 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행정적, 사회적, 국민적 파급효과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과 소통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함.
- 타 정책연구기관과 일부 주제가 중복될 수 있으나, KIEP의 설립목적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KIEP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더욱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선진 대외 경제통상환경 관점에서 정부와 시장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새로 정립하는 개혁 어젠다 발굴 등).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KIEP는 정관에 적합한 정책 집행사업으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을 진행하였으며 사업계획·관리의 적정성, 사업진행의 효과성,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 측면에서 성과가 비교적 적절하게 나타남.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는 행사의 중복성 및 반복성을 피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제행사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한 과정이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은 지역 전문 포탈 기구 구축 사업은 관심과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분리하여 확대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는 사업관리 체계를 통해서는 조사가 원가, 시설적산 및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지되지만 세부적으로 조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에 고지되어 있지 않고, 이 사업이 국제행사의 수준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관료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의 개선 사항을 찾아보며 평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주최 기관의 자율성과 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효과와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트 방문자 수를 넘어서 방문자의 관심과 목적 달성 여부 등과 함께 사이트를 활용하여 도출된 다양한 형태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국가 대외경제 관계의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한 노력이 인정됨. 대외 의존성이 매우 높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러한 노력은 연구원의 정체성과 설립 목적에 적극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연구 주제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관련 연구’, ‘디지털 무역 확대’, ‘한-인도 협력 방안’, ‘호주-중국 갈등 효과 분석’,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환경 문제’ 등 시의성과 정책적 함의가 매우 높은 연구 주제들이 채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스트-코로나 질서에 대비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한미 간에 이슈가 되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주변국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 과정에서 본 연구결과는 관련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현황 및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시 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은 물론 가독성 역시 뛰어남.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협력 분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활용 가치를 보이고 있음.
- 이 외에도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무역협정 로드맵 수립 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역시 시의성이 매우 높고, ‘한-인도 협력 방안’ 연구의 경우 기업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전문가 면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미중갈등이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호주-중국 갈등’에 대한 연구 역시 학술적 및 정책적으로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통계분석,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문헌조사 등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 활용됨.
- 연구보고서의 주제와 기여도는 물론 연구방법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다양한 문헌 연구, 각종 정보 수집,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 심층 인터뷰, 시나리오 검증, 모형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연구 결과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과들이 의미 있는 대안 제시로 연결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는 다양한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미흡한 점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연구결과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정책대안의 한계,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기후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연구의 경우 높은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기후 환경과 이주 및 노동시장 사이의 연결성이 논리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한 채 진행된 까닭에 구체성 부족의 문제와 정책대안 한계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일부 연구 과제의 경우 다소 지나치게 나열식 서술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보고서를 접하는 독자층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가독성 및 설득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임. 또한 평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부 보고서의 경우 분석적인 설명이라기보다 단순히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향후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외경제정책 관련하여 다양한 해외 사례 및 다른 나라의 정책을 검토하더라도, 그러한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활용방안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임. 물론 연구원 측에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 일부 부분에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현상을 한국적 차원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고민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제시된 두 개 보고서에 걸쳐서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금융위기 관련 연구에서 복잡계와 머신러닝기법 별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 분석한 점이 대단히 우수하며,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독성 있게 서술된 점을 높이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만 중러 간 전략적 관계 발전에 대해서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정보 수집이 이뤄진 상태여서, 정책 영역 별로 나눠서 연구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의 분명한 정립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연구 설계 과정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봄.
- 금융 주제 연구에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동원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러한 연구방법이 과거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의 독창성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포함되었다면 연구의 완성도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에 따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현안(외교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직제) 신설, ODA 연구 기관 지정, 실행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
- 1-3단계로 구분하여 경영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구체적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목표와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체계성이 돋보임. 대외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잘 반영하여 기관의 경영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사이의 적정성을 나타나고 있음.
- 경영목표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초기 계획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계획 변경 필요성을 환류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보임.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안보전략실 신설(3개 팀 구성)하고 인력을 재배치 함. 북경사무소 이외 델리사무소 재개원함으로써 대외적 연구수월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실천과제는 과제별 중요도와 난이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표특성에 따라 정량 및 정성지표로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2022년 17개 세부 실천과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고, 누적달성도 85%에 이르는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부분에서 실천과제의 대분에서 최초의 목표과제 외에 2배 이상의 추가과제를 수행함.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구성원의 적극적 노력 이외에 성과목표 자체가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 있음. 이전까지의 성과 달성 추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적적인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영혁신 추진 부문은 당 기관에 특화된 차별화된 노력이라기보다 일반적 관리개선사항에 해당됨. 실천과제별 중요도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비정량지표도 계량화가능한 지표와 불가능한 지표로 구분하여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특히 전년 대비 증가 혹은 달성여부 등으로 제시된 성과목표는 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비계량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측정 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기관장의 경영목표 공유를 위해 경영목표별로 차별화된 소통구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성원과 소통함.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전략 및 체계 플랫폼이 존재함을 확인함.
- 기관장은 열린 소통과 상호존중이라는 소통 전략을 제시하고 노력함. 대체로 기관장의 리더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소통채널이 기존에 제도화된 위원회와 회의 외에 기관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소통채널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제시하길 권고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경제안보 상황 급변에 따른 적극적인 강연과 발표 그리고 기고 및 언론 인터뷰 등 기관장의 역량이 드러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정부부처, 국회, 협의회 등 참여 실적이 30회 존재하며, 대통령실 서면보고 실적이 인정됨. 정부 부처 및 위원회, 국회, 공공기관, 연구회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대외활동의 40% 수준임.
- 연구회가 기획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역할을 수행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장의 대외소통 전략에 따른 외부소통활동 활성화 노력이 더욱 요구됨.
- 융합연구 노력이 잘 보이지 않으며 정보화사업 등은 대체로 일반적 수준임.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경제안보 정책연구의 중심적 역할 강화

〈우수한 점〉

- 국내외적인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의미 있는 중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신정부의 국정 원칙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인정됨. 선전 과정 등에서 기관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인정됨.
-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경제안보 중요성과 글로벌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 경제상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경제안보 정책연구에서 중심적 역할 강화하겠다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잘 반영된 과제선정으로 적절함.
- 중점사업 추진체계로서 경제전략안보실에 ‘통일국제협력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경제안보관련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인터뷰, 강연,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리더십을 발휘함.
-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수행 과정이 있었고, 수행 과정상의 각 단계에서 기관장이 투입하는 차별적인 노력이 돋보임.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성과가 도출됨.
- 기관장은 중점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다양한 협력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경제안보와 관련한 현지 밀착형 연구를 수행함.
- 대외경제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경제안보전략실, 경제안보팀 글로벌전략팀 북한관련팀 신설.
- 정책연구강화하기 위한 경영비전 공유 관련 회의를 다수개최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업 노력을 수행함.
- 국제대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교류활성화를 통한 親韓 정책 유도가 우수함.
- 2022년부터 현지조사(해외설문조사, 현지인터뷰 실시(현지기관, 기업, 국민 등))를 실시하고 성과로 연계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순회, SNS 이외 대면소통, 지역 오피니언리더와 소통 등을 통해 대국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제환경의 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기관의 성과가 대국민들이 쉽게 이해해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건의함.

(2)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가속화

〈우수한 점〉

-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등 기관설립 목적에 적절히 부합하는 사업이며 사업추진 요소로 기관만의 특징점을 잘 살리고 있음.
- 아세안, 남미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경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음.
- 국정과제 96번 및 97번과와의 연계성이 존재하며 해외사무소의 관리, 새로운 사무소의 개소, 현장성 지원과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비롯,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 해외연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공식적 거버넌스 구조가 존재하며, 각 해외사무소 별 운영실적이 명확함.
-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인도 지역연구에 특화된 사무소로 인도 현지 델리에 사무소를 설립하였음.
- 중남미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북아프리카와는 식량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등 국가별로 경제안보영역에 있어 다양한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델리 사무소 개소를 포함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성과가 확인되기는 하나 현재 관련 성과 및 실적은 대체로 무난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성과 도출을 기대함.
-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사무소개설 및 운영은 해외정부기관 또는 연구회 산하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설립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존 해외 네트워크 활용 성과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여부 확인이 요구됨.
- 해외협력차 방문 이후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절차와 루틴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공식화하고 성과확산의 기초단계로서 직원들간 공유할 필요가 있음.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사회적 배려자 채용 및 고용 유지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
- 연구윤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권경영 전담조직인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함.
- SNS, 동영상, 인포메이션 카드, 중-고등학교 경제학습 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관의 연구 성과 확산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기관의 고충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원내 정치 및 보직자 자질 점검 등 민감한 사안도 고충으로 신고된 사례는 기관의 고충처리에 대한 직원 신뢰를 방증함.
- 오프라인 익명 고충 건의함 운영 등 고충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SWOT 분석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SWOT 분석에 기반한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않음.
- 예를 들어, WT 전략인 ‘언택트 시대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 운영’, ST 전략인 ‘사람 중심의 포용적 조직문화 구축’, ‘포스트코로나 시대 단기수시연구’의 실적이 없거나 부족함.
- 환경분석-대응전략-기관목표-조직운영 노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실적 내역을 재기술하는 형식의 분석이 아니라, 향후 조직운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경영분야의 제도적 체계가 미흡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의 경영성과를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과 프로세스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기관이 지향하는 경영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오프라인 고충 건의 외에 타 채널을 활용한 고충 접수 실적이 미비함. 특히,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 되는 온라인 익명 고충 건의는 대외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의 관리와 대응이 불가능함.
- 고충 접수의 익명성 보장 외에 접수된 고충 건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정원확대, 결원인력 채용 등 인력 수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임.
- 공개채용과 블라인드체계 하에서 기관의 인재상에 맞춰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인당 교육훈련비가 전년 243.7천원에서 367원으로 증가하였음.
- 업적평가시스템을 연구직과 비연구직으로 구분하고 업무적 특성에 맞게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확보 노력과 더불어 국내 우수인력확보를 위하여 국내학술대회를 통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연구직 업적평가에서 “중장기과제 조사연구” 평가항목에 포함된 6개의 “평가지표”의 반영 비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 학술지 게재논문’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이 지표가 다른 지표와 연동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비연구직의 정량평가 반영 비율이 36%인데, 평가내용이 ‘보안관리실적’, ‘교육실적’, ‘서비스 제공 만족도’ 항목만 평가하고 있어,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부서별 차별화된 정량평가지표의 개발 노력이 요구됨.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실적이 통계 패키지의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보다 더 구성원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외활동 세부 승인절차와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대외활동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부적절한 대외활동 예방노력을 기울임.
- 대외활동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대외활동 관련 구두 사전보고, 지연신고 미허용 등으로 복무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함.
- 복무관리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국외출장복명 관리 미흡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이행 및 근무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완료됨.

- 유연근무제 추진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시행이 인정됨. 연차휴가 소진율이 99.7%로 우수하며, 연가저축제 도입을 통해 연차휴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음. 연가저축제를 도입한 것과 연차휴가 소멸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임.
- 휴가, 유연근무제, 안식년제 관련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유연근로의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인트라넷 메인화면 상단에 출/퇴근 버튼을 배치하여 전산으로 근태관리를 진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건수가 전년도 33건에서 4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율이 2.4%로 비연구직에 비해 연구직의 불성실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직의 성실한 신고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간편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기관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 대외활동의 10일 초과 사후신고 발생을 줄이고 국외출장복명 관리 미흡 개선을 위한 자체 감사 시스템 구축 등 기관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
- 연구년 제도 시행세칙에 목적, 정의, 자격 외 연구년 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으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년 이후 결과보고, 학술지 게재 의무화 등의 성과확산을 위한 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자기계발 및 조직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문지식의 확산 측면에서 포럼이나 세미나,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관련 지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남성직원에게 대한 배우자 사산 휴가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분할 규정을 잘 반영하였음.
- 육아휴직 사용실적이 우수하며, 육아휴직 시 당사자의 불이익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권장을 위해 대면상담, 이메일 등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인트라넷에 공지하는 등 홍보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유사산 휴가, 육아시간 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계별, 즉 임신을 앞둔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등 lifecycle 별로 정리하여 홍보하고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
-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100% 완료한 이후 비정규직 0명을 계속적으로 유지 중이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채용제도 개선 및 무기계약직 운용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복리후생, 인사제도, 수행업무, 기타 처우, 교육 등에서 차별없이 동등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능률성과급의 경우, 임용형태/직종/직군 구분없이 확정된 연봉평가등급(S~D등급/5단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과 안정적인 소통 통로를 무기명이나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시스템을 지속·발전해 나아갈 것을 제안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2023년도 별도정원 2명에 대한 조기채용 진행중으로 업무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족 재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보직수행, 연구책임, 연구심의, 연구참여, 채용심사 등 분야별 역할 규정이 요구됨.
- 임금피크제에 따른 별도정원 채용 재원의 50% 이상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연차별 임금조정액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집행잔액 및 결원 인건비 재원을 활용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중장기 재원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특히 '22.5월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행동강령도 개정하는 등 윤리경영 규정현행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공정성 강화,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내부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탁금지 방지시스템, 성범죄방지 및 고충건의함,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KIEP ESG 경영 등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화 노력 기울임.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 제도 운영, 채용담당자 교육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국무조정실 채용감사에서 4년 연속 지적사항이 없는 클린 기관으로 운영 중임.

-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갑질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실태 조사를 실시함.
- 인권경영 접수창구를 통해 인권접수를 체계화하여 운영 중이며, 인권경영위원회는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외부위원 비율을 높였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예방교육, 대외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및 불공정거래방지 관련 교육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특성과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실적도 관리해 나가기 바람.
- 클린센터의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과 운영을 통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피해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통제수단으로 청렴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 운영 및 관리실적이 보이지 않음. 외부전문가 인력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사위원회 운영 시 징계사항 심의시에만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적으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던 점은 증빙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직원도 빈번하게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직원들에 대한 채용비리예방교육도 실시할 것을 권고함.
- 친인척 채용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분기별, 직종별 친인척 채용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람.
- 인사규정에 특별채용 규정이 남아 있으므로, 제도의 적정성과 최근 정부 가이드라인을 살펴 전향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 정부의 갑질근절가이드라인에 맞춰 외부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내부직원에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질방지대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 실행·공개 및 구제절차 제공 등으로 인권경영을 노력하고 있으나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높였으나 여전히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 임원, 인권경영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 임원,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인권침해에 대한 외부에서의 신고 사이트가 미흡하므로, 신고의 익명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인권침해신고 사이트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인턴 채용실적을 250% 달성하였으며(6인 계획에 15인 채용), 청년인턴 예산 대비 집행률을 100% 달성하고, 청년인턴 우수멘토 4명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하였음.
- 청년인턴의 근무관리는 근로계약 및 퇴직, 보안관리, 멘토링 프로그램, 복무상황, 급여지급 기준 등 분야별로 정리되어 규정에 따라 잘 시행되었음.
- 연구인턴에 대해 현장경험지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프로그램)에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관련취업 및 수료식 등을 통해 청년인턴들의 몰입도 및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집행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도 신규채용 인력(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기준) 중에서, 여성비율은 46.2%이었으며, 4명의 여성 직원이 학위과정을 이수한 점은 긍정적임.
- 성매매·성폭력·성희롱·가정교육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관장과 부서장의 교육 참여가 100%로 긍정적임.

- 여성 직원의 승진 비율 확대(21년 30%→22년 50%) 등 전반적으로 여성인력의 채용 및 활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22년 여성관리자가 47.7%(전체 136명 중 66명)로 목표인 41%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여성 관리자의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전체 승진자 가운데 여성 승진자 비율이 확대(2021년 30%→2022년 50%)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 장기육아휴직(19.10~22.09) 후 복직 여성 직원이 승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직자 양성평등이 실천되고 있다고 판단됨.
- 기관장과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4대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여 임원, 관리자, 직원 모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을 이수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며, 기관 자체의 연도별 여성보직자 관리목표치의 설정도 요구됨. 재직자의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관리자 확대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막연한 높은 수준의 계획보다는 계량화된 목표와 목표 대비 달성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연구책임자급 및 보직자 등에 적용한 장기 연도별 관리직 목표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의 적시가 필요함.
- 양성 평등을 위한 관련교육에 있어서, 성인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함.
-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등에 있어서, 내부적인 우대사항의 규정 확립을 권고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 월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른 의무고용률이 3.6%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음.
- 장애인 우대사항 등을 마련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실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참여가 100%인 점은 긍정적임.
-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확인되며, 특히 재직 중인 장애인 직원들이 이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채용의 외부 측면의 노력으로서, 우수한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 유관 기관과 소통하며 채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부 측면의 노력으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 개발을 위한 타기관 사례를 벤치마킹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한 점은 고무적임.
- 22년 기관 총원 214명 중 12명을 고용하여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6.0% 달성한 점은 긍정적임.
- 특히, 국가유공자 퇴직자 발생(11월) 직후, 보훈 제한경쟁 채용을 진행하여 1명의 국가유공자를 신규 채용하였음(12월)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임용 및 승진규칙 규정과 채용관리지침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우대 관련 규정을 정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 특성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채용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재 의무고용률이 달성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관의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기업제품 구입실적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국정감사 연구 2건과 정부위원회 연구 1건에 대한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우수함.
- 2023년 사업계획에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관련 연구를 기획하고 반영함.
- 감사 전담조직으로 감사실을 두고 정규직을 배치하였고, 감사인력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으며, 자체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관리해나가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경영회의 13건, 연구운영회의 3회, 세계경제현안토론회 1회 등 유의사항을 공지하여 보직자를 포함한 구성원에게 적극 공유한 점이 우수함.
- 생애주기별, 직급별, 담당업무별 다양하고 세분화된 감사교육을 실시한 점은 긍정적임.
-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 교육을 통해 자체 감사역량을 높임.
- 자체 감사 내용이었던 국외출장복명 미흡과 법인카드 미흡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조치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주기별 감사교육을 건의한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건의함.
- 비상임감사가 기관장과의 정례회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제시한 조치사항이나 검토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 이를 점검하는 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함.
- 감사담당업무(일상/정기/특별/기타 감사 등)의 근거 규정과 관련 근거, 운영(점검)시기, 점검결과, 추진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감사교육의 효과성 측정이나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높은 수준의 감사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해외사무소

〈북경사무소〉

□ 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
1-1. 연구·사업 분야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지원	S
	1-1-2. 성과확산 및 협력	S

□ 평가의견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 지원

① 한중, 중국,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Big Issue)에의 대응(정보 제공, 현안분석, 대책 제시 등)

〈우수한 점〉

-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슈 대응 및 연구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됨.
- 한중 양국 사이의 주요 현안을 미중관계 및 글로벌 통상 현안, 중국의 주요 공급망 및 지역가치사슬 구축 관련 현안, 한중 신경제협력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 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및 경제정책 관련 현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련 기관의 정보 및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함.
- 미중 관계 및 글로벌 통상 현안에 관한 분석 및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 15건, 한국 정부 및 기관 주관 회의 참석 후 의견 제시 11건, 언론매체에 자료 전달 5건 등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주요 공급망 및 지역가치사슬 구축과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 6건, 발표 및 의견 제시 10건, 각종 세미나 참석 16건 등 활발한 정보제공 및 대책 제시가 탁월함.
- 한중 협력 문제에 있어서 중국 중앙정부와 협력을 중심으로 대책을 모색하던 종전의 관행을 깨고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꾀함으로써 한중협력의 내실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

- 한중 신경경제협력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분석 보고서 작성 3건, 각종 세미나 및 간담회 참석을 통해 의견 제시 14건, 한국 정부 및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회의 등 참여 논의 19건, 각종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진행 6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함.
- 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및 경제정책 관련 현안 분석 및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 32건, 각종 세미나 및 간담회 의견제시 31건, 언론매체와의 정책 설명 6건 등 중국경제 분석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제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통해 한중 경제 통상 현안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향후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나, 학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노력도 필요함.
- 지방 정부와의 협력 시도는 주로 산둥성, 칭다오, 옌타이, 후베이성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지방 정부와의 협력에 진척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지역의 지방 정부와 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 코로나 정책 변화의 영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영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주제 발굴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중국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권고함.
- 한중간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언론이나 관계 기관의 한중관계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향후의 관련된 질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포맷을 제작하여 활용할 것을 건의함.

② 데이터 수집·분석자료 정기 배포 노력 및 실적

〈우수한 점〉

- 한중 경제관계 현안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을 통해 배포하고, 전문가들의 글은 북경사무소 이슈 분석에 발표하여 고급 정보와 견해를 소개하는 이원화된 방식이 매우 실용적임.
- 탄소중립, 부동산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 중서부 발전 전략, 통상 및 대외협력 정책, 위안화 국제화, 고품질 발전 전략 등 중국의 주요 경제이슈를 분석하는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을 9건 이상 발행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배포함.
- 한 해 동안 ‘이슈 분석’이 중국전문가포럼(CSF) 사이트에 총 41편이 게재되었으며, 한중 경제 포럼 및 방문학자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본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점과 주요 내용이 주요 언론매체의 특파원 보고를 통해 성과가 한국으로 확산된 점이 우수함.

- '22년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자료의 정기 배포 및 실적이 '21년도 대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타 기관의 실적 감소와는 차별화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북경사무소 브리핑과 한중경제포럼이 한중 경제 관계와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Raw Data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중 경제 통상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Raw Data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함.
- 박사급 전문 연구자들이 아니라 현지 학생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정책 지원 노력 및 실적(세미나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의 지속성 및 중요도, 개최 및 참여 실적, 주요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등)

〈우수한 점〉

- 중국의 전문 연구자를 초청해 한중경제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 한중 경제포럼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매 회 평균 37명이 참가하여 협력 강화와 연구정책 지원에 크게 기여함.
- 특히 중국에 파견된 한국의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관계자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은 높이 평가됨.
- 북경에 소재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총 7회 개최하여 중국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연구력 증진 노력도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 비록 웨비나이지만 국제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방문학자 포럼도 1회 실시하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포럼의 발표자는 주로 중국 연구 단체의 연구자들이 맡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통상 정책에 관한 고급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책 관료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임.
- 현재까지 진행된 한중경제포럼의 주제들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제에 한정된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민감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포럼의 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선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해제되면서 대면 및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더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쟁점이 되는 현안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재북경 연구기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정보 교환 및 업무 영역을 분담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를 권고함.

1-1-2. 성과확산 및 협력

① 성과확산 및 홍보

〈우수한 점〉

- KIEP 북경사무소가 생산한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돋보임.
- 연구성과물을 본원 홈페이지 및 중국전문가 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공하는 등 성과 확산과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한국과 중국의 언론에 북경사무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임.
- 북경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중국인 전문가 pool을 수집하고 운영하여 중국 내의 opinion leader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여가 43건에 달하는 등 중국 현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최하는 간담회 및 동향 회의에 42회 참가하여 연구 정책 지원 활동에 적극적임.
- 중국 경제 현안과 관련하여 민간 연구소 및 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성과 확산과 홍보 실적을 제고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주로 중국 내 한국 기관과 언론사, 중국 언론사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있는데, 시야를 넓혀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연구 기관들에게도 성과를 홍보하여 연구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주로 연구 기관이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기관 및 정책 결정 관료들에게도 연구 성과를 홍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의 SNS 위챗을 활용해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를 권고함.

② 유관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우수한 점〉

- 코로나 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협력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충실히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국제세미나 개최, 중국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포럼 개최 등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함.
- KIEP 원장의 대외활동, 국제세미나 참석 등 지원활동을 통해 본원의 네트워킹 확대에 북경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협력함.

- 2022년 북경사무소는 33건의 세미나에 참석했고, 10회에 걸쳐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학술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임.
- 코로나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 및 기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지방 정부 및 지방 소재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북경에서 개최된 33건의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대부분 단순 참여였고, 발표자(7회) 및 토론자(4회)로 참여한 것은 11차례에 불과함. 발표 및 토론 참여의 횟수를 늘려 북경사무소에 대한 인식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원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 실적이 35건 있으나, 대부분 세미나 참석자 섭외와 같은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중국의 현지 여건을 반영한 북경사무소의 주동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구축된 전문가 pool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전문가들을 발탁하여 pool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함.
- 새로 추가되는 전문가들을 따로 정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세미나 참석 시 면담하게 되는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실적을 정리하여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③ 본원 연구·사업에의 지원 및 환류

〈우수한 점〉

- 본원의 국제세미나 지원 35건, 웨비나 참석 지원 5건 등 본원 및 북경사무소의 세미나 개최 및 지원이 활발함.
- 본원이 요구하는 자료 수집과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연구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능력 제고를 위해 중국한국상회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뉴스레터에 KIEP의 연구성과를 2023년부터 수록하기로 한 것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여, 평가결과 개선 및 환류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본원이 개최하는 세미나 및 웨비나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세미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북경사무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미나에 연구 발표자로 참여하여 연구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음.

- 본원의 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경사무소 주관 연간 보고서 제작을 검토하여 북경사무소의 위상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년도에 중국 학자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주제가 일반적이고 강연 형식의 행사가 중심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경향이 남아 있음.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구체적인 쟁점 중심의 세미나나 강연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본원에 제공하는 중국 서적 등 기초 자료 및 정기간행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자료의 선별적 구독을 권고함.

〈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

☐ Evaluation Results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
1-1. Program	1-1-1. Assessment of KEI, whether all KEI programs conform to the stated mission of the organization and whether all KEI programs have improved over previous year.	A
	1-1-2. Excellence in execution of programs	A
	1-1-3. Evaluation of KEI's impact to the society	A
	1-1-4. Program Evaluation Survey	A
2-1. Management/ Operation	2-1-1. Adherence to the Rules and Conditions of Agreements	S
	2-1-2.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S

☐ Comments

1-1. Program (Project)

1-1-1. Assessment of KEI as to whether all KEI programs conform to the stated mission of the organization and whether all KEI programs have improved than previous year.

- Assessment of KEI as to whether all KEI programs conform to the stated mission of the organization. (Contribution to elevate the importance of Korea in U.S. public-policy making circles.)

〈Strengths〉

- The KEI programs in 2022 are in line with its stated mission objectives. In 2022, KEI started to actively host in-person events after the easing of the COVID-19 pandemic, while organizing more virtual and hybrid activities as well.

- Marking its 40th year of operations in 2022, KEI covered most critical issues, such as political transition in ROK and the United State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CHIPS Act,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Ukraine, an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US Free Trade Agreement.
- KEI invited policymakers, experts, and researcher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ROK and provided a venue to discuss critic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any other concerns potentially affect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 KEI introduced new events, such as The Next Five Years and a new annual event of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ROK, and the EU, and resumed the Future of Korea Program in-person, a longstanding signature program over twenty years.

〈Advice and Proposals〉

-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EI establish clearer criteria in selecting cities with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uture of Korea program, based on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s within individual cities, as well as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of target cities, to strengthen the U.S.-ROK relationship.
- KEI has clearly worked to produce more viewer-friendly contents, adding more graphical visuals and shortening the running times of contents, but we still recommend more efforts in this area to increase views of The Next Five Years.
-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he ROK-Japan relationship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KEI should organize trilateral activities among the United States, ROK and Japan, perhaps emulating current trilateral events among the United States, ROK, and the EU, which show excellent organization.

– Assessment of KEI whether all KEI programs have improved than previous year.

〈Strengths〉

- In 2022, KEI hosted many events and activities, virtual, in-person, and hybrid, to strengthen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OK and the United States.
- KEI hosted events in other cities besides Washington, D.C., in the United States, by strengthening its nation-wide activities, mainly through the Future of Korea program.

- KEI started its new video series, titled in The Next Five Years, to introduce new policies implemented by the Yoon administration.
- KEI introduced a new annual event of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ROK, and the EU.

〈Advice and Proposals〉

- Preparing its Performance Assessment Form, KEI needs to provide its own information on quantitative performance – for instance, the number of events, outreach activities, published reports, and partner institutions – in order to evaluate its quantitative outcomes compared against the previous year, going into further detail than the brief numbers provided on 2022 activities in pages 4-5 of the KEI 2022 Annual Report.
- KEI needs to conduct self-evaluation of its performance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regarding the critical topics covered and effectiveness of KEI operations, showing how its activities have affected its missio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year.

1-1-2. Excellence in execution of programs

- **Assessment of planning and execution of KEI programs – whether the programs responded to recent issues appropriately and whether they delivered impactful messages.**

〈Strengths〉

- As stated above, KEI covered most critical issues in 2022,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ROK, congressional elec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CHIPS Act,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he Russia-Ukraine war, and a 10-year assessment of the KORUS Free Trade Agreement.
- KEI utilized the suggestions of the 2021 KEI Evaluation Result by continuously expanding its networks with influential experts and scholars on arising issues.

〈Advice and Proposals〉

- Even though KEI has its own strategic implementation to establish its annual plan, it needs to develop a system or procedure to approach any recent and urgent matters by strengthening communications with its advisory group and board members.
 - When drafting its Performance Assessment Form, KEI needs to state its own evaluation of how it delivered impactful messages.
 -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EI develop a system or procedure to check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KEI activities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 **Assessment of participants and outside organizations working with KEI, regarding their expertise.**

〈Strengths〉

- KEI has its own list of experts to invite to its various activities, and successfully maintains good rel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se experts.
- The participants of KEI programs in 2022 are well-established experts and key policymakers in both ROK and the United States.

〈Advice and Proposals〉

-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EI invite current policymakers in the United States more frequently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and reflect ROK's concerns in U.S. policies.
- KEI needs to establish a more systemic procedure to locate new experts on new topics in light of the increase in more technology-related issues,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raw materials of these commodities.

1-1-3. Evaluation of KEI's impact to society

- **Assessment of KEI's Outreach Program, whether the number of all participants (including the experts and the number of viewers in Social Network Services) are appropriate.**

〈Strengths〉

- Overall, KEI has shown exemplary operation of its various outreach programs based on previous experiences. KEI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 size of its audience and introduced several outreach programs.
- KEI has utilized various tool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outreach programs (i.e., in person engagement, the hybrid formats, social media and multimedia presence and utilization of various contents in the legacy media).
- KEI has set up its new Strategic Plan well (“Build KEI capacity to enhance our reach and impact”), increasing attention from its targeted specific audience, collaborating with peer organizations, and enhancing metrics and feedback.

〈Advice and Proposals〉

- There appears to be significant need for proper analysis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individual outreach programs. Strategic selection of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and effective outreach program,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staff members and available resources of KEI, would be necessary.
- It seems that access to various Korean legacy media would be needed, which includes not only progressive-leaning press as well as more conservative channels. These efforts will enhanc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people and leaders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in both states.

- **Assessment of KEI's Publication Program on whether it has disseminated research outcomes to outside organization/individuals appropriately**

〈Strengths〉

- KEI has excellent activities for its existing academic journals (e.g., On Korea, Joint U.S.-Korean Academic Studies). These journals are distributed to various universities,

government agencies and think tanks. Also,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journal, KEI posts articles in the electronic journal of the KEI website.

- KEI intends to publish a new integrated journal to increase its reputation and utilization. KEI has finalized plans to consolidate its publications (On Korea, Korea's Economy and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into a single journal (Korea Policy), which will highlight a good case of choosing promising areas to concentrate resources.
- KEI has discontinued hosting panels at ISA, but is instead hosting three panels as a part of its new Academic Symposium program. KEI will also launch new multi-year engagements with three universitie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Columbia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 KEI staff members have written extensively for the Peninsula Blog and Korea View Newsletter, recorded videos for Korea in Five, as well as produced other special videos, and contributed to outside publications. KEI has expanded its collaboration by writing for a wider variety of outlets. KEI is also providing a summary service on its website related to events hosted by KEI.

〈Advice and Proposals〉

- Regarding last year's evaluation, despite its astonishing improvement, KEI is still required to continue its efforts. In other words, KEI still needs to expand links to websites of othe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sign MOUs with Korean research institutes for data collection (It is not sufficient for KEI's agreement with KIEP and IFANS to only post its contents on the KEI website).

1-1-4. Program Evaluation Survey

- Assessment of the KEI'S Questionnaires

〈Strengths〉

- According to last year's performance evaluation suggestions, KEI has conducted post-event surveys via email to RSVP participants, along with a link to the recording and a brief summary of the event in questions. The 2022 survey results show that KEI received a high score.
- KEI has also carried out a study on the demographics of its respondents, considering the evaluations of last year.
- Based on the low response rate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programs, KEI is now considering to introduce and establish new feedback systems.

〈Advice and Proposals〉

- Although the feedback system is constantly being modified, a longer-term research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results of surveys can be used to modify future events and programs. In addition, more specific details on how the feedback has been reflected in the improvement of future activities and programs should be presented.
- KEI still needs to take various efforts to increase the number of surveys and number of respondents (in spite of the fact that post-event surveys are not only uncommon in most D.C. policy circles, but also acutely suffer from audience fatigue). If necessary, providing incentives to respondents or outsourcing the work to a specialized research agency could also be considered.

2-1. Management and Operation

2-1-1. Adherence to the Rules and Conditions of Agreements

- Assessment of adherence to the rules and conditions of Contract and KEI Bylaws

〈Strengths〉

- In general, KEI adheres to the rules and conditions of the KIEP-KEI Contract and the Bylaws.
- KEI has been preparing for renewal of the KIEP-KEI Contract, which will expire on December 31 in 2023, by reviewing details of items including an extension of the Contract duration.
- KEI has been holding a quarterly basis meeting with KIEP staff members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Contract rules and recommendations from KIEP.

〈Advice and Proposals〉

- KEI should share with KIEP its plan and details related to Contract renewal as soon as possible, in that it is necessary for KIEP to check whether the new Contract terms are acceptable before renewal.

- Assessment of KEI's budget and expenses as to whether expenses were appropriate within the budget.

〈Strengths〉

- The proportion of KEI's actual spending in the designated budget for fiscal year 2022 was relatively high at 85.7%, despite the negative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KEI's operating environ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2022.
- KEI successfully conducted operations with its decreased budget in 2022 compared to 2021 due to the rise in exchange rate.
- KEI acquired extra savings by completing a renewal of its office lease, which will allow KEI to utilize these savings should its liquidity drop.

〈Advice and Proposals〉

- In regards to KEI's investment portfolio, it would be better for KEI to provide KIEP with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portfolio composition and any changes, to allow KIEP to offer advice on KEI's budget management as its key partner.

– **Assessment of KEI whether it has incorporated the suggestions spoken by the evaluation committee in the previous year**

〈Strengths〉

- The Committee welcomes KEI's efforts to accommodate the suggestions of the 2021 evaluation committee. To follow the committee's suggestions, KEI tried to engage U.S. government officials, former and current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and staff members in private events discussing issues crucial to both the U.S. and ROK, such as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implications of elections.

〈Advice and Proposals〉

- KEI needs to establish policies for more effective internal controls over budget allocation and spending.

2-1-2.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 Assessment of KEI on its efforts and outcome to recruit talented personnel and systems to secure talented personnel.

〈Strengths〉

-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KEI hired two new staff members in charge of Program Officer and Media Producer, respectively.
- KEI plans to hire an additional full-time staff member in 2023 with an economics background and interest in policy research.
- KEI has been successful in improving employee benefits such as additional increases in staff members' retirement plans (401k).

〈Advice and Proposals〉

- KEI needs to provide its staff members with incentives and salaries similar to members in other think tanks in Washington DC in order to retain its high-skilled staff.
-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EI recruit a staff member who has a solid background in economics.

- Assessment of Co-work between KEI and KIEP.

〈Strengths〉

- KEI and KIEP have collaborated in many areas on a regular basis and when cooperation issues arise.
- In 2022, KEI and KIEP jointly hosted diverse events including in-person seminars on “A Celebration and Assessment of 10 Years of the KORUS FTA and the Future of U.S.-Korea Economic Relations” and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Korea, EU, and U.S.”

〈Advice and Proposals〉

- KEI needs to provide its plans for annual events, including both predetermined and new one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allow KIEP to prepare details for such events in advance and check for any conflicts with KIEP's own events.

〈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

□ 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
1-1. 사업분야	1-1-1. 기관 고유 목적의 달성 및 사업의 개선 여부	A
	1-1-2. 사업의 우수성	A
	1-1-3. 성과확산 및 홍보의 적절성	A
	1-1-4. 고객만족도 조사	A
2-1. 경영분야	2-1-1. 규정·지침 준수 및 환류	S
	2-1-2. 조직·인적 자원 관리	S

□ 평가의견

1-1. 사업 분야

1-1-1. 기관 고유 목적의 달성 및 사업의 개선 정도

– 사업이 기관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2022년의 KEI 프로그램은 사명에 부합함.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정 이후 2022년 KEI는 오프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했는데 가상현실과 및 그를 혼합한 활동들도 더 많이 조직.
- 2022년 창립 40주년을 맞은 KEI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여야교체,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CHIPS 법안,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체, 우크라이나, KORUS 자유무역협정 10주년 등 대부분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었음.
- KEI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책 입안자, 전문가, 연구원들을 초청하여 양국 사이의 중요 이슈와 양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 KEI는 The Next Five Years와 미국, 대한민국, EU 간 삼자 경제 협력의 새로운 연례 행사 등 새로운 이벤트를 소개했고,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래의 한국’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재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한국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해 권장되는데 개별 도시의 현재 상황 분석과 목표 도시의 인구학적 및 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해야함.
- KEI는 그래픽 비주얼을 더 추가하고 콘텐츠 시간을 단축함으로 시청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The Next Five Years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
-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KEI는 현재의 미국, 대한민국, EU 간의 삼자 행사처럼 탁월한 조직을 보여주는 미국, 대한민국, 일본 간의 삼자간 활동을 조직해야 함.

- 사업의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2022년 KEI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개최.
- KEI는 한국의 미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인 활동들을 강화하며, 워싱턴 D.C. 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행사를 개최.
- KEI는 윤 정권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는 'The Next Five Years'라는 새로운 비디오 시리즈를 시작.
- KEI는 미국, 대한민국, EU 간의 삼자 경제 협력에 대한 새로운 연례 행사를 도입.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실적 평가서 형식을 준비할 때 KEI는 행사 수, 외부 활동, 발표된 보고서, 파트너 기관의 수 같은 정량적 성과에 대한 자체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를 통해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정량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KEI 2022 연례 보고서의 4-5페이지에 있는 2022년 활동에 대한 간략한 숫자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KEI는 주요 주제와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성과를 고려하여 자체 평가를 수행해야 함. 이를 통해 이전 연도 결과와 비교하여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명에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할 수 있음.

1-1-2. 사업 실행의 우수성

- 사업의 기획 및 집행 평가

〈우수한 점〉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EI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의 의회 선거, 인플레이션 감소법, CHIPS 법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KORUS FTA 10년 평가 등 2022년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음.
- KEI는 2021년 KEI 평가 결과에서의 제안을 활용하여 급부상하는 이슈에 대한 영향력 있는 전문가와 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옴.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EI는 연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체 전략적 수행이 있었지만, 자문 그룹과 이사회 멤버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최근 및 시급한 안전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필요.
- 성과 평가 형식을 작성할 때 KEI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밝혀야 함.
- KEI는 정량적, 질적인 측면에서 KEI 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체계나 절차를 개발할 것이 강하게 권장됨.

- 주요 참여자 및 협력기관의 전문성 및 수준

〈우수한 점〉

- KEI는 다양한 활동에 초청할 자체 전문가 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KEI 프로그램의 2022년 참가자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이며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전문가들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한민국의 우려 사항을 미국 정책에 반영하고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EI는 미국의 현직 정책 결정자들을 더 자주 초청하는 것이 권장됨.
-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 등과 같은 기술 관련 이슈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내는 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함.

1-1-3. 성과확산 및 홍보의 적절성

- 성과확산 프로그램의 적절성

〈우수한 점〉

- 전반적으로 KEI는 이전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함. KEI는 지속적으로 청중 규모를 확대하고 여러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함.
- KEI는 외부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함 (예시: 대면 교류, 하이브리드 형식, 소셜 미디어 및 멀티미디어 활용 및 레저시 미디어에서 다양한 콘텐츠 활용).
- KEI는 새로운 전략 계획을 잘 수립함 (#“KEI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구축”). 대상 청중의 주목을 높이고 동료 기관과의 협력을 늘리며 계량적 분석과 피드백을 강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개별 외부활동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KEI의 직원 수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진보성향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채널들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 레저시 미디어에 접근해야 함. 이러한 노력은 한국 사람들과 리더들의 양국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게 할 것임.

- 출판물 배포 대상기관의 적절성

〈우수한 점〉

- KEI는 기존 학술지(예시: On Korea, Joint U.S.-Korean Academic Studies)에서 훌륭한 활동을 해왔음. 이러한 저널들은 다양한 대학, 정부 기관 및 싱크탱크에 배포됨. 또한, 해당 저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EI 웹사이트의 전자저널에 기사를 게시함.
- KEI는 평판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통합 저널을 출판할 계획임. KEI는 그 출판물들(On Korea, Korea's Economy 및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을 단일 저널인(Korea Policy)로 통합할 계획이며, 이는 유망한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임.
- KEI는 더 이상 ISA에서 패널을 호스팅하지 않지만, 대신 새로운 학술 심포지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 개의 패널을 호스팅할 예정. 또한, KEI는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Columbia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과 새로운 다년간 협력도 시작할 예정.

- KEI 직원들은 Peninsula Blog와 Korea View Newsletter에 대한 많은 기고물을 작성했고, Korea in Five 비디오를 녹화하며 기타 특별한 비디오를 제작했고 외부 출판물들에 기고했음. KEI는 더 다양한 매체에 글을 쓰는 것으로 협력을 확대해옴. 또한, KEI는 KEI에서 주최한 행사와 관련된 요약물 웹사이트에서 제공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난해 평가에 따라 놀라운 개선에도 불구하고 KEI는 여전히 노력을 지속해야 함. 다시 말해, KEI는 다른 기관 및 조직의 웹사이트와의 연결을 확장하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한국 연구 기관과 MOU를 체결해야 함(KEI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KEI와 KIEP 및 IFANS와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1-1-4. 고객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별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우수한 점〉

- 지난해 성과 평가 제안에 따라, KEI는 RSVP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행사 후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녹화 링크와 질문들에 대한 간단한 행사 요약과 함께 제공했음. 2022년 설문 조사 결과 KEI는 높은 점수를 받음.
- KEI는 작년 평가를 고려하여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연구도 수행함.
- 낮은 응답률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특성들에 근거하여 KEI는 새로운 피드백 시스템 도입하고 구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피드백 시스템은 계속 수정되고 있지만,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의 행사 및 프로그램들을 수정할 수 있게 장기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또한, 피드백이 향후 활동 및 프로그램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함.
- 여전히 KEI는 설문 조사 수와 응답자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D.C. 정책 단체에서 행사 후 설문 조사가 드물고, 관객 피로가 심하지만). 필요하다면 설문 응답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1. 경영 분야

2-1-1. 규정·지침 준수 및 환류

- 법률·정관의 규정 및 계약조건 준수 여부

<우수한 점>

- 일반적으로 KEI는 KIEP-KEI 계약 및 조례와 규칙과 조건을 준수함.
- KEI는 계약 기간 연장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KIEP-KEI 계약을 갱신할 준비를 하고 있음.
- KEI는 KIEP 직원들과 분기 회의를 열어 계약과 KIEP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IEP가 계약 갱신 전에 새 계약 조건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KEI는 가능한 빨리 KIEP와 계약 갱신에 관한 계획 및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함.

- 예산 집행의 적절성

<우수한 점>

- 2022년도 상반기에 COVID-19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에도 2022년도 예산 내에서의 KEI의 실제 지출 비율은 85.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환율 상승으로 인해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KEI는 성공적으로 운영을 수행했음.
- KEI는 사무실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약을 하였고 이는 유동성이 떨어질 경우 절약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EI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KEI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KIEP에 제공하는 것이 좋음. 이를 통해 KIEP는 주요 파트너로서 KEI의 예산 관리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음.

-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위원회는 2021년 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KEI의 노력을 환영함. 위원회의 제안에 따르기 위해, KEI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선거 결과의 영향과 같은 한미 양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프라이빗 행사에 미국 정부 공무원들, 전직 및 현직 의회 의원 및 스태프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EI는 예산 배분과 지출에 대해 더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정책을 수립해야 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평가 기간 동안 KEI는 각각 프로그램 담당자와 미디어 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할 두 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함.
- KEI는 2023년에 경제학 배경을 가지고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추가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계획임.
- KEI는 직원들의 은퇴 계획(401k)에 대한 추가적인 증가와 같은 직원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성공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EI는 숙련된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다른 싱크탱크의 구성원들 수준의 인센티브와 급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 KEI는 탄탄한 경제학 배경을 가진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매우 권장됨.

- KIEP와의 업무 협력 정도

〈우수한 점〉

- KEI와 KIEP는 정기적으로 또한 협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였음.
- 2022년에 KEI와 KIEP는 “KORUS FTA 10년의 축하와 평가 및 미국-대한민국 경제 관계의 미래”와 “대한민국, EU, 미국 간 삼자간 경제 협력”을 주제로 한 대면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EI는 미리 정해져 있었거나 새로 기획된 연간 행사 계획을 KIEP에게 연초에 미리 제공하여 이러한 행사들에 KIEP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KIEP 자사의 행사들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4. 산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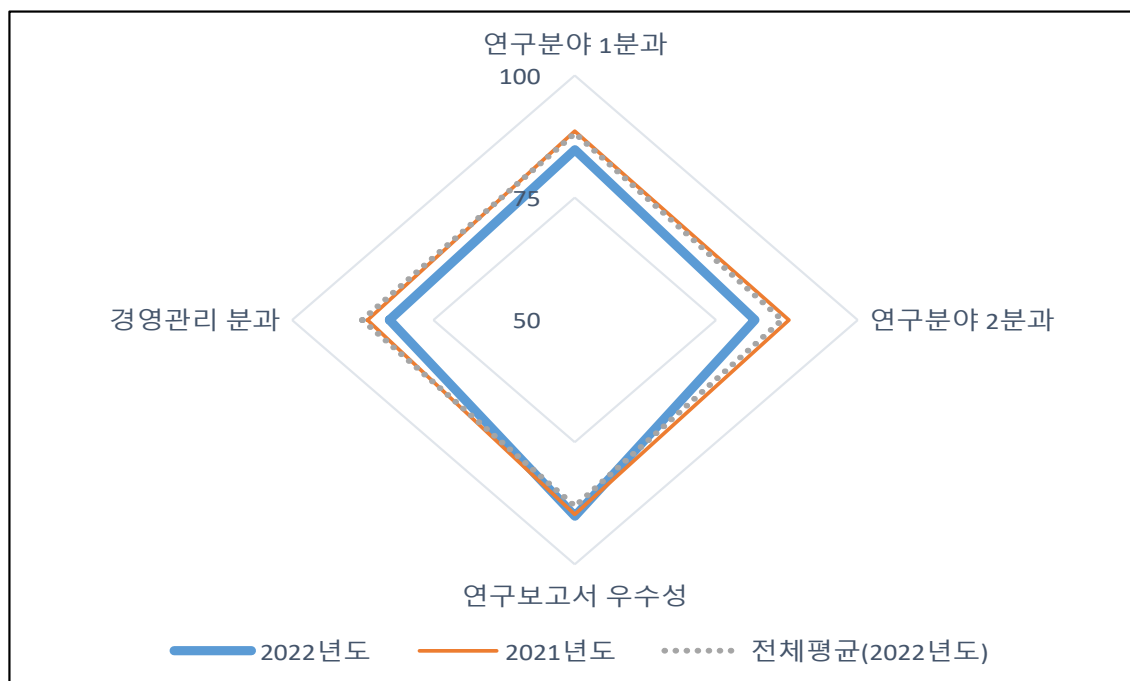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D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D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D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A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C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해외사무소 평가결과)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D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B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다양한 협업 장려제도를 시행하고 과제선정시스템의 이원화 및 협동연구 관리 체계의 융복합 플랫폼 구분 운영을 통해 내외부 협력 및 협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주기적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연구윤리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제고됨.
-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킹 노력은 인정되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운영실적이 비교적 저조하므로 정부제안과제의 적극적 반영을 위한 소통 노력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긴급현안 대응체계와 연구성과를 크게 개선하였으나, 수시 연구사업비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고유의 연구영역에 잘 부합하고 시의성의 높은 현안과제를 적절히 발굴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정책대안의 기대효과 및 파급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고려하는 한편,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논거를 마련하고 더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경영 분야]

- AHP를 활용하여 성과목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반영함. 경영목표를 전체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나 평가제도 관련 성과는 미달성됨. 직무분석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기관장의 조직구성원 간 소통과 관련하여 책임, 열린, 참여, 상생, 공감 등의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소통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함. 기관의 정체성과 매우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고려할 때, 전문연구자 그룹, 산업계, 언론 등 좀 더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상대로 대외활동 노력이 필요함.
- 경영환경분석에 따라 연구목표를 재성하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실적은 다소 부족함.
-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견청취를 통한 피드백 체계 관리가 필요함.
- 갑질근절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주기적으로 외부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갑질방지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미흡하며, 감사인력 역량 교육 및 감사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정부 및 산학연 정책연구 수요 반영을 위해 환경조사 및 분석,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연구사업발굴, 연구사업 심의 및 평가, 연구사업 확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운영함.
-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120대 국정과제 중 KIET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음.
- 국정과제, KIET 역할, 유관 정부부처의 정책 현안, 대내외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요를 조사한 후 연구 기획, 평가, 확정을 함.
-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으로부터 사업계획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분석과정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인정됨.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해외 진출기업 대상(중국, 베트남) 수요조사 실시해 중국 406개사 중 79개사, 베트남 326개사 중 305개사에서 과제 제안이 접수됨.
- 정부부처·국회, 산, 학, 연·국민의 정책수요자 고객유형별 online 및 offline 수요조사 병행. 이와 함께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는 등 정책수요자의 연구기획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 정책연구협의회를 2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29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수요맞춤형 정책연구 기획을 위해 발굴-기획-자문 단계를 거쳐 연구기획을 하였음.
- 연구방향 및 분야별 연구목표 설정을 위해 연구 기획위원회의 하향식(Top-down) 발굴과 산학연 자문회의, 사업계획심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Bottom-up) 발굴방식을 활용하였음.
- 연구기획위원회를 총괄조직으로 하여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 국가의 이슈에 맞는 KIET의 29개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음.
- 주요 현안을 단기(1개월이내), 중기(3-6개월), 장기(10개월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대응 하도록 연구사업을 기획하였음.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연계 허브 기능을 하는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중소벤처분야 연구목표 설정 및 중점연구 기획을 강화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국민 대상 소통채널이 연구에 반영되는 정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가 산업에 현실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목소리를 상시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회 구성이 기획 전단계부터 보다 다양화가 필요함.
-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 이슈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낮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연구과제 예산 비중을 18.3%로 증액함(전년 12.2%).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18.3%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고, 제안과제에 대한 반영실적도 30-40%정도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협력연구가 부족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협동연구 비율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43.1%로 확대함.
- 연구사업 수행규정에 협업장려 규정(제13조)를 마련하여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협동과제 수행 역량을 제고함.
- 협력기관을 대학교, 연구소, 학회 뿐만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하여 현실대응도를 높였음.
- Bottom-up 및 Top-down의 방식을 조합한 단계별 절차를 통한 협동과제 발굴, 기획 및 선정 절차가 체계적임.
- 협동연구의 타당성 및 국가정책의제, 국가, 사회적 주요현안문제 반영정도의 분석이 잘되어 있음.
- 새정부 국정과제 중 KIET 연구영역과 관련 있는 10대 국정과제를 도출한 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9개 과제를 선정함.
- '23년도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중이 74.1%에 이르러 정부현안과제를 연구과제 선정에 잘 반영하고 있음.
- 산업부, 국조실, 기재부 등 관련한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해볼 것을 제안함.
- 협동연구 참여기관이 산업연구원과 유사한 기관임. 보다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회 발표방식을 과제별 진행 방식에서 그룹별 진행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과제별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해 6개 연구그룹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심의위 구성시 외부인사 비율 50% 이상 준수).
- 단계별 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다차원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6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함.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내부 구성원 간 협력과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 장려제도(공동연구 가산점제, 대형과제 가산점제)를 도입 운영하고 사업정보 공유 및 참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부서 간 융합연구를 확대해 2022년 기본연구과제 25개 중 12개를 부서 간 융합연구로 수행함으로써 전년 대비 8.7%의 증가 효과가 발생함.
- 수시연구과제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선정시스템을 top-down과 bottom-up 방식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함,
- 기본·일반연구과제 단계별 보고회 등 운영방식 개선과정에서 기한 미준수 감점제도를 신설해 착수·중간 보고의 경우 보고회별로 2점을 차감하고 최종보고의 경우 10점 차감과 대외활동 중지를 요구하는 등 강제력을 부여함.
- 협동연구 수행 비중을 확대하고 협동연구 관리 체계를 5개의 구분된 융복합 플랫폼으로 분류함으로써 협동연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연구사업 수행규정을 개정하여 연구과제의 협동연구 장려에 관한 규정(제13조)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협동연구 과제수행 능력을 제고함.
- 전체 수행과제 중 협동연구과제 비율이 65.7%이고, 주관 79건, 협력 9건으로 주도적 연구수행이 이루어짐.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일반 연구과제 단계별 보고회를 연구자·연구책임자 자율 운영 방식에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는데 이러한 개선이 연구자의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균형감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과제 전주기적 수행관리 시스템이 6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관리의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연구자에게 행정처리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 있는 바 불필요한 단계는 통합해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객관성 및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해 연구자 추천을 배제하고 연구원이 보유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는데 전문가 풀이 충분치 못할 경우 전문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전문가 풀의 충분한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별 자문위원회 전체 160명 중 외부 78명, 내부 82명인데 이 중 산업계는 9명으로 전체 5.6%, 외부 11.5%에 불과하고 연구그룹별 심의위원회에는 전체 53명 중 2명으로 3.8%에 불과한 바 산업연구원의 현장중심성 강화를 위해 산업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독려 제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협동연구를 장려할 경우 협동연구 과정에서의 책임소재 문제나 무임승차 문제 등 부작용 발생으로 오히려 보고서의 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볼 것을 건의함.
-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산학연정 네트워크나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심의위원회가 주로 정부부처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산업계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부족한 바 산업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 착수단계에서 사후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을 운영함.
- 연구윤리위원회를 총괄조직으로 하되 내부점검단과 외부 정밀검증반으로 자체점검단을 세분화하여 운영함.
- 연구책임자 자율점검, 연구윤리 내부점검단, 외부전문가 정밀검증반, 저자현명화 운영 성과 등 4중 구조의 자체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시에 연구윤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윤리교육을 추진함.

-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계한 연구윤리 중기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함.
- 사업계획서 상 장기출장계획을 점검하는 등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자체점검단이 총괄기구, 내부점검단, 외부전문가 정밀검증반, 연구심의위원회 등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연구윤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여겨지는 바 이를 가능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연구윤리 관리 상 red tape 초래 가능성 상존).
- 연구윤리위원회가 총괄조직이라고 했는데 P.81의 연구윤리수행체계상에는 사후단계에서만 역할이 주어지고 있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관련 신고센터 운영을 실질화해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외부 윤리전문가 대상)을 강화해 내부점검 및 윤리점검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 직원(59.6%) 및 신규직원(76.9%)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함.
- 최종보고회 전후로 집중된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전 직원 대상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함에 있어 착수단계와 중간보고 단계의 연구수행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진 등 대상을 구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윤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부실학회 참여 및 활동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바, 부실학회 참여 및 활동 방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내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의 대내외 확산의 프로세스 체계화, 상시 환류체계 운영, 홍보 콘텐츠 다양화 및 채널 확대의 3대 전략 수립이 적절하고, 실행성과도 우수함.
- 고객수요자와 대외협력실 간 만족도 및 수요조사, 상시 모니터링, 피드백 추진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세미나·포럼, 전문학술 DB·타기관 DB연계, 보도자료, 협력 프로그램, 간담회, 홈페이지, 연구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등 첨단정보화수단을 활용하여 연구성과 확산수단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함.
- 22년에는 해외 수요자에 대응하기 위한 다국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 SSRN, RePEc, DBpia등 국내외 전문 학술 DB에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Occasion Paper, KIET 산업경제, i-KIET 산업경제이슈 등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실적도 1,968건에 이르러 우수함.

- 정기, 비정기 연구성과물을 다양한 배포대상에게 배포하여 총 64,000회 배포하였으며, 이슈페이퍼를 청와대, 총리실 등 정책수요자 등에 배포하여 확산실적이 우수함.
- 산, 학, 연, 정 연구협력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연구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우수함.
-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정책현안을 과제별 및 기간별에 따라 정부 유관부처, 국회 등과 협의하고, 산학연 협력 도모 실적이 우수함.
- 정책지원 요청에 대응한 ‘대정부 정책현안과제’ 신속히 수행하여 실적이 우수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도 3년 평균대비 사안별로 100~150% 내외로 증가하고, 26회의 국제행사 개최, 35건의 국제행사에 연구원이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하였을 때,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을 담당하는 영역별 인력수준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원천자료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실적이 우수함.
- 2021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 등록된 연구보고서 원문정보를 국가정책연구포털에 100% 등록하고,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였음.
- 2005년도부터 매년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의 활용도를 증진하고, 한국산업경제의 발전과 산업통계의 활용도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함.
- 2022년 ISTANS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 필수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106건의 연구결과가 모두 등록되어, 국가정책연구포털 등록비율이 100%에 달함.
- 비공개 등록 연구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원 1인당 연구편수는 부연구위원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0.25로 보다 많은 논문게재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 ‘Sustainability’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음. ‘Sustainability’ 학술지는 약탈적 학술지 관련한 주의를 요함.
- NKIS 등록대상과제 중 일부가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에 등록되는 등 연구과제 등록의 충실성에 흠결이 존재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정과제 연구 수행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국정과제 지원성과를 입법 및 제도개선, 정부정책화, 자문, TF 참여 등으로 유형화하여 체계적, 정량적으로 관리함.
- 국가균형발전 관련 10대 과제 발굴/선정에 기여함.
-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하며, 특히 국정과제 분석 및 책임배정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주요 내용 분석 수행 및 책임부서를 배정하고, 국정과제 지원수단으로 BH를 비롯한 유관 정부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비연구 수단을 활용하여 국정과제 지원하는 등 달성 실적이 우수함.
- 정책반영 등 참여·지원 실적에서는 9개 정부부처의 11개 국정과제에 참여 및 지원성과를 도출하였으며, 대표실적으로 국정과제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을 수행함.
- 10대 국정과제 관련 연구 수행으로 KIET 10대 국정과제 관련 150건(전체 과제의 72.5%), 참여 인력 966명(전체 인력의 69.3%), 14,608백만원(전체 예산의 68.5%)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임.
-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수립 반영으로 국정목표 6 및 1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실무기관으로 산업연구원 지정('22.04), 지역특위 대응을 위하여 산업연구원 내부에 '지역특위 대응 특별연구팀' 구성 및 대응하였고, 지역특위 협의사항에 따라 5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
- 대표사례로 제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국정과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그 수행 결과 또한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관련 사업 3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기여한 정도가 우수하며, 그 구체적인 달성 정도로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마련, 데이터 플랫폼 및 표준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접목·활용 지원, 각 산업분야에서 DX 선도사업, 지역의 DX 확산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기업지원체계 구축, DX 인재양성, 규제·제도 개선, 국제 디지털협력 등) 전략 마련, 지역특위 대응 특별연구관련 성과 등이 우수함.

- 대표사례의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추진단과 연구원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되었으며, 여러 전략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특히 본 연구를 통해 '23년 상반기에 제1차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확산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9개 정부부처 11개 국정과제에 참여하여 창출한 지원 성과로 특기할 만한 정책 및 입법 지원 성과가 다소 미흡함.
- 단순 참여나 행사 개최가 아닌 구체적 입법지원 성과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국정과제 지원성과에 대해 ① 입법 및 제도개선, ② 정부 정책화, ③ 자문, ④ TF 참여 등 성과를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 기여실적 관리제도 신설 및 운영하고 있음.
- 정책 기여 실적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정책 기여 검증단을 구성 및 운영(단장 : 부원장)하고,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지원 성과가 실현된 경우 점검 및 평가, 우수 정책지원 성과에 대해 점수 부여 및 홍보물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과제 기획-평가/성과 확산 단계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정책연구과제 자문위원으로 정부부처 실무자가 참여하고 정책기여실적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기여도 관리 노력을 하고 있음.
- 평가, 성과 확산 단계에서는 온-나라 정책연구(Prism) 성과 관리, 기본과제 정책기여 실적 제출 의무화, On/Off-line 성과확산 채널 운영, 정책 기여실적 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기여 검증단 운영목적과 역할 설정은 합리적이나 검증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킹 노력은 인정되나, 비교적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운영실적이 비교적 저조하므로 정부제안과제의 적극적 반영을 위한 소통 노력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 긴급현안 대응체계를 기관 자체 발굴과 정부부처 요청 현안으로 이원화하여 대응하였고 그 대응 실적을 정량화한 형태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긴급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도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 새 정부 요청 대응사례인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정책적 대안(기본 계획수립)을 제시하였고 해당 대안이 입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으며, 경제안보 등과 관련한 기본과제 수행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연결되고 있고, ‘소부장’ 관련 수탁과제의 수행성과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기관 자체 발굴 현안은 연구기획위원회를 총괄조직으로 연구부서장 연석회의를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2022년도 자체 발굴 현안인 ‘경제안보’, ‘규제혁신’, ‘지방시대’ 관련 과제의 긴급 성과 과제 수행 성과의 구체성과 효과성이 인정됨.
- 수시과제는 정부부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발굴/선정하고 수행/출판 과정에서의 소요시간 단축을 통해 주요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수요 부처에 제공하는 Fast-Track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연구자 자율 기획 수시연구과제 제안서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시과제 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1.8%,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 과제 비율이 56.1%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196건 수행하는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은 인정되나, 특히 정부현안과제 및 긴급연구와 관련한 연구수행 성과가 기관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다소 저조하므로(28건)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수행 노력이 필요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 비율이 11.8%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였으나, 정책연구의 시의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 그 비율의 상향 조정을 권고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규제 개혁, 4차산업혁명 및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국가균형발전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여러 주요 산업 분야 이슈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정책화 성과를 도출하였음.
- 전반적으로 수요 정부기관 담당자들과 원만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체계화하였음.
- 전반적으로 시장과 산업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산업연구원이 가진 고유하고 특수한 연구영역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책화 실적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수의 연구과제가 특정 산업 위주의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정부 지원에 정책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좀 더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과 정책대안에 따르는 비용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소 부족한 편임.
-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이로 인해 진화하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고민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정교하고 뚜렷한 이론적·실증적 설득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 기관 전반에 걸친 이론적 기초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주제의 연구 과제들이 발굴되어 연구원의 존립 근거에 부합하는 학문적 및 정책적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대내외적으로 급속한 산업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큼.
-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금융 관련 서비스업의 데이터 활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한 노력이 돋보이고, 또 여러 개의 보고서에서 지역균형발전과 ESG 경영이라는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국가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관된 문제의식을 견지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함. 특히 ESG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인 기업경영 ESG에서 지배구조(Governance)개념을 공급망의 ESG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지경학적(Geoeconomic) 위험을 별도로 개념화하여 공급망 위험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 및 산업계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관련 연구가 잘 진행되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시 동 산업의 공급망 관리는 더욱 중요한데, 산업별로 특화하여 공급망 단계별 ESG위험 요소를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또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적 및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감안 하면 관련 연구의 시의성이 높고, 플랫폼 경제 기업생태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인정됨.
-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연구 주제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주제 영역별로 기업들에 대한 실증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현황 및 어려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한 노력, 그리고 이런 노력이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이어진 점 등은 연구원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판단됨. 이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 동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균형감을 가지고 이뤄진 점을 잘 확인할 수 있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있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이 아쉽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음.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 점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서비스산업의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생태계의 구성요소별 현황 분석 및 그 활성화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 연장선에서 실증분석에 있어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활용 결정요인 분석의 경우 해당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제언과 연구 내용 사이에 다소 연계성이 부족해 보임.
- 그리고 탄소중립 연구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보고서의 분석 내용대로 지역별로 그 민감도와 수용력이 다르고 산업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전략적 역할 분담 방안이나 지역별 취약성 보완을 위한 원칙의 제시 노력이 다소 아쉬움.
- 또한 일부 연구의 경우 연구의 충분한 목적성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다소 방대하여 결과적으로 분석 결과가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일부 과제의 경우 분석의 축이 다양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연구목적에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시된 시사점들은 다소 디테일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협동연구보고서의 경우 미중갈등이라는 한국의 대외 환경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효과적으로 도출했음.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부문과 관련해 현재의 지정학적 그리고 수요와 공급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예상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어 시의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 향후 10년간 산업변화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격변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FGI 등을 통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국의 정책 및 현재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주요 전략산업을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로 설정하고, 국제정치, 기술, 시장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정책수요와 과학연의 정책 제언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음.
- 또한 각 산업부문별로 기술, 시장, 국제정치 관련 정책 제언과 함께, 첨단 전략사업 분야의 업무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구, 즉 거버넌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현황과 관련하여 주요 기업현황, 주요시장 점유율, 가치사슬별 국가 경쟁우위,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블록화 전개양상 등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분석 역시 충실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한국의 미래 산업구조의 관점에서 주요 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3개 분야를 선정해서 분석했는데, 해당 3개 분야를 선정한 객관적 근거와 논리가 다소 불명확함.
- 일부 연구 결과의 경우, 기존의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고, 정책수요를 다소 평면적으로 제시한 경향이 있음. 특히 이차전지의 원료 제련 및 가공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의 구체적이 다소 부족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시대가 요구하는 선제적·적시적 연구수행을 위해 탄소중립 연구그룹, 경제안보 연구그룹, 새정부의 정책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 연구TF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새정부 지방시대 의제 중 3대 분야 10대 국정과제가 채택됨.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신속한 재검토와 전담부서 배정 등의 체계적 추진 노력이 돋보임.
-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대전환포럼 핵심분과 운영(신비즈니스포럼 간사기관) 등을 통해 경영목표가 정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함.
- SWOT분석을 포함하여 5단계의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전략방향과 당면현안을 도출하고 대외적 환경과 내부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제시된 현안에 대응하는 전략체계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함. 2022년도에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계획 추진단을 구축하여 성과목표 실명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기능이 우수함.
- AHP를 활용하여 성과목표별 가중치를 산정한 노력이 체계적임. 경영목표 전체적으로 104%를 달성하고 있으며, 연차별 달성 비중을 설정하였으며 1년차 달성율은 31.2%로 무난한 수준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추진의 방법으로서 ‘성과목표 실명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의 제도적 기반으로 관련 규정과 지침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경영목표 중 평가제도 관련 성과는 미달성됨. 직무분석 의뢰 예정으로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와 협의의 중이라고는 하나 조속히 직무분석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별 실천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경영목표 TF 및 연구본부장 8인 등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음. 단계적으로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나 경영에 대한 요구를 초기단계부터 반영하여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가 도전적인 목표수준으로 설정되지 않고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구체화된 정량 지표로 제시하거나 비계량지표로 제시하더라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 있음. 현재는 비계량지표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실적)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의 채널을 책임, 열린, 참여, 상생, 공감 등의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소통의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함. 5개 부문에 걸쳐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체계적임.
- 기관의 중요 현안인 노사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에 기여함.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한 노력이 존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소통의 분야별 소통방법이 대체로 기존의 제도화된 채널로 파악됨에 따라 새로이 마련된 소통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함. 노사관계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의 소통 외에 열린 소통과 공감 소통의 실적이 다소 취약함.
-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노력 과정이 적절한 피드백을 거쳐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쉬움.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기관의 설립목적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위원회, 정책위원회, 토론회 참여 및 언론 인터뷰와 기고활동을 전개함.
- 산업연구 허브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국민 소통을 위한 뉴미디어의 활용이 부족했던 점은 미흡함.
- 산업연구원만이 가지는 고유한 기관의 정체성과 매우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고려할 때, 전문연구자 그룹, 산업계, 언론 등 좀 더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상대로 한 노력이 필요함.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우수한 점〉

- 지방시대 국정과제 홍보를 위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시대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신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노력을 수행함.
- 중점추진사업 선정을 위한 5개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중점추진사업으로서의 선정 사유가 실무기관 지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점, 특별연구팀 구성 등 추진체계를 마련한 점 등 중점추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점이 우수하며, 기관장의 노력이 사업 선정 및 수행체계에 잘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조를 반영하는 전략과 과제를 중점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신정부 출범 이전에 지역발전특위를 지원하고 법률개정 작업 등을 지원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함.
- 지역발전 특구 프로젝트는 시행령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컨설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이러한 정책지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역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공무원 및 지역연구자 등과 공동연구 또는 협동연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함.
- 성과지표에 대한 제시가 없어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2) 연구성과 글로벌 확산 및 국제교류, 협력 네트워크 확장

〈우수한 점〉

- 글로벌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기관 내 조직 위상 격상과 영문번역 및 영문웹진 관련 예산을 확보함.
- 기관의 국제적 협력방향을 연구성과의 글로벌 홍보에서 국제연구협력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함.
- 중점추진사업 선정을 위한 5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이 존재함.
-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정보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산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분석방법을 흡수하고 국제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미래산업 역량을 감안하여 유망한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함.
- 파트너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는 HP를 통해 추진하지만 TOP-DOWN방식(정부 및 연구회 주관) 및 BOTTOM-UP방식(대외협력실 주관하여 진행)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산업연구원의 연구 영역과 위상을 고려할 때, 다소 당연한 노력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선정 및 수행체계 단계에서 대체로 평이한 수준의 역량이 발휘된 것으로 보임.
- 사업방향의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조직의 개편은 부분적이며, 관련 예산의 확보도 제한적임.
- 대외협력부서 운영방향을 성과홍보에서 국제적 위상제고로 전환한다는 사업방향에도 불구하고 사업달성 성과는 연구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에 중심이 놓여있음.
- 경영목표2 전주기적 연구수행체계 구축 및 운영의 실천과제로 국내외 유관기관협력 및 연구성과 확산의 실효성 제고를 설정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연계성이 모호함.
- 제시된 글로벌 산업협력지원 노력 중 많은 부분이 미래(23년도~)에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실적은 미흡함.
- MOU체결 이후 실질적 성과가 있도록 관리 필요하며 현지어로 관련 자료 작성 및 공유 검토가 요망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전환 환경변화에 따라 경영환경분석에 따라 연구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외부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
-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성과와 경영성과를 구분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함.
- 노조 대표 및 노사협의회 구성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노사 간담회를 구성함으로써 기관 발전을 위한 노사 협력 체계를 정비함.
- 고충 성격에 따라 5개 유형의 고충 신고·접수 및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고충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운영 시스템이 체계적임.
- 노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 대화창구를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도 경영환경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전년도와 차별화된 맞춤형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이 부족하며 TF, 위원회, 연구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전년 대비 우수한 성과 및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 연구 및 경영 환경과 조직운영 실적 간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일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경영목표 실천계획 재검토의 구체적 실적이 제시되지 않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위해 운영한 3개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모호함.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운영 노력과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새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등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경영 관련 기관의 대응이 부족함.
- PDCA 기반 또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 체계의 경우,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연구과제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하며, 특히 연구성과 관리에서 중간점검(모니터링) 또는 중간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성과 관리 체계의 경우, 모니터링의 일정, 점검방식 및 지표, 점검주체, 환류 등의 제도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TF가 기관의 연구과제 및 경영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에서 구체적 역할이 모호함.

- 기관 차원에서 조직성과를 관리 및 제고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과제 및 경영사업의 목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시, 비정기적인 의사소통은 임기응변적인 소통으로 끝날 수 있으며, 따라서 노사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인 간담회 및 대화의 노력이 요구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환경분석을 통해 중장기 인력 운영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의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한 점이 인정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채용과 더불어 전미경제학회 경제학 신규박사 4명을 채용하여 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구성원 대상 수요자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고, 연구원 인재상을 정립하여 신규직원, 일반 정규직원, 시니어 직원별로 교육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인당 교육훈련비 집행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비연구직의 집행금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긍정적임.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계량적 연구성과 평가 비율이 70%이고, 비연구직의 정량적 업적평가 배점 기준 계량 항목은 30%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서 해외 우수인력확보를 위하여 전미경제학회(AEA)에 참석 해서 홍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내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조하여, 채용경로의 다양화가 요구됨.
- 교육훈련이 통계프로그램과 법정 의무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교육컨텐츠를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학술지 논문게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실적 평가 비율 70%를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외활동 관리 규정과 관리제도, 직원의 대외활동 규칙 및 대외활동 신고현황 점검 등 개선조치가 확인됨.
- 대외활동 관련 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함. 규정 강화를 통해 구성원의 대외활동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자체 복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적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미준수, 출퇴근 시간 기록 부적정, 유연근무제 서면 합의서 갱신 미실시 관련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자체 복무감사 시스템을 적절히 구축 및 활용함.
-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자체 복무 감사 등 대내외 감사 지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 및 선정하고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기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연근무제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휴가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함.
- 휴가 및 유연근무제 사용 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연가저축제 도입을 통해 연차 사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음.
- 유연근무제 시행이 조직의 연구생산성에 주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의 대외활동 횟수가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노력과 시스템 마련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건수가 100건에 육박하며 특히 연구직에 비해 비연구직의 사후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사후신고 방지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복무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기관의 노력에도 여전히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대외활동, 겸직금지 위반, 복무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의 심각성이 다소 높은 사안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 관리방안의 마련 및 활용이 필요함.
-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근무제 유형별 성과를 측정하여 유연근무제 개선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함. 유연근무제 연구생산성 분석 시행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관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연수연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학술대회발표, 세미나 개최, 학술지 게재 의무화 등의 성과확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기계발과 개인 전문지식의 연마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진기술의 습득과 함께 성과확산의 차원에서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이 양호한 편임.
-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 추진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난임치료 용어를 변경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육아휴직 분할 규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육아시간 제도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 혹시라도 사용에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시길 바람.
- 일·가정 양립 단계별, 생애 주기별로 제도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배부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일가정 양립이 단계별이 아니라, 휴가 종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직원이 이해 및 사용하기 복잡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제도이나,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포함되어 있음. 두 제도가 다른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고, 실적보고서에도 혼재되지 않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고용대상을 규정에 명시하고, 채용 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합당한 수준의 비정규직 고용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원 제도 및 규정 변경 절차 운영 시 집단적 의사 결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정규직 대상 상시적인 의견청취 채널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별, 직종별 차별없이 동등한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의견청취를 위한 전담인력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규정과 차별개선 내용의 실적을 관리하고, 의견청취를 통한 소통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관리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실 것을 권고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작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임금피크대상자의 직종별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포함 시니어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문단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직종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직은 연구사업 수행, 심사&자문위원, 멘토 등으로 활용하고, 전문직(행정직)은 시니어 전문직 역할 배정 등으로 활용함.
- 임금피크 절감재원 15명 129백만원을 확보하여 10명 별도정원 확보한 점이 인정되며 기존 8명에서 2명 증원하여 10명의 별도정원을 확보하고 채용한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들의 역량개발과 퇴직프로그램 등을 고민하여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채용 확대와 더불어 퇴직자의 퇴직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임.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화되어 있음. 특히 ‘22.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윤리경영 규정현행화하는 등 22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함.
-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 및 부정부패 교육,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등 교육을 체계화함.
- 직원의 대외활동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 연간 대외활동 횟수 및 금액한도를 규정하였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공정성 강화,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내부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클린신고센터가 다양한 신고유형에 맞춰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전형별 외부위원 위촉 및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외부위원 및 채용담당자 교육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징구,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기일내 대금 지급,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등 기본적인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 전 단계별로 외부전형위원 참여와 비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운영 중임.
-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긍정적임.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의 외부위원비율을 높이고 구성원을 다양화하였으며 상반기 2회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
- 연초에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인권영향평가계획을 조기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인권영향 평가결과 중 ‘해당사항없음’ 등 부정응답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적으로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권교육 등 일부교육의 이수율이 낮으므로 관리자의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명예퇴직운영세칙에 징계시효 중에 있는 자나 임원으로 임용된 자 등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행화가 필요함.
-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 금품수수금지 징계양정기준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포함한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 및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참석율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윤리제도 운영과 실적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활용한 실적이 없으므로,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혹은 외부통제수단(청렴시민감사관) 등을 활용하여 제도운동을 모니터링 해 나가기 바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진행 중이나 일반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채용비리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인사위원회 운영 시 징계 시에만 외부위원 과반수로 운영 중이나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적으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할 것을 권고함.
- 갑질근절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주기적으로 외부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갑질방지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높였으나 여전히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 및 인권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은 8인 계획에 20인 채용(연구인턴 15명과 행정인턴 5명 채용)하여 초과달성하였으며, 인건비·연구정보활동비 등의 예산 집행은 100% 집행되었음.
- 나아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를 환류한 점은 고무적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기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정하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우수 인턴에게는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여성인력 채용 성과가 50%이상(신규입사자 20명 중 여성인원은 10명)이며, 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설계 및 검토 실시하는 등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2명 여성인력 지원 학위취득과 11명 여성인력 연구책임자 역할 수행을 긍정적으로 판단함.
- 여성보직자 임명을 위한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마련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본부장(선임연구 위원급), 실장(연구위원급 이상)을 이원화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불어 다양한 고려사항을 통해서도 여성 인력의 비율을 관리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함.
-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직원은 94%, 부서장은 100% 교육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이수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기관장의 참여율이 높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 자체의 연도별 여성보직자 관리목표치 설정을 권고함.
-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해 제도설계 및 검토 실시 정도가 아니라 신규채용, 대체인력채용, 장애인 채용 등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서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실적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방지노력, 적합직무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채용 등의 노력이 요구됨. 2022년에는 관련이 채용 없었음.
- ‘관리직 목표제’에 따라서 본부장, 실장 15%를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본부장 1명(14.3%), 실장 1명(8%)로 계획에 목표달성이 미달된 수준임.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명확한 목표와 목표대비 실적 반영의 프로세스가 적시 및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권교육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외에 부서장 대상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성인지 교육 등 양성평등을 위한 역량강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필수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인권교육의 경우, 직원의 교육이수 참여비율은 64%, 부서장은 67% 정도로 저조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8월에서 12월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21년 2.06% → '22년 3.75%).
- 장애인 의무고용 및 5점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 채용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총 6회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인정됨.
- 장애인 적합직무 3개분야 개발(직무교육, 대외협력 등)을 통한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실시하여 청년 인턴 1명, 정규직 2명(중증1, 경증1), 청년인턴 중증 1명을 채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함.
- 국가유공자 관련 채용실적(1명)이 있으며, 국가유공자 전담 직무 개발과 함께 제한경쟁 채용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충남동부보훈지청 협조 공문 총 4회 발송, 국가보훈처취업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채용공고 동시 게재 협조 요청 등 기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1월~7월에는 기준 미달인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항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기업제품 구입실적은 보통의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나, 절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3.5%(총 8명)로 정부권장기준에 미달한 상황임.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 감사 지적사항 1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임.
- 국회 및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와 복무감사, 채용 감사 등에 대한 지적권고 사항에 대해 개선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점이 우수함.
- 감사전담부서의 업무분장세칙을 규정하고 있고, 감사실장의 직무상 권한 강화를 위해 감사규정 9조 개정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이 우수함.
- 자격을 가진 감사 전문인력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부서의 장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 비상임 감사의 활동을 위해 독립 사무실을 배치하는 등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비상임 감사의 전문성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주요 결재사안 및 공문에 대해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감사실장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상감사의 주안점을 고려해 분기별 반려 의견제시 331건(3.0%)의 지적을 수행하여 시정(환수) 조치에 2건을 적발한 것은 사후관리 관점에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함.
- 사후관리 관점에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검출 및 조치결과 보고에 있어 동일가맹점 분할사용분 1건을 발견하여 환수조치와 비상임감사에게 보고 완료한 점은 긍정적임.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및 재발방지 위한 직원 안내자료 배포와 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 지적사항 중에 예산정책처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반영’ 1건과 국무조정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중’ 1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실적 추진계획을 통해 조치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한 신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위탁연구용역 계약 업무 부적정 건에 대한 제도개선 완료 이후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복무감사 및 채용감사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점검을 건의함.
- 감사의 독립원칙에 제시된 조직, 인사, 예산, 제도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 실적과 성과를 제시하고 관리하길 기대함.

- 감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33회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감사인력 역량강화 교육 이수 이후 어떤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예정된 교육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등 현업 적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수준 높은 감사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전년도 지적사항인 1) 향후 감사교육 계획 수립 시 전 직원 대상 및 직급별 교육 대상 사전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2) 교육 이수 이후 사후 만족도 조사나 현업적응도 평가 등 효과성 분석에 기반하여 보다 내실화 있는 감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에 대한 개선도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가 필요함.
- 감사교육 이수 이후 ‘감사역량 강화’와 ‘공직기강 인식 제고’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입증 방안을 마련과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체 특정감사와 자체 정기감사에 있어 ‘점검 진행중’과 ‘감사 진행중’인 점은 전년도 말 또는 연초에 감사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성원들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완료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 또한 감사결과 통보와 재심의신청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자체 감사활동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기대함.

3

해외사무소(산업연구원 북경지원)

□ 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
1-1. 연구·사업 분야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지원	B
	1-1-2. 성과확산 및 협력	B

□ 평가의견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 지원

① 한중, 중국,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Big Issue)에의 대응(정보 제공, 현안분석, 대책 제시 등)

〈우수한 점〉

- 한중관계의 현안에 대응하여 적절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며, 중국산업경제 브리프에 2022년에 고려해야 할 대부분의 현안들이 다루어짐.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논의와 관련한 주요 중국 산업경제브리핑을 게재하여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자 및 기관들이 참고하고 있음.
- 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중국한국상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의 경기조사와 경영환경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달성함.
- 전략물자관리원의 요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1건에 참여하여 중국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인 연구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 관계의 모든 현안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구분하고, 단기 계획들의 축적이 장기 계획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연구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 연간 보고서 등은 정부의 수탁과제 1건에 불과하여 북경지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중국경제산업 브리프 등 단기 과제와 중국 산업의 집중 분석을 포함한 중장기 과제의 조화로운 설정이 필요함.
- 코로나 확산과 지원장의 부임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지속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국산업경제브리프의 발간이 연속적이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한중 FTA의 추가 협상 대응 전략 등 주요 현안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함.

② 데이터 수집·분석자료 정기 배포 노력 및 실적

〈우수한 점〉

- 본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슈 보고, 자료 수집 제공 등을 진행한 점이 우수함. 특히 중국 산업경제브리프 발간하고 본원의 중국산업DB포털을 통해 배포하고 있으며, ‘이슈 보고’를 통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이슈의 동향정보를 본원에 제공함.
- 본원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국의 현지 자료를 본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례적으로 통계 연감 및 산업동향자료를 직접 구매하여 본원에 송부함.
- 매월 일반사항을 보고하고 기타 현안 내용은 부정기적으로 보고를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산업실과의 협의 보고 자료를 제공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본원을 위한 현지 원문 자료의 단순 제공 외에도 심층적인 분석과 기초자료 가공을 통해 중장기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본원의 자료 제공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현지의 동향과 여건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방향 제안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부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및 배포는 중복될 가능성도 있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본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단순 구입과 전달에 충실하고 있으므로, 중국 측 자료의 해석에 유의하면서 기초통계 분석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③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정책 지원 노력 및 실적(세미나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의 지속성 및 중요도, 개최 및 참여 실적, 주요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등)

〈우수한 점〉

- 본원과 중국 지역 파트너의 회의 주선에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며, 회의의 주제가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가치사슬 등 한중간의 산업 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음.
- 2022년 연구교류 행사 3건을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중국산업 경제브리프에 게재함.
- 포스트 팬데믹 시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대응,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배경하의 한중 산업협력 전망 등을 분석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단순히 본원의 의뢰를 받아서 회의를 조직하는 역할을 넘어서 북경지원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해야 함.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된 한중산업포럼을 정상화시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중국산업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 발굴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정기적이면서도 더 자주 개최하여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킹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한국정부 및 본원에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1-1-2. 성과확산 및 협력

① 성과확산 및 홍보

〈우수한 점〉

-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활동을 홍보하고 있음.
- 세 차례의 한중산업포럼 개최를 통해 중국의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상하이 응용경제연구소,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함.
- 본원의 대외협력실과 협력하여 주요 연구결과물을 본원 홍보 플랫폼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물인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중국산업동향 등을 이메일 뉴스레터,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송하고 있음.
- 본원의 뉴스레터를 활용하여 중국산업경제브리프의 뉴스레터를 발송한 11건의 실적이 있음.
- 주중 한국대사관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협력 포럼’, 주선양총영사관이 주최한 ‘한중(동북3성) 경제협력 포럼’에 참가하여 주제 발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확보된 협력네트워크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회의 주제의 발굴이 필요함.
-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위챗 등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북경지원이 발간하는 것은 ‘중국산업경제브리프’ 1개 결과물에 불과하고 이것 또한 본원과의 협의 하에 성과 확산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주로 대외협력실과 협의하여 성과 확산 및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북경지원의 독립적인 성과 확산 노력과 홍보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연구원이 제공하고 있는 중국산업DB포털(china.kiet.re.kr)의 활용 빈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원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북경지원의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외부수요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내부 지원 체계도 개선하여 향후 북경지원의 자료가 널리 확산 및 공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유관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우수한 점〉

- 코로나 19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중국 연구자들의 pool을 구축하여 교류에 활용하고 있음. 특히 협력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중국의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외국 기관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 중국정부 및 유관기관과는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경제산업의 현안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효과적인 방식임.
-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북경지원의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와 연구 교류 및 한중산업포럼을 개최하여 성과를 냈음.
- 또한 상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와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서 한중산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 주재 한국의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주요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함.
- 북경지원이 발간하는 중국산업경제브리프에 북경주재 유관기관 전문가의 원고를 게재하여 교류를 확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북경지원의 제한된 여건을 고려한다면, 네트워크 pool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들을 동일하게 관리하기 보다는, 역량과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집중 관리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전문가 pool과 신규 발굴된 전문가 pool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정책 관련 국내 및 중국 내 다양한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네트워킹 성과도 적극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에 포함된 북경지원 중국 산업전문가 pool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관련 한중산업포럼 개최도 양적, 질적으로 다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의 산업경제 관련 기관과의 교류 소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교류 실적이 많지 않음.

③ 본원 연구·사업에의 지원 및 환류

〈우수한 점〉

- 중국 주재 미국상회, 유럽상회, 일본무역진흥공사 등과 교류를 추진한 것은 다른 기관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발상임. 이를 토대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실태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 조사하는 것은 매우 시의성이 있음.
- 본원의 중국 관련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북경지원과의 협의를 시행하였으며, 연구 수요에 따라 업종별 동향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동향을 작성하여 공유함.

- 중국 통계국의 월간 자료인 부가가치증가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종별, 소유제, 기업규모별 생산증가율을 작성하여 공유함.
- 북경지원이 발간하는 ‘중국산업경제브리프’에 주요 통계를 정례적으로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관련 연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연구수요 제공을 통해 연구 기획을 유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에 이루어진 중국 주재 외국 유관기관과의 교류 실적과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본원과 지원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경지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본원의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통계자료, 기초자료를 구매하고 송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북경지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발간하는 연구성과물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 및 환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5. 에너지경제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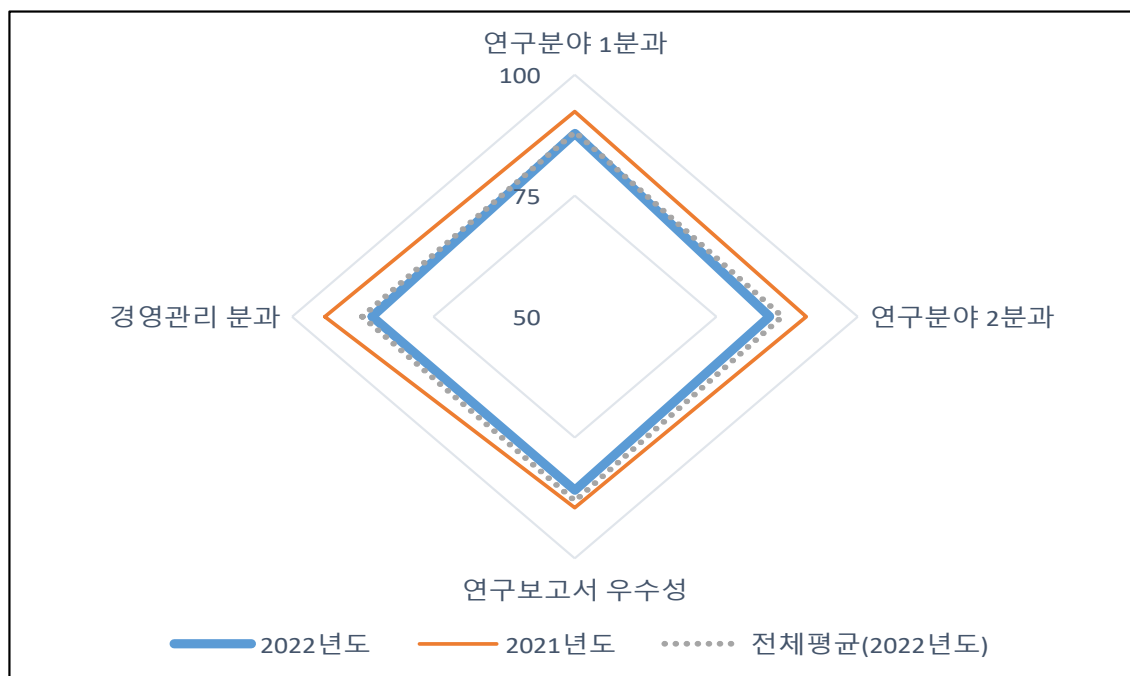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C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C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A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C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S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C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C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연구과제 수행에 이어 내외부 협업 체계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산업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긴급 및 정부 현안 과제에 대한 대응 실적이 우수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비연구과제에 비해 연구과제 수행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에너지 동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 방안과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법제화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연구결과의 독창성이 다소 부족하고, 정부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활용되었는지 불명확하고, 일반적인 정책 방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됨. 정책수요자와의 소통과 정책화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움.

[경영 분야]

- 기관이 직면한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연구부서 조직 개편, 인력 효율화 등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함.
- 대외활동 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로 전년대비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대폭 감소함.
-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 및 복리후생에 차별적 요인을 제거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행정매뉴얼을 개발·배포하는 등 제도적 안착을 위해 노력함.
- 청년인턴 대상 에너지경제 분야에 특화된 전문 직무교육 프로그램(에너지경제 서포터즈 등) 시행, 멘토링 프로그램등 청년인턴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여성인력 활용계획(2023~2025)을 수립하여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임.
- 일상감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이 우수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정책환경 변화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연구목표, 방향, 이슈(주제)를 도출해서 연구과제 선정 기준으로 삼았음. 산업부와 예경연이 글로벌 에너지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시대 에너지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환경분석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연구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연구사업 추진 방향 및 에너지 분야 정책현안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 5단계 전주기적 과정을 통해 연구사업 과제를 기획하고, 정책환경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연구 목표와 이슈를 설정함.
- 정책수요 확대를 위한 양방향식 조사체계를 수립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음.
- 정책환경 분석 등의 관점에서 주무부처, 연구자문위원회, 정책현안대응회의 등이 적절하게 구성 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부처 및 국회, 산학연 전문가, 일반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정책연구 실무협의회를 총 61회 개최하여 과제발굴을 하였음. 전년도 대비 12회 증가한 것으로 다양한 안건을 검토하였음.
- 탄소중립기술 및 정책 TF,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대응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이슈발굴과 해결노력을 하였음.
- 현안이슈를 성격에 따라 긴급, 핵심, 신규 현안 대응으로 나누어서 차별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TF 등의 역할과 성과가 우수하며,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이슈 등의 발굴을 적극 홍보하여 조사분석단계에서 참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연구과제 선정에 도움이 될 것임.
- 연구과제 발굴의 유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적 수단으로 보다 체계적인 빅데이터 분석등을 통한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 전문가나 담당자의 과제 참여를 기획단계부터 유도하여 과제연구과제 발굴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함.
- 대국민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참여자의 수가 적음.
- 현안 이슈를 대국민 대상으로 찾아서 연구한 사례가 부족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19.23%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연구과제선정 시 Proposal Seminar(원내평가)를 통해 제안과제를 선별하고, 정책수요자별로 우선순위 선호도를 조사하였음. 그리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제별 순위를 도출하고 정책수요자의 의견과 연구원 기능을 모두 고려해서 기본연구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일원화된 운영 및 관리를 하였음.
- 중점연구사업은 목적성, 지속성,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서 선정하였으며 기본연구사업 총 14개 과제 중 7개를 선정하였으며, 예산과 인력배분도 우선 배정하였음.
- 협동연구과제의 기획발굴, 평가선정 단계의 체계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연구활성화가 도모되고 있음.
- '23년도 기본연구사업 중 협동연구사업 비중이 92.8%로 전년 대비 17.8% 상승함.
- 정부부처가 제안한 과제 7개를 발굴하고 중점과제 선정 시 국정과제를 반영하도록 하였음.
- 정부 유관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비율을 확대하고 있고, 정부정책 제안과제에 대하여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51%의 예산을 배정하여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에너지 연구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직접 연구기획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주제이므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협동연구기관과 주제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주제도 필요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KEEI 연구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개선 작업을 추진함.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내부 구성원 및 부서 간 협력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가점 및 업무평가 점수 부여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전체 36개 과제 중 외부와의 공동연구 과제는 32건으로 89%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수행 및 평가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함.
- 각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일반 과제의 경우 4단계(수행·평가·환류·확산), 수시과제의 경우 3단계(수행·평가·환류 및 확산)로 운영함.
- 연구수행, 평가, 환류,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구수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내외부 협업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일반과제 36건 중 32건이 공동연구로 진행).
- 연구과제 제안자이자 정책수요자인 정부부처,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들의 연구수행 참여가 활발함.
- 수시연구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14.92%의 적정 예산이 배분되고 있음.
- 협동연구 플랫폼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전체 연구과제 대비 예산비율이 기본(88%), 수시(31%), 일반(76%), 수탁(49%), 기타(30%)로 협동연구는 전체에서 53% 진행하였음.
- 협동연구 수행 시 과제별로 매우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어 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내외부의 협력과 협업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연구역량의 분산과 공동연구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확으로 인해 연구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존함.
- 협력·협업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의 차원에서 가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점비율 상향 조정 및 편법 획득 방지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기본·일반연구사업 협동연구 수행에서 산업계에 여론조사 기관을 포함한 것은 기관의 특성으로 볼 때 적절한 산업계 유관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기관인 바, 실질적인 산업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시보고서의 경우 3-4개월 연구기간에 보고서 발간도 3-4개월이면 성과확산공유 과정이 너무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바 수시보고서 발간 과정을 가능한 단축해서 수시연구보고서의 시의성을 충족할 필요 있음.
- 수행체계에서 각위원회별 외부전문가의 세대별 계층별 다양성이 필요함.
- 협동연구 관련 기관의 주도성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까닭에 각각의 협동연구에서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기관의 주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부분의 협동연구에는 다수의 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협동연구의 경우에는 단일 기관과의 공동연구 성격이 강해 협동연구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연구과제별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가능한 협동연구 본연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과제별로 협동연구 참여 기관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비율이 50% 초반대로 권고기준은 충족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바, 협동연구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협업 수행체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창의적 제안에 추가적인 인센티브제도의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당 계획에 의거하여 자체점검시스템을 운영함.
-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구윤리교육이 연간 10회로 상대적으로 많음
-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발생 시 자체점검절차가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음.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자체점검 절차 또한 연구보고서의 생산 과정과 단계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5년 연속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없는 클린 연구기관 달성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정규 연구직 중 1회이상 이수율이 88%에 달하고 있음.
- 연구윤리교육 참여율을 전년 79%에서 88%로 8%p 제고함.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윤리 점검을 위한 감수위원회 감수 진행 보고서 비율을 43%에서 48.5%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윤리 준수 미비한 보고서에 대한 추가 감수 진행하는 등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함.

- KIRD 알파캠퍼스와 연구윤리정보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보고서 감수위원회의 명칭이 연구윤리 자체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연구윤리 부분만 특화해서 조사하는 기능만 별도로 분리, 연구윤리 검증단과 같은 별도의 연구윤리 특화조직으로 기능을 통합해서 연구윤리 관리체계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문제를 다루는 상설 전담조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연구윤리 전담조직을 별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조정실에서 전담하고 있다면 기획조정실의 업무분담 등을 고려해 연구윤리 위원회에 기능과 권한의 일부를 분산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가 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어 윤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 제기되는 바, 외부위원을 최소 30% 이상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 단순하게 사례집을 공유하고 연구윤리 책자를 배포하는 형식적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구윤리 문화 정착 활동은 일반적으로 일상화된 수준의 활동인 바, 기관 자체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 공유 기회 확산 등 내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함.
- 전년도 평가에서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단순히 연구윤리 규정 개정과 ESG경영 추진계획 수립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 별도의 연구윤리 정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전략적 기획을 통해,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Plan-Do-Check-See 구조의 연구성과 홍보·확산 전략기획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음.
- 홈페이지, 유튜브, 교육사업, 메타버스 등 연구성과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모든 확산수단에서 수치로 나타난 실적이 증가함.
-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외부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기관 홍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둠.
- 280,659 연구성과물 이슈페이퍼의 배포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와의 자문 등 협력 152건, 국회 협력 13건, 산,학,연 협력 20건으로 총 185건의 성과를 도출하는 등 정책수요자와의 대내,외 소통, 협업정도가 우수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세계 수준의 연구 전문성·수월성 확보의 큰 전략하에,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선도할 연구를 기획하고, 또한 글로벌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영향력 있는 국외기관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양질의 국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2022년도에 총 11건의 연구협약을 체결.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위해 노력함.
- 국제행사 국제세미나 등의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실적이 총 77건에 이르는 등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각종 공모실적을 제고하길 제안함.
- 국외관련기관과 연구협력을 유지하면서 연구인력 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국 인력의 우리나라 방문을 확대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함.
- 국제회의의 참여 실적은 단순참여로 실제적인 참여로 보기 어려움.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실적이 매우 우수함.
- 총 39건의 보고서를 NKIS에 등록 완료함.
- 비공개 등록연구과제 3건의 비공개 사유(시의성, 민감성)가 타당함.
- 기타 성과물 NKIS에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이벤트, 원문공개 및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였음.
- 연구원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연구회 NKIS 등 유관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원문공개를 충실히 이행하였음.
- 에너지조사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원문(엑셀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확대·제공하였음.
- 기재부·KOTRA(해외경제정보Dream), 통계청(국가통계포털), 한국거래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민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 확대 추진 노력이 우수함.

- NKIS에 연구보고서 총 39건을 등록 완료하여 등록율 100%를 달성하였고, 연구성과물 4,139건에 대한 원문을 공개하여 전년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DBPIA 등 민간기관 대상 공개도 확대하여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비율은 0.56편으로, 에너지는 글로벌 이슈이므로 해외 학술지 논문게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정부이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 국정과제 수행 지원 관련 연구과제의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등의 개정에 기여하는 입법화 실적을 다수 생산함으로써 전년도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함.
- 2022년 총 6개의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적극 참여·지원, 대표적인 지원 실적 및 성과 18건으로 정부부처에서 수행한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 2022년 연구기관이 수행한 과제 및 사업, 연구 및 사업수행자, 예산 등의 현황에서도 총 9개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 151개의 연구과제 및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이 중 27개의 긴급과제와 57개의 중요과제가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하였으며, 151개의 연구과제에 538명의 인력(중복)과 17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임.
- 특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령 등의 개정에 기여하는 한편, 풍력 발전에 대한 기존 제도 변경으로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 등에 기여하였으며, 유류세 인하 정책 반영으로 생활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민생지원에서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 및 에너지 계획 수립에 기여함.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정도(국정 과제, 3. 21과의 연계성)를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그 주제의 시의성과 적절성이 우수함.
- 파급 효과, 성과에서도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부합하면서 석탄발전 감축을 전력수급 및 계통 운용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함.
-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인 원가주의 반영으로 에너지 물가 충격 완화 및 에너지공기업 적자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단위의 관리 체계 구성 및 안정적인 공급 전략 수립에 기여함.
- 특히 성과에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22.7.29)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이행 실적에 비해 정부 부처 현안과제 수행 건수가 다소 저조한 상황이며, 특정 국회의원 발의한 세미나에 참여한 것만으로 입법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적절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 국정과제 대표 수행 사례 관련한 파급효과 및 성과가 구체적인 입법화, 정책화 실적과 연계되지 못함.
- TF 구성과 운영의 성과를 국책연구기관의 대표성과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국제 동향 분석, 시장 영향 분석, 대응전략 제시를 위한 TF의 운영성과가 7회의 보도/이슈페이퍼 배포, 8회의 발표 및 간담회 활동에 지나지 않고, TF제언이 의원 발의안, 유관 부처 정책방향과 연결된 구체적인 인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국정과제 긴급업무 수행 및 실적을 연구기획팀에 제출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업무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확대나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적인 유인책 적용을 실시함.
-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도 관리를 위해 ‘연구기획-수행 및 평가-연구성과 확산 및 환류’의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우선 연구기획에서는 정책입안자 및 정책수요자의 수요 반영, 원내·외 전문가를 통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연구 수행 및 평가에서는 연구사업 발표회에 정책입안자·정책수요자의 참여 유도 및 평가의견 작성 요청, 그리고 출판심의위원회와 보고서 질적 평가 시 정책기여도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구성하고 있으며, 연구성과 확산 및 환류에서는 연구성과 발표회, 보도자료, 영상, 언론 활동 등을 통한 성과 확산 연구진의 정책화 과정을 관리하고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환류 단계에서는 연구진의 정책화 과정 추적·지원 노력을 함.
- 연구진의 연구결과 정책화 노력을 추적·기록·관리(원내외 활동, 대외활동, 출장 기록 등 활용) 운영하고 연구진의 정책화 과정을 추적해서 지원하는 연구성과 확산 및 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함.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책 기여 노력 보상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위원회 외에도 정부·국회 등 대상 정책기여를 위한 자료 제공, 발표, 위원 활동에 점수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함.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전주기적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처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보고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정과제 정책반영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전년도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연구과제의 정책 기여도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별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외부 전문가 질적 전문성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자(국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과제 선정이 정책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출판심의 단계에서 정책기여도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결과가 실제 연구 및 정책기여도 제고에 어떻게 환류되는지 보다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 및 고도화 노력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국가긴급(4개) 및 정부 현안과제(4개)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개의 수탁(긴급), 2개의 수시, 18개의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비연구과제의 적극적인 수행(117회)을 통해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함.
-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비연구활동 성과가 관계부처 합동 정책 대응방안에 포함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한정적이거나 관련 법령(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에 일조함.
- 긴급연구 및 현안 과제 수행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동향 분석과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탄소중립 등에 집중되어 있어 그 적정성이 인정될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홍보확산에도 기여함.
- 정부정책 현안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탄소중립기술정책 현안 TF, 글로벌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TF를 두어 5개 주요 현안과 6개 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
- 전년도 지적사항(수시연구사업비 비율 11%)을 개선하고, 정책연구의 시의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5%를 수시연구사업에 배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상 권고기준을 준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5%,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제안 과제 비율이 65.2%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고, 비율이 적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 및 현안 연구 성과가 주로 회의나 언론보도 등 비연구과제 활동에 편중되고 있어 입법화, 정책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과제 수행 성과와 비연구과제 수행 성과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른 에너지전환 시기에 국가 에너지안보 영향 분석, 국제적인 에너지 동향 파악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화에 필요한 현황 분석 결과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LNG 직수입, LPG 유통의 대형화, 에너지효율 등 국내 에너지 산업과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화하고자 함.
- 사례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 국제탄소감축사업과 탄소국경조정 대응 등 국내외 탄소저감 추진과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의 시의 적절한 대안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정부 위원회, 전문가 회의, 정책자문회의, 정책실무협의회의 등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정책수요자와의 요구를 파악하여 소통과 정책 자문, 협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률안 발의,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한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지원 활동에 참여하였고,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이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정부정책자료, 운영지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우수함.
- 다양한 정부부처와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선 각 부처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화 지원과 타연구원의 협력 등을 수행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다수의 보고서(12개 중 8개)가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 제시가 미흡하고 제시한 정책 대안은 기존에 제시되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독창성이 부족함. 새로운 시각이 부재하여 평이하게 기존 대안을 재차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며, 연구내용이 총론적인 성격으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정책대안의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 다양한 시나리오나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설정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각 정책대안 간의 비교나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또한, 실효성이 다소 떨어져 실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음.
- 대다수의 보고서(12개 중 7개)의 연구결과가 정부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활용되었는지 다소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입법화 성과보다는 일반적인 정책방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성과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구체성도 미흡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전반적으로 2022년 정책수요자와의 소통과 정책화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내용과 과정,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움.
- 국민적 관심의 큰 연구주제의 경우 언론 보도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안에 관한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정책 홍보 활동 노력이 필요하나, 다소 부족함. 학술대회 발표와 관련 학회, 협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충분한 의견 수렴 또한 미흡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연구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논리성과 가독성 측면에서 훌륭하며, 내용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주제의 설정에 시의성이 있으며, 보고서가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대부분의 보고서는 대안 제시 관련하여, 다양한 옵션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정책당국의 현실적 선택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있음.
- 탄소세 관련 연구의 경우,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해서 새로운 국제규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했고, 이 과정에서 철강 산업 부분에서의 경제적 영향과 에너지원의 가격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음.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탈석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공정 전환(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국가별 비교 연구와 국내의 정책 분석 및 이해관계자 수요분석을 통해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매우 높음. 연구주제가 우수하고 시의적절함.
-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비교한다든지, 공공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주요 선도국의 사례 분석이라든지, 설문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최근 에너지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한 환경 속에서 에너지 효율 평가의 중요성이 부상했고, 연구원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적극 수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관련하여 기존의 에너지원 단위 추이로는 정책 결정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다년 과제의 경우 포괄적 연구를 통해 ‘e-mobility’와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또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제가 된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였음. 연구 방법의 차원에서도 정책 옵션 중요도 평가를 PEST-SWOT-AHP분석으로 수행한 것도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보고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분석의 범위를 주택 부문뿐만 아니라 발전, 수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까지 넓힐 것, 또한 전력화가 온실가스배출에 대해 갖는 직간접적 영향까지를 포함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 일부 연구의 경우 정책 대안의 장단점 비교가 서술적으로만 이뤄져 있어서, 어느 방안이 더 우수한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음.

- 탄소국경조정 연구의 경우, 미국과 같은 타국의 탄소국경조정 대응 방향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더불어 국내의 상계 탄소국경조정제 부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함.
- 에너지 문제의 경우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움. 보고서에서 일부 확인하듯이, 글로벌 에너지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에너지는 개인의 일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양면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장선에서 다년 사업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보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사회적 편익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따라서 시나리오 분석결과와 설문조사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보고서가 4개년에 걸친 연구임을 고려할 때 일부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4년간의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임. 그 결과 다소 중복적인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체계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시계열 분석 결과가 CGE 분석 결과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연관성을 높인다면, 전체 연구의 완료성과 독창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협동연구보고서의 경우, 선행연구 및 연구자문그룹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 조건부 가치평가법, 지리적 가중회귀분석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무엇이고, 지역별로는 그 중요도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치적으로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보고서의 논리적 흐름이 우수함.
- 특히, 실제로 수용성이 정량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구분해 낸 것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평가되며,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요소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고서 내용이 일관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에 일관성 없이 산재해 있던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풍부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보고서의 내용 일부분에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정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특성들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계량분석의 결과가 상식적인 측면이 있고, 정책대안 제시와의 연결성에 있어서 논리적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됨.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연구비 대비 대부분 일반적인 서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임.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함.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의 타당성·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직운영 방안의 실행 이후 환류 과정을 통해 실제 조직운영 효율성이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함.
- 연구 및 경영 차원에서 기관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성과평가·환류 등 지속적으로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함.
- 부여된 연구 특성에 따라 연구부서별로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함.
-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해 MBO 기반의 KPI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함.
- 성과제고 노력 외에 실제 조직성과 향상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함.
- 노사협의회 및 노사간담회 개최, 수시 대화 창구 운영을 통해 노사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였으며, 총 9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직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
- 여성가족부 컨설팅 등 사전 고충 해소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노력함.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외부위원 및 전문화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기관의 고충처리 역량을 강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출연금 기반 기관의 고유연구사업의 경우, 과제의 목표 구체성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고충의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나,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 역량 강화 및 유지에도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기관의 사전 예방 노력과는 상관없이 고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고충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역량 역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모델을 통해 32년까지 추계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22년 세부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도출함.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지원자 맞춤형 전형, 채용시기 다양화, 채용전형 전문성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함.
- 공개채용과 블라인드 체계하에서 기관의 인재상에 맞춰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시스템은 연구기관 유일의 국내외 취학연수 제도로 기존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
- 1인당 교육훈련비 집행금액이 상승한 점은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됨.
- 연구직 및 비연구직 평가지표 계량화 정도 및 연구성과 반영 수준(27%, 62.8%)이 적절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참여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실제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사후 평가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범위 및 시간, 복무 관리, 겸직활동 등 대외활동 관리의 주요내용과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을 토대로 운영됨.
- 대외활동을 ERP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기별 실태분석 및 특별점검을 시행함.
- 대외활동 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10일 초과 사후 신고가 전년도 6.5%에서 2.5%로 감소함.
- 대외활동 신고 시 결재권자 승인 전에 감사실장의 확인을 받고, 지연 신고자에 대하여 규정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교육을 시행함.
- 대외활동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

- 근무 관련 대내외 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 신고비율 감소, 연가 소진을 증가, 유연근무제 활용 다양화 등 개선노력과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자체 대외활동 특별 점검을 통해 해당자 경고 및 주의 처분 조치가 완료됨
- 조직원의 역량강화 및 재충전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한 ERP 기능고도화 사업추진 및 시행, 재량근로제 추가 도입 검토 등을 실시함.
- 유연근무와 관련된 제도가 적절히 수립되어 있고, 전 직원 대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사용 실적이 확인됨.
- 휴가·유연근무제·안식년제 등의 규정화를 통해 운영의 적정성과 활용도를 제고함.
- 연가저축제 도입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비연구직 대비 연구직에서 높은 비율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외 활동 신고 관리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수시 및 정기적 감사활동으로 적절한 근무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집중시기와 일하는 방식 정립 등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맞춰 근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직원들의 숙지를 위한 노력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식년 선발 이후 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규정화할 것을 건의함. 연수 종료 후 학술논문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관리사항 및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해 규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안식년제 운영의 취지에 맞게 성과 확산을 위해 연수 종료 시 기관 내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연수 기간 동안 습득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구성원 간 공유기회 제공 및 활성화가 필요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제도의 개선 노력과 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노력을 보임.
- 가족친화인증,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 기타 제도의 수립 및 관리 및 운영 실적이 양호함.
- 일·가정 양립 Lifecycle 에 맞는 안내서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유사산 휴가, 육아시간 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무직 승진체계(안)을 마련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통해 중장기 연구원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TF 완료)
- 비정규직 전환을 '19년 모두 완료한 성과가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활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사전심사를 한 바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에 차이가 없으며, 2022년 지적사항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노력 및 실적을 구체적 통계치로 제시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안정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연도말에는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으로 피드백할 것을 건의함.
- 추진(안)에 머무르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공무직 채용 및 승진체계를 명확하게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매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노력과 실적을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시하고 소통채널을 통한 피드백을 향후 계획과 연계시켜 피드백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전년도와 동일하게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을 통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주요업무를 부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행정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함.
- 2022년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신규 4명 채용 완료하였으며 향후 10년간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들의 역량개발과 퇴직프로그램 등을 고민하고 공로연수 이외의 다양한 퇴직프로그램 마련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연착륙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명예연구위원제 등 임금피크제 대상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연구기관에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마련을 권고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센터, 옴브즈만 제도 등의 내부견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 인권 침해 신고사이트도 잘 정비되어 있음.
-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윤리경영 규정을 강화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연구윤리교육의 이수율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9%p 상승하는 성과를 얻음.
- 갑질피해 및 반부패 청렴 설문조사를 각각 매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부패행위자 처벌 징계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반부패와 청렴유지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 참여 100% 달성함.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공정성 강화,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 클린신고센터 등 기본적인 내부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실태조사를 주기적 실시 등 원내외 갑질근절 및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내외부 인권침해 요인 점검 및 계약 부조리 예방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담당자 교육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감사부서 입찰참가제도 등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원장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력을 확보하였고, 외부위원 비율이 내부위원보다 초과되도록 구성하였고,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등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인 점은 매우 우수함.
- 인권영향평가는 갑질근절지표 추가하고, 평가결과 97.7점으로 우수하게 운영되었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및 원내 인트라넷에 공개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행동강령에 금품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징계처리규칙 상의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행동강령 표준안의 징계수준의 양형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함.
-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처리 사례발생시에는 사례의 원인을 살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례발생에 따른 특별 직원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 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사례 발생시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시행, 옴부즈만을 활용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재발방지 특별조치를 취하고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함.

- 명예퇴직금 지급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에 있는 자나 임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개정이 필요함.
-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진행 중이나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채용비리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인사위원회가 구성 중이기는 하나 징계시에만 외부위원 과반수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친인척채용결과를 분기별, 직종별로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 실행·공개 및 구체절차 제공 등으로 인권경영을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절차에 대한 실적제시가 미흡하며, 평가를 통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바람직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정작 연 1회 개최에 그쳤고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하반기에 수립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요한 인권경영 의사결정마다 개최하고 최소한 상반기 내에 인권경영계획 및 인권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인권영향평가 중 사업지표가 없어 기관경영지표뿐만 아니라 사업지표 개발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결과 173개지표 중 ‘해당없음’지표가 41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노동금지’와 같은 ‘해당없음’지표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갈 것을 권고함.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7명(5명 계획)을 채용하였고(140% 채용), 청년인턴 배정 예산 대비 집행률은 141.5%를 집행한 점은 고무적임(부족액은 예산변경으로 활용).
- 청년인턴 대상 에너지경제 분야에 특화된 전문 직무교육 프로그램(에너지경제 서포터즈 등) 시행, 멘토링 프로그램등 청년인턴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양성평등 규정이 완비되어 있고, 2022년 여성인력 27명 중 14명을 채용하여 여성채용 비율이 51.9% 달성한 점은 우수함.
- 여성인력 활용계획(2023~2025)을 수립하여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여성경력 단절 지원제도가 운영되어 있고, 22년 1명의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 실적이 인정됨.
- 교육훈련 프로그램, 자율연구, 취학연수, 학술활동 지원, 포상, 공로연수 등을 통하여 여성인력 연구(직무)능력 강화에 활용 중인 점은 긍정적임.
- 여성관리자의 충족 비율이 21년 19%에서 22년 19.6%로 향상됨. 즉, 여성보직자 실적이 전년대비 0.6% 증가 및 노력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됨.
- 여성인력의 의사결정구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 위원회 구성, 보직자 임명 등 인사상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제도 및 행정적 노력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예를 들어,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인력의 구성을 확대함)
-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인력 관리직 목표제’ 도입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보직자 양성 평등 기준을 충족함.
- 고용노동부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는 “적정” 등급을 받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부서장 참여율은 100%로 긍정적이며, 교육이수과정에 기관장 및 구성원들의 참여가 높음.
-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명의 채용실적이 있으나, 경력단절 여성 채용실적은 아직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부합동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기획재정부 기관별 여성고용 확대계획,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을 참고하여, 기관 자체의 여성관리자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함.
- 여성보직자의 기준을 ‘과제책임자 이상’으로 두고 있어, 실제 보직과 괴리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양성평등을 위한 전 직원 교육실적이 미흡하고(4대폭력 예방교육 : 이수비율 전체 89.8%), 온라인 화상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심화·운영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가 필요함. 즉,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 시행을 하였으나 성인지 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외에 기관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필수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차례 공고를 통해 신규채용 5명, 기존 재계약 1명으로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함.
- 장애인 특별채용 및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 채용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뇌병변과 지체장애인을 위해 적합직무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장애인기업제품 구입실적은 전년대비 비하여 대폭 증가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관계자 간담회’, ‘기타공공기관 합동 컨설팅’에 참여하여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전략 및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 중임.
- 국가유공자 채용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형단계별로 5%와 10% 가점 부여를 명시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수립되어 있음.
- 2023년도 인력수급계획 내 무기계약직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계획을 반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월평균 전체로 장애인 우선고용기준에 미달함.
- 장애인 구인 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제정,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 명기, 전 직원 장애인 대상 교육 등의 정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장애인 우대조치의 적정성에서도 장애인 제한경쟁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 4.2%로 우선고용비율(6.0%)에 미달함.
- 다양한 노력에도 22년 실제 고용한 실적은 없으며,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달성 전략이 요구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국정감사 및 정부위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실적이 확인된 점은 긍정적임.
-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외부기관 감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감사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자체감사사 자격 취득, 감사교육원 청렴교육 내부 강사 양성 과정 수료,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과정 및 감사실 신규직원과정 등을 이수한 점이 우수함.
- 협동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동서발전 감사자문위원회 참여 등 노력이 우수함.
- 일상감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예방시스템과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체감사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기관 내외부 설문조사에 의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음.
- 법인카드 집행 적정성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부적정 사용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는 등, 자체 감사역량이 우수함.
- 법인카드 특별점검, 대외활동 특별점검, 일상감사 등 실시여부에 따른 감사결과와 개선 실적이 확인되는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이미 활용 중인 저널 공동구매 채널 외에 예산 절감 방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업무경험이 높은 감사인력을 배치하였으나, 관련 감사부서의 방향에 맞는 감사교육역량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비상임감사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 및 월 2회 감사업무 수행 등의 실적은 확인되나, 비상임 감사의 검토의견이나 조치사항 제언 등을 통한 구체적인 효과를 관리해 볼 것을 건의함.
- 윤리경영과 감사교육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새로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교육 수요 조사에 따라 대면 교육이나 온·오프 혼합 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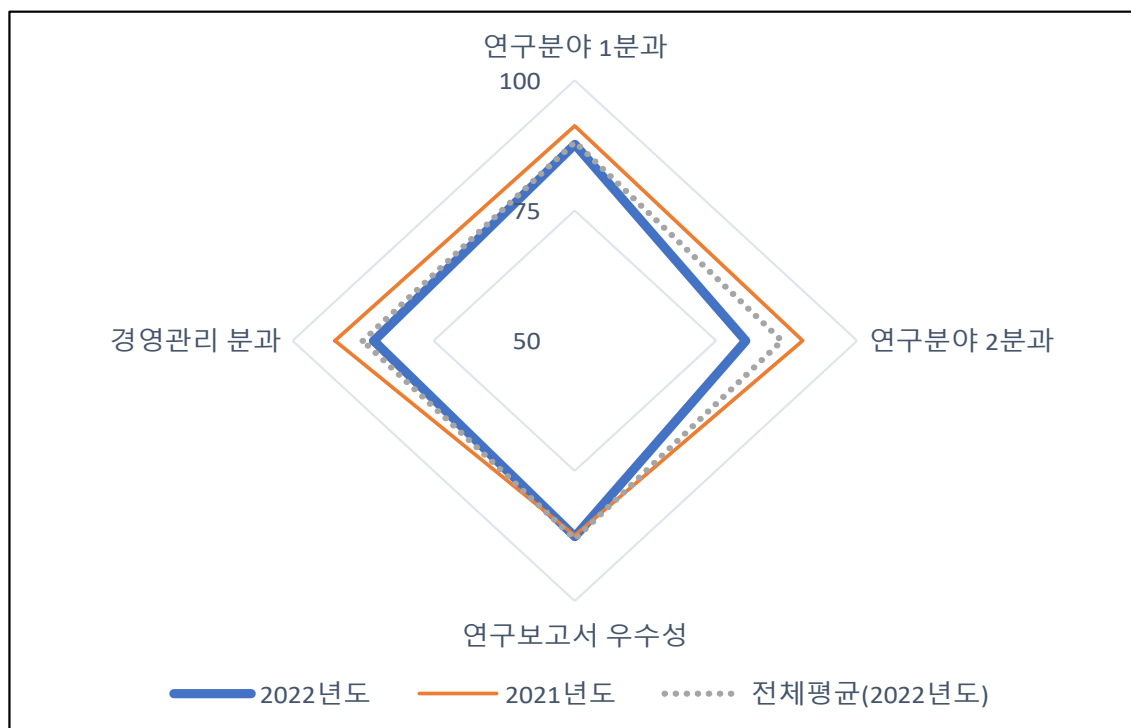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C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C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C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C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C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내부 연구진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의 노력이 돋보이며 연구수행단계별 특화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윤리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위한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ICT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재난 관련 대응역량 또한 우수함.
-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구체적인 정책화 실적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의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와 민생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다양한 정책수요자 집단과 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노력을 통해 연구 결과가 법률과 제도에 반영되는 시기를 앞당겨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파급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경영 분야]

-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년도에 비해 연구주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나, 산업 및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중요한 ICT 현안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기관장이 조직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나 환류효과는 다소 미흡함.
- 기관장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ICT분야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과 공동 연구 활성화가 돋보임.
-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실천과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
- 연차휴가 100% 소진과 연구연가에 대해 기관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짐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화된 소통창구 마련 노력을 권고함.
- 청년인턴 사업에 연구회 예산을 100% 사용함은 물론 배정예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청년인턴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여성 직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감사교육을 한 것은 긍정적임. 이에 더하여 교육 참여와 이수 후 효과성등을 관리할 체계 마련을 건의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국내외 ICT 분야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의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음.
- 국가 및 사회적 현안 과제 발굴을 위해 국정과제 TF를 구성해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정책연구기획TF, 정책자문회의 각종 포럼과 자율학습조직,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안 과제 조사에 매진하였음.
- 연구 기획단계부터 정책수요자(정부, 국회, 산학연, 국민)의 의견을 다양한 형태(TF,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KISDI정책플랫폼, 정보통신정책포럼, 정책자문회의, 대국민설문조사 등)를 통해서 수렴하여 정책현안 발굴하고 이를 연구사업화로 추진하였음.
- 현안 과제 조사 및 확정을 위한 유관 정부부처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외부연구위원의 구성비가 적정하여 연구과제 선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음.
- 국민에 대한 정책자문 및 적극적인 수요조사가 미비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연구과제 발굴 관련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신설하여 총 159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유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함께 내실 있는 정책연구 실무협의회는 33회 개최하여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과제발굴 등 연구기획 성과를 도출함.
- 국정과제를 선제 지원하여 사회현안 이슈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국내외 ICT분야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함.
- 정책수요 및 현안 과제 발굴을 위하여 정부부처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조사가 행해졌으며, 이를 통해 60개의 현안 과제를 도출함.
- 연구주제 및 과제를 국가 중장기계획, 국가 및 사회적 현안, 국가 긴급현안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음.

- 긴급현안(판교 데이터 센터화재,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은 단기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팔로우업 하기 위해서는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함.
- 정보통신은 해외기술, 시장의 영향도 있으므로 해외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대국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음.
-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긴급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대응속도가 빠르지 않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은 기본연구사업비의 24.3%로 30%를 초과하지 않음.
- 연구과제 발굴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해서 기본연구과제 10건, 일반연구사업 7건을 발굴하였음. 그리고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연구 10건, 일반연구 7건, 정부수탁 43건을 발굴하였음.
- 기관특성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대응 및 신정부 정책지원 핵심분야 중점추진을 위한 중점연구사업을 4건 선정하였음.
- 국정과제 및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현안 과제 이슈를 검토하고 협동 및 융복합 연구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을 구축하여 과제를 발굴하였음. 총 18개의 협동연구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에 11개는 기본·일반 과제 중에서 협동 및 융복합 과제로 시행되고, 7개는 정부수탁과제로 중장기 협동 및 융복합 연구과제임.
- 기본연구과제 중 협동연구 비중을 22년 36%에서 23년 60%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보완하였음.
- 현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관련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top-down과 bottom-up방식으로 현안과제를 조사하여 반영하고 연구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 새정부 출범 후 120대 국정과제 중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기획하였고, '23년도 연구사업의 국정과제 반영비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

- 9개 부처의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23년도 기본연구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기본 연구사업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 발굴 시 외부 참여자 대상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구성 시 학계, 관계 이외에 일반인, 산업체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함.
- 협력기관들이 대학교, 연구기관, 학회 등이며 여기에 데이터, AI 등의 전문가 혹은 업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이질적인 협력기관과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간 1개씩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표준연구수행관리체계(SMART System)로 브랜드화된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가 작용함.
- 내부 연구진의 연구분야별, 학문영역 간 공동 및 협업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율적 학습조직을 운영함.
- 기본·일반·수시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착수회의,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각 단계별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최소 3인 이상 참여를 의무화함.
- 다양한 형태의 연구자문회의(연구계획심의회의, 연구협력회의, 전문가 초청세미나, 워크숍 등) 실적이 많은 편임.
- 연구경력 2년 미만 과제 대상 review committee를 운영함.
- 외부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전문가풀을 활용함
- 연구 수행과정에서 내부 협업을 통해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자율학습 조직이 확대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전문가 참여가 주로 공무원과 교수집단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를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연구수행의 핵심과정도 최대한 개방 필요(산업계·시민단체 참여가 주로 자문 중심으로 연구수행의 핵심 과정과는 유리되어 있음)
- 예산 미배정 수시과제를 24건 수행했는데 이는 연구진과 기관에 큰 행·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은 바 최소화할 필요 있음. 수시과제의 과제 성격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 분석에서부터 간담회 지원까지 천차만별이고 보고서 발간 건수는 2건 밖에 없어 수시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유형적인 성과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 자체 검증TF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실무추진을 위한 연구윤리 점검반과 이행확인을 위한 연구윤리 검증반으로 이원화해 연구윤리 자체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5년 연속 클린 연구기관에 선정됨.
-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윤리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연구수행단계별로 특화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함.
- P-D-C-A 단계별 자체점검시스템 환류 체계를 구축함.
- 자체점검시스템을 통해 59건의 의심사례(단순 부주의 사례)에 대하여 54건을 반영함으로 높은 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22년 연구회 연구윤리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결과를 얻음.
- 부실학회 참여 방지 제도의 일환으로 출장 절차 강화하고 관련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함.
-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3회에 걸쳐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연구윤리 담당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윤리경진대회, 연구윤리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 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저자표기 공통기준'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외부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노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점검반의 외부 전문가가 1명으로 동일인이 다시 연구윤리 검증반에도 참여하면 점검반과 검증반의 구분 운용 효과가 의문스러운 바, 연구윤리 점검반과 검증반의 외부위원 기능과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실질적인 연구윤리 점검이 이루어지는 점검반과 검증반 구성에 외부위원을 추가 충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체계 내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실질적인 활동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서 상의 연구윤리체계도 상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서술할 필요가 있고 연구윤리 위원회가 심의·평가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부실 학술지 게재 관련 점검활동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부실학술지 판단 기준 및 점검활동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언론매체 협력 강화,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집중적 고객관리를 통한 연구 성과 및 정부 ICT정책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의 사회적 지지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및 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었음.
- 홍보확산을 위해 홍보팀, 기조부, 관련 연구부서 중심으로 홍보 확산 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음.
- 유튜브,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등 언론대상 홍보, 세미나, 컨퍼런스, 토론회, 워크숍, 심포지엄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 홈페이지 정비 및 접속률이 59% 상승하여 우수함.
- 11,785 연구성과물 및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컨퍼런스, 협력실적과 성과과 우수함.
- 디지털 플랫폼 전략,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여 실적이 우수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 및 전략수립이 우수함.
- ‘국제 ICT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 확대’, ‘ICT 분야 글로벌 어젠다 주도’의 2단계 목표 설정이 적절하며, 주요 성과가 우수함.
- 국외기관과의 MOU 체결 및 운용, 연구인력 교류 활용, 국제공동(협력)연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개최 및 참여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협력 대상이 정부부처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입법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와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임.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발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하여, 공공 데이터 관리(NKIS 포함) 및 개방 노력 정도가 우수함.
- 기본연구, 수시연구, 일반연구 등 총 19건의 연구과제를 NKIS에 등록하여 100% 등록률을 달성함.
- 기타 87건의 정기간행물을 NKIS에 등록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보고서 및 자체 3개 정보시스템 (KISDI STAT, IT STAT, MEDIA STAT) 데이터를 국민 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통합 창구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여 일반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하였음. 매년 진행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및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공공데이터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음.
- 행안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적극 동참하여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및 국가 데이터맵 구축에 기여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외 학술지에는 1인당 평균 0.19편으로 적은 편이므로 개선이 요구됨.
- 국제학술지 ‘Sustainability’에 논문을 발간함. ‘Sustainability’ 학술지는 약탈적 학술지 관련한 주의를 요함.
- NKIS에의 등록대상과제가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에 등록(최종 원문파일 등록일 기준)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국정과제 지원 관련 포괄적인 주제를 미래예측과 대응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
- 정책 설계-의견 수렴-정책 수립의 과정 등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 관리하면서 전체 연구 예산 중 96%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배분하여 전년대비 대폭 상승시키면서 노력함.
- 특히 정부 핵심 정책기조에 따라, ‘77. 민 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8. 및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 디지털 혁신의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집중 지원함.
-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구축하여 5개 연구본부 산하 10개의 센터를 관련 국정분야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정부부처에서 수행한 국정과제 61건에 대한 참여 및 지원 실적이 양호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에도 기여한 바가 큼.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과 같은 핵심적 가치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국정과제 총 101건에 대하여 통 606명의 인력, 약 2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관 규모에 비추어 적절하게 노력을 경주함.
-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10대 어젠다와 추진 전략 제시 등이 주제와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함.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대표사례로 제시한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정부교체기 신정부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잘 포착하여 과제화하고 충실히 수행함.
- 추진 실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경제 사회적 도전 과제 및 어젠다 도출, 디지털 전환 진단 및 혁신전략 추진 방향 연구가 성공적임.
- 대표사례의 경우 16명의 연구인력, 1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적절하며, 연구추진계획과 추진과정의 적정성이 우수함.
- 주요 성과로 디지털 대전환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과 시대적 변화요인을 파악 하고 혁신 생태계, 기술 인재, 노동 환경, 도시 공간, 복지 정부 디지털, 민주주의, 글로벌 공동번영 거버넌스 분야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10대 어젠다와 추진전략 제시를 통해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를 지원한 성과가 있으나 연구과제를 통한 입법적 지원 실적 및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TRM)를 수립을 통하여 연구수행 단계별 정책기여도 제고 노력을 하고, 정부부처가 필요로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함.
- 정책 기여도 성과 점검 환류 장치(정책 기여 성과 점검 TF 운영), 우수 정책 기여 포상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책화 기여도를 반영한 업적평가 및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책기여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긴급 현안 대응을 통한 현안 연구를 적시에 수행함.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정책수요자로서 국민(이용자) 대상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 운영과정에서 정책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정책기여 성과 점검 TF,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등).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관리체계에서 외부참여자(세대별, 분야별, 시민단체, 국민 등)의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구체적 참여방식과 과정 제시가 필요하며 향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화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에 대한 포상제도 및 업적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책화에 대한 연구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위한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ICT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사고에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즉각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제도 정비 및 종합 개선안 발표에 기여함.
- 총 101건의 연구수행 성과 중 국가긴급 및 정부현안 관련 8개의 긴급 수시연구과제, 13개의 기본/수탁과제를 수행하여 국가 디지털 전략 수립 등 정책지원과 시장 및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입법 지원 성과를 거둠

- 국가 긴급 및 정부부처 현안에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13건의 비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정부 방송법 개정안 제언 등 입법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음.
- 긴급연구 수행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슈페이퍼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부처간 정책대응을 공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확산 노력을 경주함.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제안을 받아 수행된 수시과제 “개도국 금융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효과성 분석 연구”는 개도국 금융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의 효과성을 엄밀한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를 통해 분석하여 ICT ODA 정책수립 및 디지털 금융 ODA 모델 개발에 시사점 도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시긴급 및 긴급수탁과제가 연구 필요성 내지 시급성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카카오서비스 관련 쟁점 수시긴급 1개월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방안(국정과제 관련 긴급수탁 3개월 과제) 등을 통해 긴급/정부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4.2%,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100%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수시연구사업비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연구사업비가 전년도 3.3억 원보다 감소한 2.88억 원에 불과하고, 수시연구사업비 비율이 전년도 10%에서 14.2%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본연구사업비의 감소로 인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정부부처 현안과제 비율 권고 기준(30% 이상)에 부합하지만,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과다하여 기타 정책과제의 수행 성과가 위축될 여지가 없는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청함(수시과제가 모두 정부부처현안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연구의제 발굴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에 유의하여 적절한 비율 유지가 필요할 것임).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 등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지속하였고 토론회, 설문조사, 협의체, 연구반,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통해 민생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와 정책 효과의 파급력이 높은 정책들을 제안하였고, 대부분의 정책대안들이 관련부처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경제적·행정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는 성과가 있었음.
-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기존 입법을 활용하여 해결할 분야를 구분하였고, 보편적인 산업 진흥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슈 확산 노력을 지속하였음.
- 온라인 플랫폼의 진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 생태계에 맞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의 혁신방안을 실효적으로 제안하였고, 신산업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해당 논의 확산에 기여하였음.
-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재원부담 및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적 효과와 사회적·국민적 효과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모두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과제의 경우 정책 수립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관련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집단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용자와 사업자 등 정책 수요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화된 실적이 과제 수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정책 대안의 환류과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 실행 계획을 단계적,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통신방송서비스 환경 하에서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융합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규제기관 간 협력 및 중복 규제 방지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며, 일부 과제의 경우 연구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인 법령과 정책의 형태로 제안하여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진행된 과제의 경우 현안이 정책 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정책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기초·정책 연구보고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디지털 전환기 일자리 변화 분석 연구에서,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결합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직업별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 시도는 시의 적절했고, 결과적으로 정책적 활용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코로나 19 위기가 연구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코로나 위기가 야기한 노동의 변화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노동시장에서 코로나 19의 영향파악 과정은 학문적 및 정책적 시의성이 모두 높았음. 미디어 분야 연구도 인상적이었는데,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제기될 수 있는 다양성 이슈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함.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기반 관련한 연구, 5G 시대의 주파수 관리가용 주파수 개발 관련 연구, 기술패권 경쟁시대 연구 등의 주제들 역시 연구 의도와 연구 결과 사이의 의미 있는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의 수월성이 있었음.
- 특히 기술패권 경쟁시대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 및 여러 정책 분야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 내용은 물론 연구 방법론의 다양성과 합리성이 돋보였고,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주요 경쟁국의 첨단 디지털 의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 요소임.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국(미국, 중국, 유럽 등)의 기술 전략 및 주요 ICT 국제기구의 디지털 동향을 파악한 연구결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됨.
- 더불어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한국 ICT외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은 적절했고, 마지막으로 주요 4개 국/지역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의 최근 변화, 그리고 4대 국제기구의 현황과 정책 수립 프로세스, 의제를 비교적 충실히 서술한 점 역시 우수했음. 이 과정에서 기술패권의 특성적 변화와 기술 도메인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의 단어를 토대로 내용 분석을 시도한 것도 흥미로운 시사점이 있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있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이 아쉽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음.

- 연구보고서 중 노동시장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과정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 측면이 있었는데, 문헌검토 등은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반면 본 연구의 주된 공헌부분인 실증분석에서는 변수와 모형의 설명 등이 충분치 않은 아쉬움이 있었음. 고용에 대한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보고서에서 제시한 물리적 인접도와 같은 직업 수준 특성과 동일 보고서 내용 중 제시한 개인 수준 특성이 결합된 통합 추정모형을 분석하지 않은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연구 과정에서, 직업선택의 선행요소라 할 수 있는 갖가지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종속변수보다는 독립 변수로 두고 물리적 인접도의 결정요소를 추정하는 모형이 더 타당할 것임.
- 미디어 관련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오고 있는데, 기존 정책적 접근을 통한 효과 여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보강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이 외에도 일부 연구에서 글로벌 동향 파악에 대한 부분이 다소 소홀히 처리된 부분이 있었고, 정성 및 정량 분석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
- 기술패권 경쟁시대 연구의 경우 많은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연구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연구의 범위를 좀 더 좁히는 방안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음. 관련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즉 정책적 활용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관되어,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이 한국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디지털 정책과 의제 동향임에 반해, 보고서는 이 목적 외의 다소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된 반면, 목적과 주제에 해당하는 분석은 그 밀도와 집중력이 다소 미비한 점이 아쉬움.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하에서 기업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하려는 연구는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함.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뉴노멀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으로 판단됨.
-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에서 연구 기획 및 연구 방법은 우수하게 설계되었으며, 협동연구를 진행한 기관의 선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히, 산업연구원과 합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영향요인을 식별한 점을 높이 평가함.
- 데이터기반 미래예측 연구의 경우, 연구기획과 데이터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등 이론적인 배경이 탄탄한 연구라 판단됨. 각 부분에 대한 연구에서 ICT-GDP를 예측하는데 비정형데이터인 ICT 뉴스 심리지수를 이용하는 방법론은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추후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연구라 판단함. 아울러 교통 빅데이터와 소비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장기 도시경쟁력을 예측하는 시도는 참신해보이며 계량 모형을 좀 더 개선한다면 추후 도시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코로나19 라는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였으나, 제조시스템의 혁신역량 강화, 규제혁신을 통한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선순환 구조 구축,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 구축 등의 정책제안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정책제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의견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기존에 충분히 많으며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들이 기존 정책들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 기술되면 좋을 듯함. 또한 ICT 뉴스 심리지수 도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우수하지만 새롭게 제시하는 것인 만큼 도출된 결과와 과정 상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정보통신분야의 중요한 고려하여 국내외 환경분석, 기관위상분석 및 직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SWOT분석을 활용하여 기관 당면현황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3대 경영목표, 9대 추진전략, 21개 세부실천과제로 연계하여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경영목표 전분야에서 성과목표 100%를 달성함. 기관장 임기 3년차에는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수립 지원을 통해 핵심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함.
- 디지털 플랫폼 전략협의회 및 정책포럼 운영 등 국가 디지털 전략에 기여한 바가 인정됨. 방송 및 통신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수립 지원성과가 확인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년도에 비해 연구주제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산업 및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중요한 ICT 현안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국정현안 지원을 위한 산업 및 신기술 동향분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분석자료 1건 생산,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포용정책 지원의 수단으로서 리포트 발간 1건, 연구보고서 1건 발간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국정현안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실천과제의 시급도나 중요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가 기관 전체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가능 수단이 미흡 또는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경영목표-실천계획-연계수단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목표달성도 평가 시, 실천과제의 성과측정 지표와 무관한 실적(주요 정책 플랫폼=포럼, 협의회)이나 단순 산출지표가 다수 제시되는 바, 실천계획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와 실천계획 간 연계성이 낮은 경우가 있음. 연차별 추진단계에 따라 성과목표가 제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천계획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예: *건 이상)가 많고 성과지표의 적절성도 낮은 편임. 정량지표로 설정할 경우, 이전의 실적 추이를 분석하여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성지표로 설정하는 경우도 성과중심의 실적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 ICT 정책연구기능 강화와 국내외 ICT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목표 간 일부 내용 중첩이 존재함. 또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대상이 충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바, 새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전국적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지표 관리가 요구됨.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내부구성원을 상대로 공식채널과 비공식 채널 및 전체 대상 및 부분별 대상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마련함. 소통 전담 TF의 설치의 의미 있음.
- 전 직원 개별면담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소통노력이 돋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의사소통의 환류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기관의 가치 정립 내용과 소통활동과의 직접적 연계체계 및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 의사소통의 쌍방 차원 작동, 즉, 소통 활성화의 결과로 기관장의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혹은 구성원의 입장에서 연구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더 향상되었는지 제시할 것을 기대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ICT분야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과 공동연구 활성화가 돋보임. 특히 국제적 협약 체결 및 다학제적 연구교류가 양호함.
- NRC 벤처르네상스의 주도적 개최 및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개최에 적극 참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4차 산업혁명, AI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의 정체성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했다고 판단됨.
- 연구회 및 기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었고, 민간 영역을 상대로 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음.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지원 강화

〈우수한 점〉

-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협력체계구축, 국민참여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관련 연구를 적절히 수행한 점은 우수하며, 인공지능기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성과 공유와 확산 노력을 기관장이 수행함.
-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이용자 정책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이용자 보호정책 개발 영역별로 추진사업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참여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함
-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 공동규제 모델 구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제도화방안을 제시하고,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패널데이터 구축 연구 및 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해 사업예산 9.2억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4개의 성과지표를 근거로 성과를 모니터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 주제의 특성상 입법화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경우 후속 지원, 검증 등 다소 추상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점은 개선의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 지식공유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중점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데, 예를 들어 제시된 성과지표들은 연구과제의 결과물의 성과로 기관장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 다시 말하면 기관장의 역량이 어떻게 활용된 결과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의제 선도

〈우수한 점〉

- 본 중점사업의 성격상 글로벌 ICT 정책협력 강화라는 경영목표와의 부합성이 인정되며, ICT ODA 사업 시행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이슈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양호함.
- 협업, 모델 개발, 정보 공유 등과 같이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도출되었으며, 사업 성격상 난이도를 고려할 때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인정됨.
- 디지털 공적개발원조, 디지털 디바이드 등 국제적 수준에서의 디지털 의제 선정 및 사업 중요성이 인정됨.
- 대상 국가별 사업유형을 전략적 맞춤형으로 모색하여, 가나는 다자개발은행 참여모델을, 라오스는 기관 간 연계협업모델을, 우간다는 성과관리 후속조치 모델을 통해 개발 컨설팅의 효과성을 높임.
-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 내용은 국가 간 및 국가 내 디지털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성격이 돋보임.
- 국정과제 99번 (국력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주도적 노력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의 구조화된 역할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당해 기관의 구체적인 수행 역할 제시가 요구됨.
- 제시된 내용 중 일부는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의 네트워킹 및 협업 교류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일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구조화된 협업 노력이 요망됨.
-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성과와 실적이 무엇인지 모호하며, 디지털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관장의 구체적 노력 제시도 미흡함.
- ODA를 비롯한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 inbound 요청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outbound 어젠다와 대상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SWOT 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와 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함.
- 기관장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중점으로 매년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적시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함.
-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신설, 기존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을 ‘경쟁정책연구실’과 ‘서비스 이용 정책연구실’로 분리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부서를 분리·신설하여, 정보통신 정책 수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함.
- PDCA 기반의 조직 성과관리 체계가 구체적이며 체계성이 우수함.
- 직원의견수렴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행전략 수립, 연구분야와 경영분야를 구분한 실행전략 추진 등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실천과제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
- 성과관리 및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함.
- 시스템을 통해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감사실을 통해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실천과제의 달성률이 100%이나, 기대 성과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며, 보다 도전적인 실천과제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노사 협의 등을 위한 노사 간 의사소통은 활발한 편이나, 노사 간 상호 신뢰 및 화합 증진을 위한 소통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우대와 특별보상제도를 통해 우수인력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면접응시자 교통비지원, 국내이주비 지원, 신규직원용 사택지원, 신입직원 멘토링제도 운영 등이 긍정적임.

-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가 증가한 것이 적정하며,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로 인정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 성과 정량적 평가 비율이 70-80% 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 기준 계량항목은 20%로 관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채용방식의 다양화 요구로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국내 및 해외의 연구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채널로 적극 채용 노력이 요구됨.
-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정규직 중심으로 실질적인 채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연구직과 비연구직간의 교육 및 역량 구성 체계도를 설계하고, 학습자 관점에서 프로그램 제안 및 평가환류체계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직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어 대외적인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반영 방식, 반영 정도 등 구체적인 반영 내용이 적시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기별 대외활동 실태를 분석하는 등 대외활동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함.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비율이 낮은 편이며, 연구직에서 대외활동 관련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음.
- 대외활동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적절하게 관리함. 대외활동 규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연차휴가 관련 규정 및 사용촉진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였으며, 연차휴가를 100% 소진함.
- 유연근무제 확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함.
- 원격지에 분포한 유관기관과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활용을 권장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함.
- 연구연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연구연가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연구연가 실적 평가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함.
- 연구연가 선발에 있어 근무년수, 업무실적,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건수가 연구직에 비해 비연구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연구직에서 높게 나타나는 원인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통해 복무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에 따른 자체점검에 의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완료하는 등 대내외 근무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복무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 하여 복무 관리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기별/분기별 자체감사 등 근무 관리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로시간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분석하여 연구 집중시기와 일하는 방식 정립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함.
- 유연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구성원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업무성과도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연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학술지 게재 의무화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한 일련의 규정이 마련되어, 사후 관리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유산·사산 휴가 보장 등 규정 확대 운영 노력이 우수함.
- 가족친화인증, 공동어린이집 운영, 육아시간 단축근무 운영 등 기타 일·가정 양립 제도의 관리 및 운영실적이 양호함.
- 임신, 출산, 육아, 성장기 등 Lifecycle에 맞춰 그룹웨어에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을 공무원 복무규정 20조 12항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보건 휴가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규정을 공무원 임용령 31조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채용을 무기계약직(2명)이나 정규직(1명)으로 신규채용함으로써 결원발생 시, 비정규직 채용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함.
- 비정규직 임금은 업무의 양 및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고, 자기계발, 복리후생, 휴가 등 정규직과 동일 지원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의 상시지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고용개선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실 것을 권고 드림.

-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화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중 능률성과급을 포함하여 명확한 추계를 통해 내부적으로 관련 사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소통채널 마련 등 폭넓은 다양한 방법 모색을 권고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다년간의 연구업무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임금피크 대상자가 기관 연구생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직무 유지로 설계하여 운영 중이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신입직원 멘토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 직무전환을 하지 않고 현행유지로 설계하고 있어 기관의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퇴직 후 생활설계 및 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 간 퇴직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노동조합 모니터링을 활용한 인사위원회 참관과 안전 및 결과공유로 윤리경영을 위한 채널을 다각화하였음.
-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센터, 옴브즈만 제도 등의 내부견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 다양한 신고유형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음.
-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포털시스템에 등록하였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공정성 강화,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내부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불공정 거래(갑질 등) 근절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 국책연구기관 채용, 인사, 노무 실무과정 참여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블라인드 채용의 전반적 내용을 교육받음.
- 친인척 채용현황이 분기별로 공지되고 있으며,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대면 전자계약을 활용하고 담당자 교육강화 등 기본적인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경영선언문 공표 및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함.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원에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어 인권경영위원회의 외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인사위원회, 채용전형의 전 단계에 외부위원 참여를 명시화하여 규정개정을 할 필요 있음.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교육의 이수율이 관리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임. 전 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및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 이수자의 직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윤리경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신고유형별 신고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있으나, 외부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요령에 특별채용 요건을 최근의 정부 채용가이드라인 등 채용 동향을 살펴 규정을 현행화할 것을 권고함.
- 행동강령상 금품수수금지위반징계양정이 현재 정부지침과는 달리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 및 정비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친인척 채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보다 접근성 있게 할 것을 권고함.
- 반부패 교육에 있어 전 직원 대상 참석율이 77%와 관리자 대상은 82.1%으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윤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점검과 제도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한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 다양한 윤리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실적을 제시하기 바람.
- 인사위원회 노조 참관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인사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인사위원회 운영 시 징계사항 심의 시에만 외부위원 과반수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불공정 방지를 위해 갑질근절 가이드라인과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외부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없으므로, 갑질근절방지를 위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정기적인 내부점검과 외부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갑질방지 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영역의 고려하여 구제절차를 차별화해야 하고 유형별 구제절차를 내외부에 홍보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계획 수립,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인권영향 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권경영 실행·공개 및 구제절차 제공 등으로 인권경영을 노력하고 있으나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인권경영이행지침 상으로는 외부위원 과반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위원구성도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함.
- 또한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최는 1회에 불과하고 지침과는 달리 인권경영계획 수립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인권경영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인권경영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영향평가계획 또한 상반기에 수립하여 충분한 과정을 거쳐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를 바람.
- 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율이 400%(5인 계획에 20인 채용)로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됨.
- 청년인턴 사업에 연구회 예산을 100% 사용함을 물론 이 예산 이외에 연구개발적립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청년인턴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각종 교육지원, 채용 시 우대조치(3% 가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여성인재 채용 비율 12.9% 증가, 여성인재 고용 비율 3.3%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2.3% 증가한 바, 기관의 지속적인 여성인력 확대노력은 인정됨.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여성인력 채용 및 활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가 확인됨.
- 2017년 ~ 2022년 공공기관 여성고용 확대 목표(기획재정부) 대비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함.
- 여성 직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여, 동 부문에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여성관리자 비율 2.3% 증가하였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아 대외적으로 기관의 노력을 인정받음.
- 여성고용 및 관리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중임.
- 전반적으로 보직자 임명에 있어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이수과정에 기관장이 참여하였고, 부서장 참여는 96.4%로 양호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여성인력 양성 외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 활용계획 내 신규채용, 승진, 위원회 구성, 보직자 임명 등 인사상 단계별 여성인력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이행률에 대한 점검 및 환류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양성평등 교육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하여,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직원의 교육 참여가 76.1%로 낮은 편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특별채용 및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 채용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실적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한 기관의 노력이 확인됨.
- 2022년도 총 2명(환경미화원 1명, 인턴연구원 1명)의 장애인 채용은 긍정적임.
-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충북남부보훈지청과 협의를 실시한 점이 인정됨.
- 직원 채용공고시 국가유공자 우대조항을 명문화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점 부여(전형별 만점의 5%, 10%)하고,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 고용율이 2.8%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함. 장애인 채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참여율이 64.5%로 저조하고, 인식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 제시가 필요함.
-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특별채용 및 제한경쟁 채용 확대, 유관기관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협업, 전문기관 컨설팅, 유자격 장애인 지원자 확보를 위한 홍보의 다각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구인 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제정,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 등이 아직도 다소 미흡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4.5%로 우선고용률 6%를 충족하지 못함.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함.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등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달성을 위한 신규채용 실적이 없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였으며, 민간수탁 비중을 축소한 점은 긍정적임.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표준지침에 의거하여 대외활동 기준 정비 및 제재기준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임.
- 2명의 전담인력을 보유한 감사실을 운영하고, 감사실장은 청렴연수원 내부강사 자격 취득과 감사담당은 공공기관 자체감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이 우수함.
- ‘애정감(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감사인)’ 이야기 송부를 통한 전 직원 온라인 교육 총 51회 실시하여 현안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회차별로 청렴-예산-복무-갑질 유형을 구분하여 이행을 점검한 점은 우수함.
- 연구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 이전에 감사실장이 사전 검토하는 점은 긍정적임.
- 감사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감사인력의 역량을 개선하고 있음.
- KISDI Q&A 사례집을 전 직원과 공유하여 조직내부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자체감사로서 정기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수탁연구과제 최종평가, 동호회 활동지원 지침, 복무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짐.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감사 지적 사항 중 투트랙제도 관련하여 석사급 연구원의 박사학위 취득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운영 중이나, 박사학위 취득 시 박사급 연구직으로 신규임용하고 있어 지적 취지와 다소 배치됨.
- 전년도 지적사항인 “감사인 우대조항을 내부감사 규정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인 우대 관련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에 따라 제도개선을 건의함.
- 사전예방과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을 분석하여 감사역량으로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 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 실시와 청렴유지 교육 실시에 있어 대면 참석률은 77%, 온라인 참석률도 75.9%로 저조하여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교육 참여 이후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건의함.

- 반부패 교육, 청렴유지 교육 등 연간 감사관련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교육 이수 이후 현업적응도나 만족도 조사를 제시하여 교육효과성을 관리하기를 기대함.
- 자체감사활동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자체감사에 활용할 것과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시도를 할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7. 통일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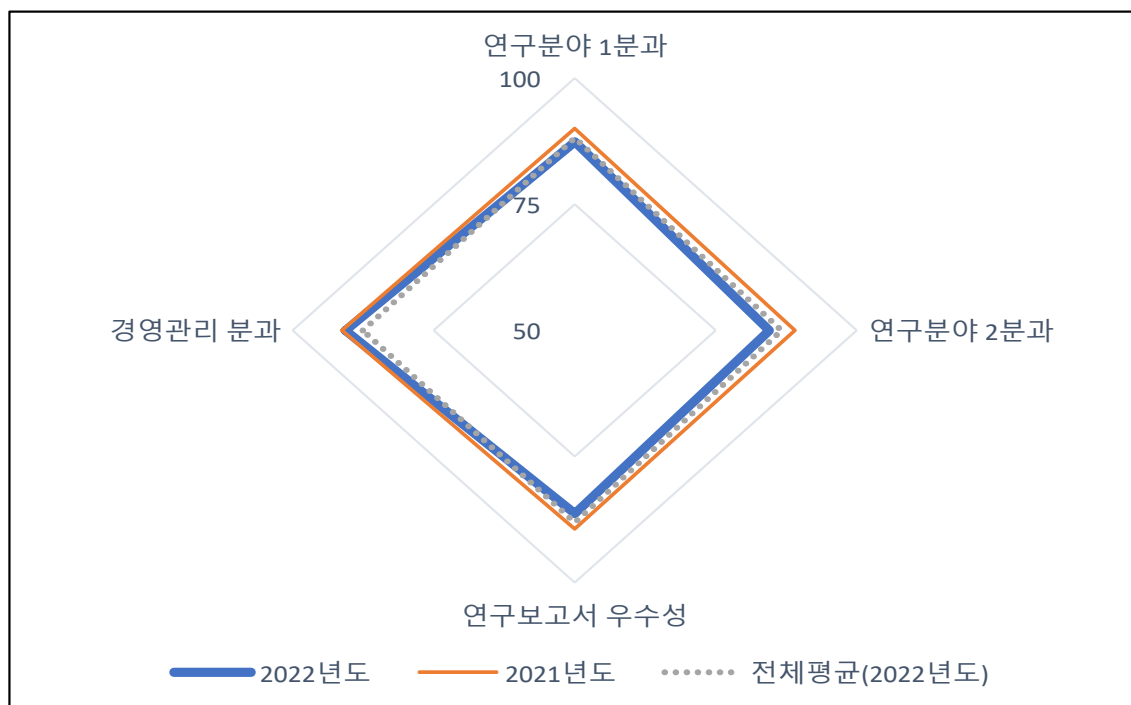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B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B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A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A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S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수행체계 개선TF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연구수행체계 개선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연구윤리 자체점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정책기여도 관리와 관련하여 역량있는 외부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새 정부 출범 후 원장을 중심으로 정책현안대응단을 구성하여 긴급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정책건의를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나,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비연구과제 수행성과가 입법 및 정책화로 연결된 실적이 저조하고 수시연구과제의 수행성과가 저조하다는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 주제와 창의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활발한 협력 및 소통이 이뤄졌음.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대통령실의 안보 정책이나 통일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경영 분야]

- 새정부 출범에 따라 2개의 TF를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 등 현안과제를 분석하고 ‘담대한 구상’ 대북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함. 기관내·외부 위협요인을 고려하여 ST전략 및 WT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함.
-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능률협회 조직진단 컨설팅을 수행했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함.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제언, 공공외교활동 등을 통해 어려운 남북관계 현실에서 불구하고, 적극극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함.
- 빅데이터 분석 등 대국민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기관의 조직운영 실적과 성과는 미흡함.
- 비정규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임금 및 성과포상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대외활동과 관련된 징계양형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청년인턴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업무평가회, 멘토링 사례발표회)을 운영하여 취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의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 상담과 전문성 교류의 장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총 6건의 공고를 내면서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위해 노력한 점은 고무적임.
- 전반적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재직자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적극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비상임감사의 적극 활용과 직원 대상 감사교육의 활성화를 건의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연구사업의 기획 절차를 연구환경 조사 및 분석과 수요조사단계, 연구방향 설정단계, 발굴·기획 단계, 선정·심의단계로 체계화되어 있고,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기획을 강화하였음.
- 통일연구원은 고유 연구영역에 부합하기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 및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현안을 파악하였음.
-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일, 북한 관련 관심사를 분석함.
- 대내외 정책, 연구환경 분석 및 정책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정·산·학·연 및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장 체감형 연구기획을 강화하였음.
- 환경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하였고, 기획과제 선정결과의 적절성이 인정됨.
- 정·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일연구원은 많은 노력을 하였음. off-line 수요조사와 함께 수요자 그룹별로 on-line 수요조사도 함께 운영하였음.
- 내부의 정책연구기획단과 외부 연구자문위원회로 구성된 정책연구기획 TF 운영으로 국정과제-사회이슈-연구과제 간의 정합성 강화 및 수요맞춤형 정책연구 기획을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함.
- 정책연구기획단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에 부합하는 정책현안을 도출하였음. 빅데이터 분석, 한반도 동향 및 대내외 정세분석,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유관 정부부처 연구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로 중장기 및 단기로 나누어서 이슈를 도출하여 대응하는 노력을 하였음.
- 한반도 비핵화, 북한 코로나 등 중장기 및 단기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성과가 우수하고, 새정부 통일 및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북한 연구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대국민 대상으로 위원회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음.
- 북한과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소한 주제라도 놓치지 않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27.3%로 적정함.
- 연구과제 발굴을 발굴-선정-심의의 3단계를 다시 7단계로 세부화해서 관리하고 있음.
-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수렴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한 결과 23건의 기본·일반연구사업중 정책수요자 제안과제가 22건으로 우수함.
- 협동연구 기획 발굴을 위해 플랫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KINU 연구네트워크(통일정책연구협의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전략대화, 샹이오포럼, 월례 토론회) 운영으로 협동과제 1건을 발굴하였음.
- 국제협력 연구발굴 및 수행을 위한 국외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함.
- 정부정책과제에서 북학 비핵화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라는 4개 과제에 집중 지원하였음.
- 유관부처 업무계획 분석,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토론회, 정책수요자 대상 연구수요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정책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각 위원회 풀을 좀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예 언론계, 산업계, 대국민 대표 등).
- 국내 뿐이 아니라 국외기관들,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 기획,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보다 독창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협동연구가 필요함.
- 협동연구와 위탁연구 간 구분이 모호함. 일부 협동연구과제는 통일연구원의 역할이 모호해 보이는 단순위탁연구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 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정부부처 제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38.3%로 더 늘릴 필요가 있음.

- '23년도 연구사업에서 국정과제 반영성으로 제시된 내용이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북한주민의 생활세계,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등에서 확인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수행체계개선TF를 구성 운영하고 연구위원 및 연구원 실무진 회의를 병행하여 직군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관리 단계별 모니터링·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자 집필 분량 편차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등 연구수행체계 개선 효과를 달성함.
- 연구관리시스템 운영체계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협업 노력을 강화하여 내부공동연구의 비중이 전체연구의 71.4%에 이르고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인 관계부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시의성이 인정되고, 연구기간 종료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음이 확인됨.
- 예산 비율 기준 전체 연구과제에서 협동연구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3%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임.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동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 연구과제 중 71.4%가 내부 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 제공 등 내부 공동연구나 내부 구성원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바,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연구수행체계개선TF에서 연구자 집필분량 편차 조정을 통해 연구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임시적 TF조직이 아니라 상시화된 조직으로 제도화할 필요 있음.
- 차별화된 각종 회의 운영을 통해 bottom-up 방식 회의 참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되나 5번에 걸친 bottom-up 방식 회의가 부담이 될 여지도 없지 않은 바, 회의의 유형과 체계를 단순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구성원의 회의 참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 있음.
- 수시과제 정부부처 제안과제가 100%임에 따라 bottom-up 과제 발굴이 형식적 요건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순수하게 bottom-up 과정을 통해 발굴된 과제도 1-2개 정도 수시과제로 편성할 필요 있음.

- 연구과제의 제안자로서 정책수요자인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외에 일반 국민이 연구 수행 과정에 참여한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바, 일반국민의 연구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관의 성격을 반영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관의 연구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는 바, 협동연구 비율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심지어 수탁연구과제도 협동연구 비중이 92%에 달하는데 95%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협동연구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바 연구원이 독창성을 갖고 제안하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연구나 일반연구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2022 통일대북정책 분야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 전문가 플랫폼 위탁 용역” 관련 협동연구에 있어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범시민사회 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YMCA,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등 다양한 시민사회 행위자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으로 협동연구의 과정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가 불분명한 바, 협동연구 파트너의 구체적 역할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임.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 자체점검을 위한 자체점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함.
- 연구윤리 자체점검단을 4개의 세부 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고 생명윤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함.
- 연구윤리 자체점검 절차가 체계적으로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그 결과 최근 2년간 클린기관으로 선정됨.
-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착수·중간·최종 보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예방 활동을 수행함.
- 생명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
- 연구윤리 성과 유지와 연구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직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정례 온라인 교육의 내용적 적절성이 인정되고, 높은 수료율이 확인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부서별 연구윤리 전문인력을 별도 채용하는 시스템은 연구윤리 강화의 측면에서 매우 돋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관 규모 등에서 볼 때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 사례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적정 규모의 운영이 필요함.

- 연구윤리 점검이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데 착수보고·중간보고 단계에서는 카피 킬러 결과 제출하고 연구윤리교육 실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심도 깊은 질적 점검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부재함.
- 연구윤리관리단 구성상 내부 22인, 외부 3인으로 외부위원 참여가 매우 부족한 편인데 연구윤리 위원회도 내부 7인 외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연구윤리 관련 조직의 내외부 비율이 내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위원의 비율 확대가 필요함.
- 신규입사자 대상으로만 집합교육 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에 편중되어 있음. 온라인 교육의 교육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교육 또한 보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오프라인 교육의 횟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부실학회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내부 구성원 출장계획을 통제관리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적어도 보고서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바,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조치를 통해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국내 유일의 통일·북한·평화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의 통일,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성과 확산의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 2022 연구성과확산 전략목표로 1. 이용자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 2. 대국민 서비스 강화 3. 글로벌 성과확산 강화의 세 가지 목표를 도출하여 목표 정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연구성과생산, 활용 및 환류, 연구성과 확산, 연구성과 관리의 연구성과의 홍보, 확산체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심도있고, 신속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연구결과의 홍보 및 확산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국내 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웹진, SNS, 국내외 언론홍보 활동, 정책 자료집 배포 등 연구성과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 8,839건의 연구성과물 배포 및 35건의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 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이 우수하고 성과가 우수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수립 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음.
- 주요 선진국인 미, 중, 일, 러, 유럽 등과 정보 공유 등 국제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음.
-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국제네트워크 및 인적교류 강화, 연구성과 글로벌 파급력 제고의 중장기 목표하에 국제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행 및 실적이 우수함.

- 최근 3년 평균 대비 국제협력 실적 45% 상승하고, 건별 증가율도 20%~110%에 이르러 실적이 우수함.
-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언론홍보 등 대내·외 확산을 대국민 대상으로 보다 활발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협력 네트워크 협력 시 대국민 대상으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유튜브 구독자 수 및 조회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이 요구됨.
- 지역사회와의 연구성과 확산 성과 도출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지역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민들 대상으로 한 성과확산 노력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외에 국제공동협력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통일외식조사 Data 공개실적이 우수함.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지원실적이 우수함.
-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실적이 우수함.
- 「KINU 통일외식조사」의 대국민 공개 실시하고, 통일 여론조사 Raw Data 총 11건 제공(한국사회 과학데이터센터)하였음.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한 발간자료, 소장자료, 통계데이터 등 파일 데이터 10건, 총 914,850 레코드 공개하였음. 2022년 총 33개의 연구실적이 NKIS에 모두 등록되어 100%의 등록실적을 보임. 기타성과물의 NKIS 등록 실적도 우수함.
- 30명의 연구인력이 1인당 0.74 편의 학술논문 게재실적을 보여 실적이 높음.
- 현재 DB 소스 구축, 2023년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 예정으로 노력을 기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1년 수시연구과제 1건이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초과한 시점에 등록되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과 관련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새정부의 담대한 구상 실현에 크게 기여함.
- 현안 분석, 국정과제 및 유관부처 업무보고 분석을 통해 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현안별 2개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총 40개 과제에 연구인력 232명, 예산 약 31억 원이 투입되어 국정과제 관련 정부부처 지원 실적이 우수함.
- 4개 과제(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에 예산 집중 배분(89%)이 적절하며, 국정 과제 참여, 지원에서는 정책 현안 대응단 신설 및 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현안 대응 노력을 강화하였고, 국정 과제수행에서는 7개 과제별 정책 성과 제시가 명료함.
- 정부교체기의 정책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통일 대북정책 분야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 전문가 플랫폼 위탁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새정부의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함.
- 대표사례로 제시한 『2022 통일·대북정책 분야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 전문가 플랫폼 위탁 용역』의 경우 그 주제와 시의성이 적절하며, 국정과제 94번(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 학술적·정책적 차원의 성과를 도출함.
- 기대 효과로 사회적 대화에서 전문가들의 역할, 남남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평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진행한 점이며, 정책적 성과로는 통일부 발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설명 자료와 연계시켜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총 61명이 수행한 과제건수가 40건으로 1인당 0.67과제로 연구인력 대비 국정과제 수행 건수가 비교적 저조함.
- 과제수행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 및 비연구과제 수행 성과가 회의 참석, 정책 자문, 세미나 개최 외에 정책화, 입법화 실적으로 연결된 사례가 부족함.
- 새정부의 대선 공약집 등을 기초로 선정한 우수 사업성과 ‘2022 통일, 대북정책 분야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 전문가 플랫폼 위탁 용역’은 추진배경, 추진과정, 성과 및 기대효과의 구체성이 부족함.

- 연구 성과로 제시된 바가 1.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반영, 2. 정부부처의 정책방향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플랫폼 운영 과정 체계화, 사회적 대화에서의 합의 형성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책현안 대응단을 구성하여 현안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
- 전 주기적 정책기여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기획 TF 운영, 정부부처 연구수요 파악, 과제보고 단계에서 정책화 실적 점검 및 평가, 정책화 실적 기여 관리함으로써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전주기적(TRM) 정책 기여도 관리 기본 체계를 구축하면서 기관 내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목표 수립-이행-점검-평가(PDCA)에 의한 정책 기여 관리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함.
- 계획과 실행(P→D)의 체계를 통해 기관평가 지적사항,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따라 개선 가능한 부분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이어서 계획과 실적에 대한 평가(Check)를 통해 계획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반영하며 기관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환류를 진행함(Act).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기여도 관리에서 외부 전문가가 보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과제수행 및 평가 단계에서 정책수요 부처의 담당공무원(실무협의)이 직접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명료화해야 하며, 정책기여도 점수 부여 근거와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기여도 관리 체계에서 전담 조직 운영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함.
- TRM 체계와 PDCA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긴급 및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연구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2년도 통일/대북 정책 관련 어젠다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안별 TF를 조기에 구성하고 정책건의서 제출, 정책현안보고서 발간, 학술회의 개최 기타 다양한 비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새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지원함.
- 원장을 중심으로 정책현안대응단을 구성하여 현안 대응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현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현안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현안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함.

- 새 정부 출범 후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긴급 현안 발생 시 현안보고서(27건) 및 정책건의서(2건) 발간, 기획 긴급 토론회 개최(9건), 수시과제(5건) 등을 통해 즉응 또는 선제 대응함.
-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통일정책과 관련된 수시연구과제에 대한 수요를 정책연구협의회 /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획하고 있음(연구 기획단계).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4.1%,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제안 과제 비율이 88.9%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부현안과제에 대한 비연구과제 수행 성과가 입법 및 정책화로 연결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가령 북한 인권법,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 북한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입법 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정세 및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과제발굴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수시연구과제의 수행 성과가 비교적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음.
-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보실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등을 활발히 개최하여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음.
- 정책수요자와 공식 및 비공식 대화를 지속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통일 및 평화 관련 정책의 타당도를 제고하였으며, 북한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분석 및 탈북민 인터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대국민 홍보를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방송 및 언론 활동에 적극 참여함.
-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양적 방법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북한 체제의 정책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안하였음.
- 한반도 상황이 국제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해외 싱크 탱크 및 관련자와의 소통을 수행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북 정책이 정권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것을 감안하여 남북관계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함.
- 중장기적 정책 과제와 단기 정책 과제를 구분하여 정책 전략을 제시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남북한 협력 사업의 당위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 등을 제시하여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정책 기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서가 제시한 정책 대안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고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됨.
- 과제 6번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 정부 및 의회 수준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우수한 점은 기존의 연구결과물들과 차별적인 성과를 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있음. 예를 들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비교적 연구 사례가 적은 북한의 재정금융제도에 대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음. 1차 자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우 충실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임.
- 최근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임 산업과 IT 산업에 대한 연구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왔음. 게임이라는 특정 주제를 매개로 북한사회를 통찰하는 기법은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연구방법에도 불구하고 연구 설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한 점도 긍정적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함. 다년 과제의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고,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신안보 신경제 시대의 도래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에 따른 국제환경의 대전환을 진단함으로써 정책적 시의성을 확보했음. 한반도 외교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신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음.
-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을 확장시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근방법을 연구 내용에 반영했는데, 나름 창의적 접근성과 학술적 가치를 확보했다고 판단됨. 이 과정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구상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기존 연구들과 달리 비핵화 합의와 이행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과제는 상당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 주제와 새로운 방법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결과가 제한적이고, 북한 재정금융 제도의 변화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북한 경제의 폐쇄성과 남북관계의 악화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제언에 실현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도 연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함.

- 북한 ‘중산층’ 개념 설정의 경우, 이러한 개념이 ‘남북 상생’ 차원에서 논의되고 접근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음. 관련하여, ‘한반도 생명공동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현시점에서 정책적 현실성과 설득력 있는 세부정책 제언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
- 동북아 과제의 경우, 보고서의 논리적 구성과 완결성이 높지만, 시나리오별 북한의 대응 전략 전망이 다소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고, 일부 연구 내용에서 목차 표기와 내용 간 불일치한 부분이 발견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는 기술은 향후 시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고서의 논리적 문제점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협동연구보고서의 경우,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례들을 다루고 있어 최신 연구동향을 잘 파악한 노력이 인정됨. 기존 연구와도 차별화되는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북한의 고령화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기여가 있음. 북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세계 변화로 북한 당국의 노동력 정책 역시 변화하고 있는바, 대북정책 마련 및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관련 핵심 주제로 교육, 국방/안보 정책을 포괄하는 노동력 정책 변화를 분석한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큼.
- 연구 방법론적으로도 풍부한 문헌 연구와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연구방법의 적합성을 제고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협동연구도 진행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음.
- 미중관계 연구에서는 다양한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검토하여 미중 경쟁과 갈등 국면에 대한 장기적이고 복합적이며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했음. 이를 통해 이익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의 구도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기획과 성과에서 독창성을 보여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신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부정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 기여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북한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제안한 남북협력 사업들을 신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의 연관성 위에서 제안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움. 전반적으로 좀 더 정책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미중 강대국 대결에서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를 남북한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실성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봄. 결과적으로 대체로 의미 있는 연구였으나, 관념적인 수준에 그친점이 다소 아쉬움.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에 따라 2개의 TF를 가동하여 한반도 정세변화 등 현안과제를 분석하고 ‘담대한 구상’ 대북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함. 새정부 9대 국정과제, 연간업무계획 등 정책환경을 분석하여 경영목표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함. 온라인시리즈(자유/평화) 발간,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수시과제에 반영, 국정과제 및 정책추진을 위한 매뉴얼 지원 등 국정지원 노력이 돋보임.
- SWOT분석에서 기관내외부의 위협요인(비핵화 논의교착, 기관 고유역할 강화 필요, 조직문화 개선 요구, 연구수행체계 강화 필요성)을 발굴하여 ST전략 및 WT전략에 반영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함.
- 매우 어려운 안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세분화된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이 수립되었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계획의 적절한 연계되어 있음. 영역별 실천계획은 연계수단(연구, 제도, 행사, 조직)을 통해 실효성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간부진 계층화분석법(AHP) 및 전 직원 리커트 설문조사를 통해 경영목표 추진전략, 실천계획, 성과목표별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반영함. 실행중심의 체제로 전환, 정책조정회의 및 부서장회의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실행하여 경영목표에 대한 전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몰입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계획된 성과목표가 달성되으나 성과가 현실적인 내용(남북관계)으로 전환되지 못한 점은, 비록 연구기관 차원의 잘못으로 한정할 수는 없더라도, 아쉬운 부분임.
- 실천과제별 가중치는 내부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바, 내부 의견 이외 외부 이해관계자(정책고객/국민고객 등) 등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 있음. 특히 주요국 중심 가중치와 주변국 협력네트워크 가중치가 동일한 바, 주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중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또한, 정책수요자 의견수렴에 민간 부문 대표성이 낮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3(조직문화 개선 및 소통 강화 / 경영효율성 제고 / 업무혁신시스템 정비)은 공공기관 전체에서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차별화된 노력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기관의 연구 및 행정전반의 업무를 실적으로 제시한 바, 전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중 일부는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나, 성과지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 있음.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기존 실적 추이와 노력도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성과목표는 세미나 개최, 회의 개최 등 측정이 용이한 단순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바, 성과 중심의 실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계량지표의 경우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의무적인 관리사항으로 기관의 수동적인 노력만 제시되고 있음. 조직문화 진단(2021년) 후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프로그램 실행력 제고방안을 구체적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발전과 성과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활성화된 점을 확인함.
-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능률협회 조직진단 컨설팅을 수행했고, 전 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의 의견수렴 이후 수렴된 의견의 후속적 처리상황에 대한 피드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기관장의 조직문화 지향 방향성 제시가 다소 명확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관련한 피드백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통일 분야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제언, 공공외교활동 등 질적으로 우수한 대외활동을 수행함. 어려운 남북관계 현실에서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인 대외 홍보 활동을 전개함.
- 신규 MOU 4건 등 국제협력네트워크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어려운 한반도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인정됨. 아울러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노력을 권고함.
- 대부분의 성과가 중점 추진사업에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수요자 개발 노력이 부족함. 대외활동이 일반적이고 평이한 내용에 해당되며 향후 연구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기대됨.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및 추진 전략 수립 지원

〈우수한 점〉

-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한 연구 수행의 어려움에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이루는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 정립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우수함.
- 신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함. 이 과정에서 정책 분야의 특성상 성과 확산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으로 판단됨.
- 통일과 대북정책 관련하여 신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현안대응단 신설하여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신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수립 지원을 포함하여 신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추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개설하여 리더십을 발휘함.
- 연구과제의 선제적 이슈발굴을 통해 신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에 포함시킨 점,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세미나, 학술회의, 포럼 등을 수행함.
- 정책현안대응, TF구성, 인수위 보고 및 관련 부처 보고 등 실적이 있으며, 1기 및 2기 TF 운영을 통해 통일대북 관련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수립을 지원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통일·북한 분야 정·산·학·연 및 민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우수한 점〉

- 통일학 및 북한학 분야에서 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은 오래되었지만, 실질적인 구축이 잘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바,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의미 있는 시도로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인정됨.

- 통일북한 분야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통해 정책 공감대 확산 및 후속 연구세대 육성하고자 하는 전반적 목적 및 방향성이 양호하며, 차세대 전문가 발굴 사업 운영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에서 한 발 나아가 볼로냐 대학 사피엔자 대학 등 이탈리아 대학의 한국학분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의가 인정됨.
- 현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추진 성격이 적절하며, 권역별 사회적 대화 모니터링과 시민참여 유도 노력이 존재함.
-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지표설정 노력, 정책제언 발굴을 위한 노력, 달성도 107.75% 등 추진노력과 결과가 양호함.
- 통일대북정책 전문가의 사회적 대화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여 권역별로 진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차세대 전문가 발굴과 지원을 위한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홍보와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네트워크의 강화에 따른 성과가 다소 불분명하며 네트워크 확대 역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플랫폼 사업 기획에 실제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기획 노력이 미흡하며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목표치가 1건에 불과하여 적극성이 요구됨.
- 네트워크 강화의 효과가 output 차원을 넘어 outcome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필요함.
- 정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으나, 산업부문 네트워킹 관련 목표나 성과 혹은 실적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
- 협력네트워크 및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실질적인 통일대북 정책변화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력 등 상호 연계성을 보다 충실히 확보할 필요 있음.
- 산업체 관련 네트워크 및 민간네트워크 중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진보와 보수 등)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됨.

(3) 데이터 기반 연구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우수한 점〉

- 데이터 연구 기반 강화라는 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통해 결과물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 과거부터 이어지던 북한 관련 연구 데이터 기반 강화에 일정 정도 기여한 측면이 인정됨.
- 데이터기반 연구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통합관리를 위한 적극적 활동으로 기관 내 데이터 집적의 성과가 인정됨.
- 통일북한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3개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여 데이터 공유와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근거기반정책의 일환으로서 데이터 연구강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구글 어스, 국토정보원 좌표지점 등을 활용한 분석 데이터가 2016년 OECD 북한자료로 공식 등록되어 통계청 등 다수 기관 공식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데이터 기반 연구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측면에서 여러 체계를 마련해나가는 단계에 있기에 통일 및 대북 관련 데이터의 허브가 되기에는 아직은 다소 미흡한 협력체계에 해당되며, 향후 데이터 관련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도약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통일북한 분야 데이터 보유기관과 MOU 체결 의미를 살리기 위해 향후 실질적 데이터 공유 및 활용실적 도출 노력이 요구됨.
- DB구축 및 활용의 경우에도 목표치 설정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공개 가능한 데이터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점검 등 전반적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함.
- 북한주민의 일상 등 미시적 부문에 대한 DB 구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북한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가운데 북한보도 결과 제공 시 반박 및 확인 자료(counter-evidence), 전문가 논평, 해설, disclaimer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제공하여 보도자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체제 등 거시적 연구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생활과 일상에 대한 미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북한현실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강화될 수 있으며 남남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 연구결과가 데이터화되어 공유되어야 함.
- 탈북자 인터뷰 등을 DB화하여 북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현재는 내부 연구진과 활용가능하므로 이를 가공하여 DB화하여 공유데이터로 활용할 필요 있음.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국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함.
- 새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구체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함.
- 연구기획을 다각화하고 국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조직을 운영함.
- 3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책임부서를 지정하는 등 조직 성과 제고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함.
-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PDCA 기반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였으며, 중기 경영목표 달성 로드맵을 활용함.
- 노사간담회, 임금협약 등 노사 협의 외에도 기관장과 직원 간 수시대화가 활발히 운영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노력의 성과가 다소 미흡함. 경영전략과 조직운영 방안 간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며,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운영 노력과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새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관의 대응이 필요함.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에 대한 타당성·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실적 내역을 재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조직운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조직 성과관리 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가 필요함. 현재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해당 체계의 관리대상이 되는 과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에서 도출된 실천과제의 성과 관리가 불분명함. 예를 들어, 전체 경영목표 달성률이 108.79%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경영목표로 제시된 ‘사람중심의 포용적 경영혁신’이 실제 조직에 정착되었는지 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함.
- 성과 중간점검 과정에서 성과관리위원회가 정례 및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시기, 어떤 필요에 의해 개최되는지 여부, 점검 주체 등 수시 점검 실적이 모호함.

- Check 단계에서 조직 성과 점검의 일정, 방식, 평가주체 등을 구체화하고, 제도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국내외 정책환경분석, 주요 키워드 도출, 그리고 KINU 경영목표 등을 근거로 중기인력 운영계획(22~24년)을 제시하고 있음.
- 생애주기별 직무역량 강화와 통일교육 이수율 제고에 있어 96% 상승한 점은 인정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성과 계량적 평가 비율이 60%이고, 업적평가시스템 개선활동과 평가시스템 운영 공정성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청년 고용실적이 있으나, 청년고용 실적이 다소 낮은 편이므로 향후 정규직 신규채용 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 1인당 교육훈련비가 224천원으로 전년 대비 줄었고, 비교적 낮은 편임.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윤리경영 관련 교육 이외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연구지원직(비연구직) 업적평가의 지표가 단순하여 정량·정성평가의 반영비율을 세부지표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의 개발과 정량적인 지표를 통한 평가 노력이 요구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히 운영되어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짐.
- 반기별 대외활동 실태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연구회 감사실에 제출하였으며, 분기별 대외활동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 대외활동 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함.

- 근무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체감사 통해 근무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음.
- 안식년 및 연구연가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고 결과보고를 받는 등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짐.
- 연가저축제 도입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소진율이 높은 편으로, 구성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적정함.
- 복무규정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운영지침을 토대로 개인별 업무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하여 운영함.
- 연구연가 제도 취지에 따라 자율적 연구에 주안점을 맞춰 연구성과물 제출을 의무화한 점은 연구연가의 적절한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함.
-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복무관리를 실시하여 의무근로시간 및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자체감사 시스템의 대외적 신뢰성 진단을 통한 기관의 근무 관련 감사시스템 개선과 함께 복무관리의 정기적 점검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 형태와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기관에 적합한 대안적 유연근무 개발이 필요함.
- 구성원이 원하는 유연근무제 형태와 현재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연수종료 후 연구성과물 미제출 시 차기 연구연가를 제한하는 제재사항은 정년이 가까운 연구자 등은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재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연구연가 운용규칙 상 박사급 연구직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있는데,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연구연가 선발인원 기준 재정립이 필요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인 육아휴직 분할, 남성직원 배우자의 사산 휴가 등 제도를 정비함.
- 가족친화 인증 획득 및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제한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유사산 휴가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일·가정 양립 단계별로 나누어 제도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 노력이 필요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채용공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채용 DB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한 점과 무기계약직 중 보직자를 선정하고 내부 포상 하는 등 성과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관련 소통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비정규직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동일한 수준에서 차별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기간의 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교육훈련연수의 경우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교육훈련을 포함한 복리후생이나 휴가 등에 대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준용하여 임금피크제대상자와 퇴직자에 대한 역할 부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활용한 별도정원 2명 중 1명을 채용하지 못하여 관련 실적 관리가 필요함.
- 중장기 인력채용계획이 퇴직예정자나 재원충당비율 등으로 설명되지 않아 신규채용 재원조달의 명확한 근거마련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특히 '22.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행동강령도 개정하는 등 윤리경영 규정 현행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에 대한 맞춤형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전 직원의 교육실적이 매우 우수한 편이며, 교육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교육 이수율이 향상되었음.
- 조직문화 진단 및 변화전략 수립과 더불어 반부패, 청렴 이해도 증진 및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반부패 청렴 교육이 전직원대상 94.2%와 승진자 대상 관리자 95.5%를 달성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연구비 유용 파악과 관련하여 매월 기관장 보고 후 연구회 감사실 제출한 점이 인정됨.
- 조직문화 진단 및 변화전략 수립과 더불어 반부패, 청렴 이해도 증진 및 강화교육을 실시함.
- 연구윤리자체점검 결과 최근 2년간 클린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체점검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함.
- 부패 신고 및 연구윤리위반 신고를 위해 원스톱 신고가능한 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음.
- 채용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으로 감사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이 전담하고, 규정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심의기구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 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등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갑질가이드라인을 수정 배포하고 자기진단체크리스트 활용 등 불공정 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지난해 지적사항 반영하여 친인척 채용 인원 수를 공개하였음.
- 인권경영 신고창구를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예방지침과 절차를 두고 있음.
- 성폭력, 권익침해,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부패행위 등 5가지 유형에 따른 구제절차 차별화가 인정됨.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특히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인권경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앞당기고, 인권침해구제절차를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인권영향평가 결과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 향후 옴부즈만 등 전문성을 활용한 내부건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실적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 대외활동과 관련된 징계양형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신고센터가 현재 이메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부정부패신고는 외부기관으로 연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사유에 대한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계속 추진하기를 바람.
- 불공정 거래(갑질 등) 근절을 위한 교육을 보강하는 등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을 권고함.
-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관리하기 바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진행 중이나 일반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연구원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는 외부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규정이 빠져있고 모니터링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주기적으로 대외기관에 대한 갑질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친인척 채용결과가 반기별로 공개되고 있으므로 분기별로, 채용유형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다수 구성원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인권경영구제절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나갈 것을 권고함.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인권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한 연말에 1회 개최하였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소한 상반기 내에 인권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권경영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여(266.7%, 배정인원: 3명→8명), 청년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청년인턴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업무평가회, 멘토링 사례발표회)을 운영하여 취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의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 상담과 전문성 교류의 장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정규직 공개채용에 한하여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시, 총 점수의 3%를 우대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 배정 예산 집행률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신규 채용인원 중 여성 비율이 68.75%로 직전년도 57.69% 대비 11.05% 증가함.
- 2022년 고용노동부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여성 근로자비율 52.38%로, 비교그룹 기업평균(46.08%) 대비 6.3%로 높은 수준 유지하며, 여성 인력 활용도가 비교적 높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총 6건의 공고를 내면서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위해 노력함.
- 여성관리자 비율이 55.56%로, 여성 관리자 목표치 31.2% 대비 초과 달성(+24.3%)하여 비교그룹 기업평균 대비 높은 수준 유지한 점이 인정됨.
- 폭력예방교육, 가족과 젠더, 양성평등한 가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이수비율이 매우 높은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 활용의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 자체의 연도별 여성보직자 관리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경력단절여성 채용 6건 공고 확산 등 추진하였으나 실제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이 없어 신규채용, 대체인력채용, 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관장 및 부서장의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제한경쟁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전형 단계별 상향된 가점(10%) 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서초구)과 지원자 추천 등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재직자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6.0%를 2년 연속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국가유공자 우대조치로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를 명문화하고 있고,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 신규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서울북부보훈지청 취업팀 업무협조를 하는 등 채용담당자와의 상시 업무 협의를 이행한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2년도 장애인 채용실적이 없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의무비율을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고용 규정에 맞추어 관련 채용노력의 체계화, 홍보 확대 등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국회 경영분야 3건과 연구분야 1건의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자격을 가진 감사 전문 인력이 2인 있으며 전문인력이 7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업무 분장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인원 5명, 감사결과 4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처분을 요구한 점은 긍정적임.
- 21년 자체감사 활동에 대하여 22년 자체감사에서 새로운 지적사항을 발굴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이 우수함.
- 감사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감사인력의 역량을 강화한 점은 우수함.
- 감사관련 교육에 참여도가 높고, 교육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감사역량 강화 관점에서 우수함.
- 자체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 직원 대상 및 생애주기별 대상 감사교육, 향후 감사교육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해 사전 요구도 조사와 사후 만족도 조사의 병행 등 다양한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함.
- 예산결산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의 공통지적사항에 대해 기관차원의 검토 및 대응방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임.
- 연구진 투트랙제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기 힘든 점은 다소 아쉬움.
- 비상임감사가 정기감사 입회, 일상감사 결과 점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비상임 감사의 조치사항이나 검토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 이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 것을 건의함.
- 성과 중심의 실적 관리를 통해 비상임감사의 활동이 환류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감사교육의 실시 현황은 신규입사자 교육 4건(대면) 외 기타 8건(비대면, 온라인)인데, 교육의 양을 늘리고 체계적인 교육주제와 질 제고를 추진해야 함.
- 장기적으로 교육수요에 따른 대상자별 특화교육 내용의 효과성(현업적응도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 평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8. 한국개발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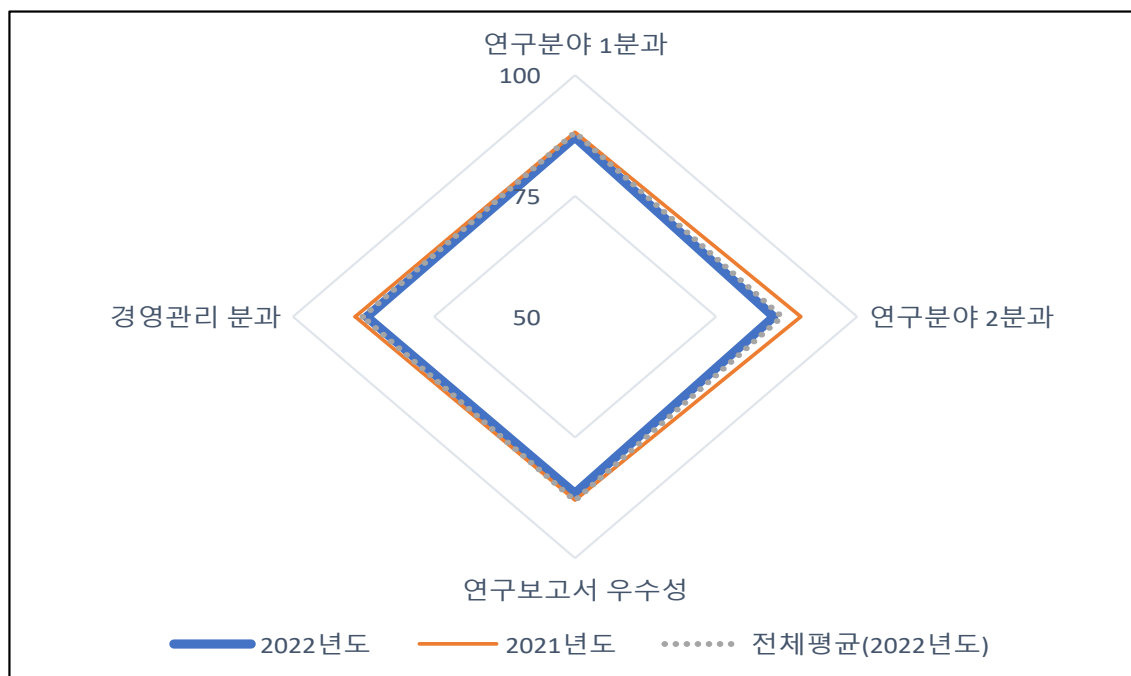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C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D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A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C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C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C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S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A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과제의 질 관리를 위해 Open Refree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으로 연구윤리 만족도 조사 및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로 연구윤리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함.
- 기관장 주도 하에 정례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향후 사회적 이슈로 진전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은 연구원의 목적과 부합함. 또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정책화 과정에서 정책 연구의 수요자인 정부 부처와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대상자인 산업계와 국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정책화를 위한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은 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있음.
- 사업을 개선하고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과 대안을 찾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혜자에 대한 분명한 설정과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경영 분야]

- SWOT 분석을 통해 기관의 연구 및 경영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선도 연구기관으로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따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함.
- 생애 주기별로 일·가정 양립의 제도 체계화가 우수하며 육아휴직 실적이 매우 우수함.
- 비정규직 인력 전환대상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노력이 돋보임.
- 윤리경영체계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과 성희롱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청년인턴에 있어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교육지원 및 채용우대조치 등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임.
- 전반적으로 여성인력 채용 실적이 우수하고, 신규 채용 여성 28명 중 경력단절 여성 3명 채용하는 등 여성 인력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반면, 양성평등 필수교육 외 고도화되고 다양한 교육을 발굴 및 실시를 권고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SWOT 분석을 통해 연구원 내 외부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여기에 대국민 및 학계 전문가 의견을 조사해서 KDI의 설립목적과 연계해서 2023년 KDI 연구사업목표를 설정하였음.
-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의 현안 이슈에 기초한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함.
- 연구수요조사의 대상의 기법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중요성과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수요조사, 정책토론회, 제안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총 552명의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를 기획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총 49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16회) 대비 306% 증가한 것임.
- 연구과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기획 자문위원회, 전체연구위원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연구를 기획하였음.
- 국민 대상 수요조사를 위해 채널을 다양화하였고, 수요조사를 통한 과제선정 건수를 확대하였음.
- 현안대응TF를 중심으로 현안 이슈를 도출·분석하여 국정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사회적 현안 29건을 도출하였음. 2022년에는 메타버스, 교육정책, 부동산, 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현안임.
- 현안대응 TF를 통해 도출된 주요 현안 이슈를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Issue brief 제공, 수시연구과제 및 일반연구과제를 기획 수행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 마련을 통해 현안 이슈의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내외 환경분석을 하는 방법에 있어 대국민소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키워드 분석을 하는 방법이 필요함.

-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구성이 필요함.
- 정부부처, 국민 등 대상 수요조사(91건)가 부족함.
- 국민의 의견청취인원이 72명으로 부족해보이며, 더 많은 국민의견청취가 필요함.
- 정책수요자가 학계와 정부로 매우 한정됨.
- 해외시장 및 정책 동향 조사를 통한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이슈도 민생과 밀접한 이슈도출이 좀 더 필요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대비 기초연구과제 비중이 연구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5.0%로 30%를 초과하지 않음.
- 정책연구기획 TF를 통해 연구과제를 기획, 발굴하고 세미나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과제를 선정하였음.
- 국정과제, 비전, 경영목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등과 연계하여 KDI의 Role & Responsibility (R&R)을 도출하였음.
- 2023년에는 4개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기본연구과제비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였음.
- 대내외적으로 학제간 협동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수행하고 있으며(성과가산제도 운영), 협동연구 기획 단계부터 과제 점검 및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제안보’, ‘규제분석’, ‘국가재정’, ‘국채관리’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협동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수립함(9개 과제).
- 2023년 기본연구과제 9건 모두 국정과제 반영하여 기획. 기본연구과제 9건 중 4건이 정부부처 제안과제이고 연구비 예산 기준 79.6%를 달성해 경인사연 권고 기준 30%를 크게 초과 달성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문가 인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함.
- 과제 발굴 시 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사업 대비 기초연구과제 비중이 5.0%로 지나치게 낮은 바,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성 있음.
- 외부 전문가 및 해외전문가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기관의 확대와 창의적인 협동연구과제가 필요함.

- 국정과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5년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자체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정권초기에 국정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부서와 지원부서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는 등 협업의 효과성 증진하기 위해 노력함.
-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과제 참여 활성화를 통해 40건에 109명 참여 실적을 달성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중을 22.7%로 유지해 경인사연 권고기준이 10~30% 기준을 충족함.
- 연구보고서 질 관리 뿐만 아니라 현안과제 질 관리를 위해 TF 구성해 Open Referee 제도를 통해 내외부 연구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함.
- 지원부서에서 여론조사팀을 별도 설치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연구수행 과정에 피드백하는 사례는 매우 독특한 기관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인정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의 비율(22.7%), 연구 품질 관리 TF의 운영과 성과(보고서 완성도 제고)의 적정성이 인정됨.
-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저자 응답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수행된 연구과제가 예외 없이 연구기간 종료 후 적절한 기간 내에 발간되었음.
- 전체적으로 협동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68.4%로 적정 수준을 유지함.
- '22년에는 연구회 협동연구 8건(주관 6건, 참여 2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협동 및 융·복합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참여기관의 적정성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기획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연구보고서발간위원회 정도가 전주기적 관리체계에서 눈에 띄는 연구수행체계 관리 조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과제수행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보다 연구관리수행체계를 세분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편집 후 자체 발간하는 과제는 보고서 발간 지연에 따른 발간 일정 미준수 사례로 의심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간 지연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연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협동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8.6%에 불과한 바, 일반연구에 대해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5단계에 걸친 자체점검 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연구윤리 상담소 통한 상시 상담 체제를 구축함.
- 기관 내 연구윤리지침과 연구진실성검증지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이 매우 세분화되어 적용함.
- 연구윤리지침 제13조에 의거 실무검증단의 표절을 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별화된 신상필별 제공(S등급 부여시 다음해 자체사업 예산편성시 우선권 부여).
- 연구윤리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윤리교육을 통해 연구윤리 준수 문화 확산함.
-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 내지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며, 연구윤리 위반 자체 점검을 통해 연구윤리 위반 요소를 제거함.
- 2022년 연구윤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의거한 연구윤리 활동 수행으로 향후 5년 간 연구윤리 위반사례 Zero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6년 연속 클린기관을 달성함.
- 「KDI 연구윤리 기본계획」(’22.10.)에 따라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추가하여 연구윤리 이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윤리 자체점검 운영 결과 우수연구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연구윤리지침 제15조에 관련 규정을 두었고, 부실학술행사·학술지 의심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검증절차는 5단계로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으나 연구윤리 업무를 전담하는 상시 조직이나 인력은 부족해 보이는 바 연구윤리 수행 과정의 기능 재조정을 통해 보다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윤리 검증의 공정성·객관성 유지를 위해 외부 연구위원을 1명이라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외부검증은 기본연구과제의 25%에 대해서만 무작위 추출해서 실행하고 있어 결국 21년 2건, 22년 4건 이루어진 외부검증이 기본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부로 볼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수시·일반·협동 등 다른 연구과제는 외부검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연구윤리 검증상 취약요소가 될 수 있는 바, 외부검증단의 검증 대상 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1 대면 상담 방식으로 연구윤리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연구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전 직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은 2회 모두 화상강의로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대면교육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음. 코로나 19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보다 효과적인 대면집체 연구윤리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연구성과를 홍보·확산함으로써 정책 기여도 제고”라는 목표가 적절하고, 경영진, 발간위원회 중심으로, 미디어운영팀, 콘텐츠개발팀, 편집팀, 성과확산팀, 연구사업팀과의 홍보, 확산추진체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언론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하이브리드세미나, 학생, 교사, 공무원, 취약계층, 개발도상국 연수 등 수요자 맞춤형 연수와 교육, 나눔 프로그램,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운영채널 등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확산성과가 우수함.
- 122,565건의 연구성과물 배포,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실적이 우수함.
- 다양한 이슈페이퍼(KDI Forum, KDI 정책포럼, KDI 현안포럼)의 발간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국제화 계획 및 전략이 체계화 되어 있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 글로벌 공동연구, 지식과 노하우의 공유, 연구인력의 국제역량 강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 3S, 즉, Studies (공동연구), Sharing (지식공유), Strengthening (국제협력 강화)으로 범주를 분류하고, 지난해 3년 비해 실적이 동일하거나, 증가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국민대상으로 한 연구성과 홍보 시에는 쉬운 언어(만화 등)로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길 제안함.
-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웹사이트 운영, 뉴스레터 발송, SNS, 유튜브 실적 등이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많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국제협력 시 대국민 연구성과 확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함.
- 학회와의 협업 네트워크는 잘 유지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관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 실적이 우수함.
- 총연구과제 43건 중 41건의 연구과제를 등록하여 95.3%의 등록률을 보임. 기타 연구성과물의 경우 100%의 등록률을 보여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인당 논문게제 실적이 0.55편으로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NKIS 등록대상 과제가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등록된 사례(가령 기본연구과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등)가 여러 건 있고, 미등록 사례도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정부 위원회 및 TF 참여,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25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21개의 국정과제에 기여함.
- 국정 과제 참여 실적을 성과, 정책 지원, 법/제도화 등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였고, 국가재정법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 2022년 세제개편안 등 국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법화 실적이 우수함.
- 국정기조 및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도에 수행한 연구과제 77건(예산 6,343백만원)을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로 수행하였고,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관련 정책의 집행과 평가, 개선 등 정책 수행 전반에 대한 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제안된 대안을 입법 및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함. 그 구체적인 성과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개정 지원, 새정부 관련 정책 방향 지원 등 가시적인 결실을 산출함.
- 정부교체 시기에 변화된 정책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구정부에서 모두 국가적 현안이 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연구 과제를 대표사례로 선택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결산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부분은 기관의 주체성을 잘 살린 대표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각 사업군 별로 2016~2021년 사이에 시행되었던 사업들의 대상, 전달체계, 효과성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경제의 구조전환 차원에서 해당 사업군 및 주요 세부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환류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분류의 재정의, 성과지표의 개선, 평가 및 예산환류 강화 등을 제안함.
- 성과평가의 왜곡을 막기 위해 각 사업군 내에서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대한 분리된 성과관리 혹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재정의함.
- 국정과제 수행 연구의 대표사례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은 연구의 시의성, 연구목적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그 성과가 국회 결산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정책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에 기여한 부분 중 어느 정도 입법에 지원되었는지 질적, 양적으로 관리·제시될 필요가 있음.

- 수행한 국정 과제 사업 실적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고유의 설립 목적이나 고유 임무의 부합성 정도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표사례로 보기에는 대표과제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성과가 뚜렷한 입법화 및 정책화의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합 평가의 성과, 정책 기여도 제고 노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자체 선정된 정책기여도 우수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연구자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임.
- 정책연구 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연구기획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책기여도를 높이면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구하고, 연구수행 과정 전반에서 정책수요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기여도를 제고하는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균형감 있는 연구과제 기획 프로세스 운영을 통하여 기본연구과제 기획 시 Top-down 방식의 중, 대형연구과제(5건)과 Bottom-up 방식의 개별연구과제(4건)를 병행하여 균형적인 기획 프로세스를 운영함
- 연구과제기획 외부자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어젠다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선제적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이후 기획된 연구과제의 세부 자문을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과제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기여도의 건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 질적 내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여도 우수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선정 보고서에 대한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의 각 평가단계에서 정책수요 정부부처의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보다 구체적 참여 방식과 과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체계화 노력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기관장 주도 하에 ‘현안대응 TF’를 중심으로 월 3회 정례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현안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긴급연구 및 정부현안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수요자(정부, 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63건의 설문조사 실시)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함.
- ’22년은 “규제”, “미래전략”, “대외 리스크/경제 안보”, “국채”, “플랫폼” 등의 긴급현안에 대해 연구 수행(기본/일반 15건, 긴급수탁 13건, 수시 3건), 이슈페이퍼 작성, 간담회 및 자문 참여 등 비연구활동을 통해 정부현안과제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국가 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 및 비연구활동을 통한 대응노력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각종 지침의 제개정 등에 기여함으로써 전년도 지적사항인 제도 연결 사례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였음.
- 긴급현안 사안과 관련된 이슈 선정이 적절하고, 연구 및 비연구 활동의 성과 공유 및 확산 노력이 크게 개선되었음.
- “ESG 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 연구자가 자체발굴한 수시과제 4건(완료), 정부부처가 제안한 수시과제 4건(2건 완료, 2건 수행 중)을 수행하였고, 공동연구자의 적절성, 연구계획서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적정성이 우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22.8%,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74.6%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현안과제에 대한 비연구활동 성과는 우수하지만 기관 규모에 비해 수시(3건) 및 긴급수탁과제(13건) 수행 성과는 비교적 부족하므로 긴급현안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단기적 정책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사회적 이슈로 진전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것은 국가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사회적 문제를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이 지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국가 재정 및 환경 이슈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정책화 과정에서 정책 연구의 수요자인 정부 부처와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학술대회 발표 등 학계와의 소통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새로운 정책 대안을 위한 연구에 대한 노력에 비해 연구의 정책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연구 결과의 정책화를 위해서는 정책 연구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자인 산업계와 소통이 필요함. 하지만 정책연구 수요자인 정부 부처와의 소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연구의 정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연구의 과정에서 담당 정부 부처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대상자인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과 사회적 이슈 제기를 위한 연구원 차원의 미디어와의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정책시계열사업,”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두 정부가 위임 및 위탁한 목적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고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추진 체계는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음.
- 사업의 개선을 위한 환류로 사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 수행의 효율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행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개발과 홍보 확대 등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사업 수혜자에 대한 분명한 설정과 그에 합당한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 중심이 아니라 연구와 사업을 연결하는 사업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개발연구원의 2022년 연구보고서는 대체로 기획력이 돋보이고, 연구의 내용이 설득력과 정책적 함의로 모두 효과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우수한 점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자면, 먼저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의 핵심적 요소가 인적자본의 축적이라고 평가되는 현실에서, 최근 들어 잠재적 성장률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에 미뤄볼 때, 연구주제가 매우 유익하고도 흥미로움. 분석력과 정책 제시 모두 긍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음.
- 노동 시장 관련 사회적 논란이 많은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연구의 경우, 기술발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 또한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코로나 위기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시도한 점은 시의성이 매우 높으며, 정책적 수요도 높은 연구 분야임. 플랫폼 종사자들의 이중적 성격, 플랫폼의 쏠림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 노동수요의 독점력이 점증함에 따라 이 분야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흥미롭고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음.
- 디지털 지급서비스를 연구 대상으로 한 보고서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디지털 금융결제 시장의 개방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문제와 소비자후생의 효과를 각종 사례나 문헌 및 추론을 통해 분석하고 법 개정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본문으로 언급한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의무규제 도입 필요성도 해외사례까지 포함하여 제시되어 있어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국민연금 개시 연령 관련 연구 및 그린 뉴딜 연구 역시 연구 수행 전반에 걸친 기획력이 돋보였고,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연구 결과에 잘 반영되어 있었음. 다양한 예측력을 동원한 파급효과 분석, 실증분석방법을 통한 충실한 연구방법, 또한 분석 결과에 바탕 한 정책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고민까지 담고 있어서 현 정부 의지와도 잘 부합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몇 가지 분명한 우수한 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미흡한 점 역시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한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으로 대표됨.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 연구의 경우, 연구의 주제가 “금융혁신과 개혁 방안”으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NTF 등에 대한 연구를 독립적인 장으로 연구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움.

- 관련하여, 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 공급 방식 DSGE모형 자체가 지니는 문제로 각 정책결과에 있어서 유의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내용 중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으로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추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현실을 단순화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격차 추이와 정책 과제 관련한 연구에서는, 코로나 전후 비교를 통해 코로나가 각종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한 전후 비교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음. 자산격차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의 부족으로 코로나의 효과가 엄밀하게 파악되지 않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국제시장 중장기 발전에 관한 두 개의 협동연구보고서는 각각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우수한 점의 경우, 세계화의 퇴조와 자국우선주의의 보편화로 과학기술패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흐름과 주요국의 정책흐름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익한 연구과제라고 판단됨.
- 관련하여, 한국의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 대한 가치 사슬차원에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함.
- 국내 채권 시장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 역시 시의적절한 주제를 발굴하였으며 최선의 정책제안을 하고 있음. 주요 국가들의 정부 채권 시장 현황과 정부의 관리 현황을 조사한 부분은 채권시장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본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국제 공급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제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본 연구를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에 보고서의 의의가 더 크다고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기술패권 및 경제안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서술 내용이 복잡하고 세부 사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이 제시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음. 국가 정책적 차원, 산업적 차원, 기업 차원에서 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차원별 상호관련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국제 연구의 경우, 국제가 회사채를 구축하는 효과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이 일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보고서 앞에 채권 발행 모형과 뒤 부분 설명 사이의 연결성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음. 정책적인 시사점 역시 일부 추상적인 측면이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SWOT 분석을 통해 기관의 연구 및 경영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운영 전략 및 경영목표를 도출함.
- 국가 선도 연구기관으로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따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함.
-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 기획·추진을 위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 사회가 최근 직면한 구조적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3개 연구팀을 신설하는 등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토대를 마련함.
- 경영 개선 관련하여 ESG 경영혁신을 내밀하게 추진함.
- 기관 차원에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확대, 그리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함.
- 환경 분석 - 경영목표 도출 - 추진전략 수립 - 실천과제 발굴 간의 연계성이 높음.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지표를 통해 실천과제의 성과를 관리함.
-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부문과 경영부문의 성과관리를 구분함으로써 성과관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연구운영위원회, 발간위원회, 포럼, 운영회의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체계적, 다층적으로 점검함.
- 민감한 사안의 고충에 대해 기관의 고충처리 역량을 동원하여 사건조사부터 징계, 관련 부처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기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충 민원을 적극 처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새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에 대한 기관의 대응이 요구됨.
- 실천과제의 중간점검 및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실천과제의 정량 성과지표 달성 외에 효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해당 실천과제의 완료에 따른 성과 또는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실천과제의 질적 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체 협약 등의 노사 협의와 비교하여 노사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노사 협력 및 노노 화합 증진을 위한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직급별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 연구위원 채용을 위해 특별보상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채널 다원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공정채용 관련규정 및 제도를 강화하여 채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제고 노력을 기울임.
- 전문인, 창의인, 화합인을 구분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코로나 규제 완화로 학술, 야간대 연수 및 업무연수가 재개되고, 데이터 역량 강화 대면교육 적극 실시로 전년 대비 교육훈련비가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역량강화 노력으로 인정됨.
- 연구직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평가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타기관에 비하여 차별성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훈련비의 집행실적에서 비연구직 교육훈련비가 다소 낮은 편이며, 또 연구직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액한 반면, 비연구직은 그렇지 않아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규정을 관련 법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원 대외활동 관리체계의 명확성이 확립됨.

- 직원대외활동요강에 따라 분기별로 전 직원 대상 대외활동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대외활동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추후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복무관리체계 강화 노력을 기울임.
- 포털 내 대외활동 내역조회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별로 홈택스 조회내역과 비교를 통해 대외활동 신고내역 자체점검 실시 시스템을 마련함.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및 조치가 이루어졌고, 기관 자체 정기 및 비정기 감사를 통해 근무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외활동 신고 체계화 및 명확화를 규정 개정을 실시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의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함.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대상자 심의, 선정, 결과보고 관리 등 관련 제도가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 KDI 학술파견시행규칙에 따라 연구과제기획위원회의 연구과제 심사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연구보고서 작성과 국내외 저널에 발표해야하는 질적 요건을 구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 선진경제이론 습득을 위해 학술파견대상기관을 KDI 이상의 질적 수준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장려하는 것은 연구연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특히 비연구직에 비해 연구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간편신고시스템 마련 등 기관 차원의 구체적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연가저축제가 도입되었음에도 개인별 연차휴가 소진율이 100% 소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안식년 종료 후 학술지 게재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외 학술지 게재 시기를 명확히 하기 어렵더라도 제출시기에 대한 범위를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유연근무제 운영 9년차에 따른 제도 정착화 및 유형별 선호도 파악, 증감현황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KDI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유연근무제가 실증적으로 업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관 차원의 연구 및 분석을 건의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남성직원에게 대한 배우자 사산 휴가 규정을 신설함.
- 생애 주기별로 일·가정 양립의 제도 체계화가 우수하며 육아휴직 실적이 매우 우수함.
- 태아검진시간 신청 시 대상자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 대상자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육아시간 제도가 없는데, 실제 수요가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수요가 없더라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사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일·가정 양립 단계별로 나누어 제도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올해 규정이 정비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인력 증감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비정규직 인력운영이 비정규직 근로형태별(한시 사업, 대체인력,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등)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동일한 수준에서 차별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 복리 후생적 측면 등에서 차별없이 개선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인력의 전환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노력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비정규직 석사와 학사의 업무가 학위에 따른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임금책정 시 관련 전문성을 반영한 임금수준 관리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임금피크대상자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으며, 퇴직자 활용제도 개선TF를 통해 연구기관특성을 고려한 운영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기존 업무와 차별성이 떨어지며 신규채용자에게 관련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전수 등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 부응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규정 정비, 부동산신규취득제한, 이해충돌방지, 징계강화, 연구윤리 등 윤리경영 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문의를 접수 및 검토하는 부동산 점검반 상시 운영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으며, 특히 '22년 5.19일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부동산취득제한 내부규정을 제정하는 등 현행화를 위해 노력함.
- 클린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옴브즈만 2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견제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인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채용비리예방교육, 갑질방지 교육, 연구윤리 교육 등 윤리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가이드 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함.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공정성 강화,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내부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채용비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정립하여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반 채용시스템 운영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직원이 숙지해야 할 부정부패 관련 법률제도 이해와 청렴습관 강화를 위한 청렴 및 부패 방지교육을 실시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고객 대상 신고 채널 창구를 다각화하여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신고 창구 외에 갑질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 창구를 추가로 신설·운영하여 외부민원인의 접근성 강화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채용비리 상시감사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을 갖추었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수의계약 업무기준을 개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불공정요인을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불공정 거래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권경영의 의결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시켰으므로, 향후 운영 실태를 살펴 규정에도 정기적인 회의개최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 외부 옴부즈맨 제도를 구축하고 신고 제도를 일원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특별채용 요건에 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윤리경영체제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과 성희롱 징계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교육이수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전 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다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기본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준에 머물러있고,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 이수자의 직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이수율을 높이기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함.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특성과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처리 사례발생에 대한 특별 직원교육이나 외부음부즈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발방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사례 발생 시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실적을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은 법정의무이수율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수율 10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권고함.
- 금품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양형규정이 정부 행동강령표준안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개정이 필요함.
- 채용시스템 운영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청렴한 채용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징계시에만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인사규정 및 임용규칙에 특별채용규정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최근의 정부 채용가이드라인 반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친인척채용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최근 분기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음. 분기 주기로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정부의 갑질근절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부 기관들에 대해 갑질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갑질방지대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 실행·공개 및 구제절차 제공 등으로 인권경영을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구제절차 운영에 대한 실적 제시가 미흡함. 구제절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실적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계획이 하반기에 수립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소한 상반기 내 인권경영계획 및 인권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22년도 청년인턴 27명 채용으로 당초 계획인원 14명 대비하여 초과 달성한 점은 긍정적임 (193% 달성, 중도퇴직자를 감안 시 129% 수준).
- 배정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업무실적 평가, 멘토 및 부서장 피드백을 실시하여 성과 피드백을 제공 (1회/반기)한 점은 우수하다고 평가됨.
-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교육지원 및 채용우대 조치 등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인원 41명 기준 여성이 68.3%(28명)로 전년 60.5% 대비 7.8% 상승함.
- 전반적으로 여성인력 채용 실적이 우수하고, 신규 채용 여성 28명 중 경력단절 여성 3명 채용하는 등 여성 인력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및 노력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유연근무 등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연도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2년 52.2%(목표 41.7%), 2021년 49.7%(목표 41.0%), 2020년 49.6%(목표 40.3%)로 목표를 초과 달성함.
- 22년도 신규관리자 31명 중 총 13명의 신규 여성보직자를 임명함.
- 하위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한 여성의 비율은 78.9%로 작년 75%에 비해 3.9% 상승함.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었고, 직원과 부서장의 참여 정도와 기관장의 전 과정 교육 이수가 확인됨.
- 교육담당 부서에서 전 직원 교육 이수 독려 및 수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이 필요하며, 지속적 목표에 대한 구체적 적시도 권고함.
- 양성평등 필수교육 외 고도화되고 다양한 교육을 발굴 및 실시를 권고함.
- 2022년도 교육 참여율은 기관장 포함 전 직원 82%, 부서장 참여율 82% 수준임. 이는 평가 기준인 7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10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권고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2년에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장애인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함. 예를 들어, 장애인 채용 데이터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도서실 서가 정리)를 발굴하여 자폐성 장애인을 배치하고 있음.
- 또한, 세종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장애인 고용형 카페로 위탁운영 전환하며 사내 복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장애인 구인 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제정,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로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에서 5%의 가점을 부여한 점은 긍정적이며, 실제로 2022년에는 중증장애인 6명, 경증장애인 1명을 신규로 채용함.
-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2022년에 국가유공자 3명을 채용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명문화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고용계획서를 마련하여 충남동부 보훈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이 3.5%로 의무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장애인 고용이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안정성이 낮은 직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 차원적으로 적합 직무 발굴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1.6%로 정부권장기준에 매우 미달하므로, 전향적인 인력수급계획 및 특단의 노력으로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고용 규정은 마련되어있으나 국가유공자의 우선 구인활동 노력은 아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24건에 대해 21건 완료하고, 2건 추진 중, 그리고 1건은 향후 반영으로 개선노력이 우수함.
-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고용계약제를 폐지하였고, 감사교육의 내실화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점은 긍정적인임.
- 감사실 전담인력 3명으로 감사인력 교육 이수시간 총 174시간이고, 교육 내용 등이 충실한 점이 우수함.
- 비상임감사를 포함한 자체감사시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협동감사 제도 강화 등 새롭게 요구되는 감사관련 제도 반영 및 감사기능 선진화 도모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감사 관련 온라인 교육 실적 10회를 원내 포탈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된 점과 감사 수감부서인 행정담당 부서장들과 감사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 점은 긍정적인임.
- 일상감사 시스템, 법인카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점이 바람직함.
- 사전 예방 목적의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내부 기안 및 지출 결제에 대해 감사실의 사전 일상 감사 실시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감사 시 연구기관 연구진 투트랙 제도개선을 위해 지적사항을 받았지만, ‘향후 구성원간 의견 조희 및 수요조사 후 제도 개선방안 검토로 향후 반영’으로 되어 있는 점은 실질적으로는 미이행으로 볼 수 있어 조금 더 신속한 개선 조치를 권고함.
- 감사관련 집체교육 4회 실적과 온라인 10회 실적이 인정되지만, 실제 교육 이후 전문성이 강화를 위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건의함.
- 국무조정실 채용실태 조사에서 22년에 채용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적정 1건, 21년 외부심사위원 미포함 1건, 19년 응시자격 부적격자 채용과 가점 미부여 및 채용부서 부적정 변경 등에 대한 외부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점이 있어, 내부감사의 사전예방 강화 관점에서 관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또는 해당 부서 및 취약 부서에 사례집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해 사전예방 성과를 관리해 볼 것을 건의함.

-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전직원, 신입 fellow,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 이후 현업적응도 등 교육 효과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참여율 제고와 온·오프라인의 균형있는 접근 방법 마련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9. 한국교육개발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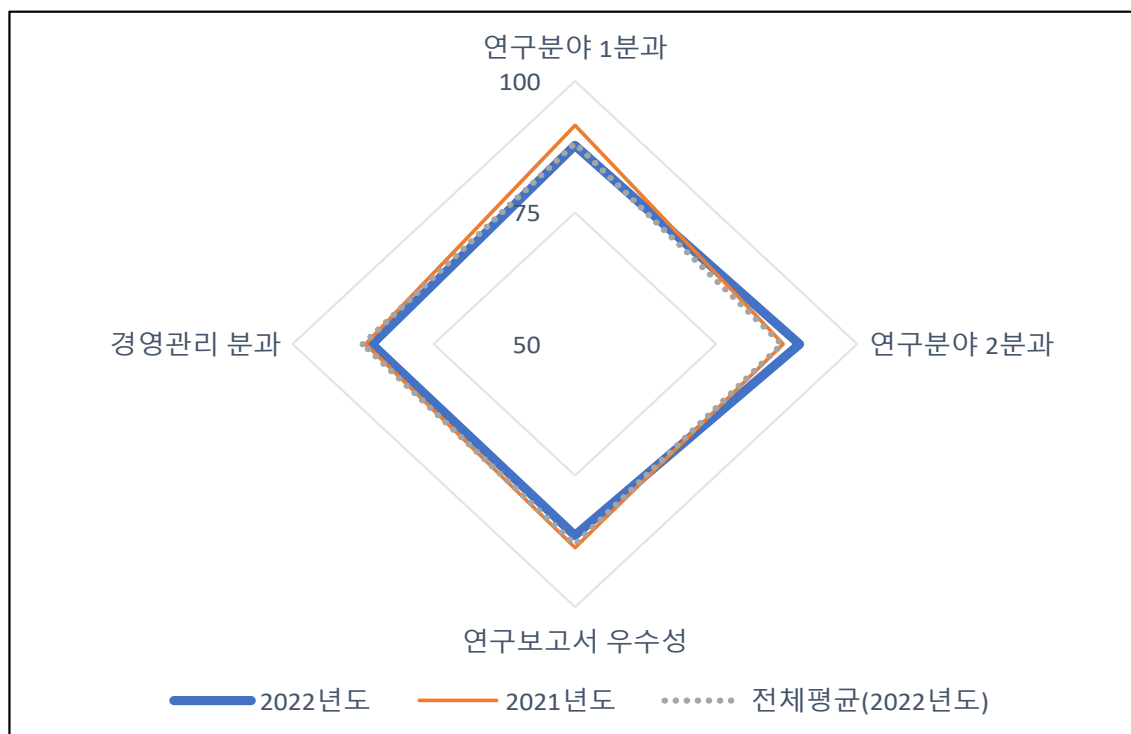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C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S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S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A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C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A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내부 구성원 간 협력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두 트랙 자체점검 시스템 구성 운영으로 연구 및 생명 윤리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함.
- 방과후 돌봄 정책의 정책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며, 정책연구, 협의회 운영, 입법 및 정책화 노력, 전문가 지원, 현장 요구 대응, 정책 홍보 및 확산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향후 돌봄 교실의 운영 및 정책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재정 및 교육안전망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정부부처 제안 연구과제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의 구성 및 체계가 명료하며, 내용의 구체성·현실성·체계성이 높음. 관련 정부 부처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개선에 연구과제가 활발하게 반영되는 등 정책화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다만, 정책대안-정책화 과정-정책화 실적의 유기적 관련성을 높이고, 법령 제·개정 등의 입법화 관련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음.

[경영 분야]

- 50주년을 맞이하여 기관의 미래비전을 교육데이터 강국으로 설정하고 교육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장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 KEDI 정책 씨앗연구 트랙을 신설하여 연구직의 전문성, 자율성 기반의 정책연구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함.
- 참여형 경영의 관점에서 구성원과의 소통 노력이 있었으나, 구성원들의 수용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분석이 요구됨.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대외활동의 사례를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년도와 차별화된 맞춤형 조직운영 노력 실적이 다소 부족함.
- 전체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검토와 중장기 계획과 실적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공급망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갑질실태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갑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체 감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 감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감사교육의 다양성과 참여율 제고, 효과성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대내외 환경을 PEST 거시환경분석, SWOT분석, KEDI Research Agenda 등을 통해 연구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성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함.
-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은 KEDI Research Agenda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기획하였음. 거시적 연구 및 정책환경변화에 대해서 STEEP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음.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으로 연구수요를 조사하였음.
- 정부부처·국회,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전문가, 학교 등 교육현장, 학생·학부모·대국민, 국제네트워크 유관기관 등 대상 연구수요 모니터링 및 협력을 통한 기획을 수행하였음.
- 정책연구협의회 4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61회 실시하여 10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대상이 주로 교육부에 한정되어 있어 다각적인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그 범위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확대함.
- 정책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부모의 의견 수렴 및 연구수요 모니터링을 강화함.
- 다양화된 정부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회 개최를 확대하여(총 61회) 10건의 과제를 발굴함.
- 정책현안 대응형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음.
- 브리프 24종, 정책동향분석 12회, 이슈페이퍼 23건, 수시연구 19건을 수행하였음.
- 초등돌봄 및 전일제교육, 대학 규제혁신 및 자율성 강화, 교육재정 구조개편 이슈에 대응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국민 대상으로 능동적이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교육정책 관련이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야함.
- 각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와 일반국민대표 등 참여를 늘려야 함.
-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 선생님,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연구 이슈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야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전년도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빅데이터 분석(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정책환경 변화 분석 및 과제발굴을 통해 연구기획의 전략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12.7%로 30%를 초과하지 않음.
- 기본·일반연구과제는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를 발굴하였고, 국가 및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KEDI Research Agenda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음.
- 2023년 중점연구사업은 KEDI Research Agenda에 부합하는 5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일반과제에 비해 인력 1.44배, 예산은 1.53배로 배분하였음.
- 협동연구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원내와 타분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원내에서도 타전공끼리 협동연구진을 구성하도록 하였음.
- 기업정책, 산업정책 관련 협동연구의 확장성을 고려해 보라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산업연구원 등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한 협동연구 기반을 조성함.
- 협동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2년 75개 과제 중에 38개 과제를 협동 과제로 수행하였음.
- 교육분야 6개 국정과제 외 타부처 12개 국정과제를 반영하였음.
-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15개 중에서 8개 과제가 정부부처 제안과제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데 있어 교육은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대국민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국민들과 좀더 연구발굴에 적극적이어야 함.

- 기존위원회에도 대상과 세대 등을 보다 폭넓게 넓힐 필요가 있음.
- 교육부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타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동료 심의평가 시스템 도입과 공동연구 장려 및 인센티브(근무평정 중 10%에 해당하는 활동점수 평정) 부여로 내부 구성원 간 협력 및 협업 활성화로 모든 과제에서 공동연구진 협업을 달성하고 부서 간 협업과제 비중을 전체 과제의 58.6%로 확대함.
- 협업 활성화를 위해 동향분석 점검회의, 연구방법론 공유·학습을 위한 연구콜로키움 등 다양한 보완 시스템을 가동함.
- 외부전문가 참여 과제 비율을 전체의 50%로 확대. 과제당 평균 약 7.2명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유도함.
- 수시연구과제 유형을 정책현안형과 정책씨앗형으로 구분해 기획·발굴 과정을 이원화함.
- 수시과제 수행의 특정 본부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시과제 수행 연구진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배정함.
- 연구경력이 많은 고참 연구진을 중심으로 과제별 정책제언 집중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연구의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함.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함으로써 미성년 아동인 초중고학생의 권익을 보호함.
-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보고서가 적절한 기간 내에 발간되고 있음(100%).
- 협동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협동연구 수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 특히,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사업은 개도국 교육관련 정부부처와의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함.
- 협동연구 분야가 기본·일반·수시·수탁 등 과제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음.
- 협동연구의 성격에 따라 특화된 네트워크 방식과 운용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단체 등과의 융복합협동, 학교현장과의 현장협동, 학계와의 학술협동, 국제기구 및 해외국가와의 국제협동 등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도화함.
- '22년도 전체 연구과제 75개 중 38개 과제(45.5%)를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하였으며, 연구유형별 협동연구 플랫폼을 운영하여 현안 이슈와 관련된 성과를 남김.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협업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책임소재 불명확 및 무임승차 문제 발생에 따른 내부 구성원 갈등 발생) 발생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관리체계가 5단계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수시연구가 연구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단계를 일반적인 체계 구분을 참고해 3단계 정도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제별 정책제언 집중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의 전수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신진 연구진들에게는 연구자율성의 제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바,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 학습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학습조직에 대한 운영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습조직 참여하는 개인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 유인체계는 없는 바, 인사고과에 일부 반영하는 등 유인 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참여비율이 20.5%로 저조한 편인 바, 외부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참여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협동연구 수행 비율이 전체 연구과제의 45.6%로 저조한 편임.
- 협동연구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기관이 연구기관의 성격상 주로 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협동연구가 지향하는 충분한 융복합 효과 발생 미흡해 보이는 바, 산업계·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두 트랙으로 자체점검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생명윤리 자체점검 시스템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가장 선구적인 모델로 향후 모범 사례가 될 것임.
- 원내 연구윤리 자체점검단과 외부점검단이 역할을 나누어 연구수행단계별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촘촘히 체크하고 있으며, 연구 및 생명윤리 점검단의 조치사항에 타당성이 인정됨.
- 직원 국제 학술활동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해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함.
-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관련 세부 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 및 생명 윤리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함.
- 연구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윤리 관련 사례의 공유를 통해 연구윤리역량을 강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연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해 제시한 연계관리 모델에서 여전히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무조건 연계하려는 노력을 펼치기 보다 먼저 연구윤리와 생명윤리가 상호 연계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전개할 필요 있으며, 생명윤리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연구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구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 점검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연구기획실로 지정하고 기획실 내 연구윤리 담당자- 연구기획실장-부원장으로 연결되는 계서적인 검토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상 연구행정체계와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상시적 조직으로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해내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거나 아니면 연구과제별 혹은 연구단위별로 내외부 연구윤리 담당자를 지정해 전담하게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원외 연구윤리 점검단 구성 시 연구책임자가 외부점검위원을 추천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점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제3자나 위원선정위원회 같은 공식 조직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43건의 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점검의 결과 2,167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특히 위변조, 표절(중복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표기가 630건에 이른다는 것은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윤리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관 구성원의 연구윤리의식이 해이하거나 연구윤리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기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연구 및 생명 윤리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한 성과(예: 클린기관 선정 등)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연구 및 생명윤리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많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려는 기관 차원의 노력은 부재해 보임.
- 최근 5년간 클린기관에 1회 선정되는 등 연구윤리 분야에서 관리 성과가 매우 저조한 편인데 연구윤리관리 체계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교육은 4회 실시하고 있지만 직능별, 직급별 특화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못한데 특히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규입사자 대상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신규입사자에 대한 집중 연구윤리교육이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교육 참여율이 50-70% 정도로 저조한 편인 바, 연구윤리교육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기관 창립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연구성과 확산을 기획하고 수행하였으며 그 실적이 우수함.
- 5C(Consumer, Core activity, Channel, Contents+, Customizing) 전략 및 정책수요자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One source, multi-use(OSMU) 활용한 점이 돋보임.
- 연구성과의 홍보 확산 계획수립이 적절하고, 연구성과의 정책화, 시너지 강화, 교육현안 진단 및 대안제시의 연구성과 홍보, 확산 전략 및 실행계획이 우수함.
- 국내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성과발표회, 홈페이지, 전문자료 발견, 뉴스레터, 다양한 SNS 활동 등 연구성과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실적도 지난 3년 평균대비 우수함.
- 학술행사는 국내 174건, 국제 46건을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함.
- facebook, youtube 등 SNS 활용실적이 우수함.
- 22,731회의 연구자료 배포 및 23건의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발표실적을 보임.
- 연구성과물 다운로드 실적인 2021년 34,704건에서 36,878건으로 증가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 학, 연, 시민단체와의 협력 실적이 우수하여, 정책수요자와의 대내,외 소통 및 협업정도가 우수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 수립이 우수하고, 실적이 우수함.
- 국내 홍보는 홍보자료실, 국외홍보는 글로벌 협력실로 업무분장 체계가 적절함.
- 국제협력의 의의로 글로벌교육의제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선도, 우리나라 교육우수성 및 영향력 증대로 설정하여 적절함.
- 최근 3년 실적대비, 2022년도글로벌 협력 연구사업추진 실적, 업무협약, 국제 공동연구 수행 및 발굴, 국제행사 개최실적이 향상됨.
- 한국의 교육통계의 우수성이 높음.
- MOU 유지건수가 높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문자료, 뉴스레터, 유튜브, 이슈페이퍼 발간, 기타 연구성과물 배포 등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지 않음.
- 보도자료, 칼럼 등을 통한 언론홍보활동은 강화되었으나 KEDI Brif 게시실적은 '21년에 비해 1건 늘었음. 보다 질적, 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총 94건의 연구과제가 NKIS에 등록되어 등록률이 100%임.
- 66명 1.01건 연구실적을 통한 확산실적이 우수함.
-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수행 강조하고, 연구원이 축적하고 개방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협력 활동 추진사례가 우수함.
- 유관기관 보유데이터 및 본원 데이터 간 연계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2건을 실시하였으며, 성과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데이터 연계·제공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에 힘쓰고,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협력 활동 추진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 및 구현 구체화 실적, 대국민 의견수렴에 따른 현장 의제 중요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함.
- 학생중심 교육복지 및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기반 조성을 통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육·돌봄의 통합 제공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제정에 기여함.
- '22년도 국정과제 121건을 수행하고, 정부부처 수행 국정과제 108건에 참여하여 관련 법률 시행령 제개정 및 국가 정책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기여하였음. 121개 수행 연구과제 및 사업수에, 인력 1,160명, 예산 630여 억원이 투입 배정되었으며, 기관의 특성 및 과제의 성격 규모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
-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의 국정과제 84. 초등 전일제교육 구체화 및 구현 정책에 기여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연구주제를 국정과제 대표사례로 제시하고 있고, 코로나 19이후 격심해진 교육 격차와 돌봄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84의 내용과 절 연계되어 있음.
- KEDI POLL 조사결과에 기반한 대표사례 선정 방식, 선정 이유 등이 설득력 있고 적절함.
- 방과후 돌봄 정책의 정책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며, 정책연구, 협의회 운영, 입법 및 정책화 노력, 전문가 지원, 현장 요구 대응, 정책 홍보 및 확산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향후 돌봄 교실의 운영 및 정책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사업의 성과로 제시된 정책연구 수행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책방안 제시가 정책으로 반영된 성과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22년도 연구 및 자문 성과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3개 영역의 입법성으로 연결시키는 등 입법·제도화 노력이 우수함.

- 연구사업 전주기에 걸친 지속적 정책화 모니터링을 위해 전사적 교육정책 동향분석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전체 실센터가 격주간격으로 담당 분야 정책동향 분석 공유 및 연구사업의 정책화 정도 모니터링, 공유하고 있음.
- 정책동향 및 정책화결과를 수행중인 연구사업에 반영·환류하여 전주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대국민 정책수요 파악과 환류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해 학생/학부모/대국민 대상 의견 반영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한 노력이 돋보임.
- 연구수행 과정에 정책기여도 강화 위해 기관 내부 구성원 간 학습조직 구성·운동을 활성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이 이미 수행한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조직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정책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 방식과 반영 비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긴급 연구 및 정부부처 현안과제 연구의 성과 설정에 있어 ‘기초자료 제공’, ‘활용방안 제안’ 등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입법, 제도화, 정부 지침 마련’, ‘정부 정책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함.
-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 관련 이슈, 교육재정 및 교육안전망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긴급과제,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식도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국가긴급과제 8개, 정부현안과제 27개의 이슈 선정 및 과제 발굴이 적정하고, 연구 및 비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하며, 그 성과가 입법 및 정책자료로 제공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17.8억 원) 대비 수시연구사업비 편성 비율 21.4%(전년도 12% 대비 상향 조정), 수시연구사업 중 정부 부처 제안 연구과제 편성비율 50.3%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
- 수시연구사업비 편성 비율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과제 발굴 채널을 정부부처 이외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시연구사업 편성 비율 제고 및 능동적 발굴을 위해 주요 정책현안뿐만 아니라 현안·이슈화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자체 발굴하여 수시연구과제 5건을 수행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 및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상설 전담 TF 신설을 요청함.
- 수시연구사업 중 정부 부처 제안 연구과제 편성비율이 50.3%로 전년도에 비해 49.7%(전년도 100% 반영)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비율을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정책대안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실행 주체별로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등 정책대안의 구체성·현실성·체계성이 높음.
- 온·오프라인 협의회,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술단체 등의 주요 정책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결과를 충실하게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함.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경우 정책화 기여를 위한 정책수요자와 소통 노력을 연구과정과 연구종료 이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함.
-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사업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정책화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를 위한 정책수요자 소통 노력을 교육부 중심에서 국회, 각종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 제·개정 등 정책대안의 입법화 지원 노력 및 실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의 실적보다는 정책대안의 정책화를 위한 정책수요자 소통 노력 및 실적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정책화 노력-정책화 실적의 유기적 관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대안과 정책화 실적의 직접적 관련성, 내용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사업단위, 기관 단위의 2단계로 구성된 사업계획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사업 집행 및 환류를 수행함. 특히, 세부사업별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 및 환류가 체계적임.
-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KEDI TV), 온라인 생중계, 메일링 서비스, 발간물 등 다양한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고객과 소통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하며, 그 실적이 우수함.
- 사업별로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목표 달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사업 효과성이 높음.
- 사업별로 정책환경, 현안, 요구, 성과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하였으며, 그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연차별 성과목표치, 결과지표(outcomes)를 설정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전반적으로 연구보고서가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가독성이 높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잘 확인할 수 있었음. 먼저 우수한 점의 경우, 결과 도출을 위한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광범위한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대학원 투자의 효율성 분석, 델파이,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협의회 등과 같은 다각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점이 돋보임. 일부 보고서의 경우 매우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구성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한 점이 우수함.
- 디지털 대전환시기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AI, 디지털, 에듀테크 등의 용어 등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으나, 맞춤형 교육의 핵심 중 하나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한 연구는 시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정책과의 연계정도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변화 역시 보고서 내용에 잘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 및 교육격차 문제 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교육안전망’의 담론을 다시 복원하여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생태체제적 접근 방식을 택한 부분에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안전망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한국교육중단연구의 경우, 해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의 특성을 벗어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성 있는 연구주제 설정과 그에 적합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노력이 돋보임.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시도한 점과 심층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성 발달 관련한 연구의 확대를 시도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다년 연구 과제의 경우도, 이전에 개발된 교육 양극화 지표 및 지수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 지표 및 지수를 개선하는 연구로서 가치를 지님.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연구의 시의성 등이 우수하며, 연구방법도 성실하게 잘 제시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극화 추이를 적절히 분석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함. 맞춤형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스마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가 충분히 제시되고 그것들이 본 연구의 결과와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하는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한 시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관련 연구에서도, 연구 기획 및 연구 진행 중에 핵심개념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봄. 일반적으로 학습자 중심에 대한 개념이나 접근에 따라 수월성과 형평성이 다르며,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도 다르고, 학교유형별 교육목표와 과정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가 보다 충실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의 경우, 보고서에 제시된 일부 개선 과제들의 경우 이미 대학현장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또는 개선과제의 방향성이 적합하지 않은 과제들도 있음. 따라서 정책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외에도, 고등교육은 일자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단계로서 다양한 측면으로 양극화 현황 및 그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데이터 셋의 한계로 인해 교육의 결과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완결성이 떨어지는 분석이 진행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연구의 경우, 연구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라는 전체 연구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모색한 본 연구 기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글로벌 환경위기, 포스트코로나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세계적 상황에 맞추어 지속가능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잘 강조하고 있음.
-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매우 거시적인 연구보고서의 경우, 대전환 시대에 당면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교육개혁 방안’ 수립의 기획은 독창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1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교육정책 방안들과 실행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그 시의성이 충분히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미흡한 점으로는, 방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다소 상황하게 기술(description)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높지 않으며, 주요 국제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중복적 인용, 세미나에서 사용된 보고서 물리적 연결, 소수 단독 의견이 청취된 FGI, 주요 국제 통계에 대한 맥락적 설명 부족 등은 해당 보고서의 한계로 인식됨. 또한 일부 분야의 정책방안들은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거나, 구체화가 부족한 한계를 보였고,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현장의 경험, 문제, 이슈 등에 대한 밀착적 접근 및 분석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50주년을 맞이하여 기관의 미래비전을 교육데이터 강국으로 설정하고 교육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장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됨. 기관의 경영목표가 신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함.
- 국내외 환경변화(STEEP) 분석과 내부역량진단(SWOT)분석 등 다양한 분석도구를 통해 깊이 있는 기관의 당면현안 도출하고 3대 경영목표, 9대 추진전략, 19개 실천계획, 35개 성과목표를 마련함. 당면현안-경영목표-추진전략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데이터전략실 신설하여 정책효과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플랫폼 구축함. 정책동향분석은 실센터 중심으로 실현하되 전사적 참여구조를 마련함. 대외협력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대외홍보 기능을 강화함. 청소년데이터패널 신규로 마련하고 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혁신 모니터링을 실시함.
- 경영목표-연구기관 평가 연계를 위한 성과관리위원회와 실천계획이행 및 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경영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을 위해 ‘기관 성과관리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 KEDI 정책씨앗연구 트랙 신설하여 연구직의 전문성, 자율성 기반의 정책연구 수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통해 경영목표1 130%, 경영목표2 111%, 경영목표3 106%를 달성함. 연구육구와 사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탁사업의 브랜드화(타겟집단에 대한 데이터분석, 성과관리)하는 등 연구와 사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주된 정책수요자인 교육부-교육청-학교, 국민(학생-학부모)을 포괄하는 방향성 및 성과지표 설계, 현장중심의 실행과제 이외 거시적 정책목표가 요구됨.
- 성과목표는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이전의 실적 추이를 점검하여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도전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1의 미래의제 및 난제 연구수행의 성과는 높으나 성과확산으로 연계되지 않음. 성과 실현 수단이 6가지로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수행과 성과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표특성에 따라 정량성과목표 이외 정성성과목표의 경우 달성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지표가 논리적으로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산출지표로 제시되는 등 지표의 적합도와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위원회와 TF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능과 역할, 환류체계를 통한 개선계획 수립 등이 실질적인 성과개선을 이어지고 있는지 등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기관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함. 특히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함.
-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고, 참여형 경영을 위하여 소통을 활용하고자 하였음. 창립50주년 보고서작업에 구성원 참여를 독려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장이 소통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의무적 부담을 안겨준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공감대형성과 원장의 경영목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구성원의 애로를 가감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필요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분야별 대외활동을 적극 수행함. 특히 정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사회적 교육 공론화 등을 위한 대외활동이 돋보임.
- 기관운영 관련 사안에 관해 연구회와 긴밀히 소통한 점을 확인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대외활동의 사례를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모든 활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쌍방향적인 홍보 활동보다는 일방향의 대외 활동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특정 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집중적인 대외활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임.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데이터 기반 연구수행 체계의 강화: 교육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확대 및 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우수한 점〉

- 연구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돋보이며, 기관의 경영목표와 연관된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전사적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중점사업 선정과정이 우수함.
-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및 관리 고도화를 위한 인력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우수함.
- 사업수행체계에 투입된 기관장의 노력과 유사한 수준의 사업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성과 확산 역시 우수하게 진행됨.
- 데이터 기반 연구수행 체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전략실 등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기반 연구사업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승인통계산출 기관으로서, 통계사업비의 출연금 전환 노력 등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 교육현안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연구를 연계시키고자 노력하고, 전략실 신설, 전담인력 배치 등을 실시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달성도 보임.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11 및 82, 84와 관련하여 데이터기반 연구수행 체계를 강화하고, 국정과제 11과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 정밀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국정과제 84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과 연관, 국정과제 82는 기초학력 제고, 융합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에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플랫폼기반 마련을 통한 성과 확산 방법이 좀 더 다변화되기를 기대함.

(2) 글로벌 교육협력을 통한 K-EDU 성과 확산 체계 마련

〈우수한 점〉

- 국제협력실과 글로벌개발협력실로 과도하게 확대되어 업무중복성 소지가 있는 조직을 글로벌 협력실로 통합한 조직 합리화 노력이 포함되며, 이 체제하에서 국제기구, 국외기관과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임.
- 원내 TF를 구성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 참여 내실화를 통해 K-Edu 성과를 내고자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 교육형평성, 디지털, 증거기반 정책 등 세 가지 내용을 핵심 주제로 강조하여 추진함.
- ASEAN 국가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OECD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6종의 발간서를 기획발간하고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음.
- OECD 교육연구사업 모니터링 위원회 및 국제협력위원회 구성, OECD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UNICEF SEAMEO 및 개도국 협의체 구성, ADB 프로젝트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글로벌 교육협력과정에서 K-EDU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주도적 어젠다 제시 노력이 유지 및 강화되어야 함.
- 발간자료 전달 등 단순 성과 확산보다는 해당기관이 연구개발한 우수한 K-Edu 콘텐츠와 해당 교육정책을 확산하도록 하는 노력의 유지강화와 해당 성과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글로벌 교육의제 관련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일반사업 수행 결과는 현재 국제기구 제안 예정 중에 있으므로 향후 관련된 구체적 성과 도출 노력이 요망됨.
- 성과확산 대상국가 및 해당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집행하는 구조가 미흡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 환경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과 경영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연구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임.
-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개인·부서·조직의 성과를 관리 및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당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노사 협력 및 상호 증진을 위한 노사 간 소통을 활발히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도와 차별화된 맞춤형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이 부족하므로, 2022년도 경영환경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기관의 조직운영 노력 및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서의 주요업무 외에 조직운영 차원에서 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굴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추진에 따른 성과 또는 효과의 구체화 및 관리를 통해 조직운영 노력과 실적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에 대한 타당성·효과 등 밀도있는 분석으로 향후 조직운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주1회 개최되는 기관운영회의는 1개의 실천과제 성과를 점검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적인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중간 성과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객관적 평가 지표를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성과 모니터링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서 단위에서 성과 관리 외에 조직 차원에서 기관 전체의 성과를 관리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외에 국민신문고, 기관운영회의, 노사협의회, 직종별 기관장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충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있는지가 모호함.
- 접수 채널의 다양성 강화보다는 고충을 접수하고 기관에 제기하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고충처리의 일관성과 표준성 약화가 우려됨.
- 고충처리위원회 중심으로 기관의 고충처리 제도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고충처리에 대한 직원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사 협의 외에 노사 상호 신뢰 증진 등을 위한 의사소통 실적이 다소 부족하므로, 익명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노사 간 양방향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고충 접수 채널을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비연구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연가를 마련하는 등 기존우수인력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생애주기별 교육운영체계를 정립하여 훈련 대상별 교육을 실시함.
- 교육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차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환류체계를 강화한 것은 교육 연수 결과의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 보완 측면에서 긍정적임.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성과 비율이 60%이고,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 노력으로 비연구직의 계량 항목을 20%로 상향함.
- 온라인 업적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적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복무평정의 다면평가 실시, 원내·외 활동의 계량지표화를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및 인력운영 체계에서 정원 및 현원 관리의 실질화를 통해 정원을 적정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반적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노력의 제도가 미흡하며, 국내외 신규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과 다양한 채널 활용 등 적극적인 채용 노력이 요구됨.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의무교육 이외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교육훈련비에서 연구직은 상승하고 비연구직은 하락함으로써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교육 훈련비의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비연구직의 교육훈련비 집행이 줄어든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들의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완결성있는 평가제도가 구축되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업적평가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직원 대외활동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하는 등 관리 강화 노력을 기울임.
-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및 정기감사 등 근무 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짐.
-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제도에 따른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를 통한 근무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음.
-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월저축된 연차휴가는 3년간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소진율이 99%에 달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활용 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라 복무점검을 강화함.
- 안식년 제도의 규정이 체계적이며, 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함. 노사협의회를 통해 연구연가 선발 인원을 5%에서 7%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구성원들의 자기계발과 기관의 후생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비율이 매우 높아, 연구직과 비연구직에 대한 대외활동 신고 관련 교육 및 홍보, 간편신고시스템 구축, 대외활동지침 개정사항 및 대외활동 위반사항 제재방안에 대한 주기적 교육 등 대외활동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함.
- 2021년에 연차유급휴가 제도 부적정, 유연근무제 복무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 권고사항이 발생했음에도, 2022년 정기감사 시 복무 관리 부적정이 다수 반복되고 있어 지적된 복무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기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 예정인 사항들에 대해 신속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일하는 방식과 연구 집중시기를 분석하여 체계화 하는 등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연구연가 종료 후 심사기간을 포함한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학술지, 국내학술지를 나누어 현실적이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적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연수 종료 후 일정기간 내 결과보고서나 연구업적물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재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학술대회 논문 발표, 학술지 논문게재,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 전문서적 등은 연구업적물의 난이도 정도가 상이해보이므로, 업적물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분할 사용 규정, 난임치료 휴가일 수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 육아휴직 실적이 우수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가정 양립 단계별로 나누어 제도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 노력이 필요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최초로 비정규직원 대상 설문을 실시한 실적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확대로 비정규직이 전체인력의 58.7%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반드시 필요한 직군이나 사업이 매년 늘어난다면 기관차원에서 수탁사업의 안정적 예산이나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고 중장기적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의 상시적 지속적 인력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 무기계약직 전환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에도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검토와 기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개선하지 못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임금피크대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퇴직자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 중임.
- 별도정원 신규인력 4명 채용을 통해 연구 및 행정분야 조기 인력보강으로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보고서 수행 규모를 줄이는 방향 외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업무경감기준과 다양한 직무 개발 및 퇴직준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신규입사자와 연계 등을 고려한 직무재설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대상자, 별도정원,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부족한 자원마련에 대한 기관차원의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으며, 특히 이해충돌방지, 연구윤리, 채용비리방지, 불공정 거래방지 등 다양한 윤리규정을 적극적으로 현행화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온라인 고충신고센터와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고충·인권침해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신고센터를 정비하였음.
-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입사자 등 특정인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전직원의 교육실적이 매우 우수한 편임.
- 전 직원 대상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시하였고, 성범죄 등 폭력방지 교육이 적절히 실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수율이 높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일상감사, 클린센터,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내부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특별채용 규정을 삭제하고 친인척 채용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긍정적임.
- 중장기 인권경영 추진전략 수립 및 전 직원 온라인 인권교육 실시, 인권경영의 경우 손쉬운 실천 내용 등을 공개하여 직원들에게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정됨.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였고, 인권침해 사안별로 인권리스크 관리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임.
-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원장을 참여시켜 의사결정력을 확보하였고,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켰으며, 연2회 운영으로 실효성을 확보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교육, 대외적인 갑질 및 불공정 거래근절교육, 채용비리예방교육 등의 관련 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특성과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실적도 관리해나가기 바람.
- 4대 폭력예방을 위한 참석율은 높으나 연구윤리교육 등 연구기관에 필요한 교육시간에 대한 홍보와 참석율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온라인 고충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청탁금지 방지시스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함.
-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관련 교육은 1번에 그치고 있으며 관리자의 참석율이 34%내외의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옴부즈만제도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인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윤리경영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활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실적을 제시하기 바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공급망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갑질실태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갑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진행 중이나 일반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채용비리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친인척채용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함.
-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채용공지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규직임용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함.
- 인권경영계획 수립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도 상반기로 시기를 당김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구성 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인권영향평가결과 기관운영지표 214개 중 긍정답변이 159개이고 '해당없음' 답변이 53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영향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해당없음' 사항을 재검토하고 기관 특성에 맞춰 체크리스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항목(성차별적인 제도개선,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외부 고객 등)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2022년 청년인턴 총 16명 채용으로 배정인원(5명) 대비 320% 청년인턴 고용을 달성함. 특히, 청년 및 중증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노력과 결실을 이룬 점은 긍정적임.
- 연구인턴 비율이 '21년 13%에서 '22년 18%로 향상된 점은 긍정적임.
- 신규로 인턴직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인턴 직원 임용자 교육, 멘토 교육, 선배인턴 취업 특강, 조직적응교육 등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신규채용 중 여성인력 50%(12명 중 6명)와 전체 직원 중 여성인력이 65.4%(355명)인 점은 긍정적임.
- 여성보직자는 21년 45.9%(17명)에서 22년 51.4%(18명)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22년 승진자 16명 중 13명(81.25%)이 여성이며, 나이, 직종과 관계없이 성과 중심으로 승진을 결정한 점은 긍정적임.
- 채용전형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형 단계별 여성위원을 필수 포함함.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편견 개입을 방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관 전체 보직자(35명) 중 여성인력 51.4%(18명), 남성인력 48.6%(17명), 여성인력 신규채용에서도 12명중 6명을 채용하여(50% 유지), 양성 평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대외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에서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 모두 “적정”으로 평가받은 점은 긍정적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보직자 4대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점은 긍정적임.
- 교육이수과정에 기관장은 모두 참여하였으며, 구성원 및 부서장들의 참여도 높은 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 자체의 연도별 여성보직자 관리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기관 내 여성인력 비중이 높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기관 내에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을 권고함.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실적이 다소 미비하므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정부 합동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기획재정부 기관별 여성고용 확대 계획,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을 참고하여, 타당한 기관 자체의 여성관리자 목표관리제를 설정하는 등 장기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여성 보직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수립을 권고함.
- 양성평등교육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화와 심화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구인 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제정,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로 전형단계별 10%가점을 부여하고, 22년도 제한경쟁채용공고 8회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임.
- 22년 행정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중증장애인 7명과 경증장애인 3명 채용한 점은 우수함.
-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증가는 긍정적임.(19년 1.0%, 20년 1.2%, 21년 2.7%, 22년 3.0%).
- 국가유공자 채용단계별 가점 부여 등 우대 조치(전형단계별 가점부여)를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2년 제한경쟁채용 1회 공고게시 및 채용 노력을 통하여 비정규직 1명과 정규직 1명 채용한 점이 우수함.
- 기관 전 부서에 의무고용인원을 배정하는 등 장애인 채용노력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과 실적은 충분히 인정하나, 현 시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3.6%)에는 미치지 못함.
-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한 노력과 실적은 충분히 인정하나, 현 시점에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기준(6%)에는 미치지 못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서울청사 매각 건의 경우, 기관 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함에도 관련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함.
- 외부 기관 감사지적 사항 8건에 대해 6건을 추진 중과 2건이 완료되는 등 지적사항에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자격을 가진 감사전담 인력 2명이 확인되고, 연간 교육 이수 시간이 전년 대비 교육 시간이 증가한 점('21년, 57시간 → '22년, 71시간)이 인정되는 등의 노력은 우수함.
- 직제에 따른 감사소속으로 감사실 독립적 운영과 감사실 직원 배치 및 예산 편성 시 감사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공직기강 특별점검, 직원채용 전형감사, 클린신고 센터 및 청탁등록센터 운영, 외부강의 및 회의 신고 상시 점검, 기관운영회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등에 있어 신고대상이나 점검대상, 그리고 점검기관 등이 확인된 점이 우수함.
- 정기감사 실시로 인해 예산부당 지출, 대외활동신고 규정 미준수, 외부감사 처분요구/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처분과 감사 결과 내용이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기관 감사 지적 중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일부 '추진 중'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개선정도 완료에 있어 장애요인이 무엇 인지 제시하는 것도 필요. 또한 편람에 근거하여 완료 여부에는 추진 중에 대해선 비고란에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21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결과 14건에 대한 지적 권고사항과 개선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지속적 미이행 여부 확인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함.
-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한 노력은 확인되지만 여전히 구청사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체감사가 적발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를 제시할 것을 건의함.
- 감사역량 확보를 위해 기존 감사 사항 이행사항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연간 감사계획 수립에 있어 감사사항·목적·필요성·감사종류·감사실시기관·감사범위·기간·외부전문가 위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함.

- 감사부서 장의 독립을 위해 별도의 인사평가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의 성과평가체계 정립 및 운영 실적 등 독립성 입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법인카드 모니터링 대상에서 부적정 2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집 개발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모니터링 검출에서 22년 8월과 9월에 9.3%와 10.2%로 발생한 점은 평균 7.3%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중점 관리 시기를 설정하여 사전예방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년도 지적사항인 교육내용이 부패방지에 집중되어 있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이 부족한 점에 대해 생애주기별(신입-주니어-승진대상-부서장 등), 직군별 등 구분을 통해 1)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2) 교육 사전 사후 효과성 분석, 3) 교육 콘텐츠 발굴 또는 개선 등 선순환 체계로 관리할 것을 건의함.
- 감사교육 이수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교육을 통한 감사역량 강화에 있어 구체적인 변화나 현업적 용도 등 구체적인 교육 효과성을 제시할 것을 건의함.
- 21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및 외부기관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사항 통보에 제시된 내용에 일부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행여부와 추진계획을 관리할 것을 건의함.
- 자체감사 활동으로 1회의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지적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지만 1건은 일부만 조치 완료하여 나머지 완료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신속이 조치 완료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외활동 신고규정 미준수와 관련하여 ‘교육 및 안내 실시’를 개선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신고 미준수와 관리 부적정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기대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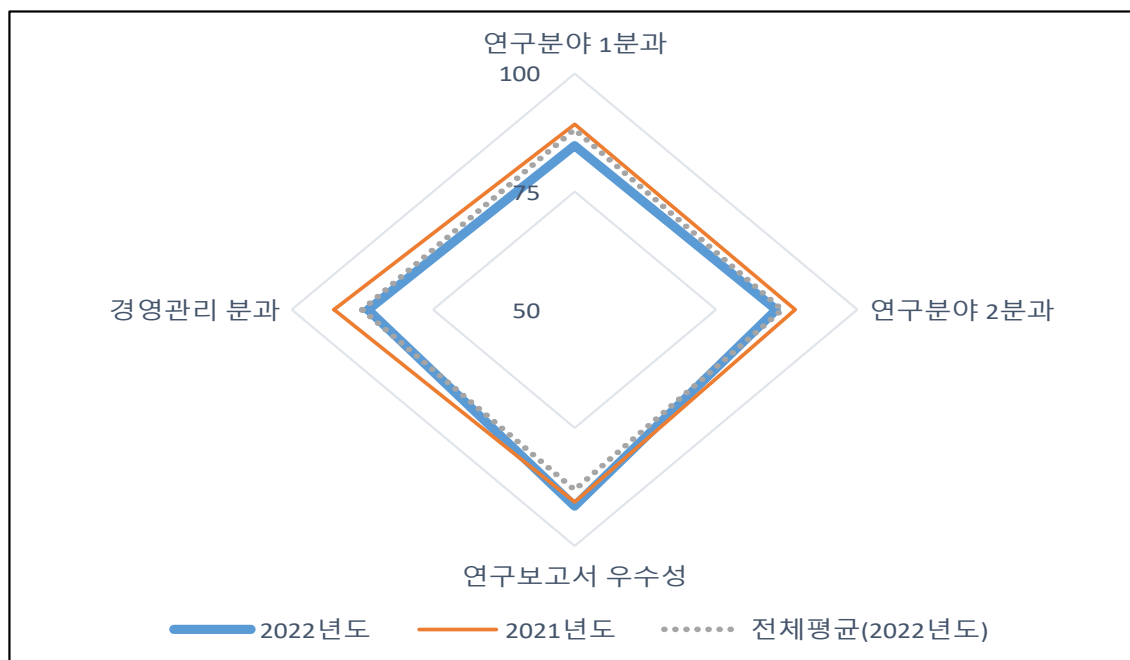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D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D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D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C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C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A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S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B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A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C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B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C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S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과제 예산 집행 관리를 위한 별도 경고(사이렌) 발령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수행 체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연구수행단계별로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함.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발표의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기여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 긴급수시 및 수탁연구 수행성과가 정부 종합계획에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사업 성과가 단순한 제안이나 자료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을 위반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국가 교육과정 및 평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론적 탐색과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화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초·중등 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특히,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국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음. 교육과정 및 평가와 관련된 이론 연구와 함께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되었으면 함.
-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평가 및 교과서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 맞춘 자체평가 시스템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환류 하여 교육 평가와 교과서 검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평가 후 환류 방안과 자체평가단의 조직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함.

[경영 분야]

- KPI 등 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질적 평가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강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 및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기간 중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비정규직의 규모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퇴직자의 전문성 활용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에 최고관리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인권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달성하고 배정예산 집행률도 우수함.
- 평정권자인 기본과제 팀장의 여성 임용 비율은 지난 3년간 60% 이상이었으며, 이와 같이 과제 수행 간 성차별 없는 능력 중심의 팀장 선정 및 운용 중인 점은 긍정적임.
- 감사관련 교육 이후 사후적인 관리까지 추가된다면 강화된 자체감사역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야별로 교육과 관련된 거시환경을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였으며(PEST 분석), 연관 기관, 단체 등의 동향을 분석해서 키워드 분석을 하고, 수요조사 및 협의회를 통해 수요자들의 요구를 청취하는 등 정책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정부 및 국회를 연구기획에 참여시켰으며, 산학연도 연구자문위원회, 공동학술대회 등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특히 학생과 학부모를 연구기획단계에서 수요조사, 온라인으로 포럼 및 세미나 진행, SNS 활동 등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점이 우수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음.
- 정책수요조사를 위해 정부부처, 국회, 산학연, 학생 및 학부모의 연구기획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가 총 421회 개최되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확대 구성하여 사업 선정의 적합성,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함.
- 토픽모델링 분석방법을 적용해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6개의 주제어를 추출함. 이를 토대로 중요도, 시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차년도 과제발굴, 긴급연구수행, 간행물 발간 및 포럼 등 개최하는 등 차별화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수요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의견 청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과제로 발굴하고 있으나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음. 반영되지 않은 의견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함.
- 미래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기초연구사업비 비중이 24.7%로 30%를 초과하지 않고 있음.
- 연구자문위원회를 대학교수는 물론, 국책연구기관, 교육청 장학사, 교장, 학부모단체 대표로 다양하게 구성한 점은 우수함.
- 연구사업 목표 부합성, 정책 지원 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 미래 교육 선도기능, 연구과제의 시의성에 따라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기본연구과제 23개중 7개를 선정하였음.
- 협동연구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원내와 타분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원내에서도 타전공끼리 협동연구진을 구성하도록 하였음.
- 과제 26개 모두 국정과제를 반영하였음. 국정과제81 100만 디지털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해소를 반영하였음.
- 기본연구사업비의 34.6%가 정부부처가 제안한 과제(8건)에 배분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국민연구기획위원회로 구성하여 100% 외부참여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문위원회에 위원구성에 있어 교수 11명, 교사 1명으로 되어 있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구성비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연구사업심의소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않는 점은 개선 필요함.
- 협력기관을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미래 트렌드를 조사하여 결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관과 협동을 할 것을 제안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회 규정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노력. 특히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해 예산집행률을 부서 성과지표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관리해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경고(사이렌) 발령해 주의 환기함.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내부 구성원 간 협력 및 협업을 강조해 총 179건 누적 참여 인원 1,270명이 협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함.
-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총 1,829건, 누적 참여 인원 8,789명의 협업 실적을 달성함.

- 연구 품질 관련 TF를 신설해 최종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함(윤문·교정 및 요약·제언 부분 검토에 주력해 연구보고서의 질 향상을 유도).
- 일반연구과제의 경우 100% 협동연구로 추진함(일반연구과제는 2개 과제로 매우 제한적).
- '22년 협동연구과제 수행실적과 예산비중이 증가하였음(34개 과제 3,0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백만원 이상 증가).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내부 구성원 간 협업 촉진을 위해 연구업적 평가 시 원내 활동 평가에서 협업 관련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협업의 수준이 단순한 회의 참여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연구자·부서 간 공동연구 등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협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 바, 내부 구성원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부여하는 평정점수의 규모를 적절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자의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장려하고는 있으나 참여실적으로 제시한 정책수요계층은 교육부나 교육 관련 공공기관(직능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민 일반이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대상의 다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다양화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수시과제 수행 실적을 KPI와 연동해 관리함으로써 수시과제 수행을 유도하고는 있으나 수시과제의 발굴-선정-수행-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시과제 관리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바, 체계적 관리에 한계 노정(수시과제관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수시과제 관리 조직을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연구과제소위에서 역할을 대체토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 강구할 필요 있음).
- 신설된 연구품질관리 TF에 팀장 외 내부 직원 10명이 참여하는 것은 성과 담보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외부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구성체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 수행 실적인 전체 수행과제 기준 45%에 불과하고 수시연구의 경우에는 3%로 매우 낮아 협동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바,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임. 특히 수시과제의 협동연구 비율이 매우 낮은 바, 협동연구의 형태로 수시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 있음.
-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 미흡(국내 건당 1점, 국제 건당 2점 부여).
- 협동연구 플랫폼의 산학연 플랫폼이 주로 학계·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계 참여가 미흡함(산업계의 정의가 모호함).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해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연구원 워크숍과 팀장 회의 등을 통해 연구윤리 관련 주요사항 논의 및 공유).
- 기관 자체의 자체점검기준 제시하고 연구보고서 관련 자체점검 절차를 명료화함.
- 41개 보고서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를 발견해 수정 조치를 완료함(연구진 자체점검에서 표절의심 15건, 연구윤리 자체점검 TF를 통해 표절의심 건 96건 적발).
- 연간 11번에 걸쳐 연구수행단계별로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윤리 교육에 매우 적극적임.
-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에서 연구윤리위반 의심사례 0건으로 6년 연속 클린기관으로 선정됨.
- 국외학술대회 발표 관련한 신청요건 강화하고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노력함.
-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자체점검TF,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연구품질관리TF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직을 구성·운영함.
- 연간 연구윤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진 자체점검에서는 15건, 연구윤리 자체점검 TF는 96건 표절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두 시스템 간 차이가 많은데 이는 달리 말하자면 연구진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내부 연구자와 외부전문가의 연구윤리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다름을 의미하는데 연구 원천 단계에서부터 연구윤리 위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연구진 자체 점검에서 발견되지 못한 사례가 자체점검 TF에서 확인된 경우 개인별 평가를 통해 가점·벌점 부여하는 등 자체점검 과정에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아니면 연구윤리 자체점검 TF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있음.
- 연구윤리관리 시스템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의 구성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음. 연구윤리 관련 점검 조직을 3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등 수평적 차원의 연구윤리 점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데 점검 조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조직의 체계를 효율화하여 기능적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대안적 방법일 수 있음. 기관에서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책임지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전체적인 연구윤리 관리의 체계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음. 연구윤리위원회가 독립된 상설 조직인데 사실상 연구윤리자체점검TF의 내부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부속 기관화되어 있고 총괄 기능은 부여되어 있지 않는데 연구기획실의 기능을 일부 이관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총괄조직화하는 방법도 적용 가능함.

- 연구윤리 관련 교육 빈도는 높은 편이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자체점검TF 외에 연구윤리 관련 외부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바, 연구윤리위원회의 외부 위원 확대 총원 등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수요자 지향의 연구사업 성과 공유 확산 체계를 구축하였음.
- 홍보실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획실, 정보화운영관리부, 대외협력실, 자료기록물과리부와 협업하는 연구성과 확산 전략 협의회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 성과발표회 개최, 지난해에 지적된 전자홍보확산 수단 활용부문이 개선되고, 홈페이지 및 연구성과 웹사이트, 전문자료, 정책자료집,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인터넷 및 SNS 등 첨단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확산수단이 다양함.
- 영상제작 및 방송 활용,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성과확산 플랫폼의 활용실적이 우수함.
- 언론, 지역사회, 국민, 해외를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 확산 노력 및 실적이 우수함.
- 온라인콘텐츠 연구성과 홈페이지 방문건수 4,229,633, 연구성과 홈페이지 방문건수 1,424,457건을 기록하여 실적이 우수함.
- 39,280건의 연구성과물 배포실적,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 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EBS), 학, 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① 국제적인 미래교육 방향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협력 참여 요구증대, ②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로 교육 발전 경험에 대한 기여 요구 증대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 및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국외 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및 운영실적, 인력교류, 국제 공동(협력)연구, 수탁연구 등 수행 실적, ADB등의 국제기구 행사 및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실적이 우수함.
- 연구역량 국제화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협력 네트워크 수립 중 국외기관과의 신규 MOU 체결이 부족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실적이 우수함.
- 총 167건의 연구과제가 NKIS에 충실히 수록되어 100%의 등록률을 보임.
- 기타성과물의 NKIS 등록실적이 우수함.
- 162인의 연구인력이 0.86 편의 학술연구를 수행하여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산출 데이터가 학술연구,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활용 유도 및 지원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수행 연구 사업의 실적 규모와 성과, 파급 효과 등이 우수함(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주요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기본 수시 수탁연구과제를 통해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고유 임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중심으로 주요 국정과제 지원 (162개의 연구 및 사업 수행)).
- 국정과제 수행건수 162건, 투입인력 1,508명, 투입예산 2,300여억원 규모로 적극적으로 수행함. 특히 보다 적극적인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2021년 대비 국정과제 지원 예산을 약 163억원 증액 투입함.
- 교육부, 국회, 국가교육회의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개최한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연수 등에 참여하여 정책 자문 및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함(국가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보완, 미래 교육 환경 변화, 기초학력 보장 등).
-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새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과제를 국정 과제 수행 연구사업의 대표사례로 제시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의 시의성/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정 과제의 현안 시급성에 부합하며 대표사례의 정책적 효과, 교육적 중요성을 잘 고려하고 있음.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발표의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기여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 연구 및 사업을 병행하면서 연구목표에 이르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점검, 보완 TF 운영을 통하여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 기획 단계에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 의견수렴 창구, 포럼·세미나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의견수렴 채널 운영도 활용할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국민 의견수렴 창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정과제 참여가 대부분 회의, 토론회 참석, 교육 및 연수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성과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 지원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특히 대표사례를 통한 구체적 입법 지원 실적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KPI 설정 및 실적 관리를 통해 부서별 KPI 관리 지표 ‘정책네트워크 운영 실적’,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실적’, ‘연구 결과 정책 반영 실적’ 지표를 설정, 추진함.
- 연구기획실이 ‘KICE 연구과제 정책 기여도 관리 체계’의 총괄 부서로서, ‘정책 기여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단계별 KPI 설정 및 실적 관리’로 정책화 과정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KICE 콜로키움 및 연구품질관리TF 신설을 통해 주요 교육 정책 지원과 연구에 있어 이해를 제고하고 공유하면서 정책 간의 연계성 및 통일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검토에 기여함.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우수 직원 포상, 원내외 활동 점수, 평정 과정에 연구자의 정책 기여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정책 기여도를 KPI 실적에 적극 반영해 연구원 평정에 반영하는 동시에 연구원 평정 결과를 연봉 및 승진 등 인사 사항과도 연계함으로써 신상필벌을 통해 정책기여도 관리에 주력함.
- 기관 내부의 다양한 연구/사업 프로그램이 서로 상반되는 정책 기초를 나타내지 않도록 전체 연구/사업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함.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KICE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에 의한 보고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 최종 수요자의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성과공유회,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함.
- 연구자의 적극적 국가 정책 기여를 위해 내부성과 평가, 포상 등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구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을 통한 보고서의 심사를 통해 정책 기여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평가 등을 통한 환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일반 국민, 교사 등 정책수요자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 및 연구기획에 대한 참여 채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 기획과 수행에 있어 외부 요청이나 위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고유업무, 기관장의 경영목표, 정부 및 외부 정책 분석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현안과 연계된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함.
- 고교학점제, 수능 중장기 발전방향, 기초학력 보장과 교원 전문성 함양, 책임교육, 코로나 19 이후 교육회복 정책 마련 등 긴급한 정부부처 현안 과제에 대하여 12건의 (긴급) 수시 및 수탁연구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정부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고, ‘기초학력 정책 지원’ 연구 수행을 통해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 계획(2023~2027) 수립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정부부처 요청에 따른 다양한 비연구활동의 성과가 관련 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정부부처 현안 과제 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수시과제 수 및 예산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추진 중).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23.2%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이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하며, 자체 발굴 긴급 및 현안과제를 확대하여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연구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인 입법이나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순히 제안(방안제시) 내지 자료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42.8%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 규정」이 권고 기준을 위반하였음. 기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책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0%를 상회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대부분의 연구 과제에서 연구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탐색과 국내·외 관련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안된 정책 대안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높음.
-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교육현안을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대안의 적시성이 높고 민생 현안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큼.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초, 중등 교육과정과 평가 방법을 정책화함으로써 미래 사회 대비 교육 혁신에 기여한바가 큼. 특히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기본틀과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 연구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 과제 간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음. 예컨대,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 체계와 이수 경로 탐색”,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제2외국어과 언어재료 개선 연구” 등이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및 세부 내용 요소에 수렴되어 반영되었음.
- 정책대안의 정책화를 위해 교육부, 지역교육청, 교사와의 연구 협업과 델파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관련 정책 수요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연구 과제별로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를 통해 정책 대안의 현장성을 높이고 있음.
- ‘블랜디드 러닝’, ‘교과목 이수경로’, ‘기초학력’, ‘사회·경제적 역량’, ‘adaptive learning’과 같은 교육학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줌으로써 교육 이론가 및 실천가들에게 관련 개념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념적 혼란과 왜곡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 취약 계층 및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예컨대, “기초학력 제도 개선 연구”, “직업계고 기초학력 신장 지원 체계 구축 연구(II):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가 있음.
- 타 연구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구과제 해결 및 정책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음. 예컨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초학력 제도 개선 연구”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제정에 기여함.
-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의 경우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대안 구안 시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 구안’을 위한 활동과 ‘정책화’를 위한 활동간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되었으면 함. 예컨대, [과제2] 학교 교육에서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실행 방안 탐색, [과제4]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상위국 성취 결과 비교 분석 및 PISA 2022 예비검사 시행, [과제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적 역량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과제 9]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제2외국어과 언어재료 개선 연구 등에서 ‘정책 대안’을 구안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화’를 위한 활동 간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면 함.
- 정책 대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교육부, 지역교육청, 교사 등 교육 정책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대국민 홍보와 의견 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화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함.
예컨대, [과제 2] 학교 교육에서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실행 방안 탐색, [과제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 구축 방안의 경우, [과제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적 역량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의 경우 과제 성격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노력과 정치권 및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본질적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대안별 정책화 노력과 정책화 실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함. 예컨대, [과제 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 체계와 이수 경로 탐색, [과제 2] 학교 교육에서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실행 방안 탐색 등에서 “연구 목적-정책대안 마련-정책화 실적을 위한 노력-정책화 실적”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면 함.
- 정책 대안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법률적·환경적 여건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법령 및 물적·인적 자원의 규모 및 도입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함.
- 연구 기관 간 연구 과제의 중복성을 해소하면서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함. 예컨대, “기초학력 제도 개선 연구”에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초학력 제도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경우가 있었음. 진로 교육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화를 위해 계속 노력 하였으면 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사업 계획·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제 관리 기술이 체계화되어 정책집행 사업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실무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음.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음.
- 무오류 대학수학능력 시험 및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출제를 통해 학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었으며 국민 민감도가 높은 정책 집행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음.
- 사업 단계별로 사업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하였음. 대학수학능력 시험, 학업성취도평가, 교과서 검정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인원을 단기간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음.
-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네트워크(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평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국정과제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력과 관련된 양질의 기본 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해 주고 있음.
- 정책 수요자들이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학수학능력 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출제 및 교과서 검정의 다양성,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풀 시스템의 고도화와 모니터링이 지속되었으면 함.
-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내, 외부의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함.
- 대국민, 이해 관계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표에 포함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함.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가능성, 고난도 문항 정답률,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출제 경향 등과 같은 쟁점을 분석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함.

- “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및 채점” 사업의 경우,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함.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 수준과 같은 개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며, 컴퓨터 기반 평가 출제 및 시행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접속 불능이나 오류 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취도 평가 참여 학교의 시설 점검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설 불량에 따른 평가의 신뢰도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함.
- “2022년 교과용도서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교과서 검정 기준 마련 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함. 이와 함께, 디지털교과서의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매뉴얼 개발 포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면 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작년도 연구는 대체로 연구기관의 성격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동시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먼저, 교육의 출발선 평등 관련 연구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기초학습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이므로 연구주제의 선정이 타당하고 우수했음. 교육현장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사 수준에서 출발선 평등을 위한 학급 단위의 수업 및 심리 정서적 지원 전략, 출발선 평등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과업 추진 체계 등을 제공하여 교육현장 적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 연구는 시의성이 매우 높고, 국가정책의제 및 중요 현안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선행 연구와도 차별되는 연구로 그 성과가 인정됨. 이 연구에서 산출한 핵심 지표 5가지 키워드는 학교교육을 둘러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미래 전망을 하는데 유용한 단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정책 협의회, 심층면담, 설문조사,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연구주제와 대상에 적절하게 적용하였으며, 운영 체제 및 문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진로 학업설계 지도, 교수학습 및 평가 등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적 체계가 우수하고, 고교학점제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비교 대상 학교를 설정한 분석 모형의 설정, 종단연구 모형을 적용한 점, 설문과 면담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실시한 점 등 연구 모형 설정이 우수함.
- 마지막으로 OECD 국제학업성취도 관련 연구는, 세부 연구 주제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이로써 연구의 체계성과 연구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였음. 또한 시사점으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수함. 연구 방법론적 관점에서도 전반적인 연구설계가 우수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업 탄력성,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한 점 역시 정책적 시사점이 상당하며, 특히 분석 대상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명확히 제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부분의 연구보고서가 그렇듯이, 동일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장단점이 모두 드러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임. 예를 들어, 교육의 출발선 평등 관련 연구는 초등 저학년의 교육에서 기초학력 보장 등 출발선 평등을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음. 또한 어느 수준 이상의 교육결과를

목표로 한다면 학생에 따라 교육기회나 교수학습 지원이 다양하게(불평등하게) 제공되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전체적인 연구결과가 기존에 많이 알려진 보편적인 내용이며, 과거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도출된 본 연구의 방안을 광범위하게 열거하여 연구의 성과가 저조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 컴퓨터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자동채점 시스템이 전적으로 도입되는 상황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계획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자동채점 알고리즘 및 시스템의 적용대상 차별화에 대한 논의, NIA의 저작도구 시스템과 같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임.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협동연구보고서의 경우, 지역별 인구추계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학교 시나리오 도출 과정과 결과물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시나리오 3가지를 예시 시나리오와 함께 잘 설명하였으며, 예상 쟁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음.
-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독성 특성 규명을 통한 교육적 시사점 도출이 타당하게 이루어졌고, 이독성 지수 측정에 대한 연구의 정합성을 높이고 텍스트 이독성 수준의 타당성을 높인 성과를 도출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실증적 연구 방법론으로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였으나, 다양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면 시나리오의 타당성이 더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학령인구 추계 및 분석 결과가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이독성 지수 자동측정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를 설명할 때, 앞 장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자료가 있다면, 연구 전체의 정합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2022년 기관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한 후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조직운영 노력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명시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점은 우수함.
- 부서별 KPI를 수립하고, KPI를 통해 부서 성과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등 부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은 긍정적임.
- 고충 접수 채널 외에 제안제도와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의 고충과 제안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해당 고충 및 제안의 처리에도 적극 노력한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도와 차별화된 맞춤형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이 부족하므로, 2022년도 경영환경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기관의 조직운영 노력 및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의 효과가 다소 미진함. 일례로, 학생평가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효과가 ‘2022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자책 개발 및 보급’에 그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움.
- 기관 자체적으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의 타당성·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분석 결과가 해당 노력의 내역을 반복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데이터 전담 조직 및 TF를 운영했음에도 구체적 실적(성과)이 교육데이터의 합리적 관리 방안 수립에 그치고 있는 점은 다소 미흡함.

- 부서 KPI가 과제(사업)의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수립되었기 때문에, 질적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일례로, 교육과정·교과서본부의 주요 성과지표가 ‘국가교육과정 개정 정책 추진 지원 실적’이며, 해당 지표로는 성과의 질적 평가에 다소 한계가 있어보임.
- 기관의 조직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및 제도화 수준을 높여 성과관리 전 과정에서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제 및 사업의 집행 과정 중 성과 관리를 위한 중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모니터링의 일정, 방식, 평가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중장기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전공 및 분야별 인력수급계획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
- 우수인력의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확충을 함.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인권, 정보보안 등 공통 9개 분야, 연구직 6개 분야, 비연구직 신규임용자 교육 등 10개 분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운영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 성과 평가 계량화 비율이 60%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 기준 계량 항목은 45%~60%로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서 현원과 정원의 관리가 수치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정원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노력이 필요함.
- 기관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핵심역량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한 체계적인 역량체계도를 정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원내외 활동을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은 이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한 표준화된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기관의 대외활동을 관리함.
- 대외활동 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함으로써 복무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

- 근무 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였으며, 자체감사시스템 등을 통해 근무 관리가 적절히 시행되는 등 근무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함.
- 연차휴가 관련 규정 및 운영이 적절하며, 개인별 연차휴가 소진율 97%로 나타난 점, 보상휴가 우선 조치 등 연차소진을 위한 기관 차원의 꾸준한 노력은 긍정적임.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3월 학습포럼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연가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여 연구연가자 전원보고 및 평가체계를 마련한 점이 긍정적임. 연구직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 성과물에 대해 구성원들간 확산의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신고 10일 초과 사후신고 비율이 비연구직에 비해 연구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례금 수령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구성원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연구직과 비연구직 간 대외활동 직종별 교육특성화 등 관리에 대한 차이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구성원들의 만족도 제고와 성과 향상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관 차원의 유연근무 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장함.
- 연구연가 파견국가의 다양화를 통해 연구직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자기계발 기회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에 산정되며, 평가는 육아휴직 이전의 평가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 중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하였으며, 가족돌봄 휴가 운영실적이 양호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유사산 휴가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일·가정 양립 단계별로 나누어 제도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여성보전 휴가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 노력이 필요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채용공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채용 DB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해 최초로 비정규직원 대상 설문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확대에 비정규직이 '21년에 비해 16명이 늘어 총인력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의 상시적 지속적 인력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 무기계약직 전환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연구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처우에서의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수반된 중장기적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퇴직 전후 직업훈련비를 제공하고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를 통해 임금피크제 정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대상자의 업무 경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각 역할이 기존업무와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업무역할이 마련되어야하고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마련할 수 있는 퇴직 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클린 센터, 옴부즈만 제도 등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어 기본적인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갑질근절을 위한 퀴즈 및 자가진단 등으로 교육 이외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난 지적사항인 특별전형 규정 삭제 등의 노력이 보임.
- 징계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반부패, 청렴유지 교육 등이 전직원 대상 100% 달성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공정성 강화,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 정기적인 자체감사 등 기본적인 내부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견제시스템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 중이며, 운영 실적도 있음.

- 채용비리 예방 교육에 있어 관리자 대상 100% 달성한 점이 우수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통합 클린신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음.
- 내부 직원 및 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자가진단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인권영향평가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정됨.
- 인권영향평가 결과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인권경영이행지침 개정 실시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전년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권경영 체계를 정비해 외부위원 비율을 25.0% 에서 44.5%로 상향시키도록 인권이행지침을 개정하고 실제로 외부위원을 임명하였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연간 3회 개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인권교육도 강화하여 인권경영 담당자, 부서장 이상 간부급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 체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금지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청렴성실패유지 위반 등이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을 감안하여 이를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윤리관련 규정은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구비하였으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음.
-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처리 사례발생 시 성희롱금지위반 사례시에는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한 실적이 없음. 향후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사례 발생시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시행, 옴부즈만을 활용한 제도 개선, 직원 간담회 등 다양한 재발방지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행동강령과 인사규정 상 금품수수 금지 징계양형 등 양형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 필요함.
-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감사시스템에서 연간 단가계약 업체 대상 청렴 및 갑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응답자와 참여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응답결과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과 방안조치 후 결과에 대한 효과를 제시하여야 함.

- 청렴옴부즈만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내부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나가기 바람.
- 친인척채용현황은 홈페이지에 분기별 공개하여야 하나 부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있음.
-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 실적이 미흡하며, 불공정 거래(갑질 등) 근절을 위한 교육의 노력도 필요함.
- 채용비리방지를 위한 인사담당에 대한 교육은 진행 중이나 일반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채용비리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위원회에 최고관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최고관리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인권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바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중 아동노동의 금지 등 ‘해당없음’ 사항에 대한 점검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견이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관 성격에 맞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실적을 달성(배정인원 8명 대비 총 24명 채용)한 점은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함.
-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인턴십 취지에 부합하는 청년인턴 운영 프로세스를 운영 중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기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정하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우수 인턴에게는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입체적이고 기관 특유의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함.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신규채용 정규직 중 여성 비율 60%, 무기계약직 여성 비율 50%, 신규채용 전체 여성 비율 57% 등 여성인력 활용 노력과 성과가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3인을 채용함.
-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중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됨.
- 평정권자인 기본과제 팀장의 여성 임용 비율은 지난 3년간 60% 이상이었으며, 이와 같이 과제 수행 간 성차별 없는 능력 중심의 팀장 선정 및 운용 중임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
- 여성관리자 비중은 미세하나마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부서장 교육 이수비율이 100% 등 구성원들, 부서장, 기관장의 참여율은 높은 편임.
- 여성인력 활용한 양성평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양성평등 실천과정을 이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우대조치 및 구체적 규정 개선을 권고함.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채용, 승진, 위원회 구성, 보직자 임명 등 인사상 단계별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을 권고함.
- 여성관리자 관련 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2년 기준 여성관리자의 수는 목표 대비 45.0%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 이외에,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필수 교육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 장애인 제한경쟁채용(11회)과 중증장애인 특별채용(1회) 등을 실시하여 다수를 신규 채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장애인이 각 전형 단계별 5%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재택근무 직무 개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한 점이 우수함.

-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해 부서별로 의무인원을 할당하고, 채용실적을 업적평가(KPI) 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5~10% 가산점 부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 3.6%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채용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일용 직원에 한정되어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제한 경쟁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꾸준히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고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우선고용률 6%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2022년 신규 채용이 없음.
-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특별채용 및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 감사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조치실적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은 우수함.
- 연구기관 연구진 투트랙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전문연구원 대상 처우개선 검토 중인 것은 긍정적임.
- 연간 교육시간이 1인당 72시간을 이수하였고, 감사담당 3명으로 법무전문인력을 배치한 점이 우수함.
- 비상임감사 활성화를 위해, 종합감사 총괄 및 참여와 업무보고를 진행한 점이 긍정적임.
- 교육대상을 부서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추진한 점이 긍정적임.
- 자체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업무 수행 시 동일한 오류와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설명회를 실시한 점은 우수함.
- 자체감사 활동으로 인사복무관리 분야, 예산집행 분야, 계약자산관리 분야, 연구 및 사업관리 분야 별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처분결과와 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확인된 점이 긍정적임.
- 정기감사 실시를 통해 부적정 사례들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 노력이 바람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감사부서에 법무전문인력 배치를 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재무회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계와 자격 취득 노력이 연계된다면 감사역량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교육 이수 이후에 자체감사 등에 적용하거나 현업적응도의 평가를 통해 이러한 강화된 역량을 관리하고 제시해보길 권고함.
- 비상임감사 활성화 방안을 통해, 비상임감사의 검토의견이나 조지사항 의견제시 등의 실제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건의함.
-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행점검, 교육 등을 통한 자율점검 방안 제시가 필요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1. 한국교통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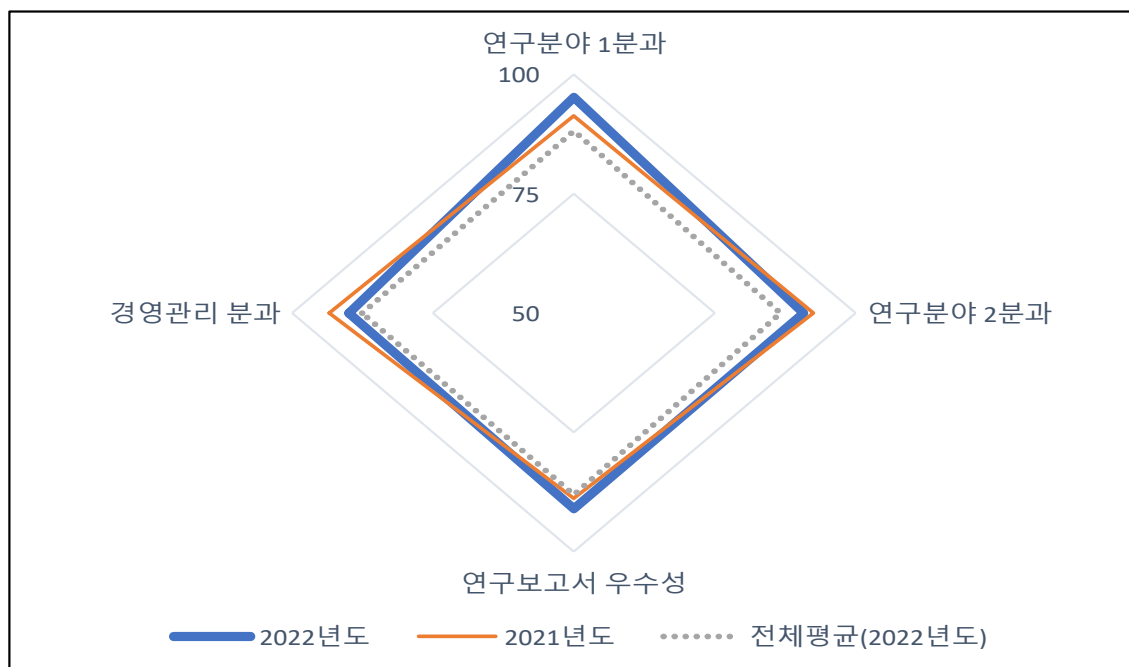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S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S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A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A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S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S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B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S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S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S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A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A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S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S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A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B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B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D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국회, 정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력해서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정부,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음.
- 신규 연구인력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정책연구위원의 연구점검 참여를 제도와 하는 등 내외부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한 7건의 과제 중 6건이 입법화 또는 입법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고, 긴급현안 연구수행에 있어 일반 및 수탁과제의 비율도 적절하며,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을 크게 상향하였음. 다만 과제 선정 및 심의와 관련하여 긴급 현안과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공청회, 언론홍보, 관련 정부 부처 및 전문가와의 활발한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법제화로 연결되는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음.

-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사회적 가치 추정 연구”,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발전전략 수립연구”, “한국형 회전교차로 정책연구 지원사업”, “감염병 대응 대중교통 수단의 적정 공급 수준 설정” 연구 등은 국토환경 분야의 정책적 기여도가 우수한 연구로 판단됨.
- 연속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상시 점검, 체계적인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등 성과관리 및 환류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함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맞게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의 경우 민자도로 사업의 운영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도가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며, “국가교통조사” 사업의 경우 국가교통 DB에서 제공되는 교통통계는 각종 교통계획 수립과 타당성분석 연구의 객관성 확보 등에 정책적 기여도가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됨.

[경영 분야]

- 새 정부 국정 지원 경영목표를 추가하여 3+1로 경영목표를 수정하고 나아가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 조직체계, 정책 연구수행 강화, 의견수렴 및 국민공감대 형성 등 10+3의 추진전략으로 강화하는 국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노력이 우수함.
- 핵심기능 중심의 인력 정비를 추진하고 2개 본부·단 폐지, 2개 연구단 신설 등 대부서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구성원과 소통을 위한 전략을 체계화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또한 글로벌 대외활동과 국내적 대외활동에서 적극성이 돋보임.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일회적 실적 차원에서 정량적 성과에 그친 점이 있음.
- 새 정부 출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한 조직운영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목표와 조직운영 전략 수립 및 조직운영 전략 달성을 위해 연계성이 높은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함.
- 다른 기관에도 공유가 필요할 정도로 일가정양립 매뉴얼이 매우 우수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신규직원과 전문성교류방안마련과 직군별 적합직무 발굴의 노력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기관운영지표 150개 중 129개만 긍정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없음 사항 등 지표의 답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년 평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해나갈 것을 권고함.
- 청년인턴의 채용 및 배정예산집행율이 우수함은 물론, 이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실적 관리, 근무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어 단계별로 조직적응을 유도하고, 기관 차원의 관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됨.

- 최초 여성 최상위 부서장 및 주요 의결기구 의원으로 신규 임명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을 인정함.
- 외부기관 감사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점은 우수하며, 자체감사시스템 표준절차 마련, 자체특별감사 시행 등 자체감사역량이 우수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STEEP 분석을 통해 메가트렌드 분석을 수행하고,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연구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발굴로 연구기획의 우수성을 제고하였음.
- 연구경영자문위원회와 연구과제기획위원회 중심의 전략적·입체적 연구과제 기획 절차가 마련 되어 있고, 대내외 정책 환경 및 연구목표, 방향,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획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연구기획체계가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의 도출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를 반영해 선정된 연구 과제의 적정성도 인정됨.
- 국회, 정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력해서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정부,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시민정책연구위원회를 운영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 점이 우수함.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경영자문위원회에 기술산업분과 신설하고 2003년 연구과제에 생활밀착형 연구를 대폭 확대 반영함.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국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신문고, 교통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연구 수요를 적극 수렴함.
- 시민정책연구위원 구성을 매년 변경하고 성별·연령별·지역 및 직업별 분포를 균일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전문가회의, 내부연구진 브레인스토밍 8회를 통하여 정책어젠다 및 국가·사회적 현안을 도출 하였음.
- 국가·사회적 현안 및 정책수요자의 긴급현안 해결 요청에 대하여 수시연구과제 20건을 신규 발굴하고,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 및 해결방안 제시하는 등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 연구기획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환경 분석 단계에서 모바일 빅데이터 등을 통한 국가교통 DB 시스템 구축하고 교통·물류·항공분야 미래전망에 활용함.
- 분야별 메가트렌드 분석과 교통물류부문 정책 어젠다를 바탕으로 외부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10대 국가·사회적 현안을 도출함.
- 대도시권 출퇴근, 고금리 저성장시대에 있어 교통물류 SOC 투자체계 개선, 미래공항 인프라 구축 등 10대 국가·사회적 현안 이슈와 정책수요자의 긴급현안 해결 요청에 대하여 수시연구과제 20건을 신규 발굴하고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하여 실효적인 정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산업현장 목소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데이터 분석으로 국민니즈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사분석의 프로세스 관련, 연구기획 단계에서 연구경영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나 조직이 부재함.
- 대내적 환경 분석에 집중하고 있을 뿐 글로벌·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의 교통 수요의 미래 전망을 분석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시민정책연구위원회의 역할 관련, 전문가 자문, FGI, 설문조사 대상자 그룹이 대부분 교통서비스 공급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서비스 수요 측면에서의 전문가 집단이나 소비자 그룹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협의회 참석자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분야 미래 트렌드를 고려할 때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 공무원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이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과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미래 교통분야의 혁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했을 때, 교통분야의 산업 전문가를 교통물류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교통 관련 제조업 분야의 산업 전문가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메가트렌드 및 영향 분석을 위해 top-down과 bottom-up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bottom-up 방식의 중점을 외부 정책수요자 중심으로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bottom은 내부 말단 연구자그룹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안 이슈 도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부원장 등 간부급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연구진 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브레인스토밍의 본질적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연구과제는 부서별 검토회의 및 연구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한 의견 환류로 연구과제를 보완하거나 신규 연구를 발굴하였음.
- 연구 선정은 연구경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중점)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과제 기획(주제)의 우수성, 정책적·학술적 활용 및 실현 가능성, 국정과제 및 정책 부합성을 고려하였고, 연구경영자문위원회에서 평가점수와 과제별·종합 검토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9개의 중점연구사업에 연구사업비를 20% 추가 배정하여 연구를 지원하였음.
- 협동연구과제를 기획-발굴-선정-과제관리 및 협동연구 DB의 제공의 체계로 수행 및 관리하였음. 협동연구과제 발굴 시 협동연구에 대한 M/M가점을 설정하고, 협동연구플랫폼, 외부 협동연구자 DB의 학술정보Pool 구축, 연구관리알림판 등을 활용해서 유관기관의 협업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였음.
- 정부 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 196개 협동연구기관을 보다 균형 있게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수행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새정부의 교통물류 국정 철학에 따라 6대 중점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기관고유사업에 이를 100% 반영함
- 정부부처에서 제안하는 현안 연구주제에 기본과제 전체 예산 중 39.4%(172,000천원)를 편성하는 등 정부정책과제 수행에 적극성을 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 전문가와 거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새로운 교통이슈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의 교통이슈를 청취할 것을 제안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기초연구사업비 비중이 20건 중에 1건, 4.6%로 너무 낮은 상황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기초연구과제 수를 늘리거나 사업비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경영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가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과제기획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거나 본부별 과제선정회의에 외부위원을 최소화하여 참석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점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의 명확성과 선정절차의 적정성 및 객관성은 인정되나, 예산 및 인력 배정의 전략성은 검토가 필요함.
- 협동연구 발굴 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기관의 다양성을 위해 해외단체, 해외기관, 해외학교 등과의 협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장려 방안들이 근본적으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 있는 바, 보다 획기적인 유인 설계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기본연구사업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중은 39.4%로 개선 노력이 요구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내부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내부세미나, 부서별 내부 전문가 협업을 통한 수시과제 연구주제 도출, 내부협력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동료 평가 수행 등 수평적인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노력함.
- 연구관리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 내부 인력 간 협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겸임제도와 부서 간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M/M 가점을 부여함.
- 주니어·시니어 그룹 간 연구수행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 시민정책연구위원 연구점검 참여를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실제 민원인 중심으로 시민위원 선발).
- 수시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부서 간 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필요투입인력산정지침 등 매우 객관적인 지침에 의거해 연구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반영한 M/M 조정이 매우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각종 TF나 자문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음.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자들이 연구기획·발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외부 협동연구자 DB를 확대해 학술인 정보 풀을 구축함.
- 협동연구의 주제별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분류 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 협동연구과제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통물류 분야의 산·학·연 기관과 상호협업하여 정책적·학술적·기술적 연구성과를 도출함.
- 2022년 수행 협동연구과제 총 117건은 전체 연구과제 예산의 51.4%로, 89건(76.1%)은 주관 연구기관, 28건(23.9%)은 협력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획 단계에서 개인 간 협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협업 촉진을 위해 부서 단위의 M/M 가점을 집중 부여하는 등 품질관리에 따른 성과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겸임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참여의 유인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겸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니어·시니어 간 협업구조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니어가 멘토 역할을 하고 주니어가 연구수행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니어·시니어 간 협업을 강조할 경우 협업과정에서의 위계 관계 형성으로 세대 간 갈등 요소가 향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시니어의 무임승차 경향도 잠재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주니어 단독 혹은 주니어 결합 형태의 연구 과제 수행 체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동연구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개인별·부서별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지 않음에도 협동연구가 비교적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동연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부서 차원에서 협동연구에 따른 인센티브가 명확히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는 협동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관의 수시연구가 갖는 특성이 작용한 때문으로 여겨짐. 하지만 기관의 협동연구 비율이 여전히 높고 수시연구에서도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 점검제도 실효성 검증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총 13건의 연구윤리체계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연간 연구윤리 관리 계획 및 중장기 연구윤리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함.
- 연구윤리 점검 TF를 통해 기본·수시·연적금 연구 대상 133건의 교차검독 시행하는 등 연구윤리 관리 노력을 극대화함.
- 연구윤리 상시 점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자체점검단 내외부 위원의 역할분담도 적절함.
- ‘책임있고 정직한 연구윤리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중장기 연구윤리 개선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연구윤리 개선 전략과 방향성을 설정함.
- 연구윤리 교육을 연구진 대상 총 5회, 연구윤리 담당자 대상 총 3회 실시하고 있고 연구윤리 만족도와 연구윤리점검TF 개선의견을 조사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연구회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평가에서 최근 4년간 클린기관으로 선정됨.

-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국외출장심의를 강화하고 부실학회 참여 여부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전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내부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검증을 위한 연구자 간 윤리위반사항을 교차 검독하는 과정을 내부 공모와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매우 객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외부 검독단 기능 또한 강화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윤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연구윤리감독 체계에 부수적인 조직으로 느껴져 기획조정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윤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집중교육 대상자 연구윤리 교육을 3회 실시하고 그와 구분해 보직자 대상 연구윤리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이수율도 매우 높는데 신규입사자, 연구윤리점검 담당자는 별도로 구분해서 기능별 교육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수행 단계별로 구분해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기능별 구분해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도 있음. 특히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은 향후 연구윤리 준수 문화의 정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10인의 대외협력 홍보팀과 연구관리팀과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홍보·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홍보, 확산의 전략적 기획 및 추진체계, 확산 홍보전략이 우수함.
- 포스트 코로나 19 대비 온·오프라인 통합 성과확산 수행, 영상 콘텐츠 제작 확대 및 홍보콘텐츠 품질 모니터링, 시민참여 성과확산 수단 운영 및 주요 고객 DB확대 등의 2022년도 추진 전략이 우수함.
- 보도자료, 언론사 공동기획,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 확산수단이 다양화되어 있고, 웹사이트, SNS 등 온라인 및 모바일 활용 성과물 배포,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의 활용실적이 우수함.
- 학술행사, 전문자료 제공, 시민참여 및 지역사회·유관기관 협력 강화, KOTI 클라우드 시스템 및 국외 네트워크 활용 등의 성과확산 실적이 우수함.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는 255건이고, 8,317건의 연구성과물의 배포실적을 보이고, 이슈페이퍼 100% 온라인으로 발간 및 배포 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한국교통연구원 국제협력전략(2021~2023)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이 우수함.
- 2022년 연구역량 국제화 실적이 최근 3년 평균실적대비, 국외 네트워크 구축, 연구인력 교류, 수탁연구, 국제행사 분야에서 모두 상승함.
- 전년도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를 통한 부문별 실적개선이 우수함.
- 국제기구 14건, 정부기관 17건, 연구소 30건, 대학교 22건, 민간기업 2건 등 국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총 85건에 달하여 우수함.
- 국외 네트워크 운영, 51명의 연구인력 교류, 14건의 공동연구, 13건(37.6억원)의 수탁연구, 59건의 국제행사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 공동연구는 3년 연속 정체 상태에 있음.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자인 국민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연구과제 25건이 모두 NKIS에 등록되어 100%의 등록률이 보임.
- 3건의 비공개 등록 연구과제에 대한 비공개사유가 적절함.
-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정 과제 참여, 직접 수행한 과제 실적에서 교통물류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120대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해 154개의 국정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수행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 및 평가 체계를 운영하여 7개 국정과제, 8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입법화·정책화 성과와 28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성과를 거둠.
- 특히 기관 전체 과제의 82%, 참여 인력의 86%를 국정과제 수행에 투입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국정과제 수행의 성과가 관련 정책의 심의/의결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 사항과 연결해 매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기관 고유의 목적 부합도에 비추어 국정과제와의 긴밀성, 연계성이 우수함.
- 전년도 평가 결과를 잘 반영해서 정부현안 과제 비율 대폭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와 포상제도 강화해서 국정과제 수행 연구실적과 성과를 확대함.
- 국정과제 우수 연구성으로 제시한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연구 용역’은 이전 정부 국정과제 39와 관련이 있고, 광역버스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사례 선정 이유가 타당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외 2건의 법률 개정, 서비스평가지침의 개정,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연구성과의 파급효과가 우수함.
- 국정과제 대표사례 수행 성과가 좌석공급량 19% 호가대, 평균 배차간격 25% 감소, 운행횟수 26% 증가 등으로 매우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중 입법과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과제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음.
- 정부 부처와 소통 및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여 정부부처 수행 국정과제 실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정책화 및 입법화 기여도는 크지만, 기관 규모 대비 28건은 다소 저조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기여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정책기여 과제기획 발굴 및 정책기여도 성과를 관리하고, 연구과제 종료 이후 정책성과관리위원회와 정책성과관리 TF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기여 추적 관리하는 정책 기여도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정책성과관리위원회가 기관 연구과제의 입법화/정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국회 등 관련 기관을 찾아 적극적으로 입법화와 정책화 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정책기여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정책성과가 잘 달성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정책기여 우수 과제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한 정책 기여실적을 낸 연구원에 대하여 포상 및 연구활동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연구기획 기능과 정책성과관리 기능에 적합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기여 과제기획 발굴, 정책 기여도 성과를 관리하고, 연구과제 종료 이후 정책성과관리위원회와 정책성과관리 TF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기여 추적 관리하고 있음.
- 정책기여 관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정책성과관리시스템(그룹웨어 내)을 2022년에 도입하여 정책기여 관리를 자동화함.
- 입법지원 7건, 입법활동지원 9건 등으로 연구 및 사업 성과의 입법 및 제도화 노력을 통한 성과가 비교적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기여 유형을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책기여도 확보를 위해 유관 부처 공무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한다고 하는데,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과제 발굴 및 선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평가단계 참여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공물류정책, 재난 대응체계 수립(다중밀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분산전략 수시긴급과제 수행),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 등 국가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수행한 5건의 과제 중 2건이 입법(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연결되었고,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한 7건의 과제 중 6건이 입법화 내지 입법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둠.

-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 등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 과제를 발굴 수행함으로써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정부의 정책(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작성) 수립 및 관련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정책연구기획 관련 연구과제기획위원회 산하에 교통물류 규제혁신 TF, 2050 탄소중립 미래 전망연구단, 교통물류부문 새정부 국정기조 및 전략과제 분석 TF를 두고, 긴급 및 정부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전체 과제수행 건수 184건 중 국정과제 관련 과제건수 154건, 협동연구과제 60건, 긴급연구과제 26건, 정부현안과제 39건으로 수행 정도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긴급현안 연구수행에 있어 일반 및 수탁과제의 비율도 적절함.
- 국토교통부 등 유관 정부부처가 제안한 30개 수시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년도 권고기준 위반 사항이었던 수시연구과제비 총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을 27.9%에서 77.6%로 상향하여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 주도적이며 선제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수시연구과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을 16.6%(2021)에서 19.2%(2022)로 증가시켰고, 수시연구과제 사업비 집행 비율도 58.1%(2021)에서 93.5%(2022)로 대폭 확대하여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배정 비율 또한 적절함.
- 대형 수시연구과제의 성과 및 정책기여도 관리를 위해 대형, 수시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기본과제에 준하는 과제 점검 및 관리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긴급 및 정부현안 현안 과제에 대한 과제수행 성과가 우수하지만, 1년 과제를 긴급현안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가 필요함.
- 「기본·수시연구사업수행규칙」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시연구과제를 선정, 심의하고 있는데, 긴급수시과제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의 차별화를 기관 차원에서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발굴한 점이 우수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점이 우수함.
- 수탁과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실천 과제, 거버넌스 방향 등이 제시된 점이 우수함.
-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의 경우 차세대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UAM)의 기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안, 유무인 항공기의 통합운영을 위한 총괄로드맵 제시 등 정책적 기여도가 우수함.
- “2021 한국형 회전교차로 정책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회전교차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법 개정, 설치효과 분석, 대국민 회전교차로 이용실태 분석 등 회전교차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여도가 우수함.
- “감염병 대응 대중교통수단의 적정 공급수준 설정”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의 주요 원인 도출, 대중교통 수단 내 적정 거리두기 방식 제시 등 정책대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을 갖추고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정책화 또는 입법화 하기 위해 과제 종료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예산지원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건의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사업관리 상시 점검, 체계적인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등 성과관리 및 환류 시스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요구 및 의견 수렴, 원내외 전문가 자문 및 점검을 진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2022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의 경우 민자도로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미납통행료 납부 편의성 증진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2022년 국가교통조사”의 경우 교통 SOC 정책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인 교통 DB와 통계자료 구축 및 배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속 사업으로 매년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관리가 필요함.
-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교통연구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기초정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음은 물론 다수의 의미 있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연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됨. 보고서가 지닌 우수한 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언급하자면,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관련 연구의 경우, 다양한 지방 대도시권의 사례 조사를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으며, 통합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큼.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실현 가능한 제안이 다수 담긴 보고서로 판단됨.
- 또 다른 사례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연구의 경우, 친환경차량의 증가로 내연기관차로 부터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세수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였고, 세수변화의 영향을 단계별로 제시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헌 조사 및 현황조사 이후, 시나리오 별로 세수액 정량 분석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추정하였음은 물론, 법률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추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도로 인프라 디지털화 방안 연구의 경우, 본 연구는 충실한 사례검토와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율주행 협력도로의 디지털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 점이 인정됨.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입시의 도로네트워크 선정, 인프라 요구사항 도출 모빌리티 운영전략 수립 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사한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시리즈 연구 역시 의미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는데, SOC 디지털 투자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과 거시적 차원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10대 추진과제의 세부과제를 시기(단기, 중기, 장기)별로 제안하여 실행력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상결합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연구 결과로 제시한 상세한 내용들이 현행 법 제도에 위반되지 않고도 상세한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여 추후 개인단위의 통행 패턴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용자 중심의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서비스 분석 및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보고서의 우수성 못지않게 미흡한 점 역시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DRT사례조사 시 성공사례 위주로 조사한 바, 국내외에서 실패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미흡하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연구의 경우 국가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기는 하나 기초연구로서 이론적 기여도는 다소 낮음. 그리고 DRT 특성을 감안할 때, 모형적용 시 첨두시에 국한함에 따라 비첨두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지역 발전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 및 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함에 따라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철도건설의 파급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일부 표현에서 용어의 혼용(광역철도, 광역전철)과 같은 마이너한 문제점이 발견됨.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협동연구보고서의 경우,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WBS 기반의 성과관리를 수행한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연구내용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연구진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구 진행상황 관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
-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각 세부 요소기술별로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발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한 점은 매우 우수한 노력임. 연구목표가 명확하고 연구수행방법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연구기획이 전반적으로 뛰어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보고서 작성에서 1, 2단계 성과와 3단계 성과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노하우가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각 세부 연구주제의 주요 성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최대한 명료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각 여러 교통수단을 통합 연계하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에 방점이 있는 경우, 무엇보다도 실증 과정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수립이 요구됨.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기존 3대 경영목표에 국정과제 대응 및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한 새정부 국정 지원 경영목표(새정부 국가교통정책 지원)를 추가하여 3+1로 경영목표를 수정함. 나아가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 조직체계, 국정과제 정책 연구수행 강화, 국정과제 의견수렴 및 국민공감대 형성 등 10+3의 추진전략으로 강화하는 국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노력이 우수함.
- 기관의 경영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지속적 이슈 이외 새정부 출범과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대응과제 등 신규 이슈(30%)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원이 참여하는 top-down 및 bottom-up 방식의 토의를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경영목표에 대한 전구성원의 몰입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SWOT 분석을 통해 각 전략별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실천 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함. 또한 실천과제를 5가지 실현수단과 연계하고 팀센터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배분하여 경영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도모함.
- 기존 하위부서 연구인력을 상위부서로 재편성하여 핵심기능 중심의 인력 정비를 추진하고 2개 본부·단 폐지, 2개 연구단 신설 등 대부서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PDCA 환류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성과를 점검하여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 종합 달성도 135%(정책 혁신 146%, 연구체계혁신 124%, 경영혁신 117% / 경영목표1 146%, 경영목표2 124%, 경영목표3 117%)를 달성함. 기관장 2년차에는 기반마련 18.2%, 성과창출 65.9%, 성과확산 15.9%로 목표달성 비율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특히 성과공유를 위해 국민소통 강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가중치로 경영목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변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예를 들면, 모빌리티전환본부, 철도SOC관리지원단 등 연구조직 기능 강화 등 가중치가 타분야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가중치 설정에서의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와 실천과제간 적합도 및 부합성이 다소 낮은 편임. 세부 사업 및 과제들이 ‘사안 중심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경영목표에 부합하도록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는 이전의 달성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극적 수준에서 목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도전적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극적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객관화 노력으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과제 중 일부(특히 경영목표3-2 및 경영목표3-3)는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로, 기관의 전략적 리더십이 드러나지 않음. 기관의 위상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된 실적을 중심으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설정 시, 위원회 개최, 행사, 수요조사 등 단순 계량목표의 설정보다 성과관리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적 관리가 요구됨. 특히 기관 차원에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 있음.
- 실천과제의 연계방안으로 정책화·입법화에 대한 달성여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수단 및 연계 방안 제시는 좋으나 구체적 목표치와 실적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연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실천계획의 성과목표 달성도 산출 기준을 명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별 성과목표가 기관의 연구목록 및 업무리스트를 전체 제시한 것으로 성과목표 및 실천과제의 전략적 관리가 요구됨.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경영목표 공유를 위한 공유 로드맵을 제시하고 환류체제 운영을 위해 노력함.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이 소통 차원에서 잘 반영됨.
- 구성원과 소통을 위한 전략을 체계화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팀센터 중심의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상향식 의사소통 보완을 위해 시민정책 채널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승진요소에 MZ 세대 특징을 반영하는 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성과, 능력, 전문성 등 다양한 평정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제도적 소통 채널이 아닌 비제도적 소통채널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적극적인 글로벌 대외활동과 국내적 대외활동을 수행함.
- 기관장이 연구수월성위원장으로 연구회 주관 연구기관 발전전략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역사회공헌 관련 활동의 경우 제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일회적 실적 차원에서 정량적 성과에 그친 점이 있음.
- 언론 활동을 포함하여 활발한 대외활동이 이뤄졌으나, 접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기관이 직접 주도하는 선도적 성격의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새정부 교통정책 지원

〈우수한 점〉

- 정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신정부의 교통정책 관련 국정과제 지원을 수행함.
- 중점추진과제 선정을 다단계(1단계 부서장회의, 2단계 확대간부회의, 3단계 연구본부 토의 등)를 거쳐 확정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새정부 수립 관련성 등을 고려함.
- 중점추진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함. 특히 국회, 행정부, 전문가 그룹, 언론 등 다양한 정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성과확산 노력을 기울임.
- 연구지원과 산학연관 협력 및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 구체적인 연구성과에 근거해 광역교통, 도로, 철도, 항공, 빅데이터, 모빌리티전화, 탄소중립, 물류 등 8개 부분 새정부 교통물류 혁신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정부부처와의 협의하여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작동한 점이 우수함.
- 사업성과지표를 공통지표와 특화지표로 구분하고 이를 모니터링한 점이 두드러짐.
-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물류부문 새정부 국정기조와 전략과제 분석 TF를 구성하고, 연속세미나와 종합토론회 기획, 추진, 시민정책연구위원 발족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국제협력 등은 신정부 교통정책지원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이 아쉬움.
- 시민정책연구위원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은 미흡함.

(2) 중점추진 과제명 : 모빌리티 대전환 지원

〈우수한 점〉

-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함.
- 모빌리티 대전환이라는 중점 사업은 국가적 수요, 글로벌 환경, 성장동력 발굴, 국민 경제 지원 등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구축 및 정책 선도라는 의미 있는 내용의 사업으로 선정의 적절성이 우수함.
-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내부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모빌리티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을 정부와 민간에 알리고 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함.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연구성과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여러 부처를 지원하고, 세미나, 인터뷰, 언론기고 등의 활동을 함.
- 법정계획의 공청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과 법제도의 개정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함.
-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공통지표를 설정하고, 협력체계 구축 정도를 특화지표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 노력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화 및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세부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모빌리티 대전환 관련 타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아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노력은 다소 미흡함.

(3) 철도 투자와 지역균형발전

〈우수한 점〉

-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 주제를 지역균형발전과 잘 결합시켜 국정과제 추진지원 노력이 인정되며,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철도교통망이 지역발전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적극적 공감대 형성활동이 존재하고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사업 수행 노력이 나타났으며, 사업의 주제와 성격에 부합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성과 확산 노력이 이루어졌음.
- 지역균형발전 이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철도 수요확대와 투자 효율성 증대 필요성을 고려한 사업 선정이라고 판단됨.
- 포럼진행, 국회와 정책논의, 정부부처와 정책협의, 국제세미나, 정책자문 등의 노력 및 기본과제, 수탁과제, 개발적립금 과제, 일반사업 외에 TF 과제까지 진행하여 총 1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과정적 노력이 존재함.
- 1단계 부서장회의, 2단계 확대간부회의, 3단계 연구본부 토의 등 단계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는 체계를 수립하였음.
- 지방 대도시권 초광역화 현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투자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존재함.
- 철도투자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철도역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과제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망은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저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광역철도망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지역별 효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철도를 활용한 메가시티 조성 추진에 있어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강원, 전북, 제주 등 메가시티에 애초부터 회의적인 지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천편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갈등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사업의 특성상 기반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지역 관련 등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실적은 3건으로 자료 발간 및 언론 기고에 해당되어 실질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노력이 필요함.
- 메가시티 이외 지역의 철도투자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구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환경 변화에 부합한 조직운영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 및 대외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경영목표와 조직운영 전략 수립 및 조직운영 전략 달성을 위해 연계성이 높은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함.
- 부서 성과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PDCA를 일부 수정하는 등 기관 자체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부서 단위의 성과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에 따라 연구부서와 경영부서를 구분하여 부서 성과를 모니터링함.
- ‘정책성과 이력 관리시스템’, ‘부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
- 고충처리위원회, 조사위원회, 고충상담원 지정 등을 통해 직원의 고충 2건을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함
- 노사회의체 외에 노사 간 현안 공유를 위해 전 직원 대상의 ‘공감마당’을 2회 개최하는 등 노사 간 화합과 협력을 위한 소통 실적이 비교적 양호함.
- 생명나눔 헌혈운동, 경북·강원 산불피해 성금 모금 등 노사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의 타당성·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조직운영 실적의 정리 및 재기술이 아니라 향후 조직운영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이 필요함.
- 연구 외 기관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특히 새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추가적 노력이 요구됨.
- 현재는 부서 성과로 구성된 기관 경영목표의 중간 점검을 통해 부서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부서의 중간 성과 점검을 위한 지표, 평가 주체, 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구체화하고 제도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대 성과에 미치지 못한 부서의 성과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인력변동 요인과 SWOT 분석을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략을 접근하고 있으며,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22-26년 인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함.
- 인력운영전략과 연계하여 신규 우수인력확보 및 기존우수인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청년 및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함.
- 연구원의 경영목표와 실천과제가 연계된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운영체계도를 제시함.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 교육훈련비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교육훈련비도 증가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 성과 평가 계량화 비율이 76%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기준 계량항목은 50%로 관리함.
- 업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제도혁신위원회 등의 경로를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실적 상한제 도입, 피평가자의 자기방어권 강화 방안 마련, 연구실적 조정기준 구체화 등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이직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확보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연구직의 연구역량 강화, 비연구직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핵심적인 프로그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업적평가에서 연구실적평가지표에서 과제수행실적과 기타연구실적(국내외 논문 게재 실적 포함)이 동일 평가항목에서 평가되고 있어서 국내외 논문게재실적의 반영비율이 제한적일 수 있음. 향후 국내외 논문게재실적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관련 규정과 제도가 체계적이고 대외활동 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함.

- 대외활동을 일회성 대외활동과 겸직성격의 대외활동, 기타 대외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운영표준지침에 따른 직원대외활동규칙 전문 개정 이후 상시 관리와 자체감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대외활동 신고 10일을 초과한 사후 신고 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외활동 관련 규정과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외활동 계획신고 시 근태와 자동 연계하여 관리함.
- 자체 감사를 통한 대외활동 지연신고 및 미신고를 적발하고 감봉, 견책 등 제재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연신고와 미신고를 예방하고 근무 관련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실시함.
- 유연근무제와 같은 근무체계 다변화와 함께 복무관리 강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연가저축제를 활용하여 연차휴가 소진율이 98%이며, 유연근무제 운영이 다양한 형태로 적절하게 운영됨.
- 유연근무 관련 근태관리를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이용편리성 등의 개선사항을 환류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임.
- 연구연가 및 안식년 관련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연구결과 심의회 개최 및 심의결과 반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짐.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의 모든 건수가 연구직에서 발생하고 있어, 연구직을 대상으로 대외활동 신고 관리 강화 및 간편신고시스템 등의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학술지 게재나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규정,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세부내용,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유연근무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유연근무제가 실제 성과향상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일·가정 양립 자체 매뉴얼이 매우 우수함.
- 지난해 지적사항인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및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 대체인력에 대해 조기 채용 등을 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사용률이 낮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제도 이용 시 불편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 조사결과 제도 활용에 대한 분위기 측면에서 다소 낮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만족도 조사 시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 노력이 필요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규정과 차별해소 계획을 공식적 의견수렴 기구 운영과 비공식적 개별 면담 등 투트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재무계획이 반영된 사업계획과 중장기인력계획이 유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식의견 수렴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나 제도혁신위원회 등은 비정규직 처우에만 국한되기보다 기관 전체적인 의견수렴의 공간이어서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인에 대한 의견제시의 장이라는 점을 원내에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실적과 계획, 이에 따른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퇴직 후 진로설계를 위한 임금피크제 대상자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직무수행과 관련된 연구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고, 신규채용된 인력과 전문성 교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직군별로 구분된 적합 직무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고발(감사직무규정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 행위자 처벌(직권면직 세부 항목, 직원 대외활동 규칙,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채용비리 근절 관련 규정, 임직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연구윤리 점검평가제도 운용지침,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공무원 행동 강령과 관련 법 규정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규정이 현행화 및 정비되어 있음.
- 예결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센터 운영과 제도혁신을 위한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내부견제 시스템을 강화함.
-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전 직원의 교육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교육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교육 이수율이 향상되었음.
- KOTI신고센터가 사안별로 신고편의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며 제도 혁신 제안 게시판에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상시창구를 마련하고 있음. 법인카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자 지출증빙 시스템 도입 등 내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대외 활동모니터링제도, 일상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친인척 채용 결과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대외활동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리 중임.
- 채용비리 관련 채용업무 감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채용비리 징계강화, 전 직원 및 채용담당자에 대한 채용 비리예방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갑질근절대책 수립, 갑질행위 관련 징계강화, 청렴계약이행서약, 수의 계약 개선 등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선정 주요 인권이슈 실행, 조직체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 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수를 늘려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실제로 구성함.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하여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추진계획 적시 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 이수자의 직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하도록 권고함.
-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감사시스템은 기관 내의 감사 관련 내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제도변화의 노력이 요구됨.
- 클린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으나, 연구윤리 위반 등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윤리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쉽게 신고 가능하도록 제도를 검토해나갈 것을 권고함.
- 불공정거래(갑질 등) 근절을 위한 교육과 공공분야 채용비리 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고, 특히 채용심사위원 대상으로 교육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징계심의 시에만 외부위원 과반수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정부의 갑질근절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과 내부 갑질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실적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갑질방지대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친인척채용결과를 공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주기적이지 못하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빠짐없이 분기별로 공지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인권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한 연말에 1회 개최하였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 수립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경영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기관운영지표 150개 중 129개만 긍정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없음 사항 등 지표의 답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년 평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해나갈 것을 권고함.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6명) 대비 초과 달성(연구인턴 16명, 행정인턴 3명)하였음.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하며, 연구개발적립금 추가 활용을 통해 우수 인턴에 대한 고용연장, 연구부서 배치활용 등이 우수함.
- 청년인턴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실적 관리, 근무관리 프로세스를 갖추어 단계별로 조직적응을 유도하고, 기관 차원의 관리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신규채용인원 중 여성인력 비율이 57%이며, 경력단절 여성 지원시 우대사항을 갖추고 있고, 직무별 분야별로 다양한 여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최초 여성 최상위 부서장 및 주요 의결기구 의원으로 신규 임명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을 인정함.
- 22년 기관별 여성 고용 확대 목표 임원 대비 4.5% 초과 달성하였음.
- 여성 최상위 부서장 보직 임명, 주요 의결기구 여성위원 확대 및 여성 승진 확대 시행으로 2021년 대비 여성 승진이 6명 증가하여 전체 관리자 대비 여성 관리자가 16.9%인 점이 우수함.
- 4대 폭력 예방 교육의 직원 및 부서장 참여 정도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직무역량교육, 전문직무역량교육, 핵심인재양성교육 등 여성 교육 실적이 저조하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
- 경력단절을 위한 노력이 주로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채용실적이 없어 노력과 성과가 미흡함.
- 여성관리자 보직자 임명 실적이 매년 개선 추세이지만, 목표치를 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교육 발굴 및 규모와 심화 과정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에도 중증장애인 5명을 채용함.
- 장애인 구인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 제정,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필기시험 전형 5% 가산점) 부여 등으로 노력하고 있음.
- 맞춤형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화상 면접을 시행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추천 의뢰, 공개경쟁 채용 시 가점 부여, 퇴직자 재고용, 청년인턴 특별채용 시행 등의 노력 중임.

-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관련 규정을 정립하고 있음.
- 연구분야 내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유관기관(충남동부보훈청) 협의를 통해 특별 고용을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 고용유지가 지속할 수 있도록 퇴사 등으로 고용율 미달이 되는 경우, 신속하게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2.5%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됨.
- 특히 2022년도 신규채용 실적이 없어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해 실질적 채용을 위한 노력과 홍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보훈특별고용 추천 의뢰를 2차례 진행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이며, 전향적인 목표달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연구원 투트랙제도에 대하여, 석사급연구원도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원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이 바람직함.
- 외부기관 감사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한 점이 긍정적임.
- 감사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었으며, 감사인력 2인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이 우수함.
- 감사전담부서의 업무 분장이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긍정적임.
- 비상임감사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 감사업무보고 주요일자와 주요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감사실 직원 근무평가시 비상임감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점이 바람직함.
- 자체감사시스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일상감사 기능강화를 위해 중점점검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한 점이 우수함.
- 위탁용역 사전심사 모니터링과 국외출장 사전심사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임.
- 특정현안에 대한 안내기능 강화와 원내 구성원 소통을 위해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제작시 감사실이 검수 참여하였음. 또한 신규직원 교육 시 감사실과 예산경영팀 공동 개최한 점이 우수함.
- 중점 감사사항이 명확하고,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요구서와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이 우수함.
- 엄밀한 자체감사를 통해 기관의 자정 역량이 강화된 것이 긍정적임.
- 인쇄업체 선정, 전사장비 재물조사, 대외활동 신고의무 위반, 여비 중복지급, 가족수당 지급확인, 법인카드 집행 등에 대한 자체 정기감사를 시행하여 조치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노력과 성과의 가시화가 필요함.
- 감사실장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활성화와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길 권고함.
- 일상감사 기능 강화에 있어 반려 또는 수정에 대한 근거와 분기별 현황(비율 포함)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 개선의견을 통해 바뀐 효과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길 제안함.

- 전 직원 대상 감사교육 내용에 있어서 청렴, 부패방지, 인권 등 특정 주제에 국한하여 실시된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건의함.
- 반복적인 외부 및 내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와 연계한 감사계획 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마련할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2. 한국노동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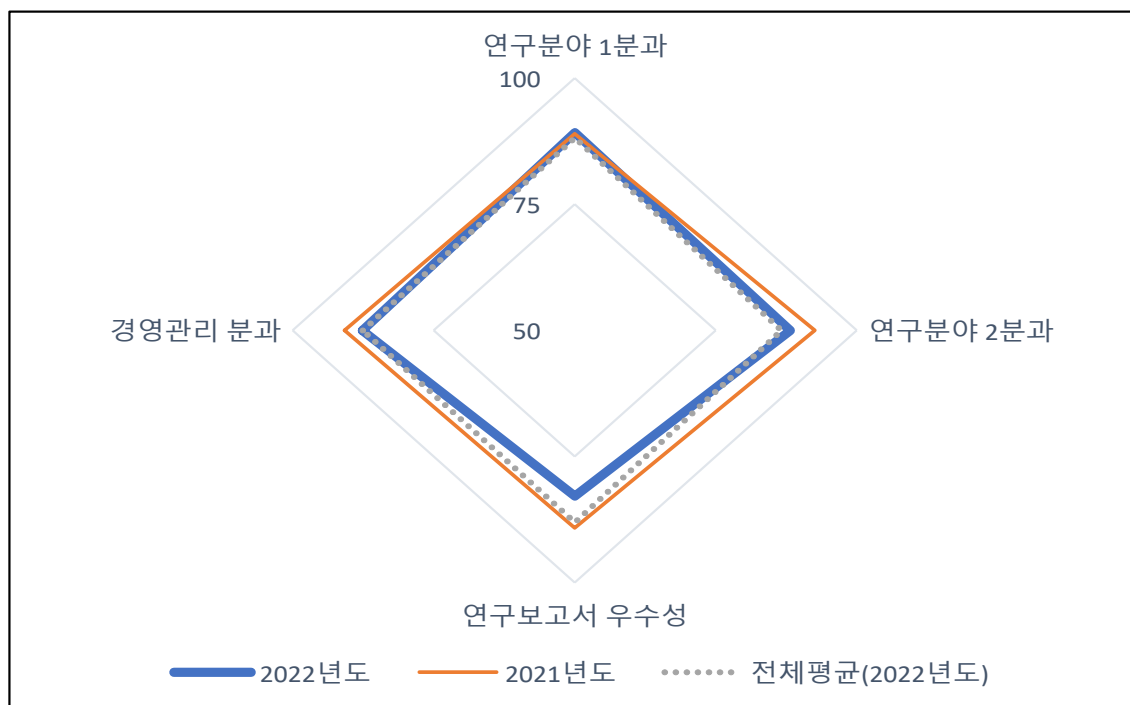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A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A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B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A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C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C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C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C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운영위원회와 정책연구기획 TF를 통해 원내외 의견을 수렴해서 2023 KLI 핵심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연구과제를 기획하였음.
- 기관 고유의 5대 연구수행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연구수행 과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협동 및 융복합 연구의 유형화를 통해 협동연구과제 수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정과제 수행 지원성과가 주로 정책방안 제시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입법화, 정책화의 성과는 비교적 부족해 보이는 바, 국정과제 지원성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노동개혁 등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다양한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긴급 연구과제 수행성과를 고도화하였고, 정부현안과제 비율도 개선하였음.

- 평가대상 9개 연구과제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최근 관심이 증대되거나 새로이 변화하는 노동문제와 이슈를 시의 적절하게 다루고 있음.
- 특히, 제안된 정책대안과 정책화 실적, 정책소통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관련 분야 이론적·학술적·정책적 관심제고와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일부 과제의 경우 제안된 정책대안과 정책화 실적 간 직접적인 관련성 또는 정책소통 과정에서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정책 활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경영 분야]

- 국내외 환경 분석(PEST), 기관 위상 및 내부 역량 분석, SWOT 분석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기관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도출함.
- 상시·지속사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퇴직자가 전문성을 확산하고 기관의 성과로 이전시킬 수 있는 퇴직프로그램마련이 필요함.
- 별도로 운영되는 클린센터와 온라인신고센터를 통합하여 내외부 구성원이 모두 신고가능한 원스톱체제로 개선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배정예산 집행률이 우수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이 기준보다 매우 저조함.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이며 차별적인 목표달성 방안이 필요함.
- 자체 감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감사역량 강화와 감사관련 교육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정책환경분석을 위해 정책연구기획 TF에서 PEST 분석을 시행하였고, 국정과제, 정부핵심추진 정책을 분석하고,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서 대응과제를 도출하고, 이와 연계하여 '23년 16개 기본연구과제와 2개 일반사업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연구기획의 적정성이 인정됨.
- 정책연구기획 TF, 정부정책간담회, 외부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노동 분야 주요 현안에 부합하는 2023년 연구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였음.
- 연구기획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고객별(정부 및 국회, 산·학·연, 국민, 시민·노사단체 등) 참여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음.
- 국회, 총리실, 정부부처, 대통령실 산하 위원회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급현안이나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수시연구 착수 및 심의, 평가과정에 정부 부처 관계자 혹은 정책 수요자의 참여가 제도화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과제 종료 후 정책연구 수요자에게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함으로써 수시연구과제 수행체제를 개선함.
- 연구운영위원회와 정책연구기획 TF를 통해 원내외 의견을 수렴해서 2023 KLI 핵심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연구과제를 기획하였음.
- KLI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과 정부부처 중점추진사업 분석에 근거하여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별 연구과제를 기획·선정함.
- 연구기획을 통해 선정된 과제 28개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노동은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의 목소리를 더 듣는 것이 중요함.

- 비정규직, 일당 노동직 등의 고용안정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방법을 찾아서 보다 많은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 및 정부부처와의 연구기획 참여를 위한 소통과 노력의 결과가 모두 ‘논의’로 귀결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요구됨.
- 사회적 현안이슈 중에서 외국인력, 청년취업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축 및 의견청취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26.4%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음.
- 정책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정책수요자 정부, 국회, 국민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수요 조사시스템을 운영하였음.
- 중점연구사업 선정과정은 “기획→제안·발굴→토론·조정→심의·선정”의 단계를 거쳐 확정하였고, 2023년도 중점연구사업 기본연구 5건이 선정됨.
- 협동연구는 협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대응형, 산학연협력형, 국제공동연구형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함. 협동연구에서 산학연협력형이 4건, 국제협력형이 4건, 정책대응형이 5건으로 과제배분도 잘 이루어짐.
- 협동연구 과제발굴시 top-down과 bottom-up의 two-track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써 기획 및 발굴 체계의 다양화를 추구하였음.
- 120대 국정과제,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국정정책 및 이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과제를 파악하고,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시의성 등을 평가하여 2023년도 연구과제 기획·선정하였음.
- 기본·일반과제 100% 국정과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기본연구사업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중이 67.0%로 적정성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과제 선정 기준에 산업현장을 고려한 내용이 없음. 노동은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산학연협력형 연구가 대부분 학교, 학회, 위원회, 리서치 등 현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부족함. 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연구가 필요함.

- 상향식 발굴 시스템 중 내부제안보다 외부수요조사나 하향식 발굴 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내부제안이 상하향식 발굴이 갖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소스일 수 있는 바 내부제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에서 국정과제 제안 시 질적인 성과사례가 다소 부족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관 고유의 5대 연구수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우 체계적으로 연구수행 과정을 관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보고서 제출 지연 행위에 대해 과제별 총점의 3~6% 감점을 개인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보고서 정시 발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함.
- 원내 인트라넷 활용을 통한 연구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연구실적 평가 시 3+3제도(책임과제 3편 + 공동연구과제 3편)를 운영함으로써 양적 연구 확대를 지양하고 보고서의 질 향상에 집중토록 유도함.
- 내부 인력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일정공유, 업무전달, 과제수행 현황 공유하는 시스템) 및 다양한 연구포럼을 운영함.
- 수시연구 수행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시연구계획서 심의과정을 기본연구와 동일하게 정량화한 방식으로 제도화해 정책수요자 참여를 강화함.
- 협동 및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협동 및 융복합연구를 정책대응형, 산학연협력형, 국제공동연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해서 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협동연구과제 비율 점진적 확대함.
- 협동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도 평가에서도 연구보고서 발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근무성적평가규칙에 별점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력은 하였으나 여전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연구윤리점검을 위한 보고서 발간 지연 사례가 과다함. 연구추진체계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문제일 수 있으므로 지연에 따른 벌점부과나 조기 발간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외부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의 연구진 참여 및 자문 참여와 관련해 대학·연구기관 종사자와의 협력에 치중하고 있어 노동 현장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이는 바, 외부와의 협업 범위를 확대, 다양화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요망됨.
- 수시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연장 불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방식으로 보임. 수시연구의 성격에 따라 패스트 트랙 적용이 필요한 초단기 과제도 있고 기본 연구에 준할 만큼의 장기과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단기·중기 과제의 2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 연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내부 인력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협업 시도시 평정점수 부여 등)는 별도로 갖추고 있지 못한데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 구축으로 협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단계별(연구추진심의, 중간심의, 보고서심의)로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내용의 충실성, 자료의 타당성 등에 대한 총괄적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위원 6인의 전문성과 역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협동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전체 과제의 41.2%에 불과하며, 기본연구의 협동연구과제 비율이 10.5%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으며 협동연구가 일반연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연구유형별로 협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가 양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어도 보고서상에는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한 유인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데 협동연구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 있어 보임.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위원회나 연구윤리 점검단과 별도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연구 윤리 관리체계의 분업화를 지향함.
- 2년 연속 연구윤리 클린기관으로 선정됨.
- 연구윤리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특히 1:1 맞춤형교육을 수시 제공함.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노력이 연구수행의 전 단계에 걸쳐 매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윤리규정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징구 및 내·외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윤리 중장기적 제도 시행 및 자발적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함.
-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위해 GW 알림마당 및 연구회와 연구재단 배포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함.
- IRB 강화 차원에서 IRB 심의비를 지급함.
- 연구윤리 자체점검표를 일괄 제출 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함.
-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GW 알림마당에 ‘학술정보공유시스템’ 및 부실학회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지침에 따라 부실학회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구윤리 규정」과 부합하도록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윤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함(징계양정기준의 개선 등).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관련 4개 기구(과제별 연심위에서의 윤리점검까지 포함하면 5개)의 기능 중복 우려 있으므로 기능 중복 조직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 관련 4개 기구의 외부 위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바, 최소 원내외 동수 구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연구윤리 총괄조직인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내외부 위원의 구성비가 6:3인데 외부위원의 비율을 5:5의 비율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연구윤리점검단 등 다른 연구윤리 관련 조직의 내외부 구성비에서 외부 위원 비율을 점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사실상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은 연2회 제공되는 연구윤리 집중교육으로 한정되는 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있음.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체계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에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긴 하지만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라도 연구자 간 동료평가 방식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내 연구윤리위반행위 익명 신고센터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신상필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들이 해당 규정을 숙지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연구회에서 제시한 ‘연구보고서 저자표기 공통기준’에 따른 「연구보고서 등 저자 인정 및 표기에 관한 지침(안)」이 노동조합과 협의 상태에 있는 상황이어서 미개정 상태인 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지침 개정이 필요해 보임.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확산 활동 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정책연구기획 TF에서 도출된 ‘정책 핵심 아젠다’를 기반으로 전환시대의 고용·노동관계 연구,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정책수립의 핵심분야가 설정됨.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성과확산 추진을 기획함.
- 세대·MZ·공정사회, 여성·고령화, 워라벨, 노사관계등 정책핵심 아젠다의 선정이 적절함.
- 국제컨퍼런스, 토론회, 포럼,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언론홍보, 영상콘텐츠 강의와 보고서 등 성과확산 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 고객 니즈를 반영한 ICT기반 운영채널의 참여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함.
- 연구보고서 등 정기 비정기 자료, EDF, E-Book등 연구성과물 유형별 배포 및 형식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연구성과물 배포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50,608건의 연구성과물이 배포되고,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실적이 우수함.
- 정부 및 국회, 산·학·연 및 국민·시민단체·노사단체의 대국민 등 정책고객별 참여 채널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이 우수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중장기 계획(2021~2025),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동정책 연구화의 비전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하고, 총 30건의 해외전문가와의 노동정보 네트워크 구축 실적을 보임.
- 26건의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사업 실적, 20건의 인력교류 실적, 5건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실적, 9건의 국제행사 개최실적, 토론회 개최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성과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영상콘텐츠의 활용 실적이 저조함.
- 국내 기관들과의 협업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노동분야 관련 정책도 주변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지되 일관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제안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실적이 우수함.
- 41건의 연구과제가 NKIS에 수록되어 100%의 등록률을 보임.
- 기타성과물의 NKIS 등록실적이 우수함.
- 1인당 연구실적 0.94로 연구실적의 학술논문화를 통한 확산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수행연구과제의 100% NKIS에 등록되었으나, 상당 수의 등록대상과제가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초과한 후에 업로드 되어 등록의 충실성을 결여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정 과제 지원 등 관련 주무 부처 이외의 정부 부처의 다양화 노력이 우수함.
- 산업 재해, 상생의 노동 시장 구축 등 그 주제의 성격상 국정 과제 주요 성과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 19개 분야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였으며, 총 112개의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투입 입력 360명, 예산 약 123억원으로 그 적정성이 인정됨. 특히 기관 수행 연구과제 113개 과제 중 99.1%인 112개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계해 수행한 실적이 우수함.
- 정부 부처에서 수행한 15개 분야 국정과제에 참여하여 관련 정부부처, 국회의 정책 마련, 국회 입법 발의안 및 법령 개정에 기여함.
- 국정과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한 “22년도 임금격차 완화 지원 사업”은 저성장 시대에서 집단 간 임금수준 격차 완화와 임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 정책을 전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국정과제 51.에 부합함.
- 국정과제 수행 대표사례를 변경하라는 전년도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수행 대표사례를 임금격차 완화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제시함으로써 공정 임금 체계 확산을 위한 정부 예산 대폭 확대 성과에 기여하고, 임금 체계 개편을 지원함.
- 추진체계 및 추진실적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향후 국가의 임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임금체계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수행 지원성과가 주로 정책방안 제시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입법화, 정책화의 성과는 비교적 부족해 보이는 바, 국정과제 지원성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대표사례 선정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주요 정책기여 활동이 입법화, 정책화로 연결된 경우가 많으며 이 결과 구체적인 실적도 우수하며 국정 과제와의 긴밀도, 연계성도 우수함.

- 연구성과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4단계 절차로 구성되는 전주기적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등 성과확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4단계에 걸친 전주기적 정책 기여도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으며 관리 수행 조직의 책임소재가 분명해 관리제도의 정합성이 매우 높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제에서 TF 운영, 정책수요자 특히 정책실무협의를 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부처 공무원의 평가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음.
-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정책기여도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우수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환류 시스템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노동개혁 등 국가 및 정부 긴급현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조실, 고용노동부, 여가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 관련 상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 및 비연구과제 수행 성과를 도출함.
- 노동개혁 관련 현안 이슈 관련 15건, 인구구조 대응 관련 7건, 취약계층 지원 관련 7건, 위기극복과 포용성장 관련 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현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과제의 발굴 및 수행 성과가 적절함.
- 현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한 긴급수탁과제의 적정성 및 수행실적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약 55회에 걸친 (긴급) 비연구과제의 수행 또한 현안 과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 긴급연구수행 및 정부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과가 정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기타 제도 개선으로 잘 연결되고 있음.
- “코로나 시기 대규모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성과와 정책 시사점” 등 총 7건의 수시과제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으로 부터 제안받아 진행하였고, 수시연구과제 대비 정부현안과제 비율을 66.5%로 배정하여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음.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29.7%,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 과제 비율이 66.5%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와 연동시켜 4개의 긴급현안과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22년도 연구과제 32건을 그 수행성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긴급현안 과제의 분류기준에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가령 “청년세대의 노동운동과 일터민주주의”를 긴급현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수시과제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자 편중에 따른 불합리를 해결하였으나, 수시과제 수행 성과가 정책화 내지 입법화로 연결된 사례가 부족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기관이 제출한 대부분의 과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분야 현안을 시의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 개발 및 활용연구”,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연구”, “가사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방언 연구” 등)
- 특히, 일부 과제의 경우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거나 주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집단에 대해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타당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관심 제고와 체감도 향상에도 기여함. (“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공공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방안 : 노동이사제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 보험 적용확대 및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연구” 등)
- 제안된 다수의 정책대안은 관련 법·규정의 제·개정 등 정부정책, 사업(계획), 지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됨으로써 정책추진 체계 강화에 기여하는 등 현실성이 우수함. (“지역노동시장과 이민”,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상 임금원칙의 확장성 검토”, “『제6차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대안 제시 관련, 정책대안별 정책목표-추진방향-추진전략-세부 추진 과제-추진체계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화 실현(집행) 가능성 및 활용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책추진의 로드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화 과정 및 정책소통 관련, 다양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에 대한 성과보다 대체로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연구, 각종 정부활동(연구회·위원회 포함), 연구관련 발표·토론, 기고 및 자문 등 과제 관련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치중하는 경향이 존재함.
-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정책 대상자, 유관 부처 및 기관, 지자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포함)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연구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효과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정책 대상자와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 실태조사 수행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보도·공론화 등을 통해 연구결과 및 추진정책을 공유·홍보·확산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함.

- 정책대안의 정책화 실적 중 ‘국정과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제시한 경우, 향후에 정책기여도 및 연구의 완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예컨대 후속연구 추진,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 과제의 경우 정책의 제도화(입법화 성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반영 등) 측면에서 제시된 정책화 실적(정책 대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해 보임(“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등). 특히, 정책화 실적(정책 대안)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있는 경우, 정책의 구체적인 제도화 실적 제시가 제한됨.
- 정책대안 제시 관련, 향후 정책의 지속성·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정책 추진 점검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시킨다면 ‘대안제시-정책화(실적)-활용성’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보고서는 몇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학문적 관점은 물론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 의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일터 혁신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성과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터혁신에 대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고 있음. 참고로 본 연구는 조성재, 이준협(2010)의 분석 framework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IT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서, 연구 기법을 일정 부분 업데이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최근 대두되는 이슈인 산업안전이라는 이슈를 잡은 것, 국제적으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자료와 숫자로 비교한 것 등은 의미 있는 연구였음.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외부 전문가가 아닌 기업 내 노조로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적절한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설문조사에서 사업자 측면과 노조 측면을 동시에 조사했고, 두 집단 간의 인식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 점은 시사점이 큼.
- 한편, 기술 시장지배력 변화 관련 연구의 경우도 정책적 시의성이 높았는데, 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의 정리 및 실증분석이 충실히 이뤄졌음을 확인함. 또한, 기술 및 시장지배력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질적인 계층에서 발생하는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기존의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한 점이 인정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 진보와 시장지배력의 변화가 가져오는 노동시장효과를 한국적 상황에서 검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및 실현 가능성이 우수함.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자료 확보 노력과 다양한 연구방법 시도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했음. 현장의 자료와 의견을 연구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 역시 인상적이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기초정책연구보고서의 경우 미흡한 점 역시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애주기별 건강 격차 관련 연구에서, 교육격차가 건강격차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교육, 소득,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결론 도출에 좀 더 신중함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또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실행방안이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고용안전망’ 관련 연구의 경우, 해당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이미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이행 및 실천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포함되었다면 보다 높은 완성도를 갖췄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실증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창업 투자금이나 창업 준비기간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의 효과를 추론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론은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연구보고서 일부에서 최초 연구 설계에 비해, 관련 연구, 다양한 연구적 시도와 방대한 연구 내용 제시에 비하여 정책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연구결과 제시의 명료성이 부족하여 비롯된 가독성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 부분 등이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한 점은 우선, 일터혁신 국제비교 연구의 경우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본과 유럽 각국(독일, 스코틀랜드(영국), 네덜란드)의 최근 논의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현재를 평가해보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속인주의 관련 연구에서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직무중심으로 HR체계를 변화 시키고 있는 현실임.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나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각 나라별 사례 참고 과정에서 연구목적 및 연구방식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다소 아쉬움. 동일한 연구보고서 안에서 각 장마다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어 내용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었음.
- 일부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개별 국가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뤄야만 한국적 차원의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주길 건의함.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관의 대내외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기관의 당면 현안과 개선 방향을 도출함. 특히, 국내외 환경 분석(PEST), 기관 위상 및 내부 역량 분석, SWOT 분석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기관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도출함.
- 전략 연구과제 기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등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함.
- 2022년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노력을 기울임.
- 고충처리위원회 노사 1인씩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남녀 1인씩 고충처리담당관을 지정하는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함.
- 2022년 4건의 직원 고충(괴롭힘, 비하 등)을 처리하는 등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이 양호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특히 새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등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관의 대응이 부족함.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실적 내역을 재기술하는 형식의 분석이 아니라, 향후 조직운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PDCA 기반의 조직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Plan 단계에서 조직성과 관리 또는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담당조직과 프로세스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Check 단계에서 조직 성과 점검의 일정, 방식, 평가주체 등을 구체화하고, 제도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과제(사업)의 중간 성과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 외에 주별·월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 노사교섭 등의 실적은 많으나, 노사 간 신뢰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노사 화합을 위한 소통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요구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KLI 중장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상을 홈페이지에 공지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미국 및 유럽의 관련 학회와의 교류관계를 형성하여 채용 노력하는 것이 우수함.
- 교육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직무역량, 공통역량, 법정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운영 및 관리함.
-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와 더불어 직무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 외 자기계발 장려, 교육휴가 중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과정과 은퇴설계과정을 운영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부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한 설명요인을 고려한 회귀방정식 등을 활용하는 세밀한 계량적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미래인력 예측을 적용해야 함.
- 국내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채용전문사이트 및 학회 채용공고문 게시와 함께 신진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교육 및 연수에 대한 현업적응도와 기여도 등을 평가 및 환류체계를 연계하여 성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
- 연구역량 강화교육이 대부분 통계 패키지지의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 보다 더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노력이 요구됨.
- 업적평가 평가지표의 반영비율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서 업적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평가지표에 대한 반영비율 및 세부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한 표준화된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대외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외활동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방안 등에 대한 업무해설서를 적절히 갖추고 있음.
- 대외활동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함.
- 자체 감사를 통한 근무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고, 근무관련 자체감사,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지적사항이 없음.
-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권장 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며, 연가저축제 활용 등을 통해 개인별 연차휴가 소진율 100%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구성원들의 휴가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의 관리가 적정함.
- 시차 출퇴근제, 자율형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운영되고 있음.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연구직에 집중되어 있는 바, 대외활동 간편시스템 구축 등 연구직에 대한 적시 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국무조정실 특정감사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외출, 조퇴 8시간 연가 공제 관련 제도개선 처분 요구 미이행 지적사항이 미완료됨.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근무 및 인사 관련 지적 사항은 모두 노조합의를 이유로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조직의 발전을 위해 기관의 노사 간 합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조직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 및 유연근무제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여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할 것을 건의함. 다양한 유연근무제 유형을 안정적으로 도입한 타기관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함.
- 연구년 및 방문연수 제도 관련 결과보고서는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저술한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의무규정을 구축할 경우 불이행에 대한 제재사항이 함께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년 기간 중 저술한 논문이나 저서에 대한 기간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연구년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명시와 기본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등 구체적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상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절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 각종 제도에 대한 사용안내, 신청,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을 유사산 휴가, 육아시간 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남녀고용평등법 22조 2항에 의거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만족도 조사 시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 노력이 필요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지침과 무기계약직 2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합의문 작성하는 노력을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문성을 가진 정부대행 사업인력의 정규직을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용지속성이 예상될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유지하기보다 전환을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비정규직 간담회나 차별적 심리적 요소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단건에 한정되어 이를 상시화 하고 개선된 의견을 개선으로 연계된 사례나 경험을 기반으로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연계시키고 실적에 따른 피드백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준비 및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운영하는 등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단순히 기존업무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로만 제시되어 있어, 직군별로 업무량 조정에 따라 퇴직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가 전문성을 확산하고 이를 기관의 성과(노하우 축적 및 전문성 이전)로 이전시킬 수 있는 퇴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별도정원을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이직 및 퇴직으로 인해 채용이 안정화되지 못한 점 등 별도정원 채용 실적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임금피크제 재원 소요액 및 재원 충당계획이 포함된 인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성범죄 방지를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성범죄에 대한 외부 전문상담창구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음.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 주기적인 감사, 클린센터, 옴브즈만 등 기본적인 내부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전형별 중복참여 배제,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채용비리로 인한 구제제도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영향평가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원장을 참여시켜 의사결정력을 확보하였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고, 내외부 동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임.

- 인권영향평가계획 수립,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인권영향평가결과 공개 등 체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클린센터와 온라인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는 바 통합하여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있음. 나아가 신고센터는 내외부 구성원이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행동강령이 마련되어 있으나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양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양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 클린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연구윤리나 인권침해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함.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으나 외부기관에 대한 갑질실태 조사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외부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적을 제시하기 바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실적이 없으므로, 징계가 발생할 때마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이수율이 낮은 수준임. 인센티브 부여,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또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윤리교육에 머물고 있고 최근의 동향을 반영한 대외적인 갑질 및 불공정 거래근절교육, 채용비리예방교육 등의 교육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 이수자의 직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텐츠가 부족한 상황 이므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징계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윤리교육에 대한 전 직원/부서장의 교육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음.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에 있어 전 직원 대상 참석율이 73%와 관리자 대상은 82.1%로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윤리경영제도에 대한 실적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외부전문성을 활용한 실적이 없음.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견제시스템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옴부즈만제도, 외부컨설팅, 외부자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를 권고함.
- 친인척채용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기성도 없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분기별로 접근성 있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담당자 및 일반직원들에 대한 교육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용비리예방을 위한 담당자 및 전 직원 교육관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함.
- 특별채용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최근의 정부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규정을 현행화할 것을 권고함.
- 특수임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용공고 상으로는 특수임용방식의 계약형태에 대해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지 않음. 공정채용가이드라인 및 노동법상의 취지를 살려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운영상 합리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 인권침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구제절차 운영에 대한 실적 제시가 미흡함. 주기적인 구제절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재구성, 개선 방안의 수립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 개선 노력 필요함.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인권경영운영지침상 인권계획 수립 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회의는 인권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는 연말에 1회 개최하였고, 인권경영지침 상 정기회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실태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체크리스트 지표수가 기관운영 214개, 사업지표 27개로 많은 편이고, 기관운영 중 ‘해당없음’이 48개로 긍정답변이 150개로 긍정답변율이 70% 수준에 불과함. 과다한 지표수 조정, 해당없는 지표 정리 등 인권영향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나아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항목(성차별적인 제도개선,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외부 고객 등) 추가할 필요 있음.
- 인권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외부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사이트 개선이 필요함.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있으나 이수율이 낮으며,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이수율도 관리할 것을 권고함.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14%(연구인턴 1명, 행정인턴 7명)로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함.
- 연구원 내부(정규 및 비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의 서류전형을 면제, 각 전형별 5% 가산점 부여하는 점이 우수함.
- 멘토링 관리, 맞춤형 교육참여 기회 제공 등 청년인턴이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수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여성인력 정규직 57.1%, 기간제 채용 62.5%, 경력단절 여성 2명 채용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채용 전형위원 구성 시 여성 심사위원 1인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 승진대상자 22명 중 22명 승진 합격(전체 승진대상자 48명 중 46명 승진)하였고, 육아휴직 여성 3명에 대하여,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로 선정(승진 완료)되었음.
- 주요 보직인 노사관계연구본부장에 여성을 임명하였으며, 관리자 직급 112명 중 45명이 여성(40.2%)으로, 2022년 목표치(37%)를 상회하는 실적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확인되며, 여성보직자 비율 우수함.
- 원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등에 여성인력이 1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고,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여성으로 임명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 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력단절여성 채용이 전년도 7명에서 2명으로 감소 추세로 원인 파악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규채용 여성인력 대부분이 초빙연구위원과 기간제 행정원 등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진적으로 조직 내에서 정규직 전환 로드맵 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연구직 보직자의 비율(33.3%)이 행정직 비율(60.7%)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함.
-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의 부서장 교육이수 비율이 71.4%와 88.9%로 저조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준수 및 초과 달성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장애인 구인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 제정,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전형별 각 5% 가산점 부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장애인 대상 제한경쟁 채용공고 3건 진행) 등의 노력을 통해 2022년 2명을 채용함.
- 전 직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직원과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병원 검진 유급휴가 처리 이외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고 있음.
- 2022년 국가유공자 채용으로 기간제 행정원 1명을 채용하였음.
- 2022년도 보훈대상자 제한경쟁 채용공고 2건 진행, 법령에 따라 가산점 5% 대상자는 1%의 가점을 추가 부여하고 있음.
- 법령을 준용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채용 내용을 규정에 반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유공자 고용률 1.9%로 매우 미흡함.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이며 차별적인 목표달성 방안이 필요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시용제도 및 고용계약제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함.
- 비상임감사 활성화를 위해 비상임감사에게 그룹웨어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근무 공간을 제공한 점은 우수함.
- 감사부서가 직제상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감사실의 단위 부서별 업무분장도 적절함.
- 자체감사시스템 구축 및 가동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임.
-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실적과 법인카드 모니터링 대상과 이를 근거로 모니터링 대상 검출과 시스템 운영도 양호함.
- 감사관련 교육자료 온라인 제공에 있어 알림마당-공지사항과 감사정보방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지정한 점은 우수함.
- 감사기구의 장이 기관 및 소속원의 전반적인 업무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한 점은 우수함.
- 일상 감사 시스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대외 활동 관련 업무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여비지급 부적정 및 일부 규정·지침의 불명확성이 지적되었으나 개선 노력이 있는 점이 우수함.
-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연간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절차를 준수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동 대안 모색뿐 아니라 공통 지적사항에 관한 연구기관 자체의 선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연구진 투트랙 제도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안이 도출해내지 못하는 등 개선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성과 제시가 필요함. 상위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결과 또는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제도를 설계할 것을 건의함.
- 비상임감사 활성화 방안 준수로 인해 간담회와 업무보고, 그리고 종료 보고 이후 비상임감사의 조치사항이나 검토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길 건의함.

-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인사평가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의 평가체계 정립, 사후적 예산조정 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자 노력할 것을 건의함.
- 감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및 현장 강의 수강 이외에도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확산할 것을 건의함.
- 자체감사결과 중 동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시 가동하며, 감사결과 및 사후조치를 전 직원에 다양한 채널로 공유 및 확산할 것을 건의함.
- 교육수요에 따른 대상자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교육 내용의 효과성(현업적응도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 평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함.
- 감사 관련 교육 참여율이 낮는데, 온라인 감사교육의 실효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전 직원 대외활동 관련 대상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의 연계를 통해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여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에 소극적이며, 노동조합, 인권위원회 결정, 기획재정부 정원 관리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바, 개선을 위한 기관의 주체적인 노력이 요구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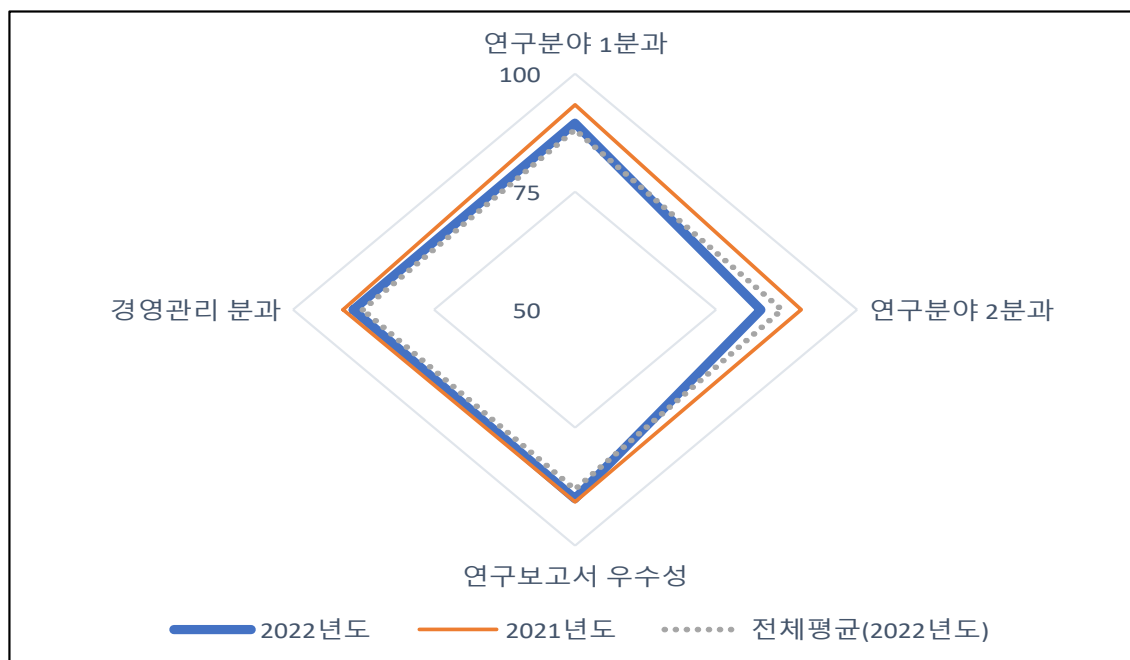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A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S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A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C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C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S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A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사업목표 달성과 국가 긴급현안 및 농정 이슈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추진하였음.
- 외부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연구자문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수행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윤리 전담 평가위원의 내외부 동수 구성 및 연구윤리 전담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연구윤리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식량 공급망 위기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긴급 현안과제의 발굴 및 연구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입법지원 성과도 우수한 편임. 다만, 정부부처 현안과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농업·농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은 현실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우수하며, 이러한 정책대안들이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회 및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정을 통해서 정책화 및 입법화로 연계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정책대안의 정책화 또는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참여, 언론 홍보 활동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연구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센터 중점사업의 고도화, 환류 노력 등을 통해서 정책집행 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설정 및 도전적 성과목표치 설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성과관리에 힘쓰며, 사업집행 결과가 관련 정책화 및 입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함.

[경영 분야]

- 식량안보 및 국제곡물 안정적 수급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소통 및 기관차원의 대응 방안을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실천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었음.
- 구성원 간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했지만, 기관장의 비전 및 목표공유를 위한 구체성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함.
- 새 정부의 농촌관련 국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했고 적극적인 언론 활동이 있었음.
- 업무 일원화, 직원 업적평가 계획, 직원 평가제도 개편 등 다방면에서 조직 관리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함.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위촉직 사전 심의를 월 2회 정기 추진하며 휴직자 대체인력 DB를 만드는 등 노력이 우수함.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검토와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역할구분이 명확하고 신규채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 되어 있음.
- 직원임용규칙에 비정규직 내부공모제도규정이 있으므로 최근의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현행화가 필요함.
- 청년인턴에 대한 매월 근무평가 실시(평가결과로 채용우대 자격요건 마련),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지원, 취업지원 특별휴가, 채용 시 우대(서류전형 면제) 조치를 시행한 점은 긍정적임.
- 여성인력 채용비율 상승,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달성 등 여성인력 확대 노력을 하고 있음.
- 인턴직원 외 22년 장애인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어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꾸준히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체 감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 관련 교육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실시한 점이 우수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농업계를 둘러싼 내부 외부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국회,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원내 자료를 통해서 조사 분석하고 있음.
- 연구원 경영진(Top-down)과 연구자(Bottom-up), 정책 대상자(농촌주민·농민)와 정책 입안 집행자(정부·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Four-track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음.
- 선제적 연구기획을 위해 부서장워크숍, 박사워크숍, 현장토론회, 농촌연구자문단,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대통령직인수위, 농식품부 장관보고등 실시, 국민의식조사(매년), KREI리포터(연중), RP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연구기획·발굴단계에서 인트라넷 내 4,100 건의 연구제안서 자료를 축적한 RP뱅크를 운영하는 점은 우수함.
- 정부, 국회, 소비자, 농민, 국민 등 정책연구수요자의 참여 증진을 위해 업무보고,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발표대회, 만족도조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수단을 활용해서 정책수요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
- 대통령실을 비롯한 3개 관련 정부부처, 국회, 농민 및 소비자 단체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들의 연구기획 참여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 정책연구실무협회를 통한 과제발굴 및 반영성고가 개선되었으며, 정책연구기획 TF를 통해 정책 및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농촌연구자문단에 소비자 단체를 추가하였고, 현장의 농민 및 영농 후계자의 참여를 확대함.
- 외부환경분석(PESTEL), 정책환경분석(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빅데이터 분석(국민의식 조사 등) 정책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서 분석하고 10대 현안이슈 및 국가 긴급 현안을 도출하였음.
- 연구사업목표 달성과 국가 긴급 현안 및 농정 이슈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추진하였음.
- 농식품부 등이 직접 요청(공문, 관계부처 기본계획 등)해서 현안에 반영하여 수시과제를 7건 수행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미래지향적인 농업관련 연구 기획을 위해 농촌 선진 외국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참여자 누구나 직접 제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홍보가 필요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수를 5회에서 11회로 확대하나 여전히 충분한 협의과정을 갖기 어려운 횟수라고 여겨지므로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됨.
- 농산어촌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적 이슈인 그랜드 과제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기초연구사업비 총액 비율이 9.6%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음.
- 연구수요조사 실시, 중장기농정의제연구단 및 농촌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추진함.
- 연구기획조정위 확대기획조정위 등을 통해 연구과제의 기본 방향성 및 국정과제 연관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 평가·수정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음. 그 결과 기본과제 15건, 일반(협동)과제 1건 발굴함.
- 중점연구사업 선정 시 농정 및 국정 현안의 시급성, 융복합성을 고려해서 5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예산, 인력을 배분하였음.
- IoT,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진화를 반영한 농업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연구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대함.
-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 정부, 학계, 소비자, 언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대기획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을 평가함으로써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외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국민, 농민 등 외부 정책수요자 의견 반영률은 과제수 기준 62.5%, 연구예산 기준 65.6%로 기관 자체발굴 과제의 거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는 기본·일반연구 과제 발굴 선정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함.
- 협동연구를 정책협동연구, 글로벌 공동연구, 지자체 공동연구, 민간·학계 협력연구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협동연구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연구협력협정(MOU) 체결 기관(5개)과의 협력을 통한 협동연구를 확대하였음.
- KREI 리포터, 현지통신원, 농촌연구자문단, 현장토론회 통해 농업·농촌 현장의 협동연구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우수함.
-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연구원 기획 모든 연구과제에 반영하였음.

- 22년도 기획한 신규 기본·일반과제(16건)에 120대 국정과제, 정부 정책내용 등 적극 반영하였음.
- 기본연구사업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중은 32.0%로 선정 권고율을 준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획조정위에서 외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과제선정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함.
- 협동연구의 필요성은 미래에 더 높아질 것이므로 이질적인 다른기관 또는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인력을 선제적으로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임.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특정 연구자에 과제가 편중되어 연구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시점에 연구자 개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의 수를 4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함.
- 과제별 공동연구진 구성을 통한 협업을 유도해 전체 40개 과제 중 부서 간 협업과제 17개, 직급별 협업과제 35개로 과제당 평균 4.1명 공동 수행함.
-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의 과제 참여를 적극 유도해 40개 과제 중 29개 과제가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함.
- 연구자문회의를 활성화함(개최 실적 많고 참석율도 매우 높음).
- 협동연구과제 비율은 62.3%로 적정 수준을 유지함.
- KREI 이야기, 세미나 운영,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내부 협동과제 수행체계를 활성화함.
- 23개의 협동연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성과를 보면 참여기관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인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특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대부분이 학교 등 연구기관 소속으로 농업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따라서 향후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농업현장 연구자 간 적극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직급별 협력이 일상화됨에 따라 연구의 책임소재 및 신규 연구자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시니어 연구원의 활용이 기관 내 위계구조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현될 가능성 경계할 필요).
- 협력 및 협업에 따른 개인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가 보고서상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그러한 제도 없이도 협력·협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도 부재에 따른 협업 동기의 지속성 약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화가 필요함.

- 보고서 발간일은 준수하고 있으나 보고서 조기 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능한 보고서 조기 발간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박사급연구자 워크숍 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석사급 연구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책임성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필요해 보임(피어리뷰제도나 석사급 연구원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 부재해 보임).
- 정책실무협의회, 각종 자문위원 위촉 등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정부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기관 특성으로 인해 지나치게 특정부처에 편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유관부처로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수시연구와 기타연구의 경우 협동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서 협동연구 촉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가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지나치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로 협동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협동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바, 통합 등의 방법을 통해 규모의 상향조정이 필요해 보임.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 전담 평가위원을 내외부 동수로 구성함으로써 자체점검시스템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함.
- 연구윤리 전담 평가 기준을 마련함.
- 5년 연속 클린기관으로 선정됨.
- 해외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및 해외출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점검 활동을 전개함.
- 연구윤리 점검 헬프 데스크를 운영함.
- 연구윤리조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교육은 부서장교육, 연구윤리 워크숍, 카피킬러 이용법 온라인 교육, 신입직원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 관련 직원교육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기관 자체의 전문성 있는 연구윤리 교육은 부족한 상황 지속.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전문적인 연구진 대상 연구단계별로 특화된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필요 있음.

- p.68에서 21년도 윤리평가와 비교해 22년도에 과제당 표절 의심사례는 1.3건에서 2.2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기타는 11.6건에서 3.9건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해 보임. 표절 의심사례가 증가한 것이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 효율이 강화된 때문인지 아니면 윤리교육의 효과성 부족으로 인해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에 바탕을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 문화 정착 촉진을 위한 연구윤리 위반 신고센터 등 동료평가 차원의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익명의 연구윤리위반 제보 받는 조직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제도화된 형태의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KREI 중기(2020-2022) 연구성과확산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3년차인 2022년 고객 확대를 통한 성과확산 극대화의 계획에 맞추어 성과를 달성함.
- 모바일·SNS, 심포지엄·세미나·포럼, 영상제작 및 방송활동, 언론매체, 홍보네트워크 운영 및 온오프라인 고객관리, 홈페이지, 웹진 등 메일링 서비스, 정책자료집·연구결과물 배포 등 연구성과 확산수단이 다양화되어 있고 실적이 우수함.
- 원내 성과확산을 위한 다양한 회의형태 체계가 적절함.
- 1,393,802건의 연구성과물 배포실적이 우수하고, 이슈페이퍼 발간실적이 우수함.
- 연구보고서는 4,836건이고, 나머지 간행물은 연속간행물로, 배포처는 개인, 농가, 전문가 116,543건으로 비중이 커, 수요자에 맞추어 간행물이 배포되고 있음.
- 매회 농업전망대회 개최 실적이 우수함.
- 1,330건의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실적이 우수하고, 성과가 우수함.
- 농정분야 글로벌 싱크탱크로의 재도약을 위한 'KREI 국제화 3개년 로드맵 (2022~2024)'의 계획 수립이 우수함.
- 교육·연수사업, 해외 공동연구, 정부 국제협력 사업 발굴 및 내실화, 국제협력사업 정부정책 지원강화 등의 성과가 우수함.
- 해외연구자문과 제도운영, 연구인력 교류 및 활용, 국제회의·국제세미나 개최와 참여, 국제공동(협력)연구, 수탁연구 등과 연구역량 국제화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확산수단은 다양화되었으나, 창의적인 SNS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을 꾀할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28-873회로 저조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홍보실적이 접속건수 등 활용도면에서 부족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유관부처 협력이 농식품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어 다른 유관기관으로 분산이 필요함.
- 해외연구자문관 소재 국가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유럽 등 주요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과제수행은 85건이고 나머지는 보고, 회의 참석, 발표, 자문 등으로 보여, 과제수행이 다소 부족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74건의 연구과제가 NKIS에 등록되어 100%의 등록비율을 보임.
- 비공개 등록 연구과제의 비공개 사유가 적절함.
- 기타결과물 NKIS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 1인당 국내외 논문편수 0.85, SCI 발간이 40% 증가하여 연구인력의 국제화 능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 민간 활용 지원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기관 자체 농정 이슈와 관련한 사업 추진으로 연구사업목표 달성과 국가 긴급 현안 및 농정 이슈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함.
- 기관이 관여한 국정과제 분야가 12개로 비교적 국정과제 수행 범위가 넓은 편이며 국정과제 지원 수행의 성과 또한 법률제정과 정책반영 등으로 구체적이며, 예산 총 184억여원을 투입하여 국정과제 총 156건을 수행함. 또한 유관 정부부처의 다양성, 수행과제의 적시성이 우수함.
- 국정과제 기여 주요 성과들이 정책환경 변화를 잘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대표 사례로 제시한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및 국내 비축 확충 등을 통한 안정적 공급 방안 연구”는 해당 이슈를 식량 안보 주제로 발전시키고 관련 정부 부처 ‘중장기 식량 안보강화 방안’에 반영한 정도가 우수함.
- 대표사례의 경우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긴요한 연구과제로 선정 및 수행의 우수성이 돋보임.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된 연구과제로서 추진과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연구 기획- 발굴- 수행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는 기여도 점검 정도가 구체적이고 우수함.
- 관리 체계 구축, 각종 회의 및 TF 참여 실적 등이 우수함.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5회에서 11회로 확대 개최하고 확대 기획조정위원회 과제 선정 시 정부부처 외부위원이 참여토록 하는 등 정책화 기여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함.

- 농촌연구자문단 등 전문가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현장토론회 개최를 통해 농업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함.
- 정책과제의 입법화 제고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하였고, 정책 기여도 우수과제에 대한 원·내외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입법, 제도화 노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위원회나 조직이 미흡함.
- 정부부처와 농업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접촉면이 농수산부, 산림청 등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수요 반영에 제약이 따르는 바 정책수요처와의 접점 확대가 필요함.
- 과제 선정 시 농업인 등 정책실무자의 의견 반영 정도, 정책기여도 관리체계에서 참여하는 정책 자문위원이 연구 참여 공무원인지의 여부, 포상의 내용, 정책기여도 우수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설명과 향후 개선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농축산물 수급안정, 식량 공급망 위기, 농촌과소화 대응, 기후위기 및 탄소 중립 등 정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긴급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식량공급망 위기 등 5개 분야 긴급현안과제에 대하여 총 3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수탁 및 일반연구과제 비율, 연구 대상과 그 내용이 적절함.
- 국가 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포함하는 5건의 입법지원 성과와 다양한 정책 자료제공 및 정책지원 성과를 도출함.
- 정부 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종 행사 발표/토론, TF 참여/정책자문, 정부 현안긴급 회의에 참여하는 등 비연구과제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우수한 정책지원 성과를 거둠.
- 긴급 현안에 대한 즉응하기 위하여 과제별 TF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확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이슈페이퍼 발간, 언론활동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22년도에는 총 12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정부부처 제안 수시과제 7건의 시의성과 내용적 충실성이 우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20.9%,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1.6%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이 대응한 대부분의 과제가 시의성 있는 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국민 먹거리 복지 증진 과제 경우에는 그 시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 현안 과제 발굴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의 적정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규정의 취지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현안과제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관련 정책 및 입법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농업·농촌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
-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및 지원 노력이 우수하며, 농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밀착형 정책화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였음.
-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지원한 연구원의 적극성이 돋보이며, 분석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보다 신뢰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최근 농업·농촌 이슈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정책대안의 독창성 및 차별성은 다소 미흡한 편임. 기존 유사한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되었거나 총론적인 내용의 정책대안들이 많아서, 정책대안의 참신성은 다소 부족해 보임.
- 추상적이고 당위성을 강조한 정책대안들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다각적인 소통과정을 통해서 정책대안의 구체성 및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인 정책화 또는 입법화 되기 위해서는 과제종료 후에도 해당 정책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 마련, 후속 연구 추진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원의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정책대안들의 정책화 실적 제고를 위해서 대국민,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또한 정책의 경제·사회·국민적 파급력 및 영향력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정책화로 실현되기까지의 연구진 또는 연구원의 지속적인 지원 및 노력 과정을 연도별 또는 시기별로 관리하여 도식화 및 정리해 볼 것을 건의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다년간의 사업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사업계획·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잘 수립되어 있으며, 인력 및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배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년도에 비해서 자체평가시스템 및 자체평가지표를 통한 환류 및 사업개선 노력이 있었으며, 대외적인 홍보 및 대규모 행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성과 실적도 우수함.
- “농업관측사업”은 실측조사 사업 안정화를 통한 기초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함께 시계열 영상 활용 딥러닝,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관측정보 고도화 제고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였음.
- “FTA이행지원센터”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센터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별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구성원의 사업 수행 역량 강화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을 통한 목표 대비 달성도 제시가 필요하며, 보다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해서 정량지표 설정도 필요할 것임.
- 만족도 지표의 경우 목표치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임. 또한 만족도 평가 결과를 통한 환류 및 사업개선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센터 운영 및 센터에서 분석한 자료 활용도 및 정책화 실적이 구체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집행 환류를 통한 입법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반영, 부처 및 각종 위원회 안건 반영 등의 정책화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전년 대비 사업개선사항을 제시할 때 우선 전년도 지적사항 및 문제점을 기술하고, 각 지적 및 문제점에 대한 올해 개선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을 건의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 기초정책 연구보고서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주제들이 발굴되었고, 연구결과가 학술적 차원은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연구기획, 연구설계, 연구방법, 결과도출 과정 등이 일관되게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음.
- 대표적인 우수한 점 한 두 가지를 언급하자면,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관련 연구의 경우,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뿐만 아니라 감축수단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건강효과, 소득분배효과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감축정책의 정책효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큰 차별성을 보였음. 또한, 관련 자료의 적절한 활용, 이해관계자의 조사 반영,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제시 차원에서 잘 정리된 보고서로 평가됨.
-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관련 연구는 3년차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연구였는데, 식품정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래 비전과 중장기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관련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식생활 영양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이를 높이 평가함.
- 농축산물 가격변동성이 큰 한국적 현실이 연구에 잘 반영된 경우도 있었는데,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사전적 위험관리체계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제도 현실에 대해 사후적 위험관리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시의적절하며 새로운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내는 등 향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촌경제 분야의 경우 정책적 범위의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적 영향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 내용이 단편적인 시각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한 점과 동시에 보고서 내용 중 미흡한 점 역시 발견되었음.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바이오소재 농업 활성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연구의 목적인 바이오 소재 농업발전을 위해서 왜 바이오 소재농업이 필요하고, 바이오소재농업이 중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가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러한 논리성 시퀀스에 다소 아쉬움이 있음.

- 또한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연구 내용 중 농촌 지역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방안 제시 과정에서 시간별, 단계별 달성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아울러 미래 농촌 인구 예측치를 반영한 연구 결과와 기존 시행되었던 관련 정책들의 실패 사례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기초정책연구보고서들이 대체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었지만, 일부 연구는 내용들 간 연결성이 부족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사이의 논리적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음.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가 충실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연결 짓지 못하는 연구들이 일부 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협동연구보고서의 경우도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모두를 지적하고자 함. 우선 우수한 점으로는, 농업부분 데이터 경제 관련 연구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인 농업 분야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 분석에서 수요자이자 생산자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조사 분석까지 포함하여 연구 목적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됨. 특히 수요자 대상으로 정성적 분석에 더해 정량적 분석까지 실시하여 연구 결과 도출 과정에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균형뉴딜 관련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의 역할을 대국민서비스 제공 장소로 설정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확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정책 및 사례 분석, 이해당사자 분석을 수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농업 부문 데이터 경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작물별, 축종별 시간적, 공간적 빅데이터 간 연계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었음. 또한 농업 부문 데이터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단계 및 비용 등을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내용 중에 일부 언급은 되었지만, 자원 확보 방안 등의 예산 관련 내용이 추가 되었다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그 유용성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새정부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주요사항을 전달함. 식량안보 및 국제곡물 안정적 수급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소통 및 기관차원의 대응방안을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음.
- 다양한 의견수렴과 적절한 분석도구를 활용한 경영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입체성(조직개편, 토론회외 심포지엄, 연구과제추진 등)이 돋보임. 목표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과제(수단)들이 선정되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실천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었음.
- 경영혁신실무위 평가를 통해 16개 실천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하고 이를 경영목표에 반영하며 담당실무자들이 중요도와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함.
- 실천과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는 기관장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직원청원제도 개선,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운영, 농촌연구자문단 제도 점검(소비자단체 추가 등 선제적 대응)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함.
- 실천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예산 증액, 미래정책연구실로 사업 이관, 조직개편(신설2개, 유지5개, 중단2개), 전문인력(회계담당) 채용 등의 후속조치를 취함. 다양한 연계수단(연구, 조직, 소통, 근무환경 등)으로 연계하여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 사회적 어젠다 및 농정과제의 선제적 발굴과 대응을 위한 내외부네트워크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 거시지표를 다루는 연구와 전망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혁신실무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 구성(기조실장 단장, 팀장 참여)하고 실천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함. 다만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바 조직내부적 실천과제의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내외적 수요를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성과평가위원회 또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내외부 수요 및 현안이 반영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새정부 출범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량적 측면에서 100% 실천과제 수행을 넘는 적극성이 요구됨. 특히 성과목표 달성도 관련하여, 전체 목표가 모든 항목에서 일괄되게 100% 달성이 적용되고 있음. 과제의 시급성이나 중요도, 새정부의 국정방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성과목표의 설정과 실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와 실천과제의 정합성이 낮은 편임. 경영목표의 실천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가능 수단으로 제시된 일부 사업은 기관의 일상업무임. 경영목표와 실천과제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연계와 실현가능 수단과의 연계방안 개발이 요구됨.
- 일부 성과지표는 모호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예를 들면, 국제세미나 참석_국제세미나 개최 여부로 설정된 바,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세미나 개최 후 성과중심의 실적 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구부서 추가 조직개편 여부, 수시과제 발굴 여부, 실측조사 시행여부, 데이터 입력 및 채널 확대 여부, 국제세미나 개최 여부 등과 같이 단순 산출지표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의 설계가 요구됨.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구성원 간 소통 채널을 온,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개발 및 운영함.
- 갑질위험진단, 원우회 대출제도, KREI 이야기운영, KREI 소통의 창 호민관상담원 제도 등 다양한 창구가 활용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소통 창구의 활성화는 인정되지만, 기관장의 비전 및 목표공유를 위한 구체성 관점에서 다소 미흡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새 정부의 농촌관련 국책과제 논의에 적극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연구원의 성과를 국정과제로 연계한 점이 인정됨. 적극적인 언론 활동이 있었음.
- 연구회와 협조적이고 유기적인 소통 관계를 유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외부기관 행사의 경우 참여의 목적과 내용의 구체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음. 농촌경제라는 기관의 고유한 업무 성격은 인정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좀 더 포괄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이 필요해 보임.
- 대외활동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26개의 MOU가 제시되어 있으나, 원장 임기 내 새롭게 체결된 MOU 실적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쉬움.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식량위기 및 국제곡물 수급 대응

〈우수한 점〉

- 대통령실 및 농식품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적극적 정책제언을 수행함.
- 식량주권확보라는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과제이며, 식량위기 및 국제곡물 수급 대응 연구와 관련해서 글로벌 위기 현황을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제를 추진한 점은 우수함.
- 사업 수행이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사업 주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는 성과 확산 노력을 수행한 점은 우수함.
- 식량위기 및 국제곡물 수급 대응이라는 현안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우수하게 수행함. 근거기반 정책입안과 예측모형 고도화 등 선도적인 연구의제를 설정하고 사업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임.
- 정부정책의 과학적 성과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식량위기의 정부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정확한 현안정보를 제공함.
- 기관이 갖는 정책, 현장, 실무의 플랫폼으로서의 위상과 이에 따른 정책대응성이 뛰어남.
- 기관장의 역할이 시기별로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정책의 최종수요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돋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단 신설 이외 임시조직의 역할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2) 농업·농촌·농식품 현장 맞춤형 소통채널 강화

〈우수한 점〉

- 농업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연구단을 설치하고 기관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중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사업수행 노력 및 성과 확산 노력이 돋보임.
-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비추어볼 때, 제시된 성과가 리포터 대면소통 확대, 현지 통신원 운영, 현장 여론조사, 현장토론회 개최 등으로 이해관계자 맞춤형 소통이라는 사업 방향 성과 실제 성과와의 연계성이 인정됨.
- 주요농업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하며, 규제혁신연구단 운영을 통해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조실에도 협의한 바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선정의 도출과정이 불명확하며, 특별히 현장과의 소통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에 기관장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력은 인정되나, 다소 일상적인 업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장 활동을 통한 구체적 피드백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
- 현장 소통채널 강화가 결국 구체적 정책 결과물과 실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나, 현재는 일부 연구 과제 발굴 노력과 실적이 존재함에도 과정적 사업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음.
- 농업현장의 의견수렴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는 상호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방향성 간 적극적 조정노력이 필요함.
- 현장소통에 집중하여 대외활동이 현장 간담회 등 노력이 많이 존재하는 반면, 국내 타 분야와 영역에 농촌농업 부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계하는 노력 및 해외의 현장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링, 벤치마킹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4대 학회에 대한 사무국 운영(농경연 내)과 이해관계자(농경연출신이 대학교수로 입직)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간 강한 유대감이 객관적인 평가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 유의가 필요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 및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연구환경 변화 및 연구수요에 대해 TF 신설, 연구단 신설 등 기관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함.
-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사회적 책무, 지역상생발전, 연구데이터 관리 등 기관의 경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성과를 도출함.
- 업무 일원화, 직원 업적평가 계획, 직원 평가제도 개편 등 다방면에서 조직 관리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성과 관리 방안의 시행에 따른 운영 성과를 분석함.
- 8인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3인의 고충심의위원, 3인의 고충상담원, 4인의 호민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직원의 고충 파악 및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함.
- 호민상담원의 경우,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신해 고충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은 우수하나,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새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관의 대응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PDCA 기반의 조직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일례로, PDCA 체계를 통해 관리·점검을 하는 성과의 단위가 부서인지 아니면 과제(사업)인지 모호함.
- 현 체계에서 Plan 단계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만, Do 단계에서는 경영목표를 추진하는 등 Plan-Do 단계의 연계성이 부족함. Plan 단계에서 수립된 개별 과제(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Do 단계에서 사전 조율된 일정에 맞춰 집행 및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Check 단계에서 총 4번의 정기 점검 외에 개별 과제(사업)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모니터링 일정과 프로세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노사 간 협의 및 간담회는 많으나, 화합 및 신뢰 증진을 위한 노사 간 소통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정년 퇴직자 및 별도 정원을 활용하여 매년 일정 인원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운영함.
- 지역 이전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공제 가입, 주거안정 및 생활편의복지 제공 등 적극 노력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성과 평가 계량화 비율이 63.6%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 기준 계량 항목은 50%로 관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원과 비연구원의 커리어 개발을 고려한 생애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하여 보다 더 연구 및 직무수행에 기여하도록 노력이 요구됨.
- 전반적으로 연구업적평가시스템에서 평가지표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원내외 활동의 분리 운영 및 연구직의 연구논문의 평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한 표준화된 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대외활동 위반 관련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등 대외활동 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짐.
- 대외활동 관련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체 감사를 통해 연차휴가 일수 운영의 개선 요구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의 근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대외활동 운영 관리에 대한 개선활동을 완료함.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추진계획 및 선정기준이 명확하며 기간 완료후 보고서 제출 등의 관리가 이루어짐.
- 유연근무제가 다양한 형태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지연신고에 대한 제재가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다수 발생하여, 감사실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외활동 지연 신고 원인파악 및 개선을 위한 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의 비율이 비연구직 대비 연구직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며, 대외활동 간편신고서비스 체계 구축과 더불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근무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이후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공문처리 및 통보에 의한 완료가 아닌 조치사항에 대해 구성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숙지시킬 수 있도록 공지 및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가저축제 및 사용축진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연차휴가 소진율이 90.2%로 저조한 편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부서 및 개인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증진에 긍정적 영향과 더불어 연구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기관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안식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지 게재 기준과 미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한 사항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총 인원을 감안해 볼 때 안식년 및 연구연가 사용인원이 적은 것으로 보임. 연구직원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인원의 연구년 활용을 구성원들에게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인 배우자 출산 휴가, 유사산 휴가, 난임휴가 및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정비함.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위촉직 사전 심의를 월 2회 정기 추진하며 휴직자 대체인력 DB를 만드는 등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자녀돌봄 휴가의 적극 활용을 위해 시스템에 잔여일을 보여주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연구원 규모에 비해 육아휴직 등 실적이 낮은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 단계별로 나누어 제도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무급)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 노력이 필요함.
- 가족돌봄 휴가 운영실적과 자녀돌봄 휴가의 운영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정책전문연구원)의 팀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개선하여 사기 진작에 노력한 점이 우수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 8년 까지 근무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동단체협약을 통한 제도정비를 마련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이 '22년 현재 104명으로 총원 311명의 약 1/3수준에 달하고 있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등 내부적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대행/지원 사업 수행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함.
- 비정규직의 규모가 1/3에 달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이 마련된 것은 성과이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 소통 경로 마련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명예위원제도 및 조사역 제도를 활용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전후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임금피크대상자의 역할을 연구, 전문, 관리 인력으로 나누어 정의. 조사역 제도 및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등 퇴직 예정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함.
-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원조달 및 신규채용 계획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4인에 대한 별도정원 1명을 신규채용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연구과제 건수 혹은 기존 업무에서 경감된 업무량에 대한 검토가 퇴직예정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행동강령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 반부패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반부패 교육이 전직원과 관리자 대상 참석율이 높음.
- 내부감사시스템의 온라인 일상감사 실적이 확인되고, 감사정보방 개설 운영이 신설되어 청렴 유지를 위해 노력 중임.
-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신고로 개선하고 대외활동 사전 신고 및 대가수령 신고시스템이 운영 중임.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가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와 옴브즈만제도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인 부패 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 제도 운영, 전형별 중복참여 배제,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합격자결정 사후관리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운영, 협력업체와 협의체 구성, 옴부즈만 운영 등 기본적인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근절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부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업체에 대해서도 갑질실태조사를 하고, 외부업체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외부홍보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갑질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원장을 참여시켜 의사결정력을 확보하였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임.
- 인권경영위원회를 상하반기 개최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력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인권영향 평가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연 단위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임.
- 인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전년 대비 평가결과 긍정률이 상승하였고 평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보완계획을 수립중이며 차기 인권경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연구원 출입하는 협력업체 대상으로도 인권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대외적으로도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함.
- 인권침해사이트가 마련되어 외부로부터의 인권침해 신고 접근성이 높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온라인신고센터는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원회에 직접 연결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신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또한 구체적인 사안별로 실제로 익명신고처리가 철저한지 점검이 필요함.
- 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대해 전 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 이수자의 직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개발 및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친인척채용결과가 2020년 3분기에만 1회 공지된 바, 분기별로 공지할 필요가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진행 중이나 일반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채용비리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직원임용규칙에 비정규직 내부공모제도규정이 있으므로 최근의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현행화가 필요함.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225%(행정인턴 9명)로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함.
- 출퇴근관리 및 매월 근무평가 실시(평가결과로 채용우대 자격요건 마련),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4회, 9쌍), 교육지원(연인원 14명), 취업지원 특별휴가(연인원 7명), 채용 시 우대(서류전형 면제) 조치를 시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신규 채용 시 여성면접관 1명 이상 참여를 규정화하는 등 여성인력 채용시 불합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함.

- 2022년 여성인력 채용비율 2.8% 상승하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달성하는 등 여성인력 확대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신입직원 소양 및 직무 교육, 행정업무 매뉴얼(가족친화 및 일가정양립 등 안내) 배포, 인권경영이행지침(여성권리 의무화) 마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 호민상담원 운영(여성위원 의무운영) 등으로 인력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성 신규채용 노력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노력(경력단절여성 우대 채용)이 우수함.
- 농산업혁신연구부장(23.1.1.) 여성보직자 신규 임명 예정으로 여성 보직자를 확대한 점이 인정됨.
- 인사위원회 위원 여성 1명을 신규 발령하여 여성 승진,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함.
- 부연구위원 채용 전제조건인 박사학위 수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함(3명).
- 부연구위원 등(예비 관리자) 성비가 34.2%(21년)에서 35.1%(22년)로 0.9% 증가함.
-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 이수율은 98.3%, 부서장 참여율 100%로 비교적 양호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력단절여성 1명 채용(조리원)으로 실적이 미흡함.
-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채용, 대체 인력채용, 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고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기적인 여성인력 확대,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비교그룹 대비 평균치를 상회하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및 관리를 권고함.
- 여성보직자 비율의 목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중증장애인 한정 정규직(청사안내업무) 채용(21.7.27.) 및 고용 유지한 점은 우수함.
- 장애인 지원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포털에 채용공고를 게시함.
- 국가유공자 채용실적 6건이 있고 이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국가유공자에 대해 전형 우대 제도를 마련(5~10% 가점 비율 적용)하는 등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인턴직원 외 22년 장애인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어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꾸준히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이외에 보다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제공하고 이탈 방지 및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3.2%로 미흡함.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이며 보다 기관에 적합한 목표달성 방안 마련이 요구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국정감사 7건, 국회 정무위원회 3건 등 총 10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 점이 우수함.
- 연구보고서 저자표기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였음. 또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 연구업무관리규정과 연구윤리지침 개정 명시 및 2040 한국농업 미래시나리오 연구 등 자체과제를 발굴한 개선 노력이 우수함.
- 자체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의 경영체제와 연계한 감사전략체제(목표 - 전략방향 - 전략과제 - 실행과제 등)를 수립한 점이 긍정적임.
- 자격을 갖춘 감사 전문 인력이 2인 있으며, 전문인력이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감사부서의 장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비상임 감사의 독립 근무 공간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자체감사의 전담부서 설치 및 업무분장이 적절히 되어 있으며,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우수함.
- 감사사례집을 제작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전 직원의 감사 관련 정보 공유에 기여한 점은 우수함.
- 소통채널 다양화를 위한 감사정보방을 개설하고 갑질 근절 협의체를 확대운영한 점이 긍정적임.
- 자체감사활동 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 인사규정개선, 여비규정개선, 대외활동 관련 규정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한 점이 우수함.
-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 제시 등을 통해 자진 철회 조치 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개선을 이행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투트랙제도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석사급 연구직이 박사학위 취득 시 공채 응시하여 합격 시 박사급 연구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이는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기 아쉬운 점이 있음.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정립을 통한 이행점검과 제도개선 노력의 가시화가 필요함.
- 비상임감사의 검토의견이나 조치사항 요구 등에 따른 실제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제시하길 권고함.

-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인사평가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의 평가체계 정립, 사후적 예산조정 불가 등 명확하게 규정화하고 이를 실시한 실적과 성과를 관리할 것을 건의함.
-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사안과 관련한 후속교육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자체감사결과 중 동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을 자체감사와 연계하고, 이에 대응한 자체감사역량과 계획을 마련한다면 자체감사역량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3

해외사무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 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
1-1. 연구·사업 분야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지원	B
	1-1-2. 성과확산 및 협력	B

□ 평가의견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 지원

① 한중, 중국,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Big Issue)에의 대응(정보 제공, 현안분석, 대책 제시 등)

〈우수한 점〉

- 농업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한중 현안에 대한 대응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 농업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 보고와 자료 제공을 신속하게 진행함.
- 한중 수교이후 30년 동안 양국 간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협력성과와 주요 이슈를 고찰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의 원고 집필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후원함.
- 본원과의 공동연구 체계 구축을 통해 WTO 통상분쟁에 대비한 중국의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공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음.
- 한국의 농업정책 담당자 등에게 중국과 한중 농정 관련 현안을 파악 및 제공하여 한국정부의 대중국 농업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국농업브리프와 중국농업동향 등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산 농식품 수입 문제에 대해 분석해 왔으나, 중국의 대한국 수출 추이에 대한 단순 통계만 있고 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없음.
-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이 아쉬움. 보고서 등 제시된 자료로는 중국산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확인하기 어려움.

- 중국 농업, 한중 농업협력 관련 이슈 발굴이 다소 미흡하고 FTA 재협상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필요함.

② 데이터 수집·분석자료 정기 배포 노력 및 실적

〈우수한 점〉

- 중국 농업 및 농정 현안에 관한 자료들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시의적절하게 제공함.
- 매월 ‘중국농업브리프’를 발간하고 배포하여 중국의 주요 농정이슈, 농식품 가격 및 무역동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를 활발하게 진행함.
- 중국 농업정책 브리핑, 농업농촌경제동향, 정책자료, 농업통계로 구성된 분기별 ‘중국농업동향’을 작성하여 본원 홈페이지, 웹진, SNS를 통해 배포함.
- 연도별로 중국 농산물 수입관세율 보고서, 중장기 수급 전망 보고서, 농업 관련 자료의 번역 자료집, 농정이슈 분석자료 등을 작성하여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제시된 자료들과 통계들을 이슈별로 재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문제, 한중 농업협력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북경사무소의 추가 인원 배정과 예산 증액이 필요함.

③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정책 지원 노력 및 실적(세미나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의 지속성 및 중요도, 개최 및 참여 실적, 주요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등)

〈우수한 점〉

-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중국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중국 주재 한국 농업 유관 기업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한국 농업 기업의 중국 진출과 활동에 기여함.
- 양념 채소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여 시장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책 수립에 기여함.
- 한중농업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식량안보 이슈를 주제로 개최되었는바,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구 수요자들과 공유하도록 적절하게 유도함.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농업분야 공동세미나를 중국농업농촌부 농업무역촉진중심과 개최하여 양국간 농업협력 성과를 회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업협력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음.

- 청도농업대학과 농업 관련 한중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후원하였으며, 사무소장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였음.
- 주중 한국대사관 농무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한국의 대중국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한중농업포럼의 경우 발표자 이외에는 중국 측 관련자가 단 1명 참가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임. 한중농업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향후 포럼 개최 시에는 더 많은 중국 측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포럼이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세미나의 주제(“한중 수교 30년, 농업협력의 회고와 미래 발전 방향”)가 너무 포괄적인 면이 있어, 향후의 세미나는 한중 농업 현안에 부응하는 구체적이고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발굴하여 정책 반영도를 높여야 함.

1-1-2. 성과확산 및 협력

① 성과확산 및 홍보

〈우수한 점〉

- 웹진, 온라인, 책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있음.
- 웹진(뉴스레터)을 활용한 성과 확산의 경우 메일 서비스를 통해 고객 37,683명에게 총 7건의 중국 농업동향, 언론기고, 현안분석 등을 제공함.
- 중국의 농정 동향 등을 포함한 중국농업브리프를 12회 발간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함.
- SNS 등을 활용하여 주요 중국 농정 이슈, 조사연구보고서, 농업관련 콘텐츠 등 성과물을 제공하여 성과 확산에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 성과의 홍보가 대부분 본원 홈페이지와 웹진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의 현지 사정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홍보 방식 개발이 필요함.
- 위챗을 활용한 성과 홍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인에게 한국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중국어로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국내 언론 보도가 일간지 3건, 전문지 4건에 불과하여 비교적 적은 편임. 언론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사 및 기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언론사 및 기자 pool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유관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우수한 점〉

- 중국 주재 한국 유관 기관, 중국의 기관 및 대학 등 중국 내 씽크 탱크와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주재 한국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 농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고 있음.
-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참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국 농촌 현실 또는 현장을 실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중국인 농업 및 농촌 문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전문가 pool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확충된 전문가 pool을 별도로 관리하여 신구의 전문가 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중국의 기관 및 대학 등 씽크탱크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pool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중국 농업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자료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③ 본원 연구·사업에의 지원 및 환류

〈우수한 점〉

- 본원의 중국 농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 책임자로 활발하게 활동함.
-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한중 농업포럼을 개최하고 한중 농업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 및 지원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현지의 사정을 반영하여 본원에 요청하는 등 연구 및 사업의 개발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필요가 있음.
- 현지 자료를 수집해 본원에 보낸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고, 자료 수집 기능이 미약하다면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농업관측센터의 중국 현지 품목별 모니터 인력을 활용하여 중국의 농산품 관련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전년도 평가 자료에서 지적되었던 지적 사항의 개선 노력 및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4. 한국법제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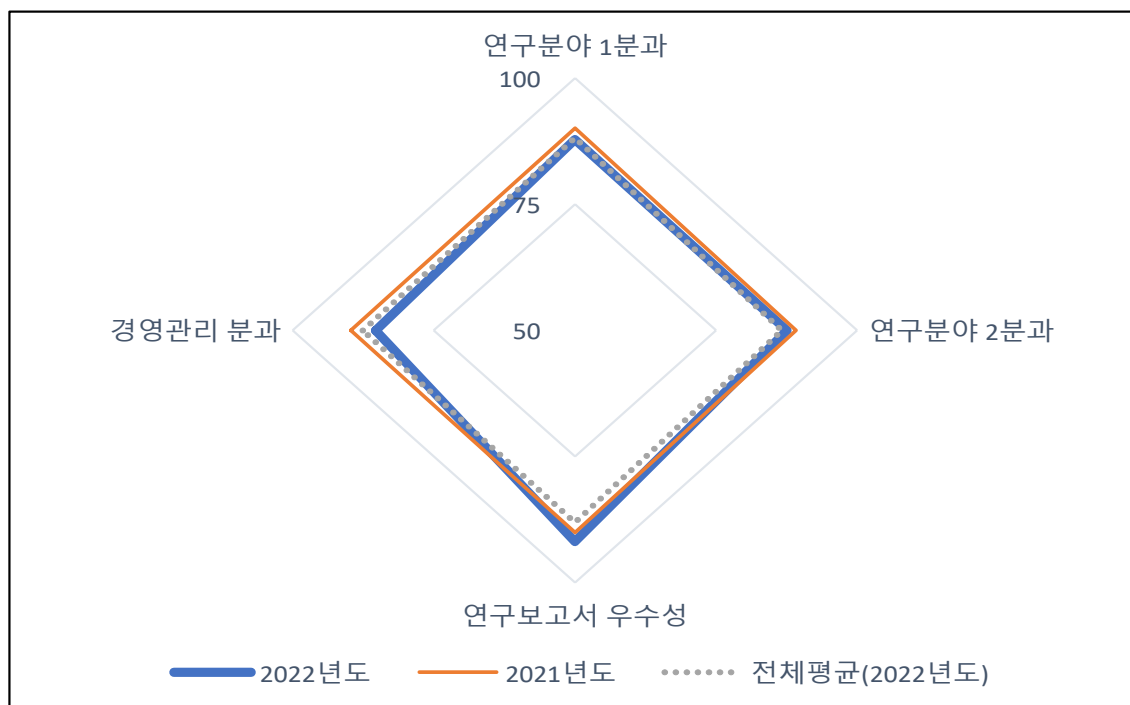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C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C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C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A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S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S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B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A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B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B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B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C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윤리 관리시스템을 단순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연구사업 체계를 일원화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함.
- 국가 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의 입법 작업에 기여하는 등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수시과제 수행 성과와 정책화 반영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부처 정책수요자의 연구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주제들의 선택이 시의적절하고 정책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며, 제안 내용이 향후 사회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됨.
-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조문을 도출하는 등 실제정책화의 기여도가 높고 또한 이를 입법화하거나 의원발의 법률안에 다수 반영하는 등 정책화 기여도가 우수함.

[경영 분야]

- 7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입법지원 연구, 중장기형 입법정책과제 연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 구성원과 소통을 위한 체계를 정밀하게 구조화했고, 3개 소통전략을 수립함. 다만 대외활동에서 전문가, 비전문가를 아우르는 대외활동과 언론 등 매체를 통한 좀 더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기대함.
- 기관이 직면한 연구 및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조직운영 실적 간의 연계성은 다소 부족함.
- 남성 육아휴직 활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명칭통일 및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보장 등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임금피크대상자가 퇴직 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업무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우수하며, 청년인턴 채용에 여성인재, 비수도권·이전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채용을 노력하고 있음.
- 전체 보직자 중 과반 이상을 여성관리자로 임용하는 등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 및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전원이 정규직인 점이 긍정적임.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감사역량 강화와 감사 관련 교육의 참여율 제고, 갑질예방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핵심주제를 Word Cloud 기법을 활용해서 중요도를 표현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키워드 도출함.
- 우주쓰레기, 가상화폐 등 글로벌 리걸 이슈를 분석함.
- Global Legal Issues, 최신외국법제정보와 같은 해외 입법동향을 분석함.
- 정책환경 분석-수요확인-목표설정 단계를 거치는 연구기획이 연구성과 및 성과확산과 잘 연계 되어 있고, 이슈 분석과 과제선정 결과의 적정성이 인정됨.
- 대내외정책 입법동향 분석, 입법 이슈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수요자의 선정 및 의견수렴 절차도 적절함.
- 정부기관, 국회,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기획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공모 실시, 전문가 회의·포럼 실시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발굴 및 선정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보다 객관화함.
- 입법연구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기획을 추진하고 (전년도 수요조사기관 대비 20.8% 증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과제에 반영함.
- 대국민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79건의 연구과제가 제안됨.
- 2022년에는 과제수요조사 실시 및 과제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을 시민 경제단체 등 부설 민간싱크탱크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우수한 점임.
- 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중점연구주제 및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전략적 기획노력이 보임.

-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로 선정된 4개 과제에 포함된 세부 주제들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미래에는 국가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의 법연구 동향을 조사 분석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대비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16.2%로 경인사연 권고기준을 충족함.
- 연구과제의 발굴 및 선정을 위하여 연구기획협의회 상반기 법제해커톤, 과제선정위원회, 연구조정위원회, 연구부서장회의, 연구자문위원회 등 회의체를 운영하였음. 그리고 연구영역 중복 방지 및 협력 추진을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연구사업조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연구과제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였음.
-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4단계를 거쳐 3개의 중점연구사업이 선정되었음.
- 협동연구과제 발굴, 기획, 선정 체계 및 협동연구과제 수행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협동연구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하였음.
- 다양한 산학연 기관과 일반사업별 정책연구포럼을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통해 과제를 출하였으며, '23년도 협동연구 선정과제 29개의 우수성이 인정됨(과제내용, 협력 기관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
- 연구기획 단계에서 정부 정책 현안을 고려하여 연구 환경을 분석하고, 과제 발굴 시 국정과제 연관성을 반드시 기입해야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과제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원 고유기능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제안된 주제의 현안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현안대응과제(이슈페이퍼등)로 구분하여 수행하고자 함.
- 22개 기본연구 및 일반사업에서 국정과제를 반영하였고, 과제기획 및 선정과정의 적정성이 인정됨.
- '23년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정부부처제안과제 총액이 51.3%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법제해커톤의 기능과 역할이 과제선정위원회, 연구조정위원회 등과 관계에서 모호해 보이는 바, 법제 해커톤이 실질적으로 연구수행관리체계에서 의미 있는 기관 특성을 살린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능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법의 연구주제는 광범위하므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주제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그룹핑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리해가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관리시스템을 연구기획-연구수행-성과확산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체계적인 연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체계 정비함으로써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
- 연구감리제도를 통해 연구보고서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 감리위원은 선임연구위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연구직, 초빙연구위원 중 원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연구 수행의 방향, 연구 보고서의 체계성과 가독성 검토, 연구 결과의 연구목적 달성 정도와 명료성 검토 등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등 연구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의 참여 실적이 우수하고, 수시연구과제의 기획 및 예산배분의 적정성이 인정됨(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6.1%).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시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일반연구와 연구개발적립금 연구의 경우 협동연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 전체 수행과제 수 대비 협동연구과제 예산 비율이 61.6%로 적정하고, 협력기관의 다양성이 인정됨.
- 정책의제 설정단계부터 법제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도하여 발굴한 협동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정책연구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과도하게 단순화된 전략적 법제연구형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각 연구수행단계별 환류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바, 각 단계에서의 개별적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법제연구의 특성상 내부 구성원·조직 간 협력·협업 연구에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수시 연구의 경우 14개 과제를 15명 연구원이 수행하는 등 거의 대부분 단독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법제연구의 특성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연구자·부서 간 협업의 수준이 낮다고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기관 내 각종 위원회 조직의 외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 외 다른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도 가능한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보고서 발간일은 준수하고 있으나 보고서 조기 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능한 보고서 조기 발간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일반연구와 연구개발적립금 연구를 제외한 기본·수시·수탁 연구의 협동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바, 협동연구 수행을 독려할 필요 있음.
- 해외기관, 단체, 연구소 등과의 협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2년 연속 클린 연구기관으로 선정됨
- 연구윤리 기본계획을 수립함
- 자체점검단 구성에서 연구윤리 주관부서를 기획조정실로하고, 전담인력을 2명 배치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점검TF, 연구윤리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다층적인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연구보고서 발간 전 심의위원 감리위원 연구윤리점검단 연구윤리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원내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점검 기능을 강화함.
- 자체점검의 환류를 위한 방식을 다양화하였고, 특히 22. 9.부터 온라인 질의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1:1 질의응답, 연구윤리 자료 배포,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 서약서 제출 등 연구윤리 관련 기본 시스템 구축.
- 부실학회 참여 방지를 위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고, 연구부정행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연구윤리 확보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2년에는 연구윤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용게시판을 구축하였으면 상시 자체점검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새로운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연구윤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관련 기관 자체의 지침 개발이 저조한 편인 바, 보다 상세한 연구윤리 관련 통제와 관리가 가능토록 더욱 촘촘한 지침 개발이 필요해 보임.
- 내부연구자와 외부 연구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린 연구윤리 준수 지침 등 관련 규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특히 외부연구자에 대한 특성화된 연구윤리관리시스템이 미비함.

-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관련 총괄 기능이 약한 측면이 있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외부 위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엿보이는 바, 연구윤리 위원회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충원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윤리 관리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토록 연구윤리 관리 시스템의 개선해볼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카드뉴스, 홈페이지, SNS, 경사연 성과확산 플랫폼, 뉴스레터를 포함한 온라인 홍보채널을 활용하고, 언론보도 및 포럼·성과보고회·학술대회·홍보물 발간 및 배포·대국민 연구과제 공모·정부 자료집 발간 등 자료발간 등의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 포럼 등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성과가 우수함.
- 한국법 아카데미 개최, 한국법영상 콘텐츠 제작, K-Law 포럼 개최 등 글로벌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함.
- 지역, 규제, 환경, 기후, 재정, ESG, 통일, 사회적 가치, 글로벌 법 등의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음.
- 11,044건의 연구성과물 배포 및 추가배포처를 위한 DB구축 등의 노력을 함.
- 이슈페이퍼 등의 발간실적이 우수함.
- ‘2022 연구성과 보고회’ 제도는 한해의 연구성과 및 추후의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참신한 제도로 평가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연구인력교류, 국제공동(협력)연구, 국제행사 등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 17건의 국제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3국 16명의 저자가 참여한 ALIN 공동연구 외에 국제공동연구 횟수가 저조함.
- 해외기관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좀 더 활발히 참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제공동연구 1건으로 저조한 편으로 개선이 요구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 실적이 우수함.
- 49건의 연구과제가 NKIS에 등록되어 100%의 등록률을 보임.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 실적이 우수함.
- 1인 논문 1.3편으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원자료(raw da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65개 국정과제에서 총 123건의 지원성과를 도출하여 전년도 대비 109.1%의 실적 향상이 있었음. 기관의 인력 및 예산규모에 비추어 국정과제 수행 건수 실적이 우수함. 특히 국정과제 123건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 인력 총 370명, 투입예산 총 84억여원으로 수행 노력이 적정함.
- 59개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연구 지원과 20대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69개 국정과제를 지원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주요 법률안 개정과 입법자료 제시에 기여함.
-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 국정 과제 하위 공약 연계 실적 우수함.
- 기관이 제시한 국정과제 대표사례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 과제는 시의성이 매우 높고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는 적절한 주제로 선정·수행이 적절함(가상 자산 관련 입법 정비, 금융위의 증권형 토큰 가이드 라인 제정에 기여).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에 관한 법리 분석과 법제화를 위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적절함.
- 관련된 입법화 및 정책화 성과 또한 관련 법률과 관계 부처 가이드라인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파급 효과로서 정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의 법제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금융위의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기초자료로 활용(2023. 1.) 되었으며, 한국거래소 증권형 토큰 상장 거래 개설 계획 자료로 활용되어, 신한투자증권의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8건의 국정과제 참여 성과가 의원 입법발의 및 법령 제개정 성과로 연결되었으나,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연구과제가 더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입법지원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노력이 필요함.
- 연구과제 추진과정에서 정책 기여 제고를 위한 전문가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한 실적이 있으나,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 연구과제를 통한 정책 기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관리 노력 등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정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수요자의 소통 및 정책 수요분석을 실시함.
- 정책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 선정에서부터 정책 활용 가능성을 반영함(과제수행단계에서 연구보고서의 품질검토 및 정책 수요 반영/관리, 연구보고서의 품질 및 정책 반영 검토).
- 연구기획 연구수행 성과확산의 연구 전 주기에 대한 정책 기여도 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자료 참조를 구축하여 긴급 및 정부현안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 협동연구 참여에 대한 연구평점 상향 등 내부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자들의 협동연구를 장려하였으며, 전주기 연구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면서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정책화 기여를 위한 자문의견을 구하는 한편 관련부처 전문가 16명을 초청하여 정책 활용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음.
- 정책기여도가 인정되는 연구보고서 책임자에게 각 30점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연구성과의 정책반영도를 제고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기여 노력이나 정도를 보다 명료히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책화 기여도 제고를 위한 별도의 조직(TF)의 운영 여부, 정책수요 부처 공무원(정책실무협의 참가자 등)의 전 평가단계에 참여 여부, 연구책임자에게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이유, 정책기여 우수 연구의 판단기준 및 시점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및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국가 긴급과제 및 정부 현안과제 8건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
- 금융위(NFT), 환경부(NDC), 기재부(경제안보)와 정책협의를 거쳐 긴급연구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개인정보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비연구활동을 수행하여 NFT 관련 법령 개정 방향, 탄소중립기본법령 개정방안, 전자증권법 제정방형 등 선도적인 입법자료를 제안함.
- 정부 정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긴급연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건강보험, 경제안보, 메타버스 등 첨단 영역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법제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과제수행의 우수성이 높음.

- 긴급 및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및 정부부처의 핵심 이슈에 대한 정책 자문,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정책화 및 입법화 성과를 거두었고, 이슈페이퍼 발행 제공 등을 통해 정책 및 입법 성과를 공유함.
- '22년도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제안 수시연구과제 총 13건에 대한 과제수행의 시의성과 그 성과의 적정성이 우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6.6%,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94.46%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상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의 수행 성과와 정책화 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제안한 정부부처 정책수요자의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연구주제의 선택이 시의적절하고 정책제안 내용이 향후 사회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 연구 역량을 갖추는 등 정책화 기여도가 우수함.
-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졌음.
- 주관 부처와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 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한 점이 우수함.
- 특정 주제에 한정된 전문적인 쟁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역량을 보임.
- 연구를 통해 법안과 구체적인 조문을 도출하고, 이를 입법화 또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다수 반영하였고,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이라는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부문의 주제에 대한 연구로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고, 설정 절차 및 불복 절차를 마련하는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 정책 대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가 없어 발생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나 해저케이블 건설, 조업 분쟁 등에 대한 정책의 개선을 이끌어 냄.
-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국가책임제라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보편적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제안함. 혼인 외의 출생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출생통보제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함.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생통보제 도입(법무부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시적인 입법화 성과를 만들어 냄.
- 코로나 19라는 상황에 맞추어 중소기업 육성 및 진흥이라는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온라인 중심 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형 물류 시설이나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함.
- 데이터 생태계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필요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분쟁조정 제도 구축, 데이터 생애주기별, 데이터의 권리 주체별 법적 지위 대안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조응하는 중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법제화와 입법화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공론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 주제의 성격이 이론적 쟁점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연구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전문가 위주로 운영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전문가와의 소통이나 협력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졌지만 실제 이러한 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자(학부모, 아동, 청년, 데이터소비자, 이민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국인 등)의 의견이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은 코로나 시국에서의 공청회나 회의 개최의 제약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함. 직접적인 정책 수요자의 일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법제화 및 유관 기관의 정책에 기여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 발의된 법률안에 연구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기타 유관 기관이 집행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음.
- 법제화와 제도적 개선의 성과를 국민(아동)이 실감할 수 있도록 알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법제연구원의 2022년도 기초정책 연구보고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수한 점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전반적으로 기획 및 내용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동시에 연구 진행 기간 전체에 걸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을 확인함.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언급하자면, 먼저 AI기반 행정 관련 연구의 경우, 최근 공공정책 입안과 시행 및 행정서비스에서 AI에 의한 행정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고 특히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봄. 특히 외국 사례분석과 입법방안을 제시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향후 관련 정책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주택공급법제 관련 연구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공급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현실 적용가능성이 높은 주택공급법제를 결과로 도출한 것은 큰 의의가 있음.
- 아울러 과징금의 합리적인 기준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행정 실효성 확보수단이자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징금제도를 주제로 하여,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부과 기준의 합리성 및 효율적인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의의가 봄. 나아가 이를 통해 과징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분야별 내지 특성별로 부과기준을 개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중요 관련 법규의 개정안까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성격에 발 부합하는 연구로 판단됨. ‘에너지 안보’ 연구의 경우도,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법적 논의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논의 현황을 검토한 점 역시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여주고 있음.
- 결론적으로 법제연구 관련한 연구 전반에 걸쳐 법제이력조사, 설문조사, 사후적 입법평가, 법제 비교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도 우수한 점으로 꼽을만함. 연구 진행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분석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한 노력 역시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한 점 못지않게 몇 가지 미흡한 점도 확인되었는데, 한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REDD+’ 활성화 관련 연구에서는, 개별 쟁점을 명확하게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데, 개별 법령에서 국제적 함의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를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판단됨. 연구 결과에서 일부 구체적인 지 못한 묘사적 부분이 있었던 점도 미흡하다고 평가됨.

-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연구의 경우,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 관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일부 내용의 국제조약과 관련한 ‘treaty override’ 라는 문제점은 각 분야별 법학에서도 모두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특히 국제법과 조세법 및 경쟁법에서 상시 다루고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연구 디자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됨.
- 한편, 두 개 주제에 걸쳐 각각 진행된 ESG 법제 정책연구의 경우, 구체적 지표와 함께 분류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으나, 국외의 기준을 도입한 내용이 국내에서는 적용불가 기업군이 발생함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점이 국외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K-ESG’ 가이드라인의 경우, 정책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발견됨.
- 전반적으로 최초 설계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일부에서는 보고서의 분량은 많지만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뤄진 측면도 있었음. 특히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고, 해외사례를 선택하는 근거 등에 대한 미흡한 점을 확인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 한국법제연구원의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면, 먼저 해외이주법 관련 연구의 경우, 해외이주법의 제정 이후 변화된 상황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 시점에서 해외이주법의 유효성과 존폐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의성과 기획의 적절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음. 해외이주법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법이론적 검토, 설문조사지 개발, 현황조사 실증분석 등을 통한 수월성 있는 협동연구가 이루어졌음.
-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관련 연구의 경우, 주제 자체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에서, 기존의 정책 대안들을 종합하여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법제화를 위한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교법적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가 연구결과의 도출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비교법적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가 연구결과의 도출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비교법적 검토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데 각국의 시사점이 이에 관한 균형적 서술과 대안에의 반영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는 못한 점도 미흡함.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경영목표의 설정과 적절한 연계성을 확보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통상적인 SWOT분석 외에 대외적 환경 분석도구인 PESTEL분석 등을 활용하여 기관당면 현안 분석이 적절하며 대내외 환경분석 결과 목표 도출과정이 체계적임.
- 국정정책과제 제안에 방점을 두고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여 최첨단 분야 산업 관련하여 법제연구원이 주도하여 7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규제샌드박스 입법지원연구, 중장기형 입법정책과제 연구 등은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관련하여, 매 과제별로 목표와의 연계방안이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기관의 정체성과 잘 부합하고 있음.
- 연차별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입안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실천계획별로 구체적 실현수단을 연계하여 실천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ICT기반 신산업 입법지원(달성도 300%), 인구변화 및 환경이슈 대응(400%)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도 평가가 정책기여도와 무관하게 회의 및 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음. 성과목표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량지표는 고도화(실적 - 성과 - 정책화로 이어지도록 설계 필요)하여 관리하고 실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량 및 정성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입법정책은 주제별로 타기관과의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이 중요하므로 달성도 평가(KPI) 시, 협업 및 공동연구 실적을 지표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의 설정 시, 세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량화하여 제시하고 이전 실적의 추이 등을 분석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 있음. 또한 과제건수 200건으로 프로세스 중심형 달성도 평가를 지양하고 성과중심의 실적 달성이 요구됨.
- 세부 성과지표가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설정되거나 일상적인 전체 업무를 열거하여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지표의 적절성 및 합목적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성과목표-세부성과목표 간 정합성이 요구됨. 정책현장 입법 수요 분석을 통한 중장기 입법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성과목표가 단순 산출지표(수요조사, 협의회, 전문가회의 개최 등)로 제시된 바, 달성도 평가에 궁극적 목표의 달성 여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 현장전문가와 법제전문가 매칭 심화 워크숍 실시 여부가 불명확하며 실제 매칭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가 모호하고, 특히 정책현장 입법 수요 분석을 통한 중장기 입법 연구 과제 발굴은 하위 추진 전략이 경영목표와 연계되지 않고 평가지표가 정량지표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에 연계되지 않음. 현장중심의 능동적 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현장 입법 수요 분석을 통한 중장기 입법 연구 과제 발굴/다학제 융복합 법제연구 활성화 등은 KPI에 반영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복합연구와 법제화 전문 수행이 가능한 우수인재의 유치와 외부유출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의 설정과 관리가 요구됨.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내부 구성원과 소통을 위한 체계를 비교적 정밀하게 구조화했고, 3개 소통전략을 통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한 노력이 인정됨.
- 소통 과정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했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보 공유를 위한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의 입장에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실적은 업무스트레스 해소, 업무역량 강화, 업무혼선 방지 등에 해당하며, 조직문화 개선 차원으로서의 효과 전환 부분은 다소 모호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연구원 구성원의 처우개선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외 활동 및 객관적인 성과 달성은 우수함.
- 이슈페이퍼나 카드뉴스 형태로 국민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연구원을 홍보했고, 또한 해외연구 네트워크를 공고화한 점도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문가, 비전문가를 아우르는 대외활동과 언론 등 매체를 통한 좀 더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기대함.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중장기적 입법이슈 발굴을 통한 기후분야의 선제적 입법대응전략 모색(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우수한 점〉

- 법제연구원의 정체성이 잘 반영된 중점추진과제로 국가 정책적 기여도 역시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적극 발휘된 점은 우수함.
- 국정과제 및 기관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기후분야의 선제적 입법연구를 추진함.
- 중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기후변화법제팀)과 예산 확보, 인력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예산이 132% 이상 증가된 점은 우수함.
- 최종 도출된 연구결과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있었음. 성과 확산이 다소 공공기관에 집중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성공적인 확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의 합리적 활용법제 연구 사업을 수행함.
- 다양한 발간물을 통한 현안 대응과 성과확산을 위한 입법정책포럼 등을 개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연구 강화(규제혁신법제연구)

〈우수한 점〉

- 국정과제로서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규제혁신 법제포럼을 통해 기관의 연구 및 연구 관련 활동이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기관 경영목표와 부합함.
- UAM 신산업, 현안국책사업 분야 관련 구체적 규제혁신을 위해 유관 기관간의 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법제를 통한 규제개혁의 제도화에 기여함.
- 규제혁신 관련하여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이며, 특히 정부의 국정목표와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부 기관과 적극 공유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
- 정부의 규제혁신정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입법정책의 개발 등 법제적 부문의 연구지원 노력이 존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규제혁신의 방향이 규제완화와 해제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함.
- 중점추진과제로서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및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이외에는 특별한 선정 배경 및 맥락 내용 제시 등이 미흡함.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과의 연관성이 다소 미흡함.
- 6개의 연구과제 수행, 정기간행물 발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기획 등이 성과로서 존재하나, 중점추진과제로서는 노력이나 성과 및 실적 내용 등이 빈약하고 단출한 편에 속하며 노력과 성과 측면에서 일반 사업의 경우와 본 중점추진과제 간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움.
- 국회, 산업계, 스타트업, 국조실,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국토부 등 각 규제분야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규제 관련 학회, 언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 및 위원회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법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법제화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망됨. 현재 법제포럼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역할모색 노력이 요망됨.
- 후속과제 발굴 및 지자체와의 연계 MOU를 추진하거나 조례입법 분석 후 조례 개정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 및 경영 환경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PESTEL, STEEP 분석을 통해 기관이 직면한 연구 환경을 내밀하게 분석함.
- SWOT 분석을 통해 기관의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함.
- PDCA 기반으로 조직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3대 경영목표와 7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성과점검-성과확산의 단계별 조직성과를 관리함.
- 각 실천계획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을 촉진함.
- 직원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를 활발히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연구 및 경영 환경과 조직운영 실적 간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일례로, 20대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수정 및 개선방향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은 부족함.
- 전주기적 연구관리 체계, 중추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역할 강화 등은 대부분 연구기관이 추진한 실적이며, 대내외 환경 분석에 따른 연구원의 맞춤형 조직운영 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기관이 추진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에 대한 타당성/효과 분석이 부족한 편이며, 지속적인 조직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타당성/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에 따라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했으나, 실제 각 부서의 핵심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이 다소 미흡함.
- 각 실천계획에 대한 부서(담당부서 및 지원부서)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특히,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달성 임무를 부여받은 부서 내 직원의 개인별 KPI를 수립함으로써 조직-부서-개인 간 유기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중 모니터링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부서장회의, 경영목표 추진 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성과 모니터링의 투명성, 일정/주기, 방식, 점검결과 및 활용 등의 제도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 또는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일례로, 현재 고충처리 체계는 노동조합에서 고충의 신청 및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접수된 고충 상당수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요청임.
-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고충상담원 운영 등 익명성이 요구되는 직원의 사적 고충(예, 직무조건, 성 폭력·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타인의 일탈행위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2022년-2024년 중기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확보 및 운용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관심으로 인력수급 운영현황 및 계획을 하는 것은 기관의 인력운용에 큰 의미와 성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창의인재 양성과 협업소통형 창의인재 육성 교육, 공직가치 확립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연수가 진행되고 있음.
- 1인당 교육훈련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으로 2022년도 교육훈련비 투자가 급증한 점이 바람직함.
- 연구직의 경우 업적평가의 계량화 비율이 70%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 기준 계량 항목은 70%(기관평가 평점, 서비스 만족도 평점, 공통평점)로 관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인재가 대학 및 민간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다소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전적 유인 이외에 비금전적 유인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규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국내 및 해외의 연구인력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채널의 채용 홍보 노력이 요구됨.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과 운영 실적이 ‘학회와의 협력 및 후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회 트렌드 교육’ 및 ‘창의 인재 육성 교육’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행정직의 양적 평가가 높으나 획일적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하고 있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화된 대외활동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음.
- 대외활동 신고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반기별 대외활동 실태분석이 실시되고 있고, 10일 초과 사후신고 비율이 낮은 편임.
- 대외활동 지연신고, 미변경신고, 미신고 등 1년간 동일유형 반복위반 누적기준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함.
- 대외활동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함.
- 자체 감사를 통한 근무 관련 모니터링이 작동되고 있으며, 대외활동 미신고 사례에 대해 주의 조치를 완료함.
- 기관 자체 근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월 근무시간 산정 및 근태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월 근무시간 산정 및 보상 휴가를 부여함
- 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이 인정됨. 유연근무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자체감사 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무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 설명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
- 개인별 연차휴가 소진율 100%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연가저축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진율을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인 파악과 기관의 추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연구년 종료 후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물 제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사항과 징계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기관의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와 제도 실시 이후 실제 업무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임.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제도를 잘 정리하여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매뉴얼을 제작함.
- 남성 육아휴직 활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시 사용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 반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임신기 단축근무,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채용노력과 인력 수급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노력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후생제도 운영 및 각종 제도 적용에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직급 간 명칭을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의 경우 휴직자의 중도 복귀와 상관없이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보장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비정규직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이 정규직의 110% 수준이고, 능력성과급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낮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임금테이블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기존의 업무역량과 노하우를 신규직원에게 전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년 후 2년의 퇴직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직무개발 등을 진행하고, 변화된 직무환경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기법 교육 등을 개발하고 퇴직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TF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상자의 퇴직 후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퇴직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소요재원 계획과 인력운영계획 연계로 별도정원 미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감사시스템(법인카드 모니터링, 대외활동 모니터링), 청탁방지 시스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 채용비리방지시스템, 불공정거래방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 반영은 임직원의 이해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임직원 행동 강령에 반영하였음.
- 직장 내외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공무원 징계령에 맞추고 정직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마련함.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행동강령 등을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적극적인 현행화를 추진함.
-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반부패 청렴 교육이 전 임직원 대상에 있어 참석율이 높은 점이 인정됨.
-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연4회 공직기강 점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어 긍정적임.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대외활동 모니터링제도, 일상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채용비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정립하고, 채용비리방지시스템을 통해 채용 전 과정 감사인 입회 참관 100% 달성한 점이 인정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 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징구,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기일내 대금 지급, 청렴위반시 계약해제, 감사담당자 입찰참가, 담당자 교육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전형단계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 면접시는 과반수 외부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채용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외부전형위원 비율이 평균 5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이 이루어짐.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 경영 실행지침이 제정되어있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 영향평가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인권경영보고서 잘 공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 신고센터와 부정청탁신고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스톱신고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유함. 윤리경영 신고센터는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운영을 할 필요 있음. 또한 회원가입 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 윤리경영 교육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교육, 퀴즈 등 유인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교육의 이수율이 낮으므로 전 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 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함.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옴부즈만제도나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컨설팅 혹은 자문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를 권고함.

- 클린신고센터가 외부사이트에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부정부패 신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연구윤리위반, 갑질신고 등 다양한 형태 신고가 익명성 보장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불공정 거래(갑질 등) 근절을 위한 교육, 공공분야 채용비리 예방교육 실적이 없고, 특히 심사위원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방지 교육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 시 혹은 필요시에만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친인척채용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분기별로 친인척채용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청렴한 채용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갑질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내용이 가이드에 없고 실적이 없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공급망 등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규정을 포함하고 실적을 관리해나가기 바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연말에 몰아서 2회 개최하고 4월에 수립한 인권경영계획 수립 시에는 개최하지 않았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개정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기관운영 분야만 있고 주요사업분야 체크리스트가 없고 ‘해당없음’ 및 ‘정보없음’ 사항이 10%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업분야 지표를 추가하고 해당없음 등의 항목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400%(12명)로 우수함.

- 청년인턴 채용에 여성인재(6명, 50%), 비수도권·이전지역 인재(9명, 75%) 채용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채용을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을 낮다고 판단되는 바, 100%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함.
- 가급적 행정인턴과 연구인턴의 균형적 채용을 권고함.
-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1:1 멘토링 이외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 운영 실적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체 보직자(28명, 기관장 제외) 중 과반(17명, 60.7%) 이상을 여성관리자로 임용함.
-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고용으로 연계하고자 노력하였음.
- 2022년 신규 채용 전체인원(34명) 중 과반 이상(21명, 61.7%)이 여성근로자로 채용되었음.
- 여성관리자의 개념 설정에 있어서, 직무 이외에 직종 간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통해 관리직 목표제에 대한 연도별 통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함.
- 우수인력 풀(Pool) 확보 속에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여성관리자 역량체계를 정립하여 성과평가에 적절하게 연계하여, 연구직과 행정직별로 성과 단계별 여성보직자 중장기 계획과 성과목표 수립이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 등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다양한 교육 발굴이 필요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전원이 정규직인 점이 우수함.
-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규칙제정,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필기시험 전형단계별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한 점이 인정됨.
-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해 관할 보훈청을 통한 ‘보훈특별고용’ 방식의 채용공고 진행 등 국가유공자 채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에 상향된 가점(10%)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장애인 채용실적은 없으므로,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꾸준한 채용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제품 우선구매실적은 전년도 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절대 비율이 적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은 1.5%로 기준에 매우 미흡하며, 2022년도 신규채용 실적이 없음.
-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단의 차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인건비 정비 TF를 운영하여 저임금보전분 배분에 대해 노사합의 및 배분을 완료하고, 직급체계 개선 및 승진제도 개편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정규직 감사전담인력 2명과 감사전담부서를 갖추고 감사실 담당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과 업무분장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은 적절함.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체감사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법인카드 모니터링과 대외활동 모니터링시스템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 매월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점검이 월1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우수함.
- 감사원 종합감사로 자체감사를 생략되었으나,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충실히 수행한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회나 다른 연구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 대안을 모색하고, 공통 지적사항에 관한 연구기관 자체의 선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건의함.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 국정감사 공통지적사항('20년) 1건, 국정감사 공통지적사항('21년) 2건, 정무위원회('22년) 1건 등 공통 지적사항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건의함.
-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 연구진 투트랙 제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계획 및 추진해보길 권고함.
- 비상임감사의 조치사항이나 검토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점검하는 체계를 수립할 것을 건의함.
- 감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할 것을 건의함.
- 갑질 근절 자체 가이드라인 운영에 있어서, 실태조사가 35.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함.

- 감사전문 인력의 교육시간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교육의 경우, 원내 임원, 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아쉽음.
- 전년도 지적사항이었던 갑질 설문조사 참가율이 22년에도 35.7%로 저조하고, 응답에 따른 갑질 예방 인식 개선 정도가 다소 미흡함.
- 21년 출연연 채용분야 지적사항이었던 전형위원 제척 및 회피 의무 위반으로 2명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 자체감사 시스템과 채용 절차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모호한 점은 아쉽음.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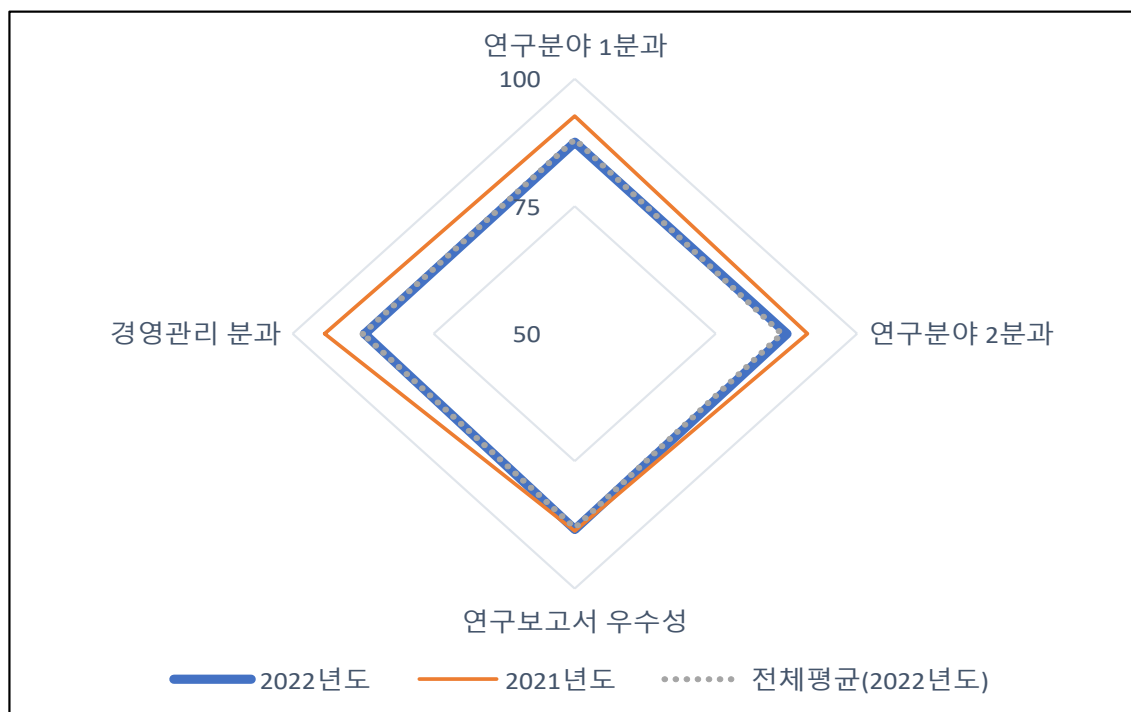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B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C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C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C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B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S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B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자문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통해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별도의 발간위원회 운영과 3단계에 걸친 윤리검증 시스템으로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함.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사적 조직(TF)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정과제 수립과 이행에 기여하였음.
- 대부분의 과제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연구과정 상 주요 정부 기관들과 협의 소통을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국가통계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자료의 활용을 통해 근거기반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였음.
- 연구계획의 수립 및 보고체계와 연구대상자들과 유관기관들의 거버넌스 확립, 학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노력을 통한 연구결과 도출을 하였으며, 이러한 다수의 연구과제들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복지분야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보건의료복지분야를 총 망라한 다수의 정책발굴을 통한 정책제언이 우수하며, 이러한 정책 제언은 관련 정부부처와의 활발한 자문회의 및 토론회 실시 등으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의 법제화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경영 분야]

- 부모급여,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개혁 등 보건복지 의제를 발굴하여 경영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다만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사회보장제도) 등 주요의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상충되는 견해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친화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의 전략적 활용 및 내실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기관 내 조직의 통합과정에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함.
- 기관장의 대외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학술교류에 집중된 점은 다소 아쉬움.
- SWOT 분석을 통해 비전 실현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5단계 조직혁신 체계를 구축함.
- 업무포탈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근로시간 관리와 대외활동관리 등 적정한 복무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됨.
- 비정규직 규모를 관리하고자 있으며 임금·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퇴직자 전문성 제도 운영을 통해 멘토역할부여와 실효성있는 퇴직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청년인턴 채용계획 달성도 및 배정예산 집행률이 우수하며, 기타 경비는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 하였으며, 관련 취업 및 직무역량 향상, 1:1 멘토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여성관리자 목표계획을 준수 및 달성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은 긍정적임.
-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유사 반복되는 내·외부감사 지적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변화하는 사회·정책 환경 및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대내외 정책환경 및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과 연구사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원내외 의견수렴과 선정 평가 절차를 거쳐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 원내외 연구자, 정부부처, 산학연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 다각적 소통 채널을 통해 사회적·정책적 수요 분석을 실시함.
-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기관 경영목표를 고려한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함.
- 정책수요자(정부 및 국회, 산학연 전문가, 현장전문가,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음. 현장전문가는 사회보장·보건의료 전문가를 활용하고 포럼, 세미나, 성과발표회 등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였음-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각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 3명을 추가해 평가단 구성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의 연구기획 단계 참여를 확대함.
- 일반 국민 대상 정책공모전 통해 43건의 연구제안을 공모받고 국립세종도서관과 연계해 일반 시민 대상 연구제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연구수요 파악을 위해 노력함.
- 연구기획을 통해 보건복지 관련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현안을 해결해보고자 하였음.
- 청년정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공정성, 능력주의, 젠더, 청년부채, 청년주거, 청년정책의 정의, 청년정책의 필요성, 청년정책 패러다임,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에 대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연구단을 운영한 점에서 우수함. 청년 참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에 청년 당사자를 참여하도록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키워드분석,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외부 전문가 활용등의 다양한 수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가 2회 개최되어 2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는데, 이는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과제발굴 및 선정이라는 취지에 현저히 부족함.
- 청년문제, 보건복지 관련 등 민감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토론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연구기획·운영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선정평가단, 연구심의위원회 등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포럼을 운영하고 사회적 현안을 반영한 점이 우수함.
- 기관 내 신진 연구자(신규 부연구위원) 대상으로 별도 연구수행체계를 통해 분야별로 10건의 연구 기획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연구기획 단계에서 신진 연구역량 적극 활용함.
- 중점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은 기관설립 목적 부합성, 정부시책 연관성, 해당 주제파급력, 다학제적 분석 가능성, 경영목표 연관성 등 5개 원칙을 고려해서 이루어짐,
- 기본연구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과제 예산 비중은 29.6%로 기준을 충족함.
-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프로세스가 매우 체계적이며 각 단계별 담당조직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남.
- 체계적인 협동 및 융복합 기획·발굴·선정·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협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 하였음.
- 협동연구과제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23년 기본 및 일반과제 중 80% 이상을 협동 연구과제로 수행함.
- '23년 39개 기관과 수행한 22개 협동연구는 협력기관, 과제내용, 과제를 현안대응 등의 관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3년도 기본 및 일반과제 연구사업에 국정과제 사업계획을 100% 반영하였고, 선정 과제내용의 시의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23년도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총액 비율이 33.0%로 관련 규정 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기초연구사업비 총액 비율이 29.6%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비율을 보다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를 발굴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기관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기본연구사업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중은 33.3%로 경인사연 권고 기준 충족하고 있지만 낮은 편임.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7개 연구영역별로 구분해 16명에서 25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연구자문위원회가 연구기획 단계에서 자문역할 강화토록 연구자문위원회 위상을 강화함.
- 연구원 발간물 관리(평가 및 질 제고)를 위해 별도의 발간위원회를 운영함.
- 연구원 발간물 관리(평가 및 질 제고)를 위해 별도의 발간위원회와 익명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함.
- 전주기적 연구관리체계가 N-1, N, N+1년도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내부 협업 과제의 비율이 60건 중 45건(75%)으로 분야·부서 간 협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구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매우 세분화하여 자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22년 전체 연구과제 대비 협동연구과제의 건수(222:96), 예산(45.2%)의 적정성이 인정됨
- 협동연구 플랫폼 구성(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성과 전문성 인정) 및 운영이 적절하고, 운영실적과 성과도 양호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수시과제 수행 기간을 4~8개월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3~4개월 이내 단기과제와 6~8개월 이내 중기 과제로 이원화해서 운용할 필요 있음.
- 기본연구과제에 충실해야하는 기관특성을 고려할 때 수시연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시연구과제 비율이 10.1%로 경인사연 권고기준을 가깝스로 넘고 있는 수준이어서 기관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가능한 수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순수 내부 조직인 연심위, 발간위원회에 연구과정 관리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연구과정 관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의 제도적 반영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느낌을 주고 있음.
- 협동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전체 연구과제 대비 45.2%로 낮은 편.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노력 요망됨.
-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등 협동연구 활성화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음.
- 학계, 공공기관과의 협동연구가 많은 편임. 시민단체, 산업현장, 민간기업,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3단계에 걸친 윤리검증으로 연구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
- 연구윤리 준수 활성화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준수지원단,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자체점검단 등 다양한 관련 조직을 가동함.
- 연구윤리준수지원단을 내부지원단과 외부지원단으로 구분 운영하고 외부지원단의 위촉 조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담보함.
- 기관 자체 연구윤리검증 기준을 확립함.
- 6단계에 걸친 연구윤리 자체점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함.
- 국회 출장 기안 시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부실학회 사전 검토 결과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 기관 특성을 반영한 3개 분야(연구윤리, 생명윤리, 출처표기)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 중 원외 위원이 37.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 바, 최소한 50%를 상회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 TRM 체계상 사실상 거의 상시화된 업무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업무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면이 있는 바, TRM 체계도의 상시 업무에 연구윤리 관리를 포함하고 N, N+1년도 연구윤리 관련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TRM 체계 상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원내 부원장에서 외부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직급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전 직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의 참석률이 32.3%로 저조. 참석률 제고 노력 필요함.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한 기획, 목표설정 및 실행, 성과평가, 평가 및 환류체제가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 국내 심포지움·세미나·포럼·성과발표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연구가 기고 및 언론인터뷰 협조, KTV활용, SNS 등 뉴미디어 활용, 기획영상·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국제적 협업강화를 위한 웹사이트 고도화, 홈페이지 활용, 전문자료 제공, 정책자료집 배포 등 연구성과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정부부처로부터 다양한 수상 실적을 기록함.
- 조회수, 네이버 조회수, 간행물 조회 수 등 실적치로도 2022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8,965의 연구성과물 배포실적과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 실적이 우수함.
- 정부부처와의 협업실적인 984건을 기록하는 등,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등 정책 수요자와의 대내외 소통, 협업 실적이 우수함.
- 국제협력강화와 연구성과 확산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 국제협력단신설('22.1.)과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및 국제협력 강화노력이 우수함.
- 2022년 13건의 MOU체결, 국제공동(협력) 연구, 국제세미나 발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연구연량 국제화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출연금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확산을 위해 이벤트성 행사 참여는 지양하고 실질적 결과물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공동연구의 개선이 필요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및 개방 노력정도가 우수함.
- 75건의 연구과제를 NKIS에 등록하여 100%의 등록률을 보임.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데이터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연구과제와 국정 과제의 연계성 정도가 적절하며, 각 사업들 간의 연계, 적합성 제고 노력을 기울임.
- 전년도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국정과제 관련 기획관리 시스템을 적절히 개선하는 등 국정 과제 관련 연구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함.
- 특히 정부교체기의 국정과제의 중심 이동을 국정과제 연구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과제를 수행함.
- '22년도 국정과제 총 252개에 연구책임자 기준 연구인력 122명, 277억여원을 투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기관 규모에 비추어 적정함.
- 전체 252개 국정과제 수행 성과 중 법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에 기여한 건수가 3건으로 다소 부족 하지만 종합대책기본계획수립에 기여한 건수가 43건으로 연구성과의 적정성이 우수함.
-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과 관련된 국정과제 연구 대표사례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함. 특히 국가 기반을 강화하는 가족 돌봄 청년 과제의 선정을 통해 적절성과 시의성을 잘 구현하였으며, 관련 예산 편성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함.
- 특히 가족 돌봄 청년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정책대안 제시가 연구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 및 가족 돌봄청년 정책 설계지원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가족 돌봄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회 소관 타 연구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 연구진과의 협업/공동 연구가 더욱 필요한 과제이므로 향후 외부기관 연구진과의 적극적 협업 및 교류가 필요할 것임.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증대를 위한 '전주기적 관리체계' 운영과 관리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체계의 협업을 통해 연구결과의 정책화 성과 극대화함(전주기적 연구관리체계 하에서 정책고객 의견수렴, 관계 부처와 연구방향 공유 등을 통해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책기여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정책기여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법령 개정안 반영 성과 등).
- 정부 교체기로 인한 애로사항 극복 노력과 공통적인 국가 과제 노력 정도 등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 평가체계 적용 등 연구과제 관리를 통한 실적이 있으나 그 외에도 연구과제의 다양한 관리 노력을 통한 개선 실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함.
- 정책자문위원회 2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회로 실질적으로 현장 정책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이 비교적 부족함.
- 전체적으로 정책화 기여 실적 중 법률 제개정 등 입법화 관련 실적은 비교적 부족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국가 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장 지시로 긴급대응에 적합한 전사적 조직(TF)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슈발굴, 연구 수행, 연구 보고 및 성과 확산 단계에서 긴급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대통령직 인수위 보건복지 분야 정책 어젠다 페이퍼 작성을 위한 T/F, 포용적 회복 연구단(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간 협업 주도), 규제혁신T/F 등을 구성 및 운영하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작성 지원과 정부현안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슈, 연금개혁 이슈, 취약계층 지원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 수행 및 비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6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Issue&Focus 4건 발행, 정책 영상 자료 10편을 제작하여 성과 확산과 공유를 위해 노력함.
-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제언, 청년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분야 관련 규제 혁신 등 25건의 정책현안 논의에 참여하여 정책아이디어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 정책수립에 기여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0.1%,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1.2%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 범위 안에 있음.
- 기관의 특성상 기본과제 예산 배정이 많음으로 인해 수시과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책현안 판단 보고서 60여건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수시과제 수행성과를 보완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 수시연구과제 수행 성과가 타 기관에 비해 저조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연구 및 비연구활동 성과가 자문이나 정책제안의 형태로 드러난 것은 다수 있으나 입법이나 정책적 성과로 구체화된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입법화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22년도 전체 수행과제 총 181건 중 수시과제가 5건에 불과하고,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 비율과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권고기준을 각 0.1%, 1.2%를 상회할 뿐이므로 사실상 권고기준 위반에 준하는 수준임을 인식하여 적정 비율로 상향할 것을 요청함(기관의 특성 상 기본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이 필요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보건 및 복지와 의료정책 등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과제가 수행됨.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 속에서 장애인 및 노숙인을 위한 지원책 발굴과 영유아 보육 정책 및 청년들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총 망라한 정책 제언은 시의적절하며 사회적 관심 제고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함.
-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을 위한 법령개정을 위한 발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 상병수당 도입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등의 정책제언으로 사회보장 강화에 기여함.
- 연구과제 수행 중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 및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기고 및 기사, 정책 토론회, 현장 간담회 등의 포괄적 의견수렴을 도모하여 정책 이슈화와 신뢰도에 기여함.
- 연구결과를 활용한 다수의 정책제안 내용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반영되어,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화 실적에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역기반의 복지정책 역할분담에 관한 대부분의 과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 역할 분담을 제시하였으나, 일부과제에서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하고 정책대안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완제시는 다소 미흡함.
-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대다수의 과제에서 한국의 복지모델은 인구 규모 및 국토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외국등과 차이가 있는바 모든 인프라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강한 특성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막대한 예산과 인프라가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정책 제언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함.
- 일부과제의 경우 정책제언이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국가정책 기본계획 반영 등의 근거 확보를 위한 정책화 지원방안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국가와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대표적인 몇 가지 우수한 점을 지적하자면,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응 관련한 연구에서는, 정책환경 분석, 해외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논리 전개가 적절했고, 다방면에 걸친 선행연구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관련한 연구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분야 일자리의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 기획이 독창적이고 시의 적절했음.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한 축인 보건복지 인력 문제를 다룸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혁신이라는 현안 과제 와도 연결성이 높다고 평가됨.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보건복지 일자리를 거시적, 통합적으로 바라 보고 접근했다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 역시 확보되었음.
- 오랜 기간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절실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기획한 점이 우수함. 연금개혁의 대안들을 비교하고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의 해외사례를 비교 연구한 점은 시의적절하며 실제로 의미있는 정책대안과 함의를 제시하였음. 정책 시뮬레이션과 이해관계자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대안들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연구 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연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다수 있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이 아쉽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다수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음.

-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관련 연구에서는, 연구제목에서 재난 관련 건강불평등연구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재난과 건강불평등 관련 외국의 사례나 국외 문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재난과 관련된 유형과 시기별 분석을 통해 재난 관련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흥미롭고 정보적이긴 하지만 재난불평등, 건강불평등이라는 연구의 핵심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청년 자산 실패 관련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에서 자산과 부채 실패를 거의 동등한 비율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목에 ‘자산과 부채’로 명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음. 또한 다년차 연구 과제인 경우, 연구제목이 연구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연구의 내용에서 제4장 법령 및 주요정책검토 및 해외사례와 한국보건의료의 질과 연관성이 체계적으로 가독성 있게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부 엄밀성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보고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음.
-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 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일부 눈에 띄는점이 다소 아쉬움.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우수한 점은, 의료협력체계 관련 연구의 경우, 고령화, 소득증가에 따른 질병부담의 변화와 건보재정 한계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연구 내용이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됨. 특히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의료제공체계에서 국민중심의 의료서비스 이용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복지국가의 제도 개혁을 다룬 연구에서는, 기존 복지국가모델이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구축되었기에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 구축을 연구한 점은 그 정책적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됨. 특히 기존의 양적연구에 매몰된 사회정책 연구에서 벗어나 이론적 논의와 현실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를 기획한 것은 고무적인 노력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미흡한 점으로는, 단순, 경증 및 중증, 복합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점은 타 당하나 임의 할당 등의 표집방법이 결과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설문문항에서 복합만성질환자, 노인 등의 경우 의료패널, 노인실태조사 등 2차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했다면 표본의 대표성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구 과정에서 미래 주요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 및 각 국가의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일부 내용에서 각 장 사이의 일관성, 명확성, 유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보임. 복지국가 모델에서 다양한 측면을 다루다보니 결과적으로 개혁 모델에 대한 종합적 논의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수립 시 40여 개의 과제를 제안하고 10여 개 보건복지 의제를 형성하였으며, 부모급여,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개혁 등을 공약에 반영하는 등 경영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경영환경 분석 및 전년도 기관평가 결과, 보유자원과 내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영목표에 반영하고자 노력함. 경영목표와 실천계획, 실천과제에 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목적성이 잘 반영되어 있음.
- 복지국가연구단, 사회보장재정연구실(통계연구실 통합), 국제협력단 신설 및 보건정책연구실 분리 등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노력함.
- 기관장이 구정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발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경영계획과 경영현황에 따른 실천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5대 경영목표, 10개 추진전략, 21개 실천과제 추진을 위해 인력확충, 조직설계, 연구수행, 의견수렴, 정책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였음.
- 경영목표로서 체감형 정책홍보 및 맞춤형 연구성과확산 분야의 정량적 성과달성도 우수함. 사회보장사업의 중앙-지자체간 정책조정 실적은 목표치의 232.1%로, 실천계획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동요와 선도적 역할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목표 실천전략의 중요도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 개혁과 관계된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경우 국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사회보장제도) 등 주요의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상충되는 견해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구조를 구축하여 성과평가위원회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의제와 관련된 국민친화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의 전략적 활용 및 내실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성과목표 설정 시, 외부정책자문과 내부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기별 점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목표달성도에 대한 내외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성과지표의 실천계획에의 부합성,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적절성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성과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실천계획의 관리체계가 평이한 수준임. 경영목표 대부분이 계량지표화되어 있으나 추진계획의 성격을 감안하여 비계량지표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사회공헌경영, 가족친화경영 등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지표임. 두루모임(월레모임)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 기관의 노력도 보이나 경영목표에 기관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중점과제나 수행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필요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새 정부의 기관 운영기조에 부응하여 기관 내 조직의 통합과정에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함.
- GOAT라는 전략 수단을 통해 중점현안과제, 경영가치, 조직문화 선도 등을 주도했고, 인권경영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이 수행하는 통상적인 노력과 비교할 때, 규모 및 빈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된 상황에서 주무 국책연구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정부와 연구원 간 연결고리로서 기관장의 역할을 인식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유도하려고 노력했음.
- 연구회와 소통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학술교류에 집중된 점은 다소 아쉬움.
- 복지국가에 매우 광범위한 사안이고, 이러한 문제를 기관 및 기관장 차원에서 어떻게 특화시키고, 핵심과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역량 발휘가 필요해 보임.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

〈우수한 점〉

- 중점연구과제 추진관련 전사적 노력, 대외활동, 연구과제의 국정반영도 제고를 경영의 최우선 분야로 추진함.
- 정책의 선도성을 위해 복지국가연구조직을 신설하고 대외적으로는 일상회복위원회,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다층위 정책협의과정에서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함.
- 복지국가화와 연계되는 기관의 중요 역할 수행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사회적 재난위험 회피와도 연계해 중점과제를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사업의 취지에 비해 도출된 결과와 성과가 다소 추상적이며,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 한 점은 아쉬움.
- 중점연구사업이 전 기관차원의 과제를 포괄할 정도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 중점사업 성과를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중점사업에 거의 다수의 과제를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핵심 중심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원장의 리더십의 실행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아쉬움이 있음.

(2) 보건복지정책의 평가·진단·대안을 위한 전사적 정책연구

〈우수한 점〉

- 인수위 등에서 사용할 자료의 제공 등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여 새 정부 복지정책 적극 지원을 위한 과제방향을 지니고 있으며, 복지정책 자문단 풀 확대 등 정책환경변화 수용 노력이 인정됨.

- 기관 전체 차원에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가 잘 반영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나타남.
- 새 정부 수립에 있어 과학적 연구, 사회적 약자 지원 연구 역할 인정되며 융복합적 연구기반을 강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구체적인 정책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다기보다는 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쉬움.
- 정권교체기를 지향하고 대비하다 보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기관의 운영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재고가 필요하며, 단순히 새정부 지원이 중점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함.
- 체계적 선정절차를 거쳐 후보사업 선정 이후 최종사업선정이 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정작 사업명칭이 막판에 변경되는 등 사업의 중심과 본질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글로벌 보건복지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강화

〈우수한 점〉

- 글로벌 차원에서 복지정책 관련한 논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복지제도 개선과 혁신 등 대내외 협업 필요성과 중점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국제협력단을 신설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거나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점은 유의미함.
- 정책의 글로벌화를 위한 일차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전담조직 신설 등 체계정비 노력이 존재함.
- 해외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원장의 기관 대표로서의 국제적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향후 역할과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 국제협력 단장이 해야 할 수준의 업무와 기관의 대표자로서 상징적으로 원장이 해야 할 국제적 협력 업무가 구분되어야 함.
- 사업추진 내용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실질적 콘텐츠는 미흡하며,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실질적 활동 및 실적과 변화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본 중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다소 소극적인 성과만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대외 활동의 핵심역량을 어디에 집중할지 빈틈없는 기획 하에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적극적인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를 (동)아시아 이외 지역을 포함하도록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거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더 노력해야 함.
- 국제협력에서 원장의 역할 및 K-방역에 대한 원내 전문가의 협조 유도, 복지부와의 관계 및 WHO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주도 등에 대한 기관장의 고유한 상징적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단장/실장의 역할이 주요하게 나타나며 원장의 실질적 역할은 잘 나타나지 않음.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SWOT 분석을 통해 비전 실현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약점과 위기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대 경영목표와 10대 추진전략 등을 수립함.
-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해 조직운영 관련한 기관의 노력 및 실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함.
- ‘공유와 소통’ 기반의 성과관리 원칙을 설정하고, 직원 참여의 5대 경영목표와 기관장 제시의 4대 전략목표에 관한 조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개별 경영목표의 달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경영목표의 달성여부 및 중간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직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5대 경영목표의 달성은 연구부서가 핵심적으로 담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실적을 상시적으로 수집함.
- 연구기획조정실에서 모니터링을 포함해 성과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함.
- 직원의 관심 수준이 높은 근무평정 지침 기준 개정을 위해 노사가 균등한 비율로 평가위원회(노사TFT)를 구성하고, 활발하게 소통함.
- 성과급, 임금, 교육훈련 수요조사, 희망부서 사전 조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노사가 적극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함.
- 오프라인의 ‘열림 소리함’, 온라인 익명게시판 ‘여기보사연’을 운영하는 등 익명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고충 채널을 운영함.
- 직원의 고충에 대해 기관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충 발생을 최소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의 효과 분석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객관적 분석을 통해 향후 조직운영 개선 및 보강 방안을 도출하는 등 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조직성과의 상시적·객관적 관리를 위해 정량지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간/월간/분기별 회의를 통해 조직성과의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회의 방식과 성과점검 지표·기준 강화 등을 통해 성과점검의 상대적 우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중장기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연구 및 경영환경 분석 및 인력추이를 반영하여 기관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함.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5대 미래 인력수요 사업을 발굴하고, 인재상에 기반한 차별화된 인력운영 체계 운영 노력을 기울임.
-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구원이 준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미나 등의 자율학습 및 역량강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
- 총 교육훈련비의 총액과 1인당 교육훈련비가 증가한 점이 인정되며, 연구직 융복합 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융합연구의 성과를 도출함.
- 연구직의 경우 계량화된 실적평가 80%와 비연구직의 경우 60%로 설정한 점이 인정되며, 협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적평가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연구의 통합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 및 해외의 신규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 및 다양한 채널로 적극 채용 노력을 요함.
- 학술대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신진연구경향, 최근 연구경향 등 심층연구역량이 강화되는지 의견 수렴과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업적평가 이의신청 내역은 없으나, 절차상의 복잡성 여부나 평가시스템의 적절성 여부 등 원인 파악과 분석이 병행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수행지침에 의거 대외활동을 일반활동과 집필활동으로 구분하고 횟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대외활동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명확함.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외활동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고 수행할 것을 규정함.
- 대외활동 관련한 표준화된 지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대외활동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건이 발생하지 않음.
- 대외활동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함.

- 복무관리를 위한 자체 내부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사 지적 사항 관련한 개선을 완료함.
- 업무포탈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율성을 부여하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하고 있음.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연차휴가 소진율을 전년도 대비 향상시킨 실적이 인정되며,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시행으로 탄력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 점이 긍정적임.
- 전 직원 대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유연근무제가 적절하게 운영됨.
- 안식년 및 연구연가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복직 후 3개월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등재지 게재 의무화한 점은 합리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결과보고서 미제출이나 학술지 게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지적이 내부 감사에서는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기관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유연근무제 실시 이후 실제 업무 성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업무 성과향상도에 대한 분석 및 조사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안식년 이후 성과확산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자기계발과 개인 전문지식의 연마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진기술의 습득과 함께 성과확산의 차원에서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안내자료가 매우 우수함.
-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받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을 적극 운영하고 있음.
- 휴직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수급계획 수립, 선발, 채용에 대한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 반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퇴직자재고용 및 휴직대체인력 제외하고 순수 비정규직을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심사제와 수시심사를 실시함.
- 인사, 복무, 보수 등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육아휴직 대체인력 증가 및 사업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불가피한 비정규직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업확대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증가를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고함
-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명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소통에 노력하길 권고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을 통해 재임용 기회 부여하고 멘토역할을 부여하여 후진양성을 하도록 하여 퇴직 전후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퇴직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년퇴직시 연차별 업무경감과 그에 따른 퇴직프로그램 운영으로 퇴직 후 직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 법개정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됨.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센터, 옴부즈만 제도 등 내부건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윤리경영 총괄 업무를 감사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하는 등 기관의 특성에 맞춰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 모니터링제도, 대외 활동 모니터링제도, 일상감사, 투명한 위원회 운영,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 센터와 옴부즈만제도 등의 내부건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 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전형별 외부위원참석,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참관 등 기본적인 채용 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기일 내 대금 지급 등 불공정 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외부위원을 보강하여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 긍정적임.
- 인권 영향평가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정됨.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감사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전담직원 2인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영향평가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운영하였고, 인권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교육의 이수율을 관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 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 이수자의 직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 청렴 교육에 있어 전 직원 대상 교육과정이 온라인 1시간으로 참여율도 전 직원 대상 88%와 관리자 대상 84.2%로 저조한 점은 교육과정을 증가하고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함.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활용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 갑질방지를 위해 내부 점검과정은 있으나, 외부 업체 등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는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경영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클린신고센터 내에 신고가능한 세부사항들을 명기하고 각각의 구체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청렴한 채용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 실적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임직원 등 교육참여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인사관리규정 상 특별채용 규정이 남아있으므로, 최근의 정부가이드라인을 살펴 특별채용사유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함.
- 현재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 시 혹은 필요시에만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갑질근절을 위해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갑질 현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권영향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난 사항이므로 이를 반영할 것을 권유함.
- 인권경영위원회의 역할을 심의 혹은 의결기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정상에도 위원 과반수를 임명하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연 1회 개최하였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침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권침해 종류별로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구제절차를 제도화하고, 이를 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외부에서도 인권침해에 대해 익명신고가 용이하도록 사이트를 개편할 것을 권고함.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였음.(배정인원 6명 대비 채용인원 11명)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하며, 기타 경비는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함.
- 관련 취업 및 직무역량 향상, 1:1 멘토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등 사회형평적 측면의 인력을 적극 채용함. 즉,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으로 장애인 인턴 2명을 채용하였고, 이전지역인재에 대한 채용 가산점(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부여하여 이전지역인재 4명을 채용,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 가산점을(전형단계별 만점의 2%) 부여하여 지역인재 6명을 채용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비교그룹 기업평균 70%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긍정적임.
-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여성관리자 목표계획(40%)을 준수하여 전체 128명중 78명이 여성에 해당하여 60.9%를 달성함.
- 경력단절여성 2명 정규직 채용과 1명 계약직 연구원 채용실적이 있음.
- 보직자 39명 중 24명이 여성관리자이며, 여성인력이 기관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여성보직자 관리직 목표제를 설정하여 특정 성별이 30% 미만인 되지 않도록 안배하고, 기관장이 남성이면 부원장은 여성으로 임명하는 등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직자 수도 매년 30%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직자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조직문화와 젠더 등의 교육이 시행되고, 임원, 관리자, 직원 모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을 이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함.
- 양성평등 가치확산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초로서 인권경영 담당부서인 감사실과 인사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수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 중장기적 계획 제시가 필요함.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이며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관리자의 4대폭력 및 양성평등 교육실적 관리는 이수율이 100%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외에 조직문화와 젠더, 양성평등 교육, 인권 영향평가 실무교육 등은 담당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전 직원과 부서장 참여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채용을 위해 내부시설 점검 등 환경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장애인 특별채용 및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 채용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장애인 행정인턴 2명 채용한 점이 인정됨.
- 2022년 국가유공자 정규직 3명 채용하여 단계적으로 의무고용증가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 중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월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1월~4월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3.6%를 준수하지 못함.(연도말 기준으로는 충족).
- 장애인 채용을 위한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 유관 기관과의 연계, 벤치마킹 등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적 개선이 필요함.
- 2022년 장애인 채용은 행정인턴이며, 정규직 채용실적은 없음.
- 2022년 국가유공자 고용률 3.8%로 미흡함.
-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한 증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과도한 대외활동 방지기준 마련 필요성 지적에 대해 모든 대외활동에 대해 사전승인, 대외활동 신고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활동 수행지침을 개정한 점은 우수함.
- 감사부서 장의 독립성과 비상임감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적절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인 점.
- 감사부서 부적합자 배치를 원천 차단하도록 감사직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경력 25년 이상의 감사인력 2명, 그리고 주요 보직 경력의 책임행정원을 배치하여 감사인력의 역량강화를 도모한 점은 우수함.
- 전년도 우수사항인 자체감사결과에 대해 규정 개정실적 등 개선을 위한 후속이행조치 노력으로 일상감사 실적이 4,950건, 반려 367건으로 확인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 점은 우수함.
- 전년도 우수사항인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실적도 양호함.
- 감사 교육에서 교육 미이수 인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자체 감사활동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결과 조치도 잘 이행함.
- 대외활동 부적절 신고로 인해 경고를 받은 직원에 대해 추가 점검을 자체 실시하고, 대외활동 미신고 점검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와 대외활동 신고자료를 대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무위원회 반복 지적사항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 인프라 개선사업이 연구지원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 제도 개선 등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할 것을 건의함.
- 비상임감사 수행점검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비상임감사의 조치사항이나 검토 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점검 및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권고함.

- 비상임감사 활성화 방안에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감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해보길 권고함.
- 전 직원 대상 감사교육 내용이 청렴, 부패방지, 인권 등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전체 감사교육 횟수가 다소 제한적이고, 감사교육 참석자와 대상자가 한정적임. 특히 원내 임원, 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감사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 범위를 다양화할 것을 건의함.
-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사업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길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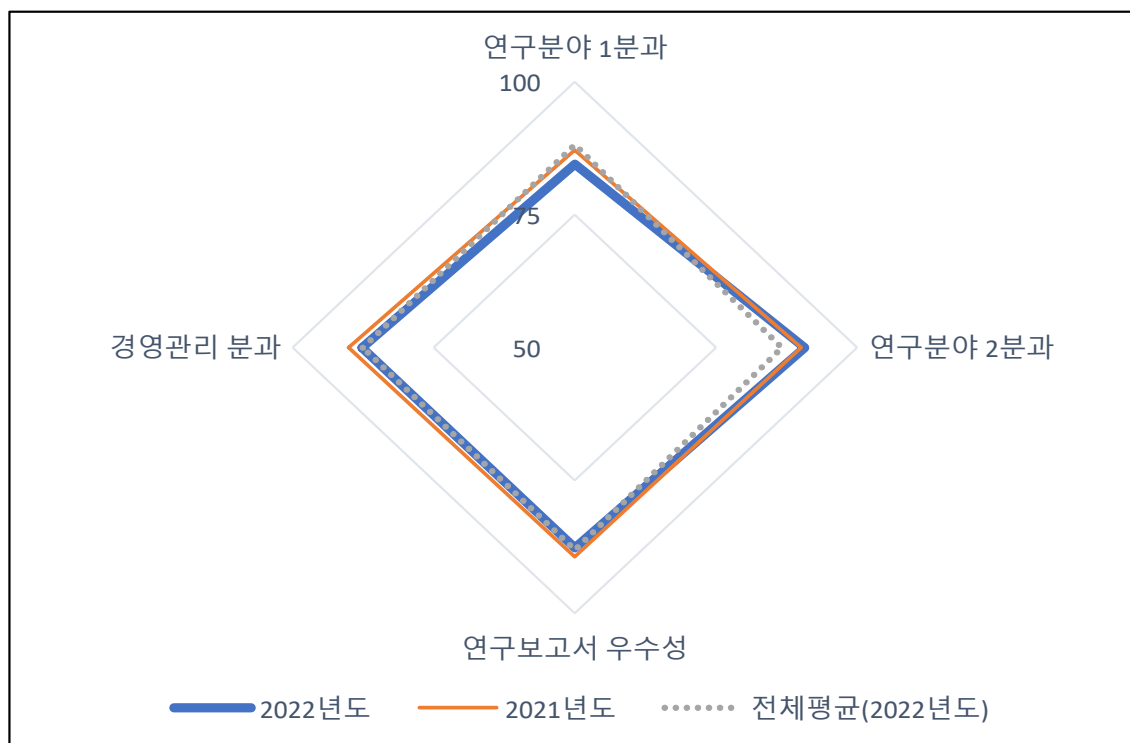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C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C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C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B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C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B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C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D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실적	D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정책과제개발워크숍 정례화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5단계의 내외부 점검시스템을 통해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정책화, 입법화, 정책 제안의 건수가 우수하여 법 개정, 기본 계획 및 대책, 정책 지원 등에서 매우 적극적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 및 비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스톡킹 범죄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연구성과의 시의성과 적정성이 우수함.
- 긴급 현안과제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고유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새로운 연구 이슈를 꾸준히 발굴해오고 있으며, 추상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개선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음.
- 정책적 소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례발굴과 적극적 자료 수집을 통해 새로운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대상 집단과 영역을 확장해오고 있음.
- 성주류화 제도 추진과 확산을 위한 실질적 추진체계로서 개선성과 제고뿐 아니라, 계량화된 실적 관리와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제도 확산 및 품질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음.

[경영 분야]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성·가족정책 환경의 변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젠더로의 확장, 젠더갈등 등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다만 젠더분야 관련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추가적 연구수요를 어떻게 반영하여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함.
- 스마트 경영혁신 TF, 경영혁신위원회, 노사동수 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소통경로를 활성화 되었음. 정량적 측면에서 전년 대비 대외활동량이 대폭 증가함을 확인함.
- 전년도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의 타당성, 효과 분석을 밀도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승진 및 전환과 관련된 실적관리가 필요함.
- 매년 초 유연근무제 시행 알림 및 신청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며, 관련 직원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인사규정에 징계유형별 양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현재 개정작업 중이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이 진행될 것을 기대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배정예산 집행률이 우수함. 또한 인턴 활동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여성신규채용 비율이 높으며, 경력단절 여성 2명 채용, 가족친화기업 인증, 직장 어린이집 공동 운영, 일가정양립을 위한 각종 휴직 및 복무제도 시행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방지 노력을 기울임. 다만, 기관 특성상 여성 재직자 비율이 많으므로,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관리자) 목표의 설정 및 인력유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과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임. 보직자 대상 감사교육과 감사교육의 다양화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대내외 연구환경 분석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법제, 정치, 경제, 노동의 거시분야와 통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면적 이슈분석을 통해서 환경분석을 함.
- PEST 분석을 통해서 정책 환경 및 수요를 진단함-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환경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연구주제를 발굴함.
- 젠더갈등, 세대 인식 격차 등 중요한 사회적 현안을 포착해 기본·수시 과제로 발굴함.
- 정책수요자(정부, 국회, 전문가, 시민(언론포함))의 수요조사를 연 4회 시행하고 있으며, 간담회는 연중 상시 개최하고 있음. 일반국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인스타그램 등에 개설하여 제안된 의견을 연구과제에 반영하였음.
- 단기적 긴급현안 대응은 수시과제(11건) 및 연적금과제(1건)에 반영하고 있고, 중장기 대응은 기본(15건) 및 일반·협동연구(8건)로 반영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수요자, 공개토론회, 정책연구기획TF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나 해외환경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는 자주 개최하였으나 전문가와 시민은 포함되지 않음. 일반국민의 의견도 공식적인 회의에서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상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제안 코너에 2015년 이후 제안된 건수 0건임
- 정책연구기획 TF, 분야별 TF에 외부위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젠더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단계부터 정책수요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국가·사회적 현안 및 국정과제, 대내외 정책환경 분석, 연구수요조사 등을 통해 연구사업목표 및 방향, 연구기획·전략을 설정하고 연구과제 기획 및 공모, 심의과정을 거쳐 기본·일반과제 등 기관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상·하향식 과제발굴(two-track)전략에 따라 과제를 발굴·전문가 심의를 진행해서 과제를 선정함.
- 2023년도 중점연구사업은 연구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정부의 정책수요 부합성, 정부정책 기여도, 이론적·학술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연구 비중은 25.6%로 전년 대비 20.2% 대폭 증가하고 정부제안과제 비중은 59.2%로 전년대비 6.0%p 향상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함.
- 협동연구과제를 의제발굴형·정책혁신형·교류협력형 3가지로 구분하고, 기획·발굴 시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연구자문위원회, 정책위원회에서 연구의제를 발굴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3단계 과정이 체계적임.
- 연구기획 및 발굴 단계에서 경영목표 및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기본·일반과제는 과제제안평가위원회-과제심의위원회-과제배분위원회 단계에서 국정과제 적합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과제선정에 반영하도록 함.
- 22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25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정부정책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7개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함.
- '23년도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정부부처제안과제 사업비 총액이 59.2%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자문단으로 여성가족부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위원회에 구성원이 좀 더 다양화가 필요함.
- 중점연구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전략성과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사업수 비중 33.3%, 예산 38.9%, 인력 31%).
- 해외에서의 가족, 아동, 여성에 대한 이슈의 최근 트렌드를 파악해서 해외기관과 협동연구를 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협동연구기관 다양성 필요함.
-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국정과제를 역제안하는 것도 필요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주요 보고회에 정책수요자인 관련 부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참석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peer-review 참여를 연구본부의 성과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기관 내 review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함(연구본부별 peer-review 시행 정례화, peer-review와 팀KPI 연동 제도 도입).
- 2021년 시범운영했던 정책과제개발워크숍을 정례화해 정책수요자 현장 의견 수렴을 적극 유도함.
- 수시과제 참여 부서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건수와 참여인원을 형평성 있게 배분함.
- 과제수행 기한 감점관리제 도입으로 과제수행 일정 지연을 방지함.
- 연구 품질 관리 TF의 구성 및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TF의 상시 운영을 통해 연구보고서의 질과 정책기여도를 제고함.
- '22년도 수행 연구과제가 100% 연구종료 후 적절한 기간 내에 발간되었음.
- 정부출연기관, 학계, 지역 여성연구기관, 여성단체, 유관 NGO, MOU 체결 기관 등과 협업을 위한 상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동연구 수행 시 적극 활용함.
- 전체 수행과제 대비 협동연구과제 비율은 62.85%로 적정 수준을 유지함.
- 다학제적 협동연구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top-down방식과 bottom-up 방식으로 수렴된 의견이 상호 충돌할 때 갈등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top-down 방식이 결정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경우, bottom-up 방식의 의견 수렴 구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
- 협동연구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NGO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동·협동연구 관련 협력기관이 대부분 대학·연구소로 다양화되어 있지 못한 바, 공동·협력 연구의 파트너십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 있음.
- 수시연구는 기본연구보다 과제종료일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과제종료일 이후에도 보고서 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벌점 0.5할이 징벌적 효과가 적은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바, 벌점 상향조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기관의 특성 때문인지 개별 연구자 간, 연구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드러나질 않는데 특별한 유인제도가 없어도 활성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업의 지속가능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장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연구의 협동연구 비율이 다른 연구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는데 점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조금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보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진 자체점검-연구평가센터-연구사업평가단-외부점검단-발간위원회로 이어지는 5단계 내 외부 점검체계를 통해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 강화하고 외부점검단 풀을 2명에서 7명으로 대폭 확대함.
- 착수보고 단계에서부터 연구윤리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 관리를 강화함.
-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및 조치체계 운영으로 2년 연속 연구윤리 클린 연구기관 선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위원회가 기획조정본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연구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을 본 조사 시기마다 임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 외부공동연구자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 내부연구자에 준하는 연구윤리 관리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이는 바 보완이 필요함.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2021-2023 3개년 중장기 홍보전략을 연계 및 구체화하여 수행함. 연구성과의 홍보 및 성과확산 추진체계 및 인력 간 역할분담이 적절함.
- Plan- Do-Check-Act 순환 구조의 〈연구성과 확산 환류 시스템〉이 우수함.
- 대국민·지역사회 홍보, 인터넷 및 SNS 활용,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활용 및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성과확산 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 국제심포지엄·세미나·포럼·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홈페이지 및 연구성과 웹사이트 활용, 뉴스레터 발송, 전문자료 제공, 정책자료집 등 연구성과물 발간, 언론홍보, 해외홍보 실적이 우수함.

- 36,036건의 연구성과물을 배포하고,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 실적이 우수함.
- 총 1,927건의 정부 유관부처, 국회 협력, 산학연실적 및 성과가 우수함.
-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3개년 계획 (2021-2023)」의 3대 계획을 기반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 수립이 우수함.
- 국외 네트워크 구축, 인력교류, 국제공동(협력)연구,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실적이 우수함.
- 성평등 관련 다양한 주제의 국제논의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 및 어젠다 주도. 국제연구동향 면밀 모니터링 계획 등이 있음.
- 연구역량 국제회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가 적절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 유관부처, 산학협력 등 총 397건의 적극적 협력 중 산·학·연 (864건)등의 협력실적은 3건(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여성학회) 등에 그쳐,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산·학·연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이의 결과에 대한 홍보 및 확산을 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 네트워크 성과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국제공동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67건의 연구실적을 NKIS에 등록하여 100%의 등록률을 보임.
-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인당 논문게재편수가 0.58로 논문게재편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선이 필요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정과제 이행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외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수요를 다각적으로 반영함(국정과제 이행 지원 관련 특정 부처에 연계가 집중된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확대, 21년 5개 국정과제에서 9개 국정과제 분야로 국정과제 지원 범위 확대, 국정과제 수행 지원 예산 비율도 92.7%로 매우 높은 편임).
- 국정과제 관련한 참여 및 지원 실적 가운데, 정부 정책화나 입법 및 제도화와 내용적 연관성이나 인과성이 떨어지는 성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기획 단계부터 입법 및 정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함.
-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연구사업은 총 91개, 총 예산 약 87억원, 원내 참여인력 441명(22년도 전체 연구과제 수행 건수 104건 중 국정과제 수행 건수가 91건(87.5%)이고, 전체 예산 대비 국정과제 예산 비율이 92.7%(87억 여원)에 이를 정도로 우수하며, 기관 규모 대비 적정함.
- 국정연구과제 우수 성과로 제시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분석 및 제재조치 실효성 강화 연구”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와 피양육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함.
- 특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분석을 다룬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의미 있는 자료를 산출함.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육비 채권자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입장도 고려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전반의 국민의 정책 만족도 제고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입법과정 지원 등)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다 상세한 설명과 관리 노력이 필요함.
- 대표사례의 경우 정책대안 측면에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점은 인정되나 연구주제가 다소 지엽적일 수 있고 평가대상년도 중 두드러진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대표사례로서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음. 또한 향후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정책대안 마련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유관 학회, 법제연구원 등과의 협동연구 효과성 검토가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정책화, 입법화, 정책 제안의 건수가 우수하여 법 개정, 기본 계획 및 대책, 정책 지원 등에서 매우 적극적임.
- 국정과제가 여성정책의 각론부문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기획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노력을 수행함.
-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총 4단계 절차로 관리하고 있음. 각 단계별로 담당부서 및 관련 회의체를 통해 정책 기여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신고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4단계 관리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정책 과제 발굴, 과제별 정책고객 의견 수렴, 정책지원 및 정책기여 활동 실적 관리 및 평가, 평가 인센티브 활용 등을 통해 정책기여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음).
- 정책과제워크숍과 Peer Review 전면 시행을 통해 정책기여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유튜브 영상 보고서 제작/배포 횟수 측면에서 전년 대비 60% 상승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환류확산 노력의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음.
- 주요 정책수요자인 정부부처 공무원의 연구과제 참여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의 대외활동 특히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성과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더욱 고도화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수행 27건, 간담회/세미나 개최 및 참여 14건, 전문가 정책 간담회 4건, 국회 대응 3건, 위원회/TF 참여 5건, 조사 및 홍보 등을 통한 공론화 2건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스토킹 등 증가하는 젠더폭력 현안 대응” 등 7개 국가 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인해 그 성과가 법령이나 규칙 개정에 반영되었고,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비연구과제의 수행이 정책화로 연결된 사례도 다수 있음.
- 대응 연구과제(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 스토킹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아동학대 방지 체계 및 가정 내 폭력 피해 정보의 연계방안 모색 등)는 긴급성, 시의성, 중대성 그리고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가지는 주제에 해당함.

- 긴급 및 현안 관련 총 2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 중 11개가 수시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그 성과의 적정성이 우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9.9%,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73.4%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비율이 적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 및 현안과제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긴급 및 정부현안 과제에 대한 19개 연구수행 성과로서 정책화 14건, 입법화 7건, 정책제안 5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에 제정되었음에도 입법 기여를 하였다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21년 4월에 개정되었음에도 2022년에 개최된 포럼의 성과라고 볼 수 없음.
- 긴급 및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수시연구의 수행 성과가 양호하지만, 과제별로 연구성과가 편재되어 있으므로 수시과제 발굴영역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기관 고유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연구 이슈 발굴이 돋보임. 여전히 소수자적 특성을 보이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발굴, 수행됐다고 판단함. 가부장적 관습과 사회체계에 근거한 폭력의 문제부터 노동자 지위와 임금 개선, 장례문화까지 성평등한 사회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한 노력이 돋보임.
- 성(불)평등 연구주제별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개선안 도출에 노력했다는 점이 우수함. 추상적인 인식개선 수준이 아니라, 법제 개편(제·개정), 부처와 기업 실행 가이드라인 제공, 임금액 제시 등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성주류화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와 제도 참여 성과를 높이는 방안과 실행력이 강화된 성과가 우수함.
- 정책적 소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진행 과정에서 사례발굴과 적극적 자료 수집을 통해 새로운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대상 집단과 영역을 확장한 점이 우수함. 인신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접근이 쉽지 않은 정책 수요층을 만나고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외될 수 있는 집단의 정책적 목소리를 연구 결과에 담은 점을 높이 평가함.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이나 장례문화 개선 등 다층적이고 새로운 성불평등 이슈를 참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를 확장한 점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개선안은 많은 경우 관련 제도 (신설)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정책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 시행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에 언급할 필요 있음.
- 평등과 인권을 촉진하는 연구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책성과(정책화)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홍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요구됨.
-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공동으로 연구(사업)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연구 결과가 지자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 특수성 반영 또는 지역 유형화를 통한 정책 제안 발굴(또는 추진 방법 제안 등) 등이 필요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성주류화 제도 추진의 체계화와 확산의 성과가 가시적이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함. 성별 영향분석평가법 시행 후 제도 실행의 중요한 추진체제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하며, 정책 개선 실적 점검 등 체감형 성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노력도 높이 평가함.
-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다양한 추진 주체들(부처)과의 협력을 강화 하려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성주류화 제도를 통한 정책 개선이 가시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새로운 기관들이 제도 추진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기관별로 개선이행률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 추진이 필요함. 정책개선 이행 현황 점검 방식 변화, 기관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성주류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고, 참여율도 매우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 조직과 제도 운영의 혁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의 점검을 받는 수동적 자세를 탈피해, 능동적으로 제도 추진 개선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본 센터 및 전국 센터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성 주류화 제도 추진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국가와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보고서에서 발견된 우수한 점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중증장애 여성의 인권 증진 관련 연구의 경우,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중증장애여성의 인권 침해상황을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증장애여성의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정책적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현황 파악이 뛰어났고, 성재생산권 확보측면, 교육권보장측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 자립생활권 및 노동권 보장측면, 건강권 측면, 성적권리 보장 측면 등에서 사안의 핵심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또한 ESG 경영과 성평등 연구의 경우, 보고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ESG 경영과 성평등의 관계성에 대한 관계성 연구를 토대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었음. 특히 보고서의 서술방식에도 신경을 써서 비전문가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독성을 확보하고 있음. K-ESG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수행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K-ESG 가이드라인과 관련 정책사업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충실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여성정치인 관련 정당 국고보조금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무엇보다도 연구주제의 선정이 우수했고, 연구의 특성에 맞게 연구문헌을 검토하기 보다는 법령, 당헌, 당규 등의 법적 근거와 제도,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했음.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연구 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연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다수 있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이 아쉽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음.

-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청소년의 디지털성문화 관련 연구에서는, 청소년 교육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역시 부족한 측면이 있음. 연구 방법적 관점에서도 면접조사 말고, 어려움은 있겠으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청소년 입장을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했음.
-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 관련 연구의 경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다소 부족했고, 그 결과 방향성 제시 자체에 그치는 부분들이 있었음. 분석 과정에서 주로 교차 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니고, 주요한 변수의 통제를 전제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 이 외에도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몇 군데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입체적인 분석 시각을 가지고 각국 예산 제도 및 정부조직의 기획 및 예산 권한 등을 분석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음. 무엇보다 충분한 사례선정을 통해 본 주제가 한국사회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논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함이 인정됨.
- 연장선에서 지방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한 연구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는데, 보고서 내용을 통해 전체를 조망 가능하게 하는 요약 분석틀 제시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또한 연구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활용하는 세심함이 필요했고,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는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연구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다양한 노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 지역별 특성으로 인해 성인지적 재정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여성/가족정책 환경의 변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젠더로의 확장, 젠더갈등 등 대내외 환경분석 및 SWOT분석을 통해 7대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Top-down 및 bottom-up 양방향에서 경영목표와 실천계획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5가지 실행가능 수단(연구발굴 및 수행, 제도 및 시스템운영, 성과공유, 협력체계 구축, 조직 및 인력운용)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PDCA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실천계획의 체계적 점검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TF와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목표의 우선순위, 중요계획을 선별을 위한 가중치 산출 등을 통해 경영목표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성과목표 전체 달성도는 102.27%임. 미래를 선도하는 젠더연구 지평 확대(103.9%), 지식경영을 통한 전주기적 연구관리 시스템 혁신(102.27%),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100%) 등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젠더분야 관련 새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추가적 연구수요를 어떻게 반영하여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함. 특히 기관자의 중점 연구방향에 부응하는 연구과제 성과의 확대가 요구됨. 기관장의 구체적인 역할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하위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의 부합도가 낮은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성과목표와 적합도가 높은 실적 관리가 요구됨.

- 3대 경영목표의 세부 실천계획에 과제의 중요도나 난이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정 현안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별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과거의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되고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 있음. 일부 정량성과지표 또한 단순 산출지표로 제시된 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 성과관리 등을 병행할 필요 있음. 예를 들면, 성과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의 경우 1, 2차 전문가 포럼 개최로 실적을 제시한 바, 포럼 개최 이후의 후속조치 등 질적 성과관리가 요구됨.
- 연구성과 확산 제고를 위한 성과목표에 논문게재 실적 등 경영목표와의 적합도를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실천계획 달성도 점검지표의 질적 지표 강화 및 성과중심의 실적 관리가 요구됨. 지식정보체계 정비 및 연구성과 확산 제고가 실질적 성과와는 괴리(국내 학술지 게재실적은 매우 낮은 편)가 있으며 능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1인당 교육훈련비 지출 절대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기관 당면현안 관련 실천과제에 포함된 연구기획기능 강화(3건)와 연구성과 확산 제고, 지식정보 체계 정비 등을 실천과제의 실질적 효과성 모호함. 조직문화 3가지 사이의 디커플링 현상이 무엇인지 모호하며,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과 전략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냈는지 불명확하므로 성과과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원장-보직자, 원장-평직원, 보직자-비보직자, 사용자-노조 등과 같이 직군과 직급 간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소통하고자 노력함.
- 스마트 경영혁신 TF, 경영혁신위원회, 노사동수 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소통경로 역시 활성화 되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반적인 활성화는 인정되지만, 기관장이 각 채널 및 창구별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일상적 차원의 의례적인 업무처럼 보이는 사례가 많고, 기관장의 고유한 리더십에 의한 성과로 분류하기가 어려움. 또한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여부가 드러나지 않음.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정량적 측면에서 전년 대비 대외활동량이 대폭 증가함을 확인함. 적극적 언론활용을 통한 대국민 홍보 성과를 확인함.
- 정부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 실적이 양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전반적인 우려를 국회 등에 적극 전달하고자 노력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향후 여성정책연구원의 고유한 정책 영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관장의 대외활동을 기대함.
- 여성정책이 가지는 정책 범위의 포괄성이라는 특성이 대외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함.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성평등 지식공유 플랫폼 기반구축

〈우수한 점〉

- 정부 정책을 고려하고 대외 환경 변화에 적극 부합하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여성정책 관련 지식공유 및 플랫폼을 통한 지식축적이라는 기관 정체성을 고려한 사업선정은 적절함.
- 현안의 시급성, 사회경제적 영향, 성평등 사회로의 이행에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중점사업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 중점사업 후보군 중 외부전문가의견 및 양성평등담당관협의체, 연구기획TF연석회의 등 사업선정의 절차가 적절함.
-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러 수단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해 사업성과를 구체화한 점은 우수함.
- 인트라넷, 정보화사업, 예산확보, 평가시스템 등을 포괄하면서 지식공유플랫폼 기반으로 연구과정이 진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우수함.
- 성평등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추진해 연구개발적립금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정보화사업 과제를 추진한 점이 우수함.
- 성평등 지식공유 연구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주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시킴.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성평등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내용을 근거로 스마트 경역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및 외부 지식공유플랫폼 간의 연동 및 활용도 시너지 효과를 위한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은 아쉬움.
- 지식공유플랫폼 기반 구축은 연구원 내의 지식효율성 차원의 과제인 바, 이것이 원내의 효율성 제고를 넘어서서 연구원이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공유로 확장되기 위한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 회의개최 건수 등이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계량 측정치이므로 구체적인 성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2) 스토킹 등 젠더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우수한 점〉

- 국정목표3 및 국정과제 6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중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진 권리보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등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 사회적 주요 쟁점을 사업 주제로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기관장의 뚜렷한 노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 이후 정책화 노력 및 사회적 확산 과정에서 기관장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었음.
- 연구원의 정체성과 국가정책기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였으며, 신 정부의 다양한 국정과제와 연계된 과제로서 젠더 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부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음.
- 젠더폭력연구본부 핵심성과지표로 젠더폭력연구본부 워크숍, 피어리뷰, 학술지 게재 등 3가지 성과를 KPI로 설정하여 연구조직 및 역량을 강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실제 젠더폭력 범죄피해 보호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적 성과로 나타나야 하나 현재는 연구산출물(output)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향후 결과(outcome)으로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 정책화 노력이 요구됨.
-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팀별이 아닌) 개인별 KPI와의 정합성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인별 KPI와 더불어 팀별 지표도 추가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요구됨.
- Peer review는 과정적 지표에 해당되며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 등 연구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안대응, 혁신, 기능조정 등 다양한 목적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전년도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함.
- 평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2022년 상반기 팀KPI를 수립하였으며, 팀KPI가 반영된 KWDI 전략적 경영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행함.
-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인권경영위원회, 성희롱 고충상담원 등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SWOT 분석을 통해 기관이 직면한 대내외 연구 및 경영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대응 전략이 다소 미흡함. 당해연도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대응과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음.
- 기관이 추진한 조직운영 노력과 실적의 일관성 및 종합적 기대 효과 등을 관리·점검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의 타당성/효과 분석을 밀도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각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서 타당한 지 여부와 효과 분석을 통한 환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사 협의회, 평가위원회 외에 노사 간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실적이 다소 미흡하며, 노사간 현안 해결을 위한 모임 외에 상호 화합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은 부족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특별보상 체계 등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우수인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임금인상률 배분 등을 도모함.
- 채용관리시스템 도입, 공동채용 참여, 임금인상 시 신규직원 배려, 기업리뷰 관리 등으로 우수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임.

-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공통교육 이외 전문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되며, 성평등 정책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관특성을 반영한 교육컨텐츠가 제공됨.
- 기관의 인재상과 교육훈련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신규직원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형 프로그램 이외에 내부의 혁신 학습조직들이 운영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성과 평가 계량화 비율이 82.7%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 기준 계량 항목은 41.2%로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역 우수인력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와 청년 주도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관의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수급 추이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타 기관과 구별되는 연구원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구분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비의 집행 내역에서 1인당 교육훈련비가 연구직이 비연구직에 비하여 낮으며, 각각 173천원, 398천원으로 평균 241천원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증액 등의 노력이 요구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화된 대외활동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근무관리를 위해 대외활동 지침 등의 제도를 개정하고 겸직성 대외활동 등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함.
- 대외활동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외활동을 관리함.
- 자체 감사를 통한 근무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사 지적에 따라 근무 관련 규정 등 관련한 개정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함.
- 연가저축제 도입 및 연차휴가 소진 독려로 연차휴가 소진율이 100%임.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안식년 및 연구연가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집행됨. 대상자 선정 및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논문 게재 등과 같은 사후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짐.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제출과 1년 이내 학술회의 및 학술지에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사후신고 10일 초과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비연구직에 비해 연구직에서 사후신고 비율이 높아 대외활동 간편신고 시스템 구축 등 기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 유연근무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운영 체계화 노력이 필요함.
-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원 만족도 및 업무성과 향상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구연가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교육연수결과보고서 제출, 학술회의 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를 두고 있으나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함. 2022년 미이행자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화된 규정 명시가 요구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인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분할 사용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음.
- 육아휴직 사용자들이 복직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매년 초 유연근무제 시행 알림 및 신청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며, 관련 직원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통해 관련 제도 활용을 지원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가족돌봄 휴가 운영실적(무급)과 자녀돌봄 휴가(유급)의 운영실적을 구분하여 실적보고서에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 반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2022년 임금체계 개편 시 무기계약직 승진체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교육훈련, 복리후생적 혜택, 다양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이 전 직원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과 관련된 공식적 의사소통 통로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퇴직사유 점검과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 운영지침 제정을 18년 완료한 이후 개정에 대한 검토와 반영 여부를 실적으로 제시할 부분 검토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개선과제를 발굴 및 개선해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비정규직 인력의 전환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노력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무기계약직 승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노력과 실적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임금피크제에 따른 업무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짐.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가 신규채용자에게 업무노하우 등의 전수를 위한 소통이나 멘토제도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도입할 것을 권고함.
- 보직면제에 한정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원하는 퇴직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후 이를 검토하고 연구기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퇴직프로그램 개발을 권고함.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채용을 위한 인건비 소요액이 '23년부터 1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재원 조달에서도 부족액을 조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되어 있음.
- 연구직을 대상으로 최근의 연구윤리 이슈를 포함한 연구윤리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근무평정 시 필수교육 참여점수를 부여하여 교육참여율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대외 활동모니터링제도, 일상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와 옴브즈만제도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익명성을 보장하고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전형별 외부위원참여 명시화,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비리 신고센터운영, 비리피해자 구제제도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갑질근절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 수의계약체결관리강화 등 기본적인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현재 전 채용단계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면접 시에는 50%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친인척채용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또한 인권영향평가 TF를 전년도 8명에서 22년 13명으로 확충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원 중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는 등 기관의 특성을 잘 살린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인권영향평가계획 수립,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인권영향평가결과 공개 등 체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인권침해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제절차를 차별화하여 마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위반 징계(정직3개월) 1건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윤리교육의 부서장 참여율이 70%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임.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 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처리 사례발생시에는 사례의 원인을 살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례발생에 따른 특별 직원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 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사례 발생시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시행,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제도 개선, 직원 간담회 등 다양한 재발방지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인사규정에 징계유형별 양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현재 개정작업 중이므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 현재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 시 혹은 필요시에만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인사규정, 규칙, 지침상 남아있는 특별채용 사유와 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고, 최근의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현행화할 것을 권고함.
- 갑질근절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업체에 대한 갑질 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모니터링하고 운영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친인척채용결과를 공개하였으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채용사이트에 탑재 등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권침해에 대한 외부 신고사이트가 없으므로 익명성의 보장과 외부접근성이 가능하도록 신고사이트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외부위원 참여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운영 또한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인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연 1회에 불과하므로,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400%(연구인턴 4명, 행정인턴 11명)로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함.
- 인턴 활동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여성신규채용 비율이 86%이고, 경력단절 여성 2명 채용하였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 직장 어린이집 공동운영, 일가정양립을 위한 각종 휴직 및 복무제도 시행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방지 노력을 기울임.
- 여성관리자수 75%, 남성관리자수 25% 임명하여 양성평등 실현 노력을 기울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
- 신규 직원 대상 ‘성평등 정책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 성평등 관점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학습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여성비율이 86%로 높은 기관이므로,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관리자) 목표의 설정 및 인력유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과 성과가 높으나 경력 단절여성 채용 촉진을 위한 프로세스 검토를 권고함.
- 기관 자체의 양성평등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으로 고려한 인사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교육이나 4대폭력 교육 등의 관리자 참여는 10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매월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며, 연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음.
- 2021년 위촉행정원 1명 채용유지, 2022년 2명 채용하였음.
- 연구행정, 인사조직관리업무, 재무, 시설, 총무업무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 장애인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수시 인재추천을 받고,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에 참여(22.8.30)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이행실적 제출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규정 마련하고, 총 7회의 채용공고를 진행함.
-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등을 통해 고용률 준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채용목표의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그리고 미충족 시 신속한 대처 시스템 마련을 권고함.
- 2022년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이 약간 미달, 2022년 신규채용 실적이 없음.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지적된 출연금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출연금 근거마련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가 확인됨.
- 서울지역 출연(연), 공공기관 감사실무협의체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감사환경 대응 및 여러 이슈에 대한 공유가 가능해져 감사 인적 네트워크 및 감사 역량 강화 등 전문성 확보에 기여한 점이 우수함.
- 감사 담당업무, 감사실장 업무부장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직제규정 및 직무규정에 감사부서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운영한 점은 우수함.
- 윤리경영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게시, 자료배부, 안내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 감사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요구 또는 주의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정기 및 일상 감사 시스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용역 공사계약 등 내부감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내·외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자체 정기 감사 실시하였고, 일상감사와 복무감사도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감사교육 소통 채널 다양화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전체 대면 교육과 소통 채널의 확장 결과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건의함.
- 감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함.
- 감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및 현장 강의 수강 이외에도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유의 사항을 정리한 별도의 자료집 등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확산할 것을 건의함.
- 전 직원 대상 감사교육이 청렴, 부패방지, 인권 등 의무교육 수준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참여율 제고와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원내 임원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자체감사결과 중 동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상시 가동하고 감사결과 및 사후조치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선제적 교육과 체계적 개편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함.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감사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개선하는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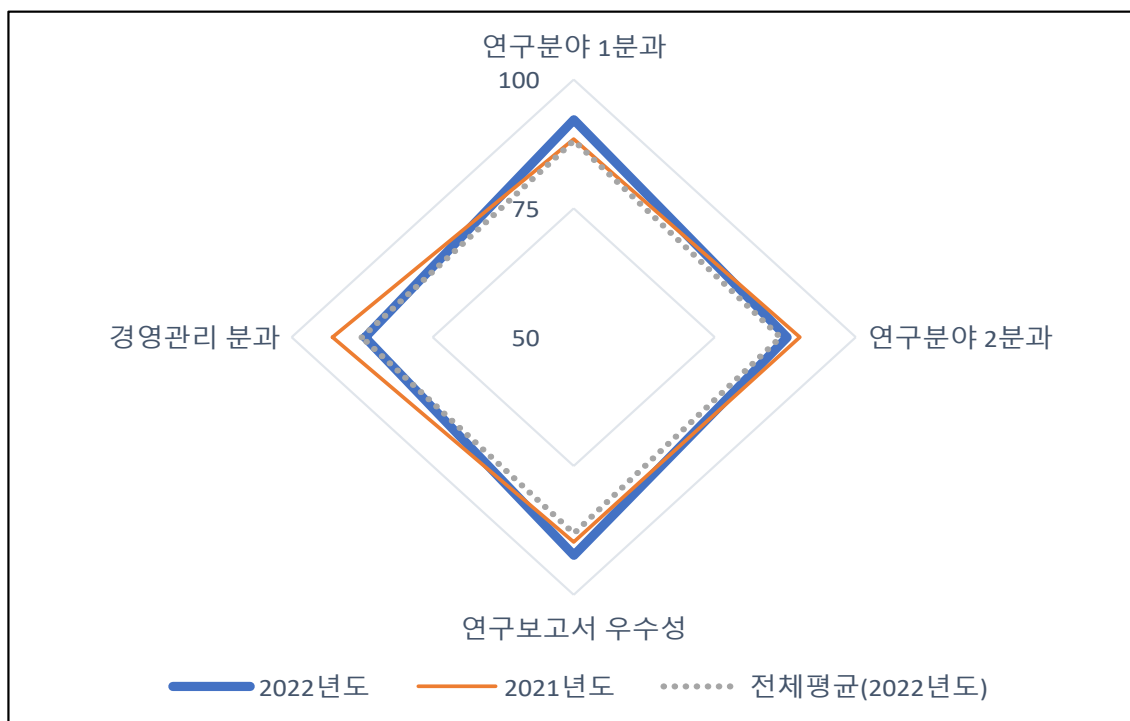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A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A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A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S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S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A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A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A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S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A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A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B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설립목적, 외부 의견수렴, 정부정책과제 및 국가·사회적 현안을 바탕으로 2023년 연구·사업 목표를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대비 정책방향 수립’으로 설정하였음.
- 외부전문가의 연구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외부위원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활발한 협동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을 운영함.
- 긴급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이 미흡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
- 다만, 기관 규모에 비해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수행 성과가 다소 낮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 및 정책반영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조세 및 재정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에 필요한 다수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정부의 중장기 정책 입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특히, 학자 또는 정책당국에게 친숙하지 않거나 민감한 주제일지라도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재정운용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선도적으로 연구하는 점은 정부정책에의 기여도 측면에서 높게 인정됨.
- 사업 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환류 등과 관련하여, 재정성과평가사업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를 적절히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환류하고 있음. 그 결과 사업의 효과성은 대체로 우수하다고 판단됨.

[경영 분야]

- 전년도 성과분석과 피드백, PEST분석, SWOT분석 등 심층적 환경분석을 통해 당면현안을 파악함.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조세제정정책과 국정과제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의 질 제고 등 정책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통해 경영성과의 질적 수준 담보하기 위해 노력함.
- ESG경영위원회 구성 및 경영보고서 작성, ESG 경영 선포, KIPF the Best 등 특징적 활동이 돋보임. 다만, 다른 대외적 활동 및 소통노력 대비 국회와의 소통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조직운영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등 조직 운영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우수함.
- 대외활동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인정되며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됨.
- 퇴직자의 전문성이 기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명예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제한조건 반영 등 현행화가 필요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와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우수함. 또한, 멘토링제도,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인턴제도 운영이 우수함.
- 여성채용 비율이 전년도보다 향상되었고, 인사제도 전반과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위원을 적극 배치하는 노력이 인정됨. 다만, 여성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채용, 승진, 위원회 구성, 보직자 임명 등 인사상 각 단계별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유사 반복되는 내·외부감사 지적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PEST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해내고,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2023년 연구사업 목표를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대비 정책방향 수립 연구로 설정하였음.
- 데이터 기반으로 조세·재정분야에 대한 이슈 키워드를 발굴하여 기본연구과제를 발굴함.
- 기관의 경영목표, 5대 국정목표, 정책환경, 정책수요 조사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전략적 기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획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됨.
- 정책수요자의 대상별 참여 채널을 구축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기획에 반영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유관부처 정책담당자가 참석하여, 진행 중인 연구과제·사업 등에 대한 업무협의 및 정책 현안 이슈를 논의하였음.
- 일반국민의 구체적 연구제안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공청회나 홈페이지 키워드 조사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일반국민의 연구수요를 파악해 과제 발굴에 반영하고자 노력함.
- 국회 정책토론회에 16회 참여하는 등 국회 관련 정책수요 파악에 적극적임.
- 연 1회 개최하던 정책연구기획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로 확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실적 전년 대비 증가함.
- 기재부 중심의 정부 유관부처들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활발하게 55회 실시하여 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림.
- 정책연구기획 TF를 조세, 재정, 일반경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9인을 위촉하여 과제선정에 기여함.

- 설립목적, 외부 의견수렴, 정부정책과제 및 국가·사회적 현안을 바탕으로 2023년 연구·사업 목표를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대비 정책방향 수립’으로 설정하였음.
- 2023년 연구·사업 목표를 기반으로 조세·재정·공공분야 8대 핵심 현안을 도출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민간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운용 효율화, 지역균형 발전,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기획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획단계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국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효과가 부족함.
-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가 많으므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책분야의 특성상 일반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정책과제 제안을 받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이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직접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이 교수, 학회 등 이론적인 위원들과 시민단체, 언론 등에 집중되었고 기업, 자영업, 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한쪽 의견만 치우쳐서 들을 가능성이 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23년도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기초연구사업비 총액의비율이 14.33%로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원내외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과제선정 및 배분위원회,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연구자문회의의 활용을 통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과제발굴 및 선정하려고 노력함.
- 중점연구사업이 선정사유를 고려해서 전체 33개 연구사업 중 6개의 중점연구사업을 선정함. 중점연구사업 과제 비율(18.2%)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인력 및 예산 배분 비율이 각각 30.2%와 42.6%를 차지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됨.
- 협동연구과제로 수행 시 단독연구과제의 연구실적 점수 120% 이상 부여하는 등 협동연구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핵심 국정과제 15개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정부부처의 제안과제 비중이 건수로는 66.67%, 예산으로는 70.48%로 높은 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 기획 단계에서 산학연 전문가와의 정책 간담회 개최 외에 외부 전문가의 기획단계 참여를 보장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조직 구성을 찾아보기 어려움(연구과제 기획 과정의 폐쇄적 성격).
- 조사·기획 단계와 발굴·제안 단계의 경계가 불명확함(조사·기획 단계의 외부 연구수요 조사와 발굴·제안 단계의 외부 수요조사 결과의 개념적 차이가 모호).
- 협력기관이 국토연구원을 제외하면 장기 세원 전망 전문가, 구조적 모형설계 전문가, 의료행태, 의료비 지출 분석 전문가, 공간균형모형 추정 전문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있음.
- 해외의 조세 관련 기관들과의 협동연구과제 발굴도 필요할 것임.
- 연구회 지침이나 융복합 협동연구의 확대 경향을 고려하여 협동연구과제 정책연구회 기획 건수 12건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정부제안과제 예산 비율이 높은 편이나 국정과제 수행 건수가 현저히 낮음.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외부평가를 상호익명으로 진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 퇴직 3년 미경과 연구원에 대해 평가자 선정과정에서 제척사유를 규정화함으로써 외부위원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연구과제 배분을 위해 연구진의 업무량을 월 단위로 파악해 업무 배분에 참고함.
-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내부위원(6명)보다 외부위원(9명) 중심으로 구성해 외부 의견 적극 반영함.
- 연구과제 수행 및 평가·보고서 발간 과정의 대부분 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
- 기본연구과제 18개 중 17개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함(99.4%).
- 전체 수행과제 예산에서 협동연구과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7% 비교적 높은 편임.
-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착수단계부터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연구수행단계별로 외부전문가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선정 및 배분위원회가 사실상 연구과제 결정권을 가지는 조직인데 모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있어 사실상 최종적인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외부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폐쇄적 성격을 드러냄. 외부위원을 포함함으로써 과제선정 및 배분 과정에 외부의견을 반영할 필요 있음.

- 정책실무협의회의 거의 전부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연구 과제 제안도 기재부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제안 경로와 정부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려는 노력 필요해 보임.
- 기본연구와 수시연구의 협동연구 수행 비율은 각각 33%와 17%로 매우 낮은 편
- 협동연구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관이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소로 한정되어 있어 시민단체 등 플랫폼 참여 기관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임.
- 과제제안자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위원회를 총괄기구로 하고 내외부 자체점검단을 하위 기구로 구성하는 방식의 자체 점검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기본·수시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윤리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함.
- 연구보고서별 집중 자체점검 결과 의심사례 71건, 기타 부주의 사례 672건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윤리 위반사례를 적발함.
- 전 직원 연구윤리 교육, 연구위원 연구윤리 집중 교육, 연구윤리 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함.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자가점검을 의무화함.
- 내부규정인 직원의 대외활동 규칙에 대외활동 유형별 관리 기준으로 부실학술활동 제한하고 개인 연구실적 점검 시 부실학회 학술지 게재 여부를 점검해 이중 확인함.
- 2022년 참고문헌 서지 관리도구인 RefWorks 신규 도입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한데 위원 전원을 내부 관계자로 구성하고 있어 연구윤리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음.
- 보다 적극적인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학술활동 목적의 국내외 출장 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시행 중이라면 연구윤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 있음.
- 연구윤리 교육이 1회에 그치고 있고 해당 교육과 관련된 내부 구성원의 교육참여율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연구윤리 교육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임.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지난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성과 홍보, 확산 분야에 대한 정비가 두드러지고, 미디어 환류 체제 내실화, 성과확산 추진체계가 체계적으로 설립되었고, 홍보확산 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 9회의 공청회·정책토론회, 16회의 포럼·세미나·학술대회, 12회의 초청세미나, 15회의 정책세미나를 실시하고여 실적이 우수함.
- 대내외 언론홍보,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홍보, SNS 채널 활용, 카드뉴스, 뉴스레터, 전문자료 제공 및 교육자료 제작 등 성과확산 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 40,186건의 연구성과물을 배포하고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 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최근 3년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체결 평균실적이 8.3건이고, 2022년에는 12건에 달해 성과가 우수함.
- 국제인력교류, 국제공동연구, 국제행사개최 등의 실적이 최근 3년 실적대비 우수하고, 국제사업 평가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개선노력이 우수함.
- 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원 인력규모 및 자원에 비해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성과가 적절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초청세미나 12회 개최했는데 대부분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양성 부족해 보임. 세미나 주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유튜브 구독자가 1,100명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채용정보 영상을 제외하고는 조회 수가 현저히 낮은 편임.
-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횟수가 저조함.
- 정부 유관부처와의 소통·협업 과정에서 기관 특성상 불가결한 사안이지만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협업 창구가 편중된 경향이 있어 협력창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88건의 연구과제를 NKIS에 등록하여 100%의 등록률을 보임.
-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 재정패널을 활용한 논문경진대회로 참가자가 35% 증가. 데이터 DB를 통해 활용도가 제고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1년 대비 2022년 공공데이터 연간 다운로드 건수가 32,710건에서 11,864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개선이 필요함.
- 재정 패널 데이터 개방 이외의 데이터 및 민간 활용 지원의 소극적으로 보임.
- 원문정보 공개 및 활용실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성과가 향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거시경제안정관련 국정과제 지원, 재정정상화 관련 국정과제 지원 등의 활동이 우수함.
- 대내외 현안 분석을 통해 주요 8대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국정과제에 연계되어 있는 7개 정부부처 지원을 위한 과제수행, 정책 자문, 행사개최, 토론회 참여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됨.
- 국정과제 지원과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접근과 지원체계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책기여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함(국정과제 지원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전년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정책연구협의회 개최를 확대하고 정책기여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 하고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함).
- 정책화 성과로 2022~2026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2023년 예산안 수립에 기여함.
- 대표사례의 경우 ‘국정과제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직접 기여 하는 연구사업을 선정함.
- 성과의 측면으로 공공기관 시장성테스트 연구 및 복리후생 점검을 통한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공공기관 시장성 테스트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향 제시,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경영평가 재무관리 지표 개발 및 교육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지속가능한 공공투자 및 서비스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통합기술마켓 고도화로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의 효과를 달성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수행 참여 및 지원 성과에 대한 실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재정건전성 확보...”, “다수 자문 참여...”, “수립 지원...” 등과 같은 표현은 정확한 국정과제 참여에 따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표현들인 바, 보다 구체적인 정책화/입법화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명확한 제시 및 관리가 필요함.
- 기관 규모 대비 국정과제 수행 건수는 적절하지만, 투입인력 및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수립이 '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 설명과 관리가 필요함.
- “공공기관 연구 사업”을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대표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소 포괄적인 사업을 선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본 연구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한 설명 및 관리가 필요함.
- 사업 성과와 파급효과의 구체성 확보가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기여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수 정책화 기여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전개함 (연구과정 전 단계에서 정책기여관리를 위해 노력함,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재정정책방향에 대한 방향을 지원함, 국회자문, 토론 참여 등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조사결과가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전주기적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일부 개선함.
- 기관 차원과 연구진 차원 모두 연구기획, 발굴부터 수행, 성과확산, 모니터링 및 환류단계 전부분에서 개선점을 도출하여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노력을 강화함(정책화 과정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정책화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기여 모니터링, 평가 부분이 소극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전주기적 운영 체계 속에서 30주년 좌담회 행사, 키워드 조사, 주요 정책 현안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노력이나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전담 TF 조직의 여부, 연구수행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의 참여 여부(정부 부처 공무원의 평가 참여 등), 인센티브제도, 사업성과 공유체계의 마련 여부, 연구과제 성과가 입법, 정책 성과로 연결되는 정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 및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긴급 및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이 미흡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확대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개선함.
- 새 정부 조세정책 분야 긴급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조세 재정 공공기관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제시하였으며, 수시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 자문을 수행함.

- 정부현안과제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등 4개의 큰 틀로 분류하고 각각의 해당 개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2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Brief 발간, 정책자문, 공청회 개최 및 참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함.
- 정부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1건의 연구과제 수행 및 비연구활동을 통해 정책 자료를 제공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1.1%,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5.4%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 수시과제 발굴을 위한 통로가 협소하고(정책실무협의회 55건 중 기재부 54건), 자체 발굴 수시과제의 비율이 비교적 부족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 및 정부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선제 대응을 위해 긴급성 판단, 지원 방안 등을 전담 조직(TF)이 필요함. 전년도 동일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수를 확대하였으나 본질적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연구 및 비연구활동을 통해 입법 기여를 인정할만한 성과가 있지만, 기관의 규모나 세법 개정의 빈도 등에 비추어 입법 및 정책 기여 성과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제시한 것 외에 특별히 주목할만한 긴급과제 수행성과는 확인되지 않음.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하한 기준 보다 1.1%,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하한 기준보다 5.4% 초과한 수준으로 정부부처 현안과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제정 취지, 국책연구기관의 책무 등을 고려하여 상하한 비율을 모두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기관은 조세 및 재정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에 필요한 다수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입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특히, 학자 또는 정책당국 등에게 민감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주제일지라도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재정운용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선도적으로 연구하는 점은 정부정책에의 기여도 측면에서 높게 인정됨.
- 정책대안(아이디어)의 제시 정도와 관련하여, 기관은 정책대안의 독창성·구체성·현실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정책대안의 적시성 및 민생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수준임. 특히, 기관이 제시한 여러 정책대안이 정책당국 및 다수 민간 학자들에게 (연구) 이슈를 제기하거나 공론화의 장을 제공하는 점에서 정책대안의 제시 정도 및 수준은 높다고 평가됨.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과정 및 실적과 관련하여, 기관은 대국민, 정부부처,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등)를 다수 개최하고, 정부부처, 국회 등에 회의안건을 다수 제기하는 등 정책수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인정됨. 특히,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정책당국에서 기관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점이 확인되는 등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노력 및 성과는 높다고 평가됨.
- 대안의 정책화 실적 및 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지침 등의 제·개정 실적, 국가정책·계획·사업의 실현 및 반영 실적, 여타 제반 대안의 정책화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특히, 기관이 제시한 다수 정책대안이 정부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되고 세법·국가재정법 등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경우가 높음을 고려할 때 기관의 정책대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높다고 평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화 기여 정도 측면에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의 성과 간 편차가 작지 않다고 사료됨. 기관의 상당수 연구는 종합적인 정책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그러나, 일부 연구(센터)의 경우, 정부정책·공공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의 정책 기여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정부정책·공공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Value for money 측면에서 고려할 때, 상당수 연구의 Value for money는 높지만 해당 연구(센터)의 Value for money는 미흡한 수준임. 해당 연구(센터)의 경우, 정책대안의 제시 정도,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정도, 대안의 정책화 실적 등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관 내 획기적인 조치가 요청됨.

- 통상 연구자들은 제한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기에 연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받음. 기관의 경우, 다수 연구과제에서 연구의 한계와 함께 제한적인 환경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음을 충실히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정부·국회 등 정책 결정자의 경우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대하여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책연구기관은 정책 결정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연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 결정자가 해당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음. 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사업계획·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관은 재정성과평가사업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를 적절히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외부 환경 변화 시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특히,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의 경우, 여타 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사업집행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성과평가사업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의 사업목표 달성도는 높은 수준임. 특히, 재정성과평가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기관이 마련한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 재정당국이 기관의 평가 결과를 정부예산안에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제반 정부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타 연구기관에게 모범 사례로 전파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관은 재정성과평가사업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 환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기관은 사업의 환류를 위해 재정사업평가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정례화하였고, 국가회계예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환류를 통한 입법화 실적에서 양호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 관리 및 사업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기관이 추진하는 세부사업 간 편차가 작지 않다고 판단됨. 다수 세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관리 및 환류 및 개선과 관련하여 적절히 추진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정책효과가 높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관련 제도의 취지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과거 답습에 따라 관리된 측면이 존재하며 해당 제도의 정책효과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 환류 및 사업개선 측면에서, 기관이 추진하는 다수 세부사업 간 편차가 존재함. 다수 세부사업의 경우, 정책 수요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환류 및 이를 통한 사업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인정됨. 그러나,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해당 세부사업의 사업개선 정도가 과거 수년간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향후 개선 속도를 높일 필요.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대표적인 우수한 점을 몇 가지 언급하자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제도가 수급자의 소비 진작에 미친 인과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가 처한 여러 제약을 풍부한 미시자료의 수집 활용과 정치하고 엄밀한 계량 식별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극복한 매우 우수한 연구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이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장려금 중심으로 빈곤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복지재정 정책 방향수립과 추진체계 설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의 경우,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수행되었음. 대용량 자료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 결과를 활용한 정책 시사점 제시도 우수함.
- 특히 비공식취업소득을 연구 타깃으로 설정한 경우, 연구의 기획이 매우 돋보였는데, 플랫폼 경제 발달에 따라 비공식 취업 소득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 특고 등에 대한 소득과락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소득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점차 늘어가는 지출에 대응한 조세수입 확보 등의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있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이 아쉽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음.

- 예를 들어,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 방안을 다룬 연구의 경우, 방대한 주제에 대해 다루는 만큼 결론 부분에서 더 체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봄. 결과적으로 개선방안의 구체성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연구된 세 주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가 유익했지만 세 주제의 중요성이 모두 각각 크고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아 보고서가 한 흐름으로 잘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 방대한 연구 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음. 당면 과제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재정정책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이 여전히 논의되지 않은 과제로 남은 점은 아쉬움이 큼.
- 이 외에도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몇 군데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우수한 점은, 근로장려세제 관련 연구에서는 해당 세제의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러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재분배정책과 관련된 함의를 효과적으로 도출하였음.
- 또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선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조세정책 운영에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활용 가치를 연구 과제로 설정한 기획은 그 의의가 매우 컸음. 최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토픽분석 및 감성분석을 사용한 연구로써 시의적절하며 기존연구와의 차별성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는데, 연구 내용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큰 진보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특히 일반균형모형에서 사용한 가정에 타당성 및 현실 부합성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근로장려세제 변동에 따른 고용효과가 계층별, 소득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분석 결과가 기술적으로 나열될 뿐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또 다른 연구에서, 연구결과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의미있게 도출되었으나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설문조사의 표본도 인터넷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복수 응답자등 과대대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전년도 성과분석과 피드백, PEST분석, SWOT분석 등 심층적 환경분석을 통해 당면현안을 파악하고 2022년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
- 실천계획은 실현 수단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실현수단별(연구수행, 성과확산, 국제화, 연구시스템, 경영시스템, 사회공헌)로 주·보조 기능을 구분하여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 우수함.
-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조세제정정책과 국정과제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의 질 제고 등 정책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통해 경영성과의 질적 수준 담보하기 위해 노력함.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현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향조정된 수시과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함.
- 정책연구협의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관련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새정부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시과제 확대 수행으로 정부지원 역량을 확대함.
- 연구경영혁신TF를 중심으로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PDCA관점에서 점검하였으며,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정책 기여, 도전적 성과, 질적 강화, 신규목표 설정 등 가중치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목표의 조기 또는 초과 달성함.
-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 종합 달성도는 122.1%(경영목표1 148.2%, 경영목표2 107.8%, 경영목표3 112.9%, 경영목표4 108.6%)로 경영목표 전반에서 고르게 목표를 초과달성함. 조세재정 정책이 안고 있는 정책의 포괄성이 성과 달성 전과정에 잘 반영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SWOT분석 결과 도출된 각 전략과 경영목표, 실천계획 간의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음.
- 전체적인 성과목표 기준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으나, 정량적 성과목표 수준이 보수적이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 있음. 정책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 협동연구 확대 등 정성적 성과목표의 경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공공기관 혁신관련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여 달성하였다고 하나 세부내용이 모호한 점은 아쉽음.
- 가중치는 항목별로 모두 1.2를 적용하고 있는 바, 기관의 경영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4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대한 달성도는 100%로 제시하면서 실적으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AI역량검사 도입을 제시하고 있음. 기관의 전문인력(회계사 등)의 이탈 예방과 연구성과 장려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 등 기관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실적관리의 내실화가 요구됨.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공유, 개선, 참여, 화합 4대 가치를 축으로 동반자적 소통전략을 수립함.
- ESG경영위원회 구성 및 ESG경영보고서 작성을 통한 노력이 돋보이고, ESG 경영 선포, KIPF the Best 등 특징적 활동 성과를 거뒀음.
- 기관장으로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철저한 복무관리 등을 통한 술선수범과 내부구성원의 저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소통 과정에서 쌍방향성 공감대 형성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소통의 활발한 시도에 비해 소통 창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제도적 노력보다 기관장 개원 차원의 노력이 우선한 측면이 있음.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수립지원, 유관기관협력강화,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대외활동을 수행함.
- 한국의 위상제고에 따라 ODA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성과도 확인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른 대외적 활동 및 소통노력 대비 국회와의 소통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특히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됨. 또한 MOU체결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뉴노멀 시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지원 체계 강화

〈우수한 점〉

- 코로나19이후 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전지구적인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재정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타당함.
- 정부정책 자문, 정부현안 대응, 대외적 발산 채널 등을 동원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고, 인터뷰 등을 활용한 점이 우수함.
- 사업 진행을 위한 외부협력체계와 내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에 기여하고 재정비전 2050계획에 기여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목표가 직접적 성과 중심이 아닌 연구능력 향상 기여 등 간접적으로 명시된 점, 정량화된 달성지표가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쉬움.
- 뉴노멀 시대의 조세재정정책 강화는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한 국민들의 실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확산 노력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한계가 있음.

(2) 국제개발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우수한 점〉

- 기관장이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해 주도적인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기관의 역량을 국제사회로 확산한다는 취지는 매우 훌륭함.
- 한국사회의 세계적 위상과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할 필요성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수함.
-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관장이 사업 수행 노력이 돋보임. 이 사업을 통해 기관의 국제적 위상이 의미 있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됨.
- 조세재정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세개발협력센터 조직구성원 확장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화시킨 점은 우수함.
- 기관의 전문성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차별화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조세 제도 및 전자세정 개혁, 공기업 개혁방안 등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기관 내 기반 공동화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함.

(3) KIPF ESG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 강화

〈우수한 점〉

- ESG 경영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구성 등 체계화 노력이 있으며, ESG 실천을 기관 내부의 실제 운영에 반영하여 구체적 사업실행 실적이 존재함.
- ESG 경영을 위한 2022년 사업계획에서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독려함.
-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ESG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원 30주년을 기념하며 ESG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상징적인 노력이 인정됨.
- 전 직군이 참여하는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함.
- ESG 각 부문별 성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함.
-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연구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보고서 제작부수 축소 및 디지털화, 1사1촌 자매결연, MOU체결, 윤리경영 조직문화 구성,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등 노력이 존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ESG는 매우 보편적인 지향점이고, 그러한 거시적인 가치가 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차원과 내용으로 수용하는가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본 사업의 경우, ESG-연구원 간 연결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ESG는 경영 전반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으로 “중점추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보고서 인쇄 부수 감축과 이를 대신하기 위한 USB 저장 배포 등이 기초적인 실천 노력으로서의 의의는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환경친화행동인지 재고가 필요함. 향후 ESG가 기관 내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성과 확산 차원에서 연구원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대외 행위자와의 네트워크적 확산을 통한 성과 확산 노력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ESG 관련 노력이 존재하나 기관 내에서 주류화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됨. E 부문에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S, G 부문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며, 기관만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음. 특히, S의 경우에는 기관의 본연적 특성 및 업적과는 무관한 일반적 봉사에 해당되는 실적이 존재하는 점은 다소 아쉬움.
- 실천방식으로 제시된 내용, 즉 텀블러 세척기 설치, 쇼핑백 제작, 1사1촌 결연마을 일손돕기 등 중점 추진사업으로서의 콘텐츠로는 다소 빈약함.
- 과거부터 진행해 온 사회적 가치 추구 노력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다소 모호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 및 경영 현안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전략을 마련함.
- 각 현안에 대해 상설 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현안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비상설 조직(TFT)을 신설하여 운영함.
- 조직운영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등 조직 운영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우수함.
- 조직운영 목표와 과제 간의 연계성이 높으며, 해당 과제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관의 조직운영 노력과 실적을 추진조직-추진실적 및 성과-성과확산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함.
- 타당성과 효과 분석 등 환류를 통해 조직운영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함.
- 연구 및 사업의 성공적 추진 외에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우수한 편임.
- ESG 경영, 개원 30주년 경영비전 확립, 코로나19 비상대응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함.
-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조직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과제, 사업, 경영현안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
- 과제 및 사업의 중간 점검을 위해 점검 조직을 지정 및 구성하고, 점검 지표(예, 진도표)를 개발·활용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함.
- 기관이 직면한 현안과제에 대응하고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제도화하였고,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 합동 회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개최하는 등 연구부서와 경영지원부서의 협업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를 진행함.
-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고충 처리 외에 사전적 대처 방식의 고충 해소 채널을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한 실적이 있으나, 전년 대비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노사 화합 및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목적의 소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최고 경영진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고충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과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관이 당면한 환경 및 상황을 고려한 부서별 필요인력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한 점이 인정됨.
- 청년 고용실적이 90%에 달하고, 지역 우수인재 채용 실적이 확인됨.
- 공개채용과 블라인드 체계 하에서 기관의 인재상에 맞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연구원이 준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일반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에 전문가 초청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함.
- 교육훈련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 대비 5배 가량 증가하여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대폭 투자를 늘린 것이 인정됨.
- 기관의 업적평가시스템이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과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이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인재상의 명확화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우수 인재의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력수요 전망에서 22년 45명에서 26년 72명으로 증가한 박사급 연구인력들이 모든 분야에서 대폭 확대되는 근거가 없으며, 실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통계 관련 교육훈련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교육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비연구직의 평가지표에 있어서 배점 기준 중 계량항목이 10%로 계량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규칙으로 대외활동 범위, 승인, 결과보고 및 사례금 등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
- 대외활동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과 강조가 긍정적이며, 대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함.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제도의 운영과 실적이 적절하게 모범적으로 관리됨.
- 주기적인 내부감사 실시를 통해 근무를 관리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대외활동 관리에 대해 홈텍스를 활용한 대외활동 검증 시스템을 준비 중임.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의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짐.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연차휴가 소진율이 높은 편임.
-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이용 인원이 증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결과 대외활동 관리 부적정 지적권고사항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됨.
- 자율연구 대상기관이 국외일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여타 연구기관의 해외파견의 지원규모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맞는 지출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급여체계 특성상 해외근무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급여를 규정에 명시하여 기존 제도와 규정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일부 유연근무제 유형의 경우 이용자가 감소한 이유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운영실태 조사 분석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적하여 실효성 있는 유연근무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구성원의 활용도를 제고를 통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함께 근무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하고 제도 안내가 잘 되고 있음.
- 제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인트라넷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제도를 지원하고 있음.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실적이 우수하며, 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투자 실적이 우수하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받았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공무원 임용령 31조에서는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에 산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경력산정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육아시간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길 바람.
- 일·가정 양립 단계별로 나누어 제도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임신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총원대비 10%이내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 지적사항) 용역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직원을 예산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인사규정에 따라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비정규직 안정화 계획이 마련되어 정규직 안정화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실적관리, 실적에 대한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람.

-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의 상시적 지속적 인력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총원대비 11%수준이나 박사급 인력의 약23%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명이 늘어 '22년도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마련과 개선이 필요함.
- 비정규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신규입사자 멘토 역할, 고충처리위원 등 기관의 전반적 운영에 배치하여 전문적 지식이 기관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우수함.
- '2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내 TFT 구성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사전에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직무개발 및 배치를 위한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적 및 사례를 제시하고 홍보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알리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 재배치나 직무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청취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 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또한 임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지침을 마련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등의 내부감사시스템과 클린 신고센터 등의 내부견제시스템이 갖추어져있음.
- 친인척 채용 결과가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분기별로 공지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전형별 공정채용 절차 강화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담당자 교육강화 등 기본적인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 영향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긍정적임.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내부 대표성을 고려한 직군대표를 포함시킨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선하였고 긍정률도 전년대비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2022년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윤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실적을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적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 외부위원참여, 컨설팅 등 외부전문성을 확보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바람.
- 명예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 바람.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이수율도 높은 편이나, 전 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기본적인 윤리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나 타 교육대비 대외적인 갑질 및 불공정 거래근절교육, 채용 비리예방교육 등 일부교육에 대한 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특성과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실적도 관리하고,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규직원, 승진직원 등 이수자의 직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위반 신고는 실명으로만 신고가능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고하고 구성되어있는 등 부분적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신고의 원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함.
- 반부패 청렴 교육에 있어 전 직원 대상 참석율이 91%와 관리자 83%로 관리자 대상 교육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기본적인 부패방지 및 청렴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다양한 감사제도 운영, 청렴옴브즈만제도, 대외활동감시시스템 등 다양한 세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세부시스템별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실적을 관리해나가기 바람.
-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 실적이 개인 윤리 분야 의무교육에 집중되어 있음.
- 불공정 거래(갑질 등) 근절을 위한 교육과 공공분야 채용비리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전 직원 및 대상자, 채용심사위원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채용규정 정비 내용, 블라인드 채용 운영,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현황, 전형별 중복참여 배제,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등 세부 시스템 운영내용과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세부 시스템의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함.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청렴한 채용을 위한 예방교육이 필요함.
-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 시에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두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채용지침에만 들어있는 예외적인 제한경쟁제도의 근거를 상위규정에 마련하여 규정을 체계화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 실행·공개 및 구체절차 제공 등으로 인권경영을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절차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연 1회 개최하였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인권영향평가내용 중 사업지표부분이 없으므로 기관성격에 맞춰 사업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의 특성에 맞춰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경영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64%(연구인턴 11명, 행정인턴 7명)로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함.
- 멘토의 희망 멘토링 내용을 기준으로 맞춤형 매칭을 추진하고, 회차별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인턴 멘토링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여성채용 비율이 67%로 전년도 62%보다 향상됨.
- 인사제도 전반과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위원을 적극 배치하는 노력이 인정됨.
- 여성경력단절 여성은 연구업무와 정규직으로 기혼 4명 채용 완료한 점이 긍정적임.
- 2022년 5명의 여성에게 보직을 부여하고, 5명의 여성 승진 발령함.
-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실적 향상을 위하여 추후 채용광고 시 경력단절여성 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 홍보 중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 가이드라인에 혼인·임신·출산 여부나 계획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 질문을 금지토록 명문화되어 있음.
- 여성임원 목표(29.6%) 대비 실적(30.4%)이 초과 달성하고 있고, 공공기관 평균 수치보다 높아 우수함.
- 2022년 선임급 승진 인원 5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성별 차별이 없음.

- 관련 교육 이수가 90%를 상회하고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되었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점이 인정됨.
- 미이수 직원 대상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으며, 보직자 대상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여성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채용, 승진, 위원회 구성, 보직자 임명 등 인사상 각 단계별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및 그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 구축을 권고함.
- 목표치는 상회하였으나 매년 관련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필수교육 실적에 있어 일반직원(94%)보다도 관리자들의 교육 이수 실적(92%)이 낮아 100%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컨설팅 및 적합 직무의 발굴, 장애인 가점부여(필기시험 전형단계별 5% 가산점 부여)를 통한 우대조치, 고충상담 및 애로해소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 등 단계별 인적자원관리를 펼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 체결을 통해 무인편의점 점포 관리원, 도서항균관리원, 미화 직무 등 장애인 운용 직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속적 채용공고 및 장애인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참가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인정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보훈처와 협력체계 구축 및 국가유공자 가점 부여 등 우대사항을 채용공고 시 최상단에 게시하는 등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홈페이지 내 본원 제한경쟁채용공고 게시 요청 등 홍보 강화를 통해 2022년 국가유공자 1명 청년인턴 채용 완료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미화직 신규인력 1명 중증장애인 채용이 확인되지만, 정규직은 채용 실적이 없음.
- 단계별 장애인 고용을 핵심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업적평가와 연동하는 등 실효성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방안 수립이 요구됨.
- 2022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 등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률 달성을 위한 정규직 신규 채용 실적이 없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국회 지적 권고사항 중 총 16건에 대해 조치이행 하였고, 국무조정실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 점은 긍정적인 점.
- 감사실이 주도적으로 공직윤리 역량 강화와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해 원내교육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블라인드 면접 시 감사실에서 입회하는 등의 노력은 우수함.
- 감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감사업무 담당 정규직을 배치하여 기본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어 업무를 적절하게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준수함.
- 복무점검, 보안점검, 안전점검 등의 각종 점검 실적은 긍정적이며, 특히, 안전점검은 3차 이상에 걸쳐 수행하여 시설물 등 관리 안전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 ERP 시스템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 및 효율화 관점에서 본원 ERP와 우리은행 자금 관리서비스(WIN-CMS)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부적정 사용으로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필수 이수 교육 이외 감사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보강 시스템, 예를 들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고,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자료집을 개발하는 등의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 외부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동 대안 모색뿐 아니라,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수립 및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고함.
- 유사 반복되는 외부기관 감사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함.
- 22년 출연연 채용실태 실태조사에서 연구위원급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통보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채용절차 개선 노력과 성과 발굴이 필요함.
-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 근무평정, 가족수당 지급, 법인카드 관리, 위탁 연구용역 계약관리 등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사안들이 많으므로 자체감사시스템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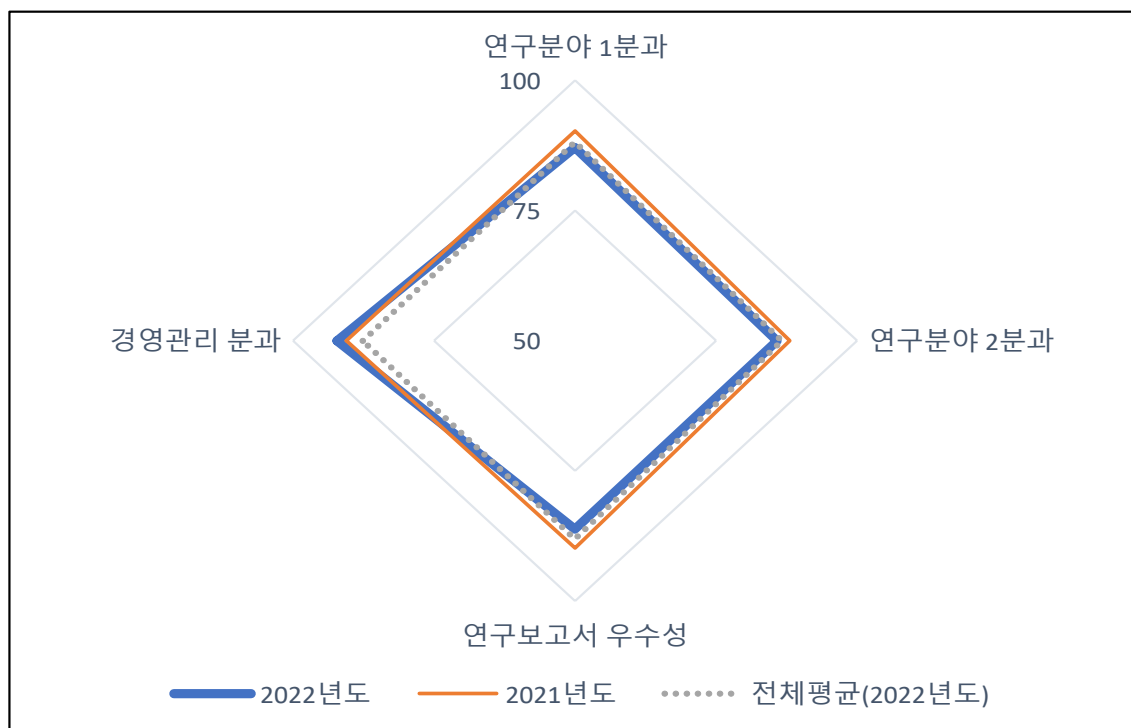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S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A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S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C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C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C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A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C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A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S
		③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S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A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부서 및 학제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고 기본연구 집체 평가 시행 등 연구역량 우수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 다른 부처와의 협업 강화로 정책 기여의 경로를 다양화함.
- 긴급연구과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KRIVET 긴급연구 및 정부현안과제 수행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화 반영률도 개선하였음.
-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을 적정화하였으나 수시과제 수행 건수가 부족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사회 불평등, 지역 격차에 대응하는 현실적, 미래 제시적 직업 능력 정책 대안들이 우수함.

- 이런 정책대안들을 정부의 정기적 시행계획, 개정 법안의 법제화 등과 연결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근거를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실현 가능성이 큰 정책임. 다만, 대국민 등 수요자와의 성과 공유 노력이 필요함.
- 시행계획 수립, 운영, 평가의 관리 체계, 수요자 만족도 실태 조사 등에서 수요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반영한 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뛰어남.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집행사업 운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며, 전 국민 대상의 진로 교육 확산의 토대 구축 성과를 거두고 있음.

[경영 분야]

- 지역인재연구본부를 설치하여 새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대국민 관심도 분석함.
-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의 제시와 책임 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복합적 소통 플랫폼을 포함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소통을 위해 비제도적이며 개별화된 전략을 활용함. 적극적이고 활발한 언론 인터뷰와 기고 및 특강 활동을 전개함.
- 성과제고를 위하여 경영목표 수립 TF와 조직개편 추진단을 운영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직 운영 전략 및 실행과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육아휴직 시 조기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등 노력하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성과급) 차이를 해소한 점이 우수함.
- 공로연수제도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경력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직원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채용부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근의 공정채용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근거에 맞춰 규정을 현행화할 것을 권고함.
- 정규직 채용 및 휴직자 대체 채용의 여성비율이 높고, 경력단절 여성 채용시 우대조항 추가 등 여성인력 활용이 우수함.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감사전담 인력의 전문성 교육, 직원대상 감사 교육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한 점이 우수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정 운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슈선도형 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자 연구사업 기획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음.
- 대내외 정책환경을 조사·분석해서 경제·환경·사회 이슈 도출, 정부정책이슈 분석, 내부연구환경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정책연구기획 TF에 다양한 유형의 현장 전문가 비율 확대 및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한 과제를 발굴하였음. 정기 수요조사 외 각종 세미나, 발표회 등의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구를 개설 및 시행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체계를 운영하였음.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와 상시 협의 운영 및 여성가족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협의회 채널 다변화 추진하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활성화에 노력하였음.
- KRIVET 자문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증가시키고 및 산업계 현장 전문가를 확충하였으며, 여성 위원 비율 증가 등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시켰음.
- 중장기 미래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단위 정책연구기획TF를 강화하여 정부부처나 국회 등 정책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정책 수요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은 우수함.
- 수시과제 발굴 과정에서 정부부처 요구 반영 비율이 21년 58.0%에서 22년 87.9%로 확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조사분석 시 빅데이터화한 분석시스템이 다소 부족함.
- 국민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산학연 관련 전문가 정책수요 반영에는 적극적이거나 대국민 수요 조사 및 의견 반영 방법은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이 있음. 실제 22~23년도 과제제안 및 선정 과정에서 대국민 수요조사나 상시 과제제안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9.4%로 30%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정책연구기획 TF에 학계 전문가 외에 현장 전문가를 포함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음.
-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직능연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연구사업을 다수 발굴하였음.
- 연구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정책연구기획TF, 연구부서 워크숍 등의 구성이 적절하고 운영실적이 양호함
- '23년도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수요자와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있고, 협의 등을 통해 8건의 신규과제를 발굴 선정함(국정과제 연계과제 총 18건).
- 중점연구과제의 선정기준과 선정 주제의 내용이 적절하고, 자원배분의 적정성이 인정됨.
- 직업교육훈련 특성을 반영한 학제 간 연구 촉진을 위해 융복합 기본연구과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해서 추진하였음.
- 기관 전략과제 협동 또는 융복합 과제 발굴 의무화 및 협동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우선 선정 등 협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함.
- 과제발굴 원칙에 따라 기관 고유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결과, 신정부 국정과제, 정부부처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였음.
- 특정 국정과제(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지원 등)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특성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단위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및 사례연구 활성화를 제안함.
- 협력기관을 고용, 직업 외에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년도 평가에서 협동연구 비율 확대를 요구받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과제 발굴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개선을 찾아볼 수 없음.
- 협동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내부 규정을 통해 협동연구 발굴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임.
- '22년도 11개 과제를 협동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3년도 연구과제 선정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사업비 비율은 27.3%로 전년 대비 2.5%p 개선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부서 및 학제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과제 수 기준 88.9%가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의 공동연구 참여도 과제 수 기준 61.1%로 높은 수준임.
- 연구역량 우수자 선발을 위해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혼합 평정하고 평가 절차와 방법을 고도화 하기 위해 노력함.
- 연구역량 우수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본연구 집체평가를 시행함.
- 연구 품질 관리 TF의 외부위원 구성, 위원들의 다양성, 성과의 적절성이 인정됨.
- 직업교육훈련 분야 국제협력사업 연구비변경 사유 및 후속조치(원장·이사회 승인)의 적정성이 인정됨.
- 협동연구과제는 전체 과제의 과제수 기준 53.9%, 예산액 기준 59.6%로 적정 수준을 유지
- 기관이 주관하는 자체 협동 과제가 많은 편.
-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위촉 및 연구 참여 독려를 통해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제 선정·진행·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확대 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연구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 전체적으로 정부부처와 협력강화가 필요해 보임. 정부부처제안과제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연구·심의·평가 과정에서 부처 관계자 참여가 저조한 편인데 이런 실적들을 개선할 필요 있음.
- 연구수행 및 평가 단계에서 정부부처 참여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주로 정책실무협의회 및 세미나 참여실적에 한정됨.
- 연구과제 집중심의 단계에서 과제책임자가 외부심의위원을 결정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해치는 것임.
- 보고서 발간일은 잘 준수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조기 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가능한 보고서 조기 발간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상대적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 실적이 부족하므로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비전이 부재하다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해 22~24년도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함.
- 연구관리의 전단계에 걸친 연구윤리 준수 강화를 위해 연구계획서 심의부터 보고서 발간까지 전 단계에서 연구윤리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대상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함.
- 연구윤리검증단 내 외부위원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학회 소속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전문성 높은 위원을 선발함.
- 각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윤리 준수 활동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3년 연속 클린 기관으로 선정됨.
- 전직원, 출판업무 담당자, 신입직원, 연구윤리담당자 등 직능별 연구윤리 맞춤 교육을 실시함.
- 부실 학회 참여 예방 차원에서 부실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
- 부실학술활동 예방 교육을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검증단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27명 중 외부위원이 4명으로 적은 편. 따라서 연구윤리 준수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 충원이 필요해 보임.
- 최종보고서 심의본과 평가본, 인쇄본에 대해 표절검사 등 연구윤리 검증을 별도로 매번 실시하고 있는데 3개 버전의 보고서가 중복된 윤리검증 검사를 할 정도로 차이가 많지 않다고 볼 때 불필요해 보이는 윤리검증 과정을 단순화하되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교육 횟수의 적정성은 인정되지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함.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 홍보·확산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었음.
- 심포지엄·세미나·포럼·성과발표회, 연구회 성과확산 플랫폼, 웹사이트, 뉴스레터 등 온라인 수단 활용 등의 다양한 확산수단을 활용하고 실적이 우수함.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바일앱, 메타버스 등 첨단정보화 수단을 활용함
- 챗봇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하여 실적이 우수함.
- 홍보영상·정책자료집·리플릿 등을 통한 성과확산 및 언론보도·기고·인터뷰 등 언론 홍보실적이 우수함.
- 지역사회 성과확산 및 21개 MOU 체결기관과 총 61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하여 성과가 우수하며, 지역심포를 개최함.
- 33,213의 연구성과물 배로 및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KRIVET글로벌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고등 및 교육분야 국내 유관기관, 정부, KRIVET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글로벌 연구 및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연구성과 국제화 전략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었음.
- 국제협력 단계별 계획: '21 국제위상, '22 국제네트워크 활동, '23 연구성과 국제화의 노력이 우수함.
- 국제협력 주요 이벤트, 국제화 연구·사업 발굴·대면 및 비대면 미팅을 통한 국제교류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역사회 인적자원개발·진로직업교육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국한되어 있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를 제안함.
- 부부처와 정책실무협의회 성과가 '협의', '모색', '논의'에 그치고 있으므로 정책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부처간 정책연구 및 실무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다 폭넓은 정책연구가 필요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42건의 연구과제가 NKIS에 등록되어 100%의 등록률을 보임.
-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 Career net 학술대회, 대학원생 등 대상으로 포상 등 실행하여 실적이 우수함.
- 진로계획 등 부처와 협업하여, 진로교육, 성과보고회, 자료 공개 및 제공을 하고 있어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원천자료 민간의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수단의 다양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교육, 노동, 여성, 인력 등 국정 과제와의 협력적 연계성을 포함하여 국정 과제와의 사업 연계성이 적극적이고 우수함.
- 정부부처의 각종 기본계획, 새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정과제 관련 정책 수행과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정과제 연구 성과를 도출함.
- '22년도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25개 국정과제 대응하여 총 112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참여 인력 765명(연인원 기준), 예산 규모 약 262.7억 원으로 기관 규모 대비 그 수행의 적극성과 실적이 우수함.
- 정부부처의 국정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한 핵심 실적은 7개 국정과제와 관련된 20개 과제이며, 이를 통해 법령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TF 및 위원회 운영, 정책 수립 방안 제시에 기여함.
- 국정과제 수행 대표사례로 제시한 “202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총론 및 각론 시안 개발”은 사회적 가치의 시각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적절한 주제임.
- 특히 연구 수행 추진 전략을 PDCA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 추진의 체계성이 우수함.
- 대표사례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직업계고 교사들이 개발진,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확정 고시)에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수시연구과제, 일반사업과제 등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실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국정과제 수행 연구 성과가 수탁과제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기본연구과제를 활용한 국정과제 지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정부부처인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 제개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2022년 4건의 법령 제개정 추진 및 6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함.

-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 다른 부처와의 협업 강화로 정책 기여의 경로를 다양화함.
- 정책수요자의 의견수렴, 과제 선정 및 평가에 있어 외부위원의 참여, Peer Review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정책기여도 제고 노력을 하고 있음.
- 정책기여도 제고 노력이 자격기본법 개정(12.27),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의결(12.8),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안소위 통과(11.11), 직업교육법 제정안 발의('23년 1월 예정) 등 입법적 성과로 이어졌으며, 정부 현안 관련 TF 및 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정책화 성과도 도출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RIVET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성과가 그전과 어떻게 다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한 고도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정책기여 관리 노력이 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적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연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기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긴급연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KRIVET 긴급연구 및 정부현안 과제 수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과제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음.
- '22년 기관 핵심 연구 분야인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및 인재 양성 등의 영역에서 긴급 및 정부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9개의 연구과제(수탁 6, 단기 수시 2, 연개금 1)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지원 성과를 거둠.
- 정부부처 현안과제인 규제혁신 등과 관련된 긴급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 및 비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기본계획 수립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입법 기초자료를 제공함.
- 정부교체 과정에서 긴급 및 현안과제 수행률이 '22년 수행연구과제 총 112건 중 12건으로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과제 내용의 적시성과 중요성이 우수함.
- '22년도 투입예산은 326.5백만원으로 총 12개(정부부처 제안과제 7건, 기타 외부 제안과제 2건, 내부제안 현안 대응 과제 3건)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내외부 제안과제 수의 비율도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8.2%,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68.9%(전년 대비 10.9% 증가)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그 비율이 적정함.
- 수시과제의 선정 절차, 기본연구과제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수시연구과제의 평가시스템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과제위원회 등을 통하여 긴급 현안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담 TF를 신설하는 등 긴급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함.
- 긴급 및 정부부처 현안 과제 대응을 위해 수행된 수시 연구과제 건수가 12개에 불과하여 수시과제 수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전년도 13개).
- 정책연구협의회 2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1회를 개최하여 정부현안과제에 대응하고자 한 노력은 인정되나 관련 정부부처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 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노력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에 대응하며, 데이터 기반 인력 수급 전망 및 인력 양성 지원 정책 연구수행 등 시의적절하며, 미래 직업 세계를 대비한 적극적, 체계적 정책 대안 제시가 우수함.
- 비대면, 온라인의 디지털 전환 교육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진로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지역 대학과 지역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는 우수한 진로 프로그램 확산 및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함.
- 진로교육의 수혜자를 성인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며, 전 생애 진로지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과 법제화 연구는 진로교육의 정의 및 대상을 재정립하며, 진로교육 확산과 위상 정립에 기여함.
- 연구결과를 「제3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 계획」 등 정부의 정례적 계획과 연계함으로 실행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연구정책의 실행화에 이바지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대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교육부·고용노동부와 의 소통,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있지만, 몇몇 개별 과제의 정책 계획 및 수립 과정에서 관련 타 부처와의 논의, 현장 의견, 해당 수요자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가져야 함.
- 정책대안에 따른 예상 실적이나 지난 실적이 아닌 명확히 연관된 정책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원격수업 또는 실습 콘텐츠 개발 등의 연구는 개발 초기부터 유사 연구수행을 하는 다른 대학(한국기술대학교, 폴리텍 등), 공공연구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연계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국가진로교육센터 재지정, 민간자격 등록 건수 확대, 불만족건수 감소, 집행사업 이용자 만족도 상승 등 집행사업의 실적 개선 및 실수요자 만족도 상승으로 사업 효과성이 우수함.
- 사업계획, 수행, 평가 및 환류 등 단계별 과정에서 위탁부처의 수요 반영, 목표 및 평가 지표설정, 관련 부처 수시 협의, 단계별 보고회 등을 실시함으로 체계적으로 집행사업을 관리하고 사업성과를 이루었음.
- 현안과 제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제공하였으며, 현장 및 관련 부처의 요구 반영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 대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올해 개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성과 지표설정과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자료 제시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타당화와 사업 개선간 정합성 노력이 요청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대표적인 우수한 점 한두 가지를 예로 들자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관련 연구의 경우, 사회, 기술 변화에 따라 배움의 가치가 삶의 질과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지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행복증진의 관점에서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현 주소를 진단 및 향후 구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규명을 시도한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연구보고서가 체계적이고 구성이 일관적, 명료성을 갖추었으며, 연구내용이 충실하고 명료하여 가독성이 높음.
- 휴먼 GDP 관련 연구, 문제제기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보고서 전반적으로 매우 충실히 수행된 연구라고 판단됨.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라는 평가가 가능하고, 외부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문헌연구, 자료수집, 실증분석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선정 자체로서의 의미가 큼. 현재 국내외의 기술 및 산업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주제로 잡은 점을 인정함.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와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신규인력 양성 체제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 예를 들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연구에서는, 정책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기존 대안과 차별화된 내용은 아니어서 시사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면 대학의 경우 산학연계 조직정비, 적극적 사업참여, 조직전문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으나 대체로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 아쉬움이 있음.
- 맞춤형 취업 지원을 다룬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이 다소 정교하게 디자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연구내용에 있어서도 시의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이슈 직업지표 분석인데 디지털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량 및 경단녀, 고령자 등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뤄온 주제로서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음. 연구결과 중 일부는 상세한 설명 없이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직업지표 6가지의 도출과정이나 도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 다년연구 과제인 경우, 면담자 선정 과정 등 일부 연구과정이 생략 또는 간소화되어 있어 구체성을 파악하는 데 아쉬움이 있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분석이 평이하고, 연구결과에서 일부 표의 가독성이 낮은 아쉬움 역시 함께 지적하고자 함.
-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2개의 보고서 중,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직무 구조의 재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직업능력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문제의식은 시의적절 했다고 판단됨. 협동연구로서 문헌분석, 양적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진단 및 분석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음.
- 다년과제의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숙련 기술의 수요에 대한 분석 중심인데 반하여 본 연구는 미래 숙련 전망 체계구축으로 차별성을 확보했음.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전망을 위한 방법모델 구축과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발굴 및 표준화 등의 노력이 돋보이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실증분석도 일부 존재하지만, 선행 연구나 문헌 중심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었고,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한 까닭에 사회적 불평등과 직업/직무 숙련 관련 분석은 이루어져 있으나, 그러한 분석과 디지털 전환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아울러 정책 제안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두 개 연구 모두 비교적 새로운 주제에 대한 참신한 접근방법이 돋보이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충실한 소개가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공급-수요분석, PEST분석, 기관의 위상/내부역량 진단, 대내외 의견수렴, SWOT분석 등을 총합적으로 활용하여 경영환경 분석을 세밀하게 추진함.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대국민 관심도 분석함.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인재연구본부를 선도적으로 설치하여 새정부의 지방시대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의 제시와 책임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미래전략팀 신설(22.1.1)에 따라 과제발굴 결과, 이해관계자 요구의 반영, 교육성과 관리체계 내실화 등 경영목표 실천계획 관리에 내실화를 기함.
- PDCA 4단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목표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서별 실적관리위원 위촉으로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함. 사업 성과목표 설정과 달성도 평가 단계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목표달성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 이외 행정업무 최소화를 위해 지식정보화팀 활용(결재단계 축소 등), 연구사업 지원 활성화 및 시니어-주니어 협업관계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4대 경영목표, 4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1(109.1%), 경영목표2(104.0%), 경영목표3(118.2%), 경영목표4(122.0%) 등 전체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111.3%로 초과달성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가 계획 대비 우수한 실적으로 달성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 있음. 이전의 실적 추이와 내부역량을 종합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는 과제의 시급성이나 중요도,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고 가중치에 반영하여 관리할 것을 건의함.
-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되나, 지역위기와 지역균형 발전의 당면 현안 관련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 수단이 지역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일부 실천계획은 정량적 달성도 평가가 어려운 정성지표임. 정성지표의 달성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경영목표-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적 지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단순산출결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음. 정성지표도 목표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적 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세미나, 워크숍, 협의회, 온라인 연수 등과 같이 단순 실적중심의 계량지표에서 탈피하여 성과중심의 실적 관리가 요구됨.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목표 및 전략 공유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고, 실제 관련한 효과적인 노력이 있었음.
- 복합적 소통 플랫폼을 포함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소통을 위해 비제도적이며 개별화된 소통을 적절히 활용한 바가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의미 있는 노력이 보이나, 향후 의사소통 제고 노력이 연구원 전반에 걸쳐 연구역량 및 행정효율화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노력도 추가하길 건의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적극적이고 활발한 언론 인터뷰와 기고, 기관장 특강활동을 통해 기관장의 역량을 적절히 발휘하는 대외 활동이 전개되었음.

- 정부 부처와의 정책협의 수행 및 각종 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노력이 있었음. 해외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구 교류도 확인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과 본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의미 있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인적자원 관련 활동에 더욱 주력하기를 건의함.
- 기관장의 대외 활동 관련하여, 단순한 활동 건수를 넘어서서 기관이 지향하는 외부활동의 초점이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할 것임.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신기술 인력양성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강화

〈우수한 점〉

- 신정부의 신기술 인력양성 과제에 부합하는 중점추진사업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를 직업능력 관점에서 연구과제로 전환한 점이 돋보임, 즉, 디지털그린전환과 사회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로서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
- 기관장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특히 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적극 활용한 점이 우수함.
- 과제 추진단계에서 조직적 관리지원체계(인력수급분석센터 소속 타당성 조사연구팀을 통합하여 센터 역할 강화)를 구축하고, 인력전망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3회)했으며, 부서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정책연구활성화, 인력수급전망 결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 강화, 인프라 구축, 기관과 기관장의 정책참여 강화 활동 등 4개의 성과지표 도출을 추진함.
-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협력에 참여하고, 기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다부처 이슈들을 정책연구에 근거해서 조정하고 주도한 성과는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연구 강화

〈우수한 점〉

- 교육개혁 핵심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 연구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23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함.
- 연구 결과의 성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특히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임.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국가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고등교육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성이 적절함.
- 고용정책심의회, 자격정책심의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정부정책 자문회의, 지역 대학과 지역인재양성 관련 교육부 정책협의 등 사업 관련 적극적 대외활동을 추진함.
- 고등교육혁신연구 추진 기틀 마련과 정부정책 추진 지원, 지역기반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이 적절함.
- 지역의 직업역량 관련 핵심 주제는 대학이기에 본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사유가 타당하며, RISE 사업은 고등교육 핵심사업이고, 본 기관이 관련 유일한 수행기관임.
- 다양한 정부부처와 정책 실무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기관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역교육혁신과 신기술지역인재 양성 등의 관계 설명이 미흡하며, 고등교육의 혁신만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한지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혁신 필요성의 실증적 근거 제시가 필요함.
- 지역순회 포럼(부울경)이 실질적인 개선과제의 도출과 성과로 연계되어 정부정책수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과 다양한 후속적 소통노력이 요구됨.

(3) 디지털 전환기 직업능력개발 생태계 혁신 선도

〈우수한 점〉

- 연구원의 존립 근거는 물론 국가 정책과의 협업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행체계의 합리성과 적절성도 확인됨.
-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 생태계구축의 시의성이 인정됨.
- 디지털 전환의 혁신요인 선취와 함께 사회불평등에 대처하는 직업능력정책 방향, 고등단계로의 진로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과제 제안, 통합적 인력양성 체계 수립 및 경력전환 지원체계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등 4가지 성과지표에 근거한 사업 추진 노력이 돋보임.

- 디지털 전환 대응 직업능력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 등 대체로 무난한 수준의 수행 노력과 성과 확산 시도를 확인함.
- 미래인재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UNESCO-UNEVOC) 확장을 통해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노력이 일반적 수준이므로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하고 환류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가될 필요 있음.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검증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3단계 연구윤리 심층 검증 등 연구윤리 검증 체계를 고도화함.
- 성과제고를 위하여 경영목표 수립 TF와 조직개편 추진단을 운영하고,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적극적 사회정책,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함.
-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다수의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연구성과 및 기관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함.
-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그룹웨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직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1월 시행된 조직개편 외에 연구성과 및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 전략이 다소 부족하므로, 연구 및 경영환경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구체적인 조직 운영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이 시행한 조직 운영 노력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 분석이 다소 미흡한 편이며, 특히 효과 분석 이후 개선 방안 도출 등 환류가 다소 미진함.
- 접수된 고충 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과 고충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례로, 1월 타부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접수된 고충 건은 고충상담원의 중재에 의해 당사자 간 해결로 종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 차원의 대응과 관리 노력은 부족함.
- 노사협의회 및 노사실무협의체 외에 노사 간 소통을 위한 수시 대화는 노측 1인, 사측 1인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수시 대화에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시 대화 창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노사 간 화합 및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관 내 인력 변동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22년-26년) 필요인력 수요를 예측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기초하여 직종별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 직종, 직무별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 실적이 인정되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직급별, 직군별 교육훈련 실적이 확인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 성과 평가 계량화 비율이 80%이며,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기준 계량항목은 30~35%로 관리하고 있음.
- 업적평가제도에 대해 ‘근평제도위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적평가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에서 2021년 대비 2022년의 총액이 감소하였으며, 교육훈련 참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비중이 5%로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또 ‘기타활동’의 세부평가기준은 ‘원내외 활동’ 등 다양하여 5%의 반영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각 세부 평가기준들의 반영비율도 독립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관리를 위해 지연신고, 미신고금액에 따른 제재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절한 제재 기준을 마련함.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화된 대외활동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2021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점이 인정됨.
- 복무관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내부 감사 및 조사를 통해 근무상태를 관리하고 조치를 완료함.
- 휴가, 유연근무제, 안식년제와 관련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고, 활용 실적이 확인됨.
-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근무시간단축제, 스마트 워크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일정 비율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내부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외활동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제외한 유연근무제 활용실적이 높지 않으며 일부 유형에 있어서 전년 대비 이용자가 감소함.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성과(개인 및 조직차원) 분석을 통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으며,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근태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차휴가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 기관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소진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절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가족친화제도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음.
- 육아휴직 시 사전 공백이 없도록 조기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임.
- 3년 연속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았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육아휴직 경력산정 규정을 공무원 임용령 31조를 참고하여 규정개정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바람.
- 육아시간 제도의 실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실적과 분리하여 실적보고서에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휴가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 노력이 필요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총원대비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규정과 차별해소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금 및 능률성과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를 해소한 점이 우수함.
- 무기계약직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10명의 승진실적이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 인력의 업무가 전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공로연수제도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임금피크제 → 퇴직준비프로그램 → 명예위원(채용) → 명예연구위원(추대) 제도 운영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피크제 전후의 경력설계 지원 및 노하우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별도정원 조기채용을 통해 기존 인력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신규채용 직원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채용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정직기간 중 보수 전액 미지급 및 퇴직자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적절히 반영함.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 소송회수지침, 회계규정, 연구윤리, 보수규정, 명예퇴직자 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전방위적 규정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최신 법개정사항 반영에 노력하였고 원규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투명경영을 개선한 점이 돋보임.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강좌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전직원의 교육이수율이 전년대비 향상되는 등 윤리경영 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확인됨.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일상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성범죄 관련 2차 피해 관련 제도 마련, 클린센터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감사인력 역량 제고 및 부패방지 사전 컨설팅, 예산계 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감사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각 제도별로 구체적인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외부고객대상 갑질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면접위원 외부 전문가 1/2 이상, 제직 및 기피제도 운영, 전형별 중복참여 배제,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 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서, 공정계약서약서, 신고센터운영, 담당자 교육강화 등 기본적인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전담 조직(경영지원본부) 지정, 인권경영위원회(내부위원 4명 및 외부위원 5명) 구성, 인권경영지침 수립 등 기본적인 인권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노력이 인정됨.
- 인권경영계획을 연초에 조기 수립하여 운영하여 인권경영을 체화해나감.
- 인권경영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켰으며, 3회의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임.
- 인권영향평가 시에 인권경영위원회에 추가로 외부 2인을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기관 특성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기관과 관련 없는 항목은 삭제하고,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하는 등 개선하였음 또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운영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인권교육을 별도 실시하는 등 인권경영을 공고히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홈페이지에 외부로부터 부정행위, 갑질, 공익 등에 대한 신고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도에 대한 설명만 제시되어 있는 등 활용성이 낮게 구축되어 있으므로, 운영상태를 살펴 외부 신고자를 보호하면서도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윤리경영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실적이 관리되고 있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옴부즈만을 활용하여 제도를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외부의 관점에서 윤리경영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채용담당자 및 일반 직원에 대한 공공분야 채용비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직원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채용부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근의 공정채용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근거에 맞춰 규정을 현행화할 것을 권고함.
- 인사규정상 징계시에만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인권경영계획을 연초에 조기수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인권경영계획 등 인권경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의의 결정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 인권영향평가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체크리스트가 단순한 결과표시가 아니라 기관운영의 주요 지침으로 체화되어 운영되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람.
- 인권영향평가결과 긍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향후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지표들을 재검토해나가기를 권고함.
- 인권침해에 대한 외부신고사이트가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타 클린신고센터사이트 운영과 더불어 검토하여 신고사이트를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전체적으로 정비해나가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400%(행정인턴 19명, 연구인턴 1명)로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함.
- 청년인턴 가점(서류전형 만점의 2% 부여)을 신설하여 채용 연계를 강화하였음.
- 취업프로그램 지원으로, 2022년 청년인턴 취업률 45% 달성(총 9건)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최근 3년간 정규직 채용의 여성비율이 42.9%이며, 2022년 휴직자 대체 채용의 여성비중이 92.3%임.
- 경력단절 여성 채용시 우대조항을 추가하였음.
- 여성고용 확대 계획에 따라 관리직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한 점이 긍정적임.
- 최근 3년간 승진인원의 54.7%가 여성이며, 보직자 양성평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서장 교육 이수율 100%로 우수함.
- ‘관계로 배우는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인지 관점에서의 관계, 성평등한 의사소통법을 교육하고, 양성 평등 관련 교육 이수 비율이 높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한 조치 및 실적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시스템화가 필요함.
- 교육대상, 교육범위 및 방법, 심화과정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와 체계화를 권고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보다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것을 권고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2명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 장애인 채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4명의 인력을 채용한 실적이 있음.
- 근무만족 등을 위한 상시상담 지원 등 장애인 근로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함.
-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함.
- 2022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에 전형단계별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두고 있으며, 보훈특별고용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 고용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특별히 미흡한 부분 없으나, 향후 미준수 발생에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지속을 위한 중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 노력과 성과가 우수함.
- 사회 형평적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용계약제를 폐지하고 시용제도를 최소 기간(6개월) 운영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동일사례 재발장지를 위하여 업무조정회의 및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 점이 우수함.
- 감사실장과 감사담당인력이 전문자격증을 취득과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 감사부서의 근무평가가 타 부서 직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부서 장의 독립성이 확보된 점이 긍정적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우수 감사직원 포상을 받은 점이 긍정적임.
- 연구기관에 적합한 자체감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제 감사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연구기관 유사 반복 위반사례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한 점이 긍정적임.
- 중점 감사 사항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수지적 수정사례를 발굴한 점이 우수함.
- 직원별 맞춤 감사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자체 종합감사를 충실히 시행하여, 기관 경영 개선에 기여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 점이 우수함.
- 재무감사와 함께 선제적인 연구분야 감사를 시행한 점이 우수함.
- 자체감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노력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기대함.
- 감사교육 실시에 있어 교육 수요자 조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기반하여 사전 사후 교육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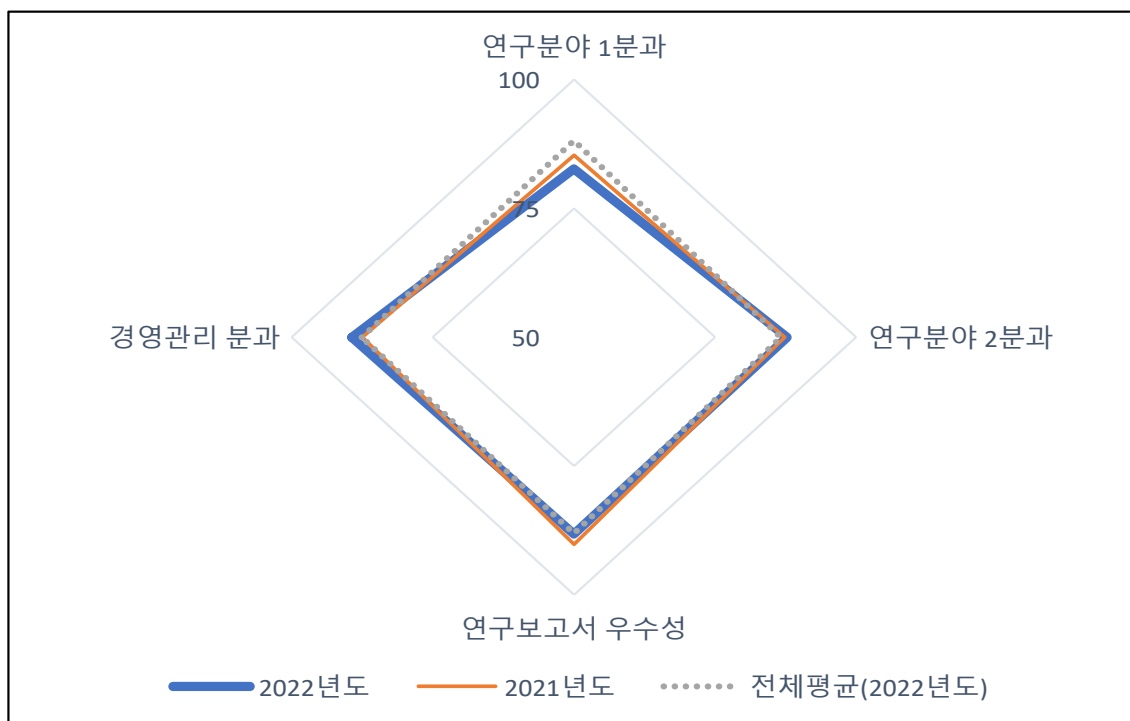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C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C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C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C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C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S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B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D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D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C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C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B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C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사업실명제를 통한 연구추진실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와 적극적인 자문활동 장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윤리 의심사례 발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체점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부처 현안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와 실무협의, TF참여, 자문 등을 통해 입법 및 정책화에 기여함.
- 긴급현안과제의 시의성과 적정성이 우수하고, 해당 연구성과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국가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었음.
- 다만, 수시과제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대상 부처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성인 이행기청소년, 니트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빈곤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및 청년을 포함하고 탄소중립, 메타버스 등 미래사회 변화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구체적, 현실적임.
- 이러한 정책대안들의 상당수는 법제화 또는 국가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반영되어 청소년의 당면 문제해결 및 복지 향상, 사회적, 행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국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 집행, 환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워크숍을 통해 지역간 청소년 정책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것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됨.

[경영 분야]

- 미래지향적이며 지역생태지향적 생애전반기 세대연구 추진과 정책수요자 친화적 성과창출 확산과 관련된 액션플랜을 마련함.
- 청소년 정책 및 청년정책 등 다변화된 정책수요를 경영목표 추진전략에 반영하고 융복합연구를 통한 정책연계를 고려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임.
- 현장 중심의 구성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 점이 돋보임. 다양한 외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균형 있는 대외활동을 수행함.
- SWOT 분석을 통해 정책연구환경을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 전략을 도출하였으나, 기관의성 성과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계획을 가능한 상반기에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청년인턴의 다양한 복리후생과 멘토링제도 운영, 취업지원 및 채용시 우대조치 등 청년인턴 제도 운영이 우수함.
- 여성인력 신규채용 및 관리자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이 우수함.
- 2022년 장애인 신규채용 2인 등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기본적인 감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나 임원, 보직자, 직원 대상의 감사 교육은 그 다양성이나 참여율 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중장기 연구 전략 및 2023년 긴급 및 현안 연구는 주제를 도출한 후, 기본 또는 일반 사업으로 발굴 가능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음. 이를 기본으로 기본 및 일반사업 발굴 과정에 적용하였음.
- 대내외 이슈 분석의 방식과 경영목표의 추출, 이를 국정 및 정부 현안과제와 연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돋보임.
- 매년 실시되는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 ‘2030 혁신리더 아카데미’ 등과 같은 주기적 채널을 확보하여 정책수요자의 참여를 도모함.
- 연구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소통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 간담회, 청소년세미나 및 연구참여 청소년대상 의견수렴을 수시로 진행한 점이 우수함.
- 정책수요자의 연구기획 참여를 위한 소통채널을 확대 개방하고 있으며, 정책연구협의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가 빈번하고도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음(실무협의회 총 88회).
- 정책연구기획 TF에 5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의 구성 및 운영실적의 우수성이 인정됨.
- 새정부 출범에 맞춘 긴급현안 및 이슈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음.
- 기초부, 6개 연구실, 8개 센터에서 분야별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를 발굴하여 긴급현안 이슈 및 연구분야를 특정하고, 관련 이슈를 긴급성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과제 기획하고 있음(종합성과 전략성 인정).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수요자(정부, 국회, 국민 등)의 연구 기획 참여를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부족함.
-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도출시 외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중점연구과제는 기관 중점연구사업 선정 기준과 자원 배분의 전략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음.
- 연구과제발굴을 위해 연구과제심의회, ESG 전략회의 및 정책네트워크 내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발굴 과제를 검토하였음.
- 정책수요자의 의견은 새정부 국정과제 및 사회적 현안 이슈 등을 고려하여 기본, 일반, 수시, 협동과제로 전략적 배분하였음.
-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기초연구사업비 총액 비율이 20.9%로 적정함.
-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 구성 및 활동이 적절하고 5건의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그 성과도 양호함.
-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연계된 11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함.
- 협동연구 과제 선정과정은 일정한 공모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다단계 심의절차를 거쳐 ESG전략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음.
- 2023년도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중점지원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기본 및 일반연구과제 계획시 100% 반영하였음.
-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연구사업비 대비 34.7%로 권고기준을 준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2년 4개의 협동과제를 주관하였음. 특히 청소년 정책 관련 과제의 특성상 협업을 요하는 과제가 많으므로 과제 수 확대가 필요함.
-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사업실명제를 통한 연구추진실적을 관리함(사업실명제를 통해 과제 수행 정도 및 예산 사용 정도를 검토해서 연구진에게 통보).
- 내부 인력 간 협업 및 협력 촉진을 위해 ESG전략 회의(51회), NYPI 정책네트워크 협의회(25회), NYPI 상상교류마당(8회), 고유과제 발굴 위한 간담회(6회)를 개최함.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전문가 의견청취와 자문실적이 총 417건으로 우수하고, 정책수요자이자 연구과제 제안자인 공무원의 심의 참여가 활발함.
- 과제 수행 및 평가 과정에서 청소년·청년 의견을 수렴함.
- 전년도 대비 연구자문의회의 횟수 29회 증가로 120% 성장하는 등 연구자문의회의 활성화(과제 당 평균 9.5회, 1회 자문의회의 당 외부 전문가 평균 2.4명 참여).
- 연구보고서 발간 100% 완료함.
- 기본·일반 연구의 협동연구과제 비율은 각각 90.6%, 100%로 매우 높음.
- 전체 수행과제 중에서 협동연구과제의 예산비율이 51.2%로 적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품질관리 TF 활동과 연구품질관리 TF 구성 및 운영으로 제시한 정책네트워크, 사업실명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결성 제고가 필요함.
- IRB 구성이 내부위원 9명, 외부위원(직능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외부전문가의 위촉이 필요함.
- 1개 과제 당 연구자문 9.5회, 원외참여자 평균 2.4명 등 외부 참여가 매우 활발한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내부연구자의 자율성 훼손 및 과도한 외부 참여에 따른 행정적 부담 가중 등 연구역량의 손실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의회의를 41회 개최한 과제와 1회 개최한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등 과제 간 외부 참여의 수준에도 과도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 또한 연구과제 관리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협동연구 플랫폼이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확장성과 협동연구에 따른 시너지 효과 부족해 보임.
-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 협동연구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 교육의 주제와 방식을 다양화하고 연구 진행 과정에 맞춰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함.
- 연구윤리 점검 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연구윤리자체점검시스템을 강화함.
- 자체점검절차가 체계성과 효과성을 가지며 자체점검단이 단순히 외부전문가가 아니라 전공별 석, 박사과정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윤리 의심사례 발굴에 실효적일 수 있음.

- 2개월 단위 주기적 연구윤리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환기함.
- 예방교육에서부터 연구 수행단계별 연구윤리를 점검 및 관리함.
- 연구윤리 3단계 점검 시스템을 통해 연구 윤리문제를 사전에 예방함.
- 기관 차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 전직원 대상 IRB 교육을 실시함.
- 부실학술활동 예방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최근 3년 간 해외 부실 학술행사 참여 사례 없음.
- 연구윤리위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개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자체점검단 활동이 연구기획실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기획실 업무 부담 가중됨에 따라 형식적인 자체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상존함.
- 외부 연구윤리 점검단에 연구윤리 분야 전문성을 지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경향이 강한데 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외부 연구윤리점검단을 관련 학문분야 대학원 석·박사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윤리 분야의 전문성 저하에 따른 부실 검증이 우려됨.
- 내부 연구감리위원회 활동의 구체성 결여. 구체적인 감리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서류 검토의 성격을 지닌 감리활동으로 흐를 가능성 상존함.
- 4차례 연구윤리교육 중 실질적 효과를 갖는 대면 교육은 2차 연구윤리교육 뿐이며 나머지 3차례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이메일 서면 교육에 그치고 있어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구됨.
- 보고서 자체 심의 과정에서 외부 감수를 통해 연구윤리검증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연구감리위원회는 외부 참여가 전혀 없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내부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12명의 구성원 중 외부위원은 1명에 불과한데 외부 참여 확대가 필요함.
-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부실학회 참여 적발 사례는 없지만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상필벌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정교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 홍보, 확산채널 및 콘텐츠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환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내·외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운영하여 운영성과가 우수함.
- 연구성과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높은 활용 실적을 보임.
- 청소년, 청년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형상 플랫폼 활성화 및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점이 돋보임
-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발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적절해 보임. 연구주제 발굴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홍보가 되어 이 둘간 유기적 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활동으로 보여 실적이 우수함.
- 카드뉴스, 뉴스레터, 간행물, 웹사이트 전문자료 DB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하고 있음.
- 계층, 대상별 맞춤형 성과확산이 우수하여, 활용실적이 우수함.
- 언론네트워크, 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였음 .
- 2,961의 연구성과물을 배포하고, 다수의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실적이 있어 성과가 우수함.
- 정부유관부처와 함께 자문회의, 포럼,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개최 실적이 있음.
-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MOU운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을 보임.
- 최근 3년 평균 5.3건의 국제행사를 주최했고, 22년에 국제행사를 8건 개최하여, 3년 평균대비 150% 증가하여 실적이 우수함.
- 많은 국제행사가 온라인이며 2건 정도가 hybrid 형태임.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가 각국의 직업, 진로, 고용 등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IAEVG 2022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 확산, 언론홍보활동이 활발하나, 기고 실적은 8건에 그쳐 저조함.
- 상시연구과제 제안코너에 제안건수가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원천자료 관리 실적이 우수하고,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 실적이 우수함.
-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총 21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누적발표는 3,000여건이 넘어 실적이 우수함.
- 국가정책연구포털시스템 등록률 100%로 충실하며, 비공개 등록 연구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학술지(정기간행물) 등 간행물 등록에 충실함.
- 민간데이터 개방활용도가 높으며, 패널 및 횡단조사 개방 실적이 높음.
- 청소년 관련 유관학회에 자료 제공 실적이 우수함.
- 지난해 지적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 개최 등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규모 대비 기관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정과제 기여 실적 제시를 ‘법·제도 제·개정 지원 및 반영’, ‘국가정책 및 정책사업 지원 및 반영’,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등 개발·보급’, ‘성과확산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로 나누어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점이 우수함.
-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청소년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라는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23개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이 있는 63개의 과제를 수행함.
- 연구수행에 투입된 예산은 110억 여원으로 기관 규모에 비해 수행 과제수, 투입 인력 및 예산의 정도가 비교적 우수함.
- 정부부처 현안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와 실무협의, TF참여, 자문 등을 통해 입법 및 정책화에 기여함.
- 대표사례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증진 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시의성이 적절하며,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 정도도 우수하고, 디지털 인력 양성 과제를 선정한 사유도 타당함.
- 대표사례의 경우 교육부 위탁 사업으로서 교원 및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 증진 함양 및 강화를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국정과제(다중 문해력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제고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역량 제고 및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추진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연구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둠.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에서 국정과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관리 노력이 필요함.
- 전체 수행 과제에서 수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유사 연구과제 그룹화 방식을 통한 정책 기여 정도 제고 노력을 경주함(국정과제 기여 실적을 4가지로 유형화하여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정과제 참여를 통한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 입법 현황, 정책수요자 의견을 파악하고, 과제 종결 후에도 연구성과의 홍보와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전주기적 연구관리체계 운영에 있어 정책연구관리위원회(수시)와 정책연구기획위원회(정기)의 역할을 타당하게 부여하여 운영함.
- 인구지역소멸위기 시대의 청소년 문제관련 연구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정책에 입법과정 도움이나 정부정책 수립의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 보다 상세한 설명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함. 연구결과가 즉시 입법·정책화 실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구기관 차원의 지속적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기관의 인력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기여도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성·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연구기획실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기여도 관리 노력과 시스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코로나 및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긴급 및 현안 과제(기본 3, 수탁 2, 수시 3, 협동 1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연구 수행결과가 긴급과제에 대한 대응성과로서 적절성을 가짐. 특히 지방 인구소멸 위기 관련 과제를 긴급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긴급연구수행 성과임.
- 촉법소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 연구는 현안과제로서 적시성을 가지며,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일부 연구성과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됨.
- 기획조정부, 연구실, ESG,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새 정부 국정과제 TF구성을 통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비연구활동을 강화함
- 부처 정책수요 및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총 6개(정부부처 제안과제 4개, 원내외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 선정된 과제 2개)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과제내용 및 성과가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4.0%,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6.6%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과제나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해당 연구 또는 비연구과제의 수행 성과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으로 연결된 사례가 타 기관에 비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56.6%로 권고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관련 규정의 취지, 국책연구기관의 소임,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을 소폭이나마 상향할 것을 권고함(타 연구기관의 경우 대부분 70~100% 범위 내에 있음).
- 수시과제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대상 부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가령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안, 법무부와 정책실무협의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정책대안 제시 정도 측면 : 전반적으로 수행된 연구과제들의 정책대안은 시의적절하며 구체적, 현실적이며 청소년의 당면문제 해결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함.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연구」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근거가 될 5대 전략목표 및 21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특히 코로나19,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중요한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 확충, 인구감소지역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강조는 차별화된 정책대안으로 판단함.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연구」는 대상 및 지원 사각지대 발굴 계획 제시, 이주배경청소년 분류체계 개선,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방안 제안 등은 타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및 이주배경청소년의 현안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함.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와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연구」는 미래사회 변화와 청소년정책을 연결한 도전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로 판단함.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과정과 실적 측면 :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연구」는 연구과제의 정책화를 위해 청소년은 물론 정부부처, 국회, 각종 위원회 등 다각적인 정책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 지원한 노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함.
- 대안의 정책화 실적 및 정책의 예상효과 측면 : 제시된 연구들의 다수가 2022년에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법제화 및 국가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해결 및 사회, 행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함.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는 제안된 정책대안의 내용이 관련 법률개정 및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부부처 발전계획, 지자체 중장기 계획 등에 반영됨으로서 정책화 실적이 우수함.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연구」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지자체 조례 제정, 예산 배정, 학교설립에 기여하였음.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는 가족돌봄청소년, 수용자 자녀, 부채상속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강조하여 청소년복지지원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함.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구축방안 연구」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주거빈곤층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개선 관련 지표 제시 등으로 청년 빈곤층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고 판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대안 제시 정도 측면 :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청년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구축방안 연구」, 「한국형 니트분석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들의 우선순위, 추진체계, 로드맵, 소요예산 등 추가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실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제시되면 정책활용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의 경우 2-1.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플랫폼, OTT, 블록체인 등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시기, 교육주체, 매뉴얼개발, 관련주체간 협력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Ⅱ」의 경우 정책제언 중 1)교육훈련 분야 자립 안전망 정책 과제 중 재학 중 취창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시행의 경우 추진 체계는 2줄로 설명되어 있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표만 있을 뿐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한국형 니트분석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경우 정책제언에는 각 과제별로 제안배경과 필요성, 세부내용으로만 구성되어있음. 예를 들어 I.지원대상으로서 니트청년 명확화 방안에는 4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중 과제 I-2 공식적 니트 청년 통계 산출 및 보고 정례화에는 세부내용이 2줄로만 설명되어 있음. 추진근거, 추진내용, 추진체계, 소요예산 등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해외 제도와 비교 분석, 해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소통 채널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차별화하여 청소년중심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활용 및 연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청년정책연구원 신설의 제안은 대통령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대안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대안의 장, 단점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과정과 실적 측면 : 「한국형 니트분석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에서는 특정 유관기관과의 소통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연구주제와 정책 발굴내용에 따라 전문가간 소통 집중도 필요하고 이것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본 평가 지표의 목적에서 보면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행안부, 지방정부, 지역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대안의 정책화 실적 및 정책의 예상효과 측면: 연구과제가 2022년에 종료되거나 계속 연구인 것도 있어 정책화 실적을 충분히 드러내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연구가 있음. 특히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한국형 니트 분석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는 정책화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연구」는 도전적이고 선구적인 주제이지만 적절한 정책효과를 도출하기엔 짧은 연구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화 기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사업계획 관리의 적절성 측면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합 및 분석·점검하고,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식 및 우수사례워크숍 개최하는 등 사업계획 및 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사업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전년대비 평가 대상을 전면 확대하여 21년부터 245개 지자체 전수 조사와 온라인 질의 응답방식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지자체 담당자의 실적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별 담당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담당자가 상시 열람 가능한 동영상 업로드 및 FAQ 제공, 우수지자체 발굴 및 우수 정책 사례 공유·홍보·확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절성 측면에서 분석·평가 결과 지자체 제공 및 차년도 시행계획·정책 추진 반영 등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환류, 평가절차·방법·평가지표 개선 등 분석·평가시스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계획 관리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은 법정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안,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및 인력충원 등의 계획도 발전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길 바랍.
- 사업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국민 참여 기반 확대, 언론보도·홍보 등 국민적 공감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절성 측면에서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청소년의 정책인지도와 정책만족도를 분석(지표)·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 광역과 기초단위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 등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평가시스템도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 지속적, 다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해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비중확대, 전문성 향상 등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 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임. 이 과정에서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인구소멸 지역과 청소년정책 관련 연구의 경우,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인구 소멸 위기 문제를 구체적인 생활공간인 지역 단위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현행 청소년정책에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특히, 현장 면접조사 등 심층조사를 통한 우수 사례의 수집과 분석 등의 노력이 우수함.
- 202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에 맞게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제도 및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장기적 관점에서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로서 보호자 관련 요인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원패널의 유지율 및 모집단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긍정적임.
- 총괄보고서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에 맞게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과학적 수립,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남.
- 예를 들어, 10대의 경험과 관련한 연구는, 면접조사시 10여명의 소규모 조사가 이루어져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했음. 추진과제로 제시한 사업들의 규모가 작고, 그에 따른 효과성 문제 역시 야기하였음.

- 또한 코로나 19와 MZ세대 관련한 연구의 경우, 분석의 결과가 다소 병렬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서, FGI 및 실태조사를 종합한 모형 등이 제시된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해외사례의 경우 일반적 관점만 제시되었는데, 팬데믹과 관련한 사례를 추가하여 연계성을 높여 완성도를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몇 군데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총괄보고서인 질적 패널조사의 경우, 다년 과제의 추진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었고, 관련하여 연차 단계별 연구 목표의 달성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최초로 시도된 질적 종단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점에서 향후 더욱 체계적인 질적 패널데이터의 구축과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한 시론적 의의가 큰 연구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또 다른 총괄보고서인 후기 청소년 관련 연구의 경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및 관련 청소년정책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문제의식 자체의 의미가 큼.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연구 과정에서 표본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또한 기본적으로 협동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조사의 수행기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결론이나 정책도출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협력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주요 조사 분석결과와 최종적으로 제시한 정책 추진전략 간의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의 반영,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부, 청년정책조정실 등 유관 부처의 청소년 정책 및 청년정책 등 다변화된 정책수요를 경영목표 추진전략에 반영하고 융복합연구를 통한 정책연계를 고려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임.
- 2022 NYPI중장기 마스터플랜, 정책네트워크 협의회 등을 통한 종합분석 결과, 기관 당면현안과 주요 추진전략을 도출함. 미래지향적이며 지역생태지향적 생애전반기 세대연구 추진과 정책 수요자 친화적 성과창출 확산과 관련된 액션플랜이 마련되어 있음. 특히 ESG를 반영하여 사회적 책무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 일부 목표가 추상적으로 표현된 측면은 있지만, 3대 경영목표와 6대 추진전략, 12개 세부실천과제가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음. TRM시스템, 정책네트워크, 성과 공유 채널, ESG경영 등 추진수단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TRM을 역점 추진하여 이에 따른 실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의 구체적 실행으로서 각종 연구를 균형있게 달성하여 전체 성과 달성도는 100%임. 기관장의 2단계 성과목표는 3개년 경영목표의 40% 수준을 달성하였고 이후 성과를 확산하도록 추진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하나의 경영목표 내용이 포괄적이기에 세부 실천계획 내용 또한 너무 넓게 산재해있으므로 연차별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ESG경영을 연구 추진 및 기관 경영의 기본 근간으로 하여 경영전반에 적용하고 있으나 공감대 형성의 도구로 주로 활용됨.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윤리경영 이외 기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ESG경영 목표 실천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경영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활용한 네 가지 추진수단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진 수단의 효과성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음.
- 지표의 성격의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구분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만 실천계획별 실적 중 달성 내용이 회의개최 및 참여회수, 예산집행 등과 같이 과정적, 산출적 성격의 경우가 많은 편이므로 성과와 결과 중심의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전반적으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되고, 8개의 차별화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기관 경영과 운영에 직원 참여를 제고했음.
- 청소년·청년 현장한바퀴, 청소년정책개발 워크숍 등 현장을 통해 구성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 점이 돋보이고, 이러한 노력을 상시화했음.
- 온라인 랜선 토크포럼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장방문 중심의 소통 방식 과정에 기관장의 경영목표가 더욱 구체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관점에 따라 소통채널이 너무 많고 다소 중복적인 성격도 존재하여 향후 효율화와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음.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다양한 외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균형 있는 대외활동을 수행함.
-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 컨퍼런스, WARDY 등 신규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협력교류를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량적 측면에서 39건의 대외활동은 질적으로 비교적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언론을 상대로 한 소통 노력이 부족했고, 청소년 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정책 영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활동도 부족한 측면이 있음.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미래세대 성장 및 지원정책 선도를 위한 사회적 책임경영(ESG) 확대

〈우수한 점〉

- 미래 중심의 경영목표에 부합하도록 ESG 경영확대와 청소년 역량강화를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경영목표와 추진사업이 연결성을 갖도록 체계화함. 즉, 2022 기관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ESG를 반영하여 사회적 책무를 실행하고자 함.
- ESG를 다양한 세부 전략으로 범주화하여 사업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가 관철됨.
-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정책네트워크 협의회 구성과 기관, 현장, 시설 등과의 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연구과제로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성과측정이 어려우며, ESG경영이 갖는 선도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확산성은 두드러지지 않음.
- 미래세대 성장 및 지원과 ESG 확대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며, ESG경영의 성과관리가 다소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중점과제와 기관 경영전반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사회 대비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우수한 점〉

- 국정과제 82와 연계하여 디지털 대전환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성격이 인정됨.
-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포스트 코로나 19 전략으로서 직업선택과 교육에 대하여 강연과 특별세션 추진하는 등 청소년 역량의 강화 필요성 사업을 적절히 발굴함.
- 글로벌 네트워크와 MOU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정책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WARDY와의 관계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아시아진로개발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상담학회, 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20여개국과 협력 기반 마련하였으며, GCM이라는 7개 국제기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선정배경에 있어, 해외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혹은 본 기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는 다른 기관의 인적, 지적 보완 필요성 등이 배경에서 보다 상세히 도출되어야 함.
- 코로나 위기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주목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노력과 관심이 특정 행사 이외에도 연간 사업 전반에 걸친 노력으로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 글로벌협력체계 구축노력은 인정되나, 국제포럼과 세미나 등의 행사개최 이외에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기관의 주도적 역할 강화 노력이 요구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SWOT 분석을 통해 정책연구환경을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 전략을 도출함.
- 연구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특임센터 설치 등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역량을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함.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함.
-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기관의 디지털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혁신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청소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조직역량을 강화함.
- 행정분야에서 기획조정본부 및 경영지원실 부서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함.
- 노사 협의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였으며, 특히 열린원장실 운영을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과관리 모니터링의 시기와 평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관리는 기관 간부로 구성된 ‘ESG 전략회의’가 수행하고 있으나,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부서 성과목표의 정량지표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방식의 객관성과 평가결과의 변별력 및 경영활용 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 성과 관리 외에 조직 차원에서 연구 성과의 관리 및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관의 연구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기초하여 직종별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수인력 유치와 유지를 위해 노력함.

- 국정과제 및 경영목표를 기반으로 경영외부 환경 변화 및 정부 정책연구수요에 따른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청소년관련 법률제정, 정부계획 수립 및 대책 등 정책기조에 따라 중기인력운영 방향을 설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한 설명요인을 도출하여 회귀방정식 등을 활용하는 심층적인 계량적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미래인력 예측에 활용해야 함.
- 국내 및 해외 신규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 등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기존의 일반화된 제도를 벗어나 제도적으로 보다 확대 강화된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실적이 양적으로 미흡하며, 내용도 감사 및 윤리 교육, 통계 패키지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 구성원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더 다양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노력이 요구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노력이 보다 확대되어 기관 외부와의 유대·협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복무규정, 직원 대외활동 지침,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통해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적정하게 관리 되고 있으며,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 비율이 낮은 편임.
- 대외활동일 3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기관장 결재를 받도록 하여 대외활동 사전신고 관리를 강화함.
- 연구회 운영실태점검 결과 대외활동 항목에서 적정 결과를 받았으며, 그 밖에 근무 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 연차휴가 관련 규정 및 사용촉진 제도가 적절하게 활용되었으며, 연가저축제의 주기적 안내를 통해 연차휴가 소진율이 98.12%에 달함.
-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 및 운영 방식을 구체화함.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스마트워크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등의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유연근무제 신청 및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함.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연구연가 시행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학술지 게재 의무 부과 등으로 연구연가제도를 운영 및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관련 교육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대외활동 관련 기관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유연근무제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절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실적이 증가함.
- 일·가정 양립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원내 규정 개정 시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 업로드 및 직원교육을 통해 홍보하였음.
-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비 하였으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 반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의료 휴가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채용노력과 인력 수급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노력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과 1:1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시(사유 무관)에도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및 제언 등을 경청하여 비정규직 금전적·비금전적 처우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개선노력을 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노력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기관 전체 약 27%에 달하고 있어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예산안정화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동일한 승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보직을 맡는 실질적 역할을 한 실적은 없는데, 승진연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제도마련, 실적관리, 개선사항으로 선순환적 피드백이 이루어지길 바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업무배제가 아닌 업무량을 조절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할애하여 실질적인 퇴직준비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우수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까지 중장기 신규채용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하고 자체 재원 조달 충당방안계획을 마련하고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년퇴직자와 신규채용자간의 연구 노하우나 업무 전문성을 교류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노력을 권고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자체 정기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 등 내부건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갑질 방지 규정 마련 및 운영, 부정부패 신고 사이트 운영, 외부 업체 입찰 시 심사를 전원 외부 위원으로 진행 등 청렴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친인척 채용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 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채용비리자 징계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음. 특히 직원채용규칙에 채용 전단계 외부위원 참여시키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 작성, 주기적인 공시, 평가위원 전원 외부위원 위촉 등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외부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갑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2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서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TF를 구성하여 개선계획과 후속조치를 수행함.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등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연 3회 개최하여 중요한 인권경영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결정력과 실효성을 확보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운영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도운영의 구체적인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 중요한 인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청렴한 채용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경영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인권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가 단순히 결과점점지표에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과정의 중요지침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반기 내에 인권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권영향평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인권경영은 최고경영진과 관리자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고경영진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등 인권경영매뉴얼을 참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결과를 공개하였으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인권경영개선내용이 미흡하므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인권침해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있으나 외부로부터의 인권침해신고 사이트가 없고 부정부패신고 사이트만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다양한 복리후생과 멘토링제도 운영, 취업지원 및 채용시 우대조치 등을 통해 청년인턴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우수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00%(행정인턴 8명)로 우수함.
-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인턴 취업실적이 4명인 점 및 취업현황을 확인하는 점 등 피드백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기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정하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우수 인턴에게는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여성관리자 40.9%, 여성 신규채용 85.71%를 달성함.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결과 총 7명 중 6명을 여성 직원으로 채용함.
-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 대비 실적이 104.3%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2022년 관리자직급 여성비율은 48.0%를 달성함.
- 2022년 승진대상자 직원 중 매년 50% 이상의 여성직원을 승진 임용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의 별도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한 가정 만들기를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함.
- 부서장 및 전직원이 100%를 지향하며, 관련 교육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실 것을 권고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구인 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제정, 채용시 장애인 우대조치로 법률에서 정한 외에 별도의 가산점 6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였으며, 2022년 신규채용 2인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 가산점 적용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2022년도 국가유공자 자녀 1명 신규 채용하여 전년도 2.17% 대비 1.06% 증가한 3.23% 국가유공자 고용률을 달성함.
- 채용시 우대조치로 법률에서 정한 외에 별도의 가산점 6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하였으나, 정규직원이 아닌 청년인턴인 점에 한계가 있으며 채용형태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실적이 필요함.
- 2022년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3.23%로 우선고용률 6%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에 대응하여, 정기노사협의회에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개선안에 대해 합의한 점이 우수함.
- 협동감사제도 활성화 실적과 감사규정 8조에 근거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제도화가 준수함. 또한 감사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준수함.
- 직제규정과 감사규정에 감사부서 장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한 점이 우수함.
- 법인카드 모니터링 재정정보시스템 소명 대상 8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상감사 대상 모니터링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긍정적임.
- 청렴한 기관운동을 위해 신입직원 직무교육, 인권교육, 갑질 및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자체감사 결과 교육 등을 연 22회 실시한 점은 우수함.
- 21년 정기감사에서 8건 처분과 22년 정기감사에서 5건 처분 완료한 내용은 사후관리 관점에서 자체감사 활동에 대한 개선 실적 관점에서 우수함.
- 자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에 대한 폭넓은 개선이 이루어짐.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본부장 리더십 과정 등 감사직원 전문성과 연계가 약한 교육이 아닌, 감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건의함.
- 비상임감사의 조치사항이나 검토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점진하는 체계를 수립한다면 보다 나은 비상임감사 활용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연구윤리, 성희롱 등 다각적인 교육내용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전 직원 대상 감사교육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원내 임원, 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교육과 생애주기별, 직급별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함.
- 감사교육 이후 전문성 강화나 업무지식 함양, 만족도 등 성과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 정무위원회 21년 결산 개별분야에 기본연구사업 확대 필요 등 감사결과 지속적 미이행 사항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건의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21년과 22년 정기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예방 관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 사례 방지 워크숍이나 교육 등 자체 감사활동과 역량을 강화하는 환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징계처분 시행규칙과 승진임용 관련 규칙 관련해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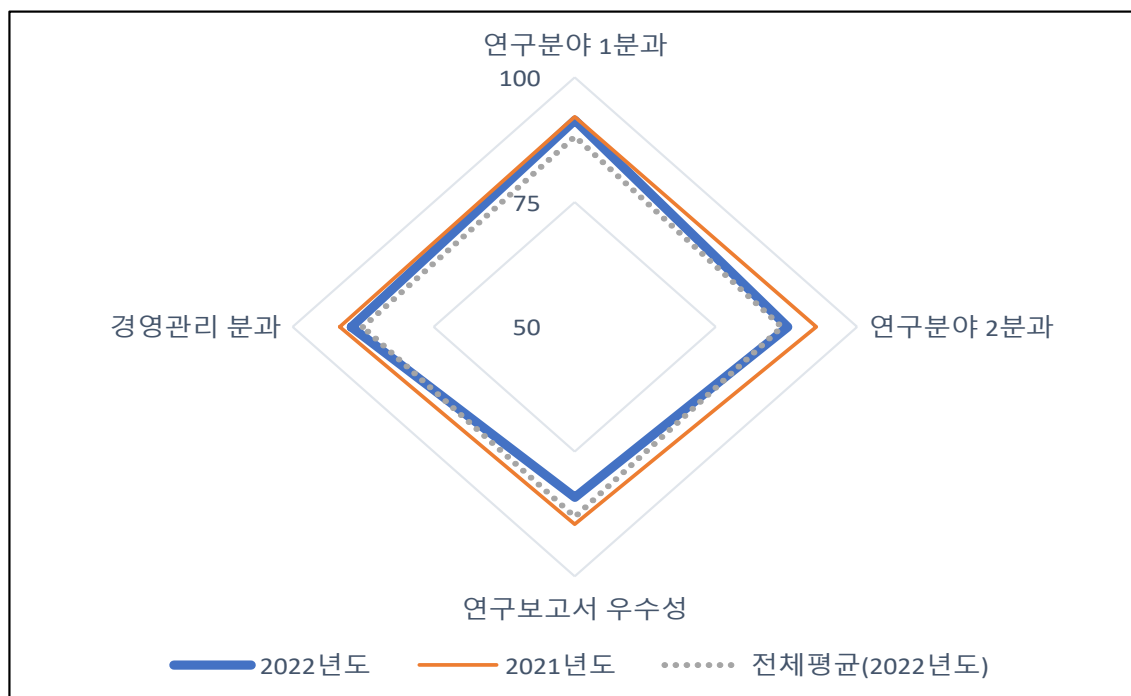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B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A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A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A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S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A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①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A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C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A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A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A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A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B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A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국회토론회 개최 실적이 양호하고 이를 통해 총 91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함.
- 연구과제의 투트랙 관리를 통해 연구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협동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해양수산 규제혁신 등 4개 분야 긴급 현안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적극적인 비연구활동을 통해 긴급현안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음.
- 유연한 조직 재·개편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나, 협력 네트워크가 특정 부처에 집중된 점은 다각화가 필요함.
- 국제적·국가적 현안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사업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정책대안이 우수하며, 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국회, 정부 부처 및 이해 당사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하여 입법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산업관측, FTA 이행지원, 해외시장분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경영 분야]

-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항만규제혁신 등에 관한 규제정비와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연구를 통한 기관장의 선제적 대응과 리더십이 돋보임.
- 의사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기관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기대함. 양수산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있음.
- 임무중심형 조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나, 조직 개편 외 대외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조직운영 전략과 과제는 다소 미흡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업무강도분석과 경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친인척 채용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실적이 없더라도 분기별로 공개하기 바람.
- 청년인턴 채용계획 및 예산 집행률이 우수하며, 2-track 멘토링 제도, 부서별 업무 외 행정 관련 업무지원 방안 등 인턴 운영이 우수함.
- 여성관리자 비율과 여성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 여성인력 활용이 우수함.
-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은 다소 미달하고 있음.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산업계, 내·외부 전문가, 현장·현안관계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 언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고객들로부터 연구수요를 파악하였음.
- 전주기적 연구관리시스템의 정착으로 연구기획 체계가 고도화되었으며, KMI 경영목표, 국내외 정책동향, 새정부 등장에 따른 정책 이슈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과제를 기획함
- 실효성 있는 이슈대응을 위해 9개의 비상설조직을 운영하였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 이후 최초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KMI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5회)하여 해양수산 현안·이슈, 원내 추진과제 및 중장기 연구방향을 자문하였음.
- 정책수요자(정부, 국회, 국민 등)의 연구 기획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면 이를 과제 선정에 반영하여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국회토론회 개최 실적이 양호하고 이를 통해 총 91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함
- 홈페이지 국민 연구과제 제안 창을 이용한 연구제안이 활성화되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선정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과 정책 고객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도출하였음. 현안 이슈의 중요도, 시급성, 파급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대응수단을 마련한 이후 공개범위, 활용방법에 따라 성과를 활용하고 확산 하도록 함.
- 국가 긴급현안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의 설계가 전략적이고,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 설치를 통해 25개 규제개혁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16개 과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83개 추진과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둠.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기초연구사업비 총액 비율이 12.2%로 적정함.
- 전주기 연구관리시스템(TRM) 정착으로 연구기획 체계를 고도화 하였으며, 정책수요자 및 현장·현안 중심의 연구과제 기획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였음.
- 2023년 중점연구사업은 기본연구 10건, 일반사업 6건을 선정하여 예산 및 연구인력을 집중 투입하였음. 중점사업은 다년도사업으로 중기예산배정계획에 우선 반영하였음.
- 연구과제 발굴 심의 선정을 위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이 적절하고 22년도 17건, 23년도 22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등 그 성과도 양호함.
-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연계된 11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함.
-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선정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중점연구사업에 대한 과제 수 대비 인력 및 예산 투입의 집중성이 인정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22년 우수 협동연구 3건에 15~20%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협동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투 트랙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연구자 DB 구축, 콜로키움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협동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해양산업 분야 만이 아니라 경제·인문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 과제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해운 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한국수출입은행을 협력기관으로 활용하였음.
- KMI는 바다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일자리,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육성, 균형발전, 해양교육, 안전 재난 위기관리 영토수호, 외교·국제협력·한반도 문제 등 종합적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특수성 고려하여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과제 선정 전반에 걸쳐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10대 국정과제 중 35개(중복 제외) 국정과제를 2023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23년도 기본사업비 총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사업비 총액 비율이 34%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발굴위원회의 외부참여자 비중확대 필요함.
- 12건의 협동연구 수행성과는 양호하지만, 협력기관이 특정 대학과 경사연 산하 연구기관에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성의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중 정책연구 관리 매뉴얼과 함께 연구진도 관리시스템 별도 구축해 당초계획 대비 연구진행 정도와 예산 집행 정도를 점검해 보고서 평가에 진도별로 순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연구 보고서가 적기에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함.
- 과제관리 규정 준수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우수과제와 미흡과제를 구분하여 two-track으로 연구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특정 연구자의 수시연구과제 편중·과다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연구과제 책임자의 수시과제 병행 금지 원칙을 적용함.
- 수시연구과제 관련 연구비는 기본연구과제 총 연구비 대비 18.4% 예산 배분으로 경인사연 권고 기준 10~30%를 준수함.
- 연구품질 점검 강화 및 과제의 시의성 제고를 위한 보상·평가 시스템을 개편함(일반연구과제 조기 발간 시 20% 가산점 부여, 최종보고 지연시 30%, 발간 지연시 10% 감점 등).
- 연구보고서 발간 지연 사례 없음.
- 협동연구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관이 대학, 연구기관, 학회, 일반 사기업, 공기업 등으로 매우 다양한 편임.
- 협동연구과제 수행이 전체 연구과제 대비 약 50% 정도로 적절하게 이루어짐.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내외부 협력 및 협업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구자 개인이나 부서의 직접적인 협업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는 미흡해 보임.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나 부서에 제공하는 특별한 인센티브 구조를 찾기 어려움.
- 수시과제 수나 예산 비율이 기관 규모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수시과제 1개 당 평균 4.6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등 지나치게 과제 규모 대비 공동연구진 수가 많은 편인 바, 적정 수준에서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등 조기 발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지나친 동기유발에 따른 연구품질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해 보임.
- 전체 수행과제 수 대비 협동연구과제 수 비율은 40.4%, 예산 기준으로 50.2%로 협동연구과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특히 수시연구의 경우 협동연구과제는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협동연구 기피 현상이 심각함.
- 대표 사례로 제시한 10개의 협동연구 사례 중 6개 사례가 1~2개의 관련 기관과 연계된 협동연구로 협동 네트워크의 외연이 협소해 보임.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기관 자체의 연구윤리 기본계획과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연구윤리 점검 절차를 진행함.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전임으로 임명하고 연구원급 개방형 위원 4명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연구 수행 및 마무리·발간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매 단계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함.
- 연구윤리 자체점검표 제출 의무화로 표절검사시스템 이용률이 13.2% 증가함(최근 3년 지속 증가 추세).
- 주니어급 연구인력, 노조인력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포함시켜 투명도를 높임.
-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함.
- 부실학회 참석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부정행위 익명 제보창구(레드휘슬 헬프라인)를 운영함(IP 추적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 제보자 익명성 보호).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내부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외부공동연구자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와 위반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교육이 간담회나 자료 공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대면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1.디지털·뉴미디어 기반 연구성과 확대, II.국민친화형성과 확산, 채널다각화, III.대국민소통 공감을 위한 고객관계강화의 추진목표하에, 추진전략, 실천과제가 적절히 수립되었으며, 주요 성과가 우수함.
- 홍보 및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확산실적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수함.
- 579,707건의 연구성과물을 배포하고, 23,412의 기관에 이슈페이퍼를 발간, 배포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 지역사회 홍보, 해양교육, 인재양성 등 노력이 돋보이고, 북극아카데미도 특색이 있음.
- 연례 해양수산전망대회를 개최. 모형에 기반한 차기년도 해양산업 전망 등은 참여인력이 대규모이며, 관심이 높아 실적이 우수함.
- 국립해양박물관과 협업하는 해양인문학 프로그램 실적이 우수함.
- 총 20회의 KMI와 정부 부처간 정책연구협의회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글로벌 연구환경 및 여건변화를 고려한 국제협력 추진전략 마련 및 운영이 우수함.
- 거점 국가 협력센터별 수요에 기반을 둔 신규 협력 발굴 등 실질적 협력 강화, 한-남태평양 해양수산 협력센터 공동 설립 및 운영,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해외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주요 아젠다 대응을 주도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 42건의 해외 유관기관과의 주요 국제행사·사업 추진 및 3건의 MOU 및 국제협약 체결 실적이 우수함.
- ‘2022 연구협력망 확충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다변화 대응 역량을 지닌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총 20회의 KMI와 정부 부처간 정책연구협의회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책실무협의회 활성화에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하여 국제교류협력 실적이 지난 3년 평균 실적에 비해 저조하며, 기관규모 및 사업규모 대비 MOU 체결건수도 다소 적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47건의 연구과제가 NKIS에 등록되어 100%의 등록률을 기록함.
-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인당 1.26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성과가 우수하나 Sustainability Journal에 게재된 논문이 있음. ‘Sustainability’ 학술지는 약탈적 학술지 관련한 주의를 요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KMI 설립목적 및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부문 및 그와 융합·연계된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충실히 수행함.
-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수위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
- 부처 TF, 위원회, 자문회의 등 활동을 통해 현안 분석 및 대안 설계,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정책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함.
- 13개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국회에 입법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과 해양수산 관련 주요 법률 개정에 기여함.
- '22년도에 수행한 총 279개 국정과제에 대하여 투입인력 1,674명, 소요예산 약 459억 원으로 기관 규모에 적절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국정과제와 연구과제 및 사업의 합치성이 인정됨.
-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경북, 울산, 전북 지역 포함하여, 7개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을 제고함.
- 전 해양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완료('22년 상반기) 및 연안 시·도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통하여 해양공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토대를 마련함.
- 대표사례의 경우 국정과제 “해양영토 수호와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41)”와 연관성 높고 해양 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연구로서 주제의 적절성과 시의성이 우수함.
-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지자체의 해양공간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해양수산부 이외에도 다른 많은 정부부처, 국회, 위원회 등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해양수산부와 의 접촉에 의존하여 연구과제의 기획과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정책연구 ‘기획-수행-공유-확산-성과점검 및 환류’의 4단계 국가정책 기여도 관리를 시행하여 단계별 점검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품질 평가 시 정책기여도를 점검하여 최종보고의 20%, 품질평가의 30%를 반영함으로써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 국가정책 지원활동 참여, 연구 성과의 입법화 및 국가계획 반영도 등에 따라 개인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성과연봉에 반영함으로써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개별 연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 KMI 자문위원회 신규 구성해 해양수산분야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 해양수산부 외 타 정부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관련 연구분야로 연구 활동 범위를 확대함.
- 연구원 1인 기준 연간 10건, 책임자 기준 연간 20건 이상의 정부와의 정책연계활동에 관여하는 등 정책기여를 위해 적극 노력함.
- 무인도서법, 해양관광진흥법, 수중레저법, 수산업법, 선원법, 어촌어항법, 연안관리법 등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 수정·보완 등 입법화 지원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1년 12월에 수립된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방안’에 따라 국가정책 기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기여도 관리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한 점은 우수하나 연구자의 활동, 연구 결과 등에 의한 정책기여도 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해양수산 규제혁신’ 등 4개 분야 긴급 현안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7개 연구과제(일반 6, 수탁 7, 수시 2, 협동 2)를 수행하였고, 정부부처 TF 참여, 포럼/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비연구활동을 통해 긴급현안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관련한 현안과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를 신설하고, 동유럽 분쟁분석 TF를 신설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긴급현안을 분석, 정리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임.
- 국가 긴급 및 사회적 현안 이슈의 발굴/선정/대응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긴급 수행 연구과제 총 17개 중 6개가 자체발굴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 차원의 선제적 대응역량의 우수성이 입증됨.

-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5개의 지원단(KMI 규제분석지원단, 다자간 협상지원단 등)과 4개의 전담 TF(동유럽분쟁분석 TF 등)를 조직하여 신규 현안과제를 발굴하거나 긴급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해양수산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대내외 수요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22년 연구주제 총 11건을 수시과제로 발굴(정부부처 9건, 자체 제안 2건)하여 국정과제 부합성, 현안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총 8건을 선정 수행함.
- 수시연구과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영향 분석 등 수행된 수시연구과제 수의 적절성과 과제내용의 시의성 및 중요성이 우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9.1%,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95.7%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그 비율이 적정함.
- 긴급현안과제를 해양수산규제혁신, 국제통상질서 변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소중립 네가지 큰 틀로 묶어서 16개 연구과제 및 비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화에 기여한 실적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는 있으나 여전히 해수부 등 특정 부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협력 부처나 기관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정부부처 제안과제를 수시연구로 수행한 실적(8건)은 우수하나, 자체발굴을 통한 수시연구 수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국제적·국가적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입법화의 기초를 제시한 점이 우수함.
- 해당 연구주제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우수함.
- 하천 등 육상 수계와 해양에 대한 이원화된 환경관리 정책 및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 점이 우수함.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자원화 방안 제시는 국민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계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정부 담당자 정책협의, 관련 학회 논문발표, 후속연구 추진 활동 등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과제들은 정책대안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 관련 학회, 어업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 등 공론화 노력이 잘 수행되고 있음. 모든 과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론화 노력 및 성과 확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함.
- 정책효과 부문이 다소 정성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계량화된 성과 및 기대효과 산출이 부족함. 따라서 정책효과 부문의 계량화된 성과 및 기대효과 산출이 필요함.
- 일부 과제들은 언론보도 측면의 대국민 정책 홍보 및 확산 노력이 잘 수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과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정책 홍보 및 확산 노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선제적 이슈 발굴 모델 개발, 비관세장벽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출 원활화, 수산물 수출업계의 해외시장개척사업 활용도 제고에 기여함.
- 사업의 효과적 수행과 정보의 품질 유지를 위해 품목별 전담 팀장 및 담당자를 배치하여 사업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의 주기적 제공을 위한 상세 사업계획 수립, 정보 품질 유지를 위한 담당자 배치, 수산업관측 사업 성과관리 TF 구성 및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등 자체평가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
- 주요 수산물관측 생산통계를 통계청에 제공하여 공식 통계화함으로써 국가 통계 일원화에 기여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정책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음.
- 계획, 실행, 결과, 환류 등 주요 업무 및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자체평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총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외부 자문단의 환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그룹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업집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보 차원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즉, 사업집행 전·후 비교를 통한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가 잘 나타나지 않음.
-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건의함.
- 외부 전문가 평가를 더 자주 시행하여 객관적 환류를 더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연구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이 돋보이는 점이 우수함.
- 연구결과와 연구목적 사이의 일치도가 높은 연구가 돋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선박투자 가치평가 관련 연구가 여기에 해당함. 해당 연구는 선박투자 가치평가와 위험관리 모형의 개발에서 더욱 정교한 정량적 방식과 다양한 옵션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후속연구 활성화를 야기하는 효과가 보이는 점이 우수함.
- 다양한 연구방법을 융합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연안지역발전지수’ 개발 관련 연구를 예로 들 수 있음. 연안의 지역경쟁력을 진단·분석하는 종합지수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지역경쟁력 분석을 위한 종합지수를 구축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 기획은 긍정적임.
-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슈를 한국적 차원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를 고민하여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데, 탄소중립 관련 연구가 여기에 해당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해운항만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환경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와 연관하여 세부적으로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은 관련 상위계획 및 국정과제와 연계성 관점에서 시의적절함.
-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에 언급한 우수한 점과 함께, 미흡한 점 역시 다수 발견되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 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 보고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연구방법의 정교한 디자인 및 정책 대안의 사업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음. 또한 연구 중의 하나였던, 연안지역 발전지수(CoDI)에 대해서는 개념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더욱 정교한 연구 설계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지수 산출을 위해 동원된 데이터들이 연안지역의 ‘발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 자료 확보의 포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예를 들어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재무 관련 자료 수집 한계로 인해 4개 상장 해운기업 외에 대표 중소기업까지 분석하지 못한 점이 다소 미흡한 점으로 지적됨. 또한, 선박별 실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연구기획의 독창성과 타당성은 다소 높지 않으며, 학술적 계량연구 이외에도 인터뷰 등 질적 분석에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되었음.
-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두 개 연구보고서 모두 통합적 연구방법과 단계별 결과 도출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특정 리스크의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통제불가능한 각종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의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우수함.
- 또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남방 지역 ICT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험지수 개발’이라는 목적 차제는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해운 및 항만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대한 근거 제시가 좀 더 정교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보임.
- 신남방지역 물류공급사슬 관련 연구에서도, 자료분석이 단순 통계자료를 활용한 측면이 있어서 연구의 독창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경영환경 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내외부 의견수렴과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에서 FACT라는 4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10대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를 도출함. 목표와 전략, 과제간 상호 연계되어 실천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 경영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과거와 현재 경영목표를 비교하여 목표를 설정함. 경영목표를 관리하는 총괄부서(기획조정본부)를 중심으로 PDSA 환류체계를 통해 실천계획 추진실적과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에 기초한 부서전략을 수립하여 조직전단위에서의 경영목표에의 몰입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항만규제혁신 등에 관한 규제정비와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연구를 통한 기관장의 선제적 대응과 리더십이 돋보임.
- 기관장 1년차 경영목표는 145개의 세부 실천과제 중 조직 및 제도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가 33.1%(48개) 차지하고 있어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정비와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종합적으로 130%의 우수한 정량적 목표를 달성함. 또한 20대 성과목표는 추진전략별로 110%~156%로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 내부직원 설문조사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관내 각종위원회는 보직자 이외 비보직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경영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실천계획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몰입을 유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목표 달성도가 200%를 넘는 실천과제의 경우, 과제수행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의 내용과 해결 방법 등 성과중심의 실적 확인이 요구됨.

- 경영목표 설정 시, 실적으로 제시된 내용 중 일부는 단순 산출 지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제로 경영목표 달성과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실질적인 성과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적 관리가 요구됨. 특히 기관 차원에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건의함.
-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의 적정성 평가, 성과목표 실천계획의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소통전략을 공정기반 소통, 탈권위 수평적 소통, 직원주도 자율성 강화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시도함.
-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전직원 무기명 조사 수행 및 기관장의 의견수렴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음. 이 과정에서 남녀, 세대 등의 균형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역협력 및 공공가치 실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기관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기대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해양수산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있음.
- GEO Blue Planet 아시아 사무국 유치, 거점국가 해외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높이 평가함. 또한 규제혁신추진단 관련 49개 사안을 관계 정부 부처에 전달함.
- 연구회와 적극적인 협동연구 수행 성과를 거둠.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장의 다양한 대외 활동이 다수 확인되나, 지역사회 및 인재양성 관련 활동에 있어서 사업이 지속성을 가짐은 물론 향후 사업 내용이 단계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요구를 건의함.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해양수산 현장·현안 밀착 연구 강화

〈우수한 점〉

- 해양분야 현안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연구로 해양수산업의 현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수함.
- 기관장의 현장중심 행보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함.
- 사업추진을 위한 본부급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안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장의견수렴과 연구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 MOU 체결 등의 노력을 수행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기관과의 MOU 체결 이후 나타난 실질적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함.

(2) 중점추진 과제명 : 해양수산 미래 예측 및 연구역량 강화

〈우수한 점〉

- 미래예측연구 관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계량모형 연구기능을 강화(15과제),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미래예측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
- 미래연구사업의 중요성 홍보를 위한 적극적 언론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외부확산 채널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양수산 미래 예측 및 연구역량’이라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해서 세부적인 사업 주제로 분리하여 사업별 내용을 설정한다면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성과가 정책화나 실용화 등이 결과 지표로 제시되었으면 함.

(3) 공정·소통의 자율경영조직문화 혁신

〈우수한 점〉

- 주니어직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확대, 기관장 주도 소통과정에 제안된 의견에 대한 적극적 피드백 등 탈권위적 조직을 위한 전반적 방향성과 제도개편의 노력이 긍정적이고 양호한 것으로 보임.

- 개방형위원회 제도 도입, 자율연구 운영 등 투명하고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 공정운영위원회, 플로어미팅, 청원게시판, 직원설명회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채널이 존재함.
- 각종 회의, 언론 활동, 파트너십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성과 확산 노력이 전개된 점이 확인됨.
- 기관 통합 이전의 입사자들 퇴거에 따라 공정과 소통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연구회 주관 적극행정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등 관련성과가 존재하며, 직원조회를 없애고 플로어 미팅 등을 통해 소통을 위해 노력함.
- 자율연구 등 젊은 연구자들이 평생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 성과목표는 결과지표적 성격을 보다 더 많이 포괄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임무 중심형 조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본부급 상위 부서의 경우 ‘종합 정책연구본부’와 ‘경제전망연구부’ 등 기능 중첩과 협업이 요구되는 본부를 통합하여 진행하여 창의적·융합적 조직체계를 구축함.
-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와 어촌연구부를 신설함.
- 연2회 직원 설명회를 통하여 반기 기준 경영성과 추진현황을 직원과 공유하고, 노사 협력과 성과 증진을 촉진함
- 고충처리위원회 외에 공정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고충 상담과 직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함.
- 노사 협의 외에도 설문조사, 설명회 등 노사 간 신뢰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을 활발히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 외에 기관이 직면한 대외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조직운영 전략이 다소 부족함.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을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기술된 타당성 및 효과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함. 예를 들어, 공정운영위원회를 1~2월 중 6회 개최한 실적이 어떻게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또는 달성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기관 경영목표가 경영비전으로 중복 제시됨.
- 기관 목표와 부서 및 개인 단위 업무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PDCA 등 조직성과의 관리체계를 구체화 및 고도화 하여 성과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 부서 성과 점검의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과 점검을 위한 지표 또는 측정도구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성과 관리를 부서장 회의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이 환경 분석 및 조직 내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연구 아이템 및 부서 미래비전에 따른 신규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수립됨.
- 콜로키움 활성화와 임직원 역량활동 활성화를 통해 기관 차원의 예산 40,000천원 확보하고 해외 연수 제도를 개선함.
- 교육주간 제도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행('22.9.) 등 역량강화 시스템 제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교육체계 고도화에 반영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업적평가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지표와 계량화 비율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직의 연구성과 평가 비율이 74.07%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기준 계량항목은 40%로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 및 해외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징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채용 노력이 필요함.
- 1인당 교육훈련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직과 행정직의 차이가 다소 있는 편으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와 수혜 정도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하여 갭을 줄이는 방향이 요구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직원대외활동지침'과 '임직원윤리행동강령'에 의거하여 직원의 대외활동을 승인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대외활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로 대외활동 신고 미준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8회에 걸친 연구기관 자체감사를 통해 근무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기관의 의지가 높으며, 근무 관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이 적절함.
- 연차휴가 소진율이 전체평균 100%로 나타나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연가저축제 도입 등 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됨.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참여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76건 발생했으며, 전체 연구직에서 나타나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연구직 직원에 대해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근무 관련 지적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감사결과 대상자 조치 이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 차원의 제도 구축 등 보다 면밀한 사후관리 제도화가 필요함.
- 국무조정실 복무감사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직원 근태, 파견 직원 및 휴직자 연차휴가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기관의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및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근무제 성과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안식년 및 연구연가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연수종료 1개월 이내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수결과 보고서 이외 성과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발표, 세미나 개최, 학술지 의무게재 등에 대한 규정과 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편임.
-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받았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난임휴가 규정, 유사산 휴가, 육아시간 제도, 육아휴직 경력산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임용령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실적과 육아시간 실적이 혼재되어 있음. 추후 실적보고서에 구분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 반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가족돌봄 휴직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 파악이 요구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채용노력과 인력 수급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노력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인력 1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실적이 있음.
-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안정화를 위한 계획 마련은 확인되나, 관련 실적(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사전 심사제 등), 기관의 노력(예산당국, 국회 협의 등), 내부 규정 정비, 승진 및 보상의 차별점검, 전환 실적 집계, 문제사항 점검 등)이 점검되어야 하며, 이를 매년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사전심사제), 기관의 노력(예산당국이나 국회 등과 협의), 내부 규정 정비(동일 혜택), 승진 및 보상의 차별점검, 전환실적이 집계되고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퇴직자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퇴직자 관련 안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 명예연구위원제도를 통해 기관발전과 주니어급 직원에 대한 지식전수를 위한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가 지속 유지 운영 중인 점이 우수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9년까지 중장기 신규채용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연구직과 행정직 업무를 개발하여 수행토록하고 있으나 직군별로 구분된 적합 직무를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관련 임금피크제 매뉴얼은 2015년 발간되어 시기 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별도 직군 부여나 업무강도 경감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 구비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도 구비하고 있음.

- 기관장이 직접 접수하고 참여하는 공정운영위원회, 제도개선협의체와 직원청원 게시판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관의 성격을 반영한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 녹화 강의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재교육 실시, 원내 게시판 공지, 메일, 문자발송, 교육 안내 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교육참여를 독려하여 참여율을 향상시켰음.
- 윤리경영 사안별 위반신고가 온라인으로 익명을 보장하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일상 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와 옴브즈만제도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관리와 결과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회의 구체적인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제직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 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행동강령, 회계규정, 이해충돌 등의 기본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 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인권규정을 개정하고,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여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임.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이수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전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부여,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4대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대외활동지침에 제재에 대한 양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침위반 금액 및 횟수가 반영된 양형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규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규정 등에 외부위원 필참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친인척 채용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실적이 없더라도 분기적으로 공개하기 바람.
- 인권경영규정에는 인권경영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되어있으나, 실제운영은 5명중 2인을 외부위원으로 운영 중이므로 규정에 맞춰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연말에 1회 개최하였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갑질 자가진단을 진행되었으나, 외부 계약업체 등 외부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인권경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경영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인권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가 단순히 결과점검지표에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과정의 중요지침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반기 내에 인권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권영향평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결과 기관운영지표 중 해당없음이 32개에 달하고, 긍정률이 108개 불과하므로 인권영향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크리스트를 개선하고 차기 경영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314%로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하며, 연구개발적립금 활용하여 자체 인턴 4명을 고용함.
- 청년인턴 운영에 있어서 2-track 멘토링 제도운영, 부서별 업무 외 행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청년인턴 간담회를 통해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조정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여성관리자 비율과 여성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2년 경력단절 여성 4인을 채용하였음.
- 중장기 관리직 목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 보직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확인됨.
- 여성근로자의 근속년수가 비교적 짧은 조직특성을 반영하여 하위직급 중심의 승진 인사 시행,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적극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관리자 후보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2년 정기승진자 총 46명 중 여성 직원 총 26명(56.52%)으로, 승진평가 과정과 결과에 있어 여성과 남성 간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시행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고위직 참여율이 개선됨.
- 녹화 강의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재교육 실시, 원내게시판 공지, 메일, 문자발송, 교육 안내 방송 등 적극적 홍보로 교육 참여를 독려하여 참여율이 향상되었음.
-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공정한 교육·연수제도를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여성관리자 채용 실적이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인력계획과 관리적 요인을 통한 개선을 권고함.
- 양성평등 교육 참여율을 기관 차원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필수교육의 다양성, 심화성이 반영된 교육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성인지 교육과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부서장 교육 이수비율이 84.62%로 낮아 100%로의 개선이 필요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준수하고 있으며, 2022년도 중증장애인 2명 채용실적이 있음. 2024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8%로 상향 고려 중임.
- 장애인에 대한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및 부산여성장애인 연대에 장애인 추천의뢰, 지원고용제도 및 직장생활 지도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근무여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우수함.
- 2022년도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무기계약직 1명)이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규정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미달고용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의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함.
- 2022년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5.6%로 기준에 다소 미달하고 있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고, 개선실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이 우수함.
- 정무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변경 완료한 점이 긍정적임.
- 감사부서의 독립성 보장이 규정화되어 있으며, 특히 근무평가 제외 규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비상임감사의 대면보고 실적이 확인되며, 주요업무가 규정화되어 있는 점이 우수함.
- 감사인력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별로 적절한 감사교육을 실시한 점이 우수함.
- 일상감사 실적과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채용과정 감사부서 입회 등 운영 실적이 우수함.
-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부패방지,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 점이 긍정적임.
- 총 4회에 걸쳐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무조정실에서 지적받은 채용분야 채용면접 외부위원 위촉 부적정의 경우,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감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의수강 이외에 별도의 자료 개발과 교육내용 공유 및 확산에 관한 노력이 필요함.
- 전 직원을 대상 감사 교육의 성과를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건의함.
- 공직기강 점검실시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여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3

해외사무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 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
1-1. 연구·사업 분야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지원	A
	1-1-2. 성과확산 및 협력	A

□ 평가의견

1-1-1. 주요 이슈(Issue) 대응 및 연구·정책 지원

① 한중, 중국,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Big Issue)에의 대응(정보 제공, 현안분석, 대책 제시 등)

〈우수한 점〉

- 해양 수산 부문과 관련한 한중 양국의 주요 현안들을 9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 적절한 방식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의 도출 방식도 적절하며,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 추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시의성 있는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분야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가 칼럼 1회 이상, 학술행사 개최 및 참가, 특집 리포트 2회 이상 발간, 각종 모니터링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연구분석 과제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함.
- 칭다오, 샤먼항의 자동화, 스마트 항만 추진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속 사업으로 추진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본원 관련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해외사무소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음.
- 해외 파견 연구인력의 학술회의 참여시 토론, 발표 등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게 제시됨.
- 수탁과제 수행 시 책임, 공동 등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음.

② 데이터 수집·분석자료 정기 배포 노력 및 실적

〈우수한 점〉

- 사업조사보고서 연 1회, KMI 중국리포트 월 2회 발간, 중국연구센터 동향 및 뉴스 제공 주 1회와 월 2회 제공, 해양영토 동향 월보 월 2회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자 노력한 실적이 우수함.
- 중국리포트와 중국해양수산위클리를 통해 해양 및 수산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들을 발췌 요약하여 시의적절하게 제공함.
- 특히 중국의 해양 영토 분쟁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분석 자료를 본원 및 해수부에 시의적절하게 보고하여 국가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양 및 수산에 관한 통계의 제공, 발췌 및 요약 형식으로 가공되어 있는바, 제시된 자료 이외의 통계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가독성과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및 보완 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해양 영토 동향에 관한 보고는 본원과 해수부 담당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사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므로 본원의 거시적 해양영토 정책자료 제공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는 것을 권고함.
- 해양, 항만, 해운 연구 분야에 대한 동향뿐 아니라 물류, 해사, 수산 등에 대한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분석과 자료 수집을 위해서 중국 사무소의 추가 인원 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음.

③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정책 지원 노력 및 실적(세미나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의 지속성 및 중요도, 개최 및 참여 실적, 주요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등)

〈우수한 점〉

-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에 지원자 형태로 참여한 실적이 우수함.
- 코로나 19로 인해 대규모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중국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돋보임.
- 다양한 학술행사를 지원하고 적극 참가한 것은 한중 해양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라고 파악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부분의 세미나가 물류와 해운에 편중되어 있음.
- 중국연구센터가 9가지의 현안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처럼 세미나 개최에도 중국연구센터의 관심사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학술회의 지원 및 참가의 경우,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바, 발표 혹은 토론 자격으로 참가한 것인지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료 조사와 네트워킹을 진행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1-1-2. 성과확산 및 협력

① 성과확산 및 홍보

〈우수한 점〉

- 홈페이지, 인쇄물, 대언론 홍보, 위챗 계정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활동을 홍보하고 있음.
- 단순 행사 개최 안내뿐만 아니라 연구의 내용도 비교적 잘 홍보되고 있음.
- 중국 해양 수산 동향, 이슈, 현안 등 시의성 있는 자료를 이메일 혹은 위챗 단톡방을 활용하여 우선 제공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판단됨.
- 본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국연구센터 위챗 계정을 통해 정기 간행물을 게재함으로써 성과 확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국연구센터의 연구 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홍보 자료를 중문과 영문으로 만들어 중국에 진출한 관련 분야 연구 기관, 기업 등에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 대해 한국의 해양 수산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리포트, 동향&뉴스 등 중국연구센터에서 생산한 자료에 대한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의 반응과 평가 등 피드백을 정리하여 추후의 발간물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연구센터의 성과물이 국내 언론에 활용된 사례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해양 관련 전문적인 언론매체인 쉬핑뉴스넷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도 학술회의, 포럼 등이 원만하게 개최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학술적 성과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언론들을 활용하여 성과 확산과 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② 유관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우수한 점〉

- 중국 전문가 풀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1,956명에 달하는 중국인 전문가를 확보하여 28개 지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 중국의 연구 기관, 기업, 연구자, 그리고 한국의 기업과 연구기관을 망라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강점임.

- 주로 8-9월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 관련 기업 방문과 교류 확대는 중국의 관련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한국의 대 중국 해양 수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연구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와 같은 정책결정자 집단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전 지역에 걸쳐 2천명에 가까운 전문가 pool의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 및 pool을 활용한 홍보 체계 구축이 필요함.

③ 본원 연구·사업에의 지원 및 환류

〈우수한 점〉

- 본원의 모든 연구부서와 긴밀한 협력 하에 중국연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해양영토동향에서 동북아(타이완 포함) 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고무적임.
-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상하이과학원 부원장 및 상하이해사국 부국장 등 중국 내 고위직 전문가와의 교류 강화는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본원의 다양한 부서가 요구하는 연구사업에 적절하게 기초자료를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도 소개하는 등 성과가 우수함.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 내용이 적절하고 환류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본원의 모든 연구 사업에 대응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기여를 하였으나, 중국연구센터가 주동해서 현지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연구 사업의 진행은 적어 보임.
- 전체 연구 성과를 본원과의 관련 하에 기술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자적 활동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연구센터가 본원의 연구 사업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화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원의 다양한 부서에서 요구하는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 현지 사무소 직원들의 참여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1. 한국행정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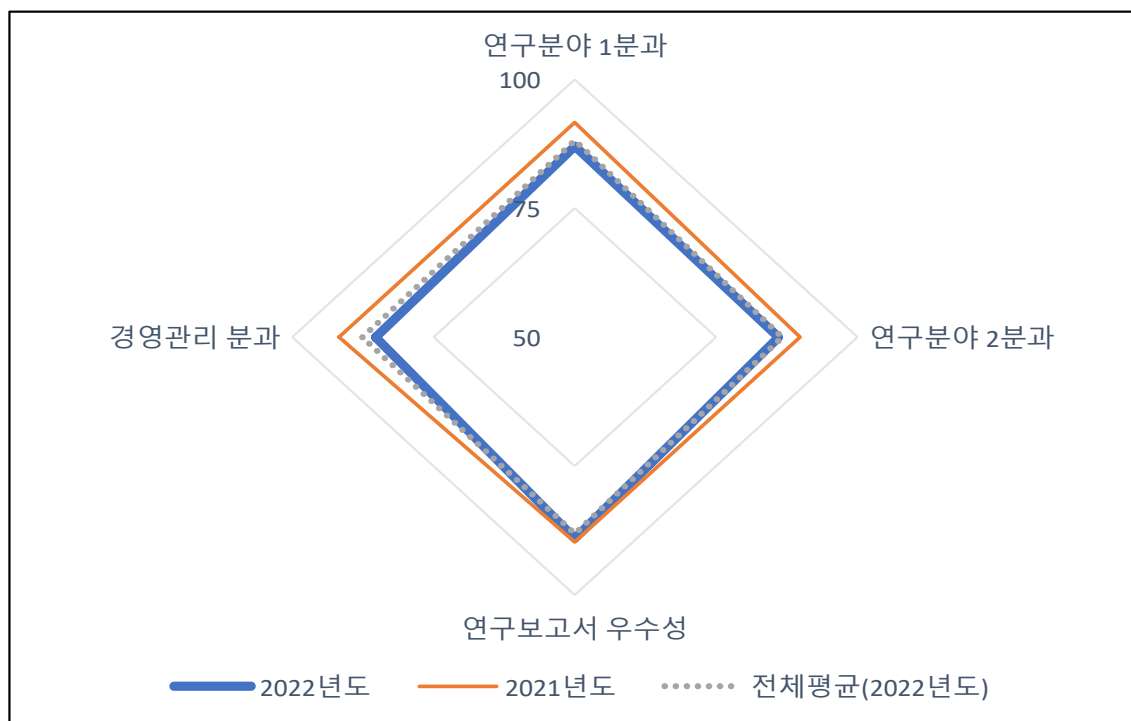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C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C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C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S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A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C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C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C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C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C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C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A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B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B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D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보고서의 법제도적 적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부 인력 간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관련 업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협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함.
-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긴급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TF에 적극 참여하여 핵심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성과를 거두었음.
- 긴급 연구과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행성과가 입법 및 정책화로 연결된 사례가 다소 부족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 전반적인 연구주제가 실질적 정책화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연구내용과 방법론이 상호 적절히 부합하며,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국민참여 등 다양한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전문적인 정책결정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한 바가 인정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관리, 추진체계 등이 양호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노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경영 분야]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조직 디자인, 규제와 평가제도, 규제정책에 대한 사후규정영향평가센터 설치,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대한 제안 등의 노력을 보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정책 연구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시퀀스가 이뤄졌음.
- 여성부원장 최초 임용 등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음. 대외활동 관련 본 기관의 경영목표와 정체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투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음.
- ESG 경영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운동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관의 목표 달성 및 성과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대체인력에 대한 선제적 채용 및 조직개편 등의 노력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였음.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검토와 안정적인 상시소통 통로 마련이 필요함.
- 직종별 퇴직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업무경감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가제도 검토가 필요함.
- 내부신고제도는 있으나 외부신고사이트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개편이 필요함.
-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NET) 분석 결과 여성인력 고용비율은 '연구개발 및 전문 서비스 관련업'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보다 높아 우수함. 또한,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
-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대전환을 추구하는 연구”라는 경영목표를 기조로, 연구자문위원회(학계·공무원·언론계 등 20인 내외; 2월, 12월 개최)를 통해 2023년도 연구 목표를 확립하였음.
- 과제 선정에서 대내외 환경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여 연구 기획 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슈 및 과제발굴의 성과를 거둠.
- 환경변화에 상시 대응을 위한 연구DB를 구축하여 623개 이슈 키워드, 99개 정책 주제를 제공하였음. 특히 대국민 수요조사에서 제안서가 전년도 0건에서 2022년에는 6건으로 급증하였음.
- 시의성,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부처(74회), 국회(35회), 상·하반기수요조사(2회)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기획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였음.
- “새 정부 집권” 현안에 대응한 국회의원 집담회(2회) 및 기획세미나를 통해 수시협동과제(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를 발굴하고 수행하였음.
- “지방 소멸” 현안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4개 특례시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23년도 연구방향 “국민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운영 연구” 실현을 위해 상·하반기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통한 총 13건의 제안서를 접수받음.
- 국가 현안이슈의 도출과정이 체계적이며, 다부처 연계 현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총 11건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함.
- '22년 15개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에 더하여 새정부 출범 이후의 현안을 반영한 연구를 위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는 등 현안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현저함.
-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한 16개 이슈에 대하여, 정책대안 제공(28개), 기본·일반과제 발굴(18건), 수시과제 수행(7건)을 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이슈 분석체계의 체계성, 정밀성이 부족함.
- 정책대안과 수시과제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다소 부족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Two-track 발굴을 통한 중점연구과제 포함 기본, 일반연구과제를 선정하였음.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를 확대하였고, 정책현안(이태원 압사사태) 발생에 대응하여 기관장·연구부서의 대책(기획)회의 및 행정안전부와 의 논의에 따라서 과제를 조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기획함.
- 정책연구기획 TF의 및 연구자문회원회를 중심으로 발굴과제를 검토하고 연구지 자체 peer review를 통해서 단계별로 검토함.
-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 대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연구과제 선정기준에 따라서 과제를 선정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부서장 워크숍 개최, 연구책임자 간 Peer Review를 통한 과제발굴(42건) 및 정책현안(이태원 참사)에 대응한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연구과제를 조정하는 등 연구 기획 부분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됨.
- 중점연구 기획과정에서 디지털플랫폼위원회, 돌봄통합플랫폼 전문가, 인적자원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핵심 전문가(외부) 인력을 2인에서 4인으로 증원함.
- 연구자문위원회, 과제선정위원회 위원구성의 적정성이 인정되고(정부부처, 학계 등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실적도 우수함.
- '22년 중점연구과제 2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배분 비율의 적정성이 인정됨.
- 연구회 협동연구 주요 6대 주제 및 KIPA 연구기획 핵심키워드를 토대로 협동연구과제를 11건 발굴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협동연구과제 1건당 금액이 1.4배 증가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기초연구사업비 총액 비율이 29.94% 권고기준 범위내에 있으나, 기준설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연구 사업비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정부 의견(22건), 국회(7건), 국민(8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과제에 반영하였음.
- 수요조사를 통해 최초로 접수된 공무원 의견을 '특별지자체' 관련 수시연구과제로 발굴한 점은 바람직함.

- 정부정책과제를 반영한 연구과제가 작년보다 확대됨(8건→9건).
- 기관의 4대 경영목표, 새 정부 9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총 18개의 일반 및 기본과제를 선정함.
- '23년도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총액 비율이 59.56%로 적정성이 인정됨.
- 협동연구를 학술기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산업체, 국민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정책입안자의 법·제도적 적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고서의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 제안사항 부분을 신설함.
-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과제 평가자를 최종 선정함.
- 중간 및 최종 보고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간 및 최종 보고서 평가 종료 후 연구책임자 평가의견 반영서 제출을 의무화함.
- 기본·일반 연구과제 수행에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면서 기관 자체평가 점수는 상승하고 표준편차는 완화된면서 전체 연구보고서의 고품질화와 완성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함.
- 협력·공동연구 추진을 적극 권장해 기본·일반·수시연구과제 23개 중 22개를 공동연구로 진행함.
- 내부 인력 간 협업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관련 업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협업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함.
- 연구과제를 제안한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참여하고 과제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문 실시함으로써 정책제언 도출과 법·제도적 적용 가능성을 제고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 비율이 16.51%로 경인사연 10~30% 권고기준을 충족함.
- 미발간 연구과제 없음.
- 협동연구과제 중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과제는 여야 정당 정책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민간 컨설팅 기업, 국책·공공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행정연구원이 주도하는 협동연구 플랫폼에 참여한 우수 사례로 보임.
- 협동연구과제의 대표사례들(예: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국정운영시스템 혁신 방안)이 대부분 정부, 민간, 학계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이 돋보이는 매우 적절하고 우수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협동연구의 전체적인 비율은 적은 편임에도 협동연구의 내용은 질적으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며 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협력·공동연구 시 연구결과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고 공동연구 참여자의 무임승차에 따른 조직 갈등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연구를 권장함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연구윤리 점검피드백 기간이 2주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단기간이어서 내실있는 피드백 반영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1주 정도 더 기간을 연장해 보다 내실 있는 점검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전체 수행과제 예산에서 협동연구과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2%로 낮은 편이며 수시연구와 일반연구의 경우에는 협동연구 사례 전무한 상황인 바,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됨.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연구윤리 자체점검단을 3단계로 구성해 연구윤리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보고서 단계별로 연구윤리 자체점검 절차를 매뉴얼화 해서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보고서의 각 단계별로 연구윤리 자체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함.
- 중간보고서 평균 표절률은 양호 단계인 6.1% 수준이었으나 연구윤리 자체점검을 통해 최종보고서 점검 결과 4.6%로 표절률을 안전 단계로 개선함.
- 4년 연속 클린기관으로 선정됨.
- 부실학술활동 참여 관련 위반 사례 없음.
- 연구윤리 인적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원 구성을 다변화하고 전공·관심분야·보고서 분량을 고려하여 과제를 배분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보고서 평가 단계에서는 연구품질 및 연구윤리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수행 단계에서의 연구윤리점검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임. 따라서 연구보고서 평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윤리 관리 노력을 연구수행 단계로 분산하여 연구윤리 점검을 연구의 전 단계에서 상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 검증TF가 외부위원 1인 내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위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인 바, TF에 외부위원 증원이 필요해 보임.

-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실시 횟수가 연간 3회로 적은 편임.
- 내부 연구진에 대한 연구윤리 자체점검이나 연구윤리교육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외부 집필위원의 참여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연구진과는 별도로 구분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바, 외부 집필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자체점검표 제출을 포함하여 단계별 검증체계 구축).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2022년은 기관홍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양적성장 및 내실화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됨.
- 전사적 참여와 홍보체계의 개편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연구성과의 언론홍보 전략수립체계가 우수함.
- 홈페이지, SNS, 학술행사, 간행물, 언론홍보, 메일링 등 분야별 외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연구원 소식 및 성과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실적이 우수함.
- 정기간행물 11,530건의 배포실적 및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 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이 우수함.
- 2022년도는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를 위한 전략계획의 3단계로 글로벌 무대에서의 주도적 역할 증대라는 목표하에, 1.글로벌 행정이슈의 선제적 연구활동 강화, 2. KIPA ‘주도적’ 국제협력 연구 및 사업강화의 전략과제 수립이 적절함.
- 연구인력 교류 및 활용이 3년 평균대비 목표치의 170% 달성, 국제공동(협력) 연구 및 사업 실적이 3년 평균대비 목표치 256% 달성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 국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국제회의 세미나 개최 및 참여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 ODA 수행에 관한 AS가 충실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규모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수단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실적이 우수함.
- 23건의 연구과제가 NKIS에 수록되어 등록률이 100%를 달성함.
- 기타성과물 30건이 모두 NKIS에 등록되어 등록률이 100%를 달성함.
- 연구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논문공모제 등의 행사를 수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실적을 늘리기 위한 이벤트와 학술공모전 개최 등 노력을 확대 지속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정 과제 수행 건수가 164건으로 매우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함.
- 핵심 주제 및 주요 분야에 따라 중점 국정과제 매칭 노력과 비율 등이 우수함.
- 새정부 120개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한 위원회 및 TF(총 164건)에 참여하여 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 관련 지원활동을 지속하였음.
-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 91개, 일반사업 14개, 투입 예산 약 303억 원, 투입 인력 452명으로 기관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대표사례로 제시한 “공중보건위기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신종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의 경우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로 선정사유가 적절함.
- 대표사례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정부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과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표사례의 연구성과가 코로나 백서, 국가 기본계획에 잘 반영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개편을 위해 추진한 여러 사례들은 우수하나, 연구(활동)의 결과가 실제 입법(제,개정) 지원실적으로 이어진 사례는 다소 부족하므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입법지원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자체 평가 실시 및 국정 과제 재검토 운영을 통하여 연구기획 DB 원내 공유하여 16개 정책 이슈를 도출함.
-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국회 및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기획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법지원 성과를 제고하였음(3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기획 세미나,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세미나·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이슈를 논의하며 정책 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기여도를 내부 성과평가나 포상 등으로 연결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책기여를 위한 대내외 활동을 내부 성과평가 제도에 포함시킴.
- 전주기적 과제관리를 수행하는 정책연구 TF를 운영하고 연구기획 DB를 원내에 공유함으로써 국정과제 현안 대응역량을 강화함.
- 정책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 TF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슈페이퍼 등의 배포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세미나 개최, 기타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은 인정되나 정책연구기관이라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입법/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성과는 다소 미흡함.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국회, 정부부처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실적을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다만, 이로 인해 정책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공적 기여 사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긴급 및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 및 수시연구과제를 적시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공동세미나 및 정부 TF에 적극 참여하여 핵심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등의 성과를 거둠.
- 비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긴급현안과제 실적이 부족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을 담은 이슈페이퍼(총14건, 전년 대비 75% 증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현안과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새 정부 국정과제 이슈에 중점을 둔 총 7건의 긴급연구(기본 2건, 수시 4건, 일반 1건)를 수행하여('23년도 일반과제 4건 선정), 규제 혁신, 재난안전 등 쟁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성과가 관련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국회,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정책세미나, 포럼 주관, 다수의 자문 및 정책제언, 긴급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한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자료를 제공함.
- 수시연구과제 선정의 적절성, 연구수행 성과의 우수성이 인정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6.5%,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100%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인력 및 예산 규모에 비해 긴급 연구과제 수행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가의 긴급현안 또는 현안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사업 참여 실적에 비해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적시한 과제 수행 성과가 입법화/정책화로 연결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향후 연구결과물의 정책 반영 여부나 정도를 추적, 확인하여 연구성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전반적인 연구주제가 실질적인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인정되며, 미래의 전망 및 그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갖추고 있음.
- 기존 정책적 문제에 대한 맹점 및 미진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인정되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생태계 조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화 실적이 두루 존재함.
- 정책화 기여도의 많은 부분이 법령정비와 법률제개정, 법적 근거 마련 등 정책을 넘어 법률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연구내용과 방법론이 대체로 적절하게 상호부합하며, 설문조사 결과, 델파이 기법, 면접조사 등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연구를 추구하는 점이 양호함.
- 여타 국책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 자문 의견, 부처의견 수렴, 시민단체 설문 참여 등을 통한 정책연구 내용의 객관화와 전문화 및 정책수요자와의 제반 소통 노력 등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정책결정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연구성과가 국회 등 정책결정 단계에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한 바가 존재하며, 정부기관 및 다양한 위원회 등에서 지침이나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음.
- 파급력 및 영향력이 경제와 재정부문, 사회부문, 행정부문 등에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수립과정에 있어 성과확산 세미나, 관산학연 합동회의 등이 많이 존재하나, 전문가 자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및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미흡함.
- 과제 성격에 따라서는 산업계와도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관련 소통실적이 없거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 해외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자 및 관련자와 회의 혹은 학술회의 등이 충실히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사회 부문에 거처있는 융합적 성격의 연구주제의 경우, 보다 질 좋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정책 혁신 체감도가 높은 정책내용의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업 노력이 제고되어야 함.
- 언론보도 등에 게재되거나 정부의 정책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기관의 단독적 연구 결과와 정책제안에 직접적으로 기반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존재함.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자체평가를 통해 확인되는 실적 기준으로 사업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등 관련 노력이 양호하며, 업무 유관부처의 사업 집행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규제영향분석 지원사업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수행해온 결과, 그간 축적한 관리경험을 토대로 사업계획, 관리,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총리실, 규제위, 관계부처의 규제 관련 부서, 규제학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규제비용감축제를 지원한 결과 규제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총 682회 실시, 규제완화와 폐지 등을 통한 규제비용 약221억 감축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집행 효과 도출에 기여한 바가 인정됨.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의 경우,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적이 인정되며, 관계부처 담당부서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조사과제, 항목 등을 선정하는 등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고 다년간 운영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충실하게 구축한 노력이 양호함.
- 120대 국정과제, 160개 주요정책과제 국민체감만족도를 조사하여 46개 중앙부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국정운영성과 정책자료로도 두루 활용한 노력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존 정책네트워크의 활용 제고와 아울러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 몇 가지 우수한 점을 소개하자면, ‘규제샌드박스’ 관련 연구의 경우, 2019년 도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성과평가라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됨. 특히, 기존의 파지티브 규제제도 맥락과 전혀 다른 네거티브 규제개혁제도라는 점에서 초기 운영기간 중 문제점과 개선 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며, 단편적인 사례중심이 아닌 전체 제도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임.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에 대한 연구는 연구기획 및 주제선정의 노력이 돋보였음.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음. 향후 지능형 정부서비스의 전략적 방향 정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전략적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난제해결형 정부조직 현실화 관련한 연구에서는, 1차 년도의 연구목표인 예측모델과 방법론 정립에 충실하였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구현 전략과 정책제언이 구체적이고 우수함.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남.
-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부대응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정부 대응이 상황변화에 따라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보다 적실성 있는 진단과 해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국의 감염병 대처와 관련한 거버넌스 운영실태 등이 비교 분석되었다면 정책적 시사점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역량개발 관련한 연구의 경우, 연구 진행을 위한 조사방법론의 한계점이 일부 드러났는데, 분석결과의 통일성과 결과의 확장성 및 구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 설계 단계에서의 정교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봄. 이러한 정교함 부족은 결과적으로 연구의 독창성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
-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차기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 관련한 연구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에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 및 문제점을 차기 정부의 아젠다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사례, 분석 등의 종합적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돋보임.
- 또한,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이라는 주제의 협동연구는, 정권교체기를 감안하더라도 환경 위기, 감염병 위기, 인구 위기, 양극화 위기,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국가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바탕으로 국가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영전략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보고서에서 법제적 분석 및 제언의 대상을 자본시장법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여타 법제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가능성을 지니는 분야에 대한 확장성이 함께 고려되었다면, 일반화를 통한 보다 공고화된 이론적 제언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성 차원의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함.
- 대체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인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국가 모델의 정립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논의들이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가치 거버넌스 또는 견고한 거버넌스(robust governance) 등과 같은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본 과제의 경우, 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해 분석 내용의 유기적 연결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점이 아쉬움.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요청 및 정책 현안 대응 노력을 통해 정부조직 디자인, 규제와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 제공, 규제정책에 대한 사후규정영향평가센터 설치 건의,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대한 제안 등의 노력을 보임.
- 경영목표TF를 구성하고 다양한 직급 구성원이 참여하는 3개 분과에서 환경분석 및 델파이 회의를 통해 3대 경영목표, 10대 현안, 8대 추진전략, 17개 실천과제를 도출함. 대내외 심층적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수요자 맞춤형 경영목표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경영목표가 적정한 현황분석 도구를 통해 수립되고 실천계획도 경영목표와 적절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정책 연구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시퀀스가 이뤄졌음.
- 내외부 간담회, 연구협의회, 이슈발굴 세미나 등을 통해 실천계획에 따른 균형있고 다양한 과제를 수행함.
- 17개 실천과제는 100% 달성하였고, 달성도 평균 비중은 29.4%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실천계획간 CASCADING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된 계획이 요구됨. 현재는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1~2024 연도별 연구계획이외 실행사업 과제의 도출과 성과 확산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실천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난이도에 따라 성과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 달성 성과로서 제시된 17개 과제의 정량적 성과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파급효과 미미하므로 보다 전향적인 목표관리가 요구됨.
- 실천과제와 평가지표간 적합성이 다소 낮고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에 부합하는 과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음.

- 과제별로 정량 또는 정성적 성과지표의 설정은 가능하나 정성지표라 하더라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근거에 따라 실적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실적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기관 현안 해결을 위한 정기적, 비정기적,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경영전략 및 목표 공유를 위한 소통 노력이 있었음.
- 여성부원장 최초 임용 등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처우개선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통한 기관장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분야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활성화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길 권고함. 또한, 향후 각 의사소통 채널이 어떤 분업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시행되길 기대함.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이슈의 경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향후 다양한 의사소통 사안들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세미나 20회, 위원회 13회, 토론회 4회, 인터뷰 5회, 강연 4회, 간담회 50회, 기고 3회 등 기관장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있었던 점이 돋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장의 적극적인 대외적 활동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본 기관의 경영목표와 정체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투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음. 또한 이러한 대외 활동이 기관발전에 어떤 효과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수행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회 중심의 대외활동에 집중한 측면이 있고,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역량 축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측면은 다소 아쉬움.
- 연구회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기관을 상대로 한 대외 활동을 인정함.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연구회와의 협업은 평이한 수준으로 판단됨. 또한 보다 다양한 잠재적인 정책 수요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정책현안 대응과 공공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활성화

〈우수한 점〉

- 공공리더십 개념 정립과 정책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수행했으며, 공공리더십 강화와 국정과제를 연계하고자 함.
- 성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확장의 노력을 수행함. 즉, 국회방문, 국회의원과의 회의, 정부혁신 포럼, 제주시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정례화 합의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내부 조직체제를 개편(1본부 9실 6센터 9팀)하고, 행정한류 공공리더십연구실 신설, 4대특례시정연구원 및 몽골국립대와 MOU 체결 등의 노력을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공공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플랫폼 활성화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이 미흡함.

(2) 소통과 협력의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과 유능한 행정인 양성

〈우수한 점〉

- 기관장이 설정한 경영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 목표 및 내용이 효과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선정의 논리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수행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되었음.
- 직급별, 세대별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조직 내부의 민원해결을 통한 구성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처우개선TF, 연구원역할 정립TF를 통해 연구직과 행정직의 합리적인 경력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부연구위원 승진제도를 검토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제시된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 및 실적이 큰 변화라기보다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성과로 보임.
- 연구기관이라는 성격에 비추어볼 때 ‘유능한 행정인 양성’이라는 표현 및 방향성이 어색하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만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행정·정책분야의 연구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버크만진단의 필요성이 모호하며,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쉬움.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관이 직면한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연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간담회, 정책연구협의회 등 다차원적으로 추진함.
- 신정부 출범 및 국정 기조 변화 등 새로운 연구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다수 발굴하여 추진함.
- 부서 및 개인 단위 업무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단위 업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상체계를 통해 업무 개선의 효과를 기대함.
-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위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단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강화함.
- 직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문조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충 외에 직원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홈페이지 직원 검색 기능 탑재,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등 기관 경영에 반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총 9개의 TF를 운영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 실적으로 부족함.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공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노력이 필요함.
- 현재 기관의 성과관리 활동은 부서 및 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관의 목표 달성 및 성과 관리는 미흡함.
- 기관-부서-개인 간 체계화된 목표 관리를 통해 기관의 전체적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와 개인의 목표를 부여 및 관리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단체협약, 제도개선 등을 위한 노사간담회 외에 노사 간 신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한 실적이 다소 부족함. 예를 들어, 수시대화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설명회, 공정운영위원회, 위원회 등이 대부분이며, 노사 간 화합과 신뢰 증진을 위한 소통은 부족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중기 사업 연계 인사관리와 장기 사업 예산 추이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의거하여 조직 인력, 채용, 정원관리의 인사운영을 실시함.
- 대내외 중장기적인 환경변화요인(정년퇴직, 임금피크제 운영, 인건비 예산추이, 신규사업 추진 계획 등)을 분석, 반영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통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 채용관리, 정원관리 세 방향의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수립 및 운영함.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교육훈련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업적평가에 있어 연구직의 연구 성과 평가의 계량화 비율이 72%이고, 비연구직의 경우 개인 KPI와 부서 KPI 등을 포함하여 45~55%의 상당한 계량화 비율을 포함한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존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은 제도적으로 우수하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다 확대 강화된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실적이 양적으로 미흡하며, 내용도 감사 및 윤리 관련 내용이나 통계패키지의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문 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노력이 요구됨.
- 교육훈련비의 집행 내역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절대 액수도 낮은 편으로, 교육훈련비의 절대 액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확대하여 기관 외부와의 유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하여 연구 및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관련 규정, 제도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대외활동 관련 지침 변경 시 관련 규정 개정으로 대응하고, 해당 개정을 구성원에게 홍보 및 공유하기 위해 노력함.
- 대외활동 신고절차 진행 시 일상감사를 통한 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전직원 대상 원내 인트라넷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를 완료함. 특별복무점검, 자체감사 등 근무관련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함.
- 연구연가자 대외활동 공지 및 원내 공직기강 기간을 적극 홍보함.
- 연차축진제, 연차저축 등 전 직원 연차휴가 사용을 홍보하고, 해당 제도 사용을 권장하도록 노력함.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연가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리함.
-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한 직원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원내 개인별 메신저나 인트라넷을 통해 분기별 유연근무제 신청 및 시행 알림을 공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 신고비율이 전년도 3.7%에서 9%로 증가하였고 연구직과 비연구직 모두 허용범위 내 신고 비율이 저조하여 기관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대외활동 10일 초과 신고를 줄이기 위한 기관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외활동 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경고조치 등 세부 징계 사항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필요함.
- 대외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관 특성에 기인한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직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감사원 감사에서 대외활동 미신고 및 지연신고로 경고나 주의 등을 지적받아 이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사전예방제도를 정립하려는 개선노력이 필요함
- 내외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실적이 미흡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유연근무제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유연근무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유연근무제가 시차출퇴근제로 한정 운영되고 있어, 유연근무제 관련 직원 니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임.
- 연차휴가 관련 규정 마련 및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완전히 소진되지 못하고 있어 기관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
- 연구연가 기간 중에 연구실적물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연가 개시 직후 실적물 제출은 연구년의 연구실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출산휴가와 배우자 휴가 실적이 양호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보임.
- 대체인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해 조직개편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함.
- 기타 태아검진시간 청구 육아휴직, 난임치료 등 사용실적이 양호하여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가족돌봄 휴가 규정이 유급으로 10일 이내 운영하고 있음을 규정에 기술하고, 추후 실적보고서 등 평가자료에도 정확하게 기술하시기 바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22년도 저연차 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우개선 및 연봉제 계약 실시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년대비 비정규직 인력이 6명 늘어나고 전체인력의 약 20% 수준임에 따라 비정규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정규직을 축소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마련이 시급함.
- 특히 연구직 인력의 약 23%가 비정규직라는 점에서, 앞으로 기관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중장기적인 인력 및 예산 계획 마련방안이 필요함.
- 비정규직 사전심의위원회를 연1회 운영한 실적이 있으나 재직자들에게 업무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게 인력이나 사업계획과 연동하여 현실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안정화를 위해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중장기예산계획-사업계획이 연동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안정화를 위한 실적개선이 필요함.
- 설문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안정적 상시소통의 통로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전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퇴직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경험 및 업무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대교체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종별 퇴직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구직과 비연구직이 각각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하고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업무경감이 차별받지 않는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퇴직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임금피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역할 변화가 없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관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 설계가 미흡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휴넷을 활용하여 대면, 집체교육 실시 대비 접근성 강화 및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제고를 통한 교육 내실화 노력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전직원의 교육실적이 우수함.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최근 법개정 내용을 반영 등 윤리경영 규정현행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일상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내부신고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관리와 결과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온라인시스템 도입, 위원 풀관리, 검증절차 진행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 전 단계별로 외부전형위원 참여와 비율에 대한 채용규칙을 활용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갑질종합대책 수립, 클린신고, 담당자 교육강화 등이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인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전담 조직 지정, 인권경영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등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처리 사례 발생시에는 사례의 원인을 살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례발생에 따른 특별 직원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사례 발생 건 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시행, 옴부즈만을 활용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재발방지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사회적 책임 지표와 관련된 윤리규정들, 인권영향평가결과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매우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기관평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함.
- 윤리경영교육의 체계가 신입직원에게 한정된 교육이라는 점, 청렴유지 교육에 관리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고, 반부패, 청렴 관련 교육은 1번에 그치고 있음.
-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실적을 검토하고 개선함에 있어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견제시스템의 일환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옴부즈만제도 운영사례를 살펴 도입을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 내부신고제도는 있으나 외부신고사이트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개편이 필요함.
- 친인척 채용결과는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함.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징구,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기일내 대금 지급, 청렴위반시 계약해제, 감사담당자 입찰참가 등 불공정거래방지세부 항목별로 실적을 관리해나가기 바람.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청렴한 채용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회 개최한 실적이 있으나, 연말에 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회의임.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경영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인권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가 단순히 결과점검지표에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과정의 중요지침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반기 내에 인권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권영향평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 후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인권리스크 분석 등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홈페이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인권경영가이드라인에 맞춰 결과를 충실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함.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12.5%(행정인턴 9명)로 우수함.
- 멘토링, 교육,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직원 채용시 우대조치로 한국행정연구원 청년인턴 유경험자 1인 채용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 예산으로 연구개발적립금(79,984천원)을 추가 운용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 배정 예산 집행률 100%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교육훈련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은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의 자원이긴 하나, 행정인턴과 연구인턴의 보다 균형있게 채용하는 노력을 권고함.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NET) 분석 결과 여성인력 고용비율은 54.44%로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32.26%)보다 높아 우수함.
-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
-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여성보직자 목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성보직자 비율은 전체 관리자의 34.78%로 동종업계 평균(17.24%)보다 높음.
- 연구원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제위원회 구성 시 여성인력비율을 고려하는 등 기관 내 양성평등 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부서장 임명 시 여성 보직자 임명 우선 검토 진행하고 있음은 긍정적임.
- 최근 137인중 74인이 여성 관리자비율로서 양성평등의 비율을 준수하고 있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인 폭력예방 통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을 실시함.
- 온라인 교육 이수 도입을 통해 고위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의 부서장 참여율이 100%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자의적 기준에 따른 실적측정에 머무르지 말고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계획-실적-개선을 위한 선순환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 자체의 연도별 여성보직자 관리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나 신규 채용실적이 없어 신규채용, 대체인력채용, 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22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약 34%에 달하고 있으나 전년 실적에 비해 개선된 바를 명시하고, 이를 매년 실적 개선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연도별 혹은 중장기적 여성관리직 목표제에 따른 목표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플랜도 제시되어야 함.
-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직원 참여율 91%, 부서장 참여율이 90%로 100%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 장애인 청년인턴 2명을 채용함.
- 장애인 구인 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제정, 채용시 장애인 우대조치(전형별 5점 가산점 부여) 등의 노력증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의 상시 업무협조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노력 증임.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정부권장정책 이행 일환으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계획을 반영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에 대해 다양한 채용규칙을 제시하고 있음.
- 특별고용 법규 및 절차 마련. 보훈처와의 공조를 통한 채용 노력은 고무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소 미흡함(8월~12월 미달성). 즉,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대폭 절감하였다고 하지만, 고용부담금 자체가 없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 채용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세부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율이 1.5%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2022년 국가유공자의 우선 구인활동 노력으로 인한 실제 성과는 거의 없음.
-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11건 중에 10건을 완료하고, 1건 추진 중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가 확인된 점이 긍정적임.
- 비상임감사의 감사업무체계 고도화 및 감사역량 향상을 위해 연 29회에 걸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비상임감사 활용 방안을 이행한 점이 우수함.
- 감사인력 전문성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감사원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 등의 교육을 통해 전년보다 교육 이수자가 증가했고,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2명인 점은 우수함.
- 비상임감사와 감사실 간의 수시 회의 등을 통해 협력과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임.
- 사전예방 활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전직원 안내서 작성 및 배포한 점, 직장 내 갑질 관련 전직원 안내서 작성 및 배포한 점, 그리고 공직기강 실태점검 4회를 실시한 점이 긍정적임.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개선조치를 하려는 노력은 우수함.
- 특별감사로 인해 원내 직원간 품의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건 등을 징계 조치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동 대안 모색뿐만 아니라, 공통 지적사항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나 진단을 통해 연구기관 자체의 선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건의함.
- 비상임감사 업무협의를 29건으로 일시와 내용이 확인되지만, 대면과 비대면 협의의 효율성이나 실제 비상임감사의 검토의견 등 기여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 및 관리가 동반되면 비상임감사 활용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감사실장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감사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여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노력도 수반하길 건의함.
- 감사교육 내실화 제고를 위해 온라인 및 강의 수강 이외에 자체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자료 개발과 감사대상 부서나 리스크 취약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사전예방 교육을 위한 워크숍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함.

- 교육 수요에 따라 대상자별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실제 교육 이후 전문성이 강화되었거나 업무 지식 함양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를 관리할 것을 건의함.
- 자체감사 결과 중에 동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상시 가동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 또한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의 전 직원 공유 및 확산 채널을 통한 사전예방 효과성을 입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감사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단순 교육자료 공유가 아닌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및 현업부서별 리스크 취약사항 사례집을 통한 워크숍 등 구체적인 계획 반영과 성과를 확인할 방안 마련을 건의함.
- 특별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여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및 견책에 따른 사후관리에 있어 이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건의함.
-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다수 사항이 지적되었고, 특히 법인카드 포인트 기관 수입 미처리 부정정 사례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하는 노력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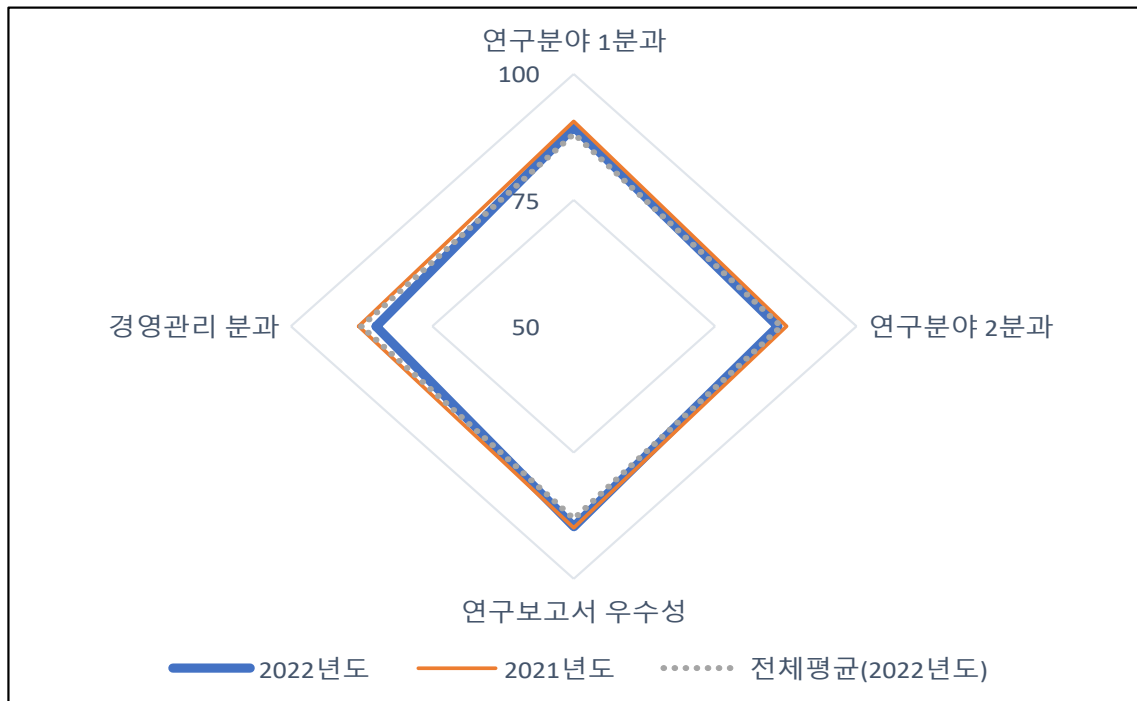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B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B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S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S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B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B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A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A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C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A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C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B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B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C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D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다학제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외부 구성원 간 자율적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연구윤리에 대한 외부점검 노력을 강화함.
- 법무부 등 핵심 유관부처와 긴밀한 정책연구실무협의를 통해 긴급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연구 수행 단계별로 정책실무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 비연구활동을 통한 성과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긴급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제 발굴 및 수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주제가 시의적절하며, 제시된 정책대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적시성이 있음.
- 또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정부국정과제 및 관련법 개정안에도 정책대안으로 반영되는 등 실질적으로 정책화에 많은 부분 기여하였음.

[경영 분야]

- SWOT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에 따라 4대 경영목표, 11대 추진전략을 도출함.
-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이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조직 내 경영목표 실천계획 TF를 구축하여 민첩한 조직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관련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했고, 만족도조사 결과 구성원이 원규제 개정에 긍정의견을 표함.
- 다만, 기관장의 대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전문가 그룹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조직운영 전략을 도출 및 시행하고, 타당성과 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등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기관의 대외활동 관련 교육홍보와 자체감사를 통한 복무관리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짐.
- 비정규직 규모 안정화를 위한 계획과 안정적 소통통로 마련이 필요함.
- 직종별 적합 퇴직프로그램 마련과 퇴직프로그램 활성화 유도가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중 사업분야 평가지표는 없으므로, 가이드라인에 맞춰 경영분야 외에 사업분야에 대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2022년도 청년인턴 운영 계획 수립에 따라 채용 및 운영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다만, 청년인턴 배정예산 전체 집행률을 100%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2022년 여성 신규채용 비율 상승 및 여성관리자 고용 비율 달성,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전반적인 여성인력 활용 노력이 우수함.
-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주요 키워드를 STEEP분석으로 도출하였음.
- SWOT 분석으로 KICJ 중장기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수립해서 연구원의 중장기 경영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음.
- 전주기적 연구관리 및 환류시스템을 확립하고, 연구기획 전 과정에서 경영목표, 대내외환경, 국정목표를 고려한 이슈를 발굴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함.
- 수요자별 참여 채널의 다양화 및 수요조사의 실질화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연구 기획 참여를 증진하였음.
- 유관부처 게시판에서 국민 제안 의견을 조사·분석해서 일반 국민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대상 기관을 다양화하고(행안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하고 개최 횟수를 늘려서(전년 대비 55% 증가) 과제발굴을 강화함(23개 기본·일반 과제 중 16개 과제 발굴).
- 국회 입법 관련 공동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여 실적이 양호하고, 국민제안 및 외부수요조사를 통한 과제발굴 활동이 활발함.
- 정책 수요분석 TF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영역에 부합하는 정책현안을 3개 영역으로 도출하였음. 3개영역은 형사정책 관련 국정과제 분석, 유관부처 정책과제 분석,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이며 이를 토대로 KICJ와 연관된 27개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음.
- 국정과제, 유관 부처 정책과제,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연구과제를 확정함.

-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선정(소년범죄,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등)과 정책대안 실적이 적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외 연구동향분석을 정책환경분석과 동일함.
- 국가현안대응결과에 적시된 연구과제 10개 중 현안 연계성이 인정되는 과제 수 비율이 높지 않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12%로 권고기준을 준수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횡수가 전년대비 40% 증가하였고, 전년에 비해 정책연구원실무협의회의 대상기관을 다양화하였음(행안부, 서울시, 병무청,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로 확대).
-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평가와 정책연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개의 연구 과제를 중점연구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협동연구를 ‘정책기획형’, ‘융복합강화형’, ‘기관협력형’ 3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협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굴하고 선정함.
- 2023년 23개 연구사업 중 17개(74%) 사업에서 협동연구계획을 수립하였음.
- 기본 일반 수시 연구개발적립금 과제를 제안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국정과제 관련성” 및 “관련부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기본 일반연구사업의 국정과제 사업계획 반영은 100%임.
- 정부부처가 제안한 과제비의 비율은 기본연구사업비 총액대비 38.7%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화 필요
- 협동연구에 있어 협력기관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기관 적격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음.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본·일반과제의 최종보고서 평가방법을 연구분야별 상대평가에서 연구과제별 절대평가제로 변경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제공하는 등 최종보고서 평가의 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조치함.

- 연구보고서 평가표의 양식과 평가지표를 개선함(연구기획의 우수성 평가지표를 연구수행의 연구기획 부합성 평가지표로 변경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
-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위원회 심의방식을 개선함.
- 착수 및 중간 심의 자문위원을 동일인으로 위촉하여 연구자문 활동의 연속성을 제고함.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심의 및 평가 시 외부 정책실무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함.
- 다양한 전공분야 연구진을 활용하여 융복합 연구진을 구성하고 협업을 권장함으로써 2022년 총 39건 연구과제 중 82%인 32건의 과제에 대해 학제간 융복합 연구진이 구성되도록 유도함.
- 연구보고서 발간일은 잘 준수되고 있음.
- 다양한 전공분야의 내부연구인력 및 파견공무원이 참여하여 자율적인 주제 및 분야별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실무가의 인적 정보 및 전문영역을 DB화 하여 공동 및 협업연구가 필요한 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공동 및 협업연구를 촉진함.
- 전체 80개 수행과제 중 협동연구과제는 58.7%인 47개 과제로 적정 비율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의 유형 간 비율 편차가 적은 편임(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협동연구를 적절히 수행 중).
- 전체 47개 협동연구과제 중 기관 자체기획 과제 27개, 연구회 기획 과제 3개, 기타 연구기관 주관 과제 12개, 국제협력 연구사업 6개로 협동연구 대부분이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수행중인 전체 수시과제 중 유관부처 제안 과제 비율이 62.5%로 수시과제에 대한 내부 연구진의 주도성이 부족함.
- 착수보고서의 연구진 피드백은 평가결과 피드백 이후 3개월 이상 주어진데 반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연구진 피드백 기간은 20일 정도에 불과해 보고서 수정에 충분한 시간이 배분되지 못한 상황인 바, 피드백 기간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임.
- 최종보고서 평가 방법을 절대평가제로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는지 모호함. 방법 변경에 따른 내외부적 문제점에 대한 평가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최소 30%의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에도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없음. 협동연구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할 필요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표절검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과제제안 단계까지 연구윤리 자가점검 절차를 확대함.
- 연구윤리 외부점검단을 22명에서 28명으로 확대 충원하는 등 연구윤리에 대한 외부점검을 강화함.
-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연구윤리신고센터 수시 운영함.
- 자가점검, 상세점검(외부), 종합점검, 최종점검의 4단계 다층점검 시스템을 가동함.
- 최종보고서 표절률 평균 5.7%로 안전 기준에 근접함.
- 생명윤리 중점 연구윤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생명윤리 준수에 대한 원내 구성원의 관심을 제고함.
- 논문게재지원금 신청 및 학회 참여 국외 출장 시 별도 점검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횟수, 내용, 참여율(연구자 맞춤형의 경우 90% 이상 참여)의 적정성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구성비 낮음.
- 연구수행 각 단계마다 표절검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연구자 자가점검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가능성 있는 바, 자가점검 서류 제출을 어느 정도 간소화할 필요 있음(과제 제안에서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5번의 확인서 제출 해야함).
- 평균 표절률 5.7%로 매우 양호한 편이나 표절률 수용 가능 권고 기준 20%로 설정한 것은 너무도 관대한 기준 적용. 10% 정도로 권고 기준 강화할 필요 있음.
- 연구윤리교육 총 6회 개최했으나 이 중 3회가 신규직원 맞춤형 교육이며 교육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교육 효과의 한계 노정함.
- 외부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예방 및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등 외부연구자 연구윤리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연구윤리 교육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율을 확대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2022년도 성과확산 목표를 1.연구원 명칭변경 1주년 대외홍보, 2.홍보채널 다변화 및 연구성과 확산 환류 체계정립, 3.국제교류 및 해외연구성과 확산으로 정하고, 연구기획,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확산,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를 수립하여 홍보·성과확산 수립체계가 적절함.
- 기관명칭변경 1주년에 따른 대국민, 유관기관등 대외 홍보를 확대하고, SNS등 첨단정보화 플랫폼 기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전문자료 및 정책자료 제공, 언론소통 기반 연구성과 확산,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기반 연구성과 확산, 각종 행사 기반 연구성과 확산 등 확산수단을 다양화하고 실적이 우수함.
-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를 적절히 함.
- 법무법인 관련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확산 실적이 우수함.
- 34,656의 국문 간행물 및 10,575의 국제간행물의 연구성과물을 배포하고,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실적이 우수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경영목표, 추진전략, 성과목표,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 전략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 수립이 적절함.
- MOU 기관 운영실적, 국외 네트워크 구축 실적, 연구인력 교류·활용실적, 국제공동(협력)연구 등 수행실적이 우수함.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실적, 연구역량국제화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개선·이행실적이 우수함.
- UN ODC, 부다페스트스, 국제범죄,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
- 글로벌 스탠다드 과제화 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함.
- 범죄통계 DB 활용도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유튜브 조회수가 저조함. 국민적 관심분야가 많음에도 저조한 이유를 규명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하기를 제안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60건의 연구과제를 NKIS에 등록하여 100%의 등록률을 보임.
- 기타성과물 NKIS에 등록률도 100%에 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수요자의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 필요함. 정책수요자가 원천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경진대회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활성화 필요가 있음.
- 수시과제 4, 기본과제 1(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중 일부)의 NKIS 등록기한 권고기준을 위반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정 과제 관련 반영 정도 및 사회적 영향력 고려 정도가 우수함.
- 현안, 스톡킹, AI등 신기술을 접목한 범죄, 국가 간 금융문제 관련 현안 등, 국정과제 중 수시 현안 과제 비율이 적절함.
- 연구원 규모 대비 국정연구과제 수행 건수(79건), 투입인력(413명), 투입예산(약 54억원)의 적정성이 인정됨.
- 유관 정부부처에서 수행한 22개 국정과제에 참여하여 총 53건의 수탁과제를 수행하였으며(수시 연구 8건), 그 실적이 스톡킹처벌법 개정안 등에 반영되는 입법적 성과를 거둠. 특히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 TF/세미나 참여 등 적극적인 비연구활동을 통해 제시한 입법 및 정책자료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 국정과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경찰청) 등).
- 대표사례로 제시한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의 대표사례 선정과정 및 제도 및 법령화 노력 정도가 우수하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정과제 수행 의지가 돋보임.
- 대표사례의 적극적 수행을 통해 국회 입법토론회를 거쳐 발의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에 핵심적인 기여를 함.
- 연구추진체계,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연구내용의 시의성과 중요성, 연구성과의 우수성이 모두 인정됨.
- 주요성파로 국회 입법토론회 참여, 법률안 발의 준비 등 법제처에 입법 예고된 성과 등을 산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학교 교육 관련 교육 폭력 관련 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2022년 성매매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서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학제 간(학회연합) 학술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학제 간 학술활동의 결과와 국정과제 지원과의 연계성 및 성과로의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함.
-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과제들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의 우수성으로 선정된 과제는 성과업적에 있어 가시성이 높은 면은 있으나, 연구과제의 구체적 성과 업적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관리 체계 구축을 다각화하고 기여정도 관리 체계화를 통해 정책기여도를 제고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현안 및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함.
- 연구과제 심의평가 시 정책실무자 의무 참여를 통하여 연구결과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 실무자 의견을 청취함.
- 새정부 국정과제지원 및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수요분석 T/F, 경영 목표실천계획점검 T/F를 신설하여 운영함.
- 연구기획-수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특히 정책기여 평가 및 관리체계의 연계 방안을 구축함.
- 연구보고서 평가단계에서 정책실무가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자문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정책 기여 관리 노력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기여 수준이 높다고 제시하는 반면 정책 기여 성과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향후 정책 기여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명칭 변경 이후 형사 정책 이외에도 법무정책 영역의 연구가 수행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관의 역할이 확장된 만큼 형사정책과 병행하여 법무정책과 관련한 적극적 연구수행과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반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제주 4.3 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와 같이 연구결과가 법령 개정안 마련 또는 정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통한 국정과제 대안 제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핵심 유관부처와 긴밀한 정책연구 실무협의를 통해 긴급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연구수행 단계별로 정책실무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긴급연구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 특히 정책수요분석 TF를 신설하여 수요 분석의 틀을 전체적으로 재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선된 성과를 이루어낸 점은 유의미함.
- '22년에 수행된 32건의 긴급 수시/수탁과제의 내용이 청소년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행과제의 적합성이 인정됨. 특히 AI 기술발전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나 아직은 개념적 정의마저 불완전한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선제적 연구수행은 시의성과 적절성이 우수함.
- 정부부처 현안과제에 즉응하기 위하여 수행된 긴급 정책자문, 이슈페이퍼를 통한 긴급현안 정보의 제공 등 비연구활동을 통한 기여 성과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현안과제 파악을 통해 수시연구과제를 발굴 수행하였으며, 수사권 종결 관련 등 10건의 수시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형사사법 현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과가 우수함.
-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전체 과제에서 수시연구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은 편이고, 정부 부처에서 제안한 과제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시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유관부처 제안 과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유관부처 제안 수시과제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증가시킴.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5.6%,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80%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정부부처 현안과제 비율이 18.5% 증가하여 긴급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이 개선되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긴급연구 및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제 발굴 및 수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수시연구과제 중 유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23년도에는 자체 발굴 수시과제의 비율도 적정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요청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주제가 시의적절하며, 제시된 정책대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적시성이 인정됨.
-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련된 정부 부처, 국회 및 전문가들과의 충실한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이 진행되었음.
- 다수의 연구 성과가 법률에 이미 반영되었고, 현재 발의된 다양한 입법안에도 반영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책화에 많은 부분 기여하였음.
- 국제학술대회, 각종 세미나 및 학회 등에서 정책 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는 등 정책수립과정이 우수함.
- 현 정부 공약 기획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법무부 정책연구협의회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활동이 우수함.
-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노력이 적절함.
- 정책수립과정에서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교육참여 및 델파이 조사,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을 통한 연구 이행이 우수함.
- 전반적으로 연구비용 대비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연구결과가 실제 현 정부국정과제 및 관련법 개정안에도 정책대안으로 반영되는 등 향후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클 것으로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연구에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이해관계자(피해자) 또는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포함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
- 기존의 법체계를 변경하는 정책제안에 있어서는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법률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국민법감정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제안이 필요함.
- 일부 연구주제는 그 연구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실제 책정된 연구예산, 연구기간 및 연구 인력이 부족함. 대부분의 정책대안이 미치는 높은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향후 전반적으로 연구환경(연구비 증액, 기간연장, 연구원 확보)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역량강화가 필요함.

- 연구를 통해 정책제안한 새로운 기관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안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파악하고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효과를 추세적으로 평가할 것을 건의함.
- 시민단체 및 대국민(피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연구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후속 연구, 학술대회 및 관련법안 발의 등을 통해 연구과제 결과가 보다 정책화(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제안된 정책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효과나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출된 연구보고서 전반에 걸쳐 연구방법의 충실함이 돋보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대표적으로 인정됨. 일례로 형사증거법 개정 연구의 경우, 근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수사구조의 개편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형사증거법의 체계 정비 및 개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잘 반영했음. 대체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 및 쟁점 논의를 통한 동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국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의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다룬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재해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실효적인 예방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죄의 피해 실태 및 그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연구주제의 선정, 기획의 우수성, 및 시의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우수함.
- 같은 연장선에서 무인점포 범죄피해 관련 연구도 향후 활용성이 높아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회의 도래로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무인점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한 시의성 높은 연구라는 점에서 우수함.
- 다년 연구과제들의 경우도, 연구원 본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잘 디자인 된 연구설계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활용하여 정책 대안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제시된 기초정책연구보고서의 경우 미흡한 점 역시 발견되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 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 특히, 정책 대안 모색에 있어서 기존 정책들을 미시적으로 개선한 경우가 많아서, 향후 정책적 실효성 기대라는 차원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예를 들어,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관련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미시적 개선방안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형사법무정책 분야의 특성상 연구 과정에서 개념적 정립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생활 단위로서의 가구와 주민등록법의 세대, 민법상 가족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차이를 분명히 했더라면 연구의 구체성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동일한 연구 설계 안에서 다루다 보니, 결과적으로 연구보고서의 가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었음.
-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몇 군데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2년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제출된 두 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선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들에서 기능하고 있는 특사경의 현황과 실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특사경의 발전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법집행공무원 성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법집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연구가 진행된 점이 돋보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보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음.
-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국내 판례 분석에 있어서 강제 추행, 강간 등 죄명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별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있어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법리 판단에 있어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 판단이 달랐는지 등 판결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비판 등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SWOT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에 따라 4대 경영목표, 11대 추진전략, 22개 실천과제, 세부추진과제 117개(2022년) 120개(2023년) 119개(2024년)를 도출함.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이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내부직원 설문조사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관내 각종위원회는 보직자 이외 비보직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경영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실천계획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몰입을 유도함.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PDCA 체계를 근간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조직 내 경영목표 실천계획 TF를 구축하여 민첩한 조직운동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경영목표 실천계획 TF는 직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경영진과 실무자간 피드백 등을 성과목표에 몰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경영목표 실천계획 TF를 통해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정기적인 성과달성 평가를 실시함.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목표달성 수준과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진행하는 등 성과모니터링 노력이 돋보임.
- 세부추진과제 달성도 점검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지표 139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달성도를 점검하고 있음. 성과지표의 달성은 추진사업별로 다양한 실천수단과 연계하고 있음.
- 기관장 2년차 성과목표는 100% 달성하였으며, 누적 달성도는 32.9%를 충족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경영환경분석에 SWOT 도구 이외에 대외환경분석도 포함할 수 있는 데, 다양한 분석도구 활용이 보이지 않는 점이 다소 미흡함.

- 경영목표와 실천계획과의 연계전략에 대한 세부설명이나 방향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며, 연계수단에 대한 분석이 없음. 실천과제 실행을 위한 연계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고려한 과제의 신설 및 핵심과제의 관리 등을 중심으로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가 획일적으로 100%로 표시되어 있음. 추진전략과 과제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적극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목표치의 적정성 수준의 부적정 (정책보고서 발표 평가 시 정책수요자 참여 1회 이상 등), 목표 달성 판단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 기본과제 및 수탁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이, 사회적, 정책적 수요에 대한 예측을 반영한 도전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을 건의함.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함.
- 연구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했고, 만족도조사 결과 98% 이상 구성원이 원규제 개정에 긍정의견을 표함.
- 기관 내 다양한 위원회 등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구성원의 기관운영 이해도를 제고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인정되나, 향후 차제에 개설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각각 고유한 어떤 차별적인 효과를 야기하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도적 완성도를 지향하는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을 기대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기관 홍보활동을 전개함.
- 비대면 온라인 화상시스템 활용 온오프라인 회의 진행이 활성화 되었고, 기관장의 대외 활동을 디자인 하는 과정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외부 강연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언론인터뷰와 기고 등에 있어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 기관장의 대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전문가 그룹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향후 비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정책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기대하는 바임.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공정·공존 사회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토대 마련 및 확산

〈우수한 점〉

- 사회환경변화, 법무행정 요구 급증에 따른 연구영역 확대, 그리고 경영 비전을 결부한 중점추진 사업 선정의 적절성이 우수함.
- 법무정책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사업수행을 위한 법무정책연구실을 신설, 세미나의 정례화와 다양한 법무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 개최, 유관학회, 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 구축, 국회, 정부 등 다양한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수행체계를 구축한 점은 우수함.
-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4개의 성과지표(사업추진체계 구축, 연구사업수행, 정책화 및 입법화, 대국민 홍보)를 설정하고 각 영역별 달성률을 체크하여 체계적인 사업수행의 노력을 기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증거기반 형사정책 수립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

〈우수한 점〉

- 정책 합리화와 과학화를 추구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과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보편적인 목표를 연구원 본연의 문제의식으로 적절하게 전환한 점이 인정됨.
- 추진사업의 실천을 위해 범죄분석조사연구실, 범죄통계 및 형사입법연구회 운영 등 조직개편을 시행함.
-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정량적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연구성과 축적 및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됨.
- 정보통계연구센터 신설 및 디지털센터로의 승격, 체계적인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시, 연구회의 정례적 운영, 학회 및 국가기관과의 협업, 보고통계와 조사통계, 증거기반 형사정책입법 연구를 위한 특화된 자문회의와 강연회 등 제반노력이 두루 적절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공정, 공존 사회’를 위한 법무정책연구토대 마련 및 확산이라는 중점추진사업방향의 실현을 위한 과정적 노력에 비해 증거기반 정책 달성의 구체적 성과제시가 미흡하므로 실질적 연구내용의 변화 및 궁극적인 정책 변화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증거기반’ 정책과정 합리성 제고를 위한 수행체계와 플랫폼 구축, 연구수행체계 강화, 정책수요자 중심의 연구기획 기능강화가 ‘안전사회’와는 어떤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지 구체적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

(3) 디지털 기반강화를 통한 ESG 경영 실천

〈우수한 점〉

- 디지털기반으로 연계한 ESG 경영은 출연연 중 최초로 해당되며, ESG 경영을 위한 디지털 전문 부서 신설, 교육체계 정비 등 추진체계 마련 노력이 인정됨.
- 디지털화를 통한 Paperless 관련 성과가 존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디지털 기반강화를 통한 ESG 경영이라는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사업의 구체성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됨.

- 홈페이지 전환과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전환 등 paperless 업무환경 구성 외에 성과 도출이 미흡하므로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애매한 성과가 많아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성과 도출 노력을 기대함.
- 중점추진사업으로서 ‘디지털 기반강화를 통한 ESG 경영실천’의 구체적 과정과 노력이 ‘에너지 감소탄소중립’, ‘사회적 문제예방’, ‘디지털거버넌스 확립’ 등 성과와의 관련성 명확화가 필요함.
- ESG 경영 실천내용이 ESG의 본질적인 추구 목표에 미흡함. 예를 들어 G의 경우는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감사, 경영공시, 인권경영, 노사관계 등이 포함되나, 현재 본 기관이 제시한 ESG 경영실천 내용은 이러한 본질적 요소들을 적절히 담고있지 못한 점이 아쉬움.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조직운영 전략을 도출 및 시행하고, 타당성과 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등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 법무정책 연구 강화 등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 법무정책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정책연구실’을 ‘법무정책연구본부’로 확대 재편하였으며, 기관이 창출한 연구 성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협력실’을 신설하여 언론 및 온라인 등 성과관리홍보를 강화함.
- 부서 신설 및 확대 중심의 조직개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 인력의 재배치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정책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특히 새정부 출범 및 국정 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영목표 실천계획TF’를 운영함.
- PDCA 기반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영목표 수립-실행-점검-환류’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함.
- 연구분야와 경영분야를 구분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등 연구 공공기관으로서 연구와 경영 간 균형을 유지함.
- 노사 협의 외에 설명회, 인권 실태조사, 격려회 등 화합 및 신뢰 증진을 위한 노사간 의사소통 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기관장과 직원 간의 간담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직원 의견을 적극 청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명칭 변경, 2022년 새정부 출범 등 대외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전략의 고도화 노력이 다소 미흡하며, 조직개편 외에 조직운영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개선이 필요한 경영 분야, 개선 목표 등을 구체화하고 개선 노력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발굴하는 등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주제 발굴 외에 수행한 연구의 질적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우수성과 확대를 위한 조직 차원의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부서-기관 등 다차원적 수준에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신규로 확장되는 법무정책 분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중기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 기존 우수인력 유지를 위하여 고용계약제 폐지, 직원 승진임용계획 수립 등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제도를 운영함.
- 직종 및 직급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직군 및 직급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서 연구수요를 예측하고, 여러 시나리오별로 계량적 회귀분석을 통한 합리적 미래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중기인력수요 분석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실적이 ‘공통’, ‘연구직’에서 중복적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음.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더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업적평정 항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평가지표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음. 비연구직의 계량항목 비중이 부서장은 20%, 부서원은 30%로 설정되었지만, 계량화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세부 측정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 유형별 관리기준과 대외활동 요강 위반 시 제재기준을 포함한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화된 대외활동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음.
- 분기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활동 관련 교육홍보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임.
- 자체감사를 통한 복무관리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이 마련됨. 연구연가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년도 연구연가 대상자를 조기 선발하여 연구자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넓힘.
-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전년 대비 대상자가 증가함.

- 선택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전용단말기에 입력된 출퇴근 태그기록을 측정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형은 근무일에 최소 1회 이상 단말기 체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함.
- 유연근무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출근이나 업무 시각을 대리 기록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주의조치, 근로시간 불인정, 보상휴가 미부여 등 합리적으로 징계조치를 규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점검 및 실적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고의성이 없어 단순 과실로 처리하고 있으나 시스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연구직에 한해 발생하고 있어, 원인 파악 및 10일 초과 사후신고 감소를 위한 연구직 대상 사전신고 홍보 및 교육, 기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연가기간 중 또는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1회 이상 학술지 게재 의무를 두고 있는데, 실적물 제출의 경우 연가기간중이 아닌 종료 후 6개월이나 1년 이내로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안식년 연가계획 및 연구 프로포절 제출이 형식적으로 제출되지 않고 연가기간 중 성실한 연구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충실한 연가계획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절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출산 휴가 대상자를 파악하여 대면, 이메일 등을 통한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였음.
-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대체인력 4명을 채용하는 등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태아검진휴가, 보건의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가정 양립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계별, 즉 임신을 앞 둔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lifecycle 별로 정리하여 홍보하고,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하길 바랍.
- 실적이 없는 제도들이 있는지 살피고,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무원직 근로자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연차별 승진제도를 마련하였고 '22년에 승진한 실적이 있음.
- 공무원직 근로자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정규직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급여 수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2년 이전에 비정규직 전환 규정을 운영하고 전환인력(1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는 전년대비 비정규직원이 늘어나 전체 인원의 약 16%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정규직 사전심의제' 등을 활용하여 비정규직원 규모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계획마련을 권고함.
- 비정규직의 고충을 듣기위한 정기적 소통통로 마련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업무조정을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우수함.
- 중장기 인력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직종별 적합한 별도의 퇴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퇴직프로그램 활성화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별도 정원으로 채용된 인력과 향후 퇴직을 준비하는 퇴직자와 교류 등을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가가기 용이한 콘텐츠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고 다른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여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반부패교육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청렴이야기, 청렴 OX퀴즈 이벤트, 청렴메시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성원 인식을 제고함.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일상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 관리와 결과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온라인 클린신고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유형별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채용비리 예방교육 참석율이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온라인 채용시스템활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채용 사후관리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행동강령 개정, 협력업체 청렴메세지 발송 등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자체실시로 전환하여 추진하였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인권리스크 분석 등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거나 마련 중에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매우 다양한 윤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부 교육의 이수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전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명예퇴직금 지급시 승진임용제한기간에 있는 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이 미흡하나, 현재 개정작업중으로 확인됨.
- 반부패 청렴 교육에 있어 전 직원 대상 참석율이 81.1%와 관리자 대상 68.4%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를 위한 성과유형을 발굴하여 교육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감사시스템은 기관 내의 감사관련 내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제도변화의 노력이 요구됨.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통제수단으로 청렴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실제 운영실적을 관리해나가길 바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인권지침에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고, 인권경영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의사결정력이 약화되고 있음. 의사결정과정에서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의지가 반영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위원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체계가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해 외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 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연말에 1회 개최에 불과함.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경영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인권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가 단순히 결과점검지표에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과정의 중요지침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반기 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권영향평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수가 기관운영분야 132개이며 사업분야 평가지표는 없으므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관경영분야 외에 사업분야에 대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 영향평가결과 긍정비율이 전체 132개 평가지표 중 116개로 긍정률은 87.8% 수준이므로 향후 인권경영계획 및 영향평가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해나가기를 권고함.
-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경영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직원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므로 직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인권침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구제절차 운영에 대한 실적 제시가 미흡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신고창구는 있으나 외부신고창구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완하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00%(3명 계획 대비 행정인턴 3명)로 양호함.
- 전반적으로 2022년도 청년인턴 운영 계획 수립에 따라 채용 및 운영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 배정예산 전체 집행률을 100%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예산대비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목표치 달성을 위한 인원 채용과 더불어 예산소요액에 맞게 인력을 채용하는 것 검토를 권고함.
- 정기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정하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우수 인턴에게는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여성 신규채용 64%(전년도 62% 대비하여 2% 상승)와 여성관리자 고용 비율 25% 달성함.
- 전반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우수함.

- 여성보직자 비율이 60%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점이 긍정적임.
- 총 3명 여성승진자의 실적과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을 70% 이상 충족함.
- 2022년도 재직자 중 관리자직급 여성 비율이 46.1%(52명 중 24명)로 전년도(45%) 대비 1% 상승함.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이 3차례에 걸쳐 시행됨.
- 4대 폭력예방교육 참석률이 90% 달하며,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
-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 의무 대상자인 부기관장, 부서장 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팀장급까지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팀장급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직 분위기 조성 노력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실효성 있는 경력단절 여성채용 확대를 위한 적합직무 발굴 등의 다양한 노력을 권고함.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의 활용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여성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채용, 승진, 위원회 구성, 보직자 임명 등 인사상 각 단계별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여성인재 양성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성과로 직원의 참여 및 독려로 기술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율의 증가 또는 홍보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부서장 참여정도가 88.8%와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77.8% 저조하여 100%로 개선이 필요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법률안 의견조회, 원내 공지사항 게시 등)하고, 장애인에 대한 상향된 가점(10점)을 부여하는 우대사항을 공개경쟁 채용 시 모집공고에 명시하는 등 우수함.
-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인프라 확대,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총 6회 실시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함.
- 공개채용시험으로 채용 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채용우대사항을 모집공고에 명기하도록 규정(전형단계별 5~10점 반영), 직원채용규칙 제8조(합격기준)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1.6%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장애인 채용실적이 없음.
- 가점 10점을 부여해도 지원자 2명 자격기준 미달로 이어진 부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장애인 특별 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가점부여 우대사항의 활용을 제외하면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구인수단과 방식의 활용은 다소 미흡하여 적극성이 요구됨.
- 2022년 국가유공자 고용비율 4.8%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17건 중 16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정무위원회의 연구사업비 집행 부진에 대해, 인사고과 시 예산집행률을 반영한 점이 긍정적임.
- 감사 전담부서와 감사 담당업무, 감사실장 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서울지역 감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인사이동과 근무평가에 대해 감사와 협의한 점이 우수함.
- 자체감사시스템 비전과 중장기 전략, 추진과제,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법인카드 모니터링, 분기별 예결산 점검, 복무점검, 채용 모니터링, 온라인 클린신고센터 등을 적절하게 운영한 점이 바람직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렴 퀴즈, 청렴메시지,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과 같이 청렴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시행한 점이 긍정적임.
- 휴폐업장 결재를 포함하여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온라인 클린신고센터를 사안별로 기명 및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여 재구축한 점이 긍정적임.
- 자체 정기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등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동 대안 모색과 더불어, 공통 지적사항에 관한 연구기관 자체의 선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재무감사와 다른 감사업무에 대한 역량 체계를 제시하여 감사실장과 감사담당자별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온라인 클린신고센터 재구축 이후에 사용자의 체감도와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를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직원이 참여하는 대면교육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3. 한국환경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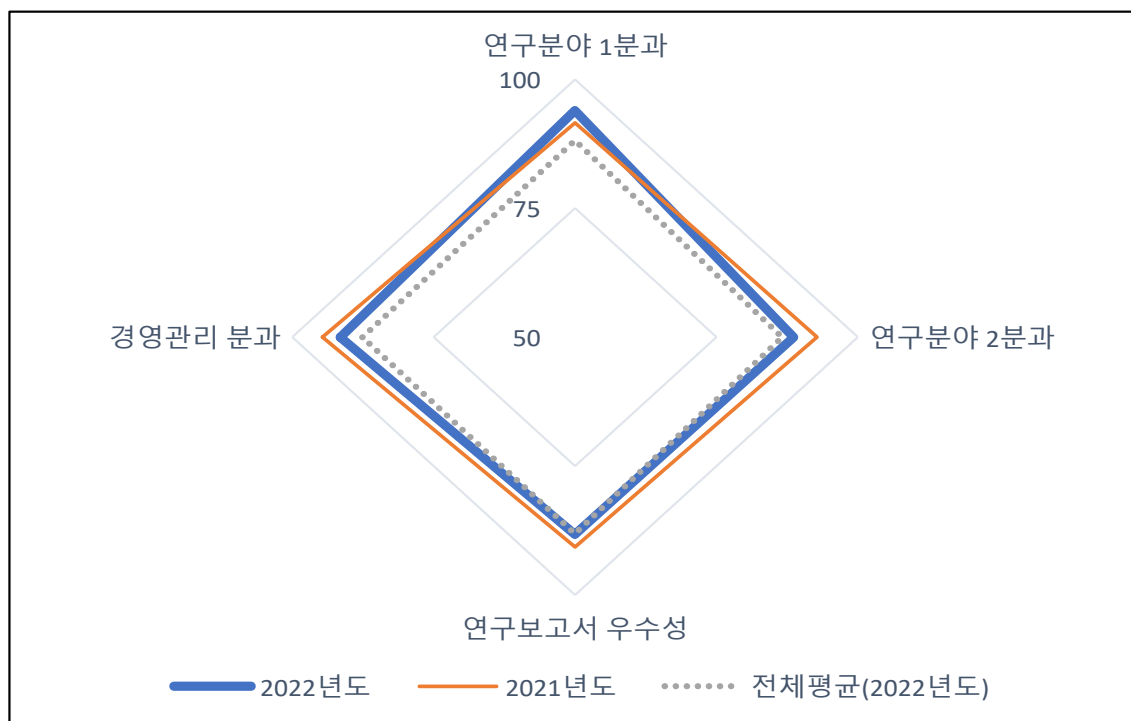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S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S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A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S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A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A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S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A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S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A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B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A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홍보 및 소통채널을 확대하였고, 일반국민제안과제 선정률이 증가하였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효과적인 협업 달성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내부 융복합연구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4단계에 걸친 정밀한 연구윤리 자체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함.
- 새 정부 국정운영 및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였고, 긴급연구 수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다만, 정책연구협의회 등의 파트너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미세먼지, 순환경제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관련부처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 공청회 지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유관기관과 의제 공유 및 정책 협력 추진 등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나, 국민 대상 정책 필요성 홍보 및 정책 대안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우가 있음.
- 현실적 제약 하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연구과제 전반에서 분명히 드러나나, 일부 정책대안의 경우 다소 원론적인 차원에 그침.
- 정부의 법정계획 수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원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정책화 성과가 분명히 드러남.
- 입법화 및 정책화는 연구결과의 우수성이나 자체 노력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관련 법제 신설 및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미쳤는지는 다소 불분명함.
- 정책 집행사업의 예산 내에서 집행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업무 추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자체평가를 통한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집행사업에 대한 국민이나 정부, 공공기관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사, 반영하는 환류 노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보다 체계적인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경영 분야]

- 대내외 연구 및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경영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경영 효율성 등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비정규직 규모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재정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전문성이 기관에 남을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여성인력 채용비율의 지속적 증가, 여성보직자 비율 등이 높아 여성인력 활용이 우수함. 또한,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및 여직원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통해 여성인력의 연구(업무) 효율성 향상 및 근무 유연성 지원이 우수함.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은 기준보다 미흡함.
- 감사교육을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한 것과 감사 활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이 있는 점이 우수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환경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설계 및 연구과제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빅데이터 분석, 현안이슈 분석, 미래전망 등에 기반한 정책 제안서 선제적으로 발간하여 국정 과제화에 기여하였으며,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홍보 및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일반국민 제안과제 선정률이 크게 증가하였음('22년 2.1% → '23년 33.8%).
- 대국민 연구수요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가 과제발굴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5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음.
-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현장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인프라 및 산업관련 시설·기관 방문을 추진하였음.
-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홍보 및 소통채널을 확대하였고, 일반국민제안과제 선정률이 증가하였음('22년 2.1% → '23년 33.8%).
- 국민과함께위원회 구성원 조정을 통해 민간연구소, NGO, 지자체연구소, 학계 출신 위원의 비율을 고르게 구성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참여를 2021년 5인에서 2022년 139인으로 확대 되었고 그 결과 최종 5건의 과제로 연계되었음
- 선제적 현안분석을 기반으로 긴급수시과제(6건), 연구개발적립금 자체연구개발사업(1건)을 기획 수행하였음. 긴급수시과제를 3개월 단기간에 수행하고 신속한 성과확산을 위해 포럼을 개최 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홈페이지 연구과제제안 코너에 21년 3건 22년 1건이 제안되어 있으나 4건 모두 접수 중으로 표시되는 등 유명무실함.

- 환경관련 산업체 및 기술사들과의 협업 강화 필요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한 과제발굴 건수(4건)가 현저히 적음.
- 정책연구기획 TF가 구성원의 정책이슈 공유 세미나가 아니며, 전략적 기획 및 구성이 필요함.
-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다소 부족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과제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 일부를 축소하고 일반국민 제안과제 발굴을 확대하였음 (정부 부처 제안과제 87.2%→66.6%).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17.2%임.
-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의 정량적 평가 비율을 확대하고,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은 충분한 토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해서 6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음. 기본연구과제보다 1.6배 예산을 추가 배분하였음.
- 해외주요기관(IOER, IGES)들과 공동워크숍을 개최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기본과제 선정 시 국제 공동연구 부문을 별도기획하여 국제공동 연구로 선정하는등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국가 정책의제 및 사회적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다분야 학제 간 협동연구 수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을 구성하고 있음.
- “글로벌 환경 싱크탱크 KEI 2030”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2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함.
- 총 14개의 융복합연구단을 구성하여 133건의 협동연구를 수행함.
- 2022년은 연중에 새로운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와 관련한 긴급 수시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6건 완료하였음.
- 기본 및 일반 연구과제에 국정과제 반영율이 100%이고, 긴급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한 긴급수시과제가 6건임.
- '23년도 기본연구과제비 총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비 총액 비율이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탄소중립, 기후위기와 같은 미래이슈에 대해 협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육성이 필요함. 전문가는 협력기관들과 함께 인력풀을 구성해서 같이 협동연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의 협력파트너를 경사연 이외의 기관들로 확대 심화 시킬 필요가 있음.
- '22년도에 선정된 총 133건의 협동연구 협력기관이 경사연 산하 연구기관에 편중된 면이 있음 (다양화 노력 필요. 플랫폼 확장).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기본·일반연구과제 등 기관 고유과제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 안을 마련함.
- 연구형 일반과제의 83%에서 데이터 성과물을 도출해서 IDR 등록하는 등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성과물을 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함.
- 연구수행과정에서 효과적인 협업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 2개 실·센터 이상의 구성원으로 내부 융복합연구단(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환경빅데이터연구단, 기후변화 리스크연구단 등 총 14개) 구성·운영함
- 수시연구과제 연구진의 특정 분야 편중을 예방하고 다양한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과학과 이공계 학문 간 협업을 장려함.
- 연구품질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연구운영회의, 연구품질제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세미나, 연구자문단,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연구실적확인단, 연구윤리점검단 등 관련 TF 통해 품질 관리).
- 연구보고서 발간도 적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연구사업의 협동 수준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는 배점 체계 마련하고(참여 연구진 기여율이 커질수록 가점 확대 부여), 협동연구과제 평가시 가산점을 최대 20% 부여함.
- 협동 및 융복합 연구과제의 경우 협업 평가지표를 별도로 마련해 과제 평가를 실시함.
- 전체 수행과제에서 협동연구과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9%로 매우 높음. 특히 기본·일반 과제 31건 중 96.8% 공동 및 협동연구로 진행함.
- 133개 협동연구과제 중 110개 과제를 주관할 정도로 협동연구과제의 주도성이 매우 강함.
- 대표사례로 제시한 협동연구에 참여하는 기관도 각 분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융복합 효과가 극대화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나치게 과도한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연구행정 관련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연구자의 자율 연구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기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정부부처 공무원 1인이 필수적으로 자문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연구제안자로서 공무원, 국민 등이 연구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평가) 등 연구 수행 과정에 참여한 실적이 드러나지 않음.
- 협동 및 공동연구가 중요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장려하고 촉진해서 공동 및 협동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연구 책임의 분산과 무임승차문제 발생 등)도 예상 가능한 바 기관 차원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협동 및 공동연구 비중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 있음.
- 133개 협동연구과제 중 110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협동연구를 주도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기관 차원에서 엄청난 행정적 부담과 연구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는 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협동연구의 파트너 기관이 주로 경인사연 관련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대상기관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외부 연구윤리 검토위원 선정을 통해 연구윤리 충실성 사전 점검함.
- 연구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구윤리 검증단 인력의 40%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함(5명 중 2명 위원 변경)
- 4단계에 걸친 정밀한 자체점검 체계 구축 운영함.
- S등급 '3년 연속 클린 연구기관' 2회 연속 달성함.
- 수요자 특성별 교육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매우 체계적으로 실시함(신입직원, 연구책임자, 연구 참여자, IRB 연구과제 참여자, 연구윤리 담당자, 연구직 및 출판 담당자 등).
- 연구윤리 위반 신고센터 상시 운영하고 이메일 안내를 지속 실시하는 등 실질적 운영을 위해 노력함.
- KEI 연구윤리 위반 사례집에 부실학회 참가 적발 사례와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원내 공유함.
- 부실학술지 게재여부를 개인 직원평가 실적과 연계해 부실학회에 대한 경각심을 전파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교육을 수요자 특성별로 잘 구분해서 세밀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연구수행단계별로 특성화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임.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수행단계에 맞춰 필요한 연구 윤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맞춤형 교육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국가 R&D 연구윤리 관리 규정에 부합토록 내외부 위원의 구성비 등 조정 필요함.
- 외부점검단 5인이 연구윤리 검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업무 부하량이 과다해 보이는 바, 외부 점검단 규모 확대나 전문성 강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 소통의 장 운영은 신선한 면이 있으나 사실상 진행 내용만으로 볼 때 효과성에 의문이 가는 바, 정확한 효과를 점검해서 형식적인 측면만 있을 경우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신고센터가 실질적으로 자체 연구윤리 점검 과정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 필요함.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관리 시스템 상 외부 전문가 구성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 극대화 및 글로벌 선도 기반구축을 목표로, 연구성과의 홍보·확산체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확대,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국민참여형 활동추진,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세미나 개최, 신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대국민 소통을 공고히 함.
- 다양한 수요층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이벤트, 콘텐츠를 통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성과 확산수단이 다양하고, 실적이 우수함.
- 70,106건의 연구성과물을 배포하고,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 실적이 우수함.
- 국문보고서의 영문 자동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국제협력기능을 강화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KEI 경영목표 추진전략하에 글로벌 KEI 토대를 마련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계획수립이 적절함.
- 4건의 MOU체결, 3건의 아세안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3건의 국제공동(협력) 연구수행, 5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수행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 5건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10건의 국제공동워크숍·세미나, 3건의 개도국 역량강화 워크숍, 17건의 국제회의의 활동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 환경은 국제환경과 연결된 주제로, 2030 KEI 글로벌화 추진 로드맵 추진계획이 적절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EI TV 등의 조회 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언론 활용도, 세미나 등 개최 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양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국제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우수하나, 수탁연구 1건, 공동연구과제 2건, 국제공동(협력) 연구수행 3건 등의 실적에 그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성과 면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87건의 연구과제를 NKIS에 등록하여 100%의 등록률을 보임.
- 40건의 기타성과물을 NKIS에 등록하여 등록성과가 우수함.
- 원천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portal 오픈을 통해, 연구 결과 수요자들이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고, 데이터 활용, 데이터를 이용한 경진대회 등 데이터 활용 창구를 다양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자료 기반 현안분석(데이터 활용의 분석적 접근) 및 능동형(토론, 자문 기반의 적극적, 종합적 접근) 현안분석을 통해 정책이슈를 도출함.
- 기관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국정과제 및 현안을 도출해 국정과제 대응의 우선순위, 대응방향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함.
- 국정과제 수행체계가 매우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고 국정과제 대응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종합적임. 즉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가 양적·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7개 정부부처 국정과제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6개의 법률 및 지침 제개정을 지원함.
- 2022년 총 25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투입인원은 1,344인, 전체 예산은 약 410억 원으로 수행 성과가 우수함.
- 국정과제 수행 대표사례로 제시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 과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국정과제 87번과 88번의 두 개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어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 대표사례 선정 사유가 적절함(일반사업으로 수행된 국정과제 수행 대표사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국내 정책을 지원하는 성과를 창출함).
- 대표사례의 주제 선정을 통하여 국내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지원하여 정책 대응을 충실히 수행함.
- 산림 및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관련 DB 구축하여 국제인증 근거 기반을 마련함.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제안을 통해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성과를 도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정책 기여 관리 프로세스가 적절하고, 기여도의 단계별 관리 체계 등이 우수함.
- 연구과제의 기획 및 발굴단계에서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확대하였으며,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실시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실적이 개선되어 과제발굴 실적이 22%로 증가함.
- 연구자문위원에 포함된 정책수요자들과 연구 종료 후에도 소통을 지속하고, 정책 기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책기여도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정책기여도 평가실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기존의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입법이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기피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냄.
- 성과확산 및 환류를 위해 각종 포럼, 세미나, 영상보고서, 정책자료 등을 통한 성과확산을 도모하고, 성과 검토 결과를 연구 기획 및 관리 단계로 환류하여 연구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정책기여 인센티브를 확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의 긴급성, 시급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관리 노력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새 정부 국정운영 및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정부 중점추진 정책과제, 뉴노멀 시대 환경정책 추진전략과 과제, KEI 12대 환경정책 제안과제 등을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하는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함.
-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라 상시 현안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 현안대응 방향 설정 및 제안을 하였고, 긴급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1개월 초단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국정과제의 긴급성과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긴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FAST TRACK 제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
-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6건의 긴급연구를 수행하여 석유사업법 개정안,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의 제개정에 중요한 입법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정책의 입안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3.5%,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 과제 비율이 72.4%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 전년도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총 20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대선공약 관련 8건, 환경부 제안 11건, 해양경찰청 제안 1건), 과제내용 또한 적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연구협의회(3회)를 모두 환경부 장관과 개최하였으나,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으로 다각화하여 기관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발굴 주체를 보다 다양화하고, 환경부에 집중되어 있는 부처 협력네트워크를 해양수산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연구’의 경우,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시 원료 단계부터 폐기 및 재생 단계까지 주요 요소를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은 친환경 제품 선호의 현실 속에서 독창적이며 시의적절한 연구로 판단됨.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누적위해성평가 연구’의 경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수용체 중심의 위해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생활제품에 포함된 다수물질의 누적위해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정책대안의 적시성이 우수함.
- ‘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책적 활용 기반 마련 연구’의 경우, 국토환경성 평가 기준 근거 마련 논의 및 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방안 논의에 참석하고, 협의체 구성 및 결정사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 포럼 참석 등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표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의 경우, 현행 다양한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기준으로 통일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탄소중립 전략 이행에 따른 2030 미세먼지 대기질 전망 및 동시 감축 정책 방향 연구’의 경우 언론 보도 등 일반 국민 대상의 정책 필요성, 구체적 정책 대안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써줄 것을 건의함.
- ‘지자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의 경우, 관련부처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연구 내용 공론화 및 관련 정책 제안, 정기간행물 작성, 성과발표회 발표,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평가위원 활동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평가기간 이전에 대부분 발생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학술적 우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시된 입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2022년 기후변화적응 민간대행사업’의 경우,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구축 및 기후적응 주류화 기반 마련, 기후적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업무로 업무량 및 구성인력,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는 것 보이는 점이 우수함.
- ‘환경영향평가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 경우, 자체평가, 점검 등 일상적이고 내부적인 집행관리체계 외에도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 경우,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양적인 측면 이외에도 질적으로도 평가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 진행 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실 것을 건의함.
- 2022년 기후변화적응 민간대행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세부사업별 성과 지표 및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세부사업(예 : 사회기반시설 분야별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지원 등)에서 계획서 상 사업내용 달성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볼 때 우수함.
- 제출된 연구보고서 전반에 걸쳐 연구방법의 충실함이 돋보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대표적으로 인정됨. 구체적인 예로, ‘기득 댐용수’ 관련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각 지역의 물문제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인 현실을 고려할 때,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했음. 통합 물관리 이후 바뀐 물환경 정책 상황에서는 첫 연구 사례로 판단되며, 정책적 기여가 높음.
- 연구 보고서 구성이 체계적이고, 가독성 있게 명료하게 작성된 사례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의 경우,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며 지하수 이용권의 모호한 개념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정비한 점이 돋보였음. 국내 쟁점 사항과 외국 사례 시사점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특화된 지하수 이용과 배분 원칙을 선정한 방향이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충분한 데이터 확보에 노력한 경향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책 활용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임.
- 다년 연구과제들의 경우도, 연구원 본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잘 디자인 된 연구설계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활용하여 정책 대안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음.
-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제시된 기초정책연구보고서의 경우 미흡한 점 역시 발견되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 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 예를 들어, 폐기물발자국 평가기법을 다룬 연구에서는, 연구결과가 얼마나 독창적이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연구 설계 및 기획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기술수요자 중심의 탄소중립 관련 연구에서는, ‘기술수요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정보를 공급받기 원하는가에 대한 분석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연구의 한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연구 내용 중에서, 비용을 검토할 때 고비용 이더라도 시급하게 도입해야할 기술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할 기술이 있다면 어떠한 요인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비용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술 개발 전망적 측면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 내용들 중에는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몇 군데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한국환경연구원은 2022년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제출된 두 개 보고서를 참고로 할 때, 지역 환경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의 경우, 지역별 환경현황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 본 과제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임했는데, 다년연구 과제 특성에 맞게 단계별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한 점을 확인했음. 지역적 환경 현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국토 개발 및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연구 주제는 시의 적절하고 우수함.
- 탄소중립 정책 연구의 경우, 전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에 대한 포괄적 정책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주제 선정의 우수성과 시의 적절성이 높은 점에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몇 가지 우수한 점에도 불구하고, 환경 현황 분석 관련 연구는 연구 결과들이 환경매체별로 정리 되었을 뿐, 분야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탄소중립 관련 연구 역시, 주제 선정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내용의 기계적인 결합과 기술의 한계로 대규모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다소 미흡하였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SWOT 분석을 통해 대내외 연구 및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영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조직운영 방안을 발굴함
- ‘사회적 갈등 사업 추진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해결방안 모색’ 과제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2022년 제2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함.
- 상시관리체계와 현안대응체계 등 이원화 체계를 통해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주기적으로 조직목표 달성도를 모니터링 하는 등 성과 제고를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함.
- 노사협의회 및 임금 협약 외에도 전직원 소통, 노사소통 등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팀커벨(Team Communication Balance), 리버스(Reverse) 멘토링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 효율성 등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 노력이 다소 부족하며, 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공공기관 효율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과 적극성이 필요함.
- 경영혁신 추진을 위한 4개 실천과제의 추진 실적 및 성과가 다소 미흡함. 일례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충실히 진단되지 않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18개 환경 분야와 분야별 인력소요 제시와 시계열적 인력변화 양상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증원노력을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우수함.
- 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 해당 과정 평가 및 교육훈련 요구 조사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역량강화체계를 개선하고 있음.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실적평가와 역량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직의 연구 성과 평가의 계량화 비율이 80%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기준 계량항목은 60%로 높은 비율의 계량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존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기존의 일반화된 제도를 벗어나 제도적으로 보다 확대 강화된 보완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실적이 양적으로 미흡하여 보다 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연구직 교육훈련비의 삭감과 비연구직의 교육훈련 집행액의 저조한 수준 등에 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육훈련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직원대외활동지침, 직원원외겸직활동지침,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 규정과 제도 및 절차를 명시하여 운영함.
- 자체감사에 따른 근무관련 지적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자율통제 및 책임성의 강화와 동시에 감사실 대외활동에 대한 기능을 강화함.
- 자체감사와 대외활동 규정이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자체감사를 통해 근무관련 적정성을 검토하고 3건을 조치 완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적절히 작동되고 있음.
- 유연근무제 관련 규정과 지침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운영되고 많은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이 인정됨.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연가 대상자에 대해 심의, 선정 및 결과보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

- 개인별 연차휴가 소진율 전체평균이 100%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30분 단위 연차 사용 및 연차저축제 시행으로 직원 편의를 증진함.
- 원내에서 운영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수요세미나에서 자율연구 결과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도록 장려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0일 초과 대외활동 사후신고 비율이 낮은 편이나, 비연구직에 비해 연구직의 사후신고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직 대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설문결과를 토대로 기관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을 권장함. 구성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을 토대로 구성원 만족도 향상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권고함.
-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제 업무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자율연구 선발 이후 관리 체계를 규정화할 것을 건의함. 자율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율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 성과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발표, 포럼/세미나 참석, 학술지 게재 등에 대한 지식공유 확산 노력이 필요하며 불이행시 제재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인력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공백 최소화를 위한 휴직 여부 조기파악, 예산 규모 사전 파악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음.
- 육아휴직 사용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육아휴직 시 당사자의 불이익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운영 실적, 태아 검진시간 청구, 가족돌봄 휴직, 여성보건 휴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결혼,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단계별로 정리하여 매뉴얼을 배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사전심의기준을 개선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수탁과제가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전체 인력의 약 27%(총 309명 중 84명)가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과제 예산증가 등으로 비정규직 인력만으로 업무가 해소되기 어렵다면 중장기 인력계획 및 재정계획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실적이 개선될 것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성과급에서 차이가 높아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의 역할을 연구직, 행정직, 전문직으로 분리하여 설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신규채용자간 전문성을 전수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소통채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퇴직자의 전문성이 기관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규정현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전직원의 교육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이수를 독려한 결과 교육실적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둠.
- KEI 환경정책교육원에 부패방지 교육자료를 탑재하여 상시 수강이 가능한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이수결과는 직원 근무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일상 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와 옴브즈만제도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또한, 구체적인 실적관리와 결과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 제도 운영, 전형별 중복참여 배제,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징구,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기일내 대금 지급, 청렴위반시 계약해제, 감사담당자 입찰참가, 담당자 교육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연구직에 대해서는 채용단계별 전형위원 수와 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비율 중 외부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인권리스크 분석 등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보직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협력회사 계약 시 인권보호 준수서약을 징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전문성 혹은 외부 사회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청렴제도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실적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대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성격을 심의 혹은 의결기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인권경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잘 운영하고 있으나, 인권경영규정상으로는 외부위원 수가 2인 이상이므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연 1회 개최하였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수가 기관운영분야 167개, 사업분야 13개로 전체 180개로 사업지표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사업분야 지표개발 노력이 필요함.
- 영향평가결과 긍정비율이 전체 167개 평가지표 중 145개로 긍정률은 87%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해당없음도 15개로 많은 편이므로, 향후 인권경영계획 및 영향평가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기를 권고함. 특히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항목(성차별적인 제도개선, 여성 근로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외부 고객 등) 추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00%(행정인턴 11명)로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이 100%로 우수함.
- 2022년 총 13회의 인턴 채용을 실시함.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인턴 취업스터디를 실시하였고('22.6), 멘토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턴 출신 정규직 직원 및 채용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함.
- 청년인턴 직원평가 우수자에게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린 인턴의 채용 및 교육을 권고함.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최근 3년간 여성인력 채용(25%→41.7%→53.3%)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정부시책에 부응함. 2022년 기준, 여성보직자 비율 31%와 여성인력 채용 비율 53.3%로 여성인력 활용이 원활함.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및 여직원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통해 여성인력의 연구(업무) 효율성 향상 및 근무 유연성 지원이 우수함.
- 여성인력 고용의 환경 개선을 위한 파트타임 근무, 육아시간 활용 등의 노력이 긍정적임.
- 22년 여성 대체인력으로 14인 채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1.3)에 따른 공공기관 관리자 부분 연도별 목표(28%)를 상회하는 여성관리자 비율(36.6%)을 달성함.
- 성별 차별요소가 배제된 승진제도 운영으로 양성 평등한 승진기회 보장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
-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이수 비율이 부서장 교육 이수 94%, 직원 교육 이수 84%로 여성가족부 점검기준 75% 이상을 달성함.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의 부서장 참여 정도가 교육 이수 비율 100%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여성보직자 비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38.7%→39.3%→31.0%)로 원인 분석과 개선이 요구됨.
- 경력단절여성 고용개선을 위한 기관의 다양한 실적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 활용의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됨.
- 목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나, 다양한 기준을 참고하여 목표의 상향 또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함.
- 교육 이수율이 높으나 필수교육은 전직원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4.1%로 의무고용률 3.6% 보다 초과 달성하였음.
- 장애인 구인 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 제정,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서류심사 전형 5% 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인사규정에 마련함.
-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재 추천을 의뢰하며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함.
- 장애인 대상 제한경쟁 채용을 총 8회에 걸쳐 시행, 2022년도 5명을 채용함.
-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에 직장 위로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우대를 위해 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점 부여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 제고를 부서 핵심업무 계획으로 추진, 국가유공자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채용 공고 게시(22년 7회), 국가유공자 범주 확대, 전 부서에 국가유공자 제한경쟁채용 협조 요청 등은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3.29%(8인)로 기준보다 미흡함.
- 2022년도 국가유공자 신규채용 실적이 없음(1명을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중도 퇴직하여 0명으로 산정됨). 중도퇴직 원인 분석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특별 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개발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한 점은 긍정적임.
- 고용계약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 재임용 평정제도 개선을 완료한 점이 우수함.
- 감사 전담부서와 감사 담당업무, 감사실장 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 전문인력 2명으로 현원대비 0.88%로 국무조정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감사실 전문교육 연간 평균 62시간 달성하고 있고, 감사부서의 독립원칙과 독립 업무 수행의 내부감사규정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자체감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대외활동 10일 초과 지연신고 건이 21년 3%(159건)에서 22년 1%(62건)로 감소한 것은 모니터링 제도의 성과로 우수함.
- 부패방지(청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부패방지교육, 임직원행동강령 등 대상자별 교육방법을 차별화한 점이 우수함.
- 법인카드 사용과 대외활동에 관해 상시적으로 자체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자체감사를 통해 교육, 규정개정, 인사조치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실적이 긍정적임.
- 자체 정기 감사 실시를 실시하여, 전직원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활용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상임감사 활성화 방안 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비상임 감사의 검토의견 제시나 조치사항 의견 제시의 효과가 무엇인지 관리할 것을 건의함.
- 감사교육 내실화 제고 부분에 있어 교육방식 면에서 강의수강 이외에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를 개발할 것을 건의함.
- 감사교육에 있어 재무감사와 성과감사, 그리고 특정감사 등 교육 수요조사 실시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 실시와 감사교육 이전과 이후의 인식개선과 현업적용도 등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함.
- 연구수행 관련 부적정 경비사용 건에 대하여, 내부통제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계획을 명확하게 관리할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4. 건축공간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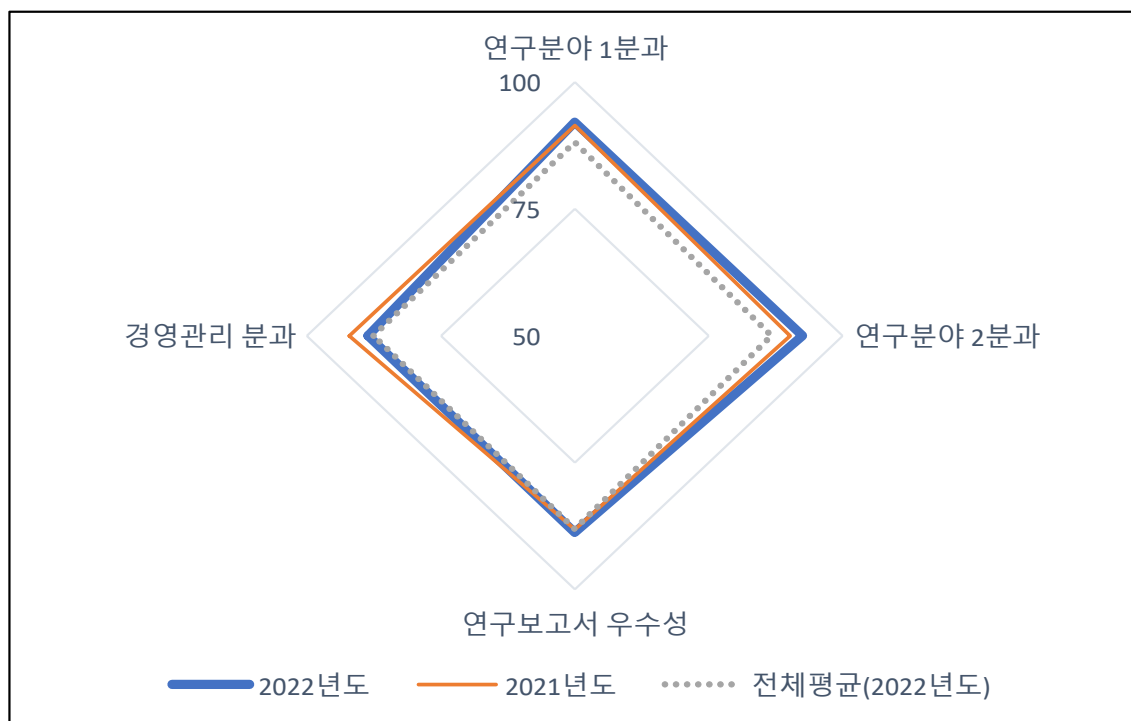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S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A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A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A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A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B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S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S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A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A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A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B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B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A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S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S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S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국민과함께위원회 구성원에 일반국민 참여를 전년 5인에서 139인으로 확대함.
- AURI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상호협력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동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축·운영함으로써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AURI 긴급현안 대응체계” 및 “현안 시급성 판단 기준”을 통해 긴급 연구수행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긴급연구 수행성과의 우수성도 인정되나, 연구과제의 긴급성을 판단하는 정책 현안위원회를 보다 전문화된 TF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의 전문 분야인 건축 및 도시정책의 대안이 구체적이고 시의성이 있으며, 정책 및 제도화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 법제화, 국정과제 등 우선 정책 선정,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등 다각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제안한 정책 및 사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시됨.

[경영 분야]

- 과거와의 차별화 및 체질개선 차원에서 5개 정책본부를 3본부 체제로 전환하여 연구부문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공간법제연구단, 빅데이터연구단, 주거문화연구단을 신설하는 등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짐.
- 비정규직 규모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재정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운영관련 계획과 의견청취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도록 반영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바람.
- 여성인력 신규임용, 관리자 목표제 달성, 내부위원회 등에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인력 활용이 우수함.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은 준수하였음.
- 외부 감사 지적 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체 감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점은 우수함. 전 직원 대상 감사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핵심 아젠다 발굴을 위한 연구동향 및 정책 모니터일, 정책동향 조사·분석, 정부기관 정책 의견 수렴,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의견조사, 국제 연구동향 분석 및 협력모색의 6가지 유형의 조사·분석 수단을 활용하였음.
- 글로벌 협력과 정책과제 발굴 노력으로 ‘국제 연구교류 지원 TF’를 구성하여 해외 연구기관 및 정책연구주제 분석, 중장기 국제연구 협력 로드맵 을 마련하였음. Texas A&M 등과 협동연구 발굴함.
-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홍보 및 소통채널 확대 성과가 매우 탁월함.
- 국민과함께위원회 구성원에 일반국민 참여를 전년 5인에서 139인으로 확대함.
- 연구주제 발전형 3단계 연구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과제의 질적 개선과 핵심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6개 유형의 조사분석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 이슈를 설정하는 등 연구기획의 체계성과 효과성이 인정됨.
- 대내외 정책 환경 및 이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22년 13건, '23년 27건의 연구기획에 반영함.
- 온라인 연구과제 수요조사(총 1,034명 참여)를 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우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전년도보다 반영실적이 증가하였음(5건 → 20건).
- 건축서비스산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산업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수요 파악 및 향후 연구 기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 정기 상시 연구수요조사 및 기획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책 수요자 유형별로 네트워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정책연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14건, 건축도시공간전문가 의견을 물어 72개 제안과제를 접수하여 8건의 연구과제를 기획함.

- 홈페이지 상시 연구제안 코너를 통해 접수된 의견이 반영하여 9건의 신규과제를 발굴 기획하였고, 건축산업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과제 반영 노력을 함.
- 정책연구기획 TF를 1개 총괄위원회, 산하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TF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건축전문가, 교수가 적절하게 참여하여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현안 이슈 발굴 관련 핵심 이슈와 긴급 이슈로 나누어 발굴체계를 운영함.
- 핵심·긴급이슈와 기관의 연구목표 및 중점연구주제를 연계한 연구를 기획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내외환경조사와 연구정책 방향을 보다 밀접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 연구제안 제목 및 건수 등 내용의 명확화가 필요함.
- 국민수요조사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건축정책 우선순위가 친환경임에도 그와 연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발굴된 과제나 아이디어가 연구과제 선정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부족함.
- 친환경 건축설계에 대한 정책 및 국민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과제의 비중이 기본연구사업비의 21.3%임.
- 연구발굴·선정을 6단계(환경분석 및 설정-과제기획 및 점검-과제접수-평가 및 선정-보완 및 조정-결과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단계별로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음.
- 2023년 기본과제·일반사업 총 27건 중 7건(26%)의 중점연구과제 선정하였음.
- 중점연구과제의 선정기준에서 세부기준을 적절하게 세워서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40.7%, 인력의 32%를 집중 배분하였음.
- 4단계에 걸친 협동연구과제 기획·발굴·선정 체계적으로 운영함.
- 자체연구, 연구회 협동연구, 수탁협동연구에 따라 양방향 기획·공모(Top-down + bottom-up) 및 과제 발굴을 함.
- '23년 총 27건 기본·일반연구과제 가운데 8건('21년 6건)의 협동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협동연구과제에 '23년도 연구사업비 총액(약 23억)의 약 30%(약 6.7억원) 중점 편성하였음.
- 27건의 기본·일반연구과제가 총 38개의 국정과제(2021년 30개)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 과제당 평균 3.2개의 국정과제에 대응하였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6.58억 원)의 30% 이상(3억 원, 46%)을 정부부처(중앙행정기관) 제안과제로 선정하였음.
- 3개 본부, 3개 연구단을 중심으로 정부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추출하여 관련 연구를 기획함(10개 과제).
-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총액 비중이 46%로 권고기준에 부합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에서 건축산업현장 전문가들과의 연구가 부족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상호협력적 연구환경 조성 위해 AURI 아카데미를 운영함.
- 연구회 재정정보시스템(NFIS) 확산 사업에 신규 참여해 2022년 이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고 2023년 시범운영 예정임.
- 연구본부와 연구단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과제 2건에서 7건, 수탁과제 21건에서 26건으로 전년대비 확대함.
- 타부서 수탁과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활동 점수 부여해 부서 간 활발한 의견 교류 촉진.
- 연구부서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AURI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을 위한 TF 구성, 6차에 걸쳐 AURI 아카데미 날 운영 성과를 축적함(원내외에서 브라운 백 세미나, 지식강연회 등 개최).
- 연구보고서 100% 정시 발간 완료함.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협력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고 우수 협동연구 과제에 대해 별도의 포상제도를 도입해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협동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협동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교류·학술교류·연구교류·현장 교류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축함.
- 전년 대비 협동연구과제수 2.3배, 예산 1.8배, 인원수 1.5배 확대하는 등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협동연구 과제 공모 과정을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여 공모토록 유도함.
-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협동연구 마일리지 배점을 기본연구과제의 1.6배로 상향하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 수행 연구진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및 '올해의 연구상' 선정시 협동연구 과제 우선 선정- 협동연구 비율 84.8%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일반연구사업은 100%, 기본연구사업은 94% 협동연구로 수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관계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업무협의 건수가 2021년 1,878건에서 2022년 1,779건으로 5.27% 감소함.
- 국내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음.
- 국제교류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교류 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 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성시 해외연구기관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대면 연구윤리 개최 횟수를 전년 1회에서 22년로 증회해 연구윤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연구윤리정보 플랫폼을 별도 구축하여 원내 정보공유시스템과 연계해 연구윤리 관련 자료를 상시 제공함
- 연구윤리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연구윤리 자체 점검 결과 제시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 연구자의 조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조치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2차 검증을 수행함.
- 연구윤리 자체점검 절차를 상시점검과 집중점검 체계로 이원화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윤리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검증을 위해 'AURI 연구윤리 자체 점검 환류 체계 운영 계획(안)'을 마련함.
- 연구윤리 평가결과 3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음.
- 외부연구진 연구윤리 관리를 강화함(연구윤리 서약서 및 연구윤리확인서 제출 의무화).
- 해외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및 해외학술지 논문 투고시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 '22년 저자표기 동의 및 확인서 14건을 접수 완료하였으며, 외부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잘 고지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 교육이 3회 실시로 적은 편이고 담당업무별 구분된 연구윤리교육 체계를 미구축함.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내부 부원장으로 임명하고 있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위원의 30%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있고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교육 참여율이 3차례 모두 50% 미만으로 현저히 저조함.
- 2022년 연구윤리위원회 신설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연구윤리위원회 외부 전문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의 홍보 확산체계가 우수함.
-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퍼스트’ 구현, 이슈페이퍼의 전면 온라인 발간 등 연구성과물 확산수단의 다양화를 꾀하였음.
-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대내외 홍보체계마련, 참여형 행사·콘텐츠를 통한 국민 소통 강화 등 확산 수단을 다양화하고, 성과확산 체계의 내실화 및 해외 홍보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68,014건의 연구성과물을 배포하고, 이슈페이퍼의 발간 및 배포실적이 우수함.
-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정책을 선도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국제연구교류 지원 TF’를 22.05~22.12중 구성하여 운영하고, ‘AURI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글로벌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MOU체결, 국제교류 가능성이 높은 연구분야 및 유관기관 주사 발록, 국제공동연구 수행 확대, 국제행사 기획 및 개최, 국외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협력 실적등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홍보인력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AURI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정하나, 국제공동연구의 내실화와 상호간 인적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 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발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37건의 연구과제를 NKIS에 등록하여 등록률이 100%에 달함.
-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실적이 100%에 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DB 구축 등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 지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현장 의견과 주거 공간 의제 설정 등이 우수하고, 연구 기관 규모와 성격에 비해 비교적 성과가 양호함.
- 국정과제 63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CPTED를 주도함으로써 63번 국정과제가 정책과 제도로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주제를 실질적으로 3건의 연구과제로 직접 반영함.
- '22년도 수행과제 총 116건 중 102건(87.9%)의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함 (21년 대비 2.6%증가). 이에 대한 구체적 실적으로 기본연구과제 12건, 수시연구과제 10건, 일반 연구과제 13건, 연구지원사업 1건, 협동과제 4건, 연구개발적립금 5건, 수탁과제 57건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수행함.
- 입법지원 28건, 정책지원 63건, 국가기본계획 사업화 12건 등 우수한 성과가 있으며, 국정과제 총 116건에 대하여 예산 143억원(총 예산의 88.3%), 연인원 425명이 투입되어 기관 규모 대비 적정함.
- '보행자 우선도로' 입법화 사례가 과제의 주제 충실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우수함.
-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22년 수탁과제)을 통하여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대응한 "국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 노력 정도가 우수함,
- 국내 범죄현황, 국내외 CPTED 관련 법제도 및 사례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설정하고 주요 목표 및 부처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함.
- CPTED 정책 및 제도를 통한 CPTED 활성화 기반 구축, CPTED 사업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시민 체감도 높은 범죄예방 생활환경 조성, CPTED 온·오프라인 네트워크(거버넌스)를 마련하여 범죄 예방 시너지 효과 창출을 주요 목표로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대표사례의 추진실적이 적절하고 국가 범죄예방 환경 개선 기본계획수립,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 규정 제정 등의 성과를 창출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연구성과 확산단계에서 정책기여 독려 및 종료과제 정책기여 지속 모니터링, 정책기여 관리 연구직 대상 교육, auri Brief 등을 통한 실적확산 노력과 성과점검을 통한 연구기획단계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함.
-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및 유관부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고도화를 추진함.
- 일반국민, 기업 등 다양한 민간 부문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 편성과 수행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대국민, 산업체,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수요조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3건의 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성과를 도출함.
- 연구 및 비연구활동의 성과가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건축·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입법화, 제도화를 위한 과정노력 외에 실질적 양적 성과의 가시적 도출을 위해 연구기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과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AURI 긴급현안 대응체계(‘22.04)” 및 “현안 시급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연구수행 체계가 타 기관에 비해 우수함.
- 긴급현안의 상시 점검을 통한 긴급연구수행 및 정책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Monitoring-Strategy Plan-Do-Check-Post Action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단기 긴급연구과제 18건을 수행함.
- 재해재난 대응 국민생활안전, 탄소중립, 건축규제 혁신, 건축도시 빅데이터, 보편적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미래대응 건축산업 등과 관련된 자체 수행 및 수탁과제 18건, 비연구활동 16건을 수행 함으로써 긴급연구 및 정부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특히 범죄방지와 관련된 건축 관련 연구를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됨.
- 정책제안, 정책자료의 제공, TF 참여, 자문 등 비연구활동의 수행을 통해 각종 지침의 제정 등 정책화에 기여한 성과도 우수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총 10개의 수시연구과제(정부부처 현안과제 7개, 긴급 3개)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처의 정책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수시과제 평가체계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 품질 관리 TF 산하 개별위원회의 운영 성과의 적정성이 우수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6.8%,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77%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수시 연구사업비 전액(100%)을 소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의 긴급성을 판단하는정책현안위원회를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TF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기본연구, 수시연구, 일반연구, 수탁연구 등 다양한 유형의 연구과제에서 건축 및 도시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과 성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함.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주제 선정이 선제적으로 사회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성으로 제시된 정책대안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건축 및 도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대안을 제시함.
- 연구과제 종료 이후에도 후속 연구의 수행과 정책 수요자와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사업 실행을 지원하고 있음.
- 과거에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성과를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법정계획 수립, 정책 및 사업제안, 입법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 일부 연구과제는 주관 부서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국정과제 등 정책화 및 제도화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의 주제가 연구원에서 설정한 아젠다 또는 국가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제시하고, 후속 연구없이 정책화 성과가 제시된 일부 연구의 경우, 연구부서(센터 또는 실) 또는 전체 연구원의 후속 노력의 과정과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성과는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성과를 제시하고, 국회, 중앙행정부처, 학술단체 등과 지속적인 토론회 및 학술교류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성과를 관리하길 기대함.
- 연구과제 성과로 제시한 정책과 사업의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효과 또는 국민체감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출된 연구보고서 전반에 걸쳐 연구방법의 충실함이 돋보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대표적으로 인정됨.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관련 연구의 경우, 도시지역의 공간적 계획단위로서 동네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하이퍼로컬 서비스 확산과 변화된 일상생활에 대응 가능한 근린재생 활성화 방안 제시를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 및 연구의 시사성이 매우 우수함.
- 또한 아동의 놀 권리를 주제로 다룬 연구의 경우, 본 연구주제가 그동안 국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해결에 있어 아동의 놀 권리, 아동을 위한 놀이자원망 구축은 국가정책의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점에서 우수함.
- 건축규제 사후 영향 평가 관련한 연구에서는,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 분석의 기본방향은 물론 기준제시 및 실행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의 시의성이 높고, 국내 유사제도와 함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기준을 도출하는 한편, 제도 중 하나인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실제 분석을 통해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실제 정책으로의 도입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임.
-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제시된 기초정책연구보고서의 경우 미흡한 점 역시 발견되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 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 예를 들어, 역사문화공간 관련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연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고, 사용한 방법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도출하는 결과도 기존의 것과 많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최종 결과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특히, 연구 결과물을 통한 실증효과분석이나 분석방법의 제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 또한, 역사문화공간이나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관련한 개념 정의가 모호한 점 역시 발견됨. 역사적 공간, 문화적 공간, 역사문화적 공간 등은 그 의미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실제 분석은 역사문화도시인 공주시, 군산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공간”과 “도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규모와 유형화를 통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연구 설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몇 군데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건축공간연구원은 2022년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제출된 두 보고서의 경우 우수한 점은, 우선 농촌마을 공간관리 관련한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관리 및 정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국정과제 및 관련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시된 연구로 시의성이 높고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음.
- 도농복합도시 관련한 연구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여건이 너무 다른 도농통합도시에서의 공간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되며, 연구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과정에 대해서 계획 수립 시뮬레이션으로 예시적 방법론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 유용하다는 점에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미흡한 점도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어, 주제어이며 중요한 실현수단인 ‘농촌마을특화지구’라는 용어가 연구의 제목이나 목차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농촌마을특화지구’라는 용어가 연구 제목의 부제에 병기되면 좋을 것이고, 연구의 목차의 장 제목에도 ‘농촌마을특화지구’라는 용어를 활용하면 연구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임.
- 또한 사례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평택시를 선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 즉, 수도권의 도시와 비수도권의 도시는 인구의 정체나 감소가 심각하게 다른데, 인구정체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서 하나씩 대상지를 선택하거나,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의 도농통합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이 많았을 것으로 보임.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중 국정과제에 15개를 반영함으로써 경영목표를 국가정책의 기여도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경영목표 및 실천과제 설정 과정에서, PESTEL분석과 SWOT분석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이 확인됨. 특히 연구구조-행정역량-외부평가를 중심으로 한 내부 평가 시도가 의미 있었다고 판단됨.
- 연구원 승격이후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과거와의 차별화 및 체질개선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연구부문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연구를 지원하도록 관리하려는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임. 또한 직접적 외부고객 및 원내간부와 소통, 실천계획 수행현황 점검 노력 등이 두드러짐.
- 5개 정책본부를 3본부(건축정책/지속가능공간/공간문화 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공간법제연구단, 빅데이터연구단, 주거문화 연구단을 신설하는 등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짐.
- 3대 경영목표, 9대 추진전략, 22개 실천과제의 종합 달성도는 107.1%임. 달성률은 계획 대비 1.7% 초과달성하여 1차년도 실제달성률 26.2% 기록함. 경영목표1 달성도 115.8%, 경영목표2 102.6%, 경영목표3 103.0%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연구분야 실천계획 목표는 124.2%로 실적 달성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의제(건축규제샌드박스, 스마트 도시 건축 등)나 실천계획의 성과목표에 대해 과제의 중요도, 시급도, 난이도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간연구지원 강화 120%, 연령별 맞춤형 근린환경 중심 및 로컬중심 공간정책 연구강화 150%, 스마트건축 활성화방안 200%는 경영목표의 달성도가 높은 편임. 그러나 연구과제의 중요도에 비해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달성 연계수단(연구/시스템 조직/행사/협력체계)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천과제별 연계수단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경영목표의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분야별 구체적 수단 간의 연계협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표는 목표 달성 판단이 모호하고 실천과제-성과지표의 달성간 연계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과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설정과 과제 특성별로 계량적/비계량적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행사 중심의 소통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도적인 완결성이 있고, 구성원과 기관장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신뢰 형성이 돋보임.
- 경영목표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체계화된 소통 채널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피드백을 구성원들과 공유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속적인 점진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개선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대국민 기관홍보를 위한 적극적 언론 인터뷰 및 기고 활동을 전개함. 건축 도시 분야 국가와 지자체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적이 존재함.
- 국토부 이외 다양한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함.
- 연구회와의 협동연구 기획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사업을 수주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국제행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대외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움.
- 대외 네트워크 구성 이후 실제 협력 성과가 어떻게 창출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건축·도시공간의 안전 강화

〈우수한 점〉

- 국정과제에 조응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선정한 바, 건축도시공간의 안전 강화 관련 연구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우수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직개편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5개 정책본부를 3본부(건축정책/지속가능공간/공간문화 본부) 체제를 전환하고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공간법제연구단 + 빅데이터연구단 + 주거문화연구단 신설함.
- 주요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 다양한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함.
- 건축도시공간 안전 강화,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재해재난 대응 건축물 관리방안, 건축물관리지원 센터 운영, 건축물관리 분야 미래전략 등의 내용을 포괄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도시공간의 안전 관련 분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경찰청 등과 제도화된 플랫폼을 통해 협동연구, 공동연구, 사업협력 수행이 필요함.
- 주요역제(건축규제샌드박스, 스마트 도시 건축 등)나 실천계획별로 난이도나 시급도,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리할 것을 건의함.

(2)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간 전략 마련

〈우수한 점〉

-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건축공간연구원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전환하여, 중점사업으로 적절하게 선정함.
-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주거문화연구단 신설하고, 협력연구, 성과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임.
- 공동체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기반 수요자 맞춤형 접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한 점이 우수함.
- 농촌경제연구원(농촌)이나 해양수산연구원(어촌마을) 등과도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행정 공제회와 MOU를 체결하여 지방소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기술변화를 고려한 건축·도시부문 탄소중립 대응

〈우수한 점〉

- 기술변화를 고려한 건축도시부문 탄소중립 대응 관련한 사업의 경우 탄소중립이 가지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건축공간연구원 차원에서 고유한 사업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기관장의 노력이 전제가 되었음.
-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 법정업무 수행 지정기관이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스마트건축, 스마트도시계획 등 사업 관련 활동 내용이 전문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함.
- 지속가능공간본부 및 빅데이터연구단 설치 등 조직개편을 통한 기반구축 노력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조직개편으로서 지속가능공간본부와 빅데이터연구단이 마련되었으나, 향후 중점추진사업 완료 이후 장기적 활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포럼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녹색건축과 탄소중립 대응을 통한 개선실적의 취합과 모니터링 노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화 및 구조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SWOT 분석을 통해 대내외 연구 및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
- 최근 설립된 신생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통해 기관의 약점과 위기를 엄밀히 분석하였으며, 개선 전략을 도출함.
- 주요 연구 분야별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건축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전담반 운영 및 전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경영목표를 수립하는 등 경영목표 달성에 대해 전사적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함.
- 2021년 12월부터 총 12건의 고충이 접수되었으며, 고충을 제기한 직원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
- 노사 간 업무 및 현안 협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기관장과 직원 간의 수시 대화를 총 71회 개최하는 등 직원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 외에 기관의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경영 효율성 관련한 대응 전략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 및 혁신계획 수립 등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공공기관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현재 연구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성과 및 기관효율성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인력수급계획에 있어 2026년까지의 정규직 전환, 인력증원 승인 내용, 신규사업 발굴 등 내외부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수급계획을 도출하고자 노력함.

- 청년인턴 채용 시 지역인재 가점(전형별 만점의 2%)을 신설하여 관련 인재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AURI 교육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함.
- 평가방법, 절차,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관련 내규(근무성적평정규칙, 연구업무수행규칙 및 AURI 연구실적평가제도)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신규 사업에 관한 외부 요청이나 과거의 추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미래예측 모형 개발의 수준이 미흡하여 외부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설명요인을 고려한 회귀방정식 등을 활용하는 심층적이고 계량적 예측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관의 인재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직원의 필요역량을 도출하였지만 이를 면밀하게 연계하여 교육 및 연수 역량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체계성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실적이 타 기관에 비하여 양적으로 미흡하여 구성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내용도 역량강화의 교육보다는 감사 및 윤리 교육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더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교육훈련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2022년 비연구직의 1인당 교육훈련비가 연구직 1,158천원에 비해 비연구직은 280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화된 대외활동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교육훈련자, 휴직자 등 부재자의 대외활동 수행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됨.
- 교육 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감사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으며 근무관리 적정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기울임. 5회의 자체감사를 통해 근무와 관련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함.
- 연가저축제 도입 등 연가축진을 위한 기관 차원의 적절한 노력으로 연가소진율이 100%임.
- 연구원 맞춤 근로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 개인의 근로 기록을 그룹웨어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의 근로 예정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팀내외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중 선택적 시간근무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코로나 유행상황 및 직원의 개별 수요(운영실적)를 고려하여 재택근무 운영비중을 설정하여 운영 중임.
- 안식년, 연구연가 대상자 선정 및 심의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됨.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연구연수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수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패널티를 부여함.
- 안식년 및 연구연가 대상자 종료 후 국내등재지급 이상으로 2편 이상 논문게재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가 지속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직에서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 신고가 나타나고 있어, 연구직 대상으로 대외활동 허용범위 내 신고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함.
- 분기별/반기별/상시 감사 등과 같은 부적정한 근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운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직원 만족도 및 추가적 니즈 조사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 고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장함.
- 선진 지식의 습득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파견국가를 다양화하고 기관의 우수 해외인력유치 및 국제교류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가족돌봄 휴직, 수유시간, 난임휴가, 육아시간 등에 실적이 있음.
- 30분 단위의 연차 휴가 및 선택 근로시간제 운영, 수유실 조성 등의 실적이 우수함.
-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결혼,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단계별로 정리하여 매뉴얼을 배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사용자가 결혼을 막 한 단계라면 이 상황에서 쓸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생애 주기별로 알기 쉽게 매뉴얼 제작을 제안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 반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수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과 성과급 지급 규칙 등을 통해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비중이 26%로 높은 수준이며 연구직은 약 33%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인력추계 및 인력활용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실적이 '20년에 머물어 있어 '22년도 기관의 노력과 실적이 두드러지지 않는 바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획-실적-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화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24년을 대비한 노사협의를 미리 계획하여 추진 중인 점과 임금피크제 대상자 활용계획과 신규 입사자와의 전문성을 교류할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업무량 조정에 따른 다양한 퇴직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대응계획, 대상자 의견청취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 및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규정현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 중대비위 및 성범죄 관련 징계수위를 높이는 한편 관련 교육이수 실적이 높음.
- 클린신고센터 운영 3차례 진행하였고, 인권경영 감시 전담부서 지정 및 피해신고 지원시스템 운영함.
- 노사협의회에서 내규와 주요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분야별 위원회 운영 시 노조관계자가 참관하게 함으로써 견제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함.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일상 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관리와 결과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음.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 제도 운영, 전형별 중복참여 배제,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사후 채용점검위원회, 이의신청제도 채용결과 공개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있음.

- 불공정 방지를 위한 규정개정, 신고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특히 인권경영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업별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등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임.
- 인권영향평가 결과 긍정률이 90%이상 높게 나타났고 해당없음 사항도 전년대비 감소하여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인권리스크 분석 등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교육이수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나 전직원 교육 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개선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부패방지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실적을 확인하고, 운영하는 제도의 개선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고 개선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을 고려하기 바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규정은 있으니 세부사항에 대한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렴계약이행서약,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징구,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기일내 대금 지급, 청렴 위반시 계약해제, 감사담당자 입찰참가, 담당자 교육강화 등 시스템의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과 실적관리가 필요함.
- 현재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시 혹은 필요시에만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제안함.
- 인사위원회 노동조합 참관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을 인사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권경영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최소 부원장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하여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바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연말에 1회 서면 개최에 그침.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33%(배정인원 3명 대비 4명 채용)로 우수함.
- 청년인턴 배정예산 집행률 98.5%로 양호, 전년대비 증가함.
- 청년인턴에게 교육지원 및 멘토링,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채용시 우대조치 등을 제공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2022년 여성신규 임용 69%(목표 23%)와 관리자 24%를 달성하였으며, 내부위원회 28%(목표: 28%), 성인지 교육 80%(목표: 75%)를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지속하고 있음.
- 22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을 3명 채용하였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원 운영 계획(2021.08.18.)에 의거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균형 인사를 추구하여 여성채용·여성관리자 확대 도모 중임.
- 수유시설의 개선, 직장내 어린이집(누리뜰, 마루뜰)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연구원의 시설 운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타 온·오프라인으로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함.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근거하여 여성관리자 및 여성과제책임자 비중 제고를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관리직 목표제’와 연구원 상황을 고려한 세부 목표 수립에 따라, 관리직과 승진자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운영함.

- 보직자 임명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관리직의 경우 연구기관 특성에 맞추어 부연구위원급 이상의 비율을 관리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채용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함.
- 또한, 촘촘한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 전직원 선택근로제 자동 적용, 재택·원격근무제 도입, 30분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 등을 통해 유연한 근로문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함.
- 4대폭력 예방교육의 이수율이 직원과 부서장 모두 100%로써, 기관 차원에서 독려를 고무적으로 평가함.
-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인권경영 기본교육 및 성인지교육을 추가로 시행하여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보직자 임명에 있어서의 목표와 시스템적 노력 및 그 성과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이 요구됨(단순한 성과 및 수치 표시만으로는 한계점을 내포).
- 성인지 교육의 경우, 부서장 참여가 60%로 저조, 직원참여 정도는 80%임에 따라 참여율과 인식 개선 정도의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문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역량강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교육을 발굴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도 장애인 추가채용 노력으로 제한경쟁채용 및 가점부여를 진행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2명(청년인턴 1명, 위촉행정원 1명)을 창출함.
- 장애인 지원자에 전형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장애인 우대 및 취업지원 내부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재직자에 복지포인트 추가 부여,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 개선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함.
- 2022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준수하였음. 3명 신규채용(정규직 2명, 위촉직 1명)으로 의무고용 인원 초과달성(상시근로자 수 115명에서, 총 7인 고용으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기준을 준수, 6.1%).
- 국가보훈처 및 유관단체와 협력관계를 통해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채용함.
- 국가유공자에 대해 전형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건을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복지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하지 못함.(12개월 중 9개월 준수, 연간 3.2%)
- 장애인 인식관련 교육 이수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 감사 권고에 대한 개선 노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과 청년인턴 고용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점이 우수함.
- 내부감사시 비상임감사 입회하에 실지감사를 진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요 보고사항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노력이 인정되고, 전반적으로 비상임 감사가 적극 활동하고 있음.
- 감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감사 담당업무, 감사실장 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 전문인력을 정규직은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업무를 적절하게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기감사와 일상감사 관련근거, 감사주기, 감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자체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자 주의 처분 실적이 존재하는 점은 긍정적임.
- 내부감사 결과공유 및 반부패,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자체 정기 감사 실시를 통해, 회계업무 규정, 가족수당 중복지급, 연구책임자 변경 시 인수인계 소홀, 계약이행 완료에 대한 검사이기 및 서면통지 미준수, 수의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미제출, 협동연구 성과인센티브 집행 미적절 등에 있어서 조치를 완료한 점은 우수함.
- 가족수당 중복지급 대상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연구책임자 변경시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한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동 대안 모색뿐 아니라 연구기관 자체의 선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대함.
- 공통 지적사항 중 정책연구 결과를 민관·언론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 홍보 방안을 마련했는데, 단순한 제작 배포에서 더 나아가 효과성을 측정할 것을 건의함.
- 현재 감사인력 교육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 및 현안을 파악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며,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자료 개발과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 현재는 자료 제공이나 지침 공유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직원 대상 감사 관련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일상감사 실시 결과 및 사후조치를 전 직원에 공유 및 확산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건의함.
- 감사교육의 다양성과 횟수를 늘리고, 체계적인 교육주제 및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며, 교육 이후 전문성이 강화되거나 인식 개선이 일어난 것을 확인,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함.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5.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대학원생 및 학사관리	1-1-1. 대학원생 활동 및 학사관리의 적정성	① 학생선발 및 구성	A
		② 국제정책대학원생의 활동	B
		③ 학사운영 및 관리	C
1-2. 교육과정 운영	1-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①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성	B
		② 교육방법 혁신	C
1-3. 교육 성과	1-3-1. 정책연구역량 기여도	① 정책연구 실행	C
	1-3-2. 정책실무역량 기여도	① 정책기획 및 효과분석 실행	C
	1-3-3. 국가발전경험 공유 기여도	①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	C
	1-3-4. 강의평가 및 취업	① 교육과정 강의평가 결과	S
		② 강의평가 결과 활용	C
		③ 학생취업 및 교육지원 노력 정도	C
	1-3-5. 고객만족도	① 정부 및 교육수요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S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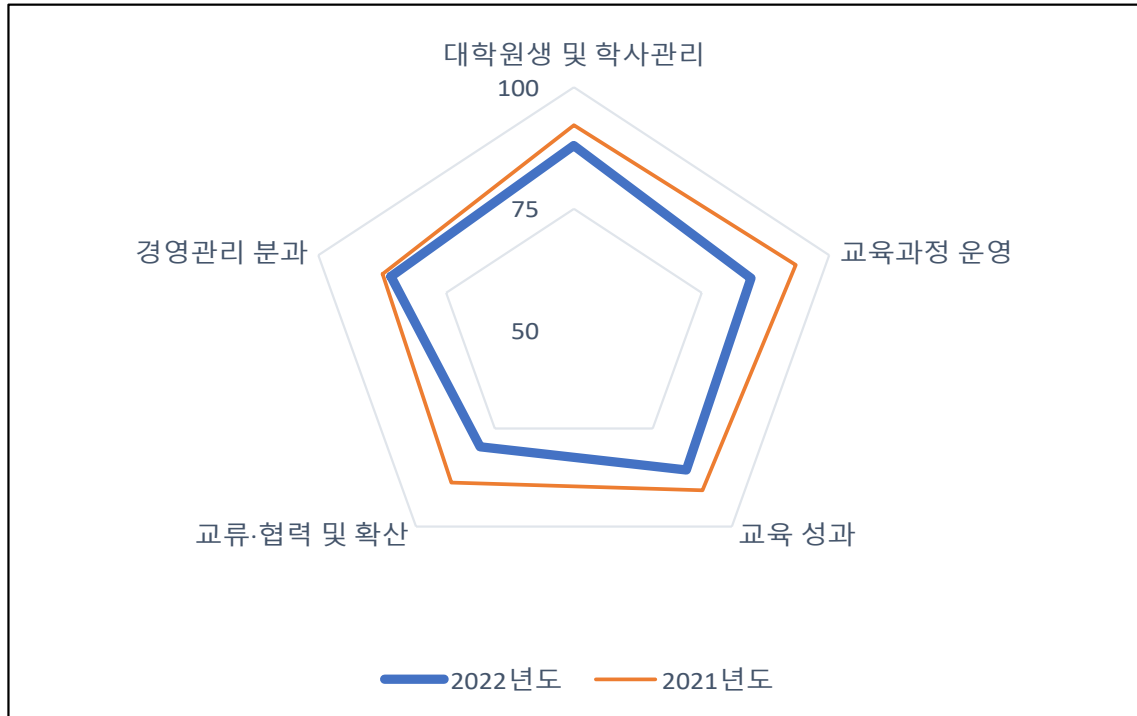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4. 교류·협력 및 확산	1-4-1. 교육네트워크 구축 성과	① 국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실적	C
		② 국내·외 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 정도	D
		③ 해외동문 네트워크 형성 정도	B
		④ 교육·연구 성과확산 노력과 실적	B
		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 노력	A
	1-4-2.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 참여	D
		②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참여	C
	1-4-3. 연구실적	① 교원 연구실적의 우수성	D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B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C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C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B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B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B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A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S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적극적 학생선발 및 구성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하며, 특히 국내외 공공부문 출신 학생 비율이 매우 우수함.
- 대학원생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함. 다만, 학생들의 대외활동 영역을 전문분야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및 국제학생의 공공부문 학생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맞춤형 홍보 노력이 우수함. 다만, 중도탈락율, 재학생 충원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공지능 적응형 학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육방법의 혁신을 계획하고, 선수학습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노력이 우수함.

- 사회과학 분야의 특수정책대학원이나,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등의 융복합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노력은 우수하나, 더욱 적극적인 교류 실적과 성과 도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경영 분야]

- SWOT분석을 통해 당면 현안을 도출하고 기존 경영목표와 새로운 경영목표와의 비교하고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나, 연도별 성과목표와 실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단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연계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과제고 노력이 다소 빈약함.
- 기관장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채널 중 일부는 실제 활용도가 낮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기관장의 전문분야 등에서 국가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을 수행함.
- 대학원장 취임에 따라 기관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한 후 경영 목표와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교육·연구와 비교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비정규직 적용을 위한 유사해외대학 사례를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한 점검을 권고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전문성이 기관에 남을 수 있도록 협력 및 교류 채널이 직종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022년도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00%로 안정적 운영·관리되며 우수함. 또한, 근무관리, 멘토링 제도, 교육지원, 취업지원, 채용시 우대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원 인턴 경력자 6인을 위촉직으로 채용한 점은 긍정적임.
- 2022년 3인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였으며, 여성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직무·리더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우수함.
- 2022년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함.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차별적 전략과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감사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의 제고가 있어야 함.

1

연구 분야

1-1. 대학원생 및 학사관리

1-1-1. 대학원생 활동 및 학사관리의 적정성

① 학생선발 및 구성

〈우수한 점〉

- 국내학생 공공부문 학생유치를 위한 홍보가 우수하며, 국가정책학 박사는 44명 지원에 8명 선발, 국가정책학 석사는 60명 지원에 39명을 선발하여 경쟁률이 유의미함.
- 온오프라인 병행 홍보 및 맞춤형 홍보 노력을 통해 2023년 신규개설 과정인 국가정책학박사과정의 신입생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부문 신규파견 기관확보 및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약 79%의 높은 수준의 공공부문 학생비율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 충원율 또한 약 96%를 달성하여 전년대비 상승하였음.
- 공공기관 교육담당자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입학설명회, 오픈하우스, 유튜브 등 SNS활용 홍보, 학생홍보단 신규 운영등의 실적이 우수함.
- 온라인 입학설명회, 한국유학박람회, 주한재외공관 및 해외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하는 등 국제학생 공공부문 학생유치를 위한 홍보실적이 우수함.
- 국내 학생 공공부문 출신 비율은 78.77%, 국제 학생 공공부문 출신 비율은 70.05%로 S등급 기준을 충족함.
- 국제학생의 공공부문 출신 비율이 70.5%로 S등급의 요건을 충족함.
- 입학전형 업무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학생선발 절차를 운영하여 적절함.
- 1단계(기본자질)-2단계(서류전형)-3단계(면접)의 전형단계를 설정하고, 입학전형기준인 심사 항목 및 배점이 적절함.
- 석사과정 자기소개서 문항 개편 및 GPA 및 영어성적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심사변별력을 강화하고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모집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리고, 발표일을 2주 앞당겨서 진행하여, 학생선발에 노력을 기울임.
- 가을학기에는 주말야간 석사과정 신규모집을 실시하여 학생선발에 노력을 기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과정의 영어강의 수강비율 상한에 대한 검토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박사과정 추천서 작성 교원 심사 제척, 법무부 지침에 따른 해외대 졸업자 공증절차 강화 등의 개선사항은,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대학원만의 특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국제정책대학원생의 활동

〈우수한 점〉

- 대학원생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와 학생간의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교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특강, 세미나, 조교제도, 개발협력실증연구사업 대학원생 대상 연구제안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함.
- 7개의 학생포럼은 53회 활동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함.
- 대규모 festival등을 개최하고, 학생 그룹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베를린 자유대 및 유럽 한국학 학생(15명)과 KIDS 재학생 (9명) 간 네트워크 행사를 실시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 국제학생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우수함.
- 한국전통문화, 현대자동차, 세종시티투어, 기후변화대응 국제세미나 등 12회에 걸친 현장학습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의 이해도 제고 및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여 실적이 우수함.
- 해외 우수대학과 복수학위 과정 Global Master's Program (GMP)을 운영하여 19개 대학에 105명을 파견하고, 2022년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신규대학 4개교를 추가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 물관리 워크숍 등 싱가포르 현지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 다양한 국제행사 및 학술대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등 활동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KDI국제정책대학원생의 활동 가운데 조교제도, 대학원장 등과 개최하는 간담회 등은 일반적인 학사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함. 교원의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운영참여, 연사초청 과정에서 소통업무담당 등은 통상적인 조교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7개 포럼, 19개 학생클럽 등은 학생주도의 자율적인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성과 발표회 창구 등을 통해, 활동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대학 국제대학원 학생들의 정기적인 학술 교류프로그램 참여가 실제 학생들간의 국내 네트워크 강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순 협조공문 및 포스터 발송 이외의 적극적인 창구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외활동 영역을 전문분야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임.
- 학생들이 해외 소재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교환학생제도를 이용하는 학생 Pool을 대학원생 전체로 확장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으로부터의 inbound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제기구 교류 기관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면 국제활동 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추후,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활동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③ 학사운영 및 관리

〈우수한 점〉

- 중도탈락율은 3.0%로 D등급임.
- 중도탈락률 증가요인으로 COVID-19, 지정학적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입국기한 유예, 온라인 수강 허용 등 다각적으로 노력함.
- 신입생 충원율(230/240, 정원내)로 95.83%로 S등급임.
- 재학생 충원율(428/490, 정원내)은 87%로 B등급임.
- 학사운영관련 11개 규정을 보유 운영중이며,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학사운영 규정의 내용에 대해 지도를 충실히 하고, 학사일정에 따른 학사업무를 준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도탈락율 개선을 위해 중도탈락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 원인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탈락율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학생 충원율은 87.3%로, 재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기관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학사운영 과정에 학생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 교육과정 운영

1-2-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①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성

〈우수한 점〉

- 혁신교육을 적용하고 선수학습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노력이 우수함.
- 영어강좌 비율이 90.7%로 우수함(292 영어강좌, 30 한국어 강좌 국가정책학 한국어 석사과정).
- Writing, 통계워크샵 등 다양한 학습환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가 우수함.
- 지식재산·개발정책학 석사과정 등의 교육목표, 특징, 세부전공이 잘 설계되어 있음.
- 공공정책·관리 데이터사이언스를 석사과정 공통 세부전공으로 하여 교육과정이 우수함.
- 한국어 석사과정인 국가정책학, 박사과정은 전일제와 비전일제로 분류하여 운영하여 target 학생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설계하고 내국인 학생 모집을 강화하고자 함.
- 전공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259개 전공과목과 65개 교양과목을 개설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회과학 분야의 특수정책대학원이라는 틀을 감안하더라도,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등의 융복합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개설되는 전공과목 수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도록 교원 수급 등을 치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교육방법 혁신

〈우수한 점〉

- 인공지능 적응형 학습시스템(ALEKS)을 도입하고, '22년 4개 강의 374명이 이수하는 등 통계분석 역량을 강화함.
- 웹 기반 적응형 학습 솔루션(MyLab Economics)을 정규강의에 반영하고, 학습효과가 향상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적이 우수함.
- Project-based learning을 적용한 실무중심 강좌개설 실적이 우수함. 정책 시뮬레이션 온라인 PBL 교육 모델을 운영함.
- 실시간 온라인 통계 워크숍 개최하고, Data Camp와 접목하여 교수학습법 혁신 실적이 우수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온라인 예비학기, 플립러닝 모듈 활용 등 교수학습법 혁신 실적이 우수함.
- 교수학습법 혁신을 위해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실적이 우수함.
- KDIS온라인 교수법 공유회 세미나를 통한 실적이 우수함.
- 정규 커리큘럼 연계 선수학습 제공,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강의 운영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등 교수학습 환경 개선 및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영어 및 한국어의 교양과목 운영관련 팀티칭 방법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전공의 특성을 감안하여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 과목을 안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1-3-1. 정책연구역량 기여도

① 정책연구 실행

〈우수한 점〉

- 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통계분석 등 다수의 방법론 수업과 학술적 글쓰기, 비판적 사고를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습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논문 지도의 절차와 방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과 요건 및 심사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등 투명성을 높여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고 심사를 받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초 역량을 위해 제공되는 방법론 수업에 양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질적인 분석을 다루는 과목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함.
- 교과목을 분야별로 나누어 학생들이 관심 분야별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연구프로젝트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 기준이나 역할을 제시하고 나아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DI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졸업논문을 비롯한 각종 과제의 세부 평가에서 정책적 함의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졸업 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성과를 제시하는 항목에서 장기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5-10년간의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1-3-2. 정책실무역량 기여도

① 정책기획 및 효과분석 실행

〈우수한 점〉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책실무역량을 높이려는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이 운영된 점이 우수함.
- 정책 분야별 실무자 특강과 국내외 동문과 재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 및 우수 사례 발굴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책실무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적으로 논문에서 정책실무역량이 향상되고 있으나 우수 졸업논문에서 정책 수립 및 함의 관련한 우수 활약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후의 논문 작성자들이나 학생들의 정책실무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역량과 실무역량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구분을 위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제 및 국내 동문과의 협업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얻어진 성과나 실질적으로 나타난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추후 보완한 자료는 차년도 성과 및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임.

1-3-3. 국가발전 경험 공유 기여도

①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

〈우수한 점〉

- 외국인 입학 수가 200명으로 매우 우수하며, 학생들의 만족도, 교육성과 및 효과가 매우 높음.
- 국내외 졸업생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나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정책연수 개최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 내용과 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평가한 점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21년과 대비하여 대부분의 항목의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점도 고무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입학생 수와 졸업생 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명의견에 제시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평가자료에 포함하여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선 사항이 22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평가에 포함할 수 없음.
- 설문조사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에 대한 다양한 영역과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설문문의 문항의 수와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문 조사의 활용이나 환류를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교육이 가져온 실질적 효과를 설문조사를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도입해 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1-3-4. 강의평가 및 취업

① 교육과정 강의평가 결과

〈우수한 점〉

- 강의 평가 결과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강의평가 결과 활용

〈우수한 점〉

- 강의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
- 교육을 향상하려는 노력으로서 교육 이수 전과 이수 후의 역량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성과 향상을 위해 환류를 반영하려는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강의 평가 활용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서 우수 강의에 대한 포상과 우수 강의 방법과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긍정적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평가자료에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전체 수업 중에서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시대와 환경 및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업 방식의 도입을 독려함과 동시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다른 수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

③ 학생취업 및 교육지원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학생 취업 지원 노력으로서 다수의 취업지원 설명회 및 특강, 학생 간담회, 1:1 커리어 컨설팅 및 커리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전반적으로 학생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및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학생과 국내학생, 취업학생과 미취업학생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학생을 관리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회적 이슈 및 가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는 학생관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평가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집단 및 특성 별로 성과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취업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 지원 전략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1-4. 교류·협력 및 확산

1-4-1. 교육네트워크 구축 성과

① 국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실적

〈우수한 점〉

- 25개교에 120명의 교류인원이 복수학위과정 및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교류하여 S등급임.
- 22개 기관과 공동연구를 실행하여 S등급임.
- 쿠웨이트 UNRCO기관에 2명의 인턴을 파견하여 D등급임.
- 22회에 걸친 오·오프 병행 학교별 설명회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함.
- 국제교육자협회 참석 및 인도, 필리핀, UAE포함 미국 및 유럽학교 등과 11건의 신규 MOU를 체결하여 실적이 우수함.
- 고등교육사업 추진노력 등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인턴십 기관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턴 파견 실적 제고가 필요할 것임.
- 외국 기관과의 교류 실적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국내 유사 기관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외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다변화하고 균형있는 제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2022 에라스무스 공동학위과정 컨소시엄 참여(KDIS, 서울대 GSIS, 히토츠바시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국내·외 학생간 네트워크 형성 정도

〈우수한 점〉

- 해외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108명이 참석하여 86.2의 평균점수를 받아 B 등급임.
-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7개의 포럼, 2회에 걸친 대학원장 주관 정책세미나, 총 131명이 홈비지팅 프로그램에 참여, 196명이 86개의 버디프로그램에 참여, 7회에 걸친 대면행사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설문조사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재적생 수 및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감안하였을때,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율이 저조.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활동의 실효성 제고, 설문참여율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해외동문 네트워크 형성 정도

〈우수한 점〉

- 지난 10여년에 걸쳐 한국포함 57개 동문회를 운영중이며, 국별동문회 3개소와 국가별 지역 동문 모임 2개소를 신규로 구축하였음. 22년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로 구축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 해외동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동문 대상 네트워크 강화 사후프로그램, 국내외 동문 협력 강화 프로그램, 동문 초청 역량강화 워크숍등을 진행하여 실적이 우수함.
- 국내외 동문 간 협력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22년 최종 17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 학교교류로 미국, 유럽 등 지역의 학교에 네트워크 확립에 노력이 다소 치중되나 국내외 동문 협력강화사례는 아프리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남미 등에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
- 동문 간담회, 오리엔테이션 등 모임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 실적이 우수함.
- 해외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정책 및 사업에의 기여한 성과가 우수함.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우간다, 아프카니스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와 한국관련 사례 프로젝트를 수행함.
- 국내동문과 협력국과의 네트워크 지원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외 동문 협력강화 프로그램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 등 개최 등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 및 양질의 최종결과물을 산출하고, 해외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정책 및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할 필요가 있음.
- 해외동문 네트워크 유지 관리를 통해 해외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정책 및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교육·연구 활동 성과확산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대학원장 직속 홍보팀에서 대학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과제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실적이 우수함.
- 온라인, 간행물, SNS매체, 국·영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확산에 노력을 기울임.
- 총 6건의 국제학술대회: 전문가,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여 실적이 우수함.
-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다양한 SNS 매체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국제컨퍼런스에 참여 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연구활동 성과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성과 고객만족도 추이를 추적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연구활동 성과확산을 위해 홍보에 적합한 최신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연구활동 성과확산을 위해 유튜브 영상 등 확산수단에 대한 조회수 및 댓글 반응 등을 추적 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등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 노력

〈우수한 점〉

- 교육원천관리 실적이 우수하고, 대학원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운영 확대, 원문 공개 건수 증가에 따라 이용이 증가하여 실적이 우수함.
- 2022년 OAK(Open Access Koreas)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하는 등 실적이 우수함.
-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연구 원천자료 관리, 원문정보 공개, 한국발전경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2.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 참여

〈우수한 점〉

- 외부강사 대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 참여 비중이 75%로 B등급임.
- 다양한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강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력교원 비율은 40%를 차지함.
- 연구회(경영협의회)에 경사연-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원 공동 교육과정 개설 제안을 통해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 참여를 제고하였으며, 출연연의 정책연구 수월성 확보 일환으로 우수연구인력 확보와 기존 연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NRC 펠로우십 정책전문가 양성과정을 제안(38차 경영협의회)하여 협의 중으로 노력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연구진 교육참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정부출연연 연구진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연기관 정책특강 시리즈가 특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
- 경사연-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원 공동교육과정 개설 제안을 통해,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교육 참여 제고에 따른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기를 제안함.

②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참여

〈우수한 점〉

-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 비율은 61%로 A 등급임.
-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와 관련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겸임연구위원제도운영규칙'도 마련하고 있음.
- 2022년 중 다수의 대학원 교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에 참여함.
- 대학원 교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 겸임연구위원제도운영규칙, 교원대외활동세부운영지침 등에 규정적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원체계가 우수함.

- '22년 21명의 전임교원이 53개 과제를 수행하여 전년도 대비(18명 34개 과제 수행) 실적 개선이 있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인사연 협동연구를 활용한 정부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학원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참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경인사연을 매개로 한 연구진 연구참여가 대부분인데 각 개별 출연연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연구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4-3. 연구실적

① 교원 연구실적의 우수성

〈우수한 점〉

- 국내학술지 논문게재 및 연구실적은 전임교수 1인당 국내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0.299편으로 C등급임.
- 전임교수 1인당 국제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436편으로 A등급임.
- 총 26개의 국제전문 학술지 (SSCI/SCOPUS) 논문을 게재하여 전년도 23편에 비해 증가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교원의 국내학술지 게재 실적이 전년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실적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이 전년도 대비 16.47% 감소하였음. 업적평가가 연구결과물이 산출되는 기간의 업적으로 평가되어 연구실적물 산출이 연구년도다마 변동이 있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연구활동 전반에 걸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실적 증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학문분야 Top저널 게재 정도와 게재 논문 저널의 피인용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SWOT분석을 통해 당면 현안을 도출하고 기존 경영목표와 새로운 경영목표와의 비교하고 차별화 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개별사업과 의미있는 연계성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계획과의 적정성을 보임. 또한 실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3대 경영목표와 9대 추진전략, 23개 실천과제 중 S등급이 10개이며 나머지 13개 실천과제도 모두 A등급을 달성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달성도가 모두 100%로 표기되어 있는 바,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성과목표와 실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또한 단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연계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과제고 노력이 다소 빈약함.
- 구체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국제동문 대상 협력 사업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 1건 이상 등과 같이 모호하게 제시된 성과목표는 과거실적 추이를 분석하여 도전적인 성과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학생지원서비스 체계화_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1개 이상), 기존 프로그램 개선과 같이 성과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향점과 개선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간담회 등 정례화가능한 목표 이외 수시간담회,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실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경영목표 및 실천과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이 요구됨. 또한 신규전공 개설, 전공교육내용 개편, 국가정책학 과정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내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기관장의 의사 소통 활성화 노력에 대한 교직원의 만족도가 72.8%에 이르고,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교직원 만족도와 재학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영리더 프로그램과 Dean과의 대화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점이 우수함.
- 노조는 자체 해산되었으나 노사협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소통 채널 중 일부는 실제 활용도가 낮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소통 관리가 있었지만, 향후 이러한 활동에 대한 기관장의 실질적인 관심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기관장의 전문 분야 등에서 국가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을 수행함.
- 기관의 사업 확대를 위해 연구회와 적극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예산 및 신규교육과정 등의 성과를 이뤄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장의 대외활동을 통한 기관의 이미지 제고, 잠재 지원자 학생 확보 등과 같은 목표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추후 이러한 부분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길 바람.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공공정책 클러스터 구축 및 정책역량 선진화를 위한 대학원 기능 재정립

〈우수한 점〉

- KDI 대학원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의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 뿐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정책과제에 참여한 점이 우수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원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공공정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 의회 등 중요 의사결정자들과의 협의 노력을 수행한 점이 돋보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타기관과의 협업 및 공동과정 다수 진행 등 MOU를 통해 K-LAW 과정을 진행한 점이 우수함.
- 해외공무원 대상 비학위 ODA과정(K-POLICY) 운영하여 국제적 기여도가 높음.
- 대학원 미래비전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공공정책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 개발학 분야의 선진 성과 향후 기관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수행과 성과확산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전략적 대상설정을 기초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해외기관 방문을 통한 성과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움.

(2) 세계적 수준의 정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대내외 성과 공유 및 확산

〈우수한 점〉

-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세계적인 대학의 정책대학(원)들과 협동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기관 위상제고에 주도적으로 기여함.
- 대학원 설립 25주년을 계기로 한 교육혁신 및 정책교육허브 기능 도모, 모니터링 강화 등 기반체계 구축노력이 존재함.
- 경영목표 및 9대 추진전략, 정부정책 방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시급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도출한 노력이 존재함.
- NASPAA 인증 갱신을 통해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문제의식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수행 과정상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다양한 타겟을 설정하여 성과 확산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 기관설립 25주년을 계기로 기관의 세계적 위상을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뿐 아니라 외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공공교육 관련 행사에서 KDI정책대학원을 소개하는 시도가 제고되어야 함.
- 개인적인 교원의 역량이 각 학문분야별 업적과 실적으로 모아지고 그것이 다시 기관 전체의 역량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체계화 및 조직화 노력이 요망되나, 현재는 기관 위상 제고를 위한 이러한 노력이 다소 제한적임. 현재 컨퍼런스와 학술대회 등이 존재하나, 이것은 기관 전체 차원에서 연구자들(구성원들)의 개별적 역량을 체계화하려는 충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공공정책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정립을 위해 국내기관과의 선의의 경쟁과 비교, 벤치마킹, 네트워킹 등의 노력이 두루 요구됨.
- 사업과 관계된 기획과 준비 관련 노력도가 다소 미흡하며, NASPAA 인증 3개 전공 이외 학문분야별 최고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요구되며, SIGNATURE(개발정책학) 과정의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과제 관리가 필요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학원장 취임에 따라 기관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한 후 경영 목표와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기관으로서 우수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신규 교육과정의 기획 및 신설(예정), 교육과정 개선, 교육시설 확충, 우수교원 유치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책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정책클러스터 기획 수립,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 국가정책역량 선진화에 기여함.
- 데이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와 인력을 운영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함.
- 노사 협의 외에 기관장과 구성원 간의 수시대화 창구를 활발히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연구와 비교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새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에 따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정성지표 외에 정량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현업 부서의 성과관리 용이성 및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 이후 개선점 도출 및 성과향상 동기부여 강화 등을 위해서는 평가의 합리성과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2022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영목표 추진실적의 경우, S등급과 A등급 간의 평점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A등급 사업을 S등급으로 성과 향상을 유인하려는 동기가 크지 않음. 또한, 예산집행률의 경우, 80% 집행 이상이면 평점원점이 100점으로 책정되는 등 성과평가의 합리성이 다소 부족함.
- 대다수 고충 건이 상담, 정보제공, 안내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실제 조사위원회를 통한 기관 차원의 조치는 부족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인력운영 추이와 경영목표를 고려하여 2025년까지의 기관 인력 배치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함.
- 대내외 환경변화, 세계 우수대학과의 비교, 사업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수요변화를 중·장기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함.
-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 교육 프로세스 및 결과 활용, 필요역량에 따른 교육과정을 세분화함.
- 연구직의 경우 업적 100%를 계량화하고 있고, 직원의 경우 업적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 비율을 50%로 구성하고 있음. 업적평가제도에서 교원과 비교원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지표를 설계하고 있으며, 교원업적평가규정 TF를 통해 업적평가시스템을 개선함.
-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연구물 제출 시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 점검 기능을 강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내 및 해외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채용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하여 퇴직한 구성원의 퇴사사유를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관은 타 기관과 다른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제도 마련 등 확대 강화된 보완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직원대외활동요강 및 교원 대외활동 세부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화된 대외활동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음.
- 연차휴가 관련 규정 및 사용촉진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차휴가 소진율 기관 전체 평균이 99%에 달함.
-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등을 활용하는 구성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학술파견시행규칙에 따라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연구과제기획위원회의 연구과제 심사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보고서 작성과 국내외 저널에 발표해야하는 질적 요건을 구비하여 적절하게 관리함.
- 복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유연근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활용 대상자가 증가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 신고관련 하여 10일 초과 사후신고 비율이 높은 편으로, 교원의 경우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 이에 대한 교육 및 공지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신고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아울러 간편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 근무 관련 감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예방 관점에서 적절한 자체감사를 통한 선제적 근무 관련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복무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지난해 지적사항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신설, 유사산휴가 규정, 난임치료 휴가일 수 세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신설하였음.
- 육아휴직자 19명에 대해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육아휴직시 경력산정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공무원임용령 31조2항 다 참조)
- 공무원 복무규정 20조 4항에 따라 육아시간 제도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직원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접수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반영 등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실적이 거의 없는 제도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원인 파악 등을 지속할 것을 제안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등 다양한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상시지속적 고충해결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인사나 복무 차원에서의 전임과 비전임교원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전임교원의 임금수준의 차별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나 유사 해외 대학 등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함.
-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규정(지침) 및 계획은 완료하였으나 행정직 임금수준은 차별화되어 있어 적절한 검토가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원과 행정직원별 역할설계를 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퇴직자와 신규채용된 인력간의 협력 및 교류 채널이 마련되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기관에 유지 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 내실화 및 참석율을 제고하여 전직원 이수율이 97%이상 되고, 관리자의 경우 100% 이수율에 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규정현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 다양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전직원의 교육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교육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교육이수율이 크게 향상되었음.
- 교육참여도가 90%이상을 상회하는 수준 등 관련 교육참여에 적극적이고 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일상 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클린센터와 옴브즈만제도 등의 내부견제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채용관련 위원회를 교원과 직원 별도로 마련하고 체계적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 정비, 단계별 전형,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 신고센터운영,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담당자 교육 강화 등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 영향평가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와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대학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을 새로 제정하였으므로 향후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 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컨설팅을 받는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KDI정책대학원의 성격과 특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KDI규정을 준용하여 따르고 있어 독립된 규정이나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특히 홈페이지에 표시된 조직도와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조직도가 상이한 등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운용과 체계의 구축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
- 주요 윤리 규정들이 KDI 규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대학원의 조직특성을 반영한 규정들이 미비하고 개정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인권경영이행지침처럼 행동강령 등 주요 윤리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대학원 자체적으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함.
-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처리 사례 발생시에는 사례의 원인을 살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건의 징계사례발생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윤리위반에 따른 징계사례 발생시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시행, 옴부즈만을 활용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재발방지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홈페이지에 부정부패, 연구윤리위반,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의 신고사이트 운영 가이드에 따라 외부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신고사이트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 실적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임직원의 교육 참여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인사규정상 ‘특별채용’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최근 채용관련 정부가이드라인을 살펴 제한 경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할 것을 권고함.

- 인사관리규정(16조) 특수임용제도가 남아 있는데, 규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규정개정을 제안함.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연 1회 개최하였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경영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인권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가 단순히 결과점검지표에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과정의 중요지침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상반기 내에 인권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권영향평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긍정률 분석, ‘해당없음’ 사항 점검 등을 통한 체크리스트 재검토, 후속조치사항 발굴, 차기 계획 반영 등 인권영향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결과개선을 위한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음. 또한 ‘해당사항 없음’이 42개에 이르는 등 긍정답변비율도 낮음.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차기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전 직원 및 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있으나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고경영진이나 임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최고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대학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학생생활 중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안내는 되어 있으나, 대학원 기관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외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2022년도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00%로 안정적 운영·관리되며 우수함.
- 근무관리, 멘토링 제도, 교육지원, 취업지원, 채용시 우대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원 인턴 경력자 6인을 위촉직으로 채용함.
- 나아가, 인턴 퇴사로 인한 인력충원 수요 발생 시 신속한 결원채용을 진행한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여성인력 채용 확대노력으로 2022년도 신규채용 인원 18명 중 여성 7명(38.89%)을 채용함.
- 2022년 3인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였음.
- 여성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직무·리더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함.
-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단축근로, 재택근무, 근로시간 선택형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 및 가족돌봄과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기업’ 재인증 획득(‘22)도 긍정적으로 판단함.
- 직원 중 여성인력 보직부여로 적극적 채용활성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보직자 총 23명 중 여성 인원 12명(52.2%)). 즉, 목표대비 여성관리자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차별없는 승진·보수·근무평가, 일·가정 양립 환경구현을 통해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규정상의 요건 뿐 아니라 직급승진 및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여성교원의 주요 위원회 필수 참여를 통하여 의사결정 시 다양한 의견 반영(교원인사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연구과제심사위원회, 입학전형위원회 등)
-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교육이수과정에 구성원들과 기관장의 참여율이 양호한 편임. 특히, 부서장의 참여가 100%로 우수함.
- 최근 대두되는 사회이슈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관련 교육영상 및 카드뉴스 게시를 통한 교육이 상시 실시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력단절여성 우대 등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권고함. 우대하라는 의미는 신분에 따라 차별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대명제를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부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가점부여 등 조치에 대해 권고한 것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음.

- 4대 폭력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음.
-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설 및 제도 강화로 2022년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등 우수함.
-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활용, 장애인 채용 유관기관과의 MOU를 통한 협력 강화, 장애인고용포털을 비롯한 관련 매체 및 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구인활동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적절함.
-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과 KDI 대학원이 공동운영하는 꿈엔카페와 학생식당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체제 유지 중임(다른 기관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함).
- 중장기채용계획수립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대조치사항을 실시하였고, 관련 신규 채용실적이 2명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기업제품 구입실적은 2021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절대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구매가 요구됨.
- 2022년도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은 2.5%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차별적 전략과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18건 중에 16건 완료하고, 1건 추진 중, 그리고 1건 해당없음으로 기관 차원에서 적극 조치한 점이 우수함.
- 실효성있는 청년인턴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근무평가를 통한 우수인턴 포상,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청년인턴 제도운영 방식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한 점이 우수함.
- 자격을 가진 감사전문 인력이 2인이 있고, 전문인력이 평균 9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은 긍정적임.
- KDI 감사실에서 분리하여 대학원 자체 감사실을 설치하여 감사전담 부서장 및 감사역에 대한 전임을 명문화한 노력은 바람직함.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전직원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한 노력이 인정되고, 반부패 청렴의심 제고를 위한 퀴즈, 카드뉴스 배포를 통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점이 우수함.
- 기본적인 감사시스템과 교육 제도를 통해 감사 모니터링을 통한 반려, 수정, 판정된 건수가 줄고 있는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달하고 있는 점은 전향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과 시행이 요구되어 개선이 필요함.
- 추진 미이행의 경우에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동대안 모색 뿐만 아니라 공통 지적사항에 관한 연구기관 자체의 선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감사전문 교육과 현안 교육 참석 실적은 인정되지만, 실제 의도한 교육 목표 달성여부 관리와 교육 이후 현업적응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비상임감사 활성화 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월 2회의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넘어 업무보고를 통한 비상임감사의 검토의견이나 조치사항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함.

- 전년도 지적사항인 1)직급별, 생애주기별(신입-주니어-부서장 등) 교육 방식과 내용 세분화 및 내실화 방안 실행 등이 미흡한 부분과, 2)감사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개선 및 자율적 참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 해줄 것을 건의함.
-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의 개선 정도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6. 육아정책연구소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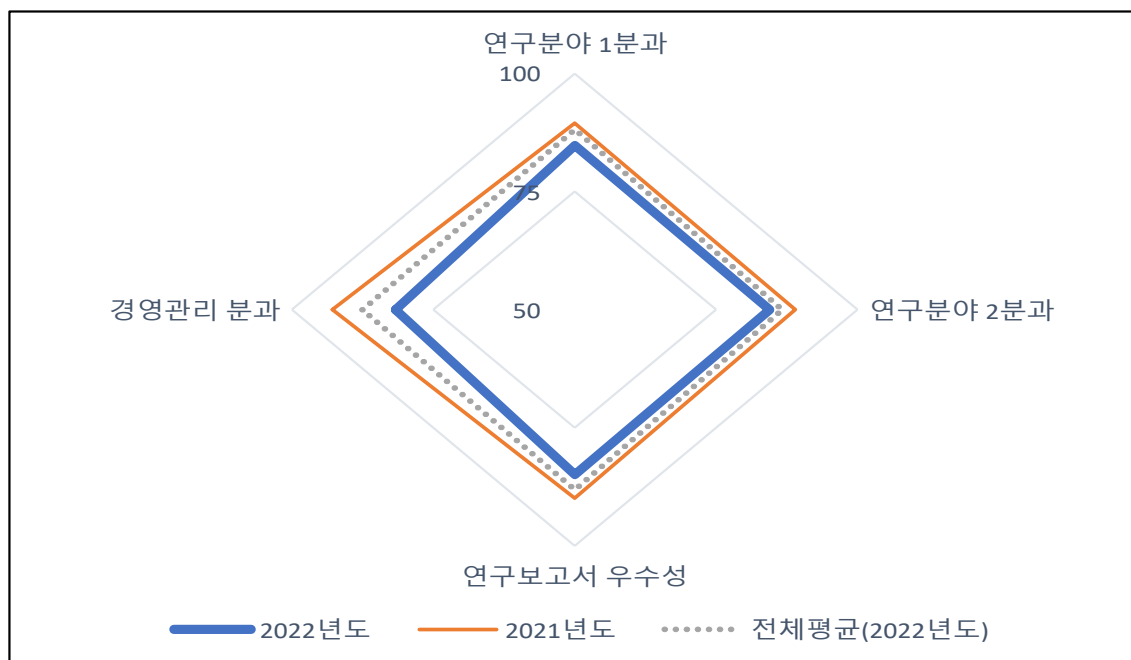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 기획의 우수성	D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C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B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C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C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D
		②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③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C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C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B
	1-1-4.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C
		①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①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C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①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D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D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D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C
		①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D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B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B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B
		①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B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A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B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B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B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C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S
		②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D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실적	S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D
		①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D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B
		③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B
	2-1-5. 예산운용 및 결산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A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박사간담회 개최, 내부 인력 간 협력 및 협업 장려 제도 도입, 다양한 연구역량 제고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함.
- 유보통합 등 국가적 현안과 관련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기획조정본부를 총괄조직으로 하여 다양한 현안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정책 입안에 기여하는 등 우수성이 인정됨. 다만, 정부부처 제안과제 외에 기관 자체 역량을 통한 선제적 대응성과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초저출산 시대적 상황과 출산/양육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연구주제가 시의적절함.
- 제안한 대안의 지역적 특성 반영 및 현재의 정책과 차별성/보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음.

- 정책수요자와 소통은 정책 입안자, 집행자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소통 노력은 있으나 과제에 따라서는 특정 부처에만 집중되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이슈화 등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은 대안의 정책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국민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명시적이고, 개별 정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제시한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그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책 수요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정책화 성과를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경영 분야]

- SWOT분석을 통해 기관의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나, 각 전략별 대응방안이 기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도가 다소 낮은 편임.
- 유보통합 및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를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의 능동적 대응 및 신규 과제의 도출 노력은 드러나지 않음.
- 장기 현안 관련 해결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적극적 소통과 역할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일부 대외활동의 경우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해 보임.
-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기관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으나, 관련 과제 및 사업의 타당성/효과 분석이 다소 미흡함.
- 중장기사업계획과 예산분석을 반영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 점이 우수함.
- 퇴직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업무량 경감과 신규 입사자와 연계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신규채용, 대체인력채용, 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기 위해 채용 시 제도 마련, 적극적 장애인 구인 활동 지속, 장애인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한 3가지 적합 신규 업무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국가유공자에 대해 전형단계별로 가점부여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직원채용지침에 명시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비상임감사의 적극 활용, 감사 전문 인력의 역량 교육, 감사교육의 다양성 및 참여율 등이 미흡함.

1

연구 분야

1-1.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1-1-1. 연구과정 관리

①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대내외 연구환경 분석을 4가지 영역(국정과제 및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분석, 유관부처 업무계획,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동향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하여 SWOT분석을 해서 6대 정책현안을 도출함.
- 환경 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을 병행한 연구사업 주제 기획 및 도출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사업 목표와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음.
- 주요 키워드에 대한 분기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원내 게시판에 공유해 구성원들이 과제 발굴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유도함(연 4회).
- 6단계에 걸친 매우 세밀한 연구사업·과제의 기획절차를 진행함.
- 정책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에 관련한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을 집중 개최함. 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 하여 이해관계가 참여할 수 없는 유아교육·보육 현장 전문가, 학계, 정부부처, 국회가 함께 참여하고, 일정상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였음.
- 2022년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유보통합과 학제 개편 주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포럼 등 개최하고 현장관계자와 일반 국민 대상 연구과제 제안해서 발굴함.
- 정부 및 현장관계자, 국회, 학부모 제안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본과제, 수시과제, 일반과제 선정에 반영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Top-down 방식), 원내 열린토론회(Bottom-up 방식), 새로운 국정과제에 따른 학계 및 정책수요자(국민, 현장, 국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및 특별포럼 개최를 통해 다양한 정책고객 수요 및 국가 및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하였음.

-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정기 수요조사, 정책공모전, 육아정책 연구생태계포럼, KICCE 정책토론회,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등을 통해 현장관계자·국회·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자문위원의 분야 이외에 구성원 다양화가 필요함. 육아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과제발굴을 하려는 시도가 부족함.
- '22년 홈페이지 연구과제제안 코너를 통해 제안된 건수 0건('21년 2건)으로 유명무실화.
- 대국민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구주제 기획참여가 부족함.

②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정부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연구실무협의회(Top-down 방식), 원내의견을 반영하는 열린토론회(Bottom-up 방식), 학계 및 정책수요자(국민·현장·국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토론회 및 특별포럼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고객의 수요 및 국가 및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함.
- 기본·일반과제는 연구제안서를 정량적 및 다면평가를 하고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하고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중점과제선정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선정함.
- 수시과제는 수시과제선정위원회,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선정하였음.
- 특별히 이슈가 많았던 유보통합, 학제개편 등의 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KICCE 정책토론회',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특별포럼' 개최 시 토론회 내용을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정책수요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함.
- 다학제·다기관간 협동·협력 연구를 안정적으로 기획·발굴·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운영(총 43개 기관 참여, 상·하반기 총 2회 개최)하였음.
- 협동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협동연구 과제를 3가지 유형(연구 주제, 연구회 기획, 연구소 기획)으로 유목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기획·발굴·선정체계 운영·융복합연구 확대 방침에 따라 협동연구 기획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과제발굴을 하여 15개 연구과제를 선정함.
- 2023년 신규 발굴된 기본·일반과제(13개) 모두 국정과제에 부합함.
- 2022년도 기본연구사업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중이 40.8% 기준을 충족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 연구과제 비율이 작음. 중점 연구과제 발굴에 보다 적극적이었으면 함.
- 협동연구시 육아를 직접하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해봄.
- 협동연구기관(산업체 등)의 다양성이 부족함.
- 국정과제 사업계획 반영의 다양한 외부전문가 참여정도가 부족함.

③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

〈우수한 점〉

- PDCA Cycle에 따른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운영함.
- 원내 구성원 의견 수렴 채널로 박사간담회를 연 3회 개최함.
- 직원평정 항목 내 직무평정지표(과제수행) 중 20%를 공동연구진 간 협업성으로 배점함으로써 내부 인력간 협력 및 협업을 제도적으로 독려함.
- 기본연구사업비 예산의 14.5%를 수시연구사업비로 편성해 경인사연 권고 기준을 충족함.
- 연구역량 제고 프로그램 ‘Study On’ 운영 7차례 원내 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함.
- 연구보고서 정시 적정 발간을 완료함.
- 2022년 수행한 전체 63개 과제 중 협동연구과제는 40개로 과제수 기준 63.5%, 예산 기준 63.3%에 해당. 이는 전년 대비 과제 수 6.6%p, 예산 기준 5.0%p 증가한 수치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박사간담회를 연 3회 개최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소지 여부가 참석 자격 기준이라면 조직내 갈등 발생 소지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임. 석사급 연구원들의 연구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연구과제 선정 시 의무화해서 반영하는 등 bottom-up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트렌드가 반영된 ‘열린토론회’ 수준을 넘어서는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석사급 연구원 제안 주제 과제 선정 의무화 등).
- Study On 프로그램이 기관의 특성을 살린 고유한 간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히 어떤 기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2년 7차례 실시예 그쳤고 그 중 일부는 연구윤리교육을 대체한 측면도 있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보임.

- 수시연구의 협동연구과제 수행 비율은 예산 기준 26.2%로 저조한 편인데 기관 규모에 비해 수시연구와 협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성을 살려 수시연구를 협동연구차원에서 접근해보려는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볼 필요가 있음.
- 학계, 공공기관과의 협동연구가 많은 데 반해 협동연구의 파트너는 다양하지 못함. 따라서 시민단체, 산업현장, 민간기업,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협동연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④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평가보고서 전체가 1등급 평가를 받아 최근 3년 연속 클린기관으로 선정함.
- 착수보고에서 발간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체점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 직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은 사실 9월 중 실시한 연구보고서 작성 시 연구윤리교육 1회에 불과한데 실시 횟수가 적은 편인 바, 연구수행 단계별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등을 실시해 연구윤리 교육을 보완할 필요 있음.
- 전체적으로 연구윤리 관련 점검 체계가 명확하거나 잘 분화되어 있지 못한 경향이 있음(검독체계나 연구윤리 전담조직, 총괄 조직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연구윤리 관련한 업무 수행이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의 홍보·확산체계가 전략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실행성과가 우수함.
-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및 정책과제 등이 현장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조율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연구 및 정책과제 방향에서 균형을 잡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보임.
- 포럼,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및 포럼개최, 자료집 발간, 인터넷 및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첨단 정보화 수단 활용하는 등 연구성과 확산수단을 다양화하고 연구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료집 다운로드, 유튜브 조회수 성과가 우수함.
- 인스타그램 홍보에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 팔로워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존 팔로워 73명에서 1,530명으로 200%로 대폭 상승하여 실적이 우수함.
- 26,976건의 연구성과물과 이슈페이퍼를 발간함.
- 정부 유관부처, 국회,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가 우수함.
- 2018~2025 중장기 구제화 추진목표, 전략 및 실행지표가 적절하며, MOU체결, 인적교류, 국제 공동(협력) 연구 및 국제행사 등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실적이 우수함.
- 국제협력이 증가하였음. 국제회의 등 회수가 감소할 경우, 회의규모가 증가하였음.
- 연구수행을 통한 역량 국제화 계획, 해외 연구상황은 이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반영 중이며, 국제 사업 발굴 및 주도화, 국제활동 국제협업 증가 등의 발전계획을 체계화 하였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 및 언론홍보 실적이 저조한 편임.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전년 대비 1,101명 증가했지만 총조회수는 6,923회, 업로드 영상 수는 7건 오히려 줄어들었음.
- 네이버TV 채널 구독자수는 228명으로 전년 동일한 반면 총조회수는 18,244회에서 1,217회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업로드 영상수도 7건에서 6건으로 1건 감소하였음.
- 메인페이지뷰와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수에 있어서도 매우 큰 폭으로 관련 실적이 감소하여, 연구 성과 확산 및 홍보 관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
- 육아정책연구소 TV 구독자 수가 227명에 불과하고, 언론활용 실적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함.
- 국회 협력이 대부분 토론회 참여. 정책 및 입법지원의 성과는 드러나지 않음.
- 산학연 중 산업체 협업 성과가 미미함/
- 국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단계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 하기를 제안함.

⑥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원천자료 관리 및 원문정보 공개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실적이 우수함.
- 33건의 연구과제를 NKIS에 등록하여 100%의 등록률을 달성함.
- 기타성과물의 NKIS에의 등록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1인당 논문편수가 0.23으로 저조한 편임.
- 국가중점데이터인 ‘한국 아동패널 데이터’의 연구기관, 민간, 정부·지자체 활용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1-2.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①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정책기여도 실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시범사업모델방안, 기초 자료 제공, 법제도화 등으로 구분·제시함.
- 전체 57개 과제 중 38개 과제, 전체 예산의 77.1%를 국정과제로 수행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유보통합 등 국가적 현안과 관련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인 국정 과제 수행에 기여함.
- 해당 관련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구함(아동과 양육 수당 지원법 등).
- 연구 목적으로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아동 및 보호자 부모 대상 각종 수당 및 서비스 지원 체계를 고찰하고, 법률간 정책사업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양육지원 확대 전반을 반영하는 별도 법률 제정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반영함.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 신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여 연구성과로 양육지원 체계의 정합성 및 확대/다변화의 통합적 운영, 중복 사각지대 이슈를 고려한 실질적 운영기반과 실행토대로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근거 조항을 제시함.
- 국정과제와 연계된 보건복지부 제안 수시과제로서 추진실적이 양호하고, 양육지원 체계와 관련한 제반 이슈를 고려한 실질적 운영기반과 실행토대로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근거 조항을 제시한 성과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결식아동 급식지원 연구’를 통해 급식최저단가를 정하여 시도에 전달하는 정책지원을 한 성과가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정책기여와 관련된, 특히 입법지원 성과의 경우 확인하기 어려움. 전년도 지적사항과 같이 국정과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입법과정 지원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관리 노력이 필요함.
- 대표사례의 질적 성과(입법과정 지원 등) 역시 입법·정책화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임.

②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조직 운영에서 기획조정본부 내 연구기획평가팀을 주축으로 2개 정책실 및 1개 국제실, 대외홍보팀이 정책기여도를 관리함. 또한, 정책기여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기존의 정책기여도 TF를 “정책기여도위원회”로 상설화 운영하여 기존 방식을 개선함.
- 연구과제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전주기적 연구성과관리체계(TRM)에 따른 연구사업 운영을 위해 PDCA(Plan- Do-Check-Action) Cycle에 따른 전주기적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기여도 TF를 “정책기여도위원회”로 상설화함.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해 원내 연구직의 연구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수립 의제 공론화(현장전문가, 정책수요자, 국회 및 단체, KICCE 토론회 공동개최) 등 다양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 입법화, 제도화 실적을 제고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기여도 관리 체계가 3단계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3단계 정책화 성과평가 및 환류 과정에서 환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책기여도 관리를 위해 정책검토위원회와 정책기여도제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정책기여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기준과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함.

③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기획조정본부를 총괄조직으로 하여 ① 부모급여, ② 유보통합, ③ 미래 유아교육, ④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⑤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⑦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 ⑧ 아동학대, ⑨ 부모교육 이슈를 긴급 및 현안과제로 도출하여 정책토론회, KICCE Policy Brief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수시과제선정위원회와 함께 전략기획위원회(매주)와 부서장회의(격주) 개최를 정례화하고, 정부현안 과제 비율의 제고를 위해 '21년 대비 수시과제 예산을 46백만원 추가 편성함으로써 단기 긴급 및 현안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 TF 등의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음.

- 21건의 수탁과제 및 1건의 협동과제(경사연) 수행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비연구활동을 통해 부모급여, 아동학대, 보육서비스 등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입안에 기여함.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 사업비 비율이 19.3%,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73.9%로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였음.
- '22년 정부부처 및 지자체(교육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가 제안한 수시과제 8건을 수행하여 부처 긴급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모급여 도입방안과 관련한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 지원,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에 정책적 기여를 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규모 상 긴급 현안과제에 대한 전담 TF를 신설할 여력이 없을 수 있지만, 기존의 조직을 기능적으로 분해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유보통합 등 특정 주제에 대해 긴급현안 대응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연구과제와의 형평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균형적 대응을 위해 노력이 요구됨.
- 정부부처 현안과제 수행성과를 정부부처 제안과제 6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관의 자체 역량을 통한 국가 긴급 및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1-1-3.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①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초저출산 시대적 상황과 출산/양육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연구 주제는 전반적으로 시의적절성이 우수함: 유보 통합, 양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 지원, 장애영유아 양육 지원, 부모 급여, 청소년 산모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간제 보육 등
- 실증적이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본권인 식생활 건강권을 강조하였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구에서는 정책의 전반적 프레임 전환을 제안하였음.
- 정책수요자와 소통은 정책 입안자, 집행자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특히, 청소년 산모 지원 연구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 방안 논의를 하였고, 양육지원정책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 연구에서는 직접 수혜 대상을 포함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정책 대안 제시 이후 정부 관련 부처, 국회, 학술 대회, 언론 보도 등 사회적 이슈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 노력을 하였음.
- 제안된 정책 대안이 현재의 정책의 변화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었거나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됨으로 정책 추진체계 강화·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음. 더 나아가 추후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지방의 특성과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함.
- 제시된 대안의 참신성이 부족하고, 기존에 알려진 대안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가 부족함
- 육아와 양육이 전국적 차원의 관심사이나, 주제 특성상 현황 분석과 해결책 제시에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시된 대안이 지역적 특성과 상이한 경우 의견 조율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기보다는 이미 상당기간 논쟁이 되어 오고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결책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한 대안의 차별성·보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 특히 유보통합 이슈는 유보통합위원회 설치만으로 실제적인 정책화 성과로 이어지기가 어려워 보임.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지원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이용 1순위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대안을 제안한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정책 대안을 [정책 목표 - 추진 방향 - 추진 전략 - 세부 추진과제 - 추진 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실질적인 정책화 실현 가능성 및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책효과 파급력 및 영향력은 대안의 정책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국민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명시적이고, 개별 정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제시한 정책 대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그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책수요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정책화 성과를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2022년도의 경우 각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마다 연구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학술적 및 정책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기획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출된 연구보고서 전반에 걸쳐 연구방법의 충실함이 인정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을 확인함. 예를 들어,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추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 있는 점은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 과정에서 방대한 통계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보고서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유지했음.
- 다년 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 연구의 경우, 다년과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체계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기획되었음. 연차별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연차별로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음. 한편, 가정양육수당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잘 부각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현안 과제와 깊은 연관을 가진 정책 과제로 특히 보건복지부의 과제 제안을 반영·수행한 점이 돋보임.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경우, 타 연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기존 패널과 차별화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패널 연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 양육에 주는 시사점과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방향 수립과 정책 보완 및 수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보고서가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정책 대안 모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연구내용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제시된 기초정책연구보고서의 경우 미흡한 점 역시 발견되었는데, 연구보고서의 전체적 일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되었음. 이 과정에서 연구 계획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책 대안의 현실성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취약계층의 참여 및 이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또한 동 보고서에서 디테일한 정책제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향성만을 제시한 점이 아쉬움.
-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관련한 연구의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 및 소비지출 실태, 초등교육과의 연계 및 통합교육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학령기 기초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경제적 비용 등) 여건 등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예측 및 대응하지 못하여 실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조 교사 관련 연구의 경우, 어린이집 연장, 보조, 대체 교사의 국외 사례가 지나치게 소수의 출처 및 보고서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다고 판단되며,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 및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
-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 내용들 중 최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과 도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선행연구와의 좀 더 명확한 차별성, 그리고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부족한 점들이 몇 군데 발견되었음.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우수한 점〉

-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했으며, 보고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학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제출된 두 개 과제를 살펴보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린스마트 유아 미래학교 추진 및 이에 상응하는 어린이집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공간혁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1차 년도 연구는 유아 미래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모델을 필요로한 시점에서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 됨.
- 또 다른 연구의 경우, 장애위험 영유아라는 연구대상 선정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했다고 판단됨. 교사들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교수 지원, 행동 지원을 위해 개발된 기초 자료를 현장에 보급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기획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동시에 미흡한 점 역시 확인되었는데, 해당 연구의 경우 영유아 공간구성을 위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되었으나,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이 연구 과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됨.
-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 연구의 경우, 기술한 정책 방안들이 본 과제 수행 결과들만이 아닌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 및 발달지원 방안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은 최초 연구 목적과의 정합성 부분에서 차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음.

2

경영 분야

2-1. 경영관리

2-1-1. 리더십

①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생과 연계를 고려한 융복합 연구의 추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현장실천 연구 강화 등 국정과제에 관련된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음.
- 3대 경영목표, 10대 추진전략, 21개 실천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기관위상 분석, 고객 니즈 파악, 연구 및 경영분야 당면 현안 파악 등을 위해 경영지원실 개편, 데이터실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함.
- 기관의 당면현안에 부합하는 3대 경영목표에 대한 10개 추진전략, 21개 실천과제, 43개 성과목표가 제시되고 구체적 실현 가능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 목표와 실천계획이 대체로 연계되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분야별 성과목표를 100% 달성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유보통합 및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를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에의 능동적 대응 및 신규 과제의 도출 노력은 드러나지 않음. 또한 새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내부 조직의 실질적 운영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추가적 관련 과제수행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건의함.
- SWOT분석을 통해 기관의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나 각 전략별 대응방안이 기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도가 다소 낮은 편임. 특히 기관의 약점(전략적 연구기획 부족)과 위협(이해관계자 갈등 증폭, 낮은 기관위상)에 대처하기 위한 WT전략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인권윤리경영 강화와 법인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대응방안의 적절성이 높지 않은 편임. WT상황 하에서 단계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응방안(단기 및 중장기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영목표별 실천과제의 성과가 100% 달성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22년도 성과목표가 정량적 목표치 또는 정성치 목표치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이전의 실적 결과를 분석하여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부서별/개인별 KPI와 연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경영목표가 시급도나 중요도, 국정과제의 반영 등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천과제에 동일한 달성도가 제시되고 있음.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에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조직체계 및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음. 또한,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가능 수단보다는 대증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성과목표 달성도가 제시되어 있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성과의 측정이 단순 개최 등 산출지표 보다는 결과지표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 정성지표의 경우 성과달성도가 100%로 제시되어 있으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구체적 근거 제시가 미흡함.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목표의 달성정도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직급별/팀별 간담회, 노사협의회 등을 TOP-DOWN 및 BOTTOM-UP 방식 등 제도화된 소통 채널을 통해 기관장의 경영전략과 목표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함.
- 각 소통채널 유형별로 골고루 소통 실적이 실재하며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장기 현안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적극적 소통과 역할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함.
- 실제로 비전 공유의 정도 등 소통 이후의 결과 확인 작업이 필요함.
- 기관의 화합을 위한 공식적 채널 활용이 일반현안(임금패크제 보완, 임금단협, 연찬회, 보직자 회의 등)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함.

③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다양한 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국민 기관홍보 활동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실제 활동의 경우도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 대외 활동의 목표 및 주된 포커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점이 아쉬움.

④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육아정책 핵심 국정과제 실행 기반 마련: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우수한 점〉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 마련은 신정부의 유보 통합 국정과제 실현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의성이 있으며, 사전 선정 및 수행 체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적절하게 발휘됨.
-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새 정부 국정과제 분석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중점사업을 선정한 점이 우수함.
- 정책 토론회를 통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방안을 논의,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기관의 중점과제의 성과를 반영 시킨 점은 우수함.
-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한 성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유보통합’이라는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책결정 관련자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함.

(2) 육아정책연구소 법인화 추진

〈우수한 점〉

- 법인화 문제는 연구소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까닭에 객관적 평가의 근거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육아정책연구소의 법적 지위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해당하기에 기관장이 가졌던 순수한 문제의식 자체는 긍정적인.

- 법인화추진을 위한 내부 추진협의체 구축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회 의원실과의 소통 등 외부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구기관간 임금격차와 저임금 해소를 위해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새 정부 국정과제 분석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법인화 전담조직을 통한 단계별 점검 노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관장이 가졌던 법인화 추진 의지를 고려해볼 때 수행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임.
-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및 여론 확산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아쉬움.
- 법인화 추진을 위한 상시협의체 구축은 이미 21년부터 이루어져 있었던 내용임에 비추어 볼 때 22년도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추진을 위한 본 기관만의 노력이 무엇인지 다소 미흡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 거쳐 결과물이 외부에 달려 있음.

(3) 육아정책 플랫폼으로서 대내외 교류·협력 다각화

〈우수한 점〉

-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새 정부 국정과제 분석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중점사업을 선정한 점은 우수함.
- 육아정책플랫폼으로서 대내·외 협력의 중요성을 적절히 판단하였으며, 육아정책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네트워크 포럼 등 대내외 교류협력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존재함.
- 기관의 주요 추진사업의 확산과 정책이슈화를 위해 다계층 다채널을 통한 활발한 여론구축 활동, 특히 정보화수단을 통한 활성화 노력이 우수함.
- 글로벌 포럼 참석, 국내 네트워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육아방송), 국외 네트워크(우즈베키스탄, The Lego Foundation)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관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관련행사가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기관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에 근거한 실적관리가 요구됨.
- 국책 연구기관들이 대내·외 교류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사업과 관련한 기관장의 노력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음.
- 교류협력의 형식적 다양성이 미흡하며 추진 내용이 대체로 기관 및 연구성과 홍보에 치중되어 있음.
- 국내 네트워크 구축은 MOU체결에 불과하며 실질적 협력 수준이 미흡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SWOT 분석을 통해 기관의 대내외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관의 약점과 위협을 분석함으로써 기관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도출함.
- 대내외 연구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함.
- 조직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법인화 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기존 ‘경영지원국’을 ‘경영지원실’로 격상함.
- 저출산 등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영유아가족실’을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로 개편함.
-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목표에 관련된 사업 또는 연구를 진행함.
- 노사 경영 협의 외에 연찬회, 설명회 등 노사 화합과 신뢰 증진을 의사소통을 활성화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운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최근 공공기관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운영 효율성에 대한 기관의 추가적 관심이 필요함.
- 사업 추진 이후 성과 또는 미진한 점 등 실제적인 타당성/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추가 개선의 필요성 여부 점검, 개선 방안 도출 등 조직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효과 분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PDCA 기반의 조직성과 관리 체계와 구조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Plan단계에서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Do단계에서 추진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실행과정이 구체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Check단계에서는 실천계획의 중간점검 또는 모니터링 계획과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를 구분하고, 사전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에서 정량적 KPI를 구성하여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고 기술되었으나, 실제 정량적 지표를 통한 성과관리는 부족함.
-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4건의 고충처리가 지연되거나 타 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직원 고충에 대한 기관의 대응과 대처가 부족함.

- 고충처리위원회 외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총 27건의 제안 중 11건이 미 채택되는 등 직원 제안에 대한 기관 대응의 적극성이 부족함.

②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2021-2023년 경영목표, 저출산 육아인프라 대응,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육아생태계 변화 등을 반영하여 내·외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년 로드맵을 정립하고 핵심가치 연계 5대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과 비연구직 및 행정직 평가항목의 정성 및 정량 평가의 반영비율이 매우 특성이 있으며, 비연구직의 업적평가도 정량·정성 각각 50%로 반영하는 것이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미래 연구 수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예측 및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회귀분석을 통한 모형을 개발하여 수요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존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기존의 일반화된 제도를 벗어나 제도적으로 보다 확대 강화된 보완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실적이 양적으로 미흡함.
- 교육훈련비의 집행 내역이 대폭 삭감되어 비용의 액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비연구직 교육 비용이 2022년에 현저하게 줄었는데, 교육예산 관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집행이 필요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기관 외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평가 항목이 원내활동인데, 원내외 활동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면 원내활동의 내용이 과다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분리하여 원외활동의 반영비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③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복무규정, 직원대외활동규칙,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의거하여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화된 대외활동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음.
- 대외활동은 일반 대외활동, 출강, 정책위원회 및 공동연구 참여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대외활동 지침 위반에 따르는 제재가 명시됨.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신고에 대한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점이 긍정적임.
- 복무관리를 위한 기관의 자체감사 등의 노력이 인정됨
- 연가저축제 도입, 연차휴가 관련규정 및 사용촉진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개인별 연차휴가 소진율이 100%에 달함.
- 전직원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참여하고 있음.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연구연가 선발절차 및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종료 후 연구연가 결과보고 및 학술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관리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구체적 대외활동에 따른 제재 사항과 양형기준에 대해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함.
- 대외활동의 10일 초과 사후신고 건수가 연구직에 한해 발생하고 있는데, 대외활동 신고에 대한 연구직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대외활동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자체감사 강화를 통해 부적정한 근무의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복무관련 자체 감사와 전 직원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관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운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되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연근무제 고도화 방안 마련을 권장함.
-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다만, 업무 성과 향상 상관도의 결과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 업무 성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및 조사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임.
- 연구연가 및 안식년의 국내외 다양한 훈련기관 파견을 통해 연구년을 계기로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휴식과 연구력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식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식년 대상자들의 연구연가 수행국가는 대부분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관의 국제교류나 내부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의 연수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1-3. 사회적 책임

①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적극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실적이 양호함.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결혼,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단계별로 정리하여 매뉴얼을 배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계별, 즉 임신을 앞둔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등 lifecycle 별로 정리하여 홍보하고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하길 바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②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기관 규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10% 내외로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대체자나 수탁 과제 위촉자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정책의 방향에 맞게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대시키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함.
-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무기계약직 인력의 직급체계 개편 합의를 완료하였고 '22년 보직을 부여 받는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
- 중장기 사업계획과 인건비 예산분석을 반영하여 정규직, 대체근무자, 위촉연구원,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청년인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관차원의 계획과 실적, 실적에 따른 차년도에 반영이 필요한 피드백의 체계를 통해 비정규직 안정화를 위한 기관의 지속적 노력을 제시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함.

③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연구직과 비연구직종별로 직무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4년 최초 퇴직자 발생 전 임금 피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퇴직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를 위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량 경감계획 마련과 신규입사자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전수 될 수 있는 계획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직무에 따른 활용방식을 구체화하며 신규채용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구직과 행정직종별로 직무개발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업무경감방안이나 멘토링은 연구직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등 실제 운영되는 제도에 기반해 실적이 관리되고 이를 개선하고 피드백되는 체계를 갖추길 바람.

④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패행위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 관련 규정, 성범죄 방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최근의 법개정 내용 및 권고사항에 맞춰 현행화 되어 있음.
- 부패행위자처벌과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모니터링제도, 일상 감사 등의 내부감사시스템이 갖추어져있고, 청렴 클린센터 등 옴브즈만 제도와 클린센터 등 내부 견제시스템도 잘 운영되고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기본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관리와 결과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 비대면 전자계약 원칙, 신고센터 운영, 담당자 교육 강화 등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인권경영개선사항에서 '21년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22년 하반기 개선 완료 조치하였음.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경영추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교육이수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전직원 교육실적 90%이상, 관리자 교육실적은 반드시 100%를 충족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와 교육실적을 연동시키는 등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윤리기본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나 대외적인 갑질 및 불공정 거래근절교육, 채용비리예방교육,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등의 관련 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특성과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실적도 관리해나가기 바람.
- 청렴유지 교육이 전직원 대상은 59.4%와 관리자 대상은 84.6%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반부패 청렴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건제시스템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 클린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나, 부정부패에 한하고 있고 연구윤리, 갑질,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사이트는 미흡하므로, 외부신고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갑질방지를 위한 자가점검을 진행하였으나 내부조사에 그치고 있으므로, 외부 공급망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실태조사를 반영하여 갑질근절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
-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 실적이 낮은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윤리경영에 대한 관리자의 교육참여를 독려하고 채용비리 근절 교육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최근의 연구윤리 이슈를 반영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규정은 갖추어져 있으나 채용비리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음. 블라인드 채용, 사전심사제도, 단계별 전형, 제척 및 기피제도 운영, 전형별 중복참여 배제, 채용담당자 교육, 채용비리 상시감사, 감사담당자 채용입회, 사후 채용점검위원회, 이의신청제도 채용결과 공개 등 기본적인 채용방지시스템의 운영 실적을 관리해나가기 바람.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청렴한 채용을 위한 예방 교육이 필요함.
- 현재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시 혹은 필요시에만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할 것을 제안함.

- 인사관리규정에 특별채용 부분이 남아있으므로 최근의 규정동향을 살펴 정비하기를 권고함.
- 성희롱예방지침 상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6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인으로 구성된 실적을 제시하였으므로, 규정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기는 하나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 인권경영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위원구성비율을 재검토하여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는 연 1회 개최하였음. 인권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 혹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결과 보고 등 주요 인권경영 의사결정 시에도 인권경영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인권경영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22년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긍정률 분석, 해당없음 사항 점검 등을 통한 체크리스트 재검토, 후속조치사항 발굴, 차기 계획 반영 등 인권영향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결과개선을 위한 조치 또한 제시되지 않았음.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차기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항목(성차별적인 제도개선,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외부 고객 등) 추가 여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 및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기 바람.
- 인권경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외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인권경영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인권침해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사이트를 구축하기 바람.

⑤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150%(연구인턴 2명, 행정인턴 2명)로 우수함.
- 청년인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이 우수하며, 전반적으로 인턴 채용에 대한 내용과 그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예산 인건비 및 연구정보활동비 집행률이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함.
- 청년인턴의 단순 취업 현황 관리만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환류 체계 및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 인턴기간 종료 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 만족도, 의견 등이 어떻게 기관의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정하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우수 인턴에게는 우대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정규직(계약직 포함) 채용 시 우대조치에서, 공개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다만, 포상 수료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단계 생략의 인센티브 지원은 긍정적임).

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전체 채용자수 대비 여성비율이 83%로 여성채용비율이 높음.
- 2022년 KICCE 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채용 절차 강화하여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됨.
- 관계부처 합동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기준을 활용하여 매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 2022년 임원 20%, 관리자 28% 목표 대비 임원급 여성관리자 비율 100%, 부서장급 여성관리자 비율 75%, 중간관리자급 여성관리자 비율 38% 등 전체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 비율 54%로 달성이 인정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음.
- 영상교육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 공동 법정의무교육 위탁 운영기관을 이용하여 전 직원 교육이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우수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이 없고, 신규채용, 대체인력채용, 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신규 채용 여성 비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총 채용자 중 여성인력의 비율이 83%인 바, 오히려 사회적 형평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성 인력의 역차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여성보직자 임명 비율이 높으나 재직 인원 대비 평균 이상을 목표치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력 활용의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 자체의 연도별 성별 보직자 관리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여성보직자 및 여성인력 채용 확대노력으로 여성인력과 여성보직자의 채용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전체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54%로 나타났지만 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매우 미흡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직원참여 정도가 40%, 부서장 대상 23.1% 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직원 참여정도가 53.9%와 부서장 참여정도가 46.2%로 매우 저조하여, 특단의 개선이 필요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⑦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우수한 점〉

-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였으며, 2022년 비정규직 중증장애 1명 고용·유지하였음.
- 장애인 구인 활동의 적극성으로 규칙제정, 채용시 장애인 우대조치가 전형별 5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기 위해 채용 시 제도 마련, 적극적 장애인 구인 활동 지속, 장애인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한 3가지 적합 신규 업무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국가유공자에 대해 전형단계별로 가점부여의 우대조치 마련하여 직원채용지침에 명시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유관기관과 협력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장애인 채용실적이 없고,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 3.5%로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며, 특별채용이나 전향적 대안의 모색도 다소 미흡함.
- 유관기관과 협력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국가유공자 신규채용실적이 없어, 중장기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 채용, 인력풀 확보, 우대조치의 한시적 상향 적용,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실시, 국가유공자 적합 직무 개발 등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이며 차별적인 노력이 필요함.

2-1-4.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32건 중에 28건 완료하고, 2건 추진 중, 그리고 향후 반영은 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가 우수함.
- 자격을 가진 감사전문 인력이 부설기관으로 1인과 겸무 1인으로 적정하고, 해당 담당인력이 5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점이 우수함.
- 감사실 운영 규정과 담당업무가 감사규정 제11조와 제12조 등에 근거를 명확하게 한 점이 확인 되고, 감사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선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미흡한 점(개선 및 건의사항)〉

- 예산 수반이 필요하거나 예산 및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이행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함.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 중’이나 ‘일부완료/추진 중’에 대해 연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동 대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공통 지적사항에 관한 연구기관 자체의 선도적 대응 전략 (또는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 기관장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이 이행되지 않은 점이 지속적인 미이행에 해당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전 직원 대상의 일반교육 외에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개발과 교육 효과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고, 감사 관련 자격증 취득과 같은 감사 역량을 입증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비상임감사 활성화 방안 준수로 인해 기관장과의 정례 업무협의 개최나 정례보고 등에서 제시된 비상임감사의 검토의견이나 조치사항 등을 통해 실제 효과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추가할 것을 건의함.
- 전 직원 대상 감사교육 내용에 있어 청렴, 부패방지, 인권 등 특정 주제에 국한하여 실시된 경향이 있어, 다양한 감사교육 확대가 필요하고 원내 임원과 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퇴직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등 자체 감사활동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22년 자체감사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대비 일부 미준수 여부가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함.

- 감사위원의 역량 수준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외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이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 이후 자체감사에 적용한 내용이나 감사 사례집을 작성 및 배포하여 효과성을 확인하는 노력을 할 것을 건의함.
- 자체감사 실시가 12월에 진행되어 개선조치 진행 중임에 따라 향후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에 시기를 앞당겨 연내에 완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감사처리와 감사결과 관리(재심의 신청 및 이행결과 통보)를 연말에 완료할 것을 기대함.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지원반

한 윤 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장
이 지 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 평가부장
이 진 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 평가부 전문위원
여 지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 평가부 전문위원
문 승 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 평가부 부전문위원
이 승 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 평가부 부전문위원
정 준 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 평가부 파견직
박 민 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 평가부 인턴

인 쇄 2023년 5월

발 행 2023년 5월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8층

홈페이지 www.nrc.re.kr
